

2019년도

#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2019. 12





# Contents

## Part I

### 조사개요

04

## Part II

### 조사 결과 종합편

10

- |               |    |                            |    |
|---------------|----|----------------------------|----|
| 1. 한국관련 정보 인지 | 12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 31 |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15 | 7.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br>시급한 과제 | 36 |
| 3. 한국 방문 경험   | 16 | 8. 요약 및 결론                 | 37 |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7 |                            |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21 |                            |    |

## Part III

### 국가별 조사 결과

54

- |           |     |              |     |
|-----------|-----|--------------|-----|
| 01. 중국    | 56  | 09. 브라질      | 216 |
| 02. 일본    | 76  | 10. 영국       | 236 |
| 03. 태국    | 96  | 11. 프랑스      | 256 |
| 04. 인도네시아 | 116 | 12. 독일       | 276 |
| 05. 인도    | 136 | 13. 러시아      | 296 |
| 06. 호주    | 156 | 14. 아랍에미레이트  | 316 |
| 07. 미국    | 176 | 15. 남아프리카공화국 | 336 |
| 08. 멕시코   | 196 |              |     |



## ●●● 일러두기

1.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2015년, 2017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18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16개국의 국민, 국가별 각각 500명씩 총 8,000명(외국인 7,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19년 국가이미지 조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16개국 (우리나라 포함)의 총 8,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10대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3. 표본추출방법은 국가별 인구통계정보에 따른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로 조사 패널을 선정했으며, '한국'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단순 인지자의 경우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4. 조사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일부 항목을 수정·보완하였고, 현대문화 분야를 '대중문화'와 '순수예술'로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전년도와 비교 시 '대중문화'와 '순수예술' 분야는 '18년 '현대문화' 응답값으로 제시하였다.
5. 본 보고서에서 응답 백분비(%)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pm 0.1\%$ 의 차이가 나는 반올림오차(Rounding error)가 있을 수 있다.
6. 복수응답 문항의 응답 백분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
7. 본 보고서에서 전체 응답자가 아닌 국가별 세부 응답자 특성별 분석자료는 일부 사례수가 30명 미만인 경우가 있어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8. 특정 문항에 있어 한 국가가 과잉대표되는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 의견은 별도 집계하였다.

Part I .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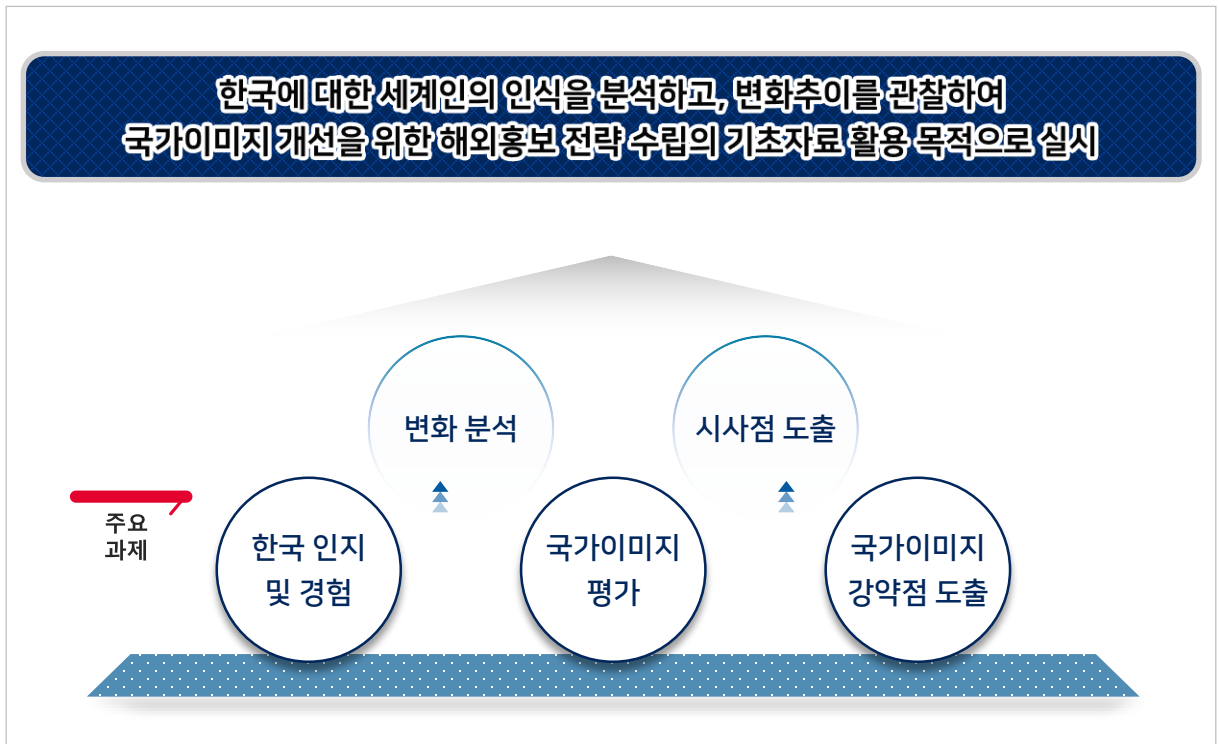




## 1 조사배경 및 목적

- 국가 주도로 국가이미지가 본격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약 20여년 전부터이며, 최근에는 분야별 국가이미지 진단 및 경쟁력 강화와 같은 활동을 통해 국가이미지개선 노력을 실행하고 있음
- 본 조사는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관찰하여 국가별 맞춤형 해외홍보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 하였음

| 그림1-1-1. 목적 |



## 2 조사 설계

그림1-1-2. 조사설계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국가 국적의 만16세~65세 성인 남녀(재외동포, 일시적 체류자 제외)</li> <li>▪ 한국 문화, 정치, 경제, 제품 등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li> <li>- 한국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단순 인지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li> </ul>
대상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포함 총 16개국</li> </ul>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온라인조사</li> </ul>
표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8,000명(각 국가별 500명씩)</li> </ul>
표본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성별, 연령에 따른 Quota sampling</li> </ul>
자료수집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7월 22일 ~ 2019년 8월 22일</li> </ul>

16개 국가 8,000명(국가별 500명)





### 3 조사 내용

표1-1-1. 조사내용

구분	설문항목	문항형태
한국에 대한 인지	• '한국' 관련 평소 접할 수 있는 분야	복수응답
	•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	단수응답
	• '한국' 관련 정보를 주로 접하는 경로	복수응답
	• '한국'에 대한 관심도	5점 척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 - 대중문화/순수예술/문화유산/경제/안보/정치외교/사회/스포츠	5점 척도
	• '한국인'에 대한 호감	5점 척도
	• '한국인'에 대한 호감/비호감 이유	주관식
	•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	주관식
한국 관련 경험	• '한국' 방문경험	단수응답
	• '한국' 방문 후 인상	5점 척도
한국 이미지 평가	• '한국' 자유연상 이미지	주관식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이미지 평가 - 인지도/경쟁력/호감도/대중문화선도/발전가능성	5점 척도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한 이미지 평가 - 인지도/경쟁력/호감도/순수예술선도/발전가능성	5점 척도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 평가 - 인지도/우수성/호감도/보존성/지속가능성	5점 척도
	• '한국 경제'에 대한 이미지 평가 - 인지도/발전정도/호감도/경쟁력/지속가능성	5점 척도
	• '한국 안보'에 대한 이미지 평가 - 인지도/해결능력/호감도/안전성/발전가능성	5점 척도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한 이미지 평가 - 인지도/발전정도/청렴성/우호적관계/발전가능성	5점 척도
	• '한국 사회'에 대한 이미지 평가 - 인지도/발전정도/치안수준/거주희망/발전가능성	5점 척도
	• '한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 평가 - 인지도/스포츠강국/호감도/국제대회개최 적합성/발전 가능성	5점 척도
한국 이미지 변화	• 1년 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대중문화/순수예술/문화유산/경제/안보/정치외교/사회/스포츠	5점 척도
	• 1년 전 대비 '한국'의 전반적 국가이미지	5점 척도
	• 1년 전 대비 '한국'의 전반적 국가이미지 변화 이유	주관식
	• '한국'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	단수응답
일반특성	• 학력	단수응답
	• 결혼여부	단수응답
	• 직업	단수응답
	• 연소득	주관식

## 4 응답자 특성

표1-1-2. 응답자 세부 구성\_외국인

구분		빈도(명)	백분비(%)
전체		7,500	100.0
성별	남성	3,748	50.0
	여성	3,752	50.0
연령	10대	740	9.9
	20대	1,625	21.7
	30대	1,723	23.0
	40대	1,543	20.6
	50대 이상	1,869	24.9
학력	고졸 이하	1,777	23.7
	대졸 이하	3,986	53.1
	대학원졸 이상	1,737	23.2
결혼여부	미혼	2,907	38.8
	기혼	4,130	55.1
	기타	463	6.2
직업	사무/ 기술직	2,046	27.3
	기업인/ 자영업	1,807	24.1
	서비스/ 생산직	1,041	13.9
	학생	804	10.7
	전문직	610	8.1
	기타	1,192	15.9
대륙별	동남아시아	3,000	40.0
	미주	1,500	20.0
	유럽	2,000	26.7
	중동	500	6.7
	아프리카	500	6.7
국가별	중국	500	6.7
	일본	500	6.7
	태국	500	6.7
	인도네시아	500	6.7
	인도	500	6.7
	호주	500	6.7
	미국	500	6.7
	멕시코	500	6.7
	브라질	500	6.7
	영국	500	6.7
	프랑스	500	6.7
	독일	500	6.7
	러시아	500	6.7
	UAE	500	6.7
	남아공	500	6.7

Part II.

# 조사 결과 종합편





# 1 한국 관련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1) - 평소 접하는 분야

- 한국 관련 평소 접할 수 있는 분야로 '대중문화'(65.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특히 높았음
-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안보', 러시아는 '경제' 관련 한국 소식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2-1-1. 평소 접하는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외국인(7,500)	중국(500)	일본(500)	태국(500)	인도네시아(500)	인도(500)	호주(500)	UAE(500)
대중문화	65.9	87.8	69.4	89.6	92.6	69.4	63.8	64.0
경제	51.0	59.6	35.0	56.2	55.0	59.8	41.0	52.4
안보	50.1	47.0	41.0	47.4	48.6	55.0	56.4	38.0
문화유산	46.3	63.6	38.0	56.2	53.6	59.4	51.2	46.6
스포츠	42.1	59.2	31.0	56.2	48.4	47.4	34.2	37.4
정치외교	40.3	49.6	39.6	36.2	35.4	47.0	39.8	30.8
사회	30.4	39.6	22.8	40.2	34.4	40.2	27.4	28.8
순수예술	25.5	43.2	12.2	30.0	30.2	38.8	19.2	34.6

	미국(500)	멕시코(500)	브라질(500)	영국(500)	프랑스(500)	독일(500)	러시아(500)	남아공(500)
대중문화	55.6	69.6	72.2	58.4	63.6	42.6	40.4	48.8
경제	35.4	52.0	56.6	40.8	52.6	57.4	67.2	44.4
안보	54.4	39.6	44.2	59.6	64.0	60.8	47.0	49.2
문화유산	47.4	34.0	42.2	42.4	38.8	44.8	35.6	40.8
스포츠	31.4	44.4	47.8	35.0	36.0	35.0	49.0	39.4
정치외교	44.8	32.6	42.8	43.8	42.2	45.8	36.4	38.0
사회	27.6	27.0	37.8	26.8	29.6	23.4	22.0	28.4
순수예술	25.2	19.8	27.6	18.8	27.6	19.6	15.0	20.4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2) -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

-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대중문화'(37.8%)이며, 아시아 국가와 미주 국가는 '대중문화'를, 유럽 국가와 호주는 '안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정치 외교 분야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2-1-2.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

(Base: 전체, 단위: %)

	외국인(7,500)	중국(500)	일본(500)	태국(500)	인도네시아(500)	인도(500)	호주(500)	UAE(500)
대중문화	37.8	65.8	45.0	69.8	71.2	28.0	30.8	36.8
경제	16.8	6.8	11.0	7.4	9.0	23.4	14.0	22.6
안보	13.9	5.0	7.2	5.8	4.0	12.4	22.4	9.4
문화유산	10.5	7.0	9.8	5.2	4.8	15.4	15.8	10.6
스포츠	8.3	10.4	7.8	6.0	5.2	7.0	5.6	6.4
정치외교	7.0	2.4	15.4	2.6	2.6	7.4	6.4	5.0
사회	3.3	1.6	1.6	2.4	2.0	3.6	2.6	6.2
순수예술	2.4	1.0	2.2	0.8	1.2	2.8	2.4	3.0

	미국(500)	멕시코(500)	브라질(500)	영국(500)	프랑스(500)	독일(500)	러시아(500)	남아공(500)
대중문화	30.0	41.6	39.2	25.0	28.8	15.2	18.4	21.8
경제	8.8	20.2	19.0	13.2	17.2	25.4	36.2	18.4
안보	21.4	8.8	9.8	22.4	22.2	26.4	13.0	17.8
문화유산	15.6	7.2	6.8	14.4	9.2	11.4	10.4	14.0
스포츠	7.2	11.0	10.6	9.4	8.6	6.2	11.4	11.0
정치외교	10.4	6.4	5.0	8.4	6.8	9.0	5.8	11.4
사회	4.8	3.2	4.2	4.0	5.4	3.6	2.6	1.6
순수예술	1.8	1.6	5.4	3.2	1.8	2.8	2.2	4.0

## 2) 한국 관련 접촉 경로

- 한국 관련 접촉 경로는 '방송'(66.6%), '온라인'(63.9%)를 통한 접촉이 많았으며, 그 다음은 '신문/잡지'(41.4%), '지인들'(28.2%) 순으로 이어짐
- 중국, 일본,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방송'을 통한 접촉이 많은 편이고,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중동 국가는 상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접촉이 많았음
-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의 경우는 '신문/잡지'를 통한 정보 접촉도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편임

그림2-1-3. 한국 관련 접촉 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외국인(7,500)	중국(500)	일본(500)	태국(500)	인도네시아(500)	인도(500)	호주(500)	UAE(500)
방송	66.6	84.4	81.4	71.8	75.6	65.2	63.0	56.2
온라인	63.9	77.4	52.0	87.4	86.4	77.8	50.4	73.6
신문/잡지	41.4	63.0	31.6	30.4	47.0	58.0	35.2	34.8
지인들	28.2	39.8	25.8	33.8	35.4	36.6	29.8	29.8
관광 안내서	22.5	36.2	8.0	30.6	34.4	39.4	15.8	28.8
관련기관	13.9	23.8	4.2	19.2	22.0	28.0	8.6	19.8
여행사	13.2	27.6	5.8	21.0	13.8	21.2	7.4	18.2
학교/강좌 교육	9.9	12.4	6.8	7.2	10.2	19.6	8.0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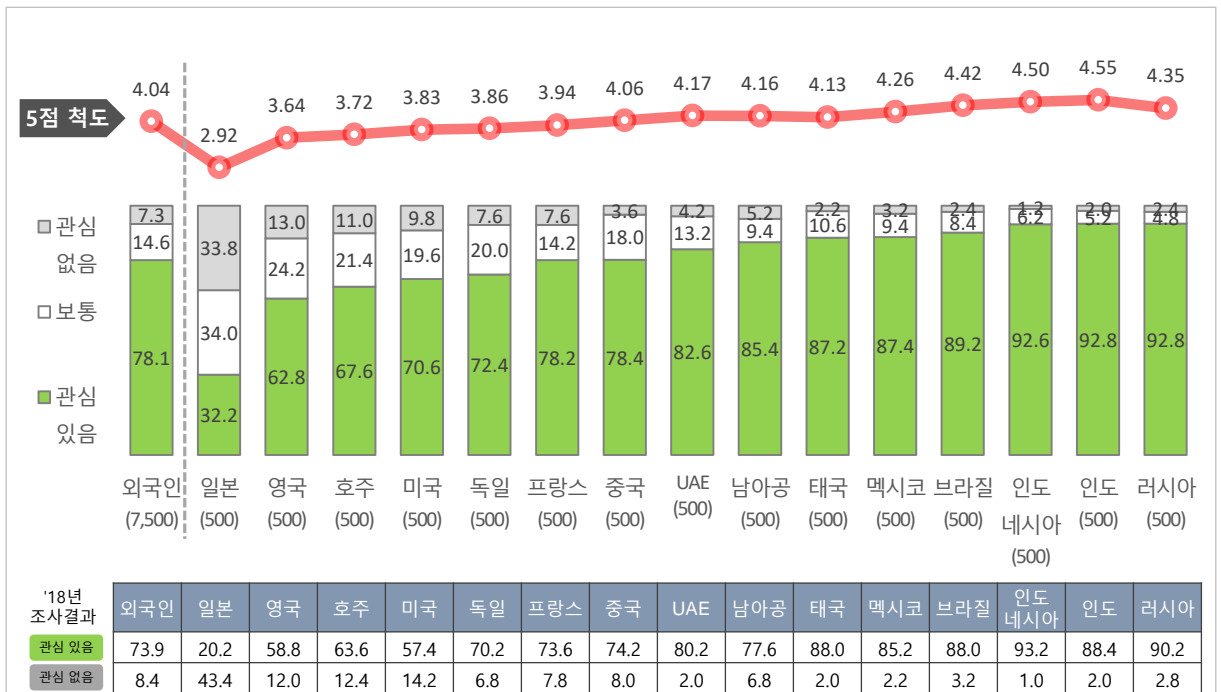
	미국(500)	멕시코(500)	브라질(500)	영국(500)	프랑스(500)	독일(500)	러시아(500)	남아공(500)
방송	57.6	43.2	68.8	66.6	67.2	60.6	69.2	67.8
온라인	48.6	78.2	73.2	42.8	45.6	40.2	60.8	64.4
신문/잡지	36.8	34.0	41.6	39.6	47.2	50.2	29.2	42.2
지인들	28.2	22.0	24.4	21.2	29.2	18.4	24.8	24.0
관광 안내서	12.0	25.2	23.8	12.4	18.6	13.2	19.8	19.0
관련기관	7.6	13.2	14.0	9.0	12.0	8.8	5.8	12.0
여행사	7.6	8.8	14.0	9.0	13.0	7.4	10.8	12.4
학교/강좌 교육	11.2	11.4	11.2	7.2	8.0	5.0	5.8	12.8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긍정률 78.1%로,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러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임
- 특히, 국가별로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가 특히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났고, 일본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관심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와 비교해 일본은 역사, 수출규제 등 한일관계 이슈, 미국은 북핵 이슈, 남아공은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POP의 영향으로 관심도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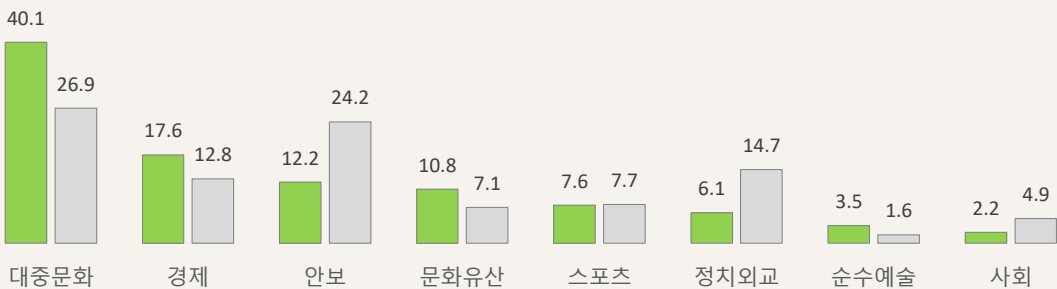
그림2-1-4.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 관심 있음(5,861) ■ 관심 없음(546)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 여부와 상관 없이 '대중문화'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었고,

그 외에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은 '경제', '안보',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관심이 없는 외국인들은 '안보', '정치외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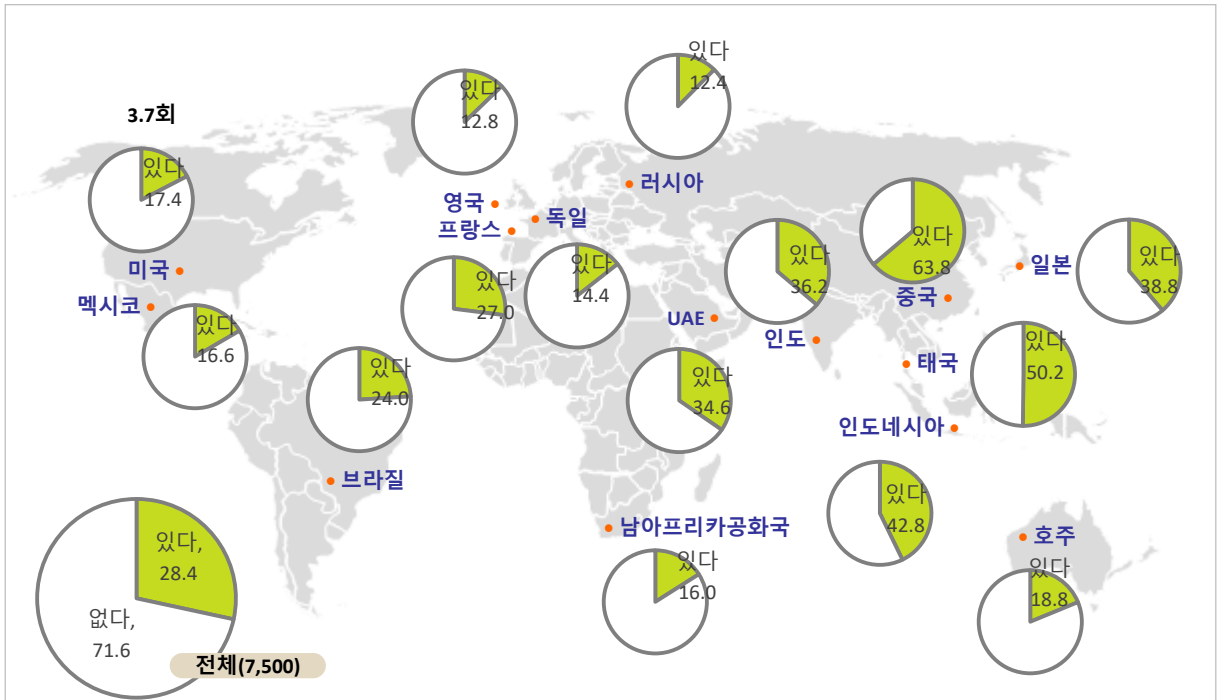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4%로 나타났고, 한국 방문 경험이 50% 이상인 국가로는 '중국'(63.8%), '태국'(50.2%)이 있으며, '인도네시아'(42.8%), '일본'(38.8%), '인도'(36.2%)로 이어짐
- 우리나라의 인접국일수록 방문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 방문 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86.6%로 매우 긍정 인상을 받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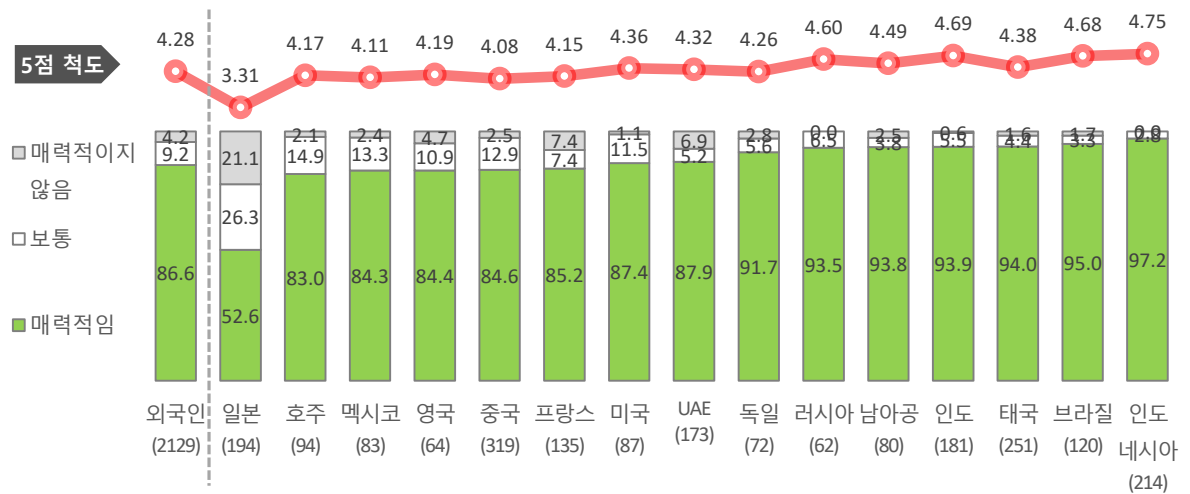
그림2-1-5. 한국 방문 경험

(Base: 전체, 단위: %)



####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1) - 전체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5점 만점 기준 모두 3점 이상으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호감보다 외국인들이 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분야별로는 '경제', '대중문화', '문화유산', '스포츠'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그림2-1-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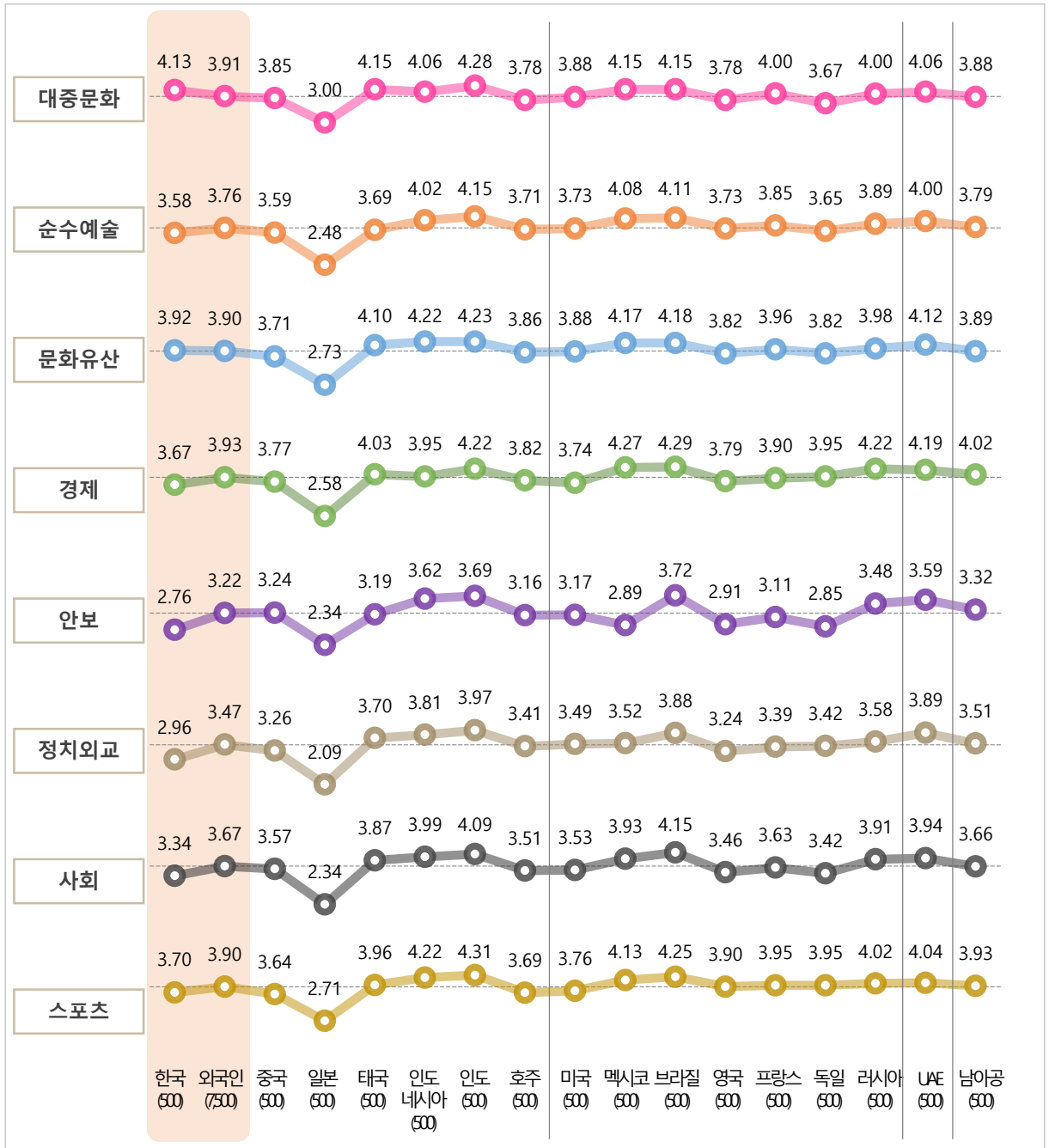


### 1) 분야별 호감도(2) - 국가별

- 국가별로는 일본이 호감도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2점대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대중문화'에서만 3점의 평가를 받고 있음
-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와 브라질, 러시아, UAE 등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2-1-7. 분야별 호감도 - 국가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 71.3%로 높은 편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평가를 받음
- 국가별로는 일본이 '부정' 42.0%로 '긍정' 18.6% 대비 높았고, 인도, 멕시코, 브라질, UAE 등은 상대적으로 긍정비중이 높았음
-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유로는 '친절하다', '예의바르다', '문화/전통', '근면 성실하다'순이고, 비호감 이유로는 '무례하다', '자기중심적', '정부/정치적 문제', '불친절하다' 등이 있었음
- 일본은 '반일감정'이 28.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속을 안지킴', '자기중심적', '역사문제', '정부/정치적 문제' 등을 부정이유로 많이 응답함

그림2-1-8.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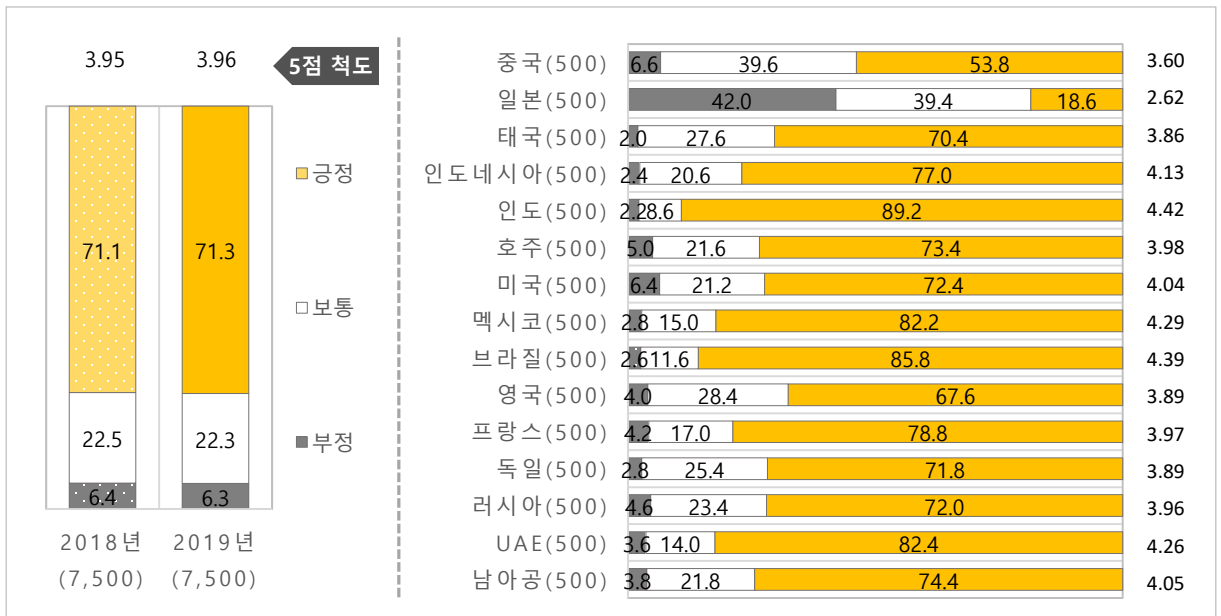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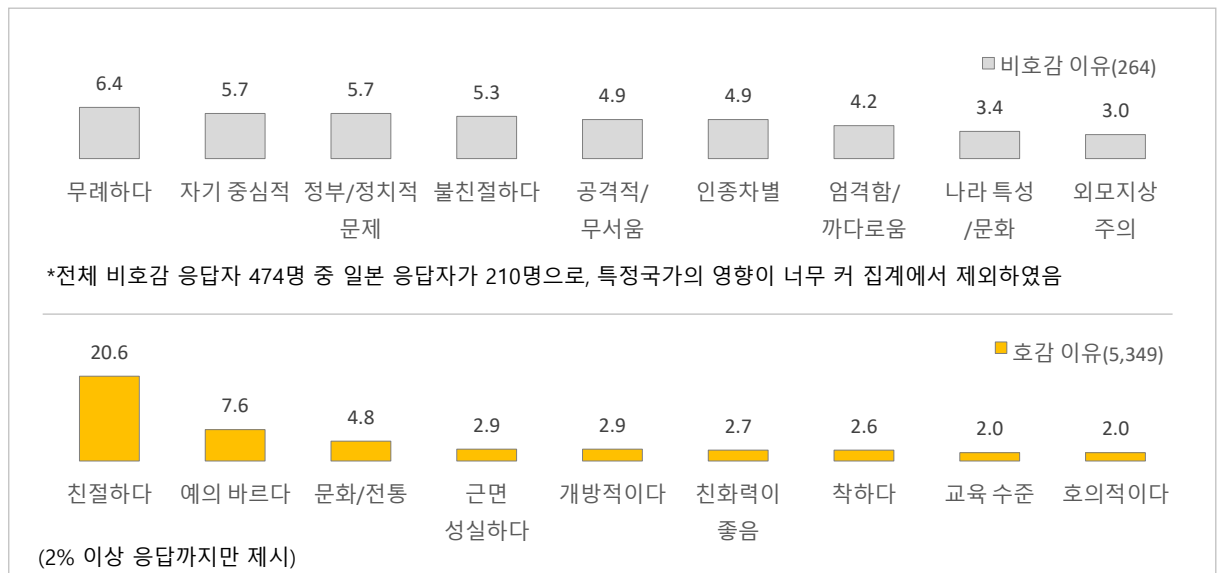


그림2-1-9. 한국인에 대한 호감/비호감 이유

(Base: 호감/비호감 응답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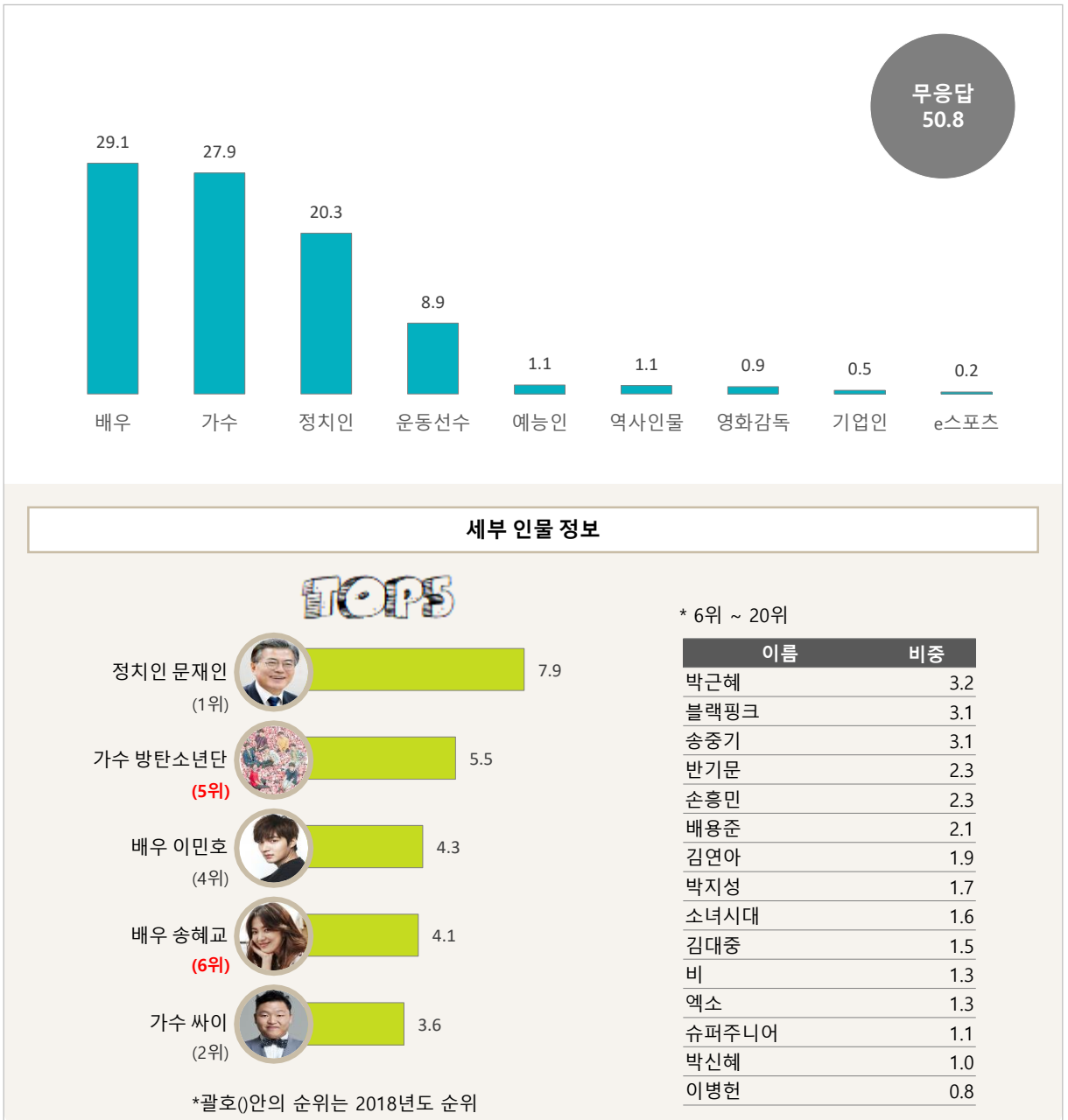


### 3) 대표적인 한국인

-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배우', '가수'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인', '운동선수' 순으로 나타남.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 경우도 50.8%가 있었음
- 구체적인 인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7.9%로 가장 높았고, '방탄소년단'이 5.5%로 2위를 차지해 2018년 보다 3순위 상승
- 그 외에 배우 '이민호', '송혜교', 가수 '싸이'가 Top5에 포함됨

그림2-1-10. 대표적인 한국인

(Base: 전체, 단위: %, 3명응답)



#### 세부 인물 정보



정치인 문재인 (1위)		7.9
가수 방탄소년단 (5위)		5.5
배우 이민호 (4위)		4.3
배우 송혜교 (6위)		4.1
가수 싸이 (2위)		3.6

\* 6위 ~ 20위

이름	비중
박근혜	3.2
블랙핑크	3.1
송중기	3.1
반기문	2.3
손흥민	2.3
배용준	2.1
김연아	1.9
박지성	1.7
소녀시대	1.6
김대중	1.5
비	1.3
엑소	1.3
슈퍼주니어	1.1
박신혜	1.0
이병헌	0.8

\*괄호()안의 순위는 2018년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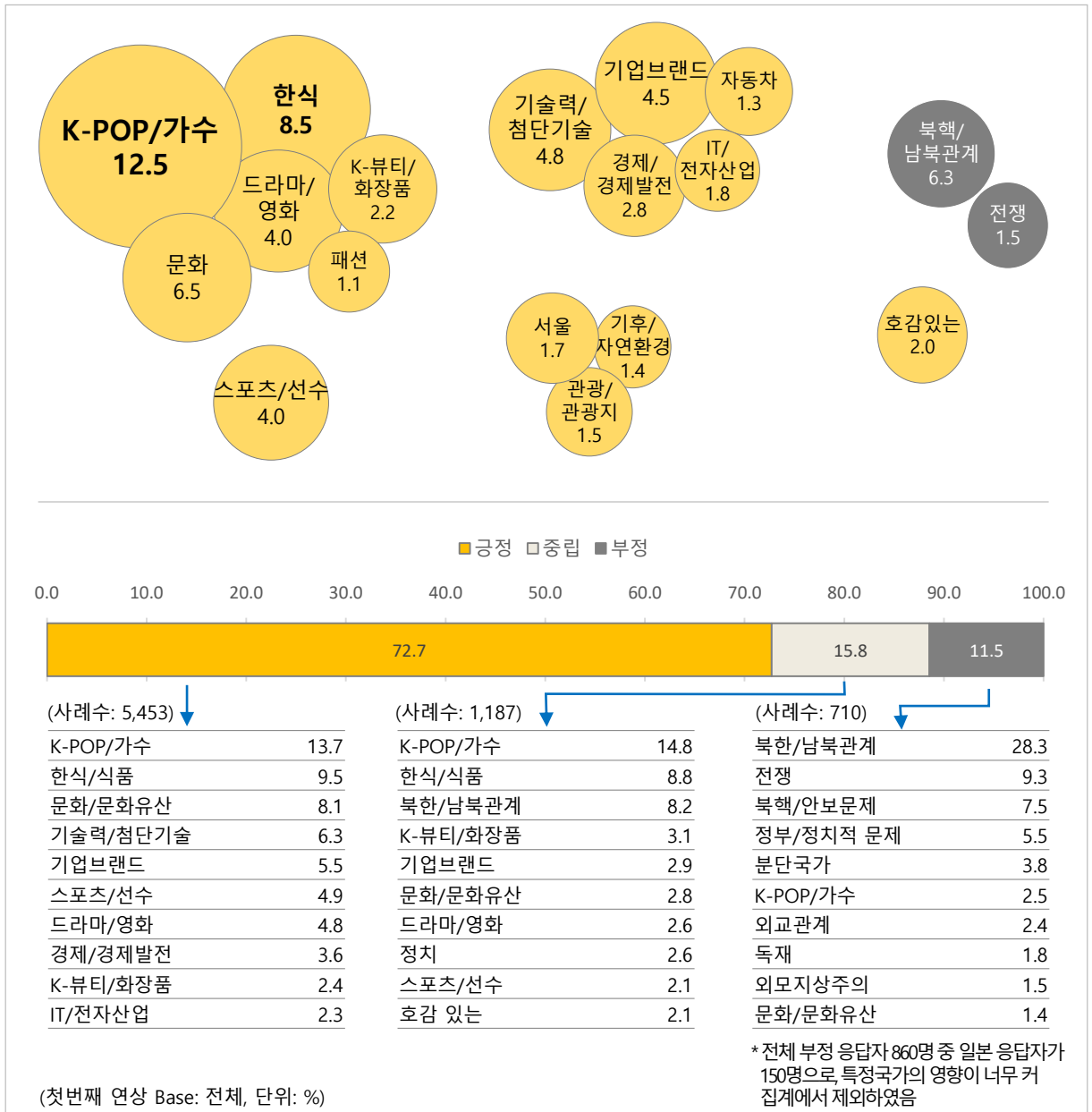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연상은 'K-POP/가수'(12.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식'(8.5%), '문화'(6.5%) 등 한류 관련 연상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술력/첨단기술'(4.8%), '기업브랜드'(4.5%) 등 경제 관련 연상 비중이 높았음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72.7%, 부정 11.5%로 긍정 연상이 월등히 우세, 부정적 연상 대부분 '남북관계'와 '전쟁', '북핵문제' 관련 내용이 많았음
- 일본은 '반일감정', '위안부문제', '거짓말쟁이' 등 부정적 연상이 높았음

그림2-1-11. 한국에 대한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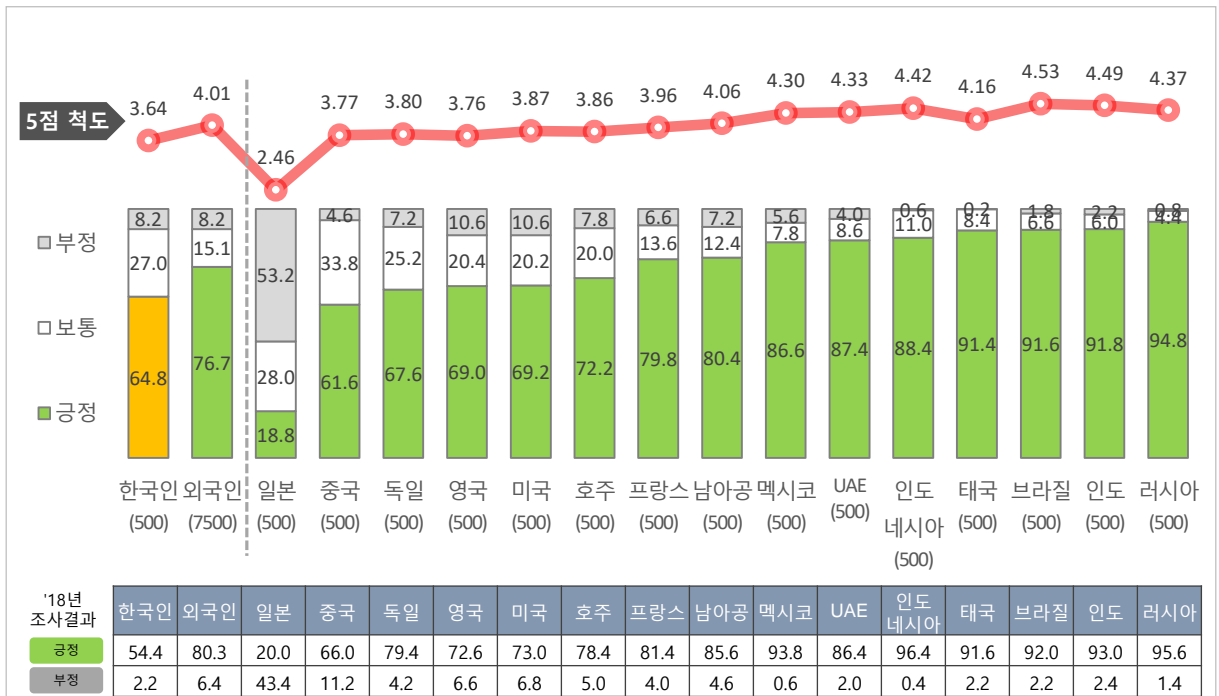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률 76.7%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대비 긍정 평가는 조금 낮아짐
- 국가별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가장 낮았고, 전년 대비 부정 응답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 이미지에 부정 영향요인으로는 '북핵문제', '정치상황', '국제적 위상' 등이 있었고, 긍정 영향요인으로는 '대중문화', '경제수준', '문화유산' 등을 꼽음

그림2-1-12. 전반적 이미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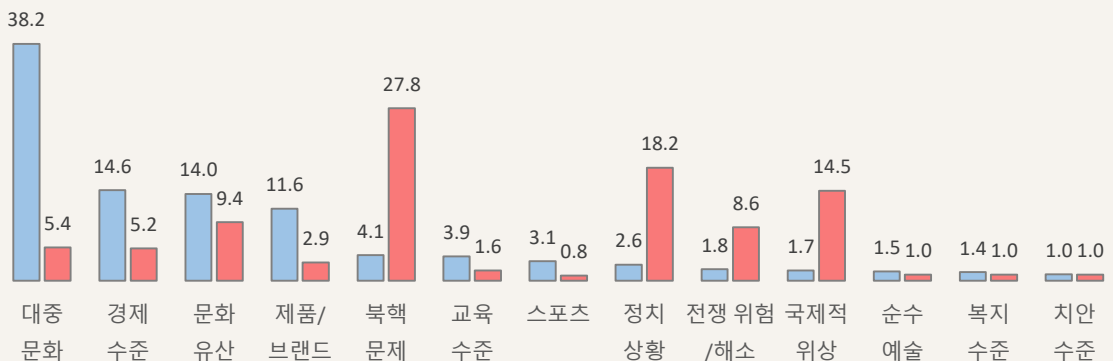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Base: 부정적/긍정적 응답자, 단위: %, 1순위)

### 이미지 영향 요인

■ 긍정응답(5,753) ■ 부정응답(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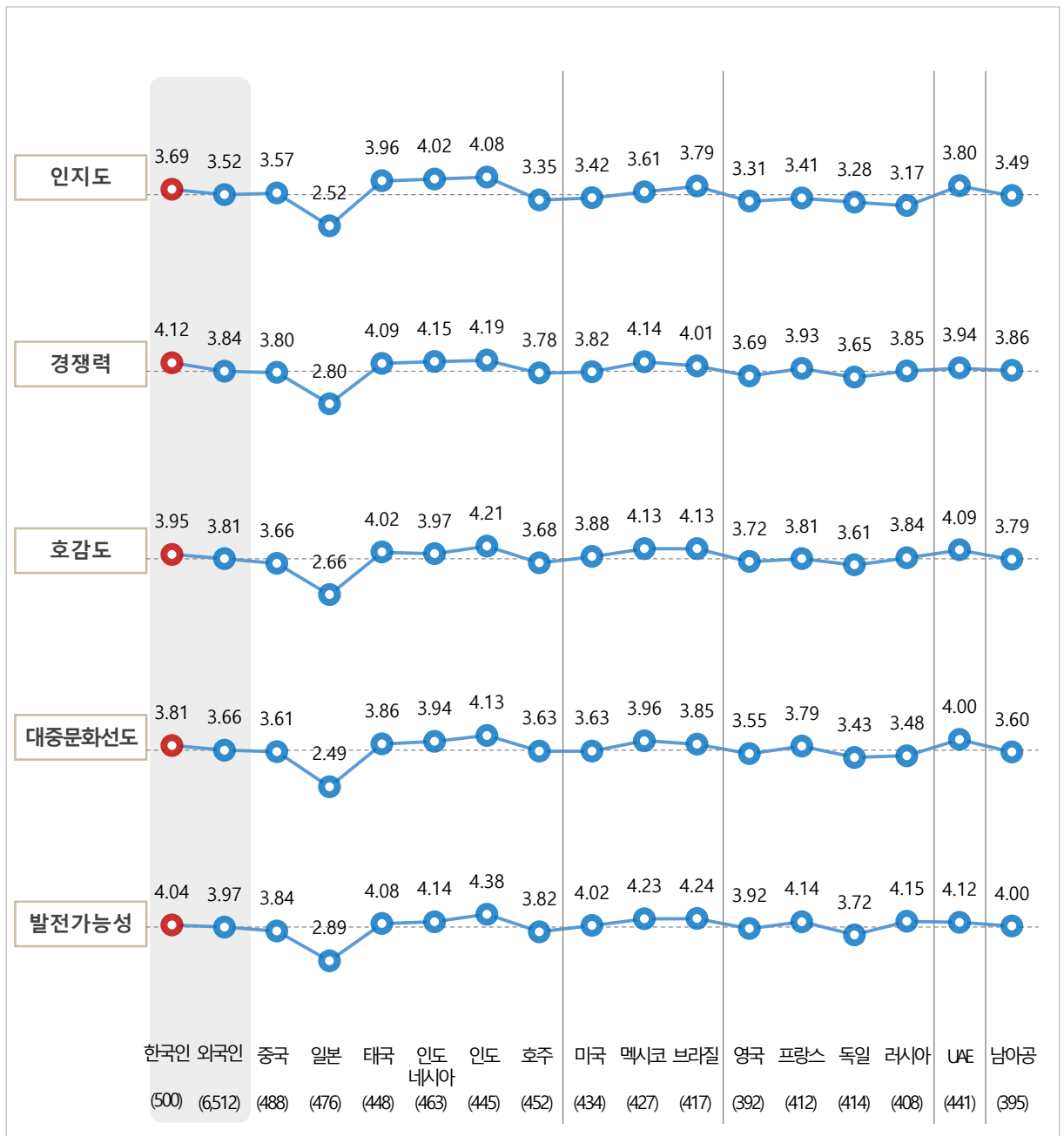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대중문화'에 대해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함
- 특히, '경쟁력'과 '발전가능성'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높았음
- 국가별로 보면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UAE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2-1-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_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도,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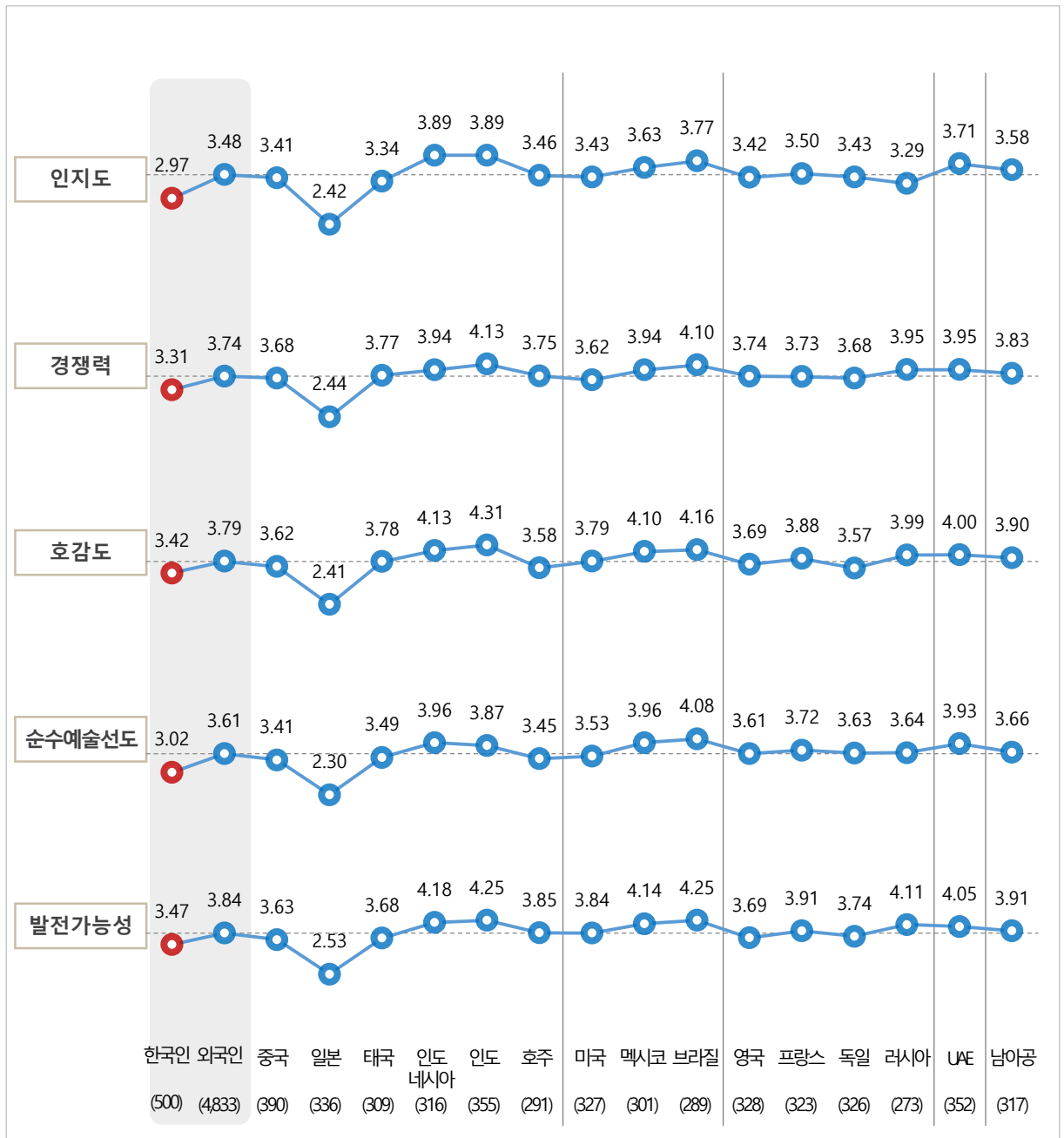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순수예술'에 대해 외국인 대비 한국인의 평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는 '순수예술 선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도'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로 보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2-1-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_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도,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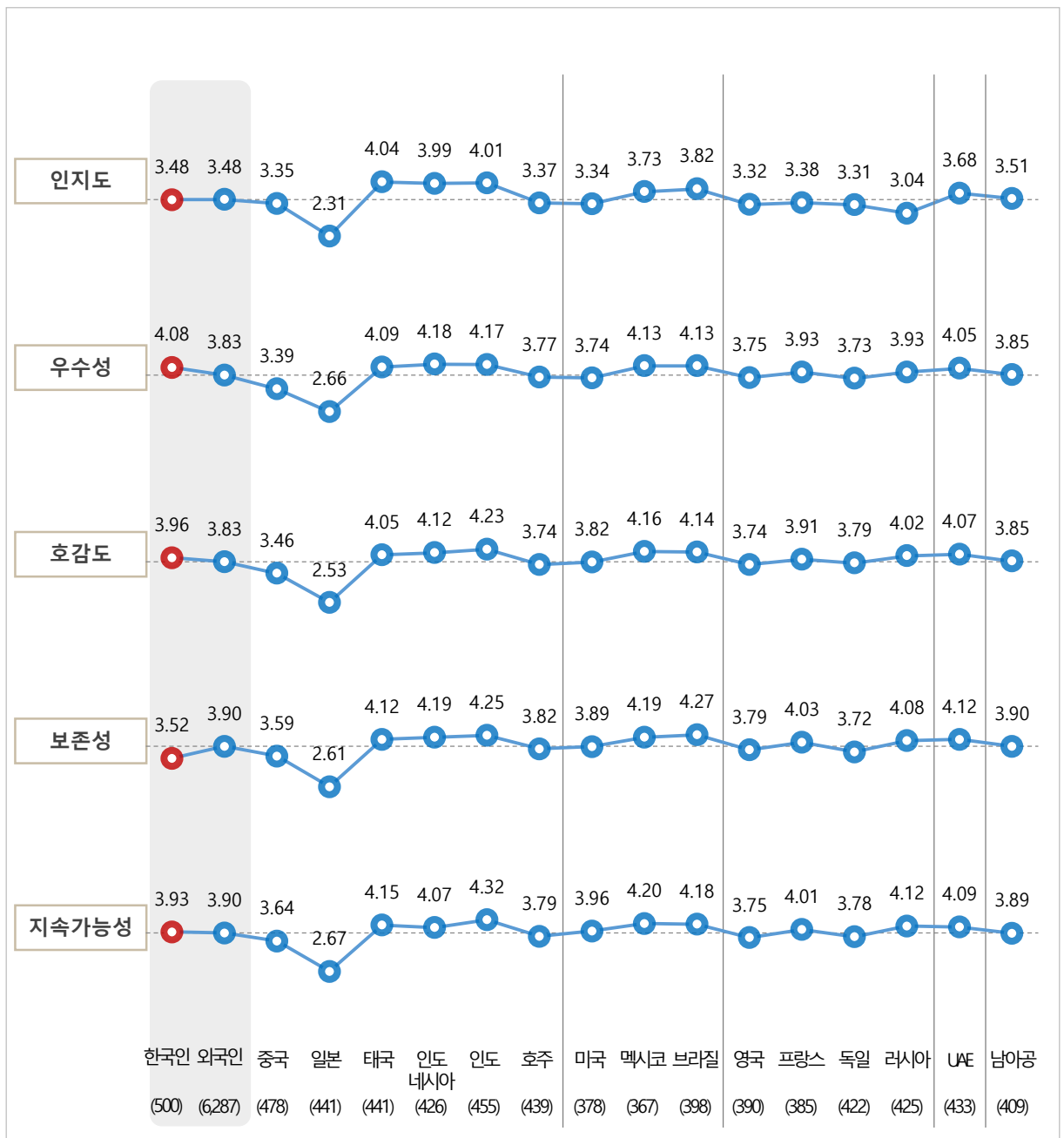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우수성', '호감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보존성'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과 중국은 낮은 평가를 하고 있으나, 동남아 국가는 4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독일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임

그림2-1-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_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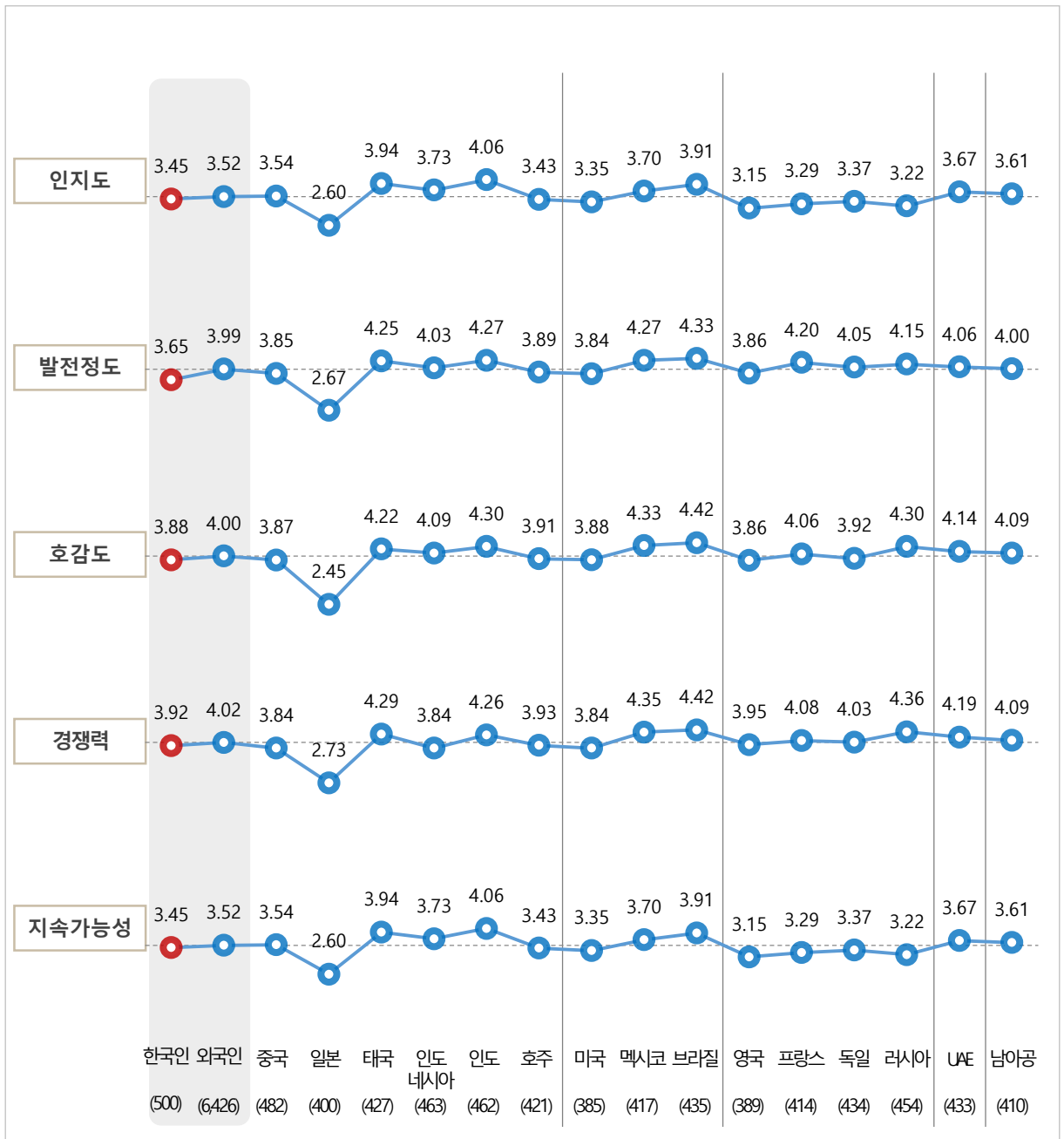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외국인들은 한국인보다 전반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해 좋게 평가하고 있으며,
- 특히, '발전정도' 측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큼
- 동남아 국가, 남미 국가 등 개도국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음

그림2-1-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_경제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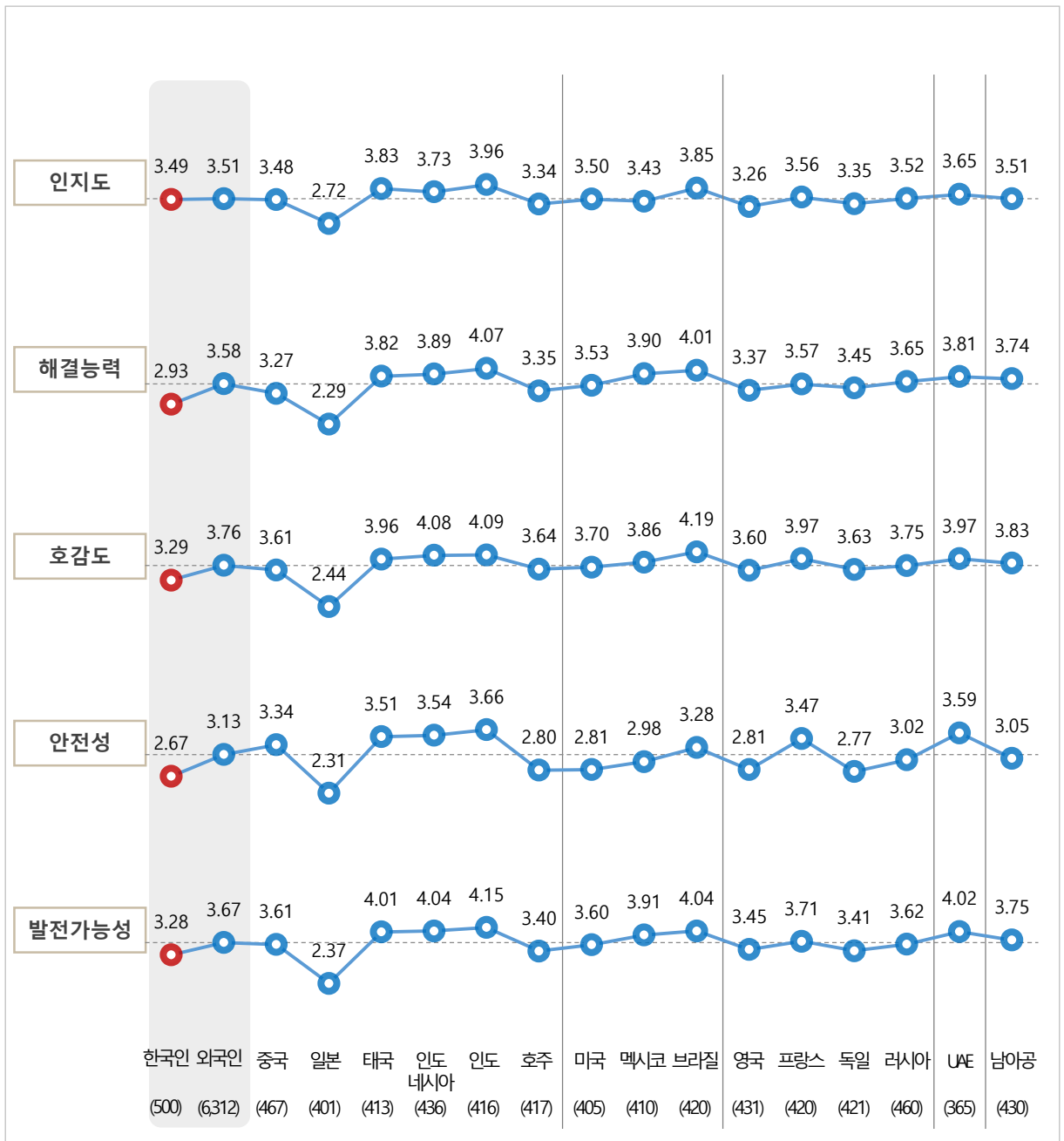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안보'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북핵'이나 '남북관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해결능력'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3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보임
- 국가별로는 일본, 호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로 선진국들의 평가가 낮은 경향을 보임

그림2-1-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_안보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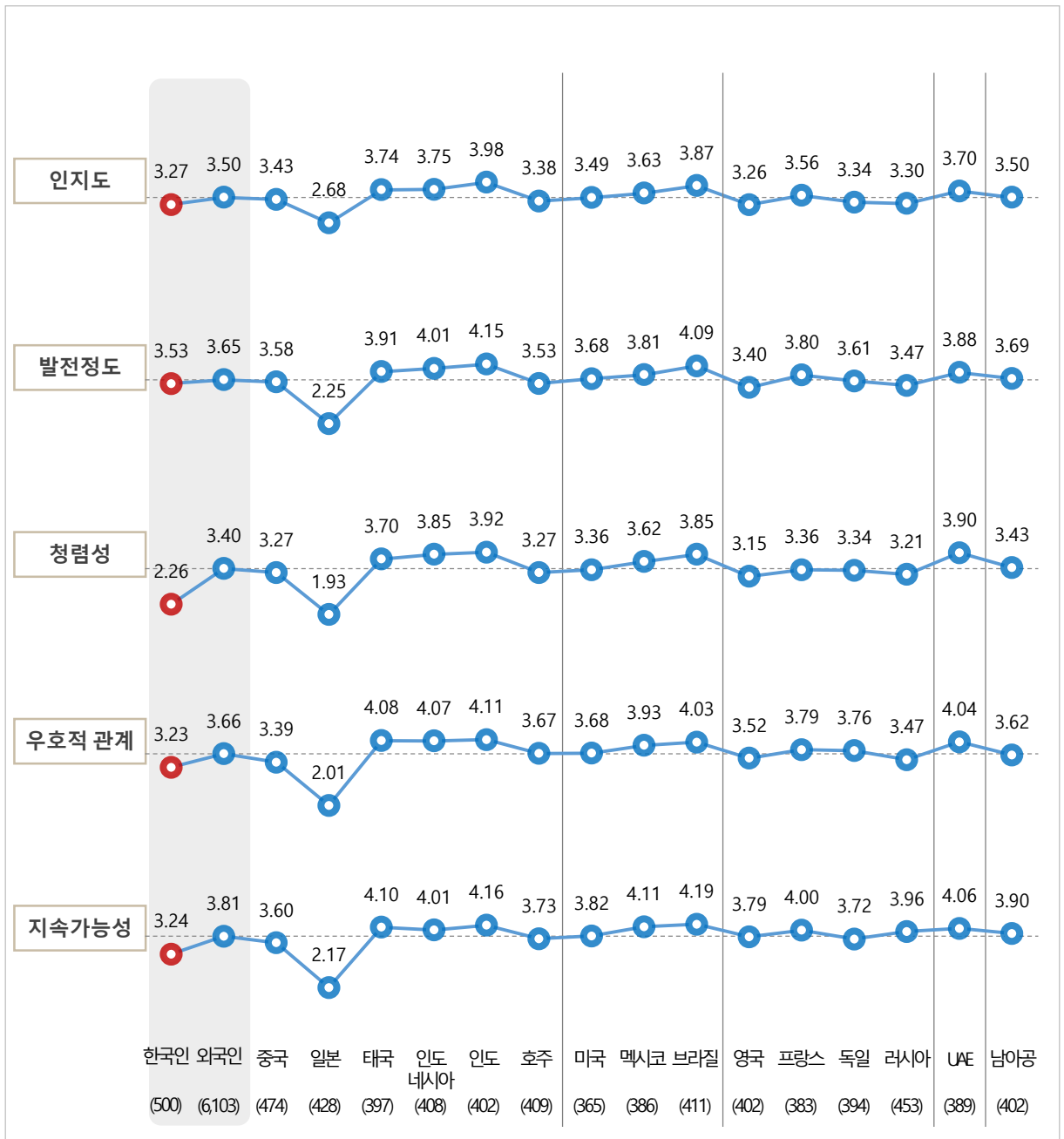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정치외교' 분야 중 '청렴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외국인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로 보면, '우호적 관계'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평균 이하의 낮은 평가를 함

그림2-1-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_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도,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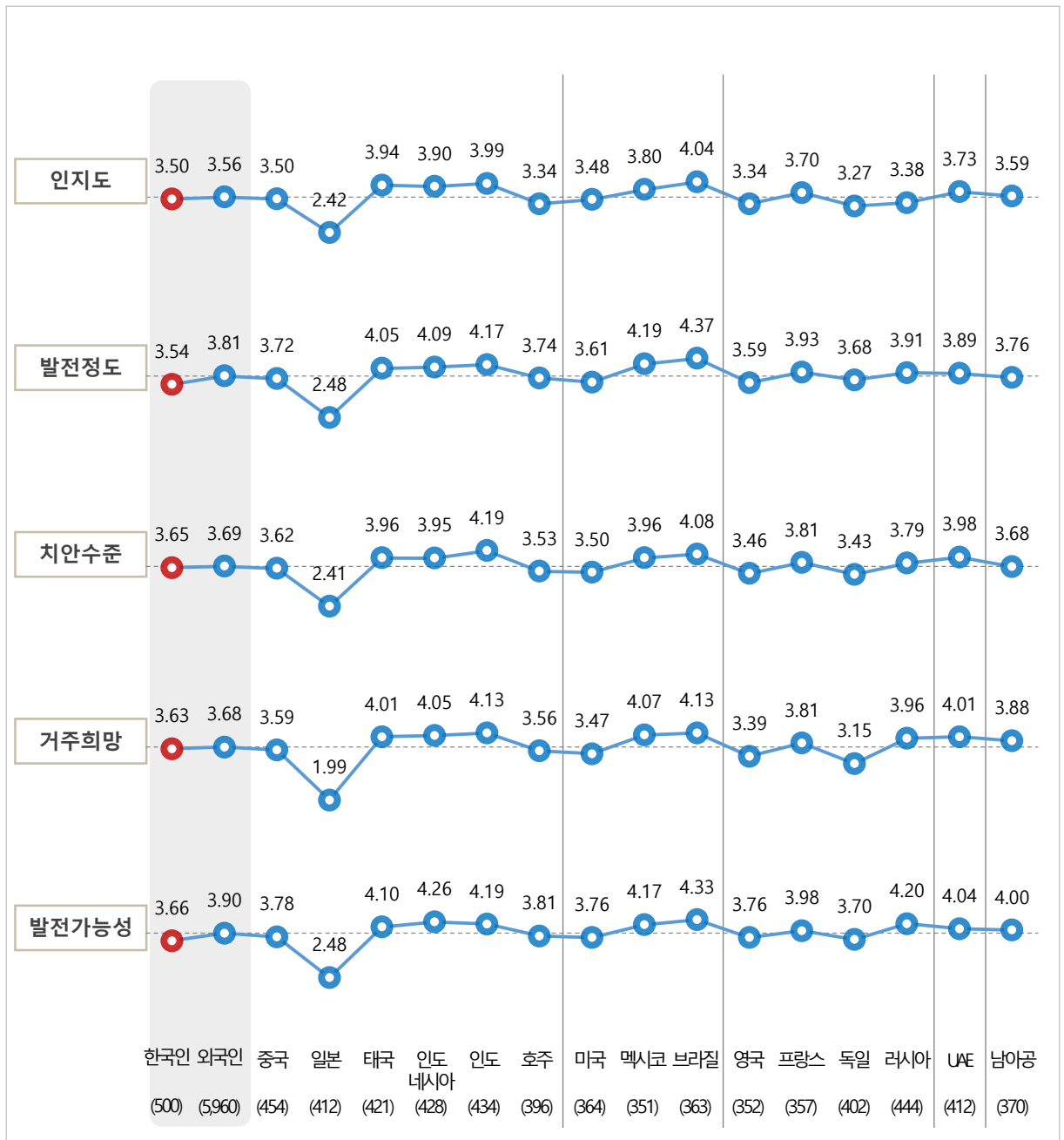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사회'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평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정도'와 '발전가능성'에서 한국인의 평가가 낮았음
- 국가별로는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부분 낮게 평가함

그림2-1-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_사회

(Base: 사회 인지도,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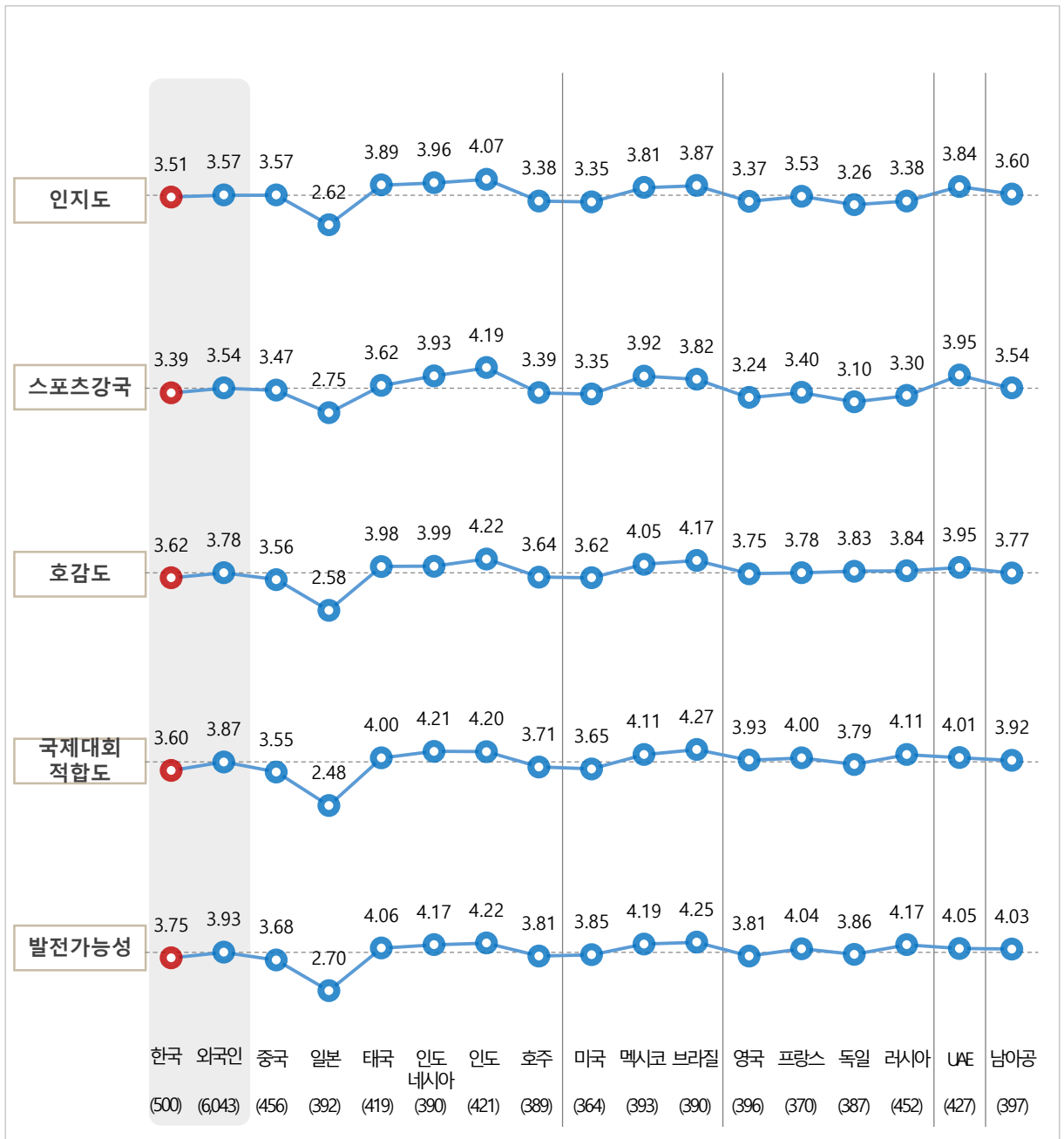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스포츠'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외국인 평가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2-1-2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_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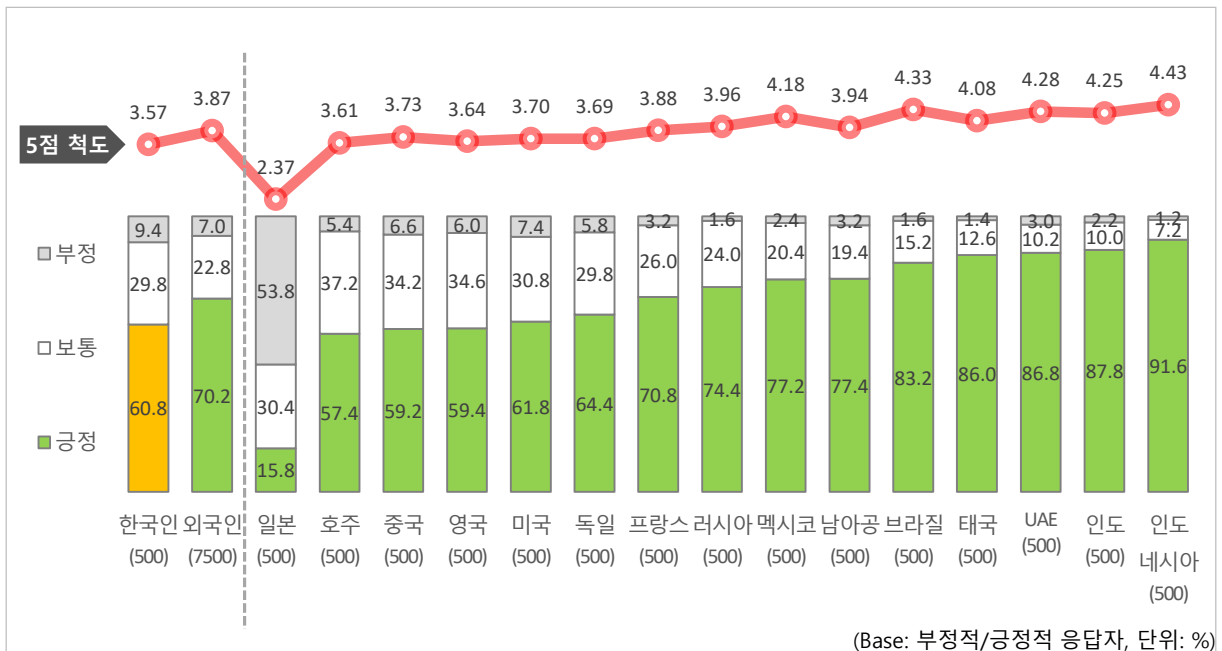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1년 전과 비교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 비중이 70.2%,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 비중이 7.0%로, 긍정 변화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 UAE, 브라질에서 긍정적 응답이 높았음
- 부정적 변화 이유로 '정치적 문제'와 '북한 관련 이슈'가 많이 언급되었음
- 일본은 부정적 변화가 더 높았는데,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반일감정', '역사적 문제', '정치적 문제', '약속을 안지킴' 등의 응답이 많았음

그림2-1-2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Base: 부정적/긍정적 응답자, 단위: %)

#### 긍정적 변화 이유(3,009)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7.2
문화/전통	6.9
사회/경제/경제발전	5.1
더 많은 정보를 접함	4.7
북한/남북관계	4.5
기술력/첨단기술	4.3
K-POP/가수	2.9
정부/정치적 문제	2.7
호감/호의적임	2.4
지속적인 성장/발전	2.2

(2% 이상, 상위 10개 응답까지만 제시)

#### 부정적 변화 이유(245)

정부/정치적 문제	14.3
전쟁/핵 위험	12.2
북한/남북관계 문제	9.0
부정적 매체의 영향	6.5
외교문제	2.9
개고기	2.4
민주적이지 않음	2.0
한미관계	2.0
한중관계 악화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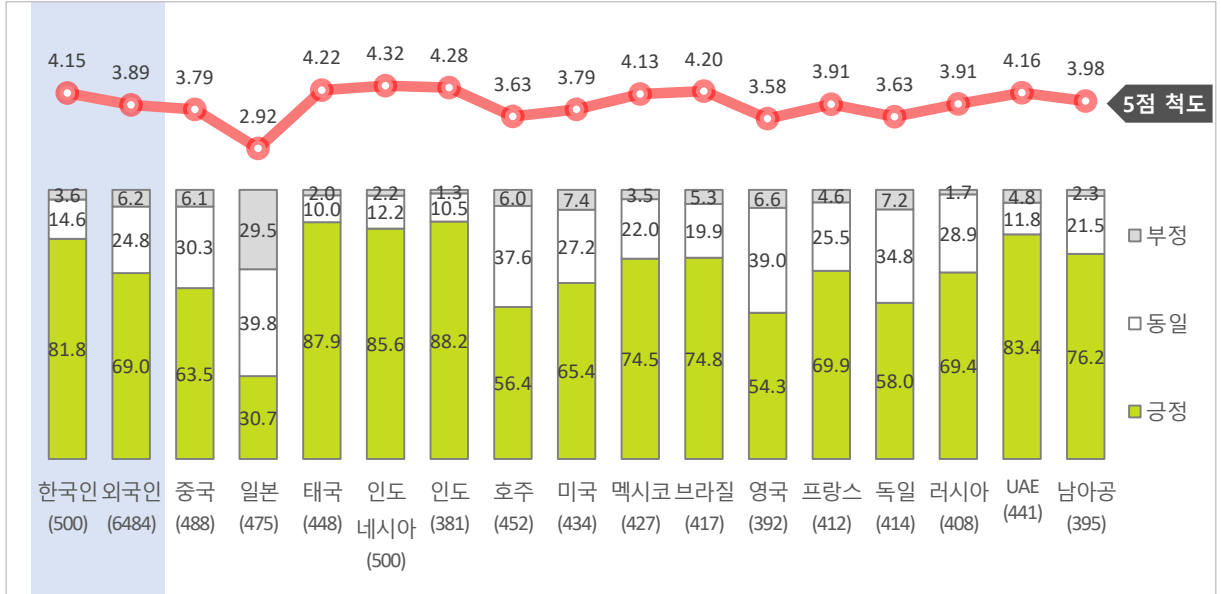
\*전체 부정 응답자 514명 중 일본 응답자가 269명으로, 특정국가의 영향이 너무 커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 2) 대중문화

- '대중문화' 분야는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국가별로는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UAE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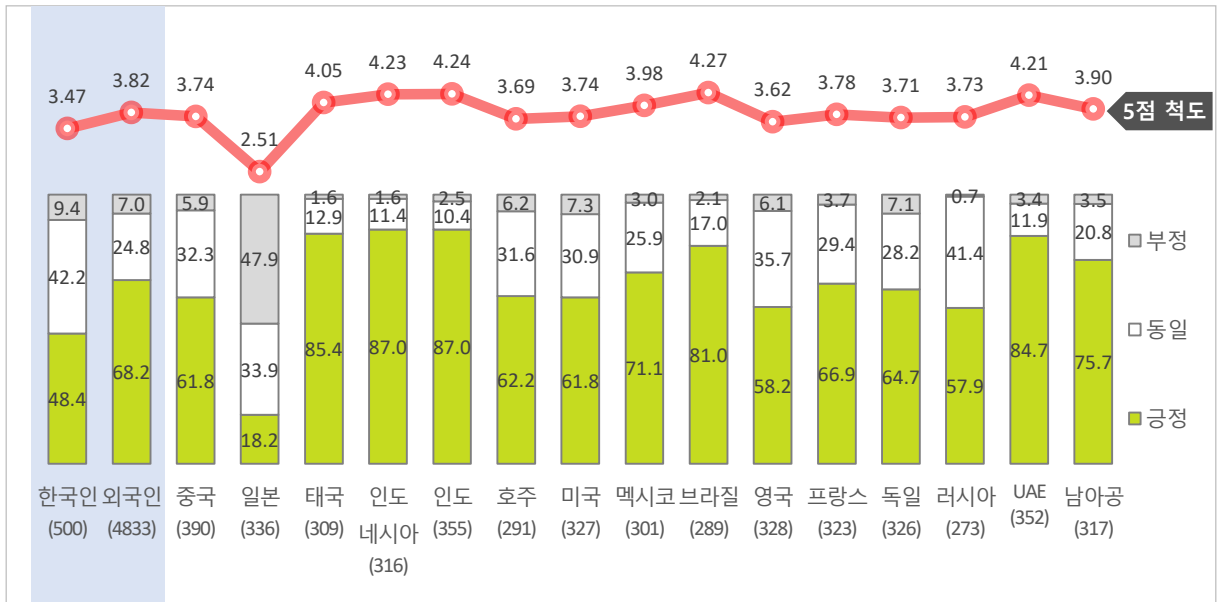
그림2-1-22. 전년 대비 분야별 인식 변화\_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3) 순수예술

- '순수예술' 분야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국가별로는 동남아 국가와 UAE, 브라질에서 긍정 이미지 변화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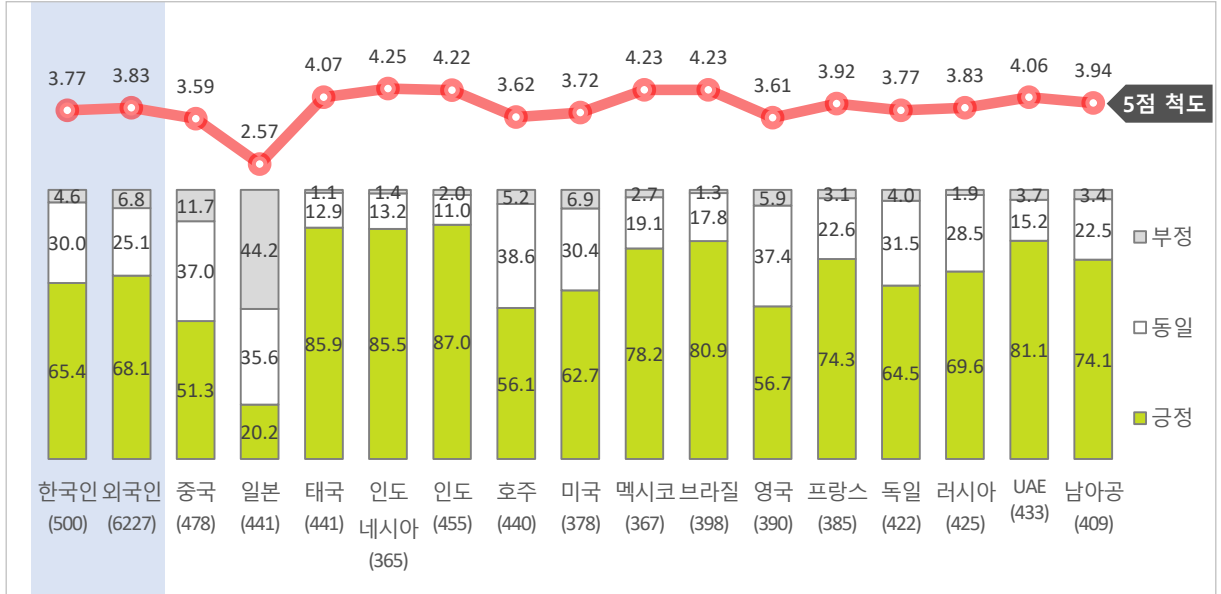
그림2-1-23. 전년 대비 분야별 인식 변화\_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4) 문화유산

- '문화유산' 분야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남
- 국가별로는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UAE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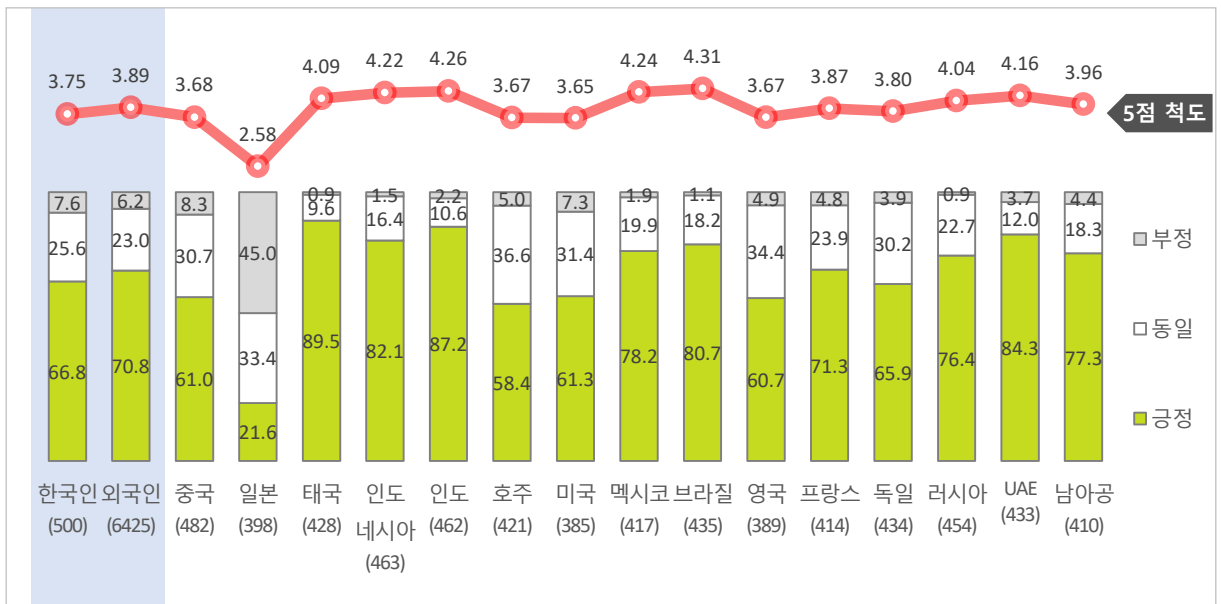
그림2-1-24. 전년 대비 분야별 인식 변화\_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5) 경제

- '경제' 분야는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국가별로는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UAE에서 긍정 이미지 변화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2-1-25. 전년 대비 분야별 인식 변화\_경제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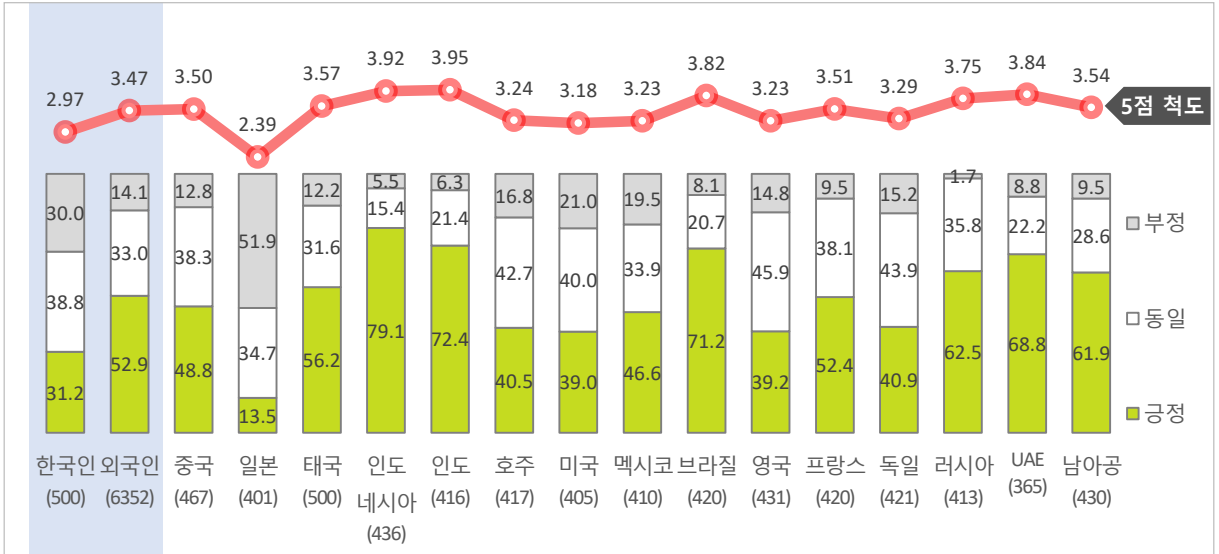


## 6) 안보

- '안보' 분야는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 한국인의 경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 비중이 30.0%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UAE 등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그림2-1-26. 전년 대비 분야별 인식 변화\_안보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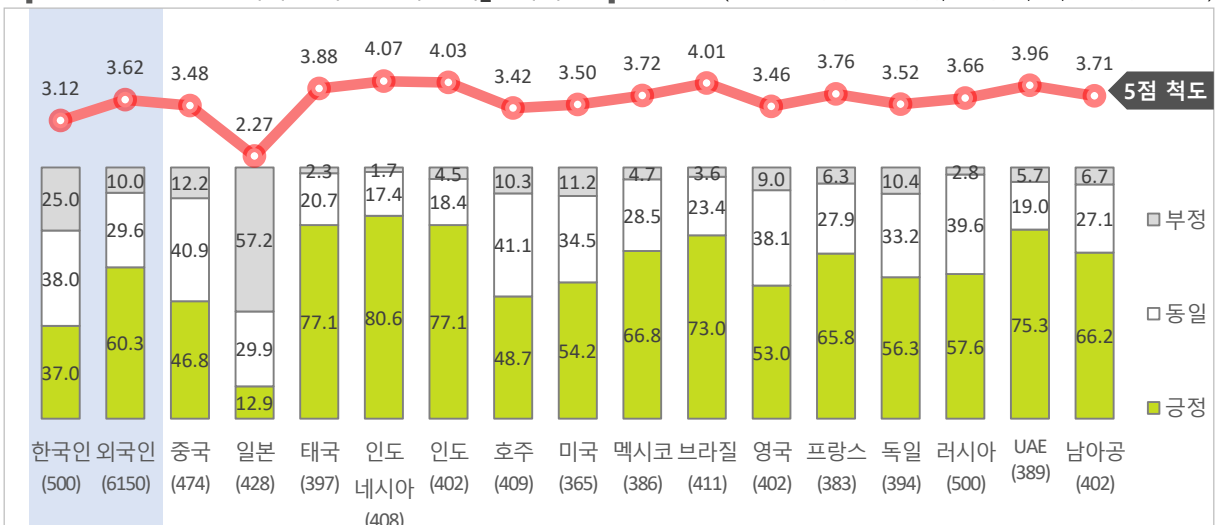


## 7) 정치외교

- '정치외교' 분야 역시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긍정 변화 응답 비중이 높았음
- 한국인의 부정 변화 응답 비중이 25.5%로, 안보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에 비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국가별로는 동남아 국가와 브라질, UAE에서 긍정 변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림2-1-27. 전년 대비 분야별 인식 변화\_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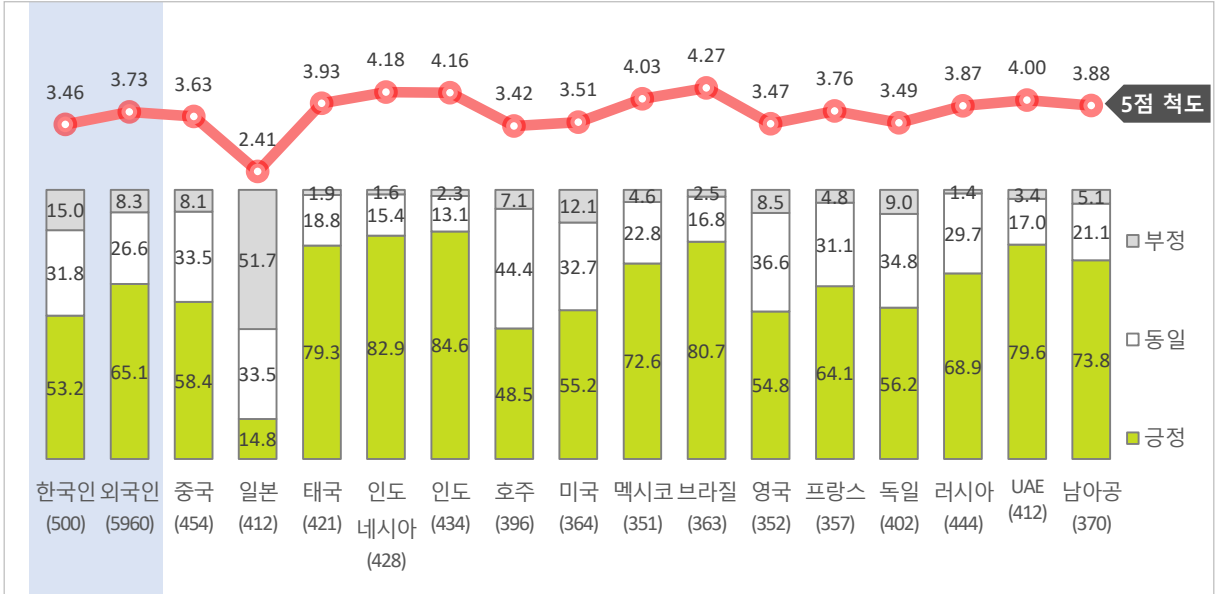


## 8) 사회

- '사회' 분야의 이미지는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국가별로는 동남아 국가와 브라질, UAE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많았음

그림2-1-28. 전년 대비 분야별 인식 변화\_사회

(Base: 사회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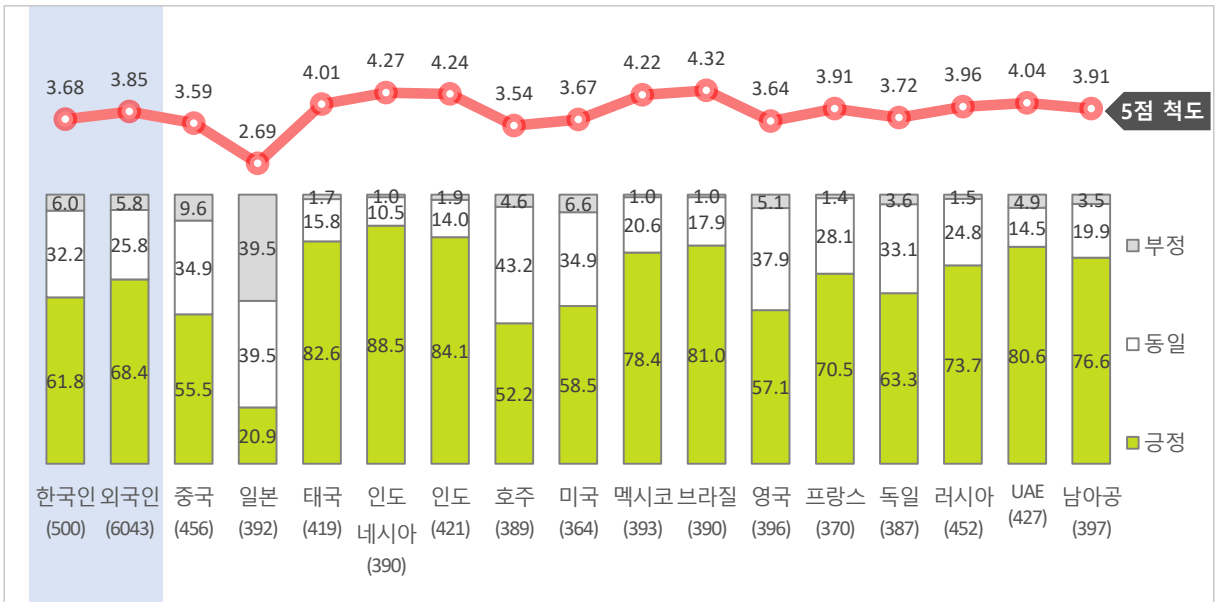


## 9) 스포츠

- '스포츠' 분야 역시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 UAE에서 이미지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2-1-29. 전년 대비 분야별 인식 변화\_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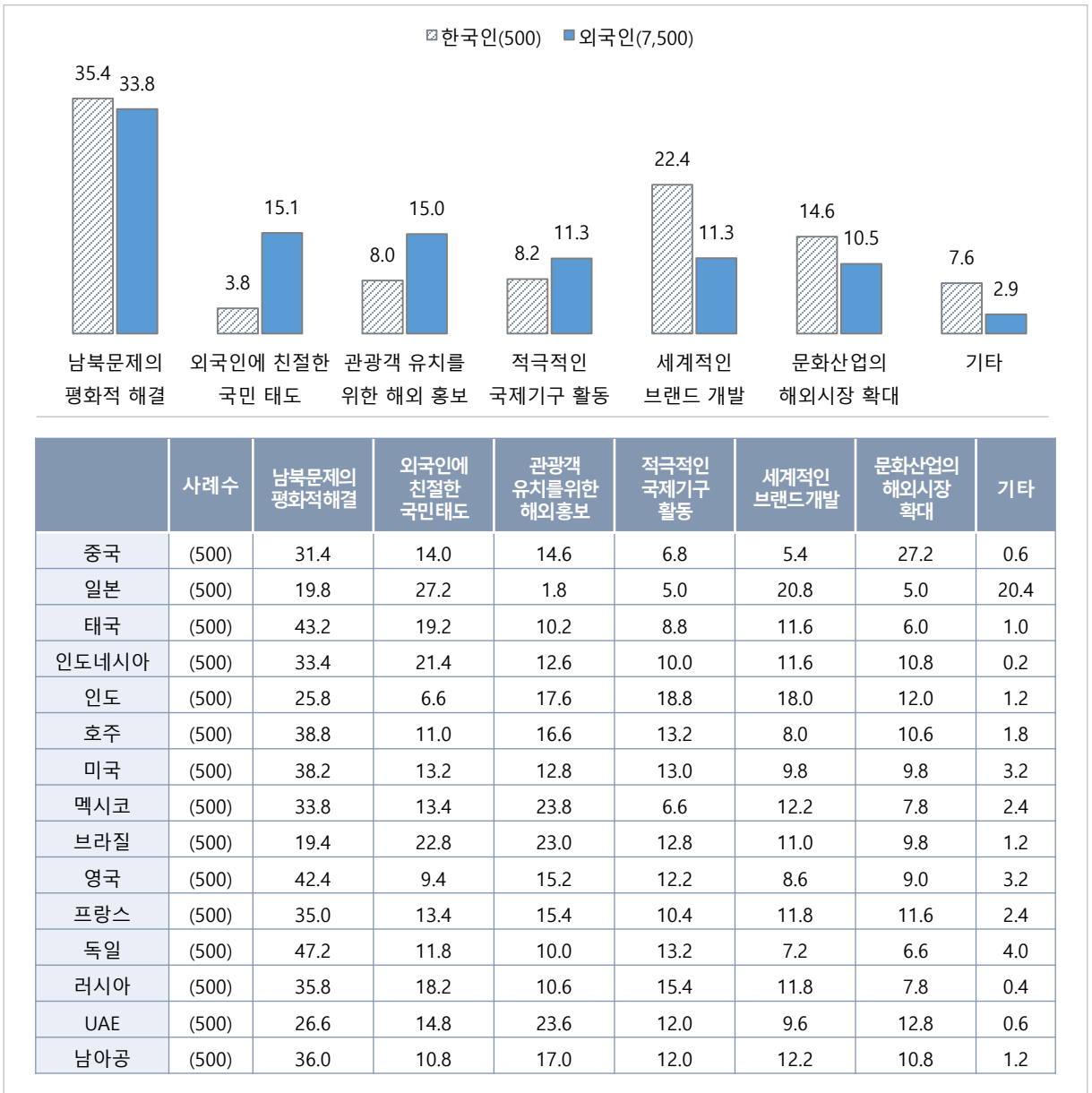


## 7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장 우선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응답하였음
- 그 외에 외국인들은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를 많이 응답하였음
- 국가별로는 멕시코, 브라질, UAE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중국은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에 친절한 태도' 응답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본의 경우 기타 의견으로 '한일관계개선', '해결안됨' 등의 응답이 있었음

그림2-1-30.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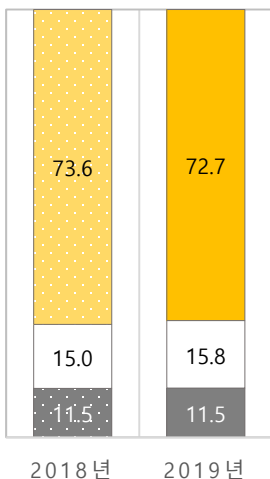
## 8 요약 및 결론

본 조사는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하였고, 올해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SUMMARY

**01**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첫 연상은 매우 긍정적(긍정 72.7% > 부정 11.5%)이며, 2018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긍정 연상이 0.9% 감소하였음. 외국인이 '한국'을 떠올렸을 때 'K-POP', '한식', '문화' 등 문화 콘텐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술력', '기업 브랜드' 등 경제 관련 연상도 많은 편임.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최근 동남아 국가를 넘어 유럽, 중동 국가까지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어 향후 국가이미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음. 부정적 연상으로는 북한 관련 이슈들('남북문제', '전쟁', '북핵문제'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한편, 일본의 경우 '위안부 합의', '징용공 배상' 등에 대한 판결 등을 이유로 '반일감정', '거짓말쟁이' 등과 같은 부정 연상이 많았음.

####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



긍정 연상이미지		부정 연상이미지	
K-POP/가수	13.7	북한/남북관계	28.3
한식/식품	9.5	전쟁	9.3
문화/문화유산	8.1	북핵/안보문제	7.5
기술력/첨단기술	6.3	정부/정치적 문제	5.5
기업브랜드	5.5	분단국가	3.8
스포츠/선수	4.9	K-POP/가수	2.5
드라마/영화	4.8	외교관계	2.4
경제/경제발전	3.6	독재	1.8
K-뷰티/화장품	2.4	외모지상주의	1.5
IT/전자산업	2.3	문화/문화유산	1.4

(첫번째 연상 기준, 상위 10개만 제시) (첫번째 연상 기준, 상위 10개만 제시)

\*전체 부정 응답자 860명 중 일본 응답자가 150명으로 특정국가의 영향이 너무 커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 0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호감 71.3%, 비호감 6.3%로, 매우 높은 호감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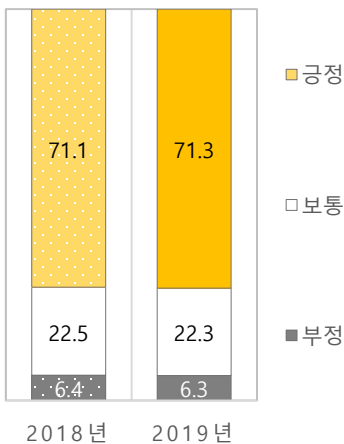
2018년과 비교하면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긍정평가가 0.2% 증가함.

한국인에 대한 호감 이유는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근면성실하다', '친화력이 좋다', '착하다', '호의적이다' 등이 있었고, 이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

반면, 한국인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는 '무례하다', '자기중심적', '정치적 문제', '불친절하다' 등의 내용이 있었음. 특히, '무례하다', '친절하지 않다' 등의 응답은 직접 한국인을 경험해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을 대할 때나 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들의 행동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상위 10위 안에 연예인이 6명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 국가이미지에 있어 문화분야의 영향력은 한류 확산과 맞물려 점차 확대 될 전망.

##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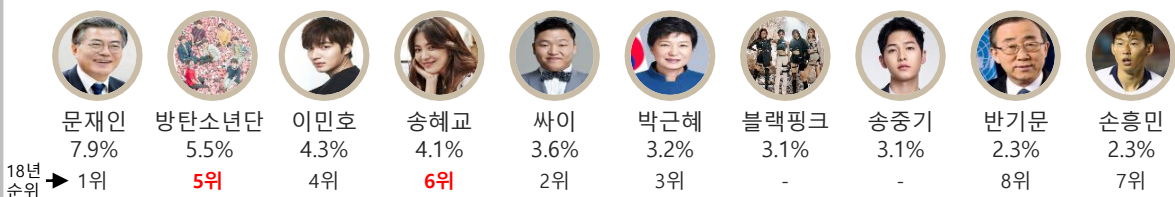


좋아하는 이유		좋아하지 않는 이유	
친절하다	20.6	무례하다	6.4
예의 바르다	7.6	자기 중심적	5.7
문화/전통	4.8	정부/정치적 문제	5.7
근면성실하다	2.9	불친절하다	5.3
개방적이다	2.9	공격적임/무서움	4.9
친화력이 좋음	2.7	인종차별	4.9
착하다	2.6	엄격함/까다로움	4.2
교육 수준	2.0	나라 특성/문화	3.4
호의적이다	2.0	외모지상주의	3.0

(2% 이상 응답까지만 제시)

\*전체 비호감 응답자 474명 중 일본 응답자가 210명으로, 특정국가의 영향이 너무 커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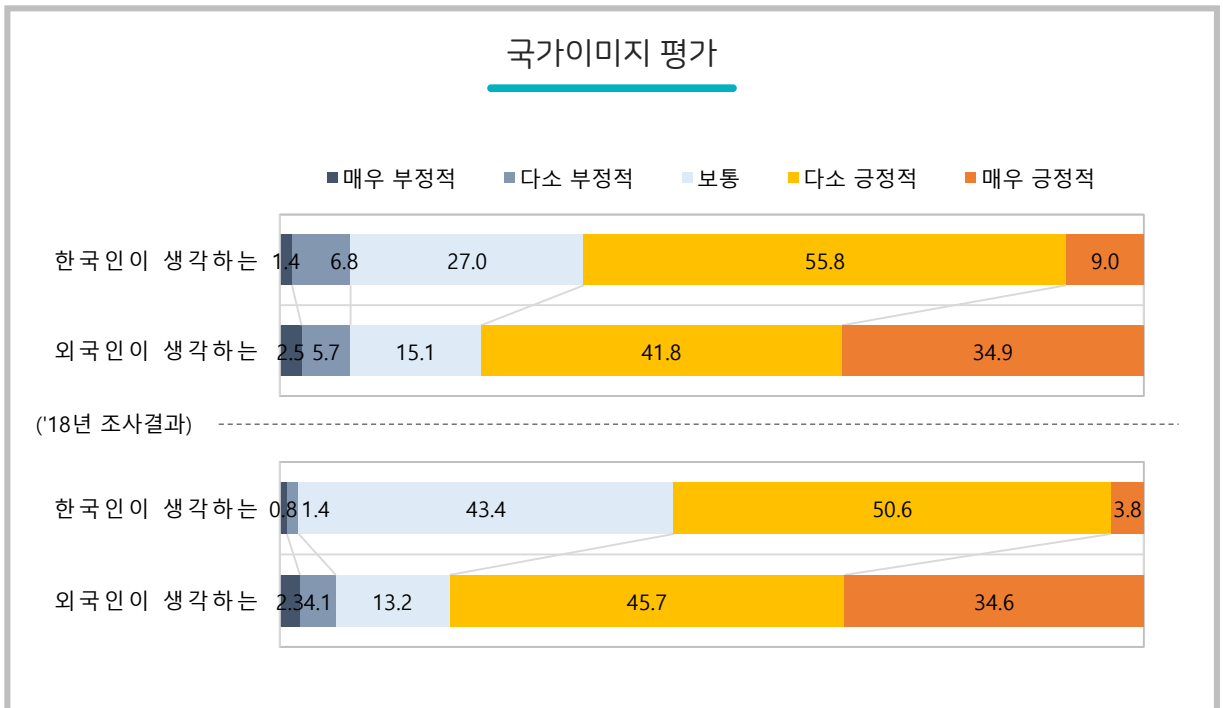
## 연상 인물 Top10



# 03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인상)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긍정 응답 비중 76.7%)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보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들의 긍정 응답 비중이 80.3%에서 76.7%로 감소하였고, 부정 응답 비중이 6.4%에서 8.2%로 증가하였음. 부정 응답 요인으로 '북핵문제', '정치 상황', '국제적 위상'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토대로, 북한/북핵 문제 관련된 성과 여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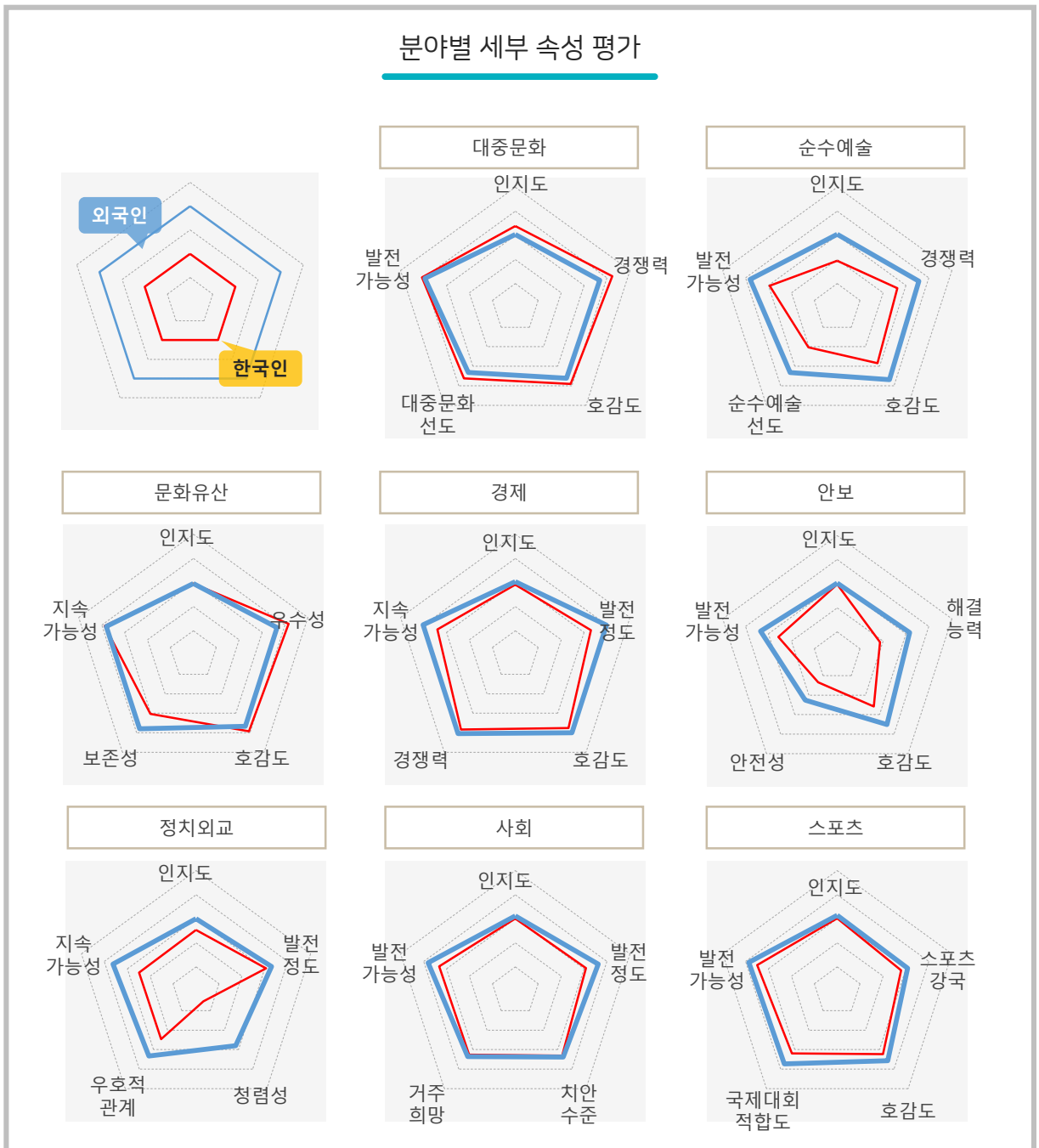




'경제', '대중문화', '문화유산', '스포츠' 분야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보'와 '정치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임. 한국인과 외국인을 비교했을 때, '대중문화', '문화유산'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들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 '안보', '정치외교', '사회' 분야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분야별 세부 속성 평가를 보면, '순수예술', '정치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중문화' 분야는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높이 평가함. 나머지 분야에서는 세부 속성들에 대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남.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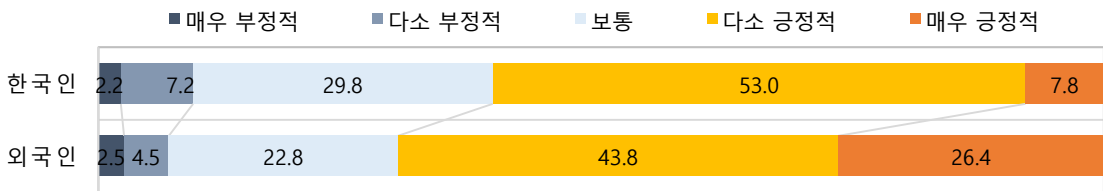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1년 전과 비교하여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함. (한국인 긍정 60.8% / 부정 9.4%, 외국인 긍정 70.2% / 부정 7.0%)

한국인의 경우, '대중문화' 분야에 있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외국인과 비교했을 때도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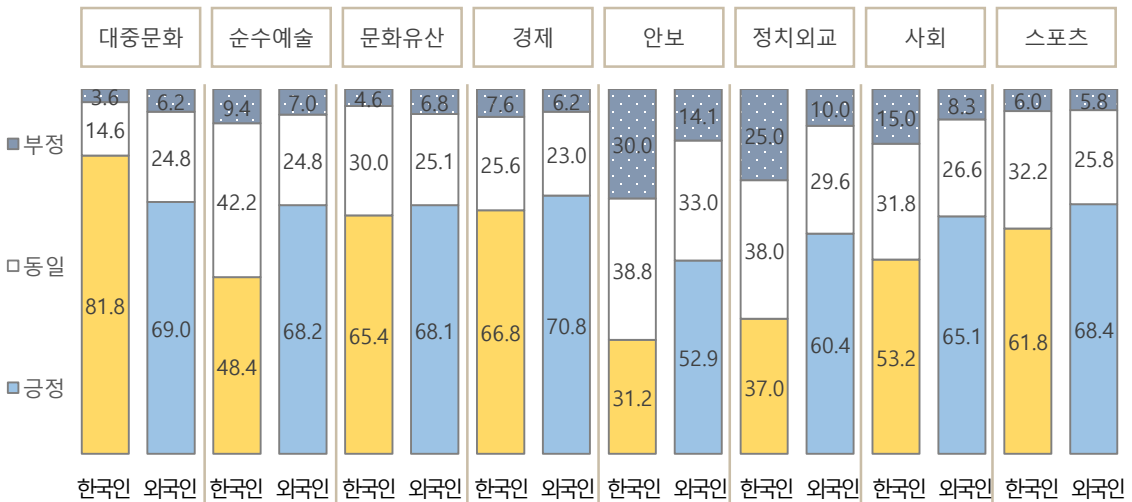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긍정 변화 비중이 높았는데, '안보', '정치외교', '순수예술', '사회', '스포츠' 분야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1년 대비 이미지 변화

### 전반적 이미지



### 분야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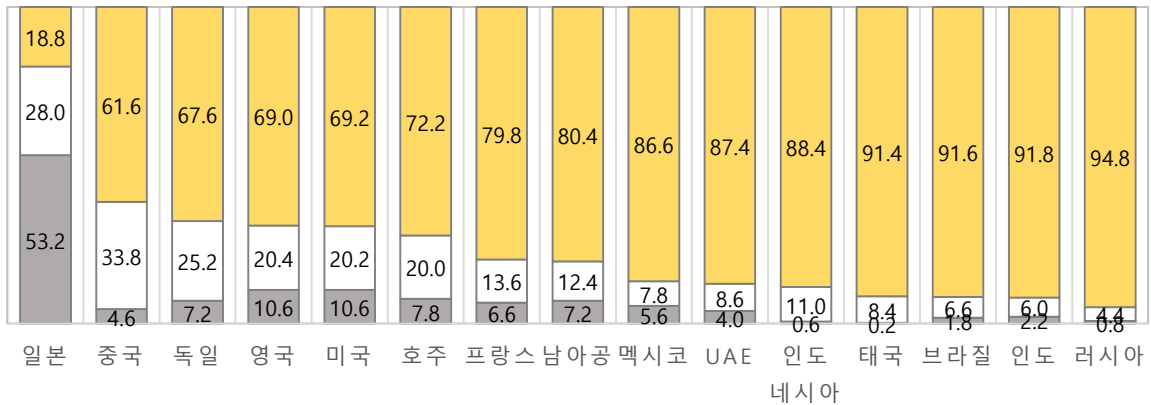


국가별 SUMMARY

**01**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남아 국가, 중남미 국가, 아프리카, 중동 국가 등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았고, 작년에 비해 그 비중도 확대되었음.(43.4% ->53.2%) 이는 최근 일본과의 역사적, 정치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아베정권의 반한정책 기조가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인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경우 전년도에 민감하게 대두되었던 사드 배치 이슈가 다소 완화되면서 전년도 보다는 부정이미지가 낮아짐.

국가이미지 평가

■ 부정 □ 보통 ■ 긍정



(참고. 2018년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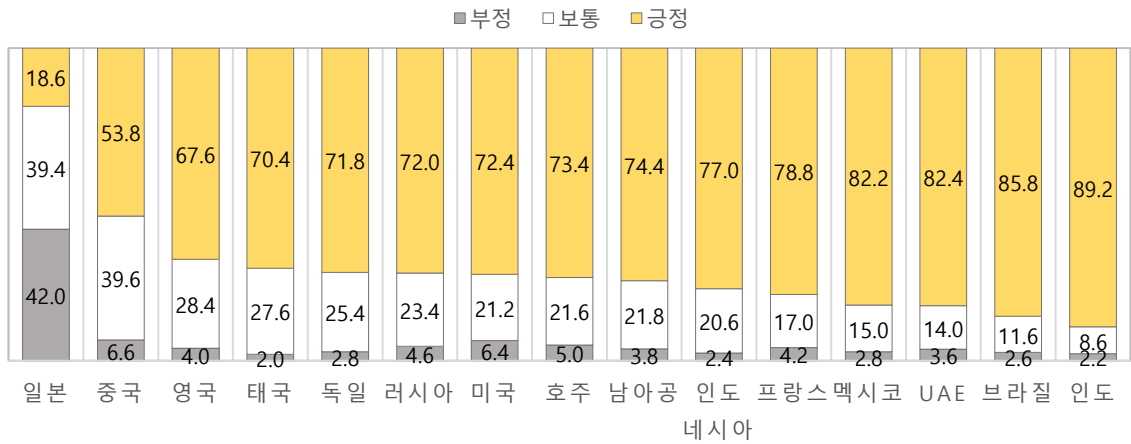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남아공	멕시코	UAE	인도 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긍정	20.0	66.0	79.4	72.6	73.0	78.4	81.4	85.6	93.8	86.4	96.4	91.6	92.0	93.0	95.6
부정	43.4	11.2	4.2	6.6	6.8	5.0	4.0	4.6	0.6	2.0	0.4	2.2	2.2	2.4	1.4

# 0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시 일본이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하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참고. 2018년도 조사결과)

	일본	중국	영국	태국	독일	러시아	미국	호주	남아공	인도 네시아	프랑스	멕시코	UAE	브라질	인도
● 긍정	20.8	50.4	64.2	69.6	79.4	64.8	68.4	74.8	74.6	80.0	77.6	84.6	84.2	85.2	88.6
● 부정	40.2	15.0	4.6	2.8	2.0	3.8	4.6	3.8	2.6	2.0	3.8	1.4	1.8	5.0	1.8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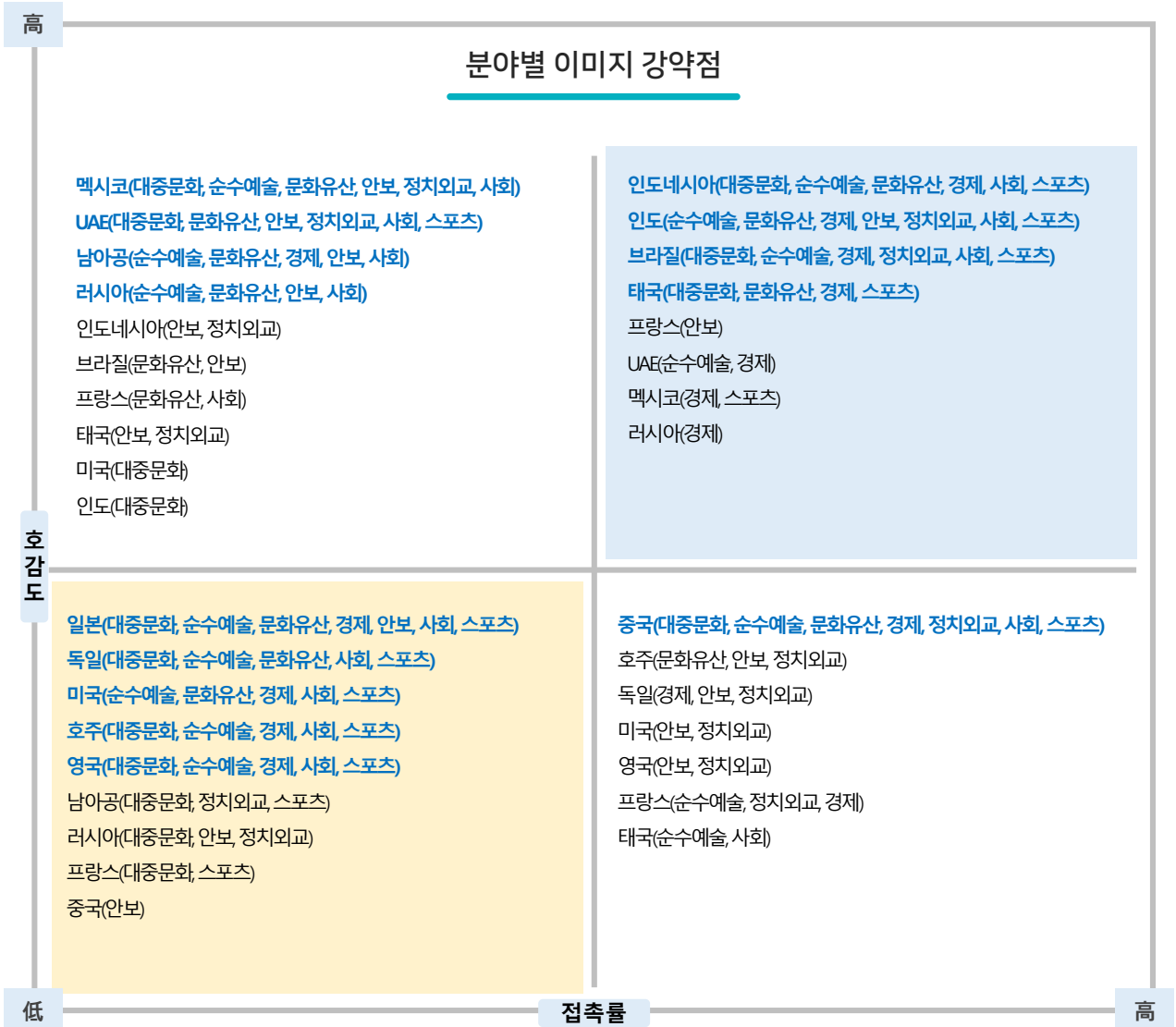
평소 '한국' 관련 정보를 접하는 분야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시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는 '대중문화', 유럽 국가는 '안보'분야의 접촉이 많은 경향을 보임.

국가별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멕시코, UAE와 같이 개도국의 '대중문화'와 '경제'에 대한 정보 접촉이 많았고, 호주, 미국, 일본은 '대중문화'와 '안보'에 대한 접촉이 많았음. 중국은 '대중문화'와 '문화유산' 등 문화 영역에 대한 접촉이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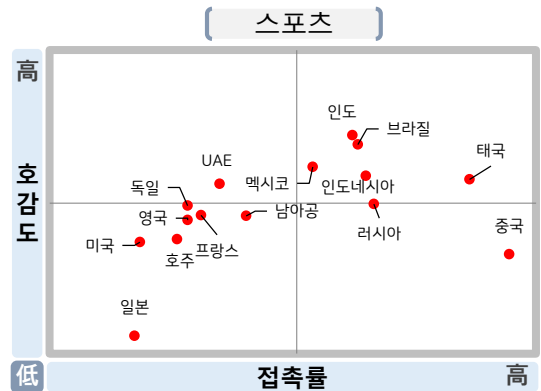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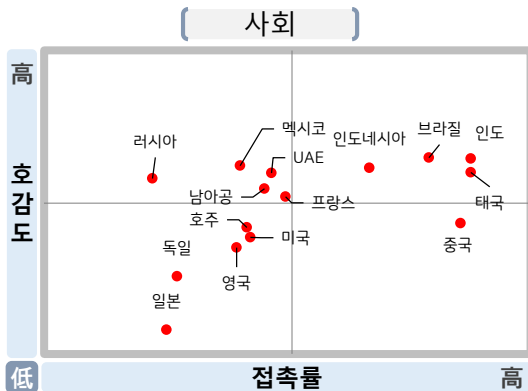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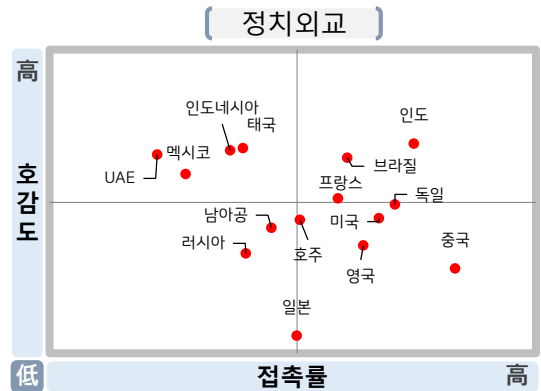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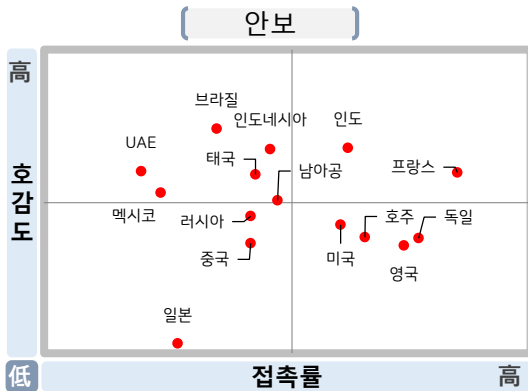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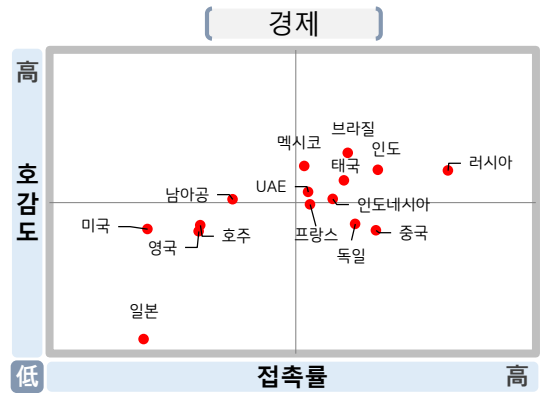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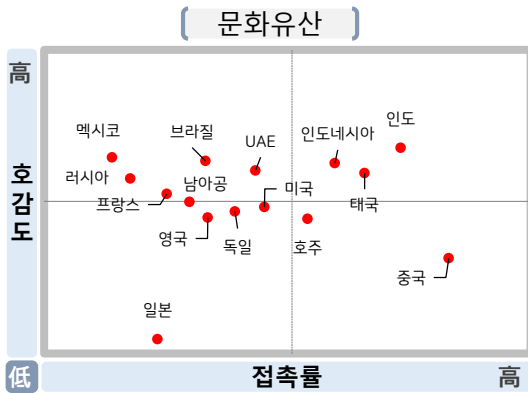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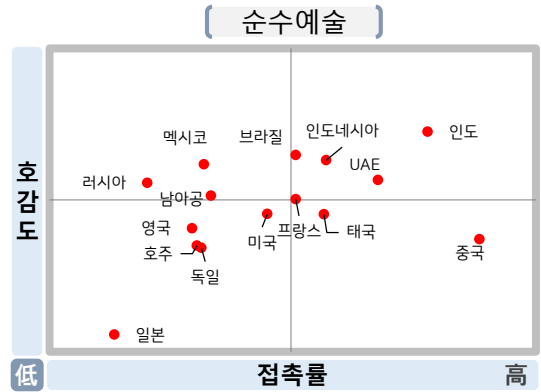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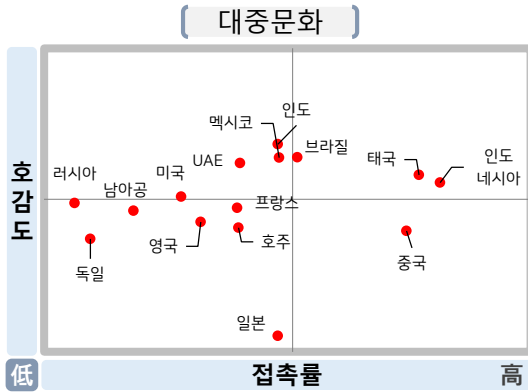


# 04

분야별 이미지 호감도와 접촉률로 국가별 강약점을 살펴보면, 호감도와 접촉률 모두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태국이 4개 이상의 분야가 해당되고, 특히 '대중문화', '문화유산', '순수예술' 등 문화영역에서의 정보 접촉과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멕시코, UAE, 남아공, 러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는 적지만,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국가들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반대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만 호감도가 낮은 국가로 정보의 소구 포인트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접촉률과 호감도 모두 평균 이하인 국가들은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호감도: 분야별 호감도, 접촉률: 평소 접하는 한국 관련 접촉 분야(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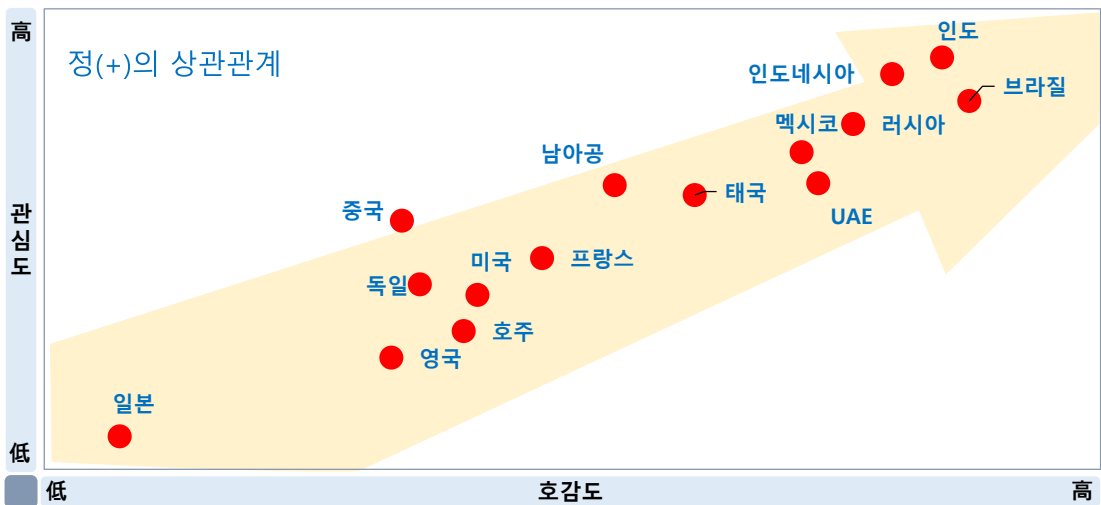




## 05

'한국'에 대한 관심도와 호감도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관심도가 높으면 호감도도 높았음. 국가별로는 주로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은 관심도와 호감도 모두 최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중국은 전년도 보다 친밀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본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최하수준임.

## 한국에 대한 친밀도



\*호감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관심도: 한국에 대한 관심수준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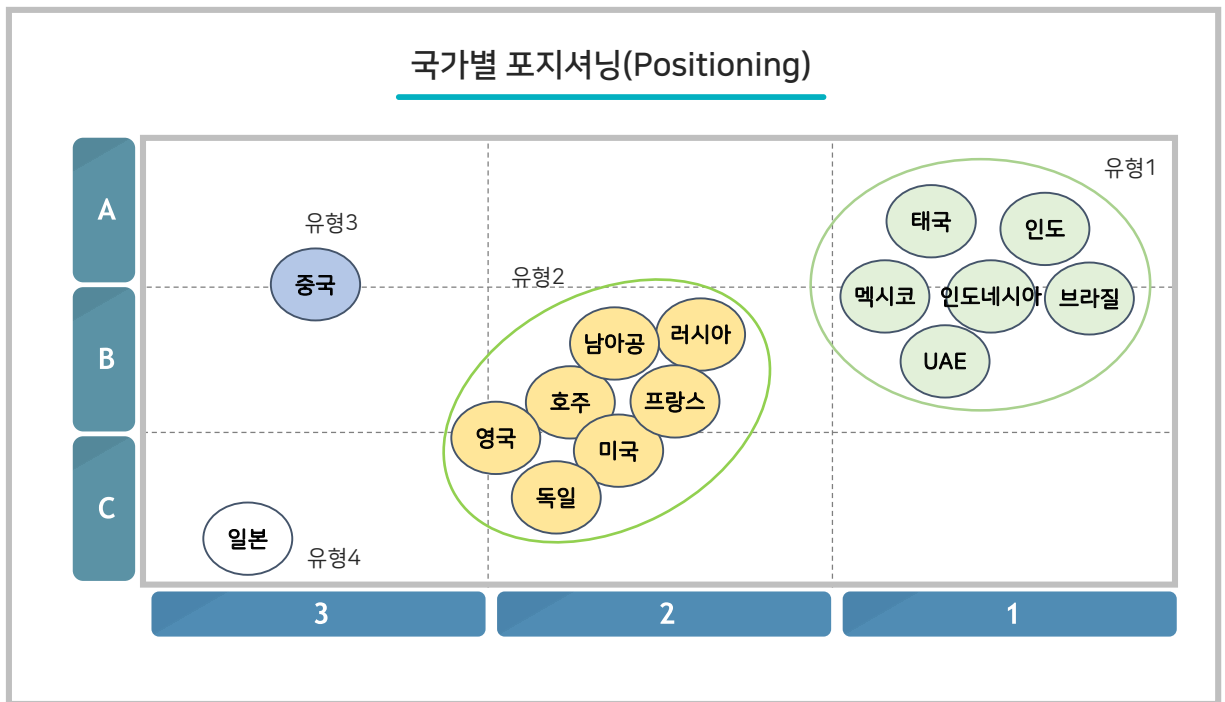
일본 전국 유권자 2,400명 대상 우편여론조사 결과 친밀도<sup>1)</sup> 평가에서 '한국'은 5점 만점에 1.9점으로 전년도(2.1점)와 비교해 0.2점 낮아짐. 2014년 친밀도 항목이 포함된 이후 최저치. 10년 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5점 만점에 2.2점으로 대체로 한일 관계도 부정적으로 전망.

\*자료 : 일본 마이니치신문, 서울경제 재인용(<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X58TOF>)

1) 친밀도 측정 : 친밀감을 느낀다'를 5점, '느끼기 않는다'를 1점으로 평가

# 06

국가별 포지셔닝은 한국에 대한 친밀도와 이미지 강약점을 고려하여 총 4개 유형화 하였음. 유형1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멕시코, UAE 총 6개국으로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고, 문화영역을 필두로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인 국가임. 유형2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남아공, 호주 총 7개국으로 선진국들이 다수 포함되어있고,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대중문화 보다는 경제, 안보, 사회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국가들임. 유형3과 유형4는 중국과 일본으로 지리적, 역사적 특성으로 문화, 정치외교, 경제 등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음.



## 유형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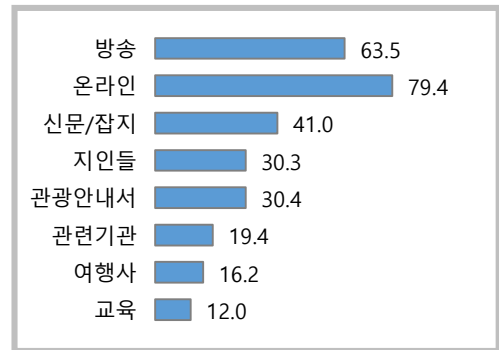
###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멕시코, UAE



유형1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들로 최근 K-POP을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평소 많이 접하고, 경제나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음. 이러한 문화, 경제 분야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5점 만점 기준 4.34점)

유형1 국가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많이 접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접촉이 많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때문임.



유형1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한국 문화와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이 큼. 한류의 확산은 최근 K-POP, 영화에서 한식, 화장품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긍정적 국가이미지는 당분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와 같이 문화영역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과 경제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중동이나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관심과 국가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의 확대가 필요함.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 국가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대한 교류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최근 정부차원의 신남방정책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국가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유형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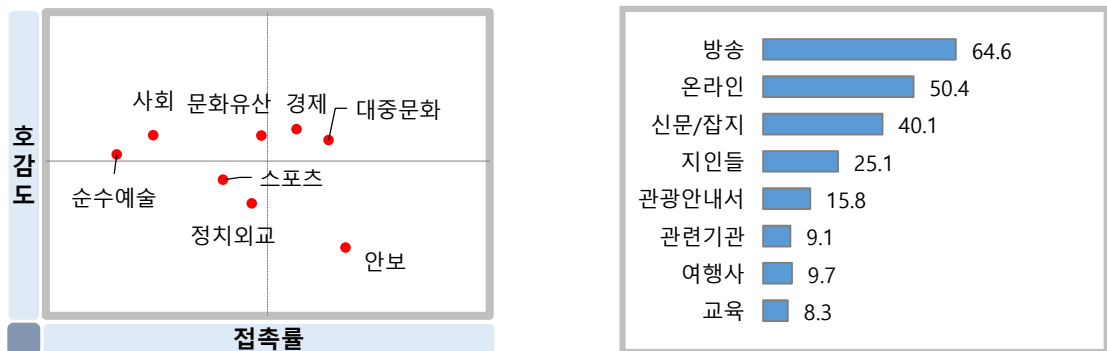
### 한국의 경제에 대한 호감과 안보에 대한 불안이 공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호주, 남아공



유형2 국가들은 미국, 유럽 국가들로 대표되는 선진국 또는 전통 강대국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경제 분야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유형1 국가 대비 자국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이 높아 '한류'의 영향력이 아직은 높지 않은 편임. 한국에 대한 정보접촉 매체도 온라인보다는 방송의 비중이 높고, 안보에 대한 정보접촉이 많은 특성과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호감도를 보이고 있음.

지리적 특성상 한국 방문 경험은 17%, 관심은 5점 만점 기준 3.93점으로 다른 유형 대비 낮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미디어의 영향이 높다는 특성을 지님.



유형2 국가들은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관련 안보, 특히 북한문제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북한이슈로 인한 오인지, 부정이슈 생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북한 이슈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 관련 오인지를 바로 잡고, 국가간 교류를 통해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안보, 경제, 외교 등 여러 사안에 대한 Relationship 강화 노력이 필요함.

현재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축을 이루고 있는 '경제적 성장'이라는 인식에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강화를 통해 문화영역까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대된다면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한단계 더 호의적으로 변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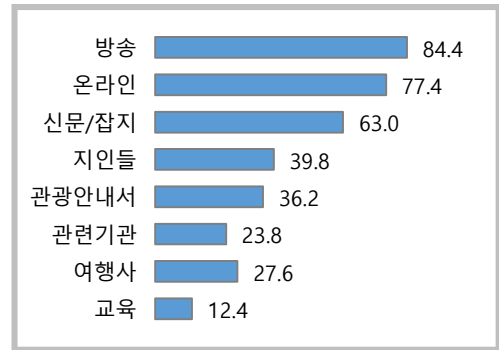
## 유형03

## 한국을 많이 알지만, 국가(중국)가 우선인

## 중국



유형3은 중국으로 대중문화, 문화유산, 경제, 스포츠 등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접하지만, 상대적으로 호감도는 높지 않은 특성을 보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부정 기준 11.2% → 4.6%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년도에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이슈가 최근 다소 완화되고 있기 때문임. 중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제재들이 관광, 수출, 연예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완화되고 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 국가이미지는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중국은 사드배치 이전에 매우 많은 인원이 한국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방문경험 63.8%) 방문객의 84.3%가 매력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관광분야의 제재 완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방송과 온라인 등 미디어 외에도 지인들이나 관광안내, 여행사 등을 통한 정보접촉이 많은 편으로 관광분야의 콘텐츠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중국은 국가 특성 상 정부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외교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정부의 對중국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주변국(미국, 일본, 북한 등)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중국은 한식과 뷰티 부문에 있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로, 국가이미지 제고를 견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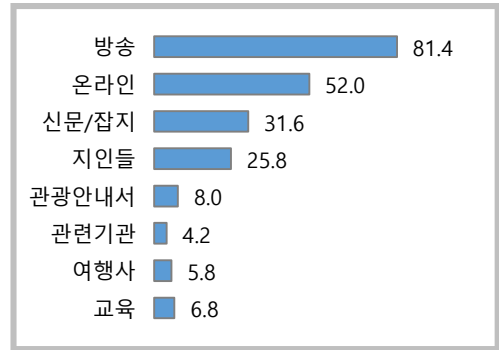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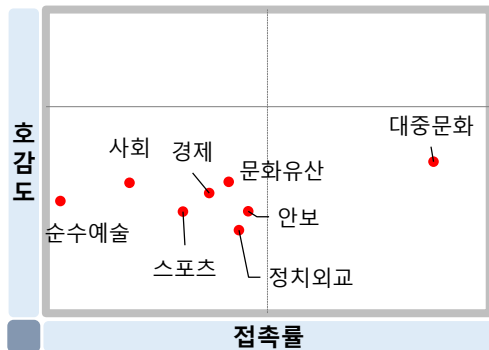
유형04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일본



유형4는 일본으로 한국과 역사적, 지리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최근 아베정권의 반한기조가 국민들에게 학습되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증가.(부정 이미지 '18년 43.4% → '19년 53.2%, 9.8% 증가) 일본의 경우 TV, 신문에 대한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 역시 온라인 보다는 방송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음. 일본 방송, 신문의 경우 정부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도 자연적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을 접하는 빈도가 많은 것임. 특히, 2019년에는 위안부합의,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이슈로까지 확산 되면서 부정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음.



본 조사의 결과에서도 일본이 다른 국가들 대비 매우 낮은 친밀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내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친밀도 수준은 최저임.(5점 만점 기준 1.9점) 동일 조사에서 10년 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높아 단기간에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개선은 어려운 문제임.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게 대표적으로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국가간 인식차이를 좁혀가는 노력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교류 확대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다수의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연령층이나 한국 문화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가진 일본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 교류를 통한 점진적인 국가이미지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국내 언론에서 다루지는 일본과의 이슈기사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일본 내 험한 정보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Part III.

# 국가별 조사 결과

01. 중국	56
02. 일본	76
03. 태국	96
04. 인도네시아	116
05. 인도	136
06. 호주	156
07. 미국	176
08. 멕시코	196
09. 브라질	216
10. 영국	236
11. 프랑스	256
12. 독일	276
13. 러시아	296
14. 아랍에미리트	316
15. 남아프리카공화국	336







## 01

## 중국



## 1 일반개요

위치	아시아 대륙 동부와 태평양 서안에 위치	언어	중국어
수도	베이징(총 면적 1만 6,411km <sup>2</sup> , 서울 약 27배)	종교	불교,도교,천주교,이슬람교,기독교
인구	13억 9,538만 명(2018년 말 기준, 이하생략)	1인당 GDP <sup>1)</sup>	10,153달러

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pril 2019(이하 생략)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2018년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 공식 출범 이후 경제, 사회, 외교 전반의 통제 강화
- 2019년 상반기 중국 GDP 경제성장률은 6.3%이며, 동부연안지역의 1인당 GDP는 내륙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
-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며 점차적으로 소비 증가하는 추세
  - 고소득 노인 인구 증가로 제품 수요 다양화 및 고급화 추세로 전환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한반도 사드배치 갈등 이후 회복조짐

- 2018년 상반기 22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후 전년도 대비 360% 증가율 기록
- 2014년 이후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도 양국 관계 개선에 힘입어 2018년 11월에 재개
- 발길이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 방한도 전년대비 14.9% 증가

## 한중 경제관계 빠른 회복세

- 2018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 전년대비 52.3% 증가
-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23.6%에 달할 정도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날로 강화
-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서울에서 진행

## 한한령(限韩令, 한류제재) 해빙 분위기 조성

- 2018년부터 방송포맷 수출 및 한국 연예인 중국 공연 등 재개
-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등 리메이크 판권을 통해 중국 방영 예정
- 2019년 5월 한류스타 비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세아 문화 카니발 행사에 출연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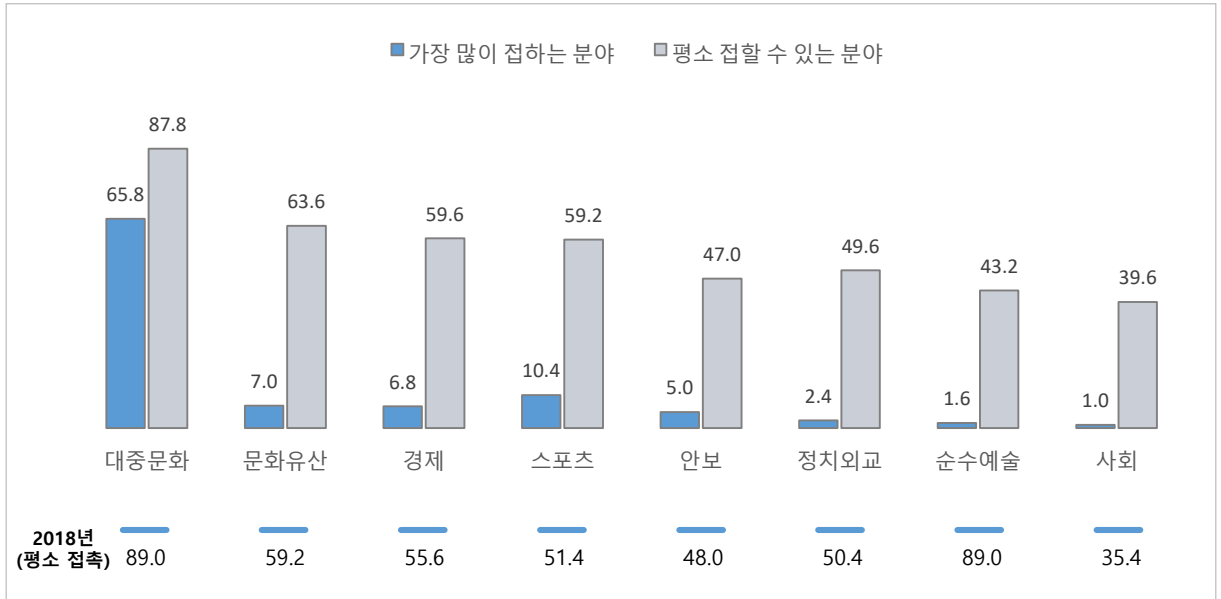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87.8%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스포츠'와 '경제' 관련 접촉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림3-1-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접촉 비중이 높았고, '경제', '정치외교', '안보'는 남성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3-1-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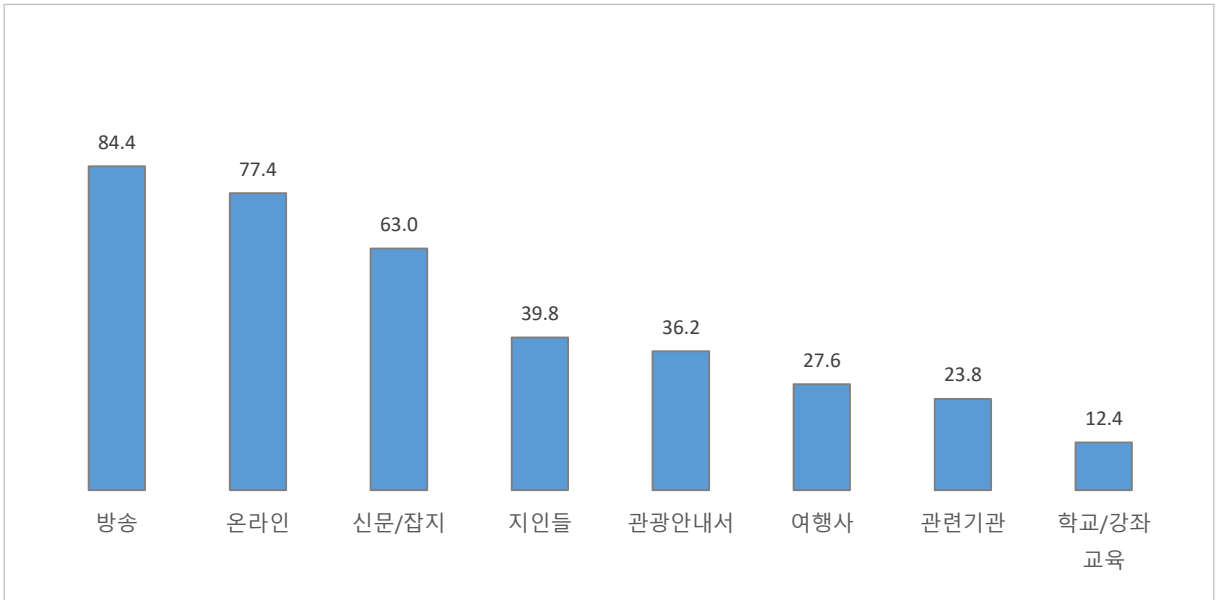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대중문화	87.8	85.6	90.0	94.7	91.8	84.8	86.5	86.5
문화유산	63.6	61.6	65.6	39.5	55.1	75.9	62.2	67.4
경제	59.6	60.4	58.8	28.9	52.0	69.6	58.6	66.0
스포츠	59.2	56.0	62.4	34.2	53.1	58.9	61.3	68.8
정치외교	49.6	52.4	46.8	34.2	49.0	54.5	52.3	48.2
안보	47.0	51.2	42.8	31.6	45.9	50.0	55.9	42.6
순수예술	43.2	41.6	44.8	13.2	37.8	42.9	37.8	59.6
사회	39.6	32.8	46.4	18.4	30.6	43.8	37.8	49.6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방송' > '온라인'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1-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과 '온라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문/잡지'는 남성이 '지인들'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방송'은 높은 연령, '온라인'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3-1-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방송	84.4	83.6	85.2	71.1	85.7	79.5	82.9	92.2
온라인	77.4	76.8	78.0	76.3	80.6	86.6	75.7	69.5
신문/잡지	63.0	68.4	57.6	63.2	61.2	59.8	58.6	70.2
지인들	39.8	34.8	44.8	31.6	33.7	42.0	38.7	45.4
관광안내서	36.2	37.6	34.8	5.3	36.7	42.9	34.2	40.4
여행사	27.6	26.8	28.4	5.3	26.5	25.0	31.5	33.3
관련기관	23.8	22.4	25.2	5.3	25.5	35.7	27.0	15.6
학교/강좌 교육	12.4	10.0	14.8	7.9	19.4	17.0	17.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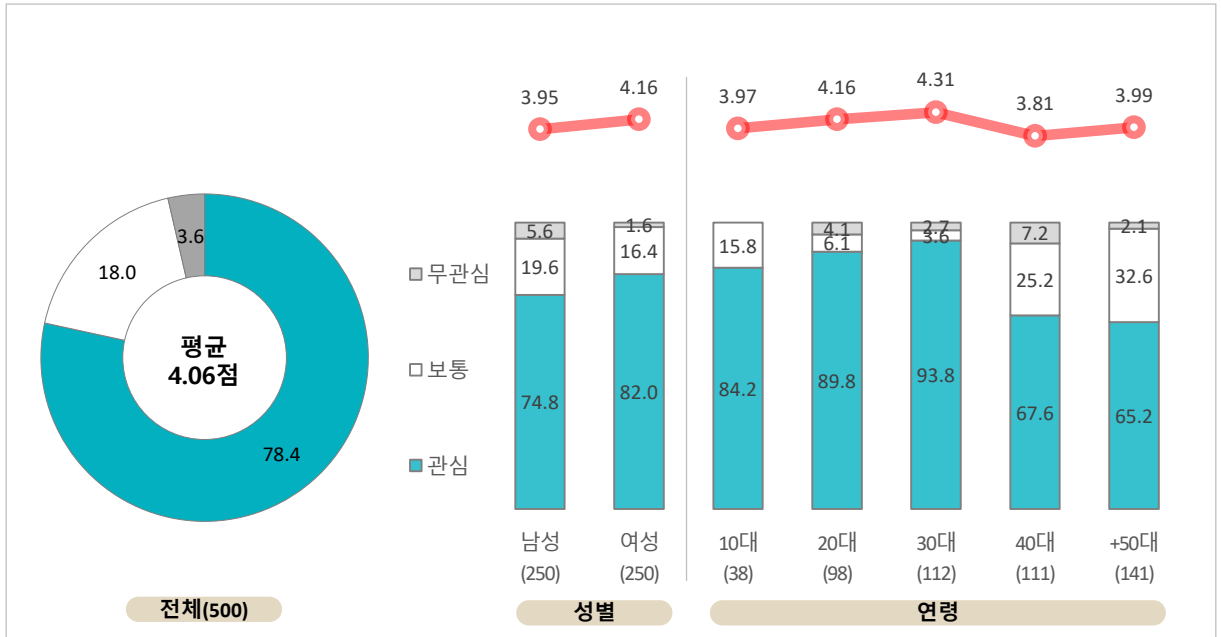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78.4%, '관심 없다'가 3.6%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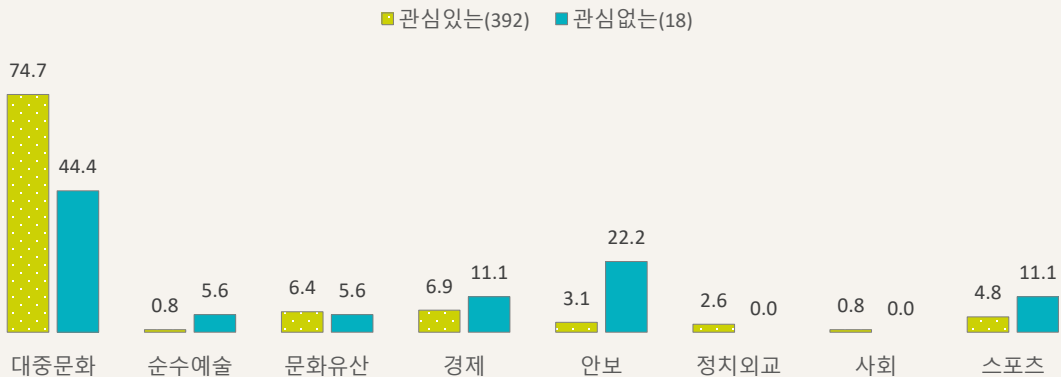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0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40대와 50대는 낮게 나타남

그림3-1-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문화유산', '경제'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중국인들은 '대중문화'와 '안보', '정치외교'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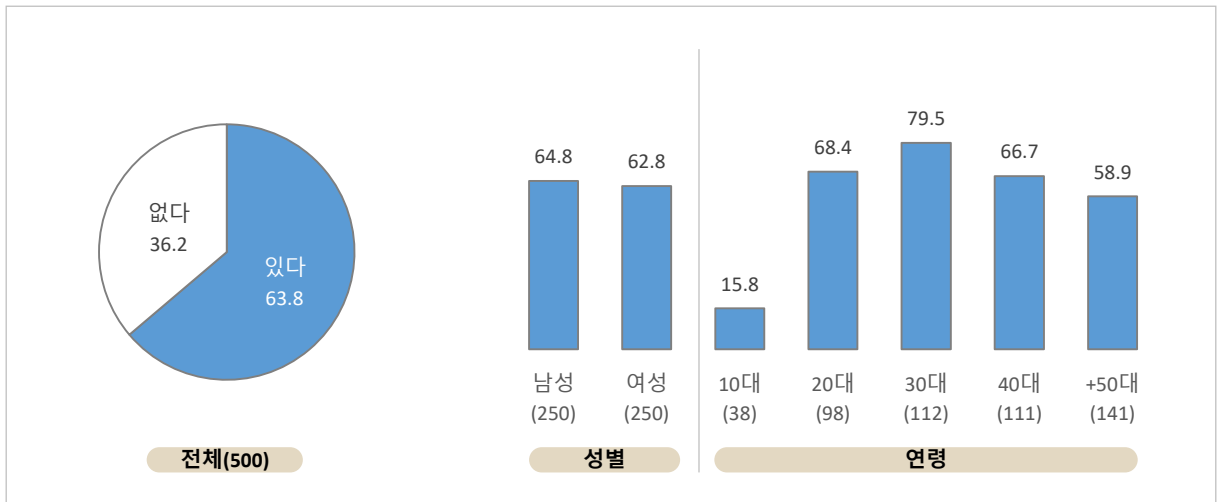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63.8%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84.6%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여성과 30대가 높았고,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음

그림3-1-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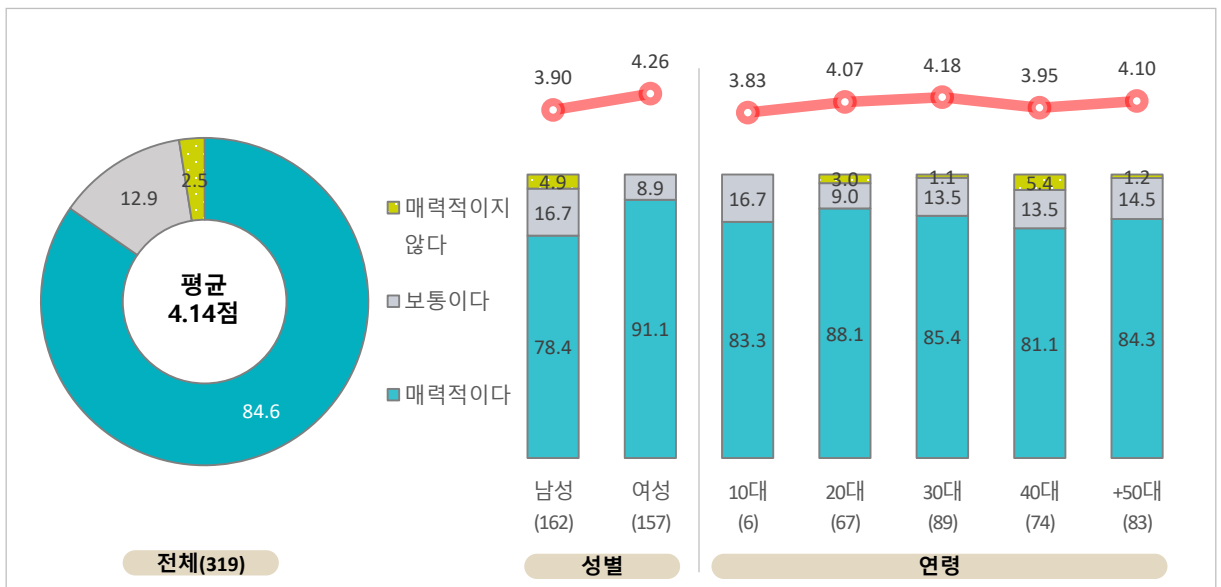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방문 후 인상은 여성이 남성 대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20대의 긍정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의 긍정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3-1-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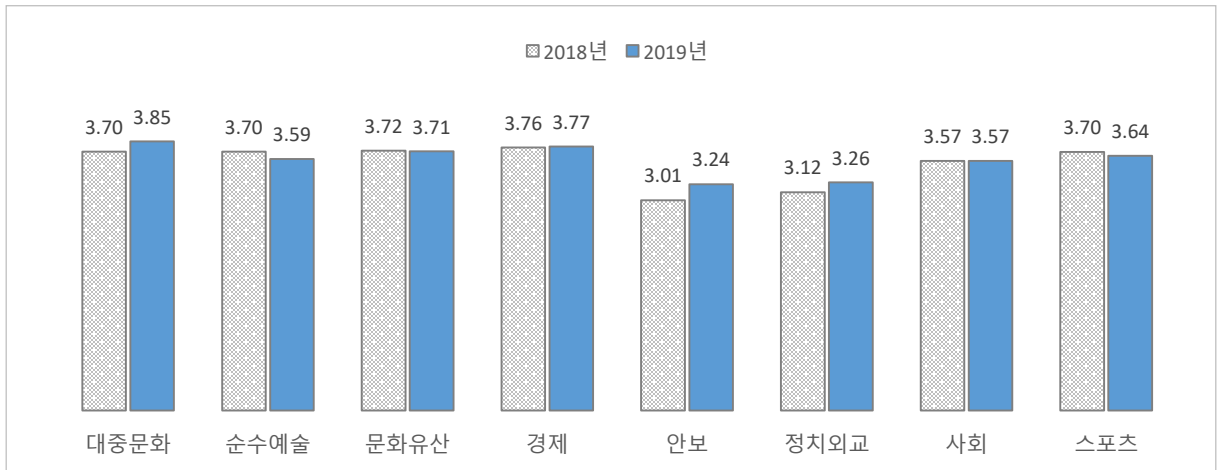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안보'와 '정치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대중문화', '경제', '문화유산' 분야는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안보'와 '정치외교'의 경우도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호감도가 조금 상승하였음

그림3-1-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문화', '문화유산'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임

표3-1-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대중문화	긍정률	69.7	64.3	75.0	68.4	75.3	79.6	61.5	64.7
	평균	3.85	3.78	3.91	3.74	3.96	3.98	3.69	3.82
순수예술	긍정률	49.2	45.6	52.8	18.2	50.0	55.6	36.3	60.0
	평균	3.59	3.52	3.66	3.18	3.58	3.69	3.35	3.80
문화유산	긍정률	63.2	57.7	68.6	48.5	63.4	73.3	56.4	64.2
	평균	3.71	3.62	3.79	3.45	3.69	3.90	3.52	3.79
경제	긍정률	65.4	62.8	67.9	45.5	62.8	82.0	61.7	61.3
	평균	3.77	3.72	3.83	3.48	3.68	4.04	3.64	3.80
안보	긍정률	37.0	32.8	41.4	11.8	29.7	45.7	39.3	40.0
	평균	3.24	3.09	3.39	2.97	3.04	3.49	3.18	3.28
정치외교	긍정률	42.0	39.4	44.5	23.5	36.3	56.6	36.8	43.1
	평균	3.26	3.19	3.33	2.85	3.21	3.54	3.15	3.27
사회	긍정률	56.6	52.2	60.9	51.6	51.2	74.3	52.0	51.4
	평균	3.57	3.46	3.68	3.48	3.48	3.88	3.38	3.56
스포츠	긍정률	62.1	59.7	64.6	33.3	57.6	77.6	58.7	63.2
	평균	3.64	3.58	3.71	2.94	3.56	3.91	3.60	3.71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53.8%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6.6%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자기 중심적', '정치적 문제'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박근혜' > '송혜교' > '송중기' > '문재인' 순으로 나타남

그림3-1-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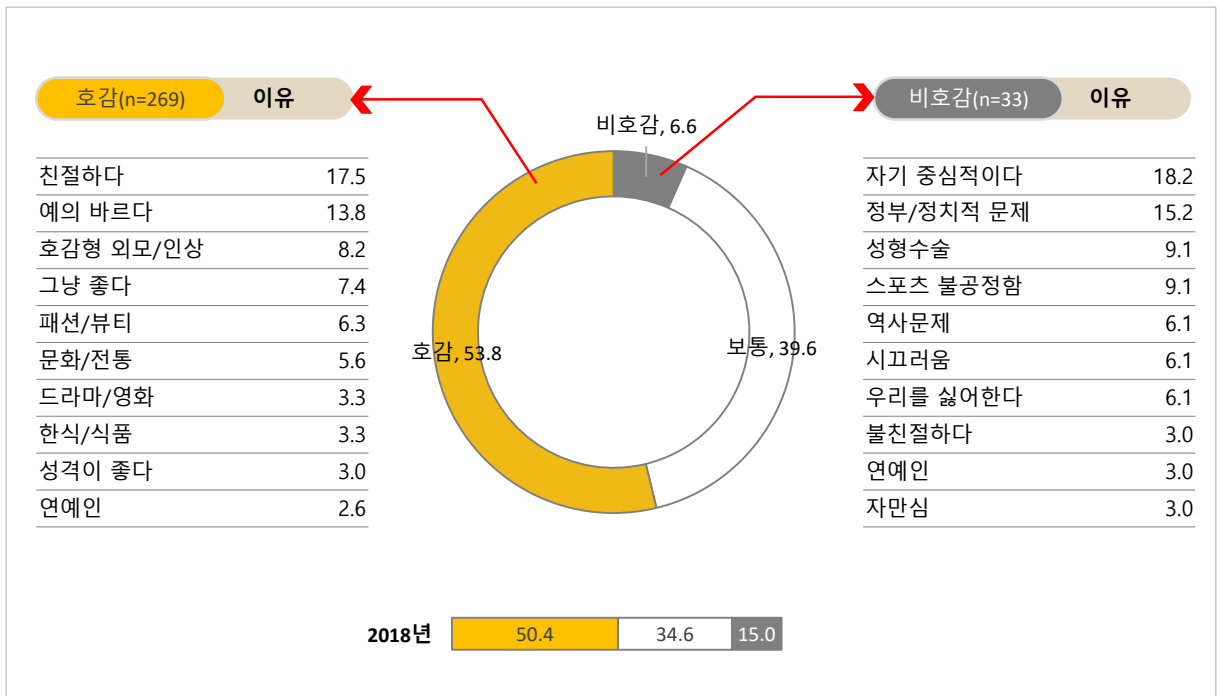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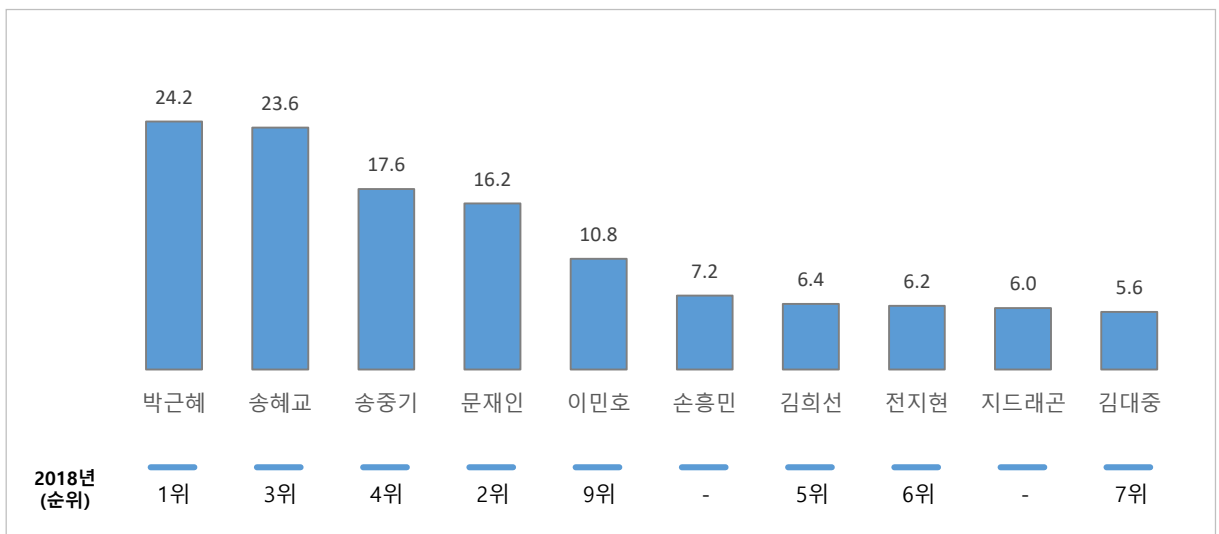


그림3-1-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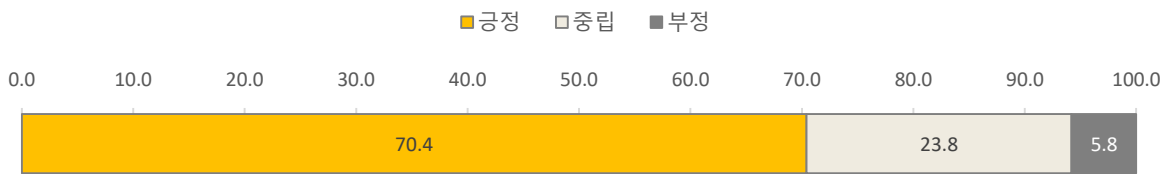
- 중국인들은 '한국'하면 '한식/식품'을 가장 많이 떠올리며, 그 외에 'K-뷰티/화장품', '드라마/영화' 등의 관련 연상이 높았음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70.4%, 부정 5.8%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한식/식품', 부정이미지 연상은 '외교관계'가 가장 많았음

그림3-1-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2018년 조사결과 (사례수 : 352)

연상 이미지	비율 (%)
한식/식품	23.6
K-뷰티/화장품	15.9
드라마/영화	14.5
패션	8.2
K-POP/가수	3.4
문화/문화유산	3.4
연예인	3.4
기술력/첨단기술	2.8
기업브랜드	2.8
스포츠/선수	2.6

(사례수 : 119)

연상 이미지	비율 (%)
한식/식품	22.7
K-뷰티/화장품	16.0
기업브랜드	8.4
스포츠/선수	8.4
드라마/영화	4.2
정치	4.2
연예인	4.2
K-POP/가수	3.4
수도/서울	2.5
관광/관광지	2.5

(사례수 : 14)

연상 이미지	비율 (%)
외교관계	20.7
외모지상주의	10.3
북한/남북관계	6.9
정부/정치적 문제	6.9
한식/식품	6.9
기업브랜드	6.9
드라마/영화	6.9
전쟁	3.4
북핵/안보문제	3.4
문화/문화유산	3.4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61.6%, 5점 만점 3.77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남북문제', '정치상황'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3-1-10.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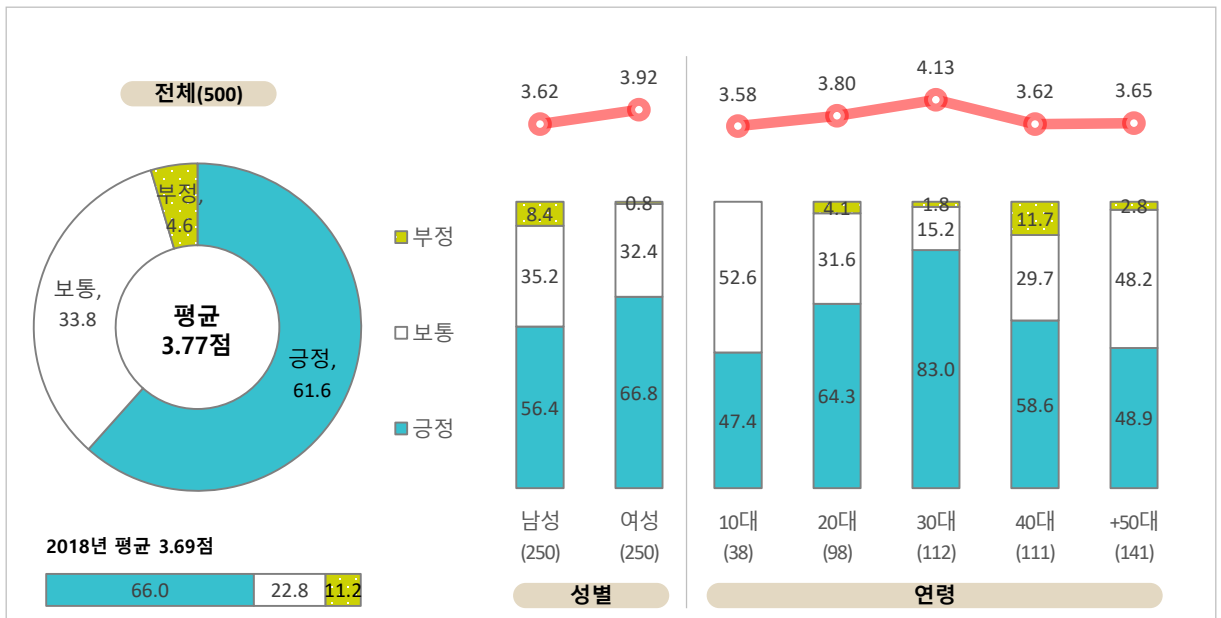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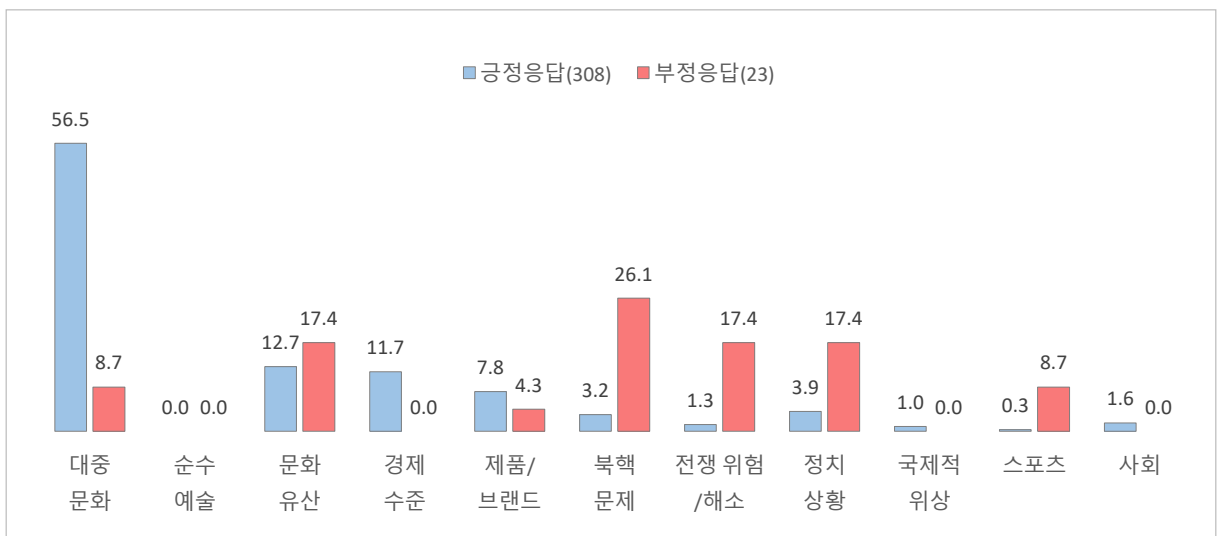


그림3-1-11.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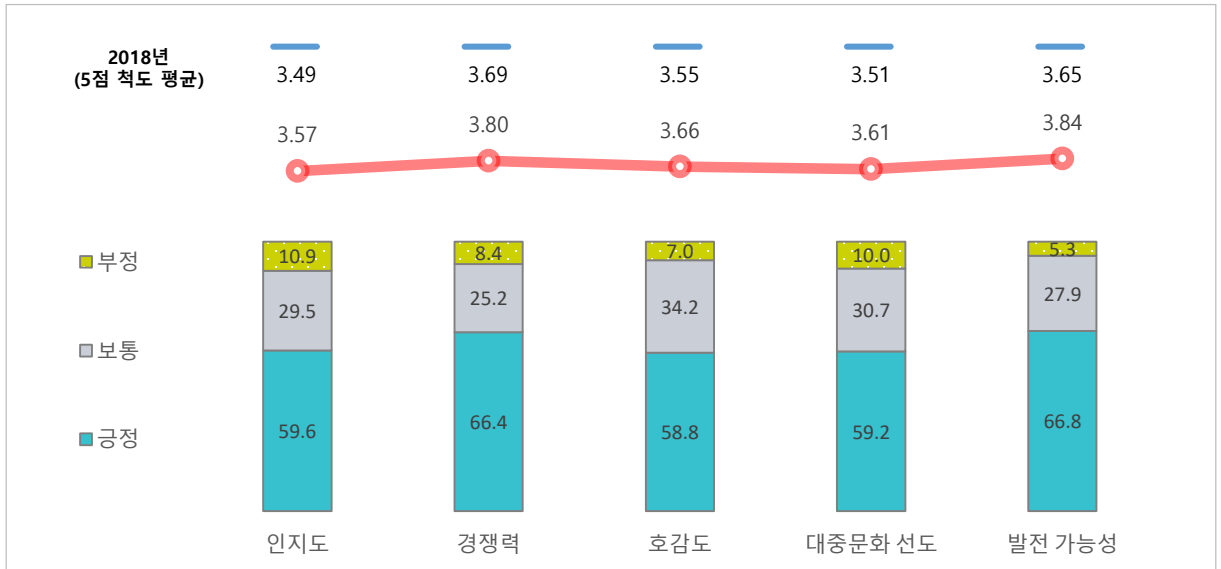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 60% 내외, 부정 평가 10% 내외로 긍정 평가가 우세하였음
- 특히,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의 긍정 평가는 66% 이상으로 나타났음

그림3-1-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미지 속성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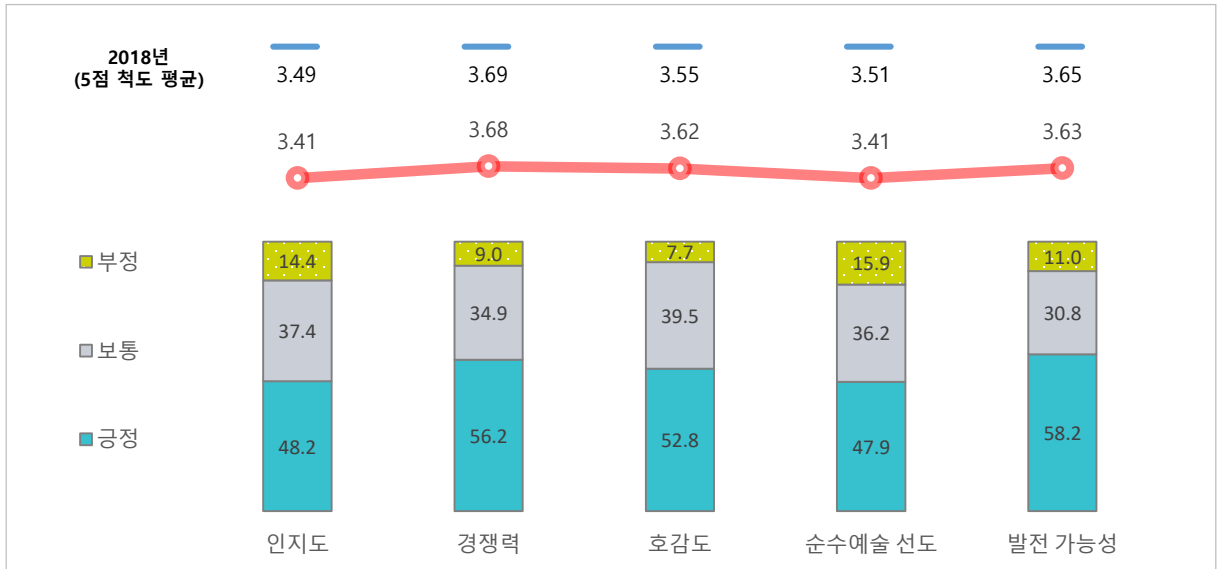
표3-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88)	(244)	(244)	(38)	(97)	(108)	(109)	(136)
인지도	긍정률	59.6	57.0	62.3	31.6	66.0	75.9	56.9	52.2
	평균	3.57	3.48	3.66	3.24	3.59	3.81	3.52	3.50
경쟁력	긍정률	66.4	62.3	70.5	44.7	59.8	72.2	67.9	71.3
	평균	3.80	3.75	3.85	3.45	3.72	3.85	3.65	4.02
호감도	긍정률	58.8	52.9	64.8	42.1	57.7	69.4	56.9	57.4
	평균	3.66	3.55	3.78	3.42	3.60	3.80	3.61	3.72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59.2	54.1	64.3	36.8	59.8	68.5	56.9	59.6
	평균	3.61	3.51	3.71	3.21	3.66	3.74	3.57	3.62
발전 가능성	긍정률	66.8	60.7	73.0	55.3	73.2	71.3	62.4	65.4
	평균	3.84	3.73	3.95	3.61	3.95	3.89	3.70	3.91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순수예술 선도' 항목은 긍정이 47.9% 높았지만 부정 응답도 15.9%로 다른 속성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3-1-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평가가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고,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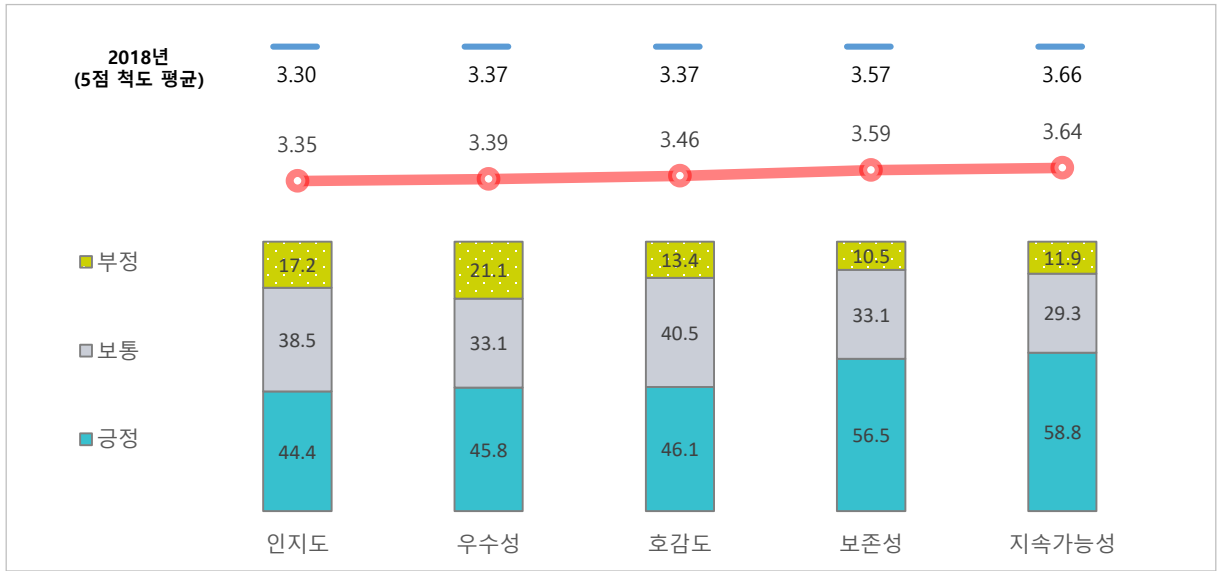
표3-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0)	(193)	(197)	(22)	(76)	(81)	(91)	(120)
인지도	긍정률	48.2	44.0	52.3	27.3	46.1	61.7	34.1	55.0
	평균	3.41	3.26	3.55	3.18	3.32	3.65	3.18	3.52
경쟁력	긍정률	56.2	52.3	59.9	22.7	52.6	60.5	50.5	65.8
	평균	3.68	3.59	3.77	3.18	3.58	3.68	3.42	4.03
호감도	긍정률	52.8	50.8	54.8	22.7	55.3	66.7	44.0	54.2
	평균	3.62	3.56	3.68	3.05	3.59	3.86	3.43	3.73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47.9	42.5	53.3	27.3	42.1	58.0	38.5	55.8
	평균	3.41	3.29	3.52	3.00	3.33	3.56	3.18	3.61
발전 가능성	긍정률	58.2	55.4	60.9	40.9	51.3	67.9	49.5	65.8
	평균	3.63	3.56	3.71	3.36	3.41	3.81	3.41	3.88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존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은 속성은 '우수성'으로 21.1%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우수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1-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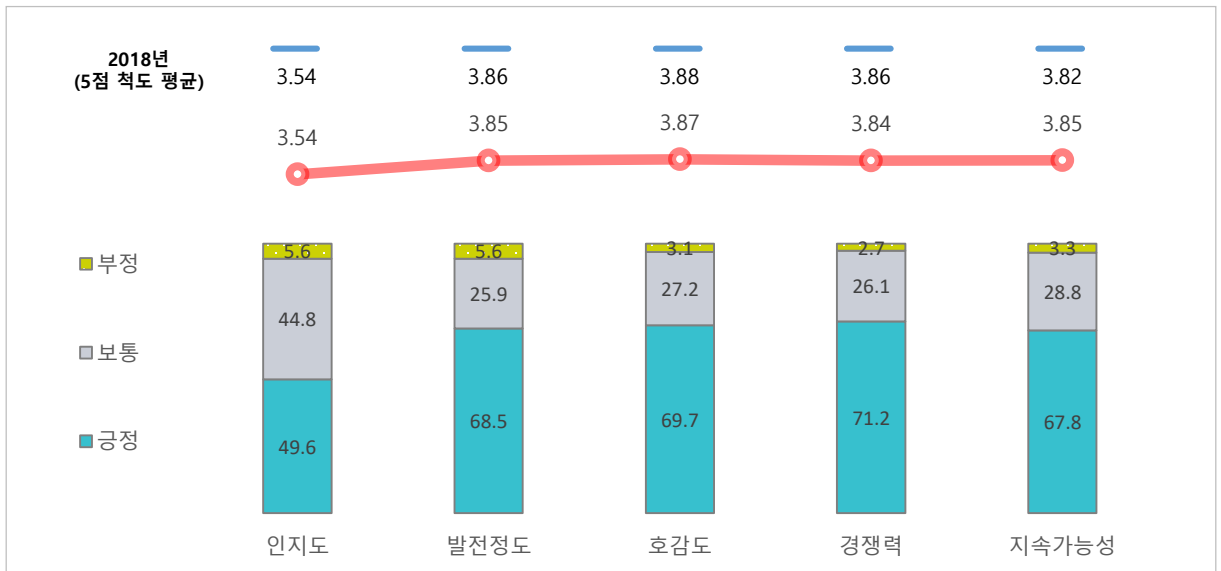
표3-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78)	(239)	(239)	(33)	(93)	(105)	(110)	(137)
인지도	긍정률	44.4	39.7	49.0	21.2	38.7	60.0	37.3	47.4
	평균	3.35	3.25	3.44	3.03	3.25	3.60	3.25	3.36
우수성	긍정률	45.8	41.0	50.6	15.2	37.6	61.9	35.5	54.7
	평균	3.39	3.25	3.54	2.70	3.20	3.69	3.14	3.66
호감도	긍정률	46.1	43.9	48.3	18.2	36.6	68.3	40.0	47.4
	평균	3.46	3.38	3.54	2.94	3.32	3.79	3.28	3.58
보존성	긍정률	56.5	53.1	59.8	33.3	48.4	70.5	53.6	59.1
	평균	3.59	3.49	3.69	3.24	3.51	3.84	3.51	3.61
지속가능성	긍정률	58.8	53.1	64.4	27.3	53.8	72.4	56.4	61.3
	평균	3.64	3.49	3.78	3.18	3.52	3.86	3.45	3.80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60%후반대로, 부정 평가가 5%대 미만으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쟁력'은 긍정 71.2%, 부정 2.7%로 가장 높았고, 호감도 역시 긍정 69.7%, 부정 3.1%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1-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고, 20대, 40대, 50대 이상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3-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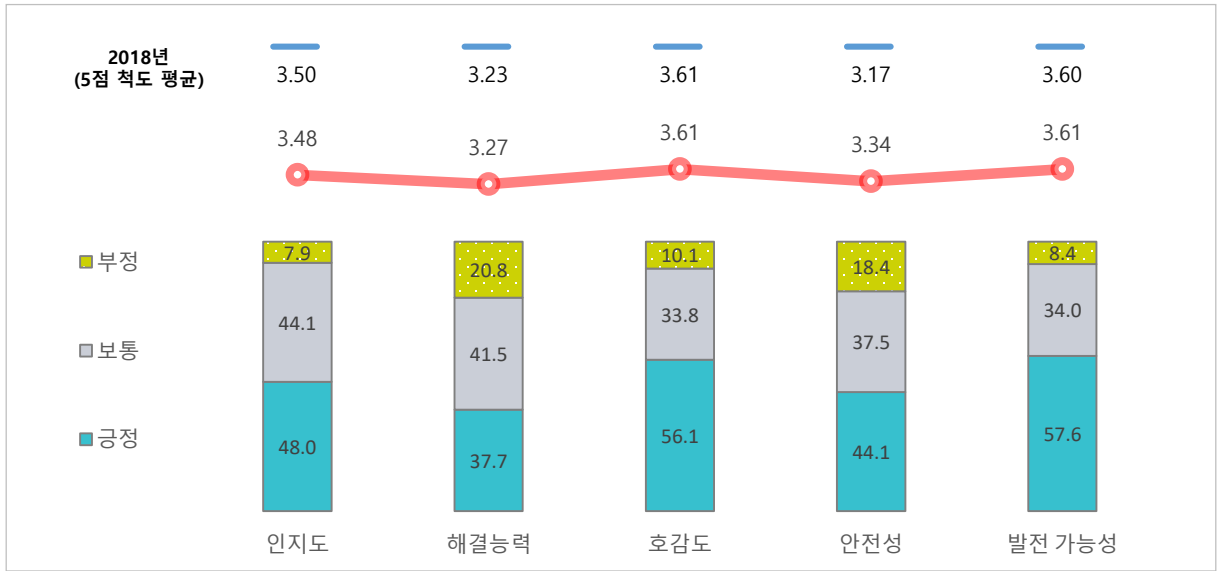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82)	(242)	(240)	(33)	(94)	(111)	(107)	(137)
인지도	긍정률	49.6	47.1	52.1	24.2	50.0	56.8	46.7	51.8
	평균	3.54	3.47	3.61	3.15	3.51	3.66	3.51	3.58
발전정도	긍정률	68.5	66.1	70.8	48.5	59.6	84.7	69.2	65.7
	평균	3.85	3.84	3.86	3.48	3.68	4.09	3.73	3.95
호감도	긍정률	69.7	68.2	71.3	51.5	69.1	87.4	68.2	61.3
	평균	3.87	3.83	3.91	3.52	3.85	4.14	3.79	3.82
경쟁력	긍정률	71.2	68.6	73.8	48.5	69.1	85.6	69.2	67.9
	평균	3.84	3.79	3.90	3.55	3.81	4.07	3.77	3.82
지속가능성	긍정률	67.8	64.0	71.7	57.6	64.9	84.7	60.7	64.2
	평균	3.85	3.78	3.93	3.58	3.76	4.13	3.69	3.89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은 긍정평가가 5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해결능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0% 이하로 나타났음
- 전년도와 비교해 '해결능력'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20% 내외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1-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평가가 높았으나 다른 분야보다 차이는 크지 않았음.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대의 평가가 높았음

표3-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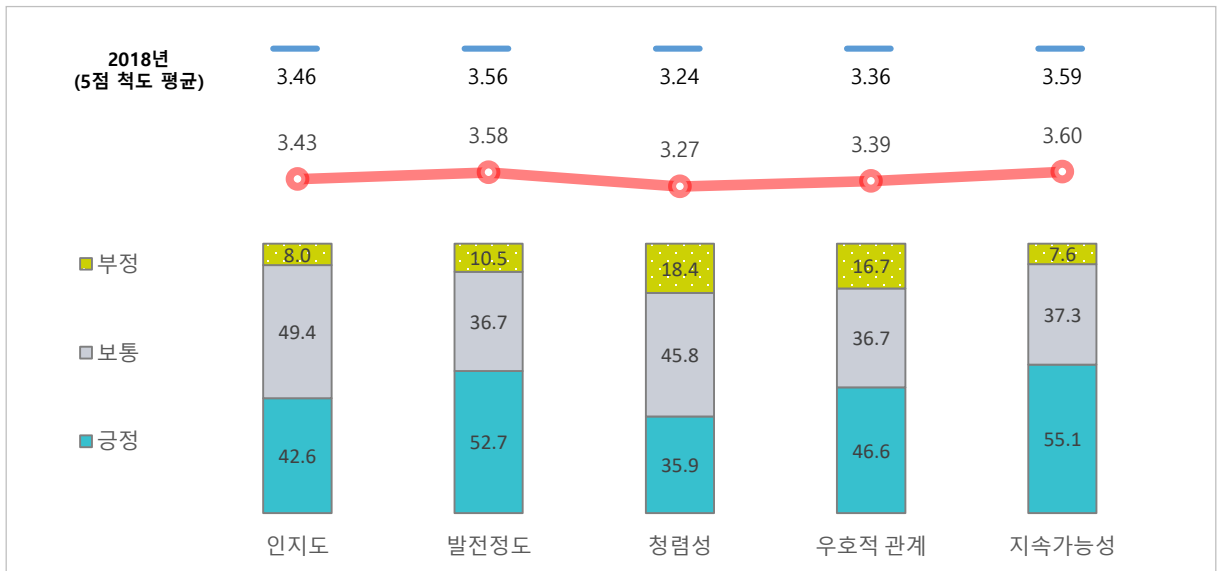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67)	(235)	(232)	(34)	(91)	(105)	(107)	(130)
인지도	긍정률	48.0	48.9	47.0	32.4	45.1	60.0	48.6	43.8
	평균	3.48	3.49	3.48	3.21	3.40	3.65	3.50	3.48
해결능력	긍정률	37.7	31.5	44.0	17.6	44.0	46.7	31.8	36.2
	평균	3.27	3.16	3.38	2.94	3.36	3.41	3.08	3.34
호감도	긍정률	56.1	54.9	57.3	29.4	59.3	69.5	53.3	52.3
	평균	3.61	3.57	3.65	3.15	3.57	3.83	3.49	3.68
안전성	긍정률	44.1	40.0	48.3	23.5	45.1	58.1	38.3	42.3
	평균	3.34	3.20	3.48	3.03	3.34	3.60	3.18	3.35
발전 가능성	긍정률	57.6	56.2	59.1	29.4	59.3	75.2	50.5	55.4
	평균	3.61	3.59	3.63	3.18	3.62	3.85	3.44	3.66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발전정도'와 '지속가능성'은 5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았으나, '청렴성'에 대해서는 긍정 35.9%, 부정 18.4%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전년도에도 '청렴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조금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1-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의 평가가 비슷한 가운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우호적 관계'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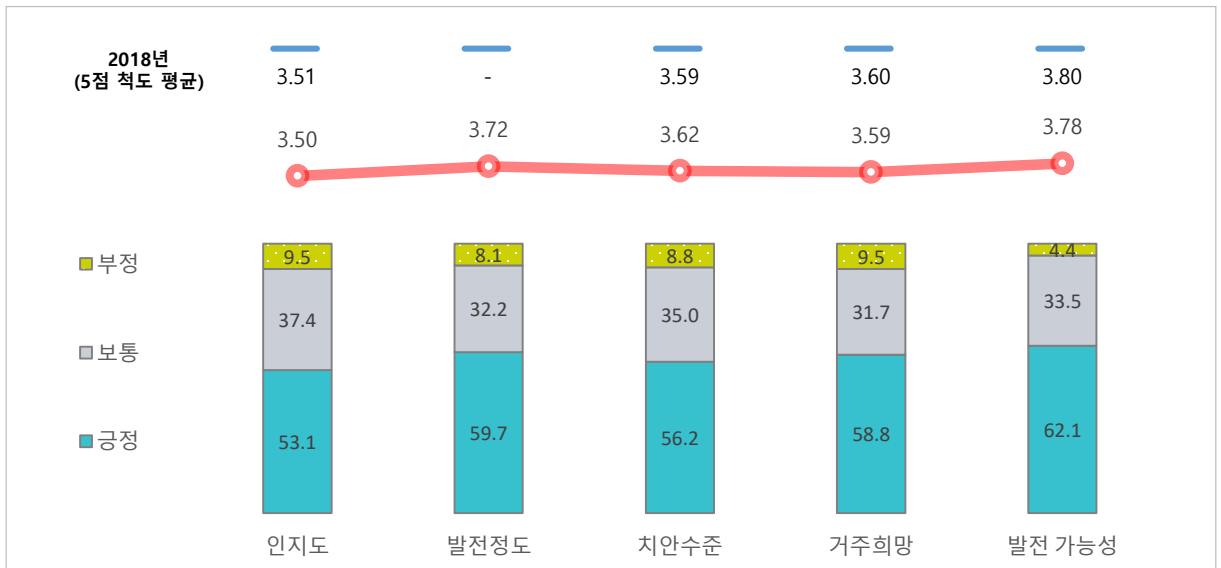
표3-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74)	(236)	(238)	(34)	(91)	(106)	(106)	(137)
인지도	긍정률	42.6	44.1	41.2	20.6	38.5	53.8	44.3	40.9
	평균	3.43	3.40	3.46	3.15	3.35	3.60	3.47	3.39
발전정도	긍정률	52.7	50.8	54.6	35.3	51.6	63.2	50.0	51.8
	평균	3.58	3.54	3.62	3.24	3.52	3.80	3.48	3.62
청렴성	긍정률	35.9	36.4	35.3	8.8	34.1	51.9	31.1	35.0
	평균	3.27	3.24	3.30	2.68	3.20	3.55	3.13	3.35
우호적 관계	긍정률	46.6	43.6	49.6	17.6	38.5	62.3	41.5	51.1
	평균	3.39	3.30	3.47	3.06	3.29	3.63	3.30	3.42
지속가능성	긍정률	55.1	48.3	61.8	32.4	56.0	64.2	53.8	54.0
	평균	3.60	3.47	3.73	3.35	3.45	3.77	3.52	3.69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50% 후반대의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세부 속성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평가 62.1%, 부정 평가 4.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 '발전정도'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59.7%, 부정 평가 8.1%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3-1-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발전정도'와 '치안수준'에 대해 여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표3-1-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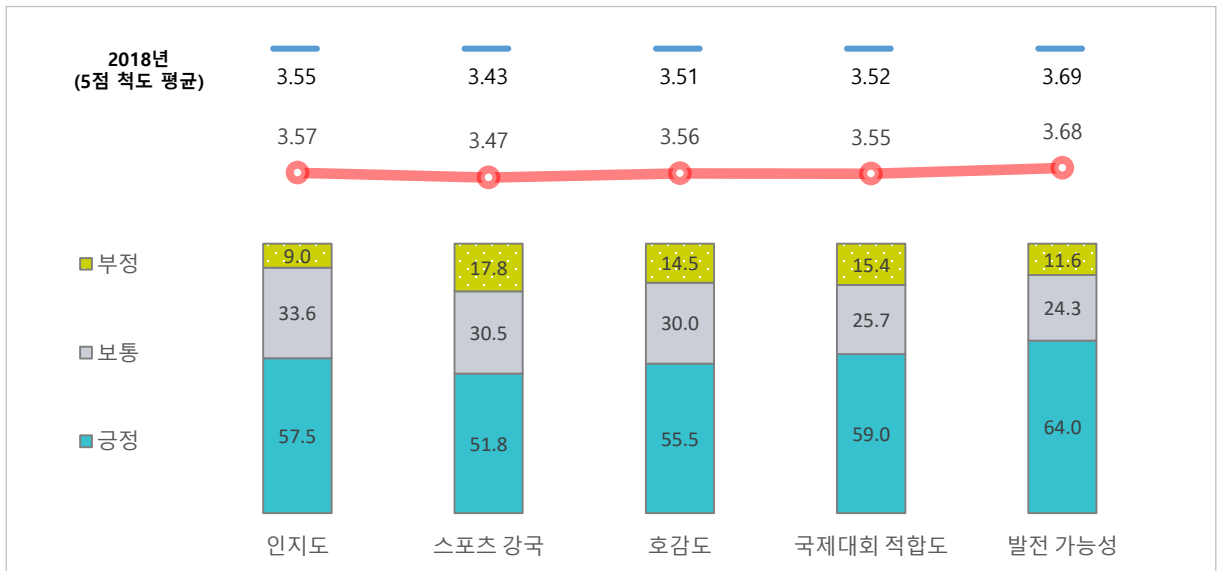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54)	(224)	(230)	(31)	(82)	(101)	(102)	(138)
인지도	긍정률	53.1	50.4	55.7	41.9	48.8	71.3	48.0	48.6
	평균	3.50	3.40	3.60	3.39	3.48	3.77	3.40	3.43
발전정도	긍정률	59.7	54.0	65.2	45.2	59.8	73.3	53.9	57.2
	평균	3.72	3.56	3.87	3.42	3.66	3.96	3.51	3.80
치안수준	긍정률	56.2	50.9	61.3	38.7	56.1	74.3	52.0	50.0
	평균	3.62	3.50	3.74	3.19	3.65	3.91	3.46	3.60
거주희망	긍정률	58.8	54.0	63.5	45.2	57.3	74.3	59.8	50.7
	평균	3.59	3.46	3.71	3.35	3.56	3.87	3.49	3.53
발전 가능성	긍정률	62.1	54.9	69.1	54.8	58.5	79.2	55.9	58.0
	평균	3.78	3.59	3.96	3.61	3.70	4.03	3.59	3.82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 긍정 50%이상으로 나타남
- 그 중 가장 높은 평가는 '발전 가능성'으로 긍정 64.0%, 부정 11.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국제대회 적합도'가 긍정 59.0%, 부정 15.4%로 나타남

그림3-1-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스포츠 강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높았고, '스포츠 강국'과 '국제대회 적합도'에 대해서는 50대 이상도 높게 평가

표3-1-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56)	(233)	(223)	(33)	(85)	(98)	(104)	(136)
인지도	긍정률	57.5	57.1	57.8	27.3	56.5	70.4	60.6	53.7
	평균	3.57	3.52	3.64	3.03	3.54	3.85	3.61	3.51
스포츠강국	긍정률	51.8	42.1	61.9	18.2	44.7	62.2	46.2	61.0
	평균	3.47	3.31	3.63	2.58	3.32	3.63	3.31	3.78
호감도	긍정률	55.5	54.1	57.0	18.2	54.1	71.4	52.9	55.9
	평균	3.56	3.49	3.62	2.58	3.52	3.81	3.46	3.71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59.0	55.8	62.3	27.3	51.8	73.5	53.8	64.7
	평균	3.55	3.46	3.65	2.70	3.44	3.87	3.40	3.71
발전 가능성	긍정률	64.0	63.1	65.0	39.4	63.5	80.6	61.5	60.3
	평균	3.68	3.60	3.77	3.18	3.52	4.01	3.60	3.74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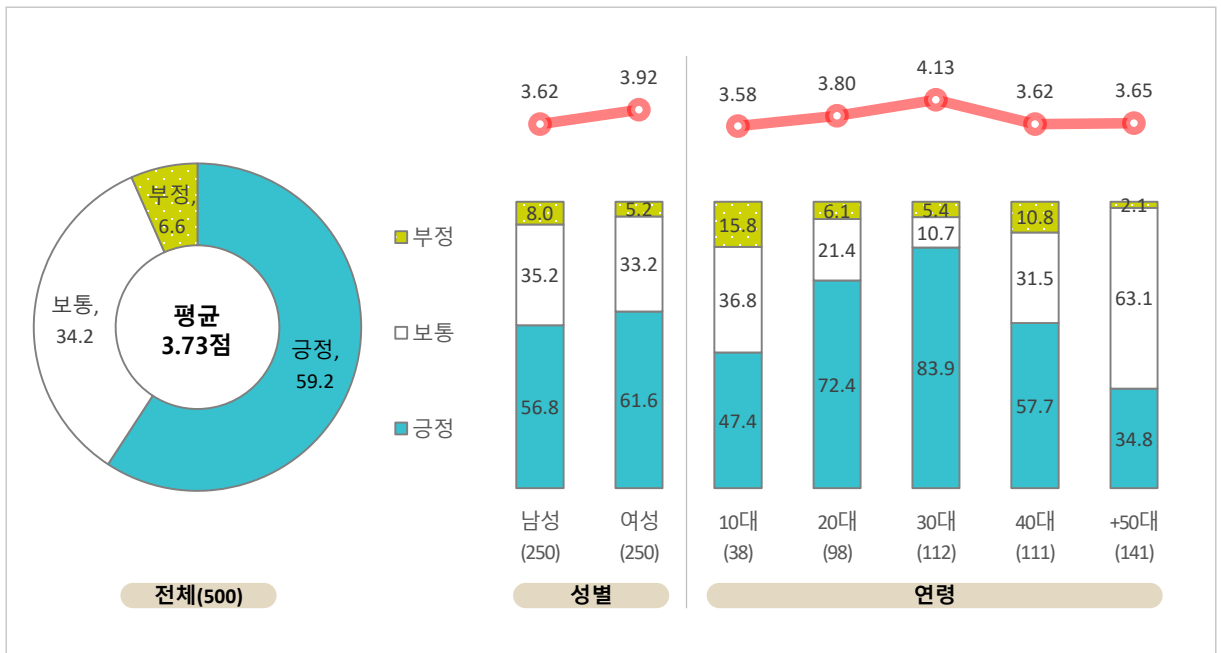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59.2%, 부정 6.6%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문화/전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변화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3-1-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긍정적 변화 이유(n=296)	
문화/전통	13.5
그냥 좋다	8.4
사회/경제/경제발전	7.8
친절하다	5.7
외교관계	4.4
기술력/첨단기술	4.1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3.7
정치/대통령	3.7
호감/호의적임	3.4
한식/식품	3.4

부정적 변화 이유(n=33)	
정부/정치적 문제	18.2
한중관계 악화	15.2
사드배치	12.1
전쟁/핵 위험	6.1
북한 문제	6.1
외교문제	6.1
스포츠 정신이 없음	6.1
역사적 문제	3.0
부정적 매체의 영향	3.0
민주적이지 않음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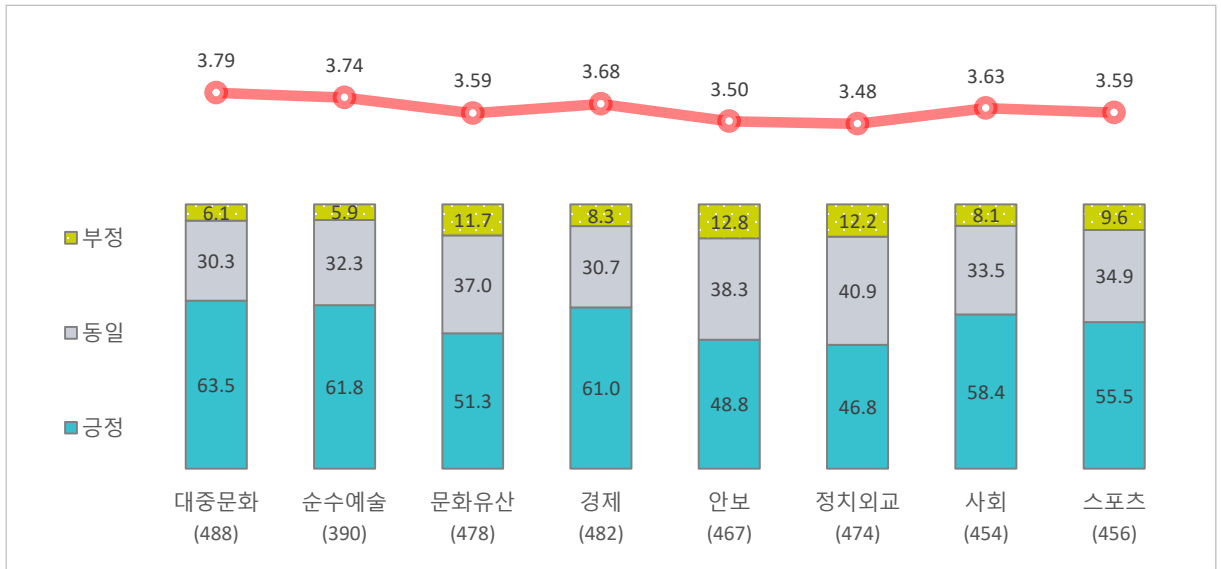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대중문화', '순수예술', '경제'는 긍정 6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보'와 '정치외교'는 긍정이 5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1-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여성이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는 '대중문화', 20대와 30대는 '경제', 40대는 '사회', 50대 이상은 '순수예술'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3-1-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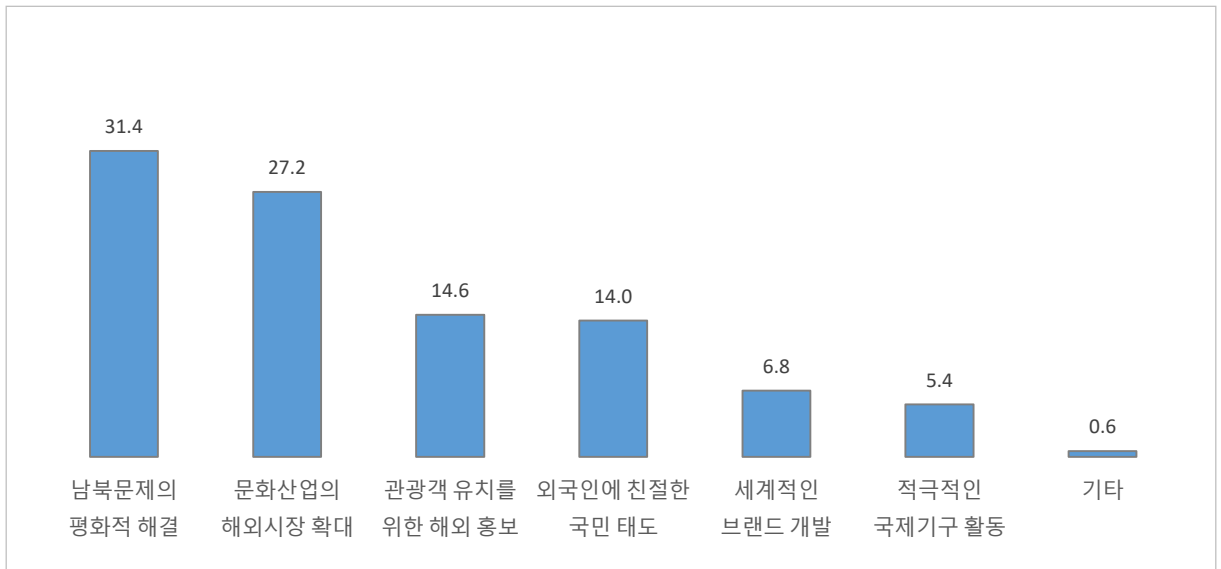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63.5	58.6	68.4	50.0	66.0	75.9	52.3	64.7
	평균	3.79	3.70	3.88	3.58	3.85	4.02	3.63	3.76
순수예술	긍정률	61.8	59.1	64.5	36.4	64.5	71.6	49.5	67.5
	평균	3.74	3.65	3.83	3.32	3.72	3.96	3.56	3.83
문화유산	긍정률	51.3	44.8	57.7	24.2	48.4	69.5	43.6	51.8
	평균	3.59	3.46	3.71	3.18	3.56	3.93	3.34	3.64
경제	긍정률	61.0	60.3	61.7	30.3	69.1	79.3	52.3	54.7
	평균	3.68	3.66	3.70	3.21	3.78	3.99	3.50	3.61
안보	긍정률	48.8	44.3	53.4	26.5	56.0	63.8	45.8	40.0
	평균	3.50	3.38	3.63	3.00	3.58	3.78	3.34	3.49
정치외교	긍정률	46.8	42.4	51.3	17.6	46.2	56.6	45.3	48.2
	평균	3.48	3.40	3.55	2.91	3.42	3.65	3.38	3.61
사회	긍정률	58.4	54.5	62.2	41.9	58.5	73.3	56.9	52.2
	평균	3.63	3.53	3.73	3.26	3.57	3.84	3.53	3.68
스포츠	긍정률	55.5	51.5	59.6	30.3	58.8	67.3	50.0	55.1
	평균	3.59	3.48	3.70	3.03	3.60	3.76	3.49	3.68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27.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4.6%),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14.0%) 순으로 나타남

그림3-1-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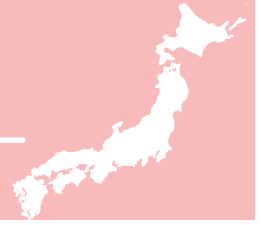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은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성은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가장 많이 응답. 연령별로는 30대가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우선과제로 많이 응답함

표3-1-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31.4	38.8	24.0	36.8	33.7	23.2	36.0	31.2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27.2	21.6	32.8	23.7	26.5	33.9	22.5	27.0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4.6	11.2	18.0	2.6	11.2	13.4	14.4	21.3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4.0	15.6	12.4	23.7	16.3	12.5	12.6	12.1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6.8	7.2	6.4	10.5	8.2	7.1	7.2	4.3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5.4	4.8	6.0	2.6	4.1	9.8	5.4	3.5
기타	0.6	0.8	0.4	0.0	0.0	0.0	1.8	0.7

# 02 일본



## 1 일반개요

위치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 25분 사이에 위치	언어	일본어
수도	도쿄(東京)	종교	신도, 불교, 기독교
인구	1억 2,644만 명	1인당 GDP	41,021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아베총리는 집권 이후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정책이라는 3개의 화살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제회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생산성 개선 및 신규 수요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확산을 가속화
-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60% 미만으로 축소
  - 2018년 4월 1일 기준 일본 총 인구는 1억 2,650만 명으로 9년 연속 감소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 갈등 확산

-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 국민감정 격화, 지방도시 간 교류, 학생 교류 등이 중단됨과 동시에 일본 취향 노선 단축
- 한국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및 부품소재의 자급화, WTO 제소 등 맞대응 검토

###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 경제 타격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 등을 이유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대규모 불매운동이 확산
- 전년대비 일본 주요 식품 수출액 90% 이상의 감소율 기록
- 일본 지방 소도시의 한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어려움 호소

###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 3국의 협력방안, 지역 및 국제 정세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
-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 환경, 보건, 고령화 분야까지 3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향후 10년 협력비전' 공동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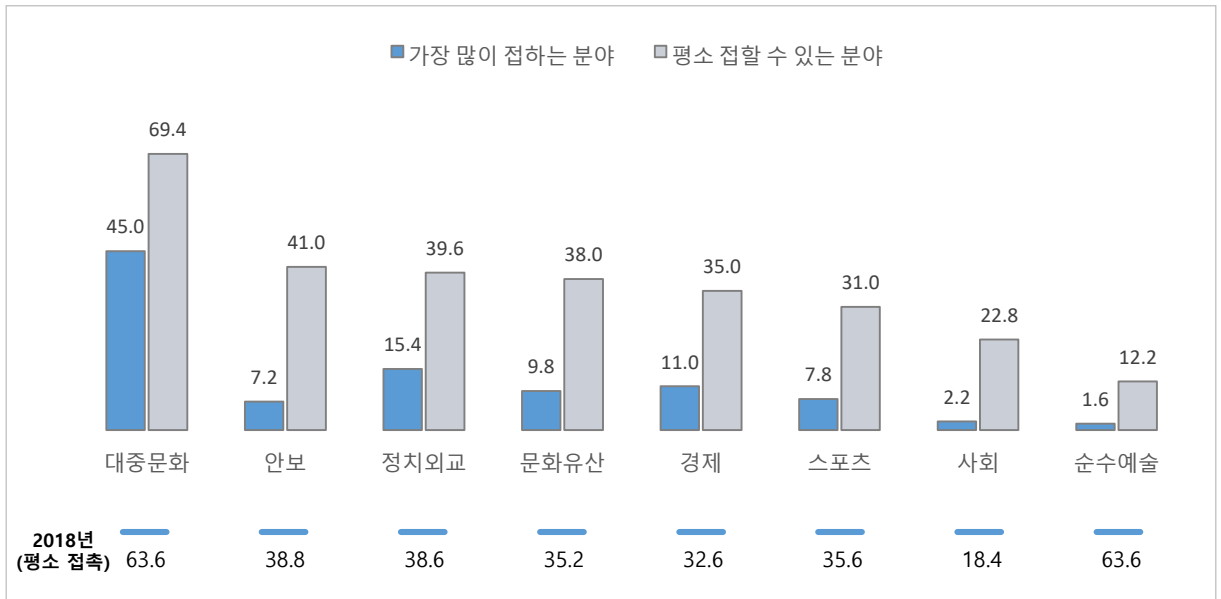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69.4%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경제' 관련 접촉이 소폭 감소했고, 나머지 분야는 소폭 증가하였음

그림3-2-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접촉 비중이 높았고, '안보', '정치외교', '경제', '사회'는 남성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3-2-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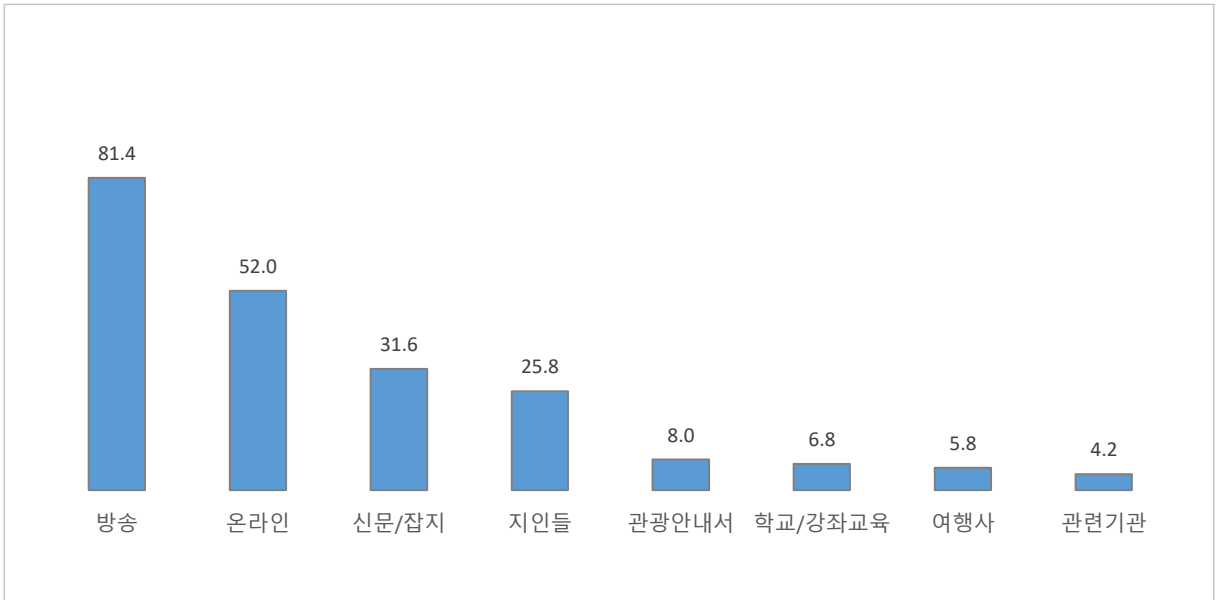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82)	(97)	(122)	(161)
대중문화	69.4	58.8	80.0	81.6	75.6	77.3	65.6	61.5
안보	41.0	46.4	35.6	36.8	47.6	35.1	44.3	39.8
정치외교	39.6	47.2	32.0	21.1	42.7	37.1	45.1	39.8
문화유산	38.0	35.2	40.8	39.5	46.3	40.2	36.1	33.5
경제	35.0	44.8	25.2	36.8	40.2	33.0	37.7	31.1
스포츠	31.0	36.8	25.2	21.1	24.4	26.8	32.8	37.9
사회	22.8	28.0	17.6	21.1	24.4	22.7	26.2	19.9
순수예술	12.2	10.4	14.0	10.5	18.3	11.3	15.6	7.5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방송' > '온라인'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2-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과 '온라인'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문/잡지'는 남성이 '지인들'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높아질 수록 '온라인' 접촉 비중이 낮게 나타남

표3-2-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82)	(97)	(122)	(161)
방송	81.4	82.4	80.4	78.9	79.3	74.2	81.1	87.6
온라인	52.0	55.6	48.4	71.1	67.1	56.7	49.2	39.1
신문/잡지	31.6	37.6	25.6	26.3	36.6	24.7	27.9	37.3
지인들	25.8	17.6	34.0	44.7	28.0	28.9	23.0	20.5
관광안내서	8.0	7.2	8.8	2.6	12.2	7.2	9.8	6.2
학교/강좌교육	6.8	7.2	6.4	13.2	9.8	5.2	8.2	3.7
여행사	5.8	4.4	7.2	2.6	8.5	9.3	4.1	4.3
관련기관	4.2	5.6	2.8	5.3	7.3	5.2	5.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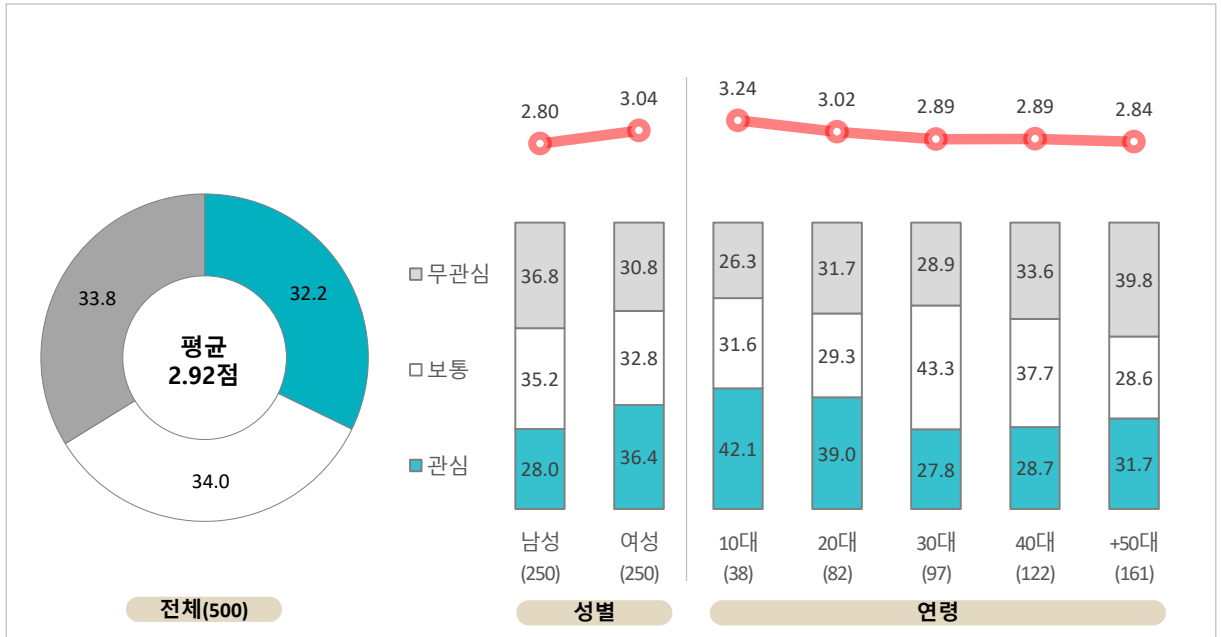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32.2%, '관심 없다'가 33.8%로 관심도가 다소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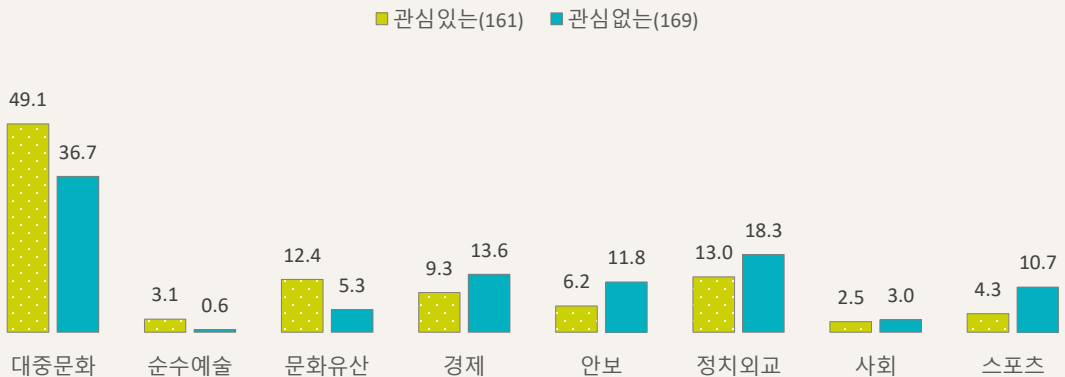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관심도가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2-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정치외교', '경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관심이 없는 일본인들 또한 '대중문화'와 '정치외교', '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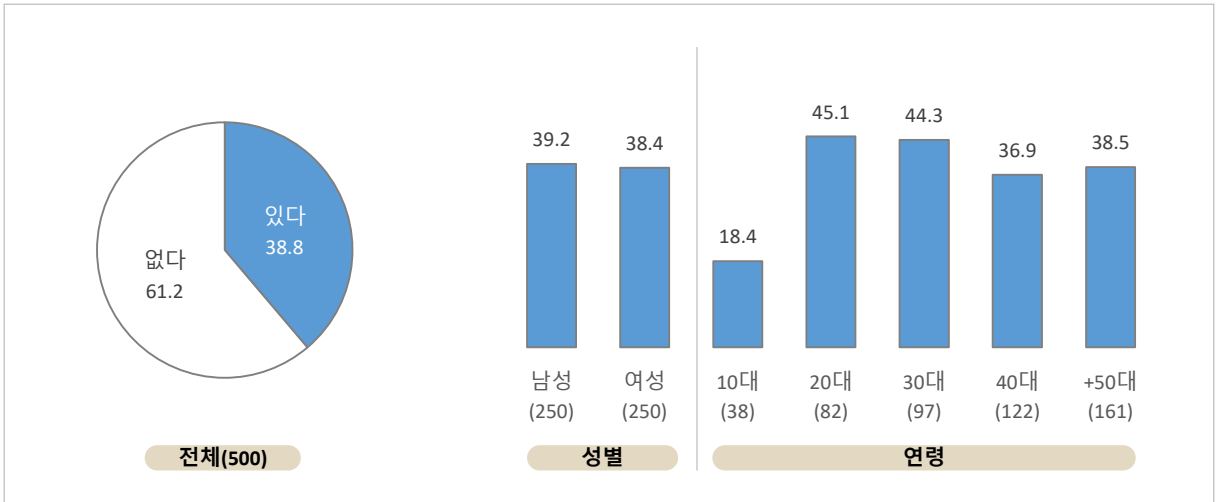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63.8%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84.6%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20대와 30대에서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2-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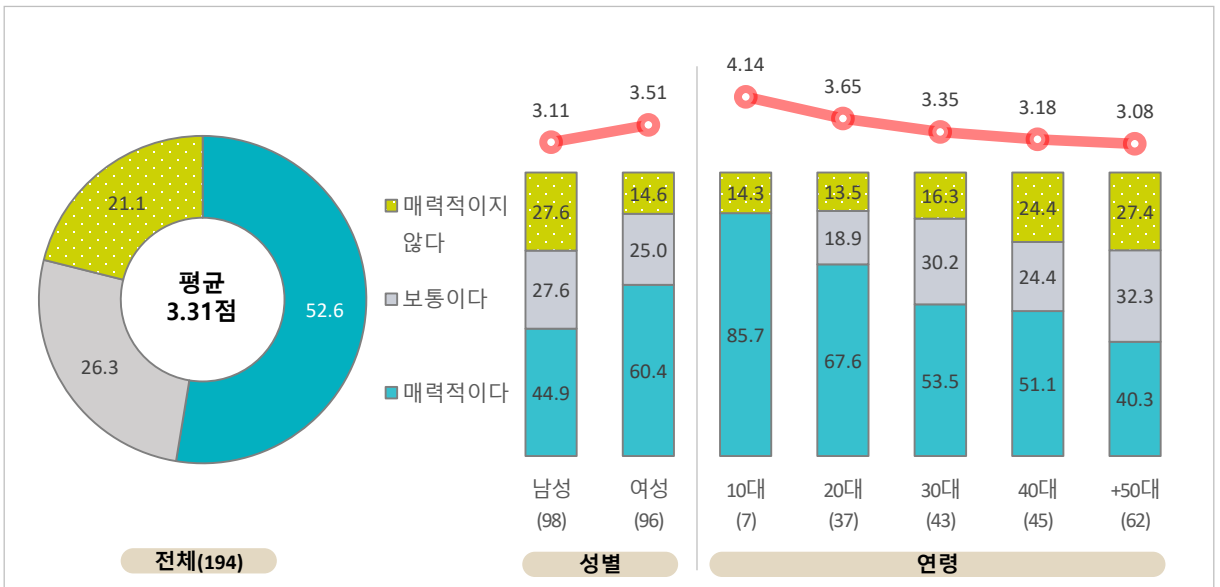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여성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 수록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3-2-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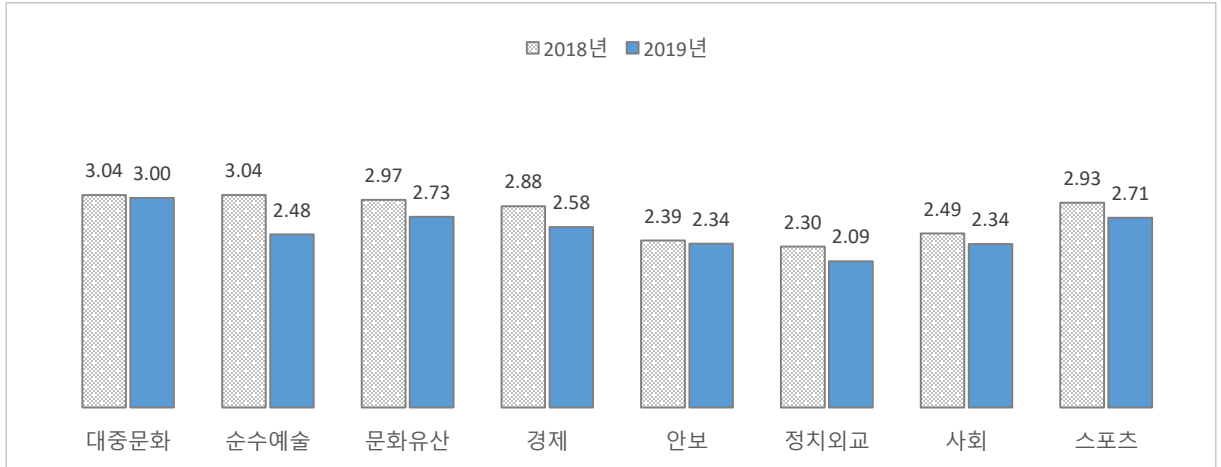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18년 대비 모두 소폭 하락한 가운데, '대중문화'가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분야는 5점 만점 기준 3점 미만으로 다소 낮게 나타남
- 특히, '정치외교'의 호감도는 2.09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3-2-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문화', '문화유산'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임

표3-2-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82)	(97)	(122)	(161)
대중문화	긍정률	34.9	27.3	42.0	57.9	40.5	28.4	38.5	27.2
	평균	3.00	2.77	3.21	3.71	3.19	2.97	3.01	2.71
순수예술	긍정률	14.9	12.7	17.1	24.0	23.7	7.2	19.0	9.6
	평균	2.48	2.32	2.63	3.04	2.80	2.36	2.53	2.19
문화유산	긍정률	24.9	17.3	32.6	45.2	34.2	22.9	23.0	18.4
	평균	2.73	2.51	2.94	3.39	3.05	2.65	2.66	2.51
경제	긍정률	20.0	19.9	20.1	41.2	28.4	20.5	16.8	12.0
	평균	2.58	2.51	2.66	3.18	2.90	2.62	2.59	2.22
안보	긍정률	8.5	7.8	9.2	22.6	4.7	9.3	6.4	8.0
	평균	2.34	2.23	2.46	2.81	2.50	2.28	2.22	2.28
정치외교	긍정률	3.3	4.1	2.4	3.4	4.0	4.8	3.8	1.5
	평균	2.09	2.02	2.17	2.48	2.25	2.17	2.08	1.88
사회	긍정률	7.8	6.8	8.8	15.6	15.2	9.0	4.0	4.4
	평균	2.34	2.26	2.43	2.94	2.61	2.36	2.24	2.12
스포츠	긍정률	18.6	16.3	20.9	26.7	14.1	13.3	21.6	19.8
	평균	2.71	2.65	2.78	3.07	2.77	2.71	2.70	2.62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18.6%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42.0%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 '한국인 친구/지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반일감정', '약속을 안지킴/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배용준' > '문재인' > '김연아' > '박근혜' 순으로 나타남

그림3-2-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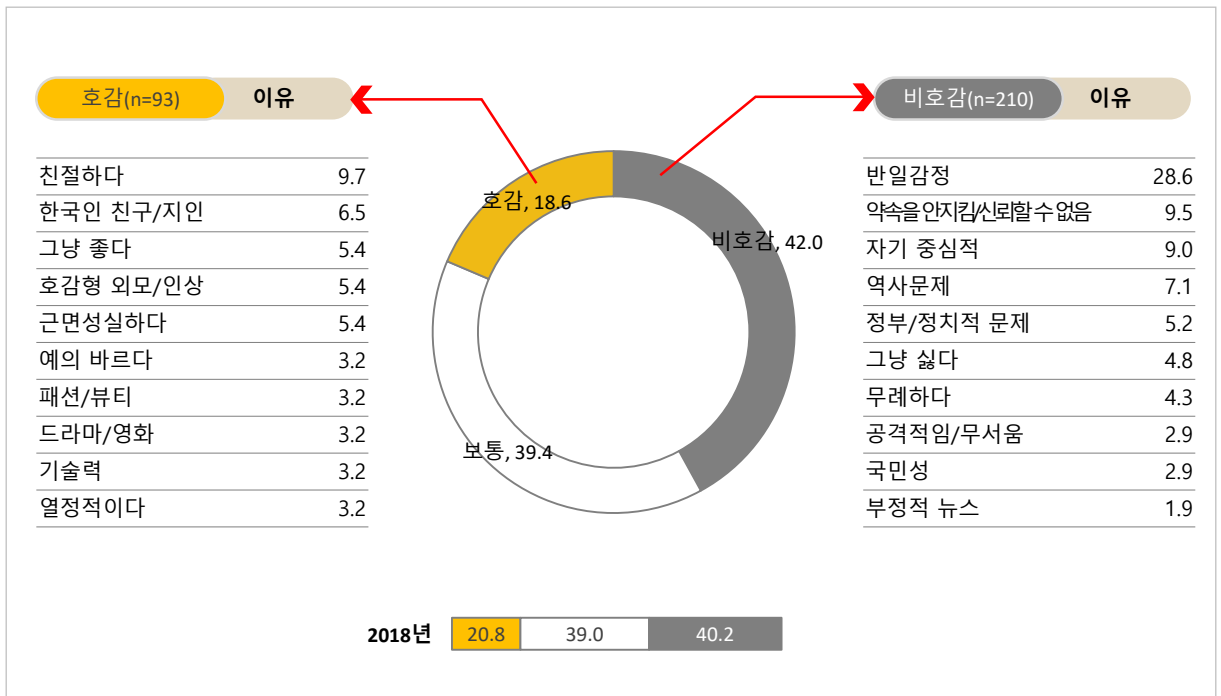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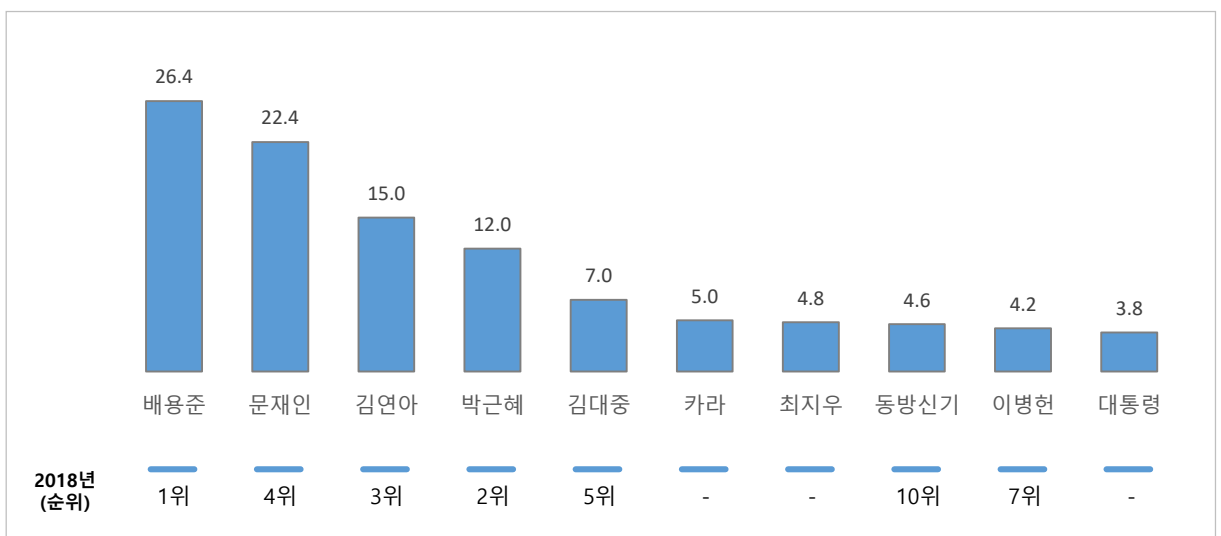


그림3-2-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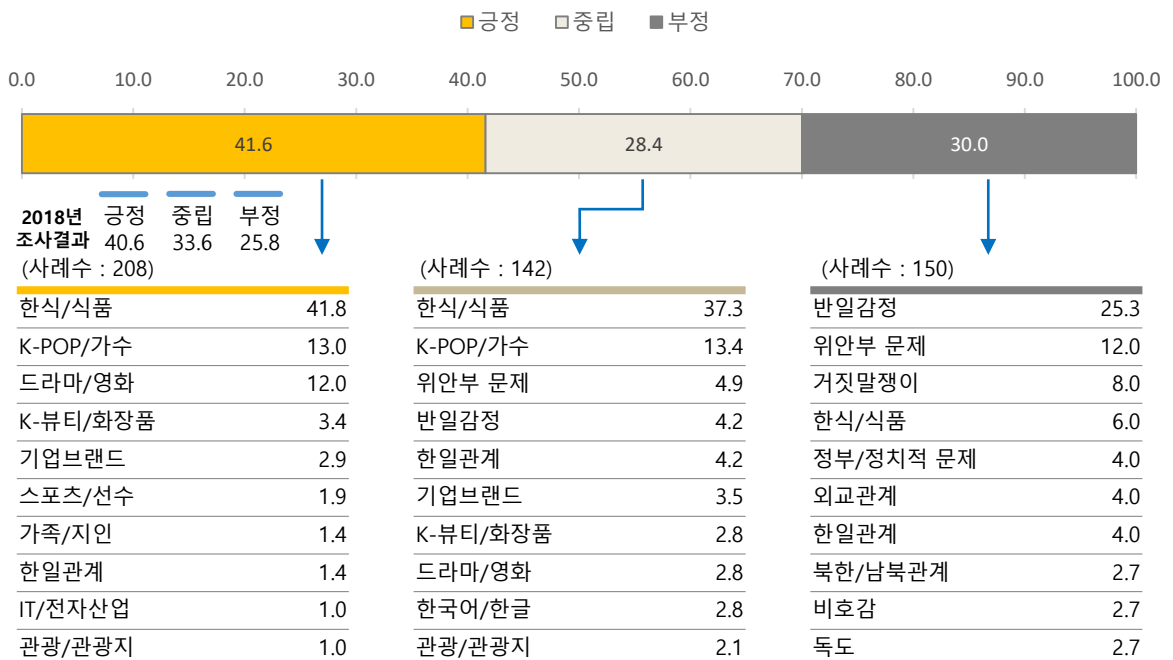
- 일본인들은 '한국'하면 '한식/식품'을 가장 많이 떠올렸으며, 그 외에 'K-pop/가수', '드라마/영화' 등에 대한 관련 연상이 높았음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41.6%, 부정 30.0%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한식/식품', 부정이미지 연상은 '반일감정'이 가장 많았음

그림3-2-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18.8%, 부정 53.2%로, 부정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정치상황', '국제적 위상'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10대의 긍정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의 긍정 응답이 가장 낮음

그림3-2-10.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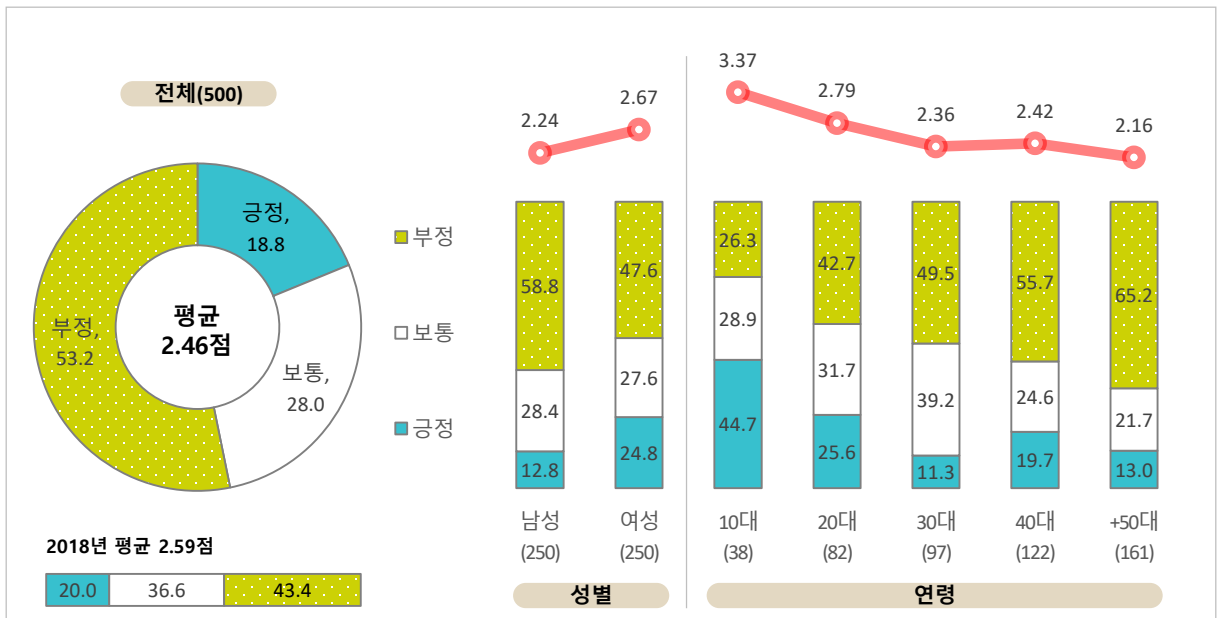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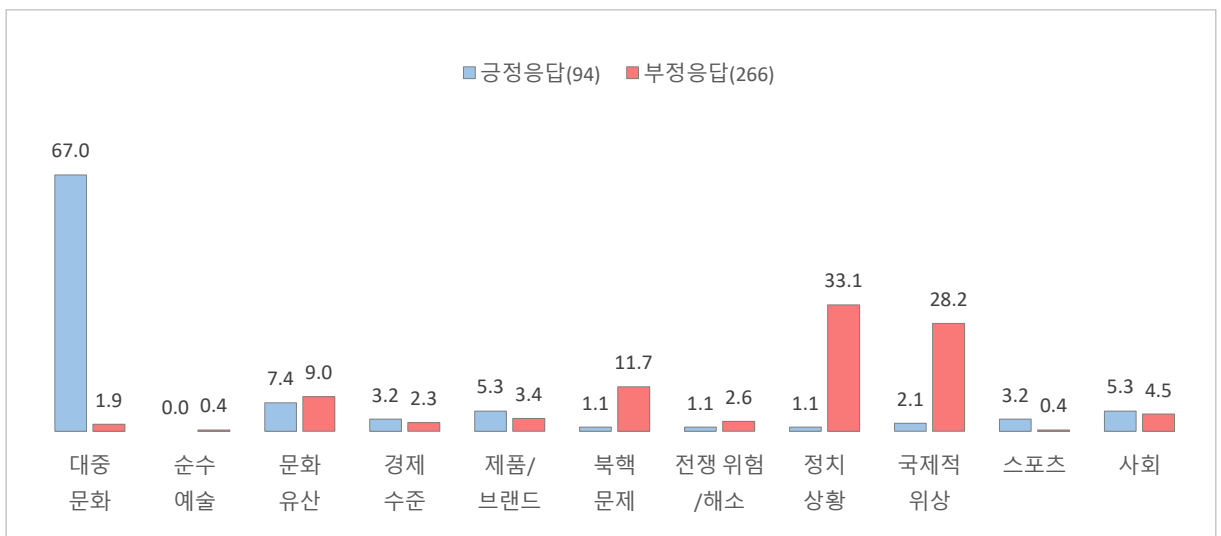


그림3-2-11.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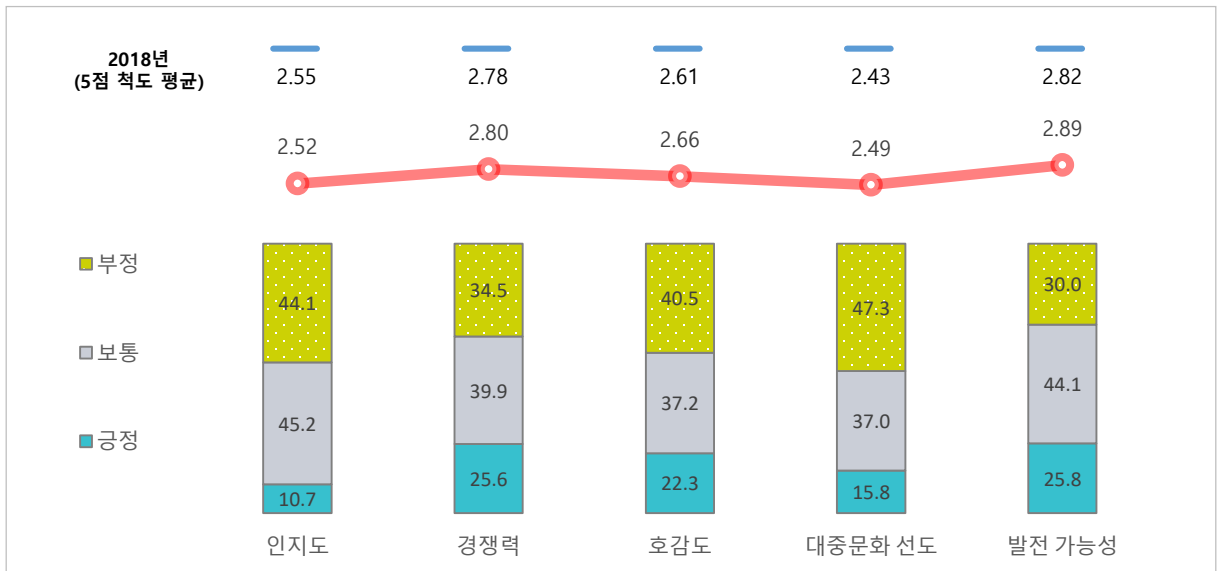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의 모든 이미지 속성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인지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10.7%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또한, '대중문화 선도'에 대한 부정 응답은 47.3%로, '대중문화' 이미지 속성 중 부정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3-2-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미지 속성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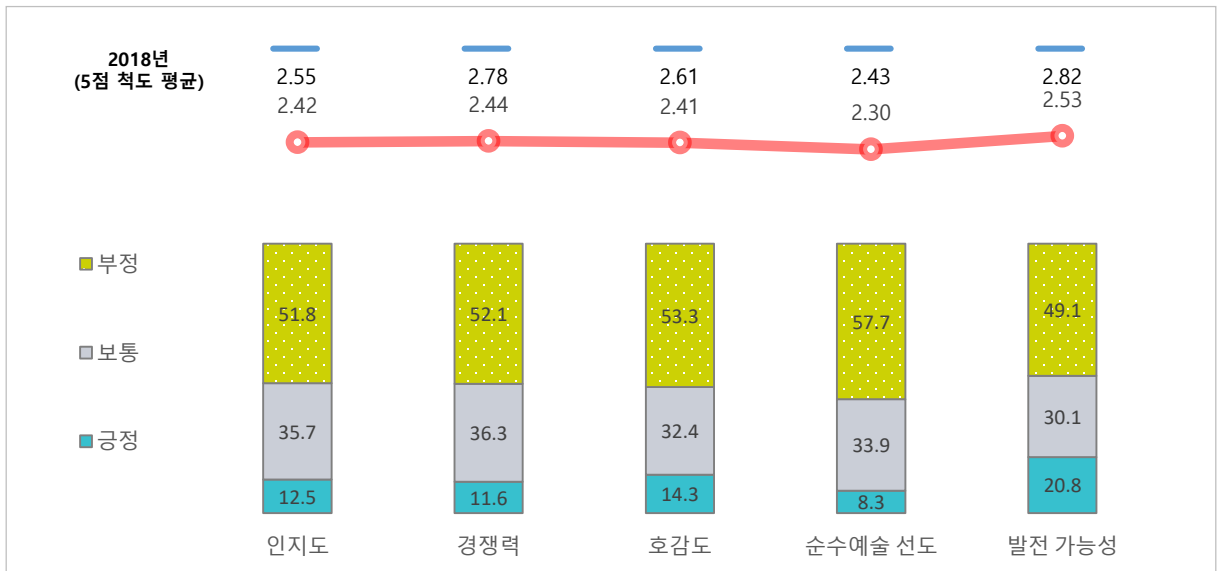
표3-2-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76)	(231)	(245)	(38)	(79)	(95)	(117)	(147)
인지도	긍정률	10.7	9.5	11.8	10.5	24.1	6.3	11.1	6.1
	평균	2.52	2.42	2.62	2.82	2.76	2.46	2.51	2.35
경쟁력	긍정률	25.6	22.5	28.6	36.8	36.7	25.3	26.5	16.3
	평균	2.80	2.64	2.95	3.24	3.08	2.83	2.79	2.53
호감도	긍정률	22.3	16.9	27.3	36.8	27.8	16.8	20.5	20.4
	평균	2.66	2.48	2.83	3.32	2.87	2.59	2.57	2.50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15.8	12.6	18.8	23.7	24.1	10.5	12.8	15.0
	평균	2.49	2.33	2.64	2.87	2.81	2.44	2.36	2.35
발전 가능성	긍정률	25.8	23.8	27.8	36.8	40.5	21.1	23.9	19.7
	평균	2.89	2.77	2.99	3.16	3.15	2.84	2.84	2.74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부정 응답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3-2-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평가가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의 평가가 가장 높고, 30대의 평가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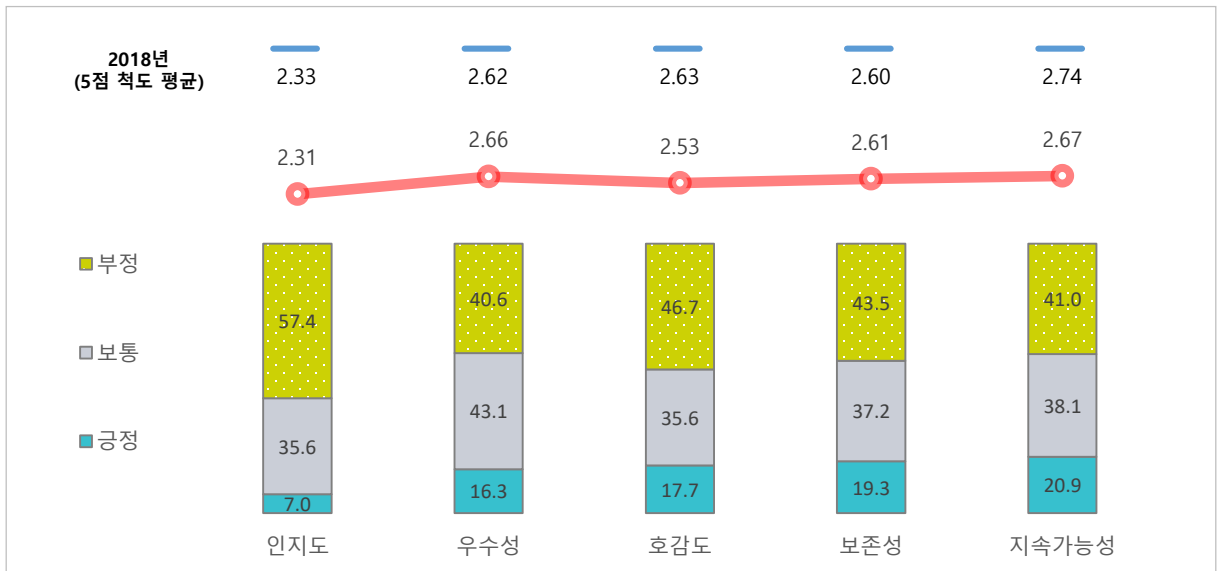
표3-2-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36)	(166)	(170)	(25)	(59)	(69)	(79)	(104)
인지도	긍정률	12.5	9.6	15.3	32.0	18.6	4.3	11.4	10.6
	평균	2.42	2.24	2.59	3.04	2.78	2.30	2.37	2.17
경쟁력	긍정률	11.6	10.2	12.9	16.0	16.9	13.0	13.9	4.8
	평균	2.44	2.30	2.57	2.88	2.73	2.39	2.43	2.20
호감도	긍정률	14.3	12.0	16.5	20.0	25.4	7.2	16.5	9.6
	평균	2.41	2.23	2.59	2.88	2.78	2.30	2.38	2.18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8.3	7.2	9.4	24.0	8.5	5.8	8.9	5.8
	평균	2.30	2.19	2.40	2.80	2.53	2.25	2.29	2.09
발전 가능성	긍정률	20.8	15.7	25.9	40.0	28.8	13.0	24.1	14.4
	평균	2.53	2.32	2.73	3.24	2.85	2.41	2.54	2.24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 응답은 '인지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은 속성은 '인지도'로 57.4%가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함

그림3-2-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운데 '인지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3-2-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41)	(220)	(221)	(31)	(73)	(83)	(113)	(141)
인지도	긍정률	7.0	7.3	6.8	12.9	9.6	6.0	8.0	4.3
	평균	2.31	2.25	2.36	2.74	2.40	2.30	2.31	2.17
우수성	긍정률	16.3	10.9	21.7	29.0	19.2	15.7	14.2	14.2
	평균	2.66	2.48	2.84	3.13	2.75	2.67	2.61	2.54
호감도	긍정률	17.7	13.6	21.7	35.5	19.2	12.0	15.9	17.7
	평균	2.53	2.39	2.67	3.16	2.73	2.43	2.50	2.37
보존성	긍정률	19.3	17.7	20.8	38.7	28.8	12.0	19.5	14.2
	평균	2.61	2.47	2.75	3.23	2.81	2.53	2.67	2.38
지속가능성	긍정률	20.9	17.3	24.4	41.9	28.8	16.9	18.6	16.3
	평균	2.67	2.57	2.77	3.29	2.93	2.63	2.58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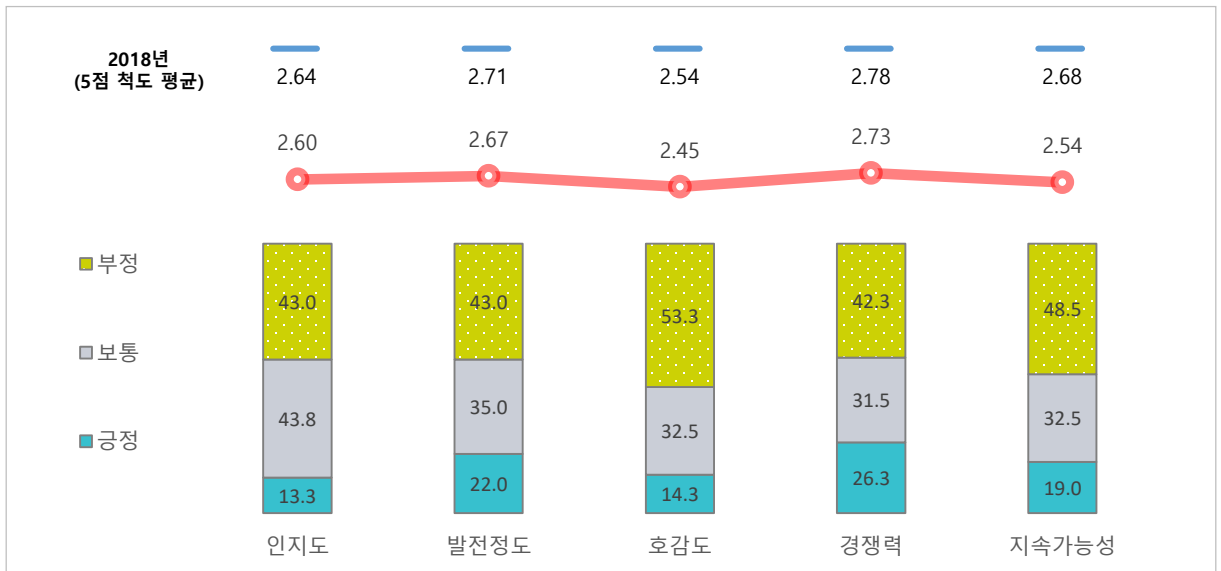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부정 평가가 45% 내외로 긍정 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특히, '호감도'에 대한 부정 응답은 53.3%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함

그림3-2-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경제에 대한 이미지 속성평가 결과는 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인지도'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 대비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났고, '발전정도'에 대한 긍정 응답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남

표3-2-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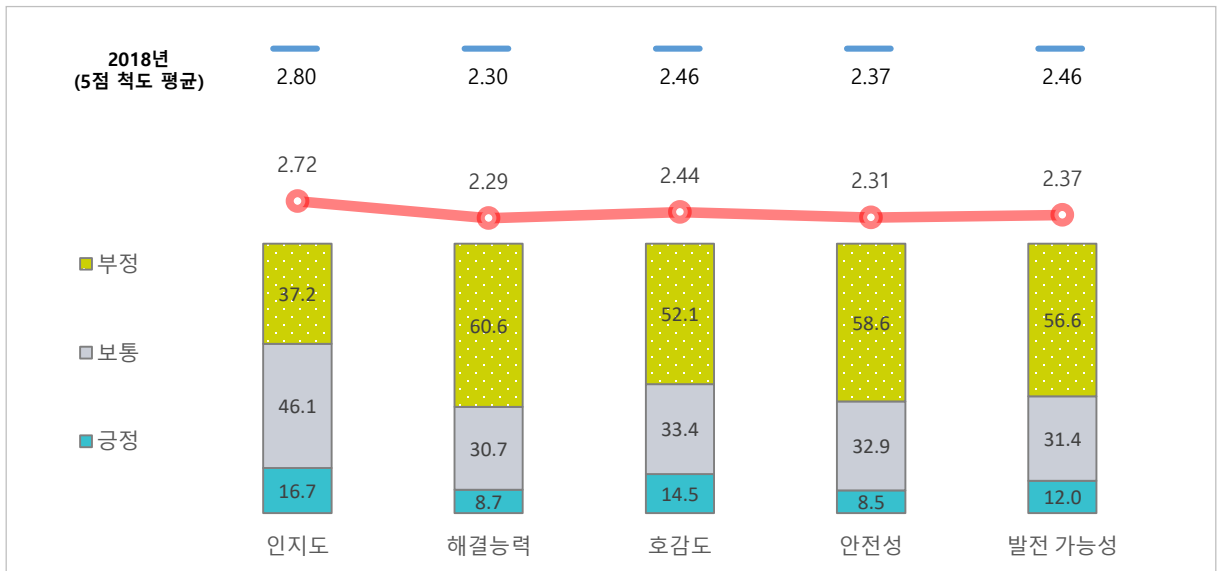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0)	(216)	(184)	(34)	(67)	(73)	(101)	(125)
인지도	긍정률	13.3	17.6	8.2	14.7	16.4	12.3	12.9	12.0
	평균	2.60	2.67	2.52	2.71	2.75	2.60	2.63	2.46
발전정도	긍정률	22.0	19.4	25.0	44.1	31.3	17.8	19.8	15.2
	평균	2.67	2.56	2.79	3.38	3.03	2.62	2.58	2.38
호감도	긍정률	14.3	15.7	12.5	35.3	11.9	19.2	15.8	5.6
	평균	2.45	2.44	2.47	3.18	2.67	2.51	2.48	2.09
경쟁력	긍정률	26.3	26.4	26.1	50.0	31.3	24.7	22.8	20.8
	평균	2.73	2.67	2.79	3.47	3.04	2.73	2.68	2.38
지속가능성	긍정률	19.0	16.7	21.7	38.2	23.9	17.8	18.8	12.0
	평균	2.54	2.42	2.68	3.24	2.88	2.52	2.48	2.23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이미지 속성 중 '인지도'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부정 응답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해결능력'에 대한 부정 응답이 60.6%로 매우 높음
- '안보'의 모든 이미지 속성은 전년 대비 5점 척도 평균이 소폭 하락함

그림3-2-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대부분의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호감도' 측면에서는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3-2-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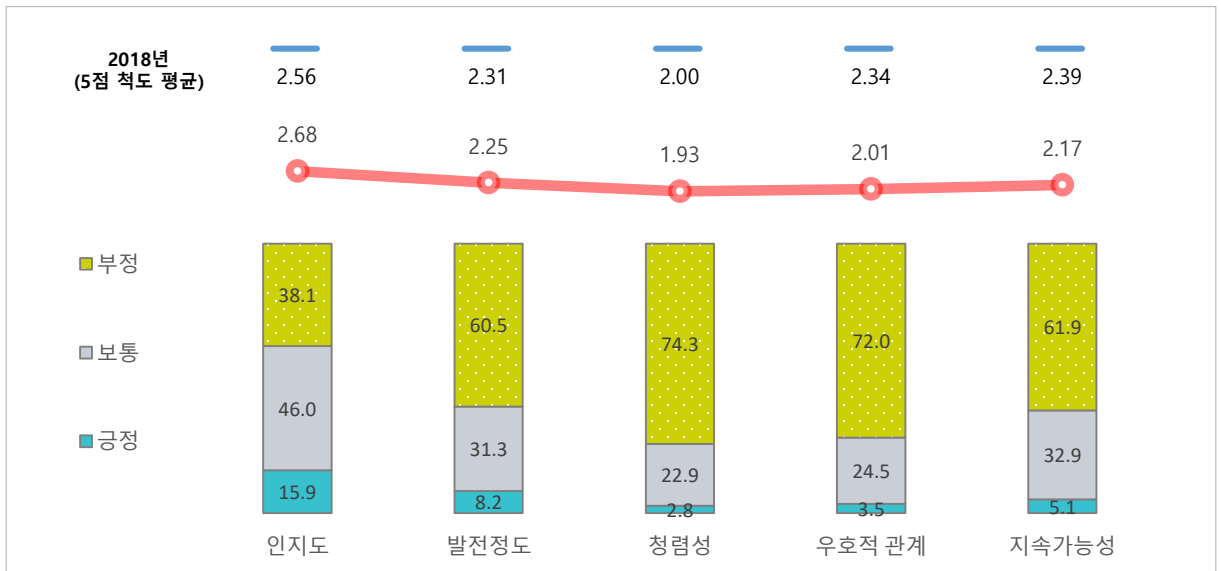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1)	(206)	(195)	(31)	(64)	(75)	(94)	(137)
인지도	긍정률	16.7	20.4	12.8	29.0	17.2	14.7	19.1	13.1
	평균	2.72	2.76	2.67	3.03	2.84	2.64	2.81	2.56
해결능력	긍정률	8.7	10.2	7.2	12.9	14.1	8.0	9.6	5.1
	평균	2.29	2.25	2.33	2.52	2.56	2.28	2.24	2.15
호감도	긍정률	14.5	12.6	16.4	12.9	23.4	13.3	13.8	11.7
	평균	2.44	2.32	2.57	2.61	2.70	2.36	2.45	2.31
안전성	긍정률	8.5	9.2	7.7	9.7	10.9	9.3	7.4	7.3
	평균	2.31	2.24	2.37	2.61	2.52	2.36	2.24	2.15
발전 가능성	긍정률	12.0	13.6	10.3	22.6	14.1	12.0	7.4	11.7
	평균	2.37	2.30	2.44	2.81	2.53	2.33	2.26	2.29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청렴성'과 '우호적 관계'에 대한 부정 평가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정치외교' 이미지 속성 평가 중 '청렴성'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그림3-2-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 대비 모든 항목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큰 차이는 없음.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고 50대 이상의 평가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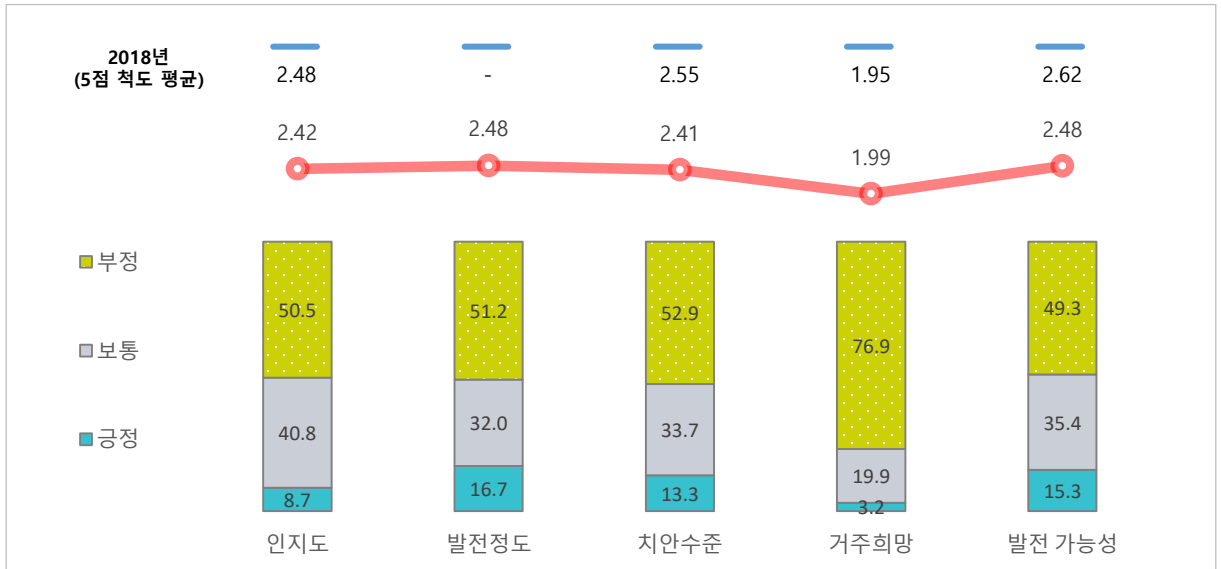
표3-2-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8)	(218)	(210)	(29)	(75)	(83)	(105)	(136)
인지도	긍정률	15.9	19.7	11.9	13.8	17.3	21.7	17.1	11.0
	평균	2.68	2.72	2.65	2.72	2.84	2.87	2.77	2.41
발전정도	긍정률	8.2	8.7	7.6	20.7	12.0	7.2	8.6	3.7
	평균	2.25	2.17	2.34	2.76	2.44	2.37	2.30	1.94
청렴성	긍정률	2.8	3.7	1.9	0.0	4.0	7.2	2.9	0.0
	평균	1.93	1.86	2.00	2.14	2.08	2.05	1.96	1.71
우호적 관계	긍정률	3.5	5.0	1.9	3.4	8.0	4.8	2.9	0.7
	평균	2.01	2.02	2.01	2.21	2.19	2.13	1.96	1.85
지속가능성	긍정률	5.1	6.9	3.3	6.9	8.0	8.4	4.8	1.5
	평균	2.17	2.14	2.20	2.48	2.28	2.31	2.17	1.96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부정응답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거주희망'의 경우 부정 응답이 76.9%, 긍정 응답이 3.2%로 나타나 대부분의 일본 응답자들은 한국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2-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여성이 '치안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대부분 10대의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인지도'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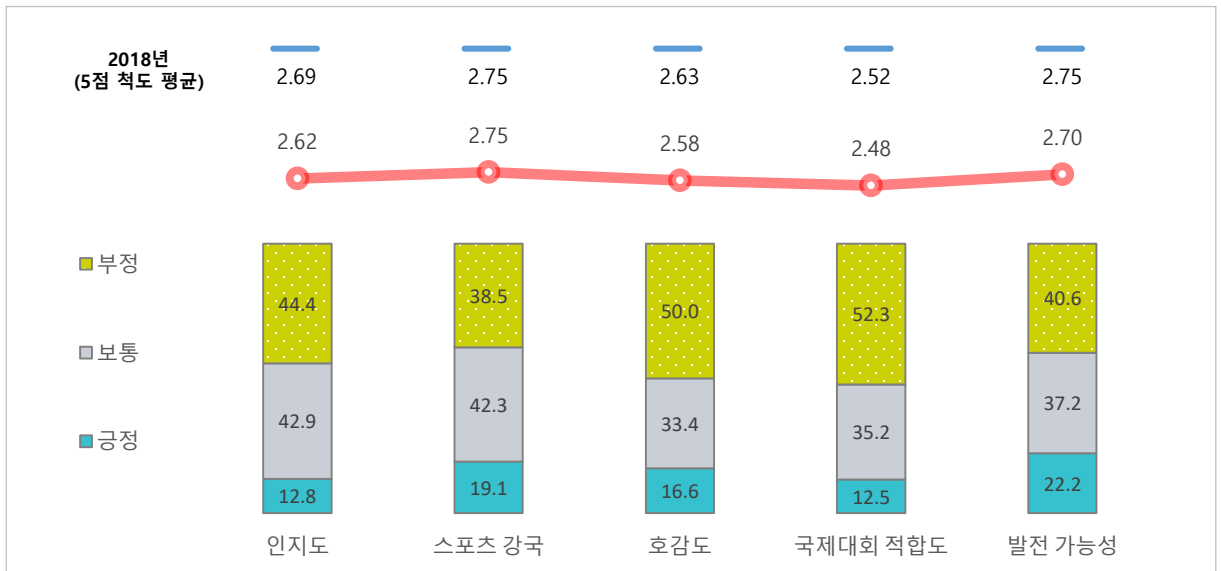
표3-2-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2)	(219)	(193)	(32)	(66)	(78)	(99)	(137)
인지도	긍정률	8.7	7.8	9.8	9.4	13.6	14.1	7.1	4.4
	평균	2.42	2.33	2.52	2.69	2.67	2.50	2.37	2.23
발전정도	긍정률	16.7	13.2	20.7	34.4	27.3	12.8	14.1	11.7
	평균	2.48	2.36	2.62	3.06	2.88	2.47	2.38	2.23
치안수준	긍정률	13.3	8.7	18.7	34.4	24.2	10.3	8.1	8.8
	평균	2.41	2.28	2.55	3.13	2.79	2.37	2.22	2.22
거주희망	긍정률	3.2	4.1	2.1	9.4	7.6	5.1	0.0	0.7
	평균	1.99	1.96	2.03	2.34	2.21	2.03	1.94	1.82
발전 가능성	긍정률	15.3	12.3	18.7	40.6	24.2	11.5	12.1	9.5
	평균	2.48	2.34	2.63	3.22	2.77	2.44	2.38	2.25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의 이미지 속성 중 '호감도'와 '국제대회 적합도'에 대한 부정 응답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속성에서 전년 대비 5점 척도 평균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스포츠 강국'에 대한 평균 점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나타남

그림3-2-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스포츠 강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높았고, '스포츠 강국'과 '국제대회 적합도'에 대해서는 50대 이상도 높게 평가

표3-2-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2)	(196)	(196)	(30)	(64)	(75)	(97)	(126)
인지도	긍정률	12.8	14.8	10.7	26.7	17.2	12.0	13.4	7.1
	평균	2.62	2.63	2.61	3.17	2.73	2.61	2.62	2.44
스포츠강국	긍정률	19.1	18.9	19.4	16.7	23.4	13.3	21.6	19.0
	평균	2.75	2.72	2.78	3.00	2.89	2.68	2.77	2.63
호감도	긍정률	16.6	15.8	17.3	36.7	12.5	12.0	18.6	15.1
	평균	2.58	2.52	2.65	3.10	2.61	2.56	2.56	2.48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12.5	12.8	12.2	16.7	10.9	9.3	14.4	12.7
	평균	2.48	2.43	2.53	2.77	2.58	2.45	2.51	2.36
발전 가능성	긍정률	22.2	20.9	23.5	40.0	28.1	18.7	18.6	19.8
	평균	2.70	2.66	2.75	3.17	2.97	2.68	2.59	2.56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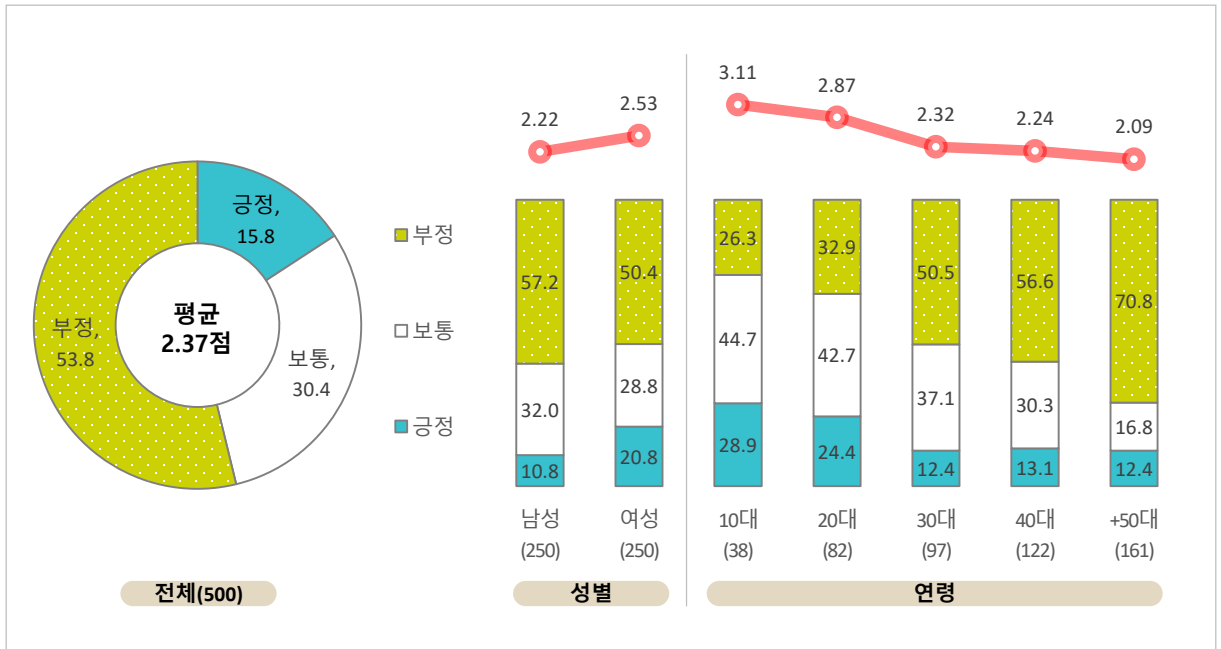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15.8%, 부정 53.8%로 부정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 'K-Pop/가수', 부정적 변화 이유로 '반일감정'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변화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3-2-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긍정적 변화 이유(n=79)

K-POP/가수	12.7
드라마/영화	7.6
문화/전통	5.1
정치/대통령	5.1
외교관계	5.1
한식/식품	5.1
한국인	3.8
북한/남북관계	2.5
더 많은 정보를 접함	2.5
한국 방문 경험	2.5

(상위 10개만 제시)

#### 부정적 변화 이유(n=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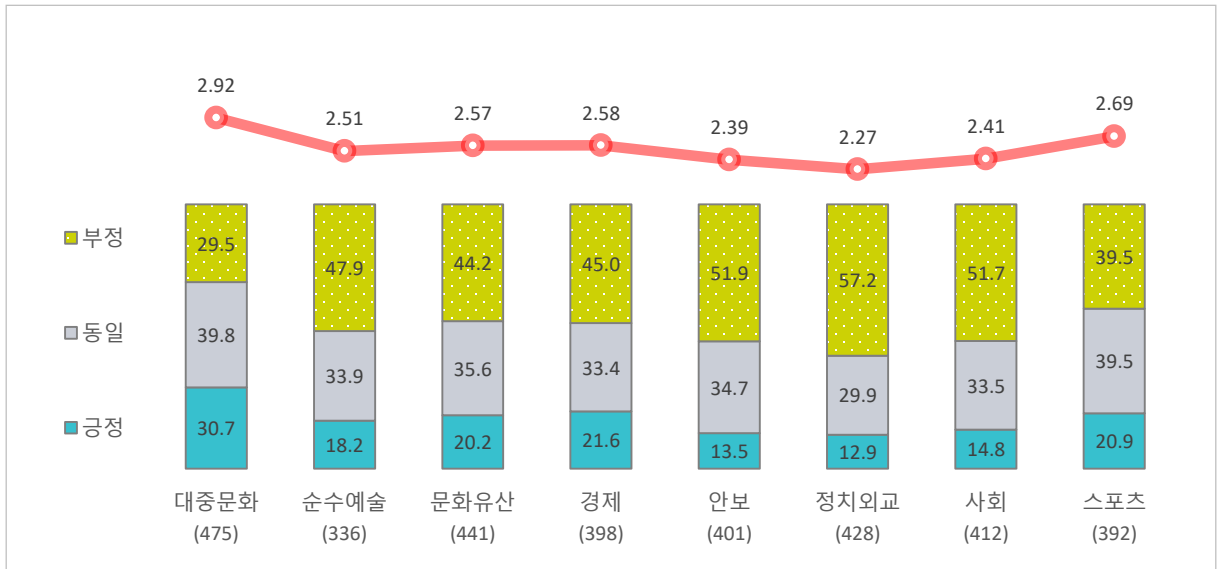
반일감정	22.7
역사적 문제	12.6
정부/정치적 문제	11.2
약속을 안지킴/신뢰할 수 없음	9.3
외교문제	7.1
일본과 외교문제	5.9
한일관계 악화	4.1
부정적 매체의 영향	3.0
그냥 싫다	2.6
레이더 조사 문제	2.2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부정 변화가 긍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중문화'의 긍정 응답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정치외교'에 대한 긍정 응답은 12.9%, 부정 응답은 57.2%로 부정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3-2-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대비 모든 분야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대부분 10대와 20대의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2-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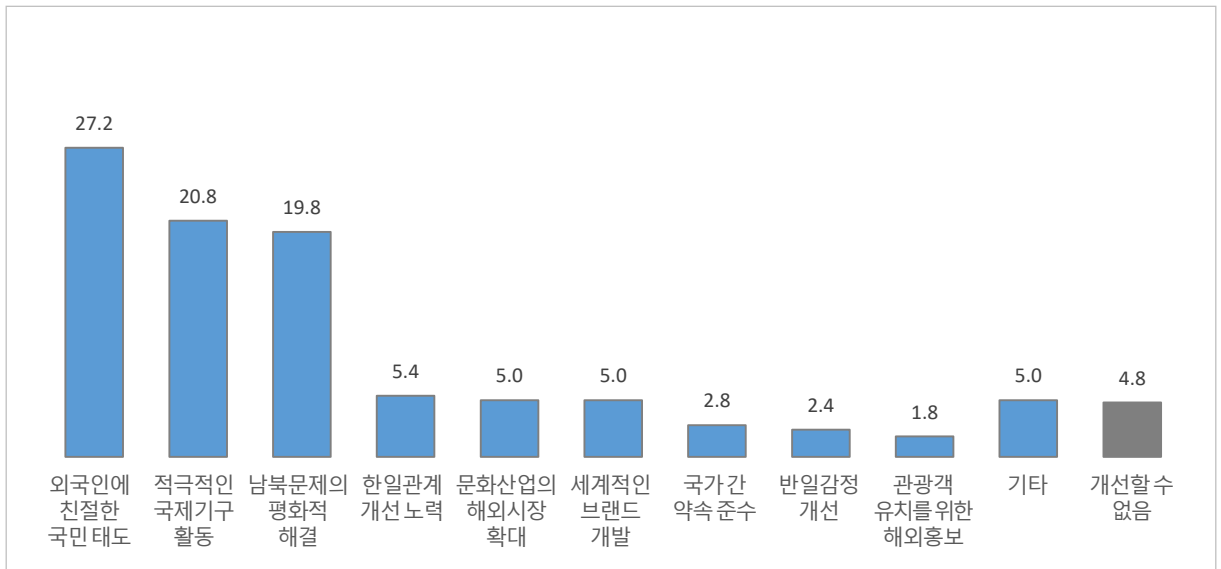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30.7	24.7	36.5	52.6	35.9	31.6	26.5	25.2
	평균	2.92	2.71	3.12	3.58	3.18	2.95	2.84	2.67
순수예술	긍정률	18.2	13.3	22.9	36.0	28.8	13.0	17.7	11.5
	평균	2.51	2.34	2.67	3.20	3.00	2.39	2.49	2.14
문화유산	긍정률	20.2	13.2	27.1	29.0	30.1	22.9	16.8	14.2
	평균	2.57	2.40	2.74	3.26	3.00	2.54	2.46	2.30
경제	긍정률	21.6	18.1	25.8	38.2	32.8	20.5	14.0	17.7
	평균	2.58	2.46	2.71	3.24	3.03	2.59	2.50	2.21
안보	긍정률	13.5	12.1	14.9	19.4	25.0	12.0	9.6	10.2
	평균	2.39	2.30	2.50	3.00	2.83	2.31	2.23	2.21
정치외교	긍정률	12.9	9.6	16.2	24.1	20.0	10.8	12.4	8.1
	평균	2.27	2.10	2.46	2.83	2.69	2.24	2.27	1.95
사회	긍정률	14.8	11.4	18.7	34.4	24.2	11.5	8.1	12.4
	평균	2.41	2.31	2.52	3.22	2.83	2.35	2.28	2.14
스포츠	긍정률	20.9	16.8	25.0	36.7	25.0	12.0	18.6	22.2
	평균	2.69	2.61	2.77	3.27	2.98	2.57	2.56	2.58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20.8%),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3-2-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10대는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20대와 50대 이상은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30대와 40대는 '외국인에 친절한 태도'를 우선 과제로 가장 많이 꼽음

표3-2-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82)	(97)	(122)	(161)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27.2	27.2	27.2	23.7	24.4	29.9	33.6	23.0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20.8	15.6	26.0	7.9	25.6	15.5	22.1	23.6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19.8	16.4	23.2	36.8	23.2	17.5	14.8	19.3
한일관계 개선 노력	5.4	7.2	3.6	7.9	1.2	6.2	4.1	7.5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5.0	6.0	4.0	5.3	11.0	5.2	2.5	3.7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5.0	6.0	4.0	15.8	4.9	6.2	1.6	4.3
국가 간 약속 준수	2.8	3.2	2.4	0.0	1.2	3.1	4.1	3.1
반일감정 개선	2.4	3.6	1.2	0.0	2.4	2.1	2.5	3.1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1.8	1.6	2.0	0.0	2.4	5.2	1.6	0.0
기타	5.0	6.0	4.0	2.6	2.4	3.1	6.6	6.8
개선할 수 없음	4.8	7.2	2.4	0.0	1.2	6.2	6.6	5.6



# 03 태국



## 1 일반개요

위치	동남아시아 (북위 5.6~20.7도, 동경 97.3~105.7도)	언어	태국어
수도	방콕(Bangkok)	종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인구	6,779만 명(2018년 기준)	1인당 GDP	7,607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태국의 3대 주요 산업은 외국인투자가 주축을 이루는 제조업, 노동인구 절반이 종사하는 농업, 서비스업의 근간을 이루는 관광임
- 2019년 1분기 태국경제 성장률은 2.8%, 2분기 성장률은 2.3%를 기록하면서 2014년 3분기 이래 최저치를 나타냄. 한편, 2019년 상반기 태국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한류박람회 및 한류 관련 행사 개최

- 한류를 활용한 유망 소비재, 서비스 브랜드의 제고 및 수출활성화를 목적으로 태국에서 2019년 한류박람회 개최
- 태국 내 K-POP과 한류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2019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개최
- 2018년 10월 한태수교 60주년 기념 한국문화 종합 홍보행사 개최 (전통음악, 태권도, 한류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

### 한국 주요 인사 태국 방문

- 2018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신남방정책 이행 공조,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등 지역정세 등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
- 2019년 8월 태국 외교장관과 한-태국 양자회담을 갖고, 한-태국 양국관계,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자의적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역내 공동번영 저해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태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 및 건설적인 역할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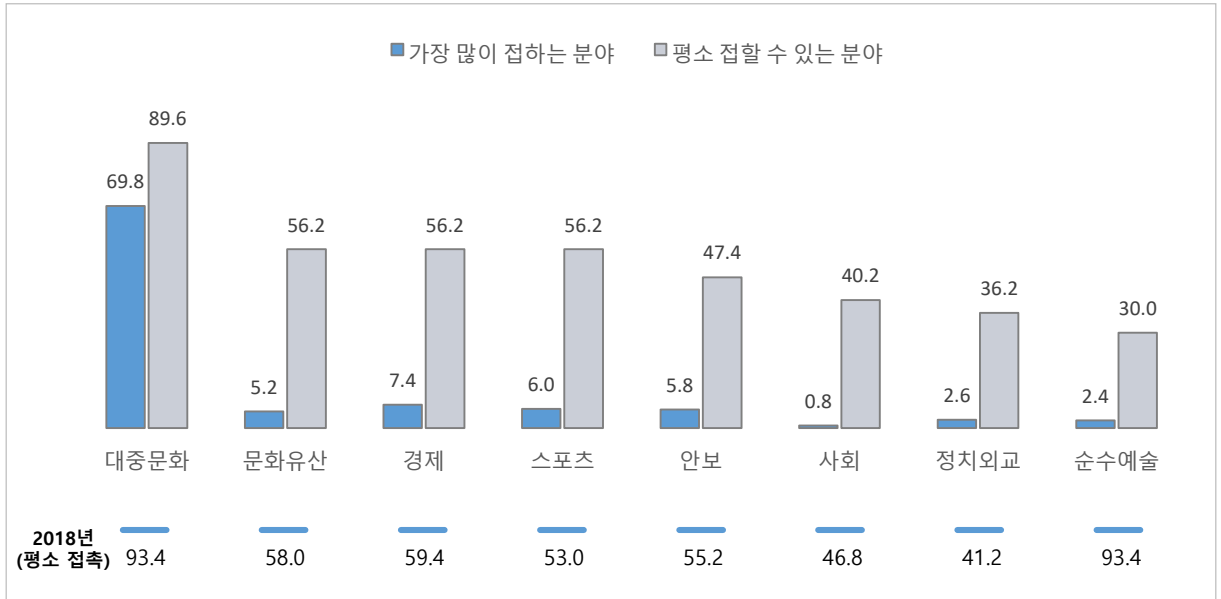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89.6%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모든 분야에서 평소 접촉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음

그림3-3-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접촉 비중이 높았고, '경제', '스포츠', '안보', '사회'는 남성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30대의 접촉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3-3-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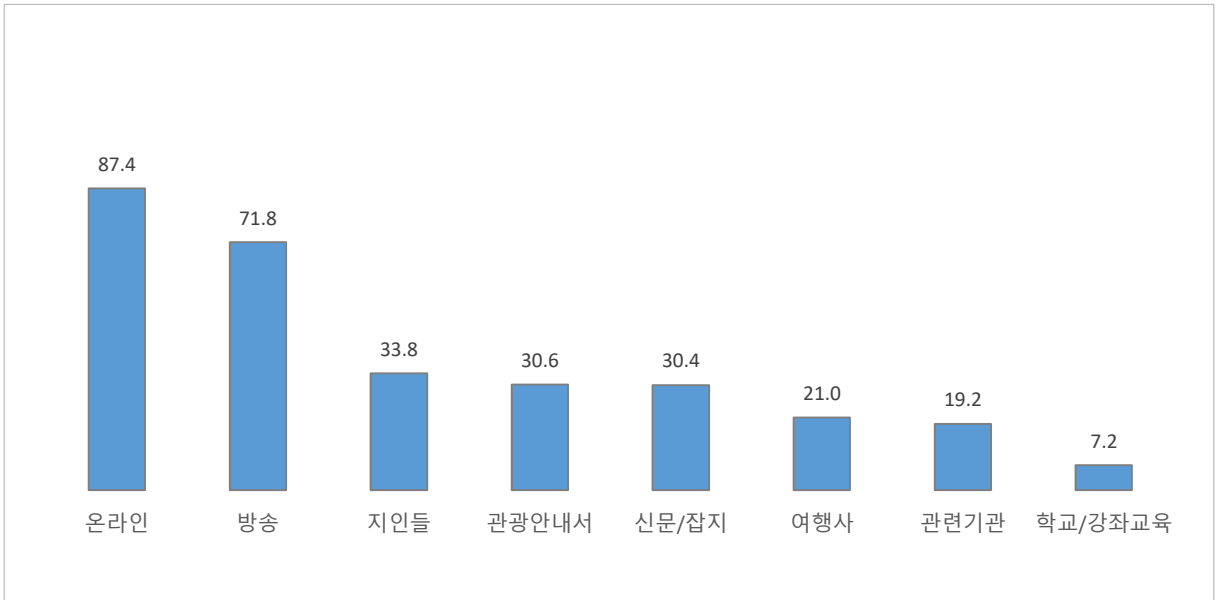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4)	(91)	(103)	(116)	(146)
대중문화	89.6	85.6	93.6	79.5	87.9	91.3	96.6	87.0
문화유산	56.2	54.8	57.6	29.5	51.6	63.1	63.8	56.2
경제	56.2	61.6	50.8	25.0	50.5	53.4	57.8	69.9
스포츠	56.2	60.8	51.6	27.3	45.1	63.1	69.8	56.2
안보	47.4	51.6	43.2	25.0	41.8	41.7	55.2	55.5
사회	40.2	42.4	38.0	27.3	45.1	45.6	40.5	37.0
정치외교	36.2	36.8	35.6	15.9	27.5	33.0	45.7	42.5
순수예술	30.0	28.8	31.2	25.0	31.9	36.9	34.5	21.9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 > '방송' > '지인들' 순으로 높았음

그림3-3-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과 '온라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문/잡지'는 남성이 '지인들', '관광안내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3-3-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4)	(91)	(103)	(116)	(146)
온라인	87.4	86.0	88.8	86.4	86.8	93.2	89.7	82.2
방송	71.8	72.0	71.6	59.1	68.1	77.7	69.0	76.0
지인들	33.8	26.4	41.2	20.5	38.5	37.9	34.5	31.5
관광안내서	30.6	26.4	34.8	4.5	31.9	34.0	26.7	38.4
신문/잡지	30.4	34.8	26.0	27.3	36.3	39.8	27.6	23.3
여행사	21.0	20.4	21.6	4.5	20.9	24.3	20.7	24.0
관련기관	19.2	20.4	18.0	2.3	17.6	21.4	20.7	22.6
학교/강좌교육	7.2	6.4	8.0	4.5	7.7	4.9	10.3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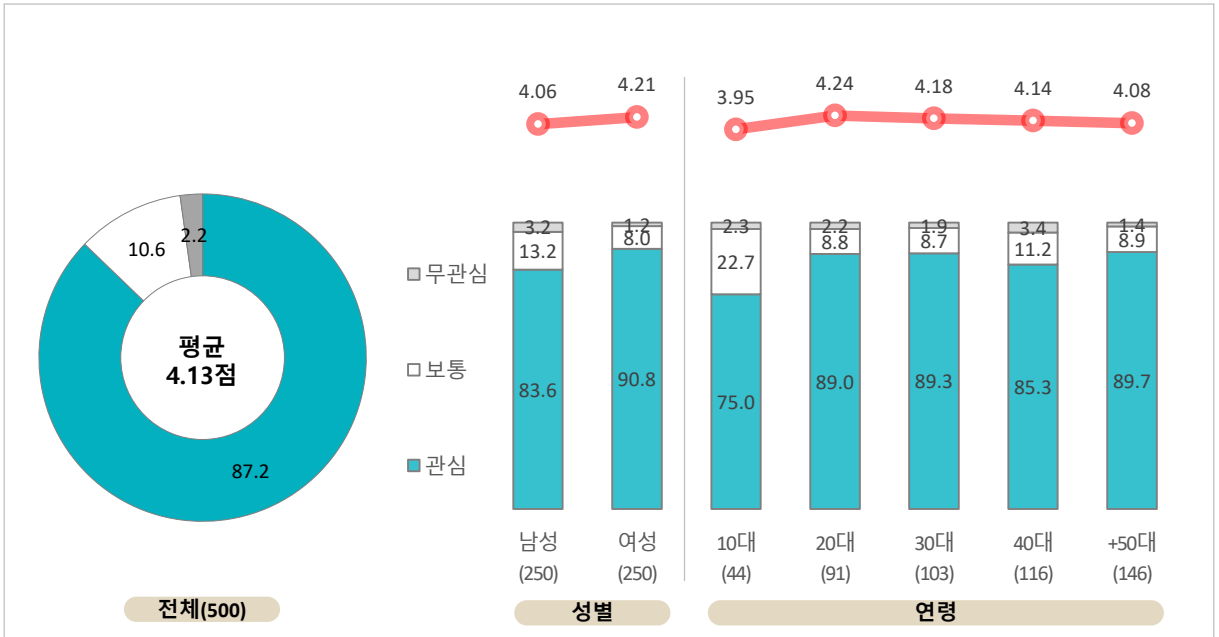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87.2%, '관심 없다'가 2.2%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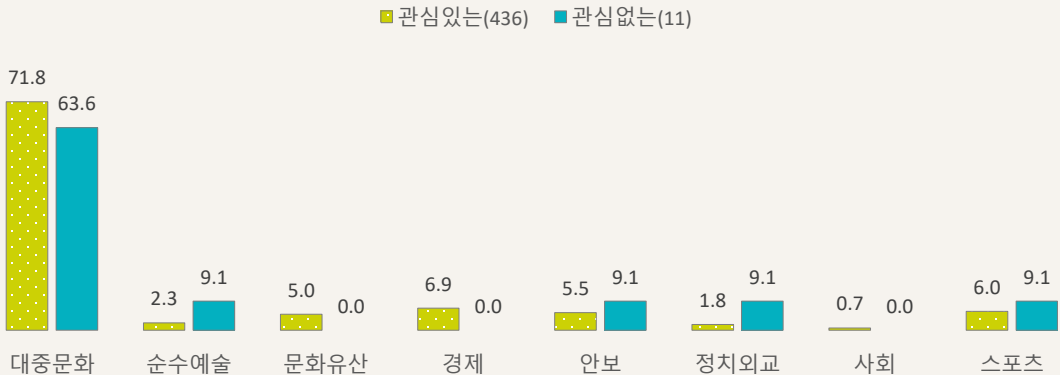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3-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태국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경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중국인들은 '대중문화'와 '순수예술', '안보', '정치외교', '스포츠'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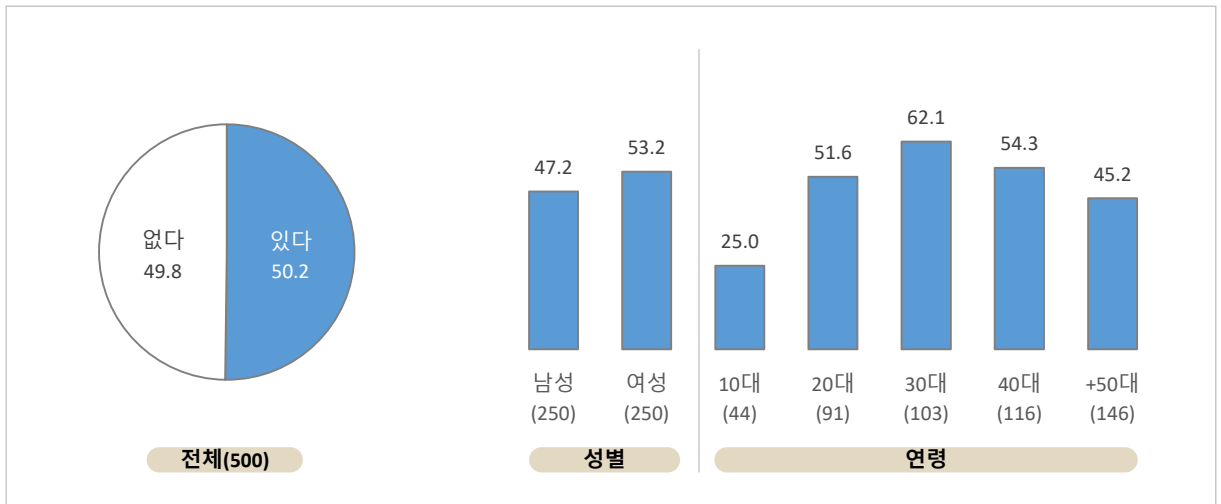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50.2%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94.0%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음

그림3-3-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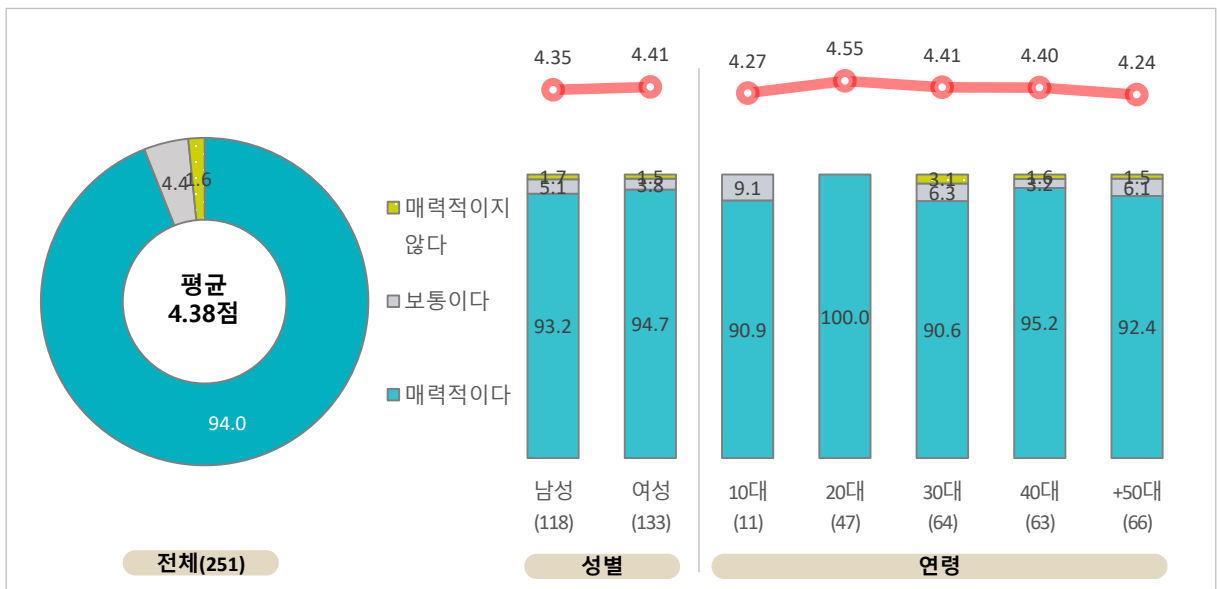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방문 후 인상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 모두가 한국 방문 후 인상이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함

그림3-3-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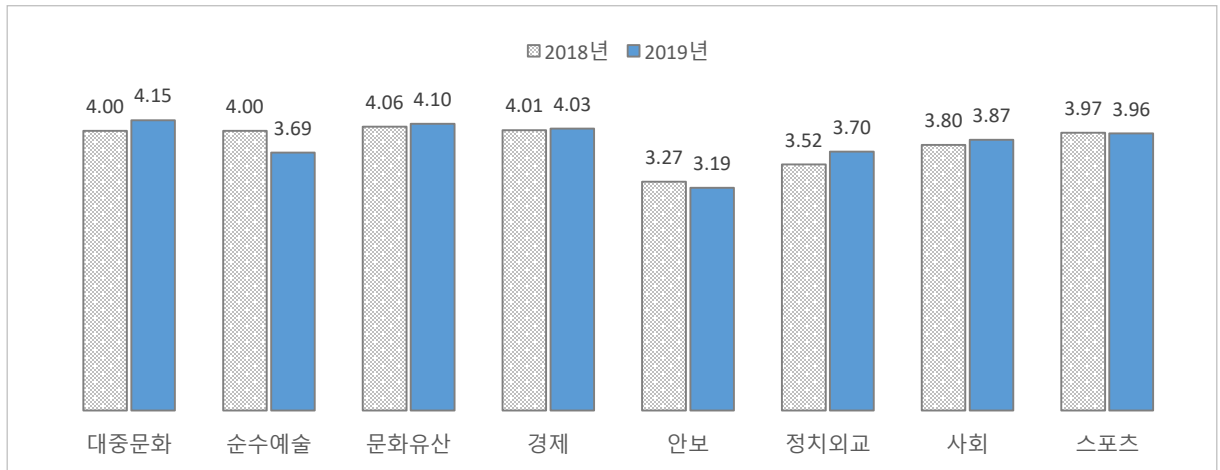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대중문화', '문화유산', '경제' 분야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대부분의 분야에서 호감도가 상승한 가운데, '순수예술', '안보', '스포츠'에 대한 호감도는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3-3-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의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3-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4)	(91)	(103)	(116)	(146)
대중문화	긍정률	89.1	87.9	90.2	88.6	90.0	91.5	84.8	90.6
	평균	4.15	4.10	4.20	4.06	4.23	4.21	4.07	4.16
순수예술	긍정률	55.0	54.7	55.3	50.0	63.0	59.2	59.5	44.0
	평균	3.69	3.71	3.67	3.54	3.85	3.77	3.68	3.57
문화유산	긍정률	90.7	88.6	92.8	82.9	88.6	91.4	87.3	96.2
	평균	4.10	4.06	4.14	3.94	4.16	4.13	4.04	4.14
경제	긍정률	89.2	86.7	91.7	90.0	88.2	87.1	86.4	93.2
	평균	4.03	4.02	4.05	4.00	4.07	4.04	3.96	4.08
안보	긍정률	41.9	40.8	43.1	26.7	40.6	36.9	36.6	53.5
	평균	3.19	3.16	3.21	2.93	3.28	3.08	3.08	3.35
정치외교	긍정률	68.5	66.5	70.4	53.3	79.7	54.4	67.7	75.8
	평균	3.70	3.69	3.71	3.53	3.81	3.53	3.71	3.78
사회	긍정률	81.9	81.8	82.1	75.0	80.8	83.9	76.3	88.5
	평균	3.87	3.89	3.85	3.78	3.90	3.90	3.77	3.94
스포츠	긍정률	82.8	81.0	84.7	70.0	76.4	84.7	85.2	86.3
	평균	3.96	3.95	3.98	3.60	3.96	4.04	3.98	3.99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70.4%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2.0%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귀엽다', '친화력이 좋음'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무례하다'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블랙핑크' > '송중기' > '송혜교' > '이민호' 순으로 나타남

그림3-3-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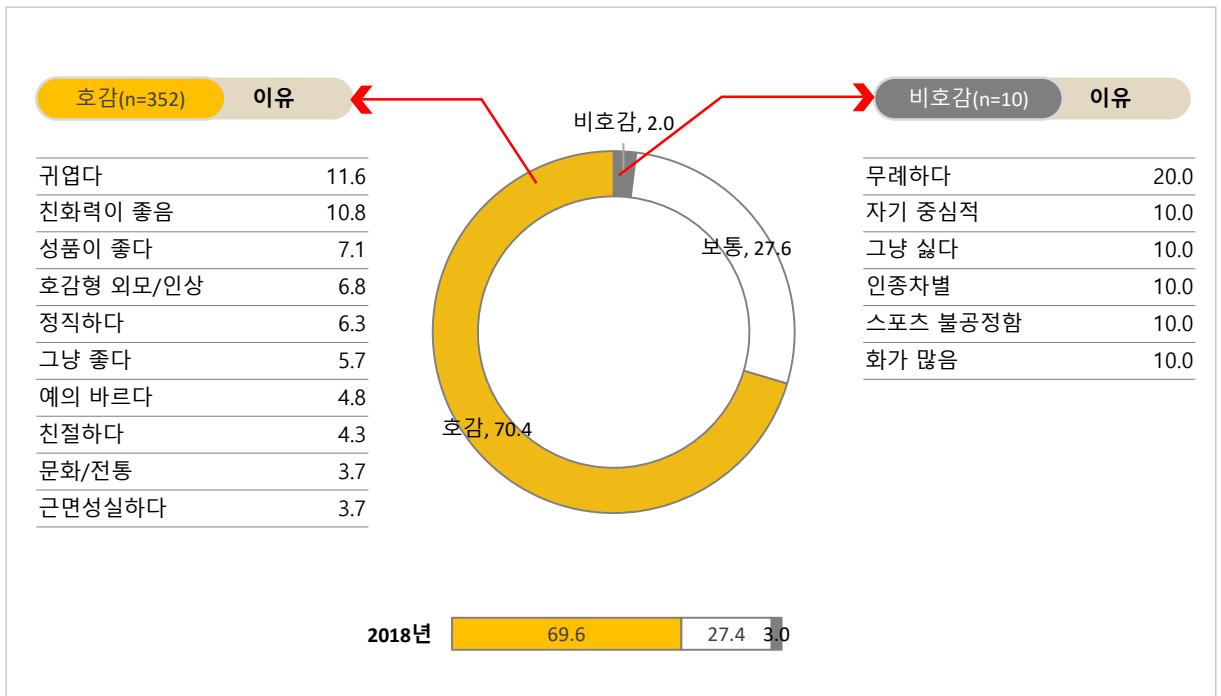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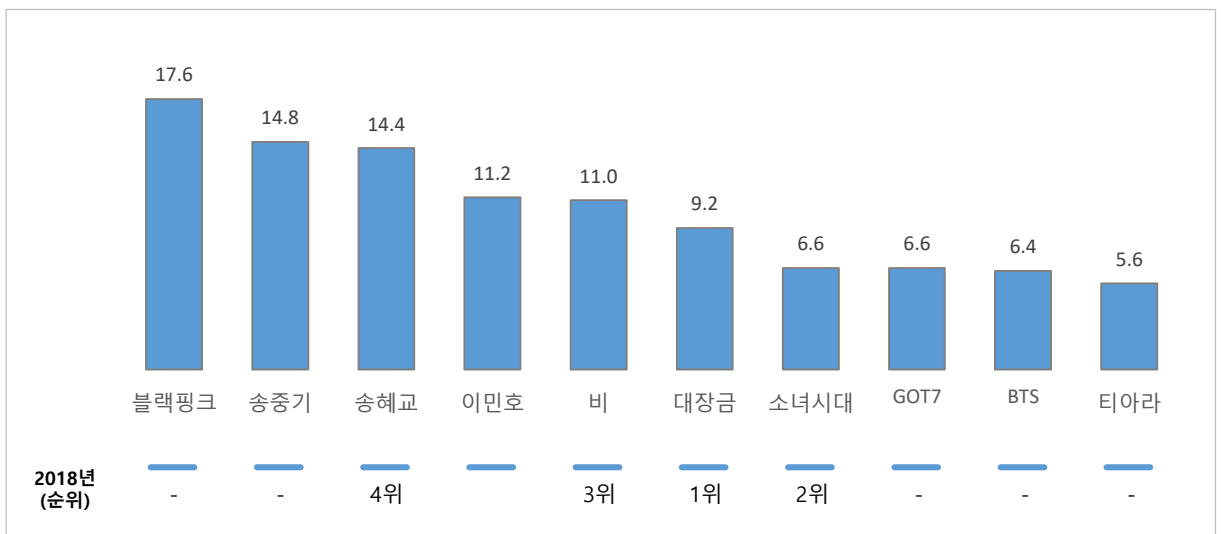


그림3-3-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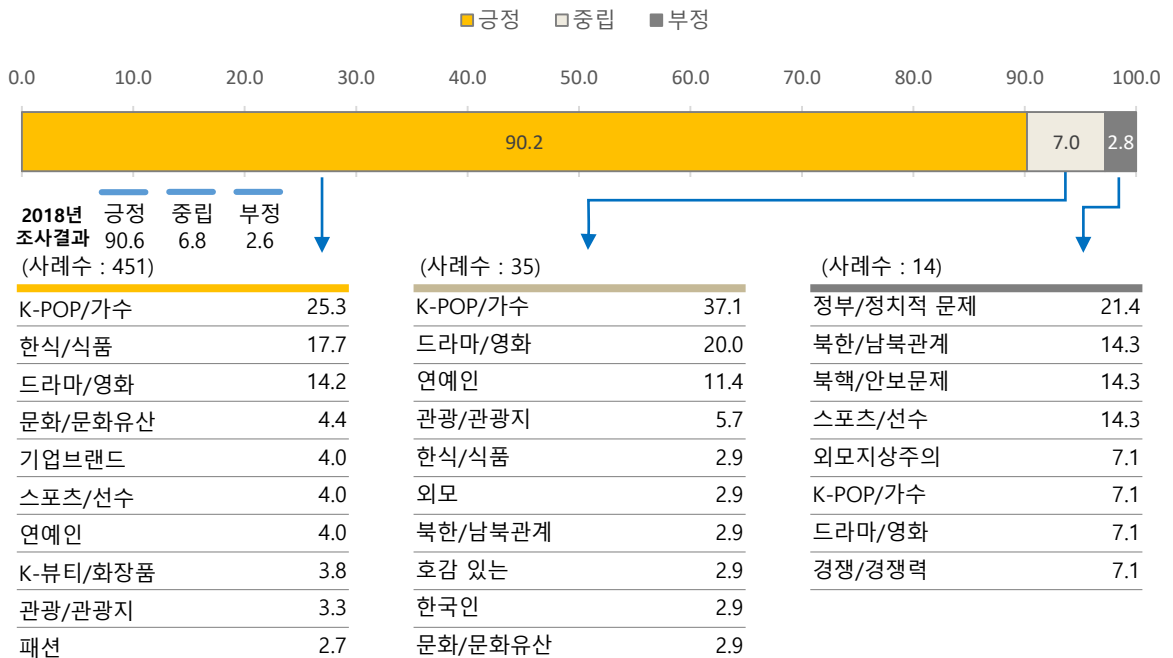
- 태국인들은 '한국'하면 'K-Pop/가수'를 가장 많이 떠올리며, 그 외 '한식/식품', '드라마/영화' 등에 대한 연상이 많았음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90.2%, 부정 2.8%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K-Pop/가수', 부정이미지 연상은 '정부/정치적 문제'가 높게 나타남

그림3-3-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상위 20개만 제시)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91.4%, 5점 만점 4.16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스포츠'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의 호감도가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았고 10대의 호감도가 가장 낮음

그림3-3-10.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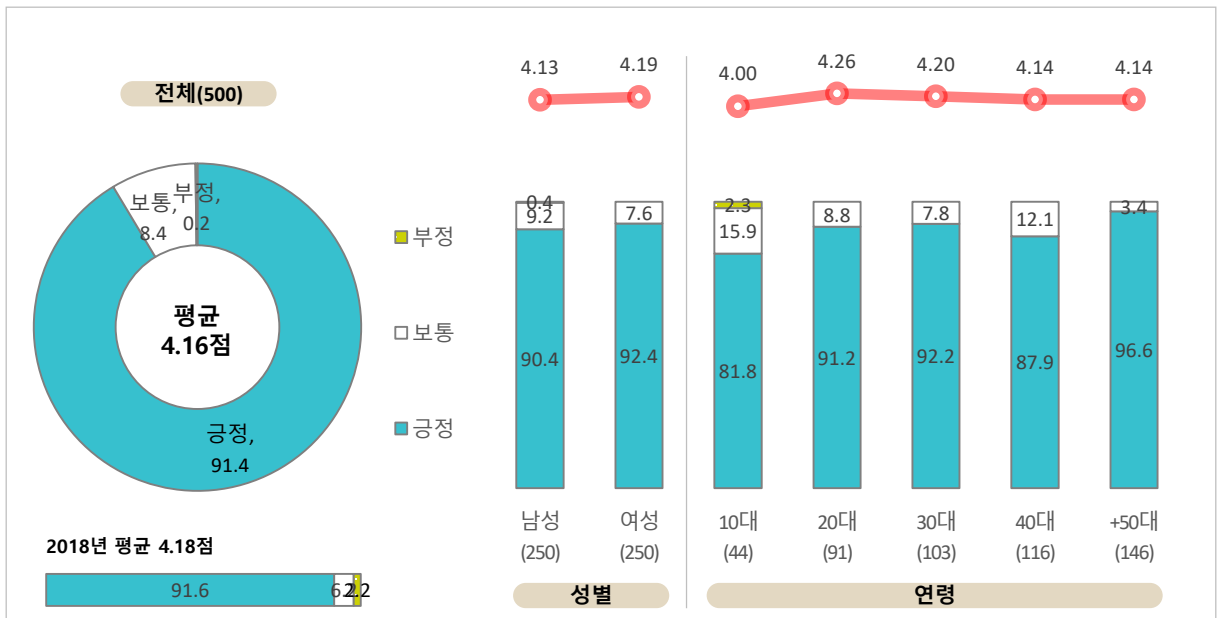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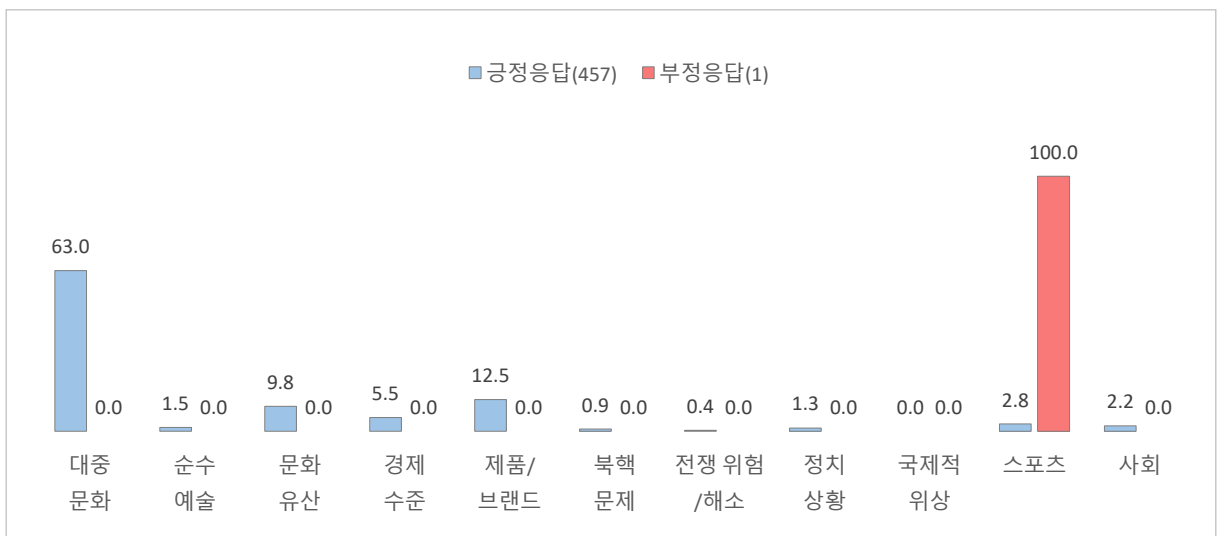


그림3-3-11.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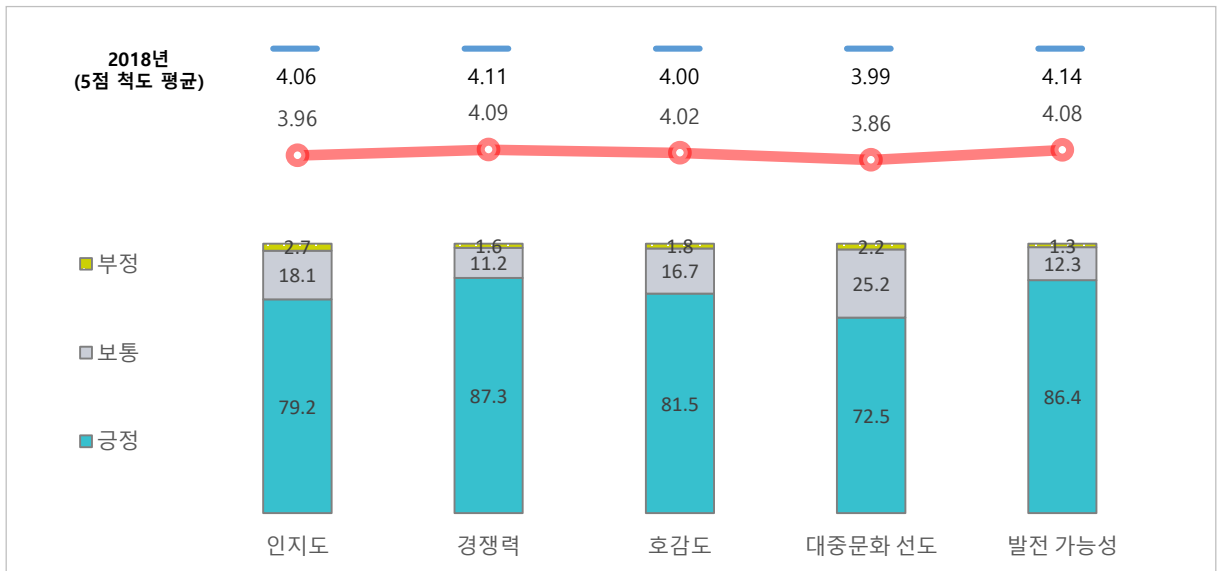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 80% 내외, 부정 평가 3% 내외로 긍정 평가가 우세하였음
- 반면, '대중문화 선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72.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3-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남성은 '인지도', '호감도', '대중문화 선도', 여성은 '경쟁력',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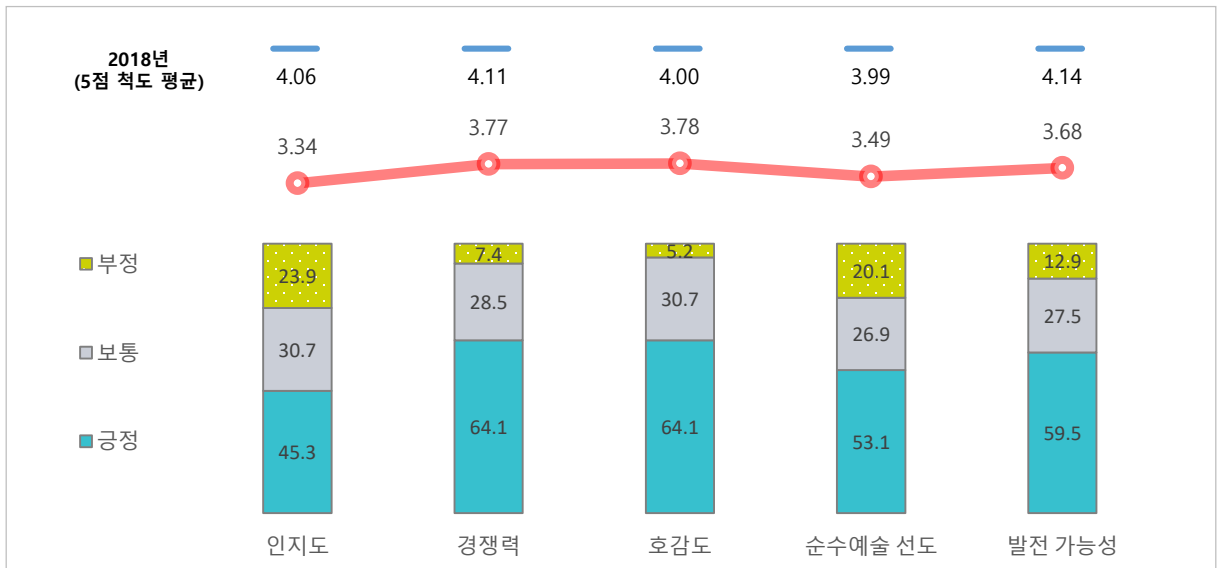
표3-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48)	(214)	(234)	(35)	(80)	(94)	(112)	(127)
인지도	긍정률	79.2	81.3	77.4	54.3	78.8	83.0	77.7	85.0
	평균	3.96	3.96	3.96	3.66	3.96	4.09	3.92	3.98
경쟁력	긍정률	87.3	84.6	89.7	74.3	87.5	90.4	86.6	89.0
	평균	4.09	4.05	4.12	4.00	4.15	4.19	4.04	4.04
호감도	긍정률	81.5	83.2	79.9	85.7	78.8	78.7	82.1	83.5
	평균	4.02	4.05	3.99	4.09	4.03	4.06	3.99	3.98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72.5	72.9	72.2	60.0	81.3	71.3	72.3	71.7
	평균	3.86	3.89	3.83	3.77	4.03	3.87	3.87	3.76
발전 가능성	긍정률	86.4	85.0	87.6	85.7	88.8	83.0	89.3	85.0
	평균	4.08	4.06	4.09	4.00	4.19	4.10	4.09	4.01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력'과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인지도'와 '순수예술 선도' 항목은 긍정이 각 45.3%, 53.1%로 높았지만 부정 응답도 각 23.9%, 20.1%로 다른 속성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3-3-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의 평가가 남성보다 높았던 반면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남성이 더 높게 평가했으며, '인지도', '경쟁력'에서 1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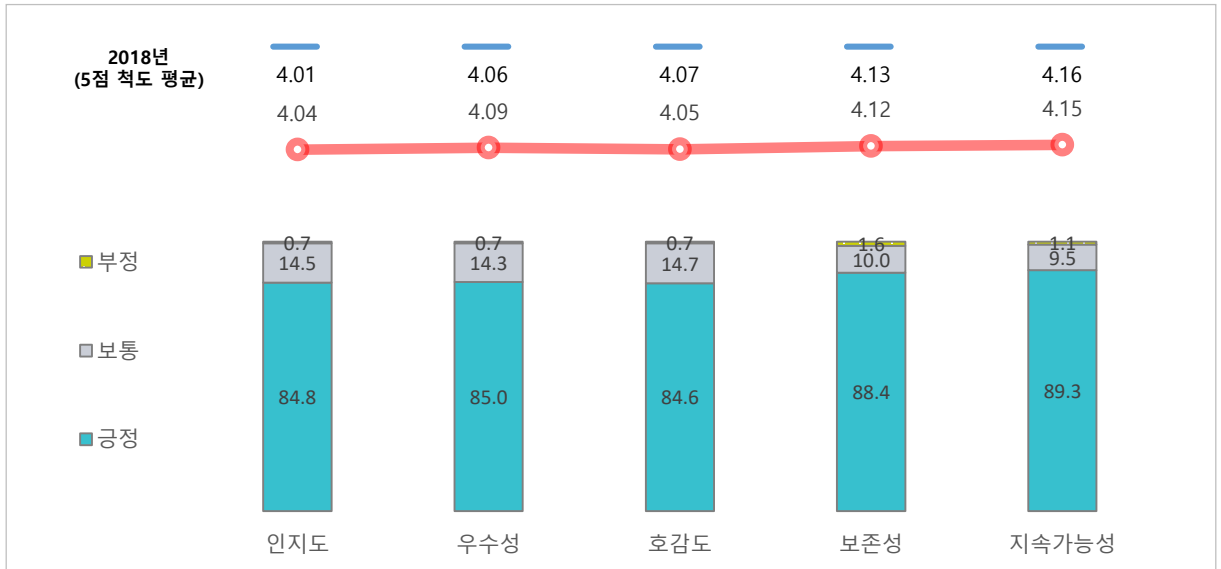
표3-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309)	(150)	(159)	(26)	(54)	(71)	(74)	(84)
인지도	긍정률	45.3	40.7	49.7	23.1	46.3	56.3	45.9	41.7
	평균	3.34	3.27	3.40	2.88	3.48	3.44	3.41	3.24
경쟁력	긍정률	64.1	66.7	61.6	42.3	63.0	70.4	70.3	60.7
	평균	3.77	3.79	3.75	3.35	3.76	3.94	3.82	3.70
호감도	긍정률	64.1	60.7	67.3	61.5	63.0	66.2	64.9	63.1
	평균	3.78	3.73	3.84	3.62	3.96	3.80	3.77	3.71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53.1	49.3	56.6	53.8	57.4	47.9	50.0	57.1
	평균	3.49	3.46	3.52	3.54	3.63	3.39	3.43	3.51
발전 가능성	긍정률	59.5	60.0	59.1	57.7	63.0	60.6	60.8	56.0
	평균	3.68	3.67	3.69	3.65	3.81	3.75	3.65	3.57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 응답이 85% 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문화유산 이미지 속성 중 '인지도', '우수성', '보존성'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그림3-3-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모든 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1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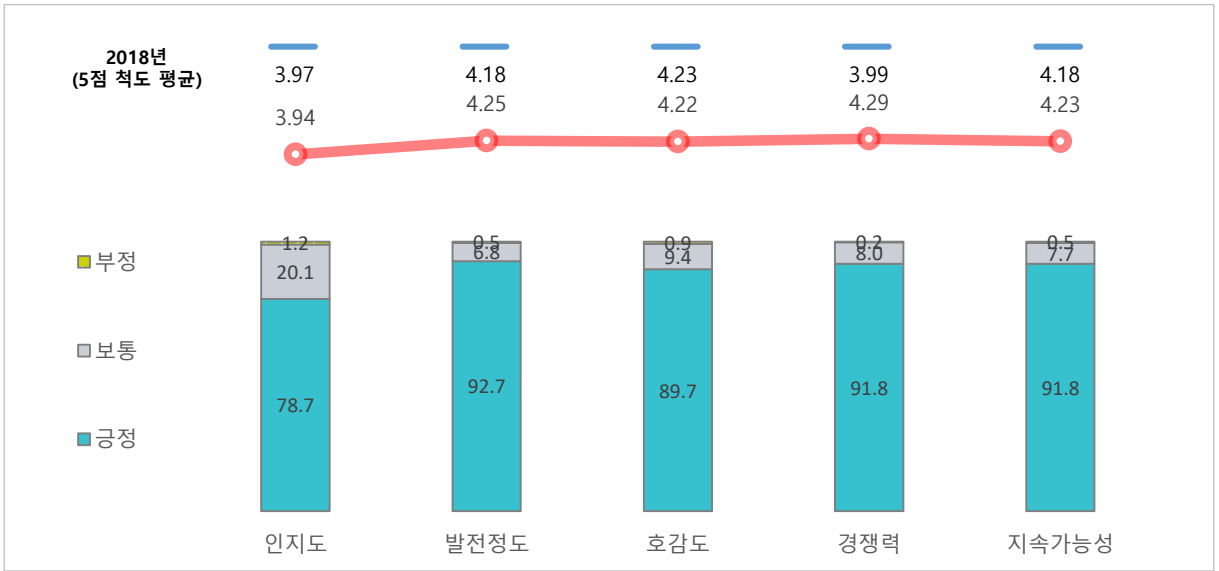
표3-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41)	(220)	(221)	(35)	(79)	(93)	(102)	(132)
인지도	긍정률	84.8	83.6	86.0	65.7	84.8	82.8	84.3	91.7
	평균	4.04	4.02	4.07	3.74	4.10	4.03	4.03	4.11
우수성	긍정률	85.0	84.1	86.0	74.3	82.3	83.9	86.3	89.4
	평균	4.09	4.05	4.12	3.86	4.18	4.11	4.08	4.08
호감도	긍정률	84.6	81.8	87.3	77.1	77.2	87.1	83.3	90.2
	평균	4.05	4.02	4.09	3.89	4.01	4.14	4.04	4.08
보존성	긍정률	88.4	86.8	90.0	80.0	86.1	83.9	88.2	95.5
	평균	4.12	4.09	4.16	3.91	4.19	4.06	4.12	4.18
지속가능성	긍정률	89.3	88.2	90.5	74.3	88.6	90.3	86.3	95.5
	평균	4.15	4.12	4.18	3.89	4.25	4.17	4.11	4.17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인지도'를 제외한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90% 내외로, 부정 평가가 1%대 미만으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78.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경제'에 대한 이미지 속성평가는 '인지도'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전년 대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그림3-3-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인지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의 평가가 가장 높고, 20대 이하의 평가가 가장 낮음

표3-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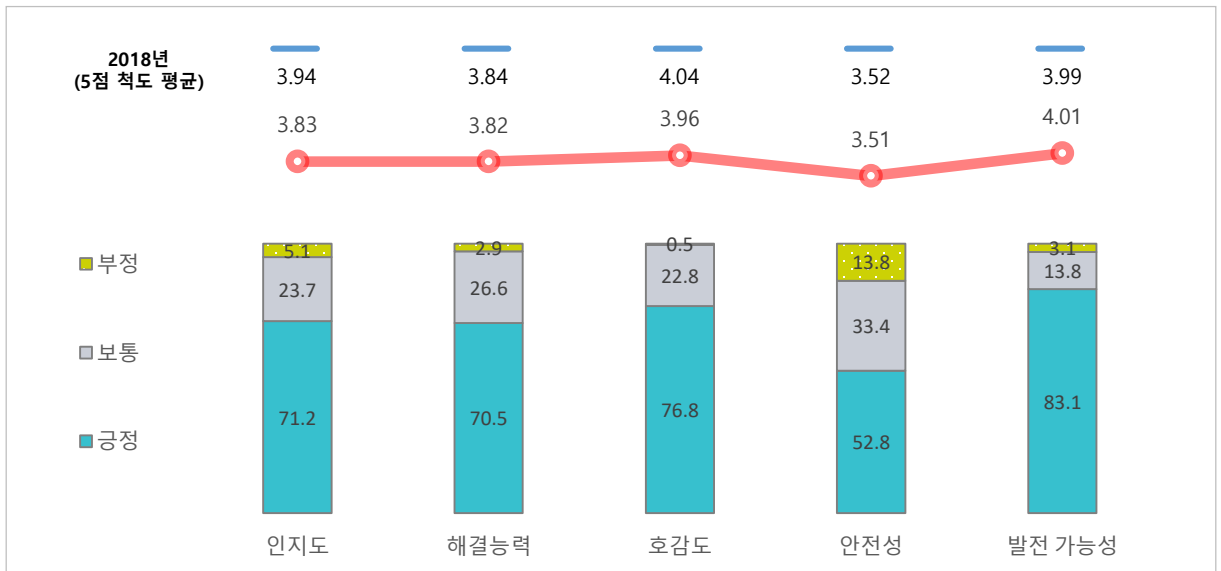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7)	(211)	(216)	(30)	(76)	(85)	(103)	(133)
인지도	긍정률	78.7	82.0	75.5	66.7	69.7	82.4	79.6	83.5
	평균	3.94	4.00	3.88	3.73	3.87	3.99	3.99	3.95
발전정도	긍정률	92.7	92.4	93.1	90.0	88.2	91.8	92.2	97.0
	평균	4.25	4.25	4.24	4.10	4.21	4.31	4.25	4.26
호감도	긍정률	89.7	87.2	92.1	86.7	82.9	89.4	89.3	94.7
	평균	4.22	4.20	4.25	4.20	4.13	4.29	4.24	4.23
경쟁력	긍정률	91.8	90.0	93.5	90.0	86.8	90.6	91.3	96.2
	평균	4.29	4.29	4.28	4.23	4.18	4.29	4.34	4.31
지속가능성	긍정률	91.8	91.9	91.7	83.3	89.5	92.9	90.3	95.5
	평균	4.23	4.23	4.24	4.13	4.20	4.28	4.24	4.23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안정성'을 제외한 속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 응답이 52.8%로 높았지만 부정응답도 13.8%로 타 속성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3-3-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호감도'에 대한 평가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0대가 한국 '안보'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표3-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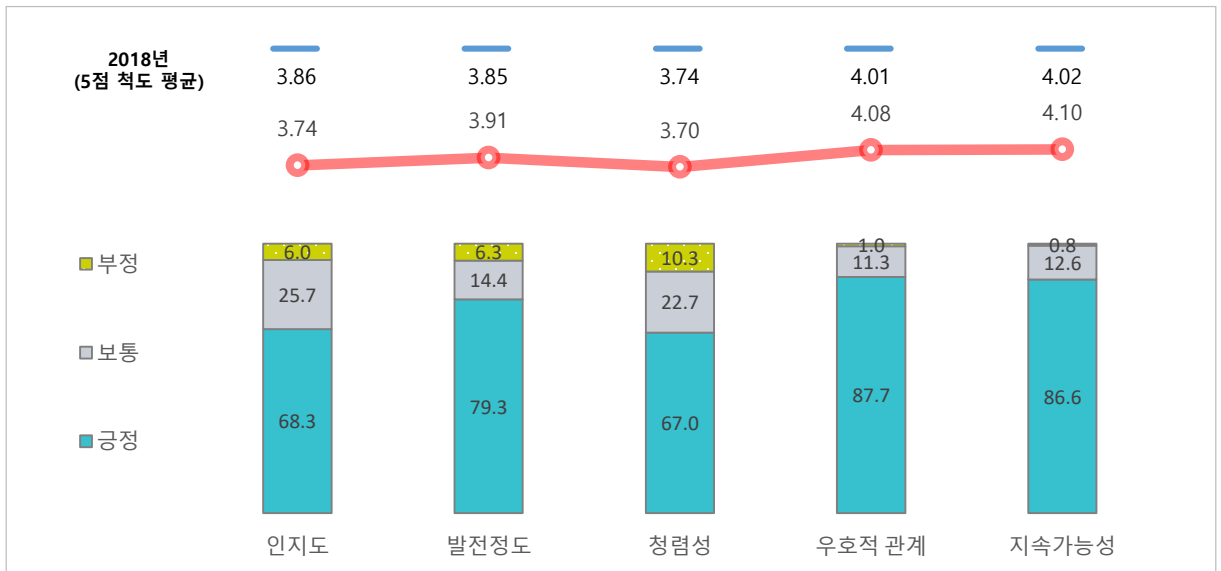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3)	(211)	(202)	(30)	(69)	(84)	(101)	(129)
인지도	긍정률	71.2	71.6	70.8	66.7	66.7	79.8	67.3	72.1
	평균	3.83	3.82	3.83	3.73	3.80	4.01	3.77	3.78
해결능력	긍정률	70.5	69.7	71.3	53.3	69.6	76.2	71.3	70.5
	평균	3.82	3.81	3.84	3.53	3.88	3.93	3.83	3.78
호감도	긍정률	76.8	80.1	73.3	60.0	72.5	85.7	73.3	79.8
	평균	3.82	3.81	3.84	3.53	3.88	3.93	3.83	3.78
안전성	긍정률	52.8	50.2	55.4	56.7	47.8	57.1	57.4	48.1
	평균	3.51	3.47	3.54	3.67	3.54	3.56	3.59	3.35
발전가능성	긍정률	83.1	83.4	82.7	70.0	76.8	85.7	83.2	87.6
	평균	4.01	4.02	4.00	3.90	3.94	4.11	3.97	4.04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우호적 관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 응답이 80% 후반대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또한 '우호적 관계'와 '지속 가능성'의 평가는 전년 대비 높아졌으나, 그 외 항목에 대한 평가는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3-3-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정치외교' 속성 평가 결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10대의 평가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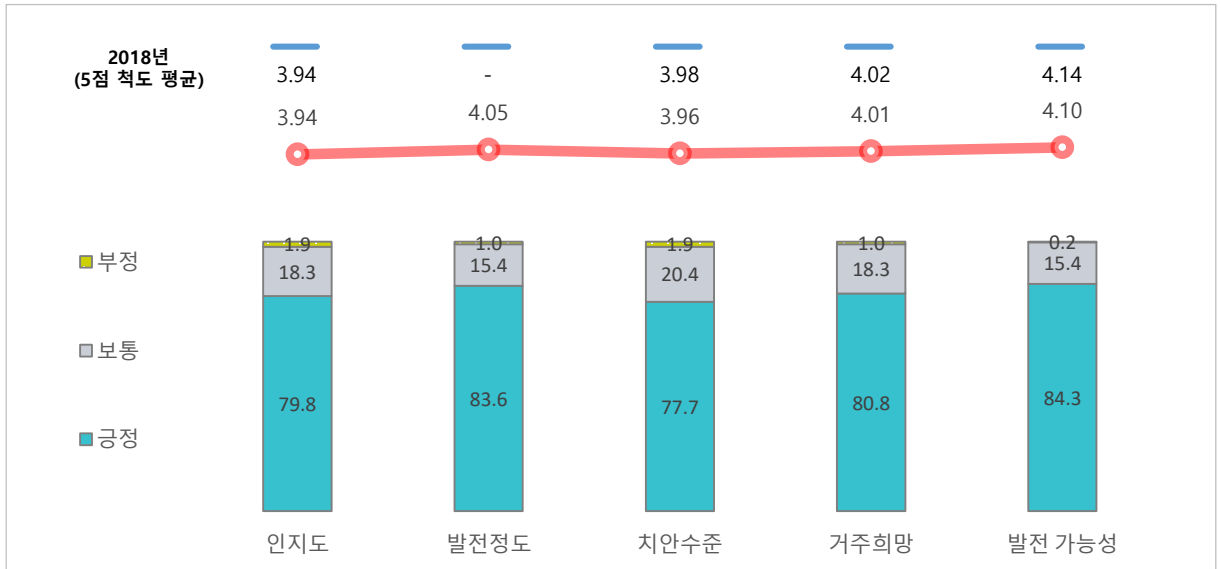
표3-3-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7)	(191)	(206)	(30)	(69)	(79)	(99)	(120)
인지도	긍정률	68.3	66.5	69.9	66.7	71.0	67.1	60.6	74.2
	평균	3.74	3.72	3.76	3.70	3.90	3.71	3.65	3.75
발전정도	긍정률	79.3	79.6	79.1	56.7	84.1	75.9	80.8	83.3
	평균	3.91	3.93	3.90	3.47	4.01	3.94	3.99	3.88
청렴성	긍정률	67.0	67.0	67.0	53.3	69.6	60.8	69.7	70.8
	평균	3.70	3.70	3.71	3.53	3.88	3.59	3.78	3.65
우호적 관계	긍정률	87.7	86.4	88.8	83.3	84.1	87.3	86.9	91.7
	평균	4.08	4.05	4.11	4.07	4.14	4.09	4.09	4.03
지속가능성	긍정률	86.6	85.3	87.9	76.7	87.0	89.9	81.8	90.8
	평균	4.10	4.10	4.09	3.93	4.19	4.18	4.06	4.06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80% 내외의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세부 속성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평가 84.3%, 부정 평가 0.2%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 '치안수준'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77.7%, 부정 평가 1.9%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3-3-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치안수준'에 대해 여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표3-3-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1)	(209)	(212)	(40)	(78)	(93)	(97)	(113)
인지도	긍정률	79.8	79.4	80.2	70.0	75.6	84.9	79.4	82.3
	평균	3.94	3.92	3.96	3.78	3.96	4.03	3.92	3.92
발전정도	긍정률	83.6	84.2	83.0	67.5	84.6	86.0	84.5	85.8
	평균	4.05	4.05	4.04	3.75	4.15	4.10	4.08	4.01
치안수준	긍정률	77.7	75.1	80.2	77.5	74.4	79.6	77.3	78.8
	평균	3.96	3.95	3.98	3.90	4.01	3.99	3.96	3.93
거주희망	긍정률	80.8	79.4	82.1	72.5	74.4	83.9	79.4	86.7
	평균	4.01	4.00	4.02	3.88	3.95	4.09	4.05	4.01
발전 가능성	긍정률	84.3	82.8	85.8	70.0	85.9	83.9	82.5	90.3
	평균	4.10	4.07	4.12	3.88	4.18	4.09	4.09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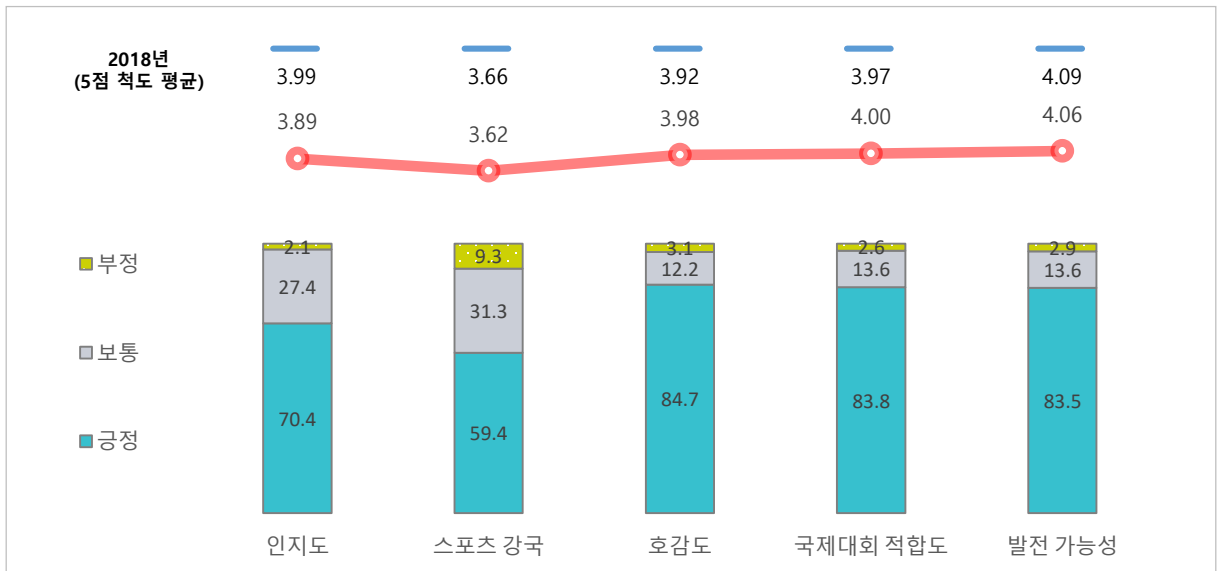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해 '호감도', '국제대회 적합도',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 응답이 80% 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반면, '스포츠 강국'에 대한 긍정 응답은 5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 또한 9.3%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3-3-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의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호감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10대의 평가가 가장 낮고, 30대와 50대 이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3-3-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9)	(216)	(203)	(30)	(72)	(85)	(108)	(124)
인지도	긍정률	70.4	68.5	72.4	53.3	62.5	76.5	71.3	74.2
	평균	3.89	3.91	3.86	3.60	3.89	4.01	3.89	3.87
스포츠강국	긍정률	59.4	58.3	60.6	50.0	56.9	67.1	56.5	60.5
	평균	3.62	3.60	3.64	3.43	3.68	3.78	3.52	3.61
호감도	긍정률	84.7	81.0	88.7	76.7	81.9	87.1	81.5	89.5
	평균	3.98	3.97	3.99	3.73	4.06	4.07	3.93	3.97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83.8	83.3	84.2	73.3	79.2	85.9	78.7	91.9
	평균	4.00	4.02	3.99	3.87	3.99	4.07	3.96	4.04
발전 가능성	긍정률	83.5	81.5	85.7	63.3	80.6	89.4	85.2	84.7
	평균	4.06	4.06	4.05	3.67	4.07	4.21	4.10	4.00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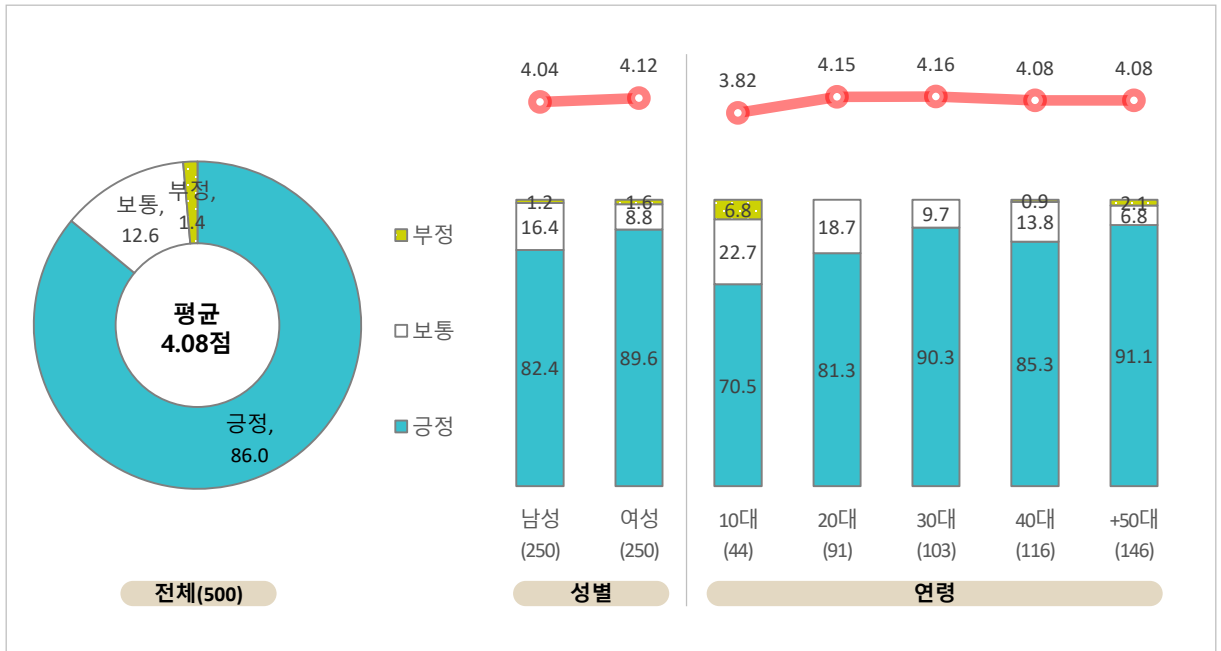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86.0%, 부정 1.4%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변화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의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정 응답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3-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16.5
문화/전통	7.4
사회/경제/경제발전	7.4
지속적인 성장/발전	5.8
K-POP/가수	4.0
기술력/첨단기술	4.0
정치/대통령	2.8
드라마/영화	2.6
그냥 좋다	2.3
개방적이다	2.3

정부/정치적 문제	14.3
북한 문제	14.3
연예 산업의 부정적 이면	14.3
이기적이다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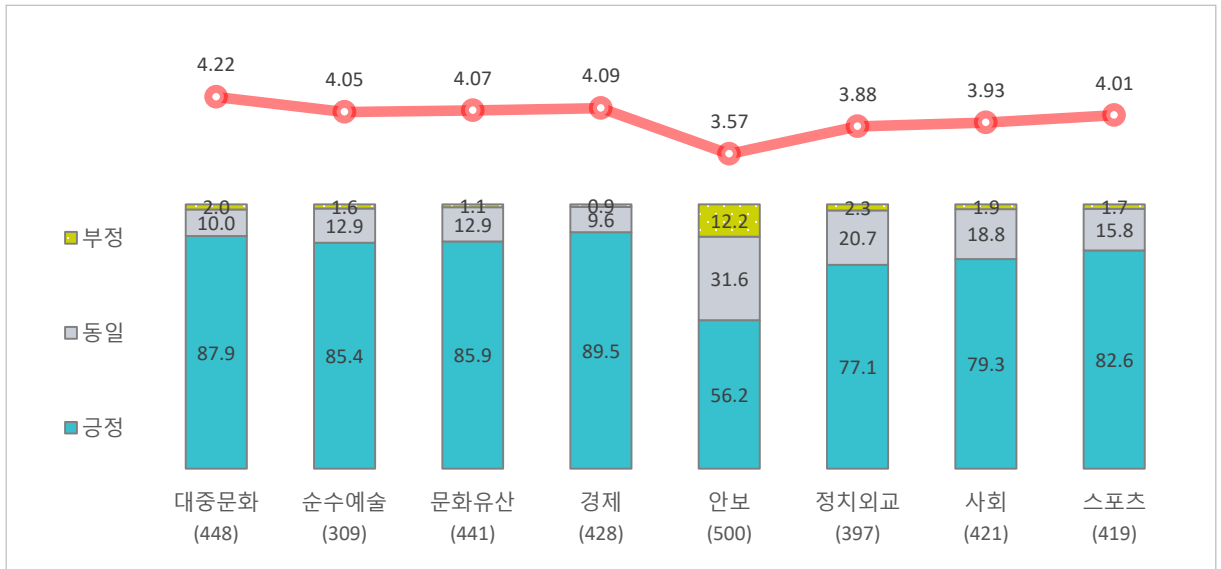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긍정 응답이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안보'에 대한 긍정 응답은 56.2%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3-3-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여성은 남성보다 '문화유산', '정치외교'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는 '경제', 20대는 '대중문화', 30대 이상은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3-3-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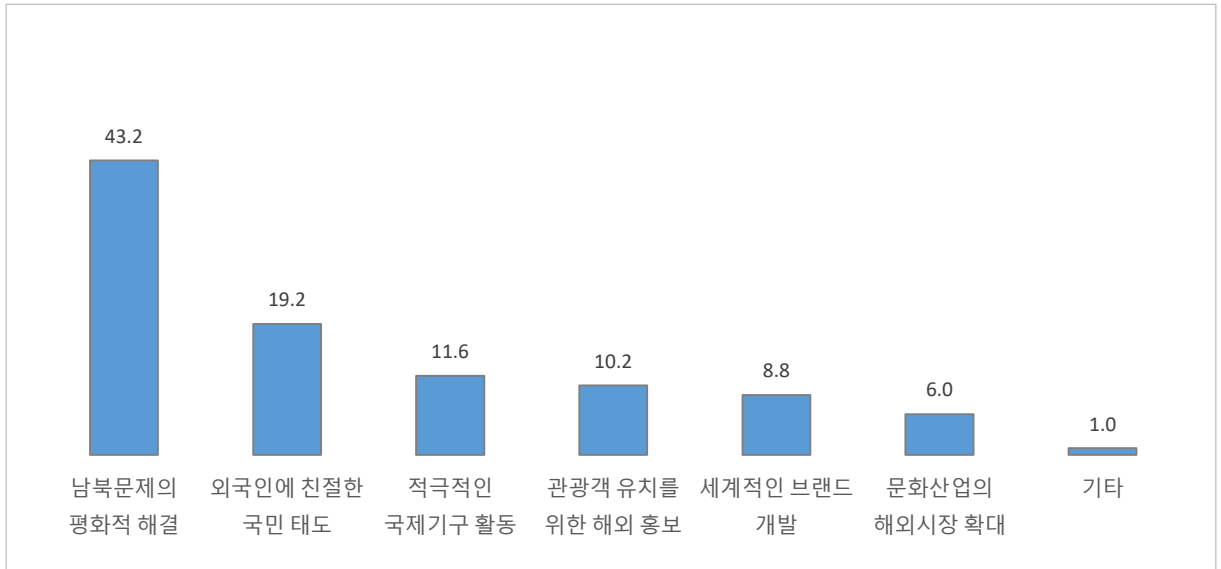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87.9	86.0	89.7	77.1	91.3	89.4	87.5	88.2
	평균	4.22	4.20	4.24	3.97	4.40	4.29	4.18	4.16
순수예술	긍정률	85.4	82.7	88.1	73.1	85.2	88.7	79.7	91.7
	평균	4.05	4.03	4.07	3.96	4.13	4.13	3.93	4.06
문화유산	긍정률	85.9	80.9	91.0	71.4	78.5	88.2	86.3	92.4
	평균	4.07	4.02	4.11	3.86	4.04	4.13	4.02	4.13
경제	긍정률	89.5	89.6	89.4	77.4	85.5	90.6	90.3	93.2
	평균	4.09	4.11	4.07	3.87	4.00	4.14	4.12	4.14
안보	긍정률	56.2	54.8	57.6	50.0	57.1	57.3	53.4	58.9
	평균	3.57	3.56	3.58	3.48	3.60	3.59	3.51	3.61
정치외교	긍정률	77.1	72.3	81.6	70.0	79.7	78.5	73.7	79.2
	평균	3.88	3.85	3.92	3.70	3.97	3.92	3.86	3.88
사회	긍정률	79.3	78.0	80.7	60.0	82.1	81.7	78.4	83.2
	평균	3.93	3.96	3.89	3.65	4.03	3.92	3.96	3.93
스포츠	긍정률	82.6	79.6	85.7	70.0	79.2	87.1	81.5	85.5
	평균	4.01	4.00	4.01	3.73	4.03	4.15	3.95	4.02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19.2%),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11.6%),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0.2%) 순으로 나타남

그림3-3-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대비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응답 비중이 높음  
연령별로는 30대가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을 우선과제로 많이 응답함

표3-4-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4)	(91)	(103)	(116)	(146)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43.2	46.0	40.4	34.1	31.9	37.9	44.8	55.5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9.2	17.2	21.2	20.5	19.8	14.6	23.3	18.5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11.6	12.4	10.8	11.4	13.2	21.4	9.5	5.5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0.2	7.2	13.2	6.8	14.3	8.7	10.3	9.6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8.8	10.0	7.6	11.4	14.3	9.7	6.9	5.5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6.0	6.0	6.0	13.6	6.6	6.8	4.3	4.1
기타	1.0	1.2	0.8	2.3	0.0	1.0	0.9	1.4

# 04 인도네시아



## 1 일반개요

위치	동남아시아	언어	인도네시아어
수도	자카르타(면적 661km <sup>2</sup> -서울 면적 605km <sup>2</sup> )	종교	이슬람교,기독교,가톨릭
인구	약 2억 6,416만 명(2019년 4월 기준)	1인당 GDP	4,123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인도네시아는 300여 개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존재하고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이 특색
- 인도네시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중앙부처에 종교만을 관장하는 부처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인의 신분증에는 반드시 본인의 종교를 기입하게 돼 있을 정도로 종교생활을 강조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對남·북한 입장

- 경직되어있던 대북 입장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완화
-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양국 대사를 대통령궁에 초청 등, 남북관계 개선에 개입 의지 노력

### 한국을 주요 관광국으로 간주, 한국과의 교류 증진 노력

- 2016년에 전체 출신 국가별 관광객 수 6위를 차지
-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최로 일부 지역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많은 인도네시아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
- 한국의 대학교와 국제교류협력 추진 등 학생의 교류 활발

### 세종학당 운영 및 한국 예능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문화 전파

- 영산대 국제협력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세종학당재단 '2019년 신규 세종학당 사업' 지정 심사 결과 13곳에 학당을 신규 운영
- K-Food 팝업스토어를 열고 현지인 대상으로 한국 음식을 홍보 및 현지인의 반응을 살펴보는 컨셉 방송 촬영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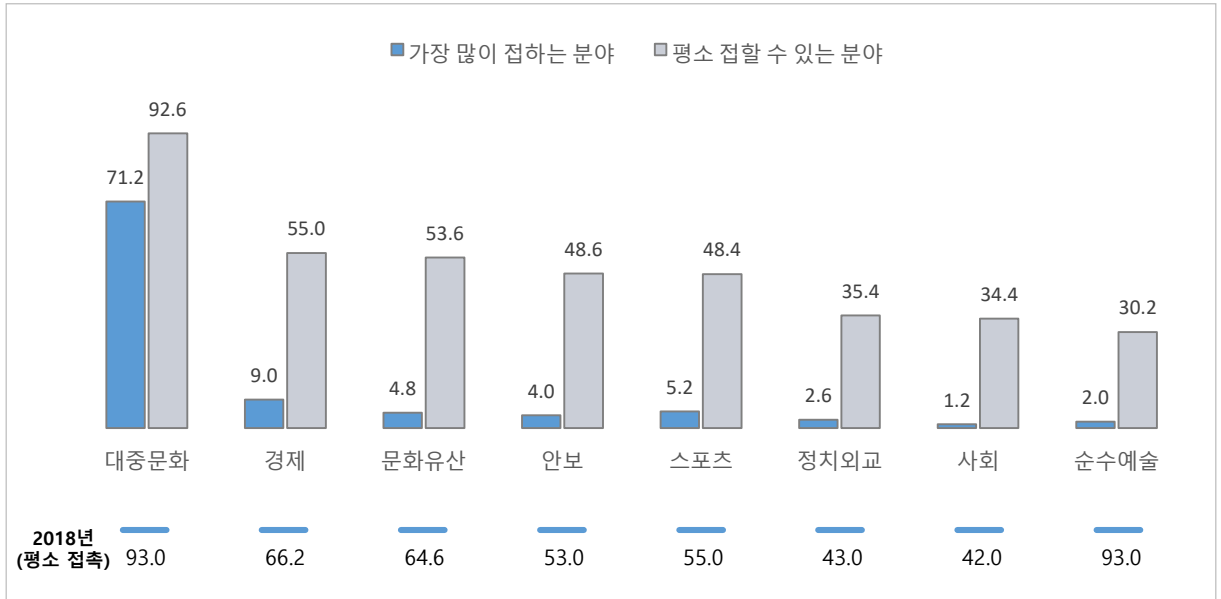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92.6%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모든 분야에서 관련 접촉이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3-4-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 '문화유산'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접촉 비중이 높았고, '경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3-4-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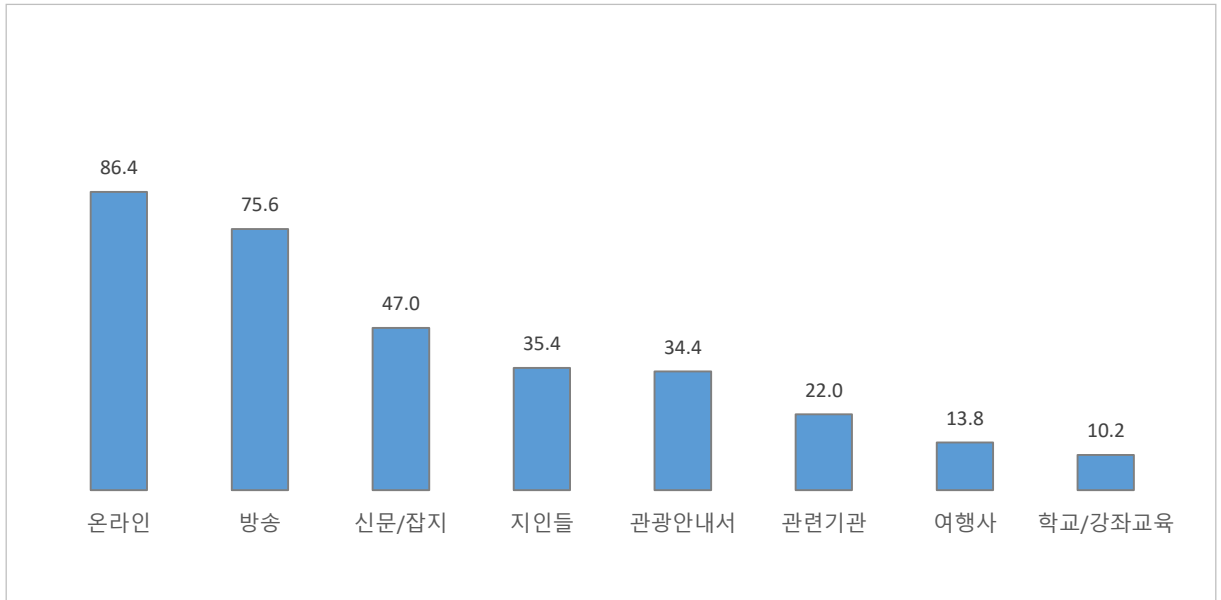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5)	(119)	(114)	(102)	(100)
대중문화	92.6	87.6	97.6	95.4	97.5	93.0	88.2	89.0
경제	55.0	60.0	50.0	18.5	47.1	64.0	65.7	67.0
문화유산	53.6	43.6	63.6	26.2	58.8	61.4	58.8	51.0
안보	48.6	53.2	44.0	30.8	51.3	50.9	54.9	48.0
스포츠	48.4	56.0	40.8	26.2	42.0	51.8	54.9	60.0
정치외교	35.4	33.2	37.6	10.8	35.3	43.9	41.2	36.0
사회	34.4	32.4	36.4	23.1	35.3	37.7	34.3	37.0
순수예술	30.2	26.4	34.0	13.8	31.1	37.7	30.4	31.0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 > '방송'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4-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온라인' 비중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4-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5)	(119)	(114)	(102)	(100)
온라인	86.4	84.8	88.0	84.6	93.3	85.1	83.3	84.0
방송	75.6	78.0	73.2	64.6	79.0	77.2	72.5	80.0
신문/잡지	47.0	45.6	48.4	32.3	45.4	52.6	47.1	52.0
지인들	35.4	32.4	38.4	33.8	31.9	43.0	30.4	37.0
관광안내서	34.4	33.2	35.6	10.8	26.1	45.6	42.2	39.0
관련기관	22.0	23.2	20.8	9.2	25.2	24.6	23.5	22.0
여행사	13.8	10.8	16.8	1.5	13.4	17.5	17.6	14.0
학교/강좌교육	10.2	8.8	11.6	4.6	14.3	6.1	9.8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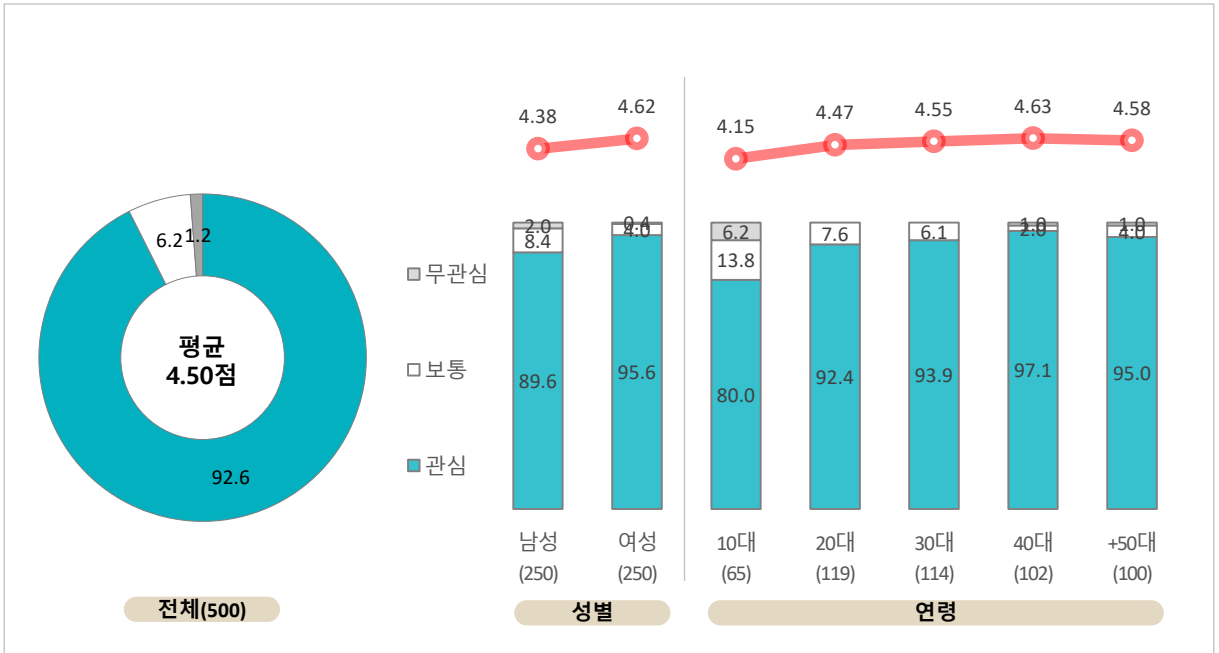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92.6%, '관심 없다'가 1.2%로 관심도가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10대의 관심도가 가장 낮음

그림3-4-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경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대중문화'와 '사회'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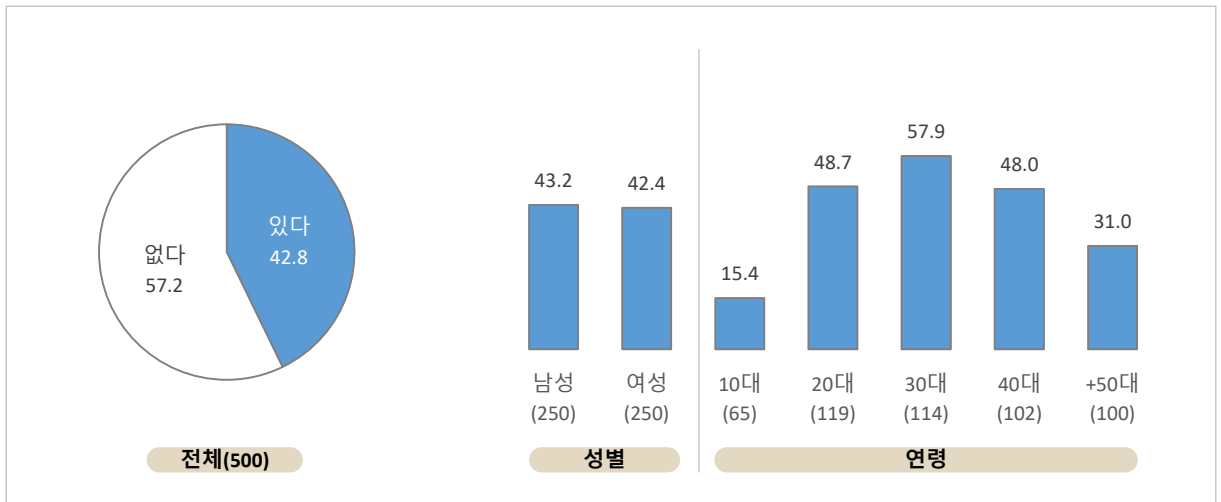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42.8%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97.2%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여성과 30대에서 가장 높았고, 10대에서 가장 낮았음

그림3-4-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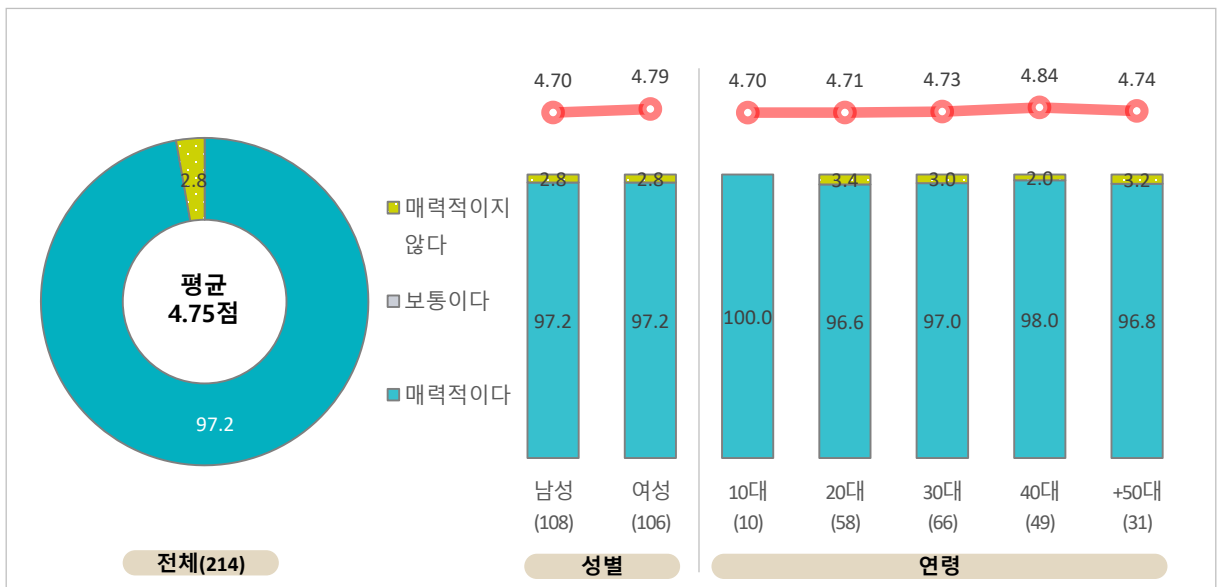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10대의 긍정 인식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3-4-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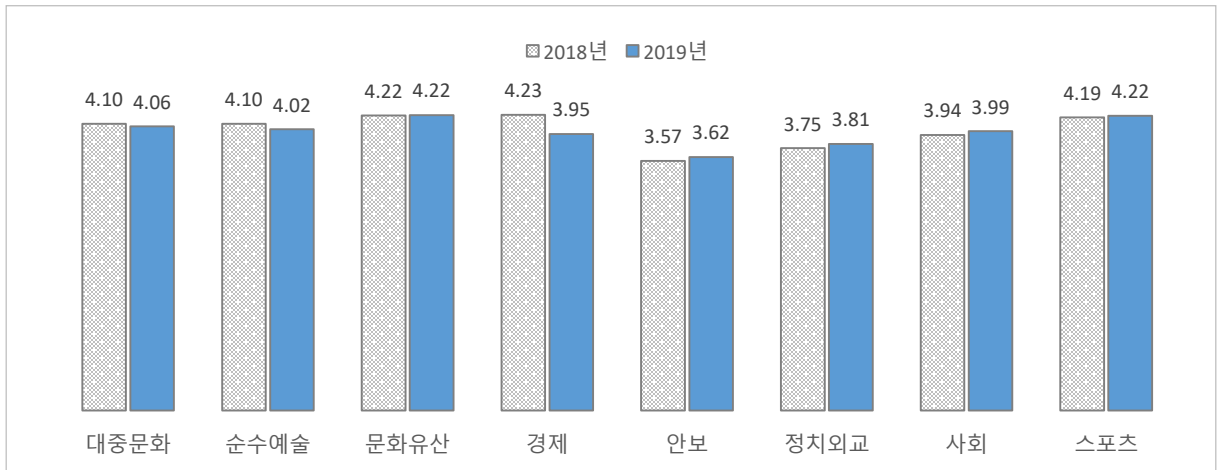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모든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문화유산', '스포츠' 분야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대중문화', '순수예술', '경제'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외 분야에 대한 호감도는 소폭 상승하였음

그림3-4-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정치외교'에 대한 긍정 인식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10대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3-4-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5)	(119)	(114)	(102)	(100)
대중문화	긍정률	78.6	75.3	81.6	59.7	75.0	84.9	81.1	86.5
	평균	4.06	4.00	4.11	3.71	4.08	4.17	4.09	4.13
순수예술	긍정률	84.2	81.9	86.0	73.8	82.9	85.7	84.4	90.5
	평균	4.02	3.95	4.08	3.81	4.01	4.00	4.09	4.13
문화유산	긍정률	90.4	86.3	93.7	81.8	92.9	93.1	88.2	91.7
	평균	4.22	4.11	4.32	3.98	4.17	4.34	4.22	4.32
경제	긍정률	71.7	72.8	70.6	42.4	72.8	72.2	83.0	76.3
	평균	3.95	3.99	3.91	3.49	3.90	4.00	4.13	4.05
안보	긍정률	61.9	58.1	65.9	52.4	50.5	69.2	68.8	64.0
	평균	3.62	3.61	3.64	3.48	3.45	3.77	3.73	3.62
정치외교	긍정률	73.3	75.0	71.6	57.1	76.0	75.0	74.4	78.0
	평균	3.81	3.81	3.82	3.59	3.77	3.87	3.85	3.93
사회	긍정률	82.0	79.3	84.7	71.4	82.1	86.0	81.9	84.3
	평균	3.99	3.94	4.04	3.70	3.94	4.01	4.06	4.17
스포츠	긍정률	89.5	87.1	92.0	76.1	94.7	89.4	91.6	88.9
	평균	4.22	4.18	4.25	3.98	4.26	4.14	4.31	4.27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77.0%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2.4%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불친절하다', '무례하다', '자기 중심적' 등이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이민호'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송혜교', '블랙핑크', 'BTS', '문재인' 순으로 나타남

그림3-4-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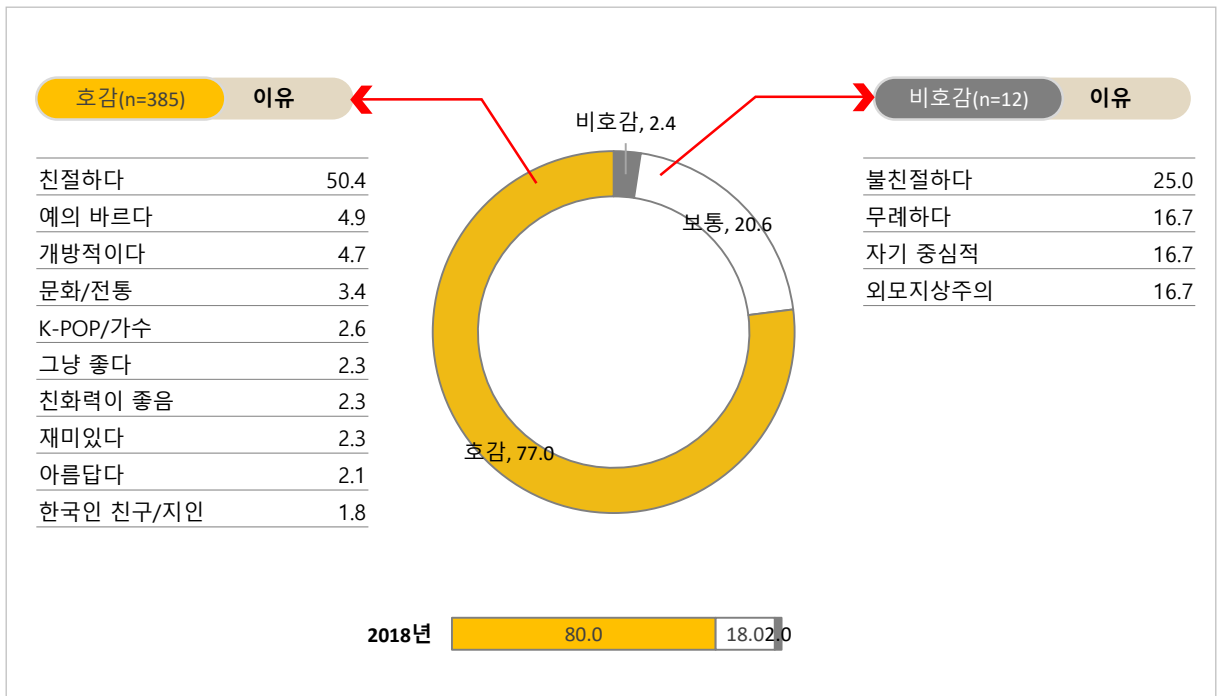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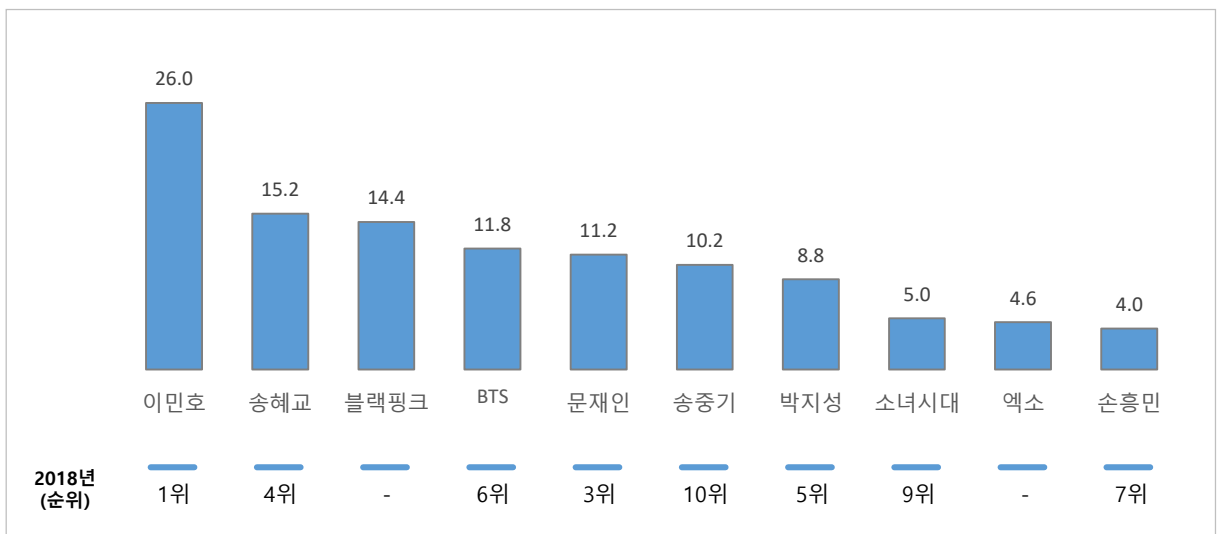


그림3-4-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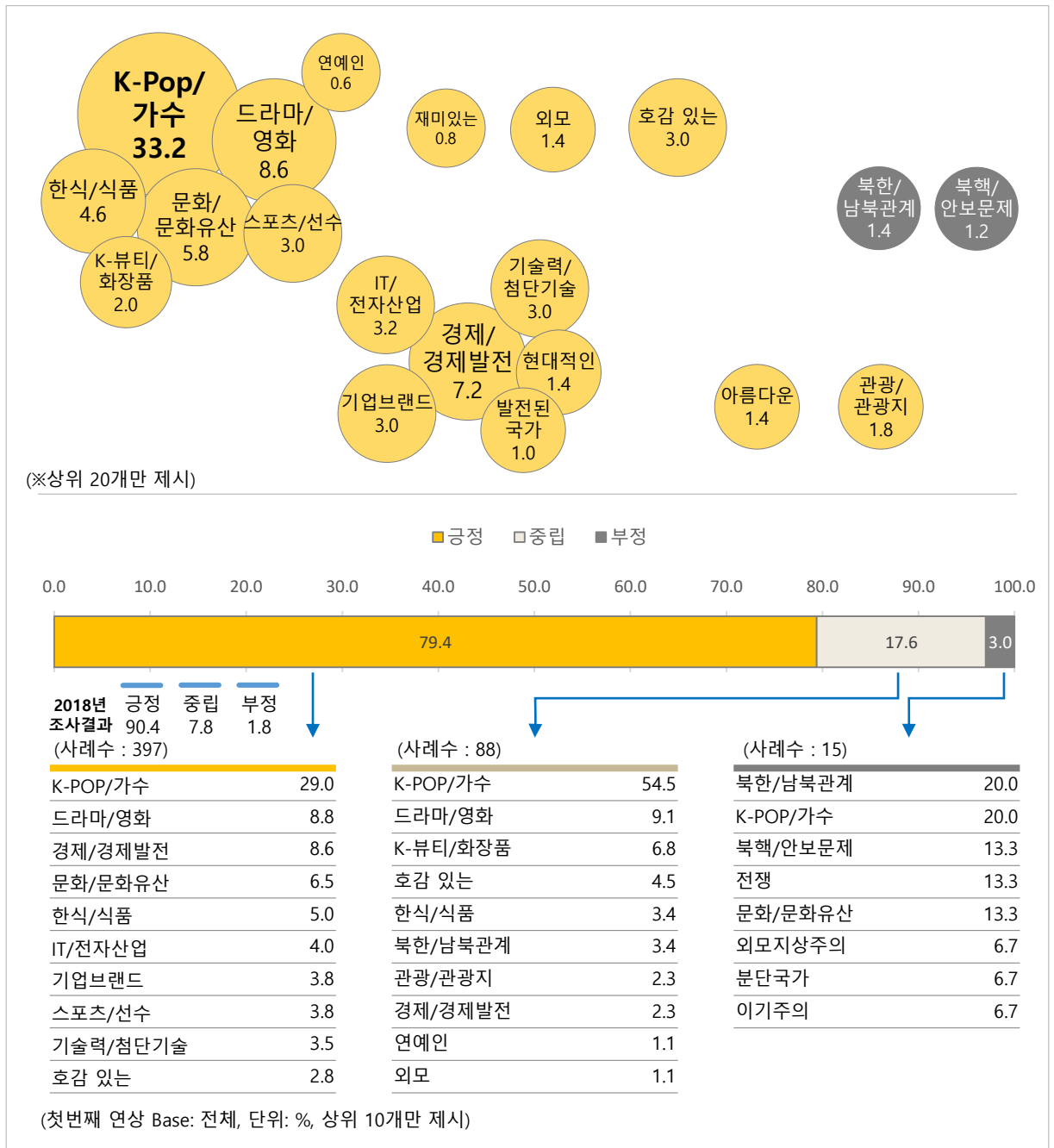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하면 'K-Pop/가수'를 가장 많이 떠올렸으며,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79.4%, 부정 3.0%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K-pop/가수',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와 'K-Pop/가수'가 가장 높았으며, K-POP의 부정 이유로는 시끄러움, 정신없음 등의 의견이 있었음

그림3-4-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88.4%, 5점 만점 4.42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문화유산', '경제수준', '북핵문제'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0대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3-4-10.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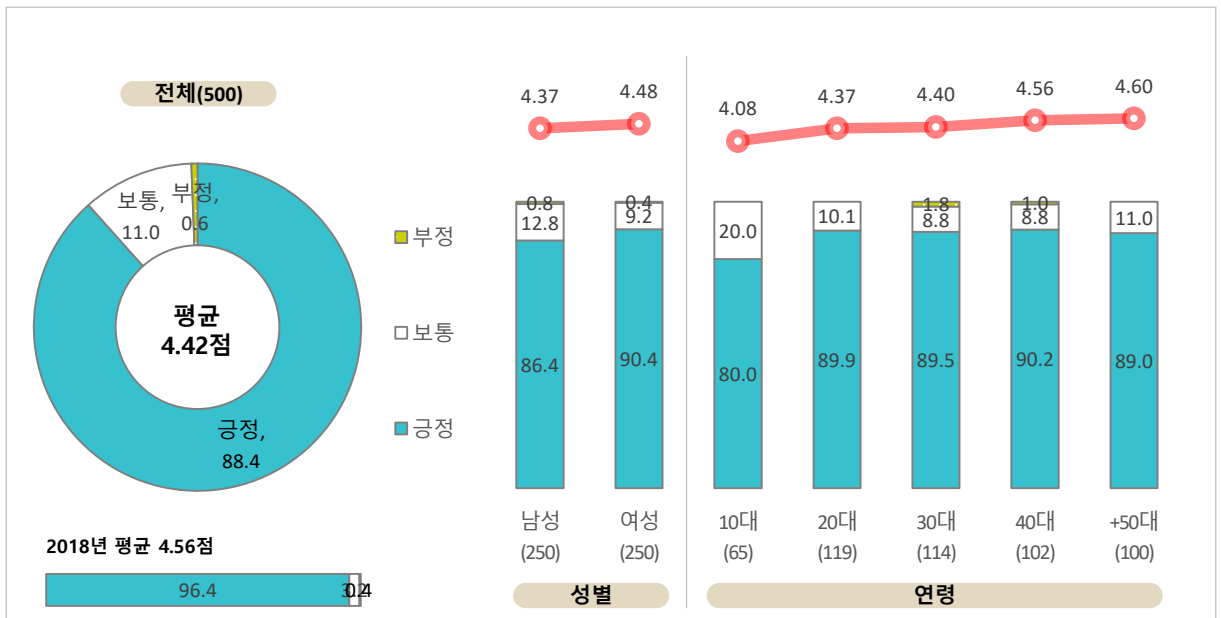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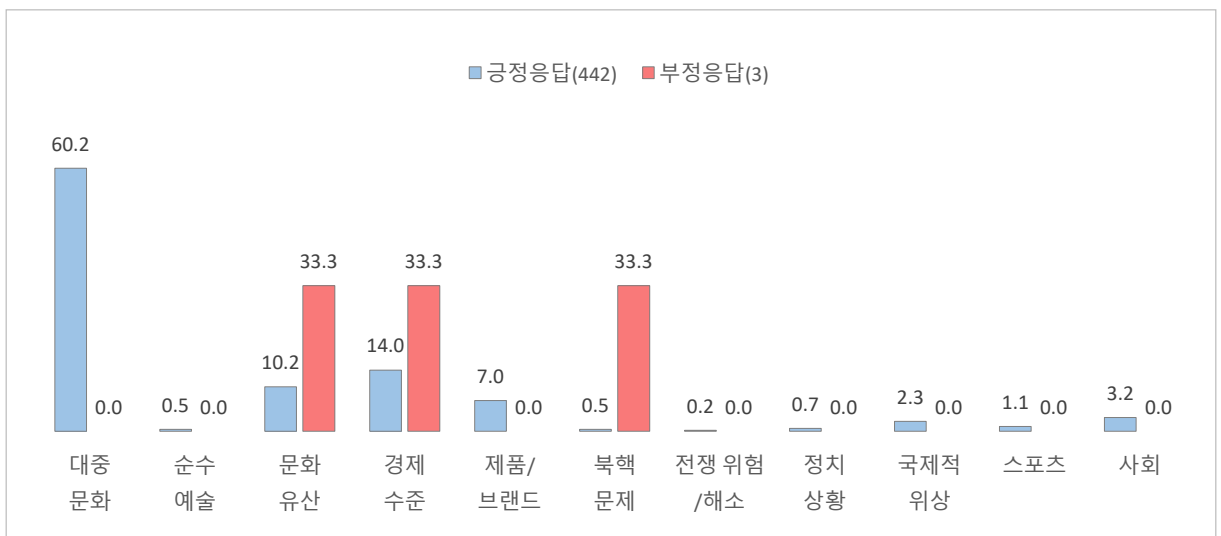


그림3-4-11.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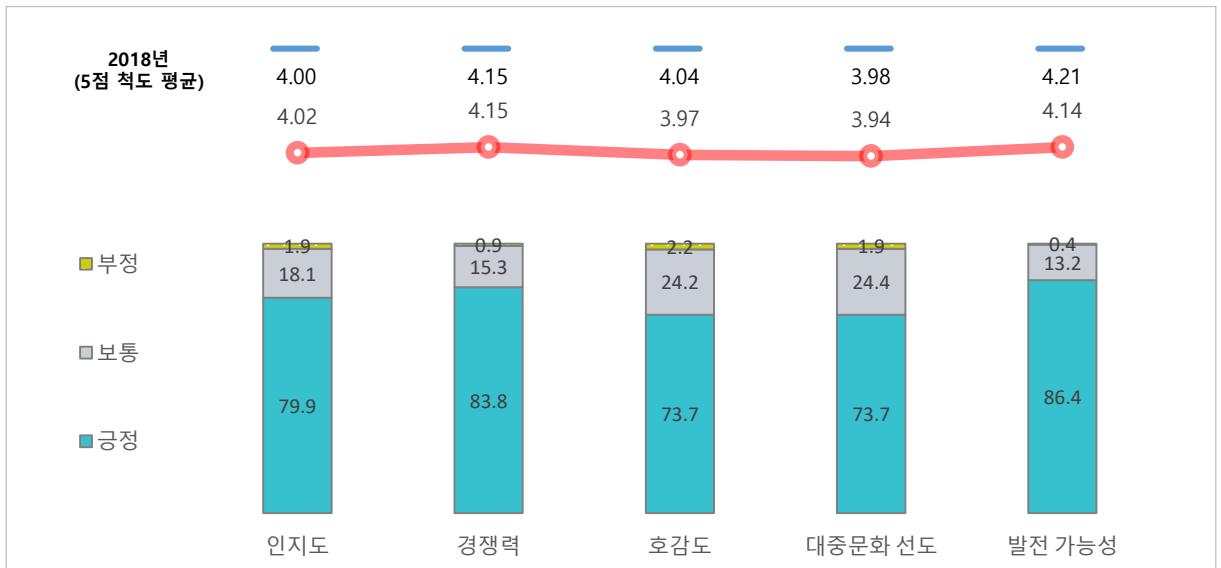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8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인지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 외 항목에 대한 평가는 하락하였음

그림3-4-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호감도'에 대한 긍정응답은 여성의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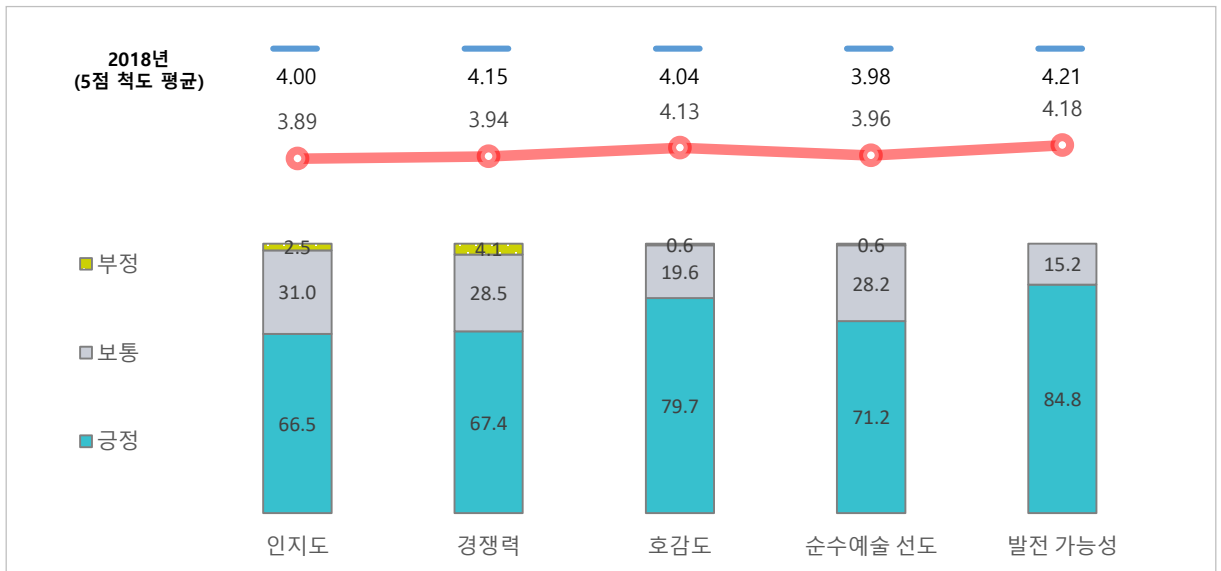
표3-4-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63)	(219)	(244)	(62)	(116)	(106)	(90)	(89)
인지도	긍정률	79.9	75.8	83.6	67.7	76.7	89.6	80.0	80.9
	평균	4.02	3.93	4.09	3.73	3.96	4.24	4.06	3.99
경쟁력	긍정률	83.8	81.7	85.7	69.4	85.3	85.8	86.7	86.5
	평균	4.15	4.10	4.19	3.74	4.25	4.25	4.18	4.15
호감도	긍정률	73.7	66.7	79.9	62.9	73.3	78.3	75.6	74.2
	평균	3.97	3.86	4.07	3.66	4.01	4.08	4.03	3.93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73.7	68.0	78.7	61.3	76.7	78.3	74.4	71.9
	평균	3.94	3.87	4.00	3.68	4.00	4.06	3.98	3.88
발전 가능성	긍정률	86.4	84.0	88.5	77.4	85.3	86.8	88.9	91.0
	평균	4.14	4.11	4.18	3.89	4.16	4.25	4.21	4.12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지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66.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4-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성의 평가가 남성보다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음  
연령별로는 30-40대의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10-20대의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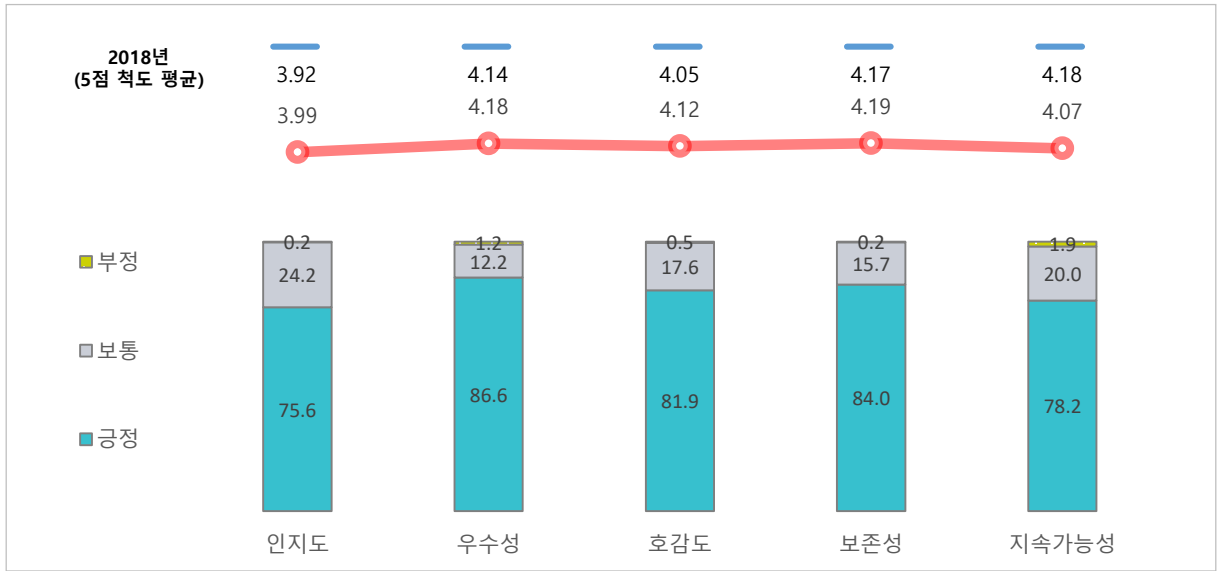
표3-4-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16)	(138)	(178)	(42)	(70)	(77)	(64)	(63)
인지도	긍정률	66.5	65.9	66.9	47.6	68.6	71.4	73.4	63.5
	평균	3.89	3.86	3.91	3.62	3.81	3.96	4.13	3.83
경쟁력	긍정률	67.4	67.4	67.4	57.1	65.7	75.3	67.2	66.7
	평균	3.94	3.93	3.94	3.69	3.84	4.09	3.98	3.97
호감도	긍정률	79.7	80.4	79.2	66.7	80.0	80.5	82.8	84.1
	평균	4.13	4.14	4.12	3.83	4.06	4.16	4.27	4.24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71.2	71.0	71.3	57.1	65.7	77.9	73.4	76.2
	평균	3.96	3.96	3.96	3.69	3.86	4.01	4.09	4.06
발전 가능성	긍정률	84.8	82.6	86.5	76.2	82.9	87.0	89.1	85.7
	평균	4.18	4.14	4.22	3.95	4.16	4.22	4.34	4.16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속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평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
- '우수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86.6%로 가장 높았음

그림3-4-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속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3-4-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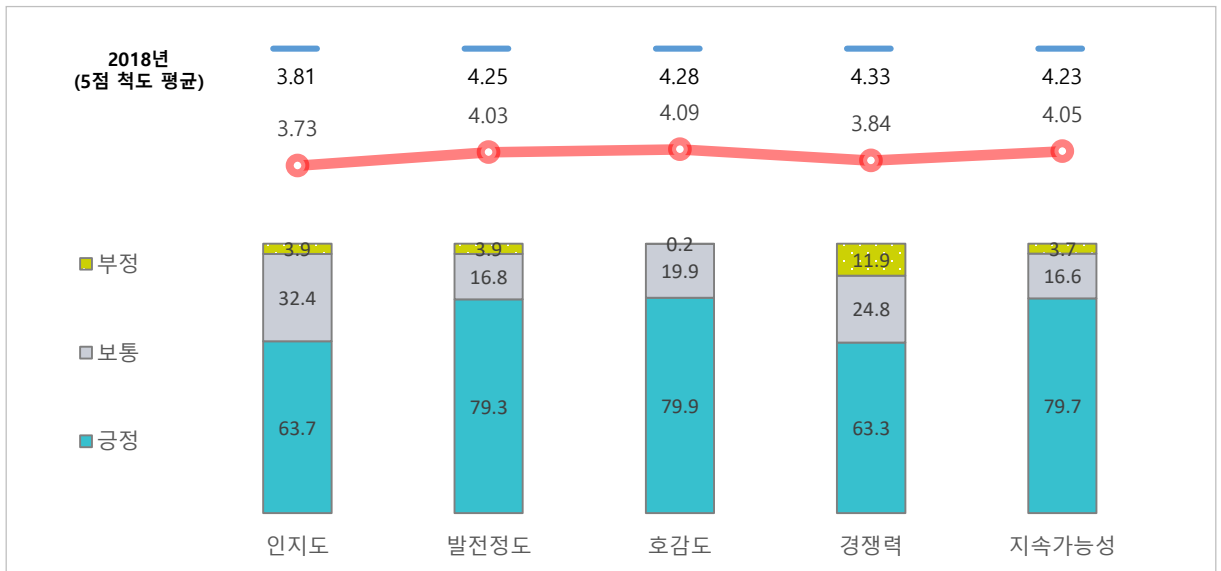
분야	속성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6)	(202)	(224)	(50)	(106)	(102)	(88)	(80)
인지도	긍정률	75.6	72.3	78.6	70.0	73.6	75.5	79.5	77.5
	평균	3.99	3.95	4.02	3.80	3.91	4.06	4.10	3.99
우수성	긍정률	86.6	84.7	88.4	80.0	85.8	88.2	86.4	90.0
	평균	4.18	4.18	4.18	3.92	4.10	4.24	4.27	4.28
호감도	긍정률	81.9	78.2	85.3	66.0	82.1	82.4	84.1	88.8
	평균	4.12	4.09	4.15	3.74	4.08	4.19	4.17	4.29
보존성	긍정률	84.0	82.2	85.7	74.0	86.8	82.4	87.5	85.0
	평균	4.19	4.19	4.18	3.88	4.13	4.18	4.30	4.35
지속가능성	긍정률	78.2	78.7	77.7	56.0	75.5	85.3	78.4	86.3
	평균	4.07	4.08	4.06	3.60	3.96	4.22	4.19	4.19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의 이미지 속성 중 '발전정도', '호감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이 약 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반면, '경쟁력'에 대한 긍정 응답은 63.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정 응답 또한 11.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4-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호감도', '경쟁력'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그 외의 속성에 대해서는 남성이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평가가 높고, 1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표3-4-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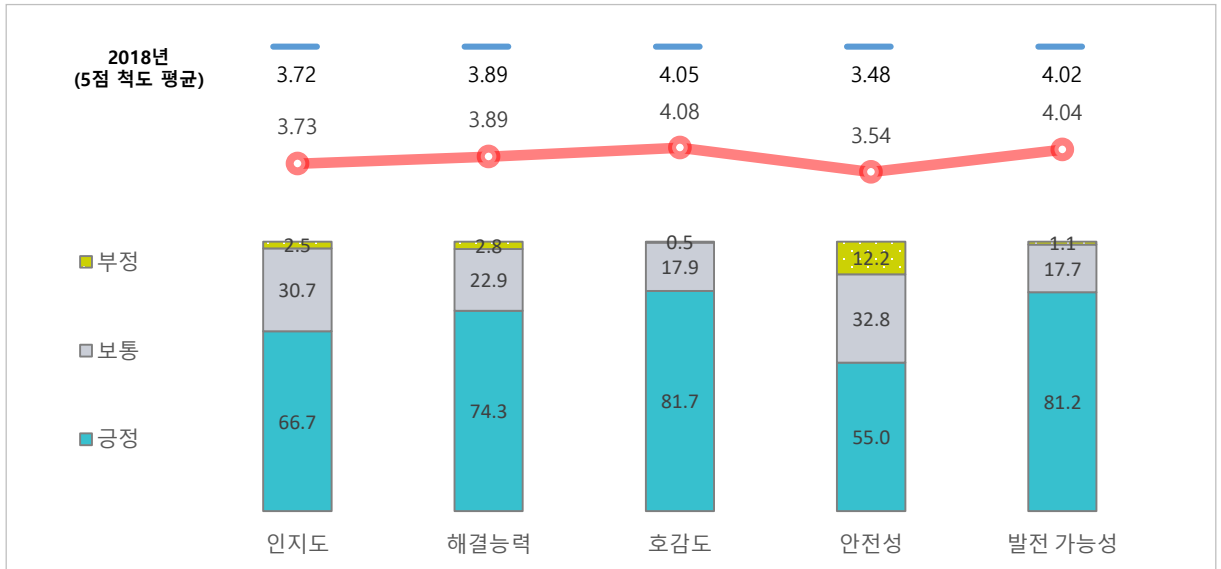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63)	(235)	(228)	(59)	(103)	(108)	(100)	(93)
인지도	긍정률	63.7	64.7	62.7	33.9	73.8	65.7	70.0	62.4
	평균	3.73	3.74	3.73	3.20	3.84	3.81	3.86	3.72
발전정도	긍정률	79.3	80.0	78.5	67.8	78.6	82.4	83.0	79.6
	평균	4.03	4.07	3.99	3.64	4.05	4.09	4.18	4.01
호감도	긍정률	79.9	78.3	81.6	67.8	74.8	80.6	89.0	82.8
	평균	4.09	4.06	4.12	3.80	4.00	4.13	4.28	4.14
경쟁력	긍정률	63.3	62.6	64.0	23.7	61.2	72.2	70.0	73.1
	평균	3.84	3.82	3.87	3.17	3.80	3.98	4.03	3.97
지속가능성	긍정률	79.7	80.9	78.5	62.7	78.6	85.2	80.0	84.9
	평균	4.05	4.06	4.05	3.63	4.05	4.18	4.12	4.12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은 긍정평가가 8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5.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음
- 전년도와 비교해 '안보'의 모든 속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0% 내외는 우리나라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4-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 여성이 남성보다 평가가 높았으나, '인지도'와 '호감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남성이 더 높았음. 연령별로는 30-40대의 평가가 높았으며, 10대의 평가가 낮았음

표3-4-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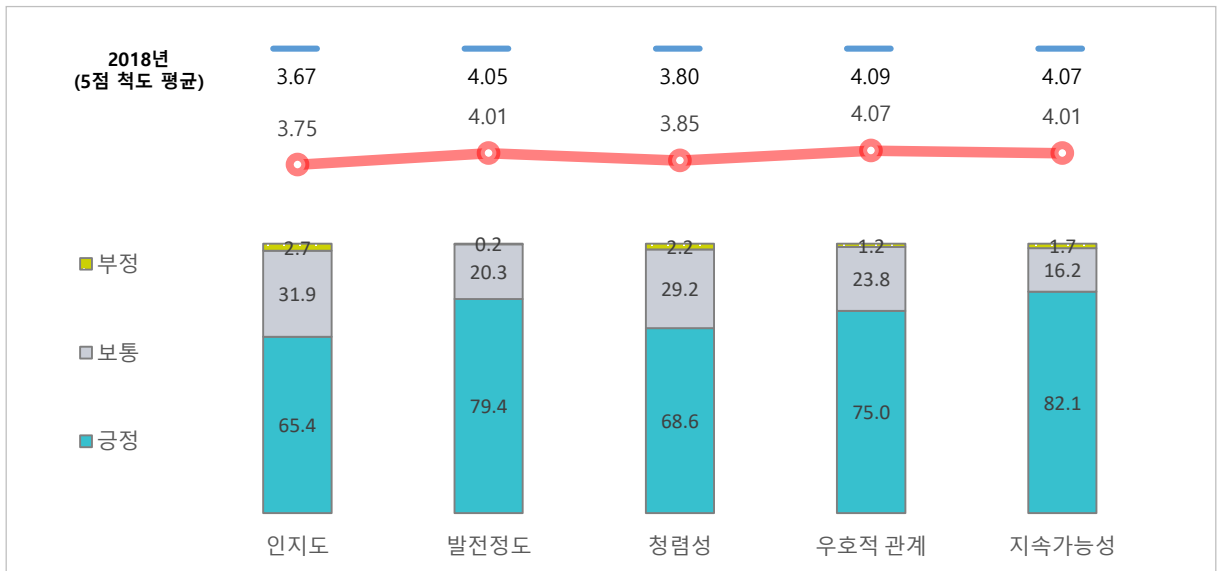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36)	(222)	(214)	(42)	(105)	(107)	(93)	(89)
인지도	긍정률	66.7	67.6	65.9	45.2	77.1	63.6	66.7	68.5
	평균	3.73	3.75	3.72	3.43	3.88	3.66	3.76	3.76
해결능력	긍정률	74.3	71.2	77.6	59.5	74.3	72.0	81.7	76.4
	평균	3.89	3.86	3.92	3.57	3.87	3.92	4.00	3.92
호감도	긍정률	81.7	82.9	80.4	66.7	81.0	79.4	88.2	85.4
	평균	4.08	4.11	4.06	3.81	4.10	4.06	4.19	4.11
안전성	긍정률	55.0	51.4	58.9	47.6	56.2	57.9	57.0	51.7
	평균	3.54	3.49	3.60	3.33	3.53	3.63	3.61	3.48
발전 가능성	긍정률	81.2	77.0	85.5	61.9	78.1	81.3	88.2	86.5
	평균	4.04	4.01	4.08	3.76	3.99	4.06	4.18	4.08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82.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청렴성'에 대해서는 68.6%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년도에도 '인지도'를 제외한 속성 중 '청렴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조금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4-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여성은 '인지도', '발전정도'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남성은 '청렴성', '우호적 관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서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인지도', '발전정도'는 50대 이상의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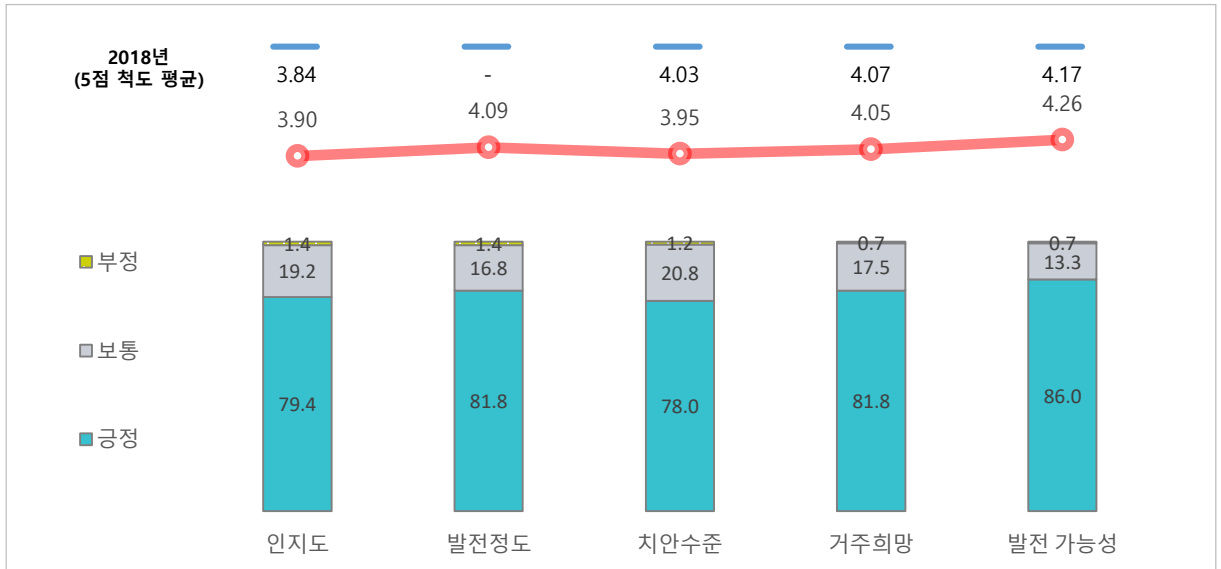
표3-4-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8)	(204)	(204)	(56)	(100)	(92)	(78)	(82)
인지도	긍정률	65.4	61.3	69.6	55.4	66.0	62.0	69.2	72.0
	평균	3.75	3.69	3.81	3.57	3.74	3.71	3.81	3.88
발전정도	긍정률	79.4	78.9	79.9	62.5	82.0	80.4	79.5	86.6
	평균	4.01	3.96	4.05	3.70	4.02	4.03	4.01	4.17
청렴성	긍정률	68.6	70.6	66.7	60.7	70.0	69.6	73.1	67.1
	평균	3.85	3.83	3.86	3.64	3.83	3.89	3.91	3.89
우호적 관계	긍정률	75.0	78.4	71.6	48.2	69.0	87.0	78.2	84.1
	평균	4.07	4.14	4.00	3.63	4.02	4.15	4.13	4.28
지속가능성	긍정률	82.1	82.4	81.9	62.5	84.0	88.0	80.8	87.8
	평균	4.01	4.02	4.00	3.66	4.01	4.08	4.03	4.16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80% 내외의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세부 속성별로는 '발전정도'와 '거주희망'이 81.8%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였으며, '치안 수준'에 대한 긍정 인식이 78.0%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임

그림3-4-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인지도'와 '거주희망'에 대해 여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표3-4-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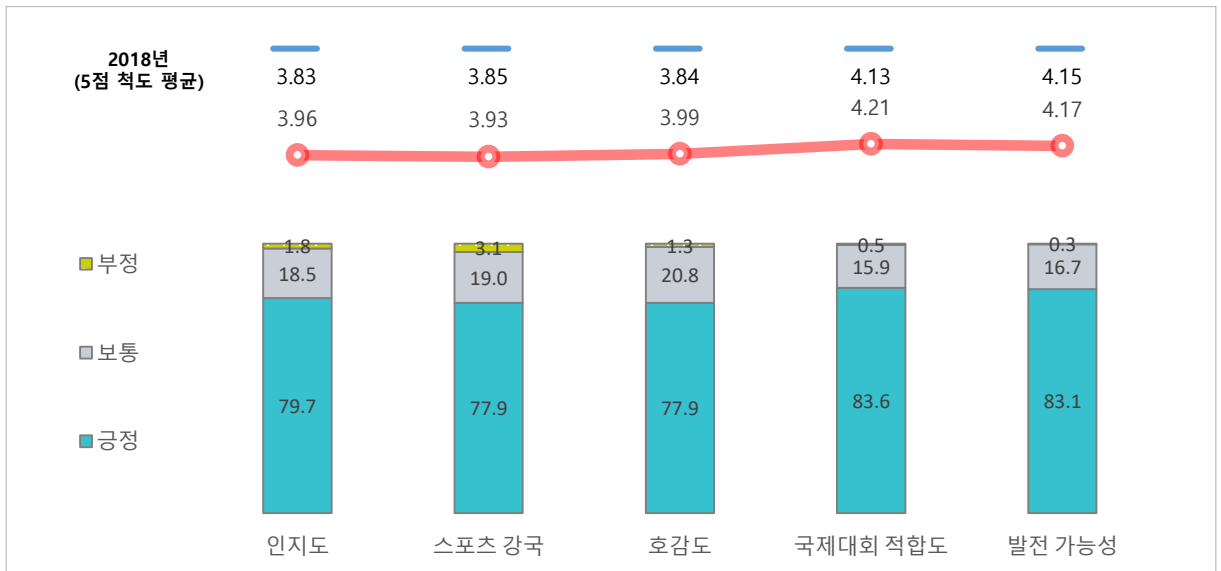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8)	(213)	(215)	(56)	(106)	(100)	(83)	(83)
인지도	긍정률	79.4	76.5	82.3	62.5	82.1	83.0	79.5	83.1
	평균	3.90	3.86	3.93	3.64	3.92	3.92	3.93	3.99
발전정도	긍정률	81.8	81.2	82.3	75.0	82.1	80.0	80.7	89.2
	평균	4.09	4.08	4.11	3.84	4.04	4.07	4.17	4.29
치안수준	긍정률	78.0	76.1	80.0	69.6	81.1	78.0	81.9	75.9
	평균	3.95	3.90	4.00	3.77	3.95	3.96	4.07	3.94
거주희망	긍정률	81.8	77.9	85.6	69.6	84.9	84.0	84.3	80.7
	평균	4.05	4.00	4.10	3.75	4.08	4.10	4.08	4.13
발전 가능성	긍정률	86.0	82.6	89.3	78.6	87.7	89.0	85.5	85.5
	평균	4.26	4.18	4.35	4.02	4.28	4.32	4.28	4.33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 긍정 75%이상으로 나타남
- 그 중 가장 높은 평가는 '국제대회 적합도'로 긍정 83.6%, 부정 0.5%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이 긍정 83.1%, 부정 0.3%로 나타남

그림3-4-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3-4-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0)	(202)	(188)	(46)	(95)	(85)	(83)	(81)
인지도	긍정률	79.7	78.7	80.9	63.0	86.3	80.0	81.9	79.0
	평균	3.96	3.97	3.96	3.67	4.03	4.00	4.04	3.94
스포츠강국	긍정률	77.9	77.2	78.7	58.7	78.9	81.2	84.3	77.8
	평균	3.93	3.94	3.93	3.54	3.94	4.00	4.07	3.94
호감도	긍정률	77.9	74.8	81.4	63.0	82.1	80.0	80.7	76.5
	평균	3.99	3.95	4.05	3.63	4.05	4.05	4.04	4.04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83.6	82.2	85.1	67.4	85.3	85.9	88.0	84.0
	평균	4.21	4.17	4.26	3.78	4.22	4.29	4.36	4.21
발전 가능성	긍정률	83.1	81.7	84.6	63.0	85.3	83.5	88.0	86.4
	평균	4.17	4.14	4.20	3.74	4.21	4.20	4.28	4.22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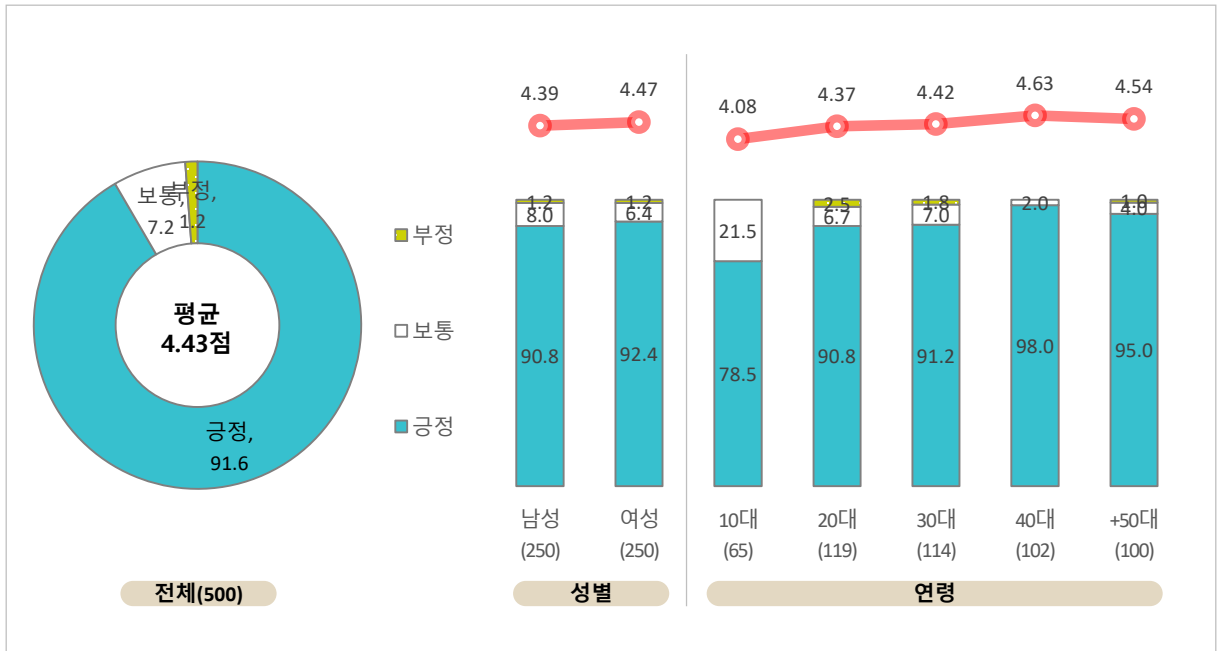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91.6%, 부정 1.2%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 '북한 문제'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긍정 응답이 가장 높고, 10대의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그림3-4-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긍정적 변화 이유(n=457)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10.3
사회/경제/경제발전	7.9
문화/전통	7.0
빠른 성장/발전	6.8
K-POP/가수	4.6
북한/남북관계	4.4
기술력/첨단기술	4.2
세계화/세계적으로 유명해짐	3.7
지속적인 성장/발전	2.6
개방적이다	2.6

(상위 10개만 제시)

#### 부정적 변화 이유(n=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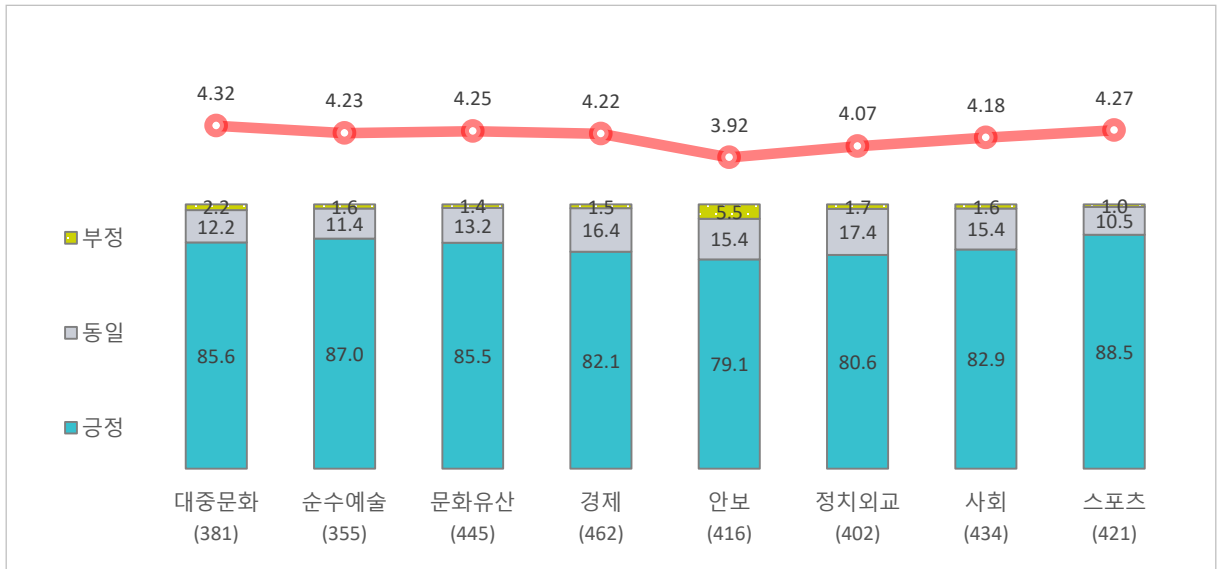
정부/정치적 문제	25.0
북한 문제	25.0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안보'에 대한 부정 응답이 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4-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여성은 '대중문화', 남성은 '정치외교', '사회'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스포츠'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40대의 경우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3-4-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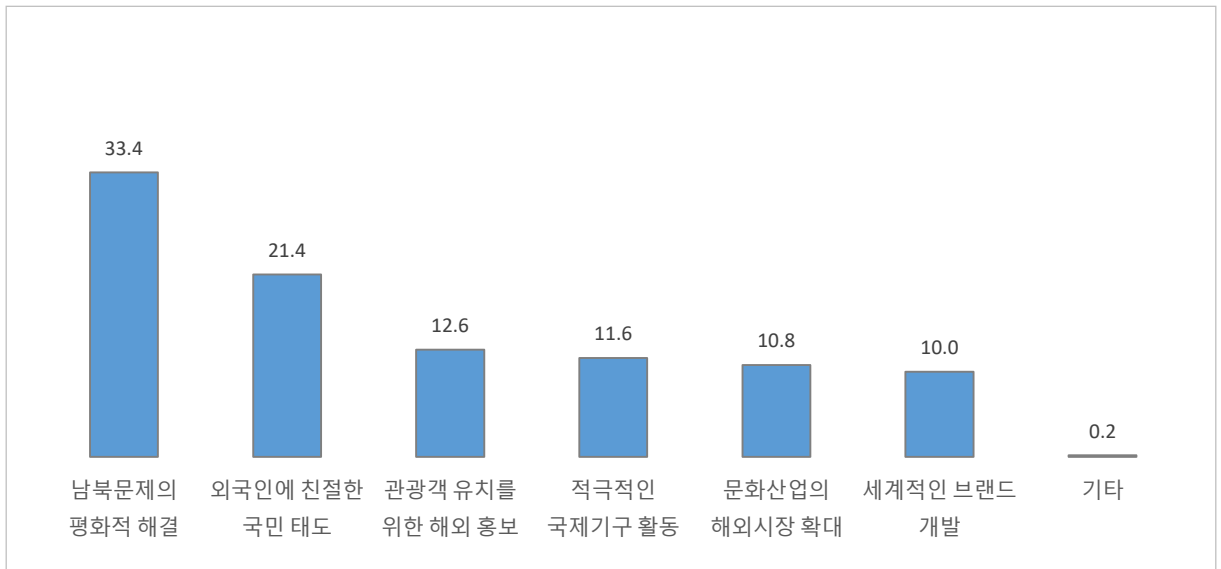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85.6	82.4	88.8	70.8	84.0	84.2	91.2	93.0
	평균	4.32	4.24	4.40	4.06	4.28	4.30	4.44	4.46
순수예술	긍정률	87.0	87.0	87.1	78.6	82.9	87.0	92.2	92.1
	평균	4.23	4.23	4.23	3.98	4.14	4.22	4.36	4.38
문화유산	긍정률	85.5	85.6	85.4	75.0	81.6	85.1	94.7	88.3
	평균	4.25	4.18	4.31	3.89	4.13	4.25	4.46	4.47
경제	긍정률	82.1	83.0	81.1	64.4	82.5	81.5	87.0	88.2
	평균	4.22	4.24	4.20	3.80	4.20	4.20	4.35	4.39
안보	긍정률	79.1	77.5	80.8	66.7	78.1	75.7	84.9	84.3
	평균	3.92	3.88	3.96	3.64	3.92	3.88	4.09	3.93
정치외교	긍정률	80.6	83.3	77.9	69.6	79.0	79.3	85.9	86.6
	평균	4.07	4.08	4.05	3.79	4.07	3.97	4.34	4.11
사회	긍정률	82.9	87.3	78.6	73.2	83.0	81.0	91.6	83.1
	평균	4.18	4.18	4.17	3.95	4.16	4.10	4.40	4.22
스포츠	긍정률	88.5	89.1	87.8	80.4	85.3	87.1	91.6	95.1
	평균	4.27	4.28	4.25	3.98	4.20	4.21	4.45	4.38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3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21.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2.6%),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11.6%) 순으로 나타남

그림3-4-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은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여성은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가장 많이 응답. 연령별로는 20대가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우선과제로 많이 응답함

표3-4-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5)	(119)	(114)	(102)	(100)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33.4	33.6	33.2	27.7	25.2	33.3	42.2	38.0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21.4	19.2	23.6	36.9	21.8	16.7	19.6	18.0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2.6	12.0	13.2	9.2	10.9	15.8	12.7	13.0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11.6	14.4	8.8	7.7	8.4	16.7	11.8	12.0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10.8	9.2	12.4	12.3	20.2	8.8	3.9	8.0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0.0	11.6	8.4	6.2	13.4	7.9	9.8	11.0
기타	0.2	0.0	0.4	0.0	0.0	0.9	0.0	0.0



# 05 인도



## 1 일반개요

위치	남아시아(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언어	힌디어, 영어, 21개 공용어
수도	뉴델리(New Delhi)	종교	힌두교, 회교, 기독교
인구	13억 1,689만 명	1인당 GDP	2,198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견조한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거시경제로 Next China 유력 대안국가로 부상
  - 2018년 인도의 명목 GDP는 2.97조 달러로 세계 6위
- 대외요인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및 일자리 창출 실패 우려
  - 인도 중앙은행은 국제유가 및 미국의 금리인상, 루피화 평가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이에 경기둔화 가능성이 제기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확대 합의, 경제교류 확대

-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한 문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개최된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 한-인도 간 3P 플러스 협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분야에서 제조업 협력 강화, 인프라 구축 협력강화, 미래 기술 협력확대, 교역기반 강화의 네 가지 액션플랜 제시

###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진출 활성화와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인도 정부는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국의 협력을 강조
- 모디 총리는 한국기업들의 인도진출을 적극 지원 약속
- 기존 자동차, 전기전자 외에도 의료바이오, ICT 등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고도화되면서 보다 많은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인도진출이 가속화 전망

### 한-인도 CEPA 개정협상 진행

- 한국과 인도는 2009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를 체결
- 2010년 발효된 이래 양국간 교역 및 경제교류 확대에 큰 역할
- 양허수준이 낮아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아 양국은 CEPA 개정 협상 진행
- 2019년 6월까지 8차 개선협상이 진행된 상황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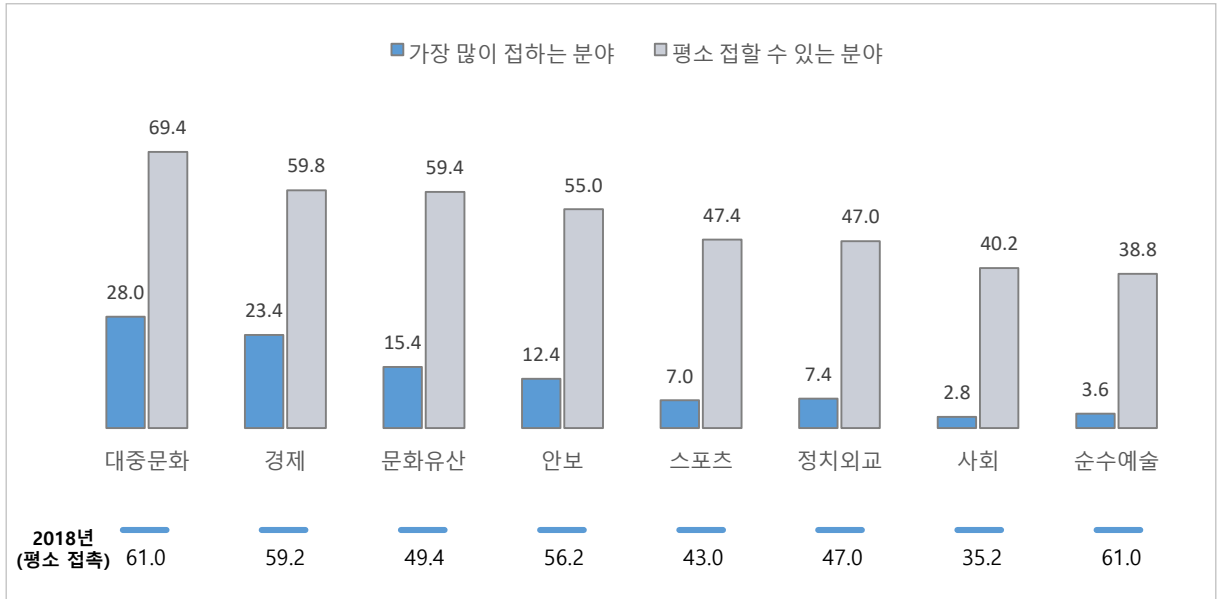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69.4%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모든 분야의 접촉이 증가하였음

그림3-5-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와 '문화유산'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접촉 비중이 높았고, 그 외 분야는 남성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3-5-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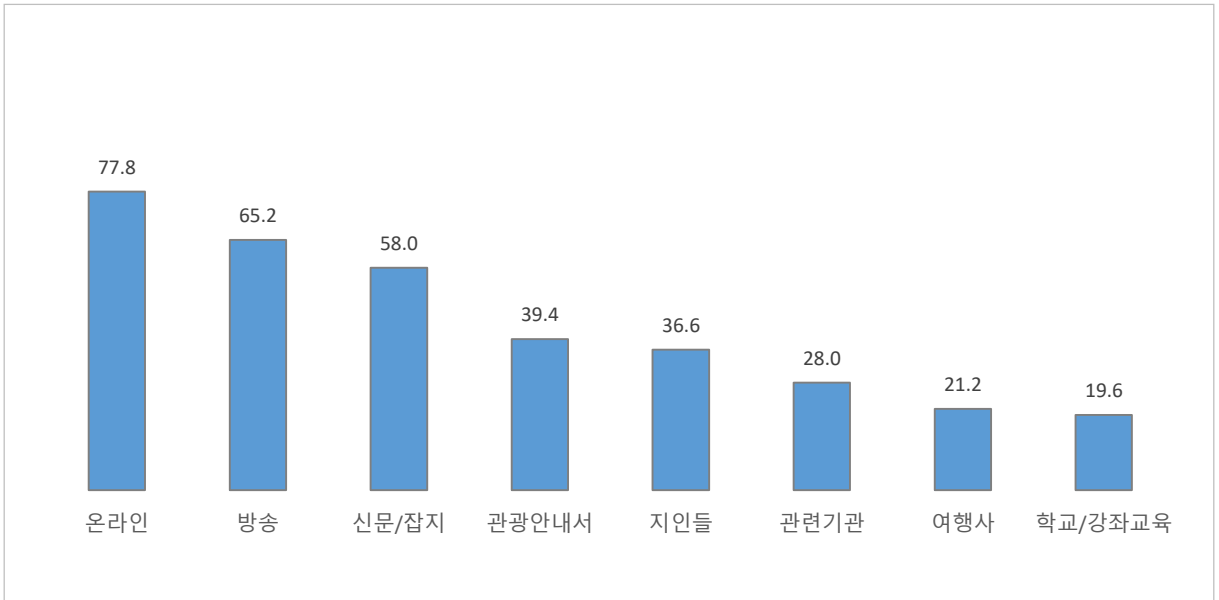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9)	(132)	(116)	(91)	(92)
대중문화	69.4	66.8	72.0	69.6	81.8	78.4	60.4	48.9
경제	59.8	62.4	57.2	34.8	61.4	63.8	67.0	64.1
문화유산	59.4	54.4	64.4	42.0	61.4	67.2	64.8	54.3
안보	55.0	62.8	47.2	47.8	53.8	56.9	53.8	60.9
스포츠	47.4	48.0	46.8	31.9	43.2	48.3	57.1	54.3
정치외교	47.0	52.0	42.0	31.9	50.0	50.9	54.9	41.3
사회	40.2	42.0	38.4	29.0	51.5	51.7	41.8	16.3
순수예술	38.8	38.8	38.8	21.7	47.0	50.0	42.9	21.7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 > '방송'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5-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여성은 남성보다 '지인들'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많이 접착함  
연령별로는 '신문/잡지'의 접착 경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접착 경험 또한 많아짐

표3-5-2. 한국 관련 정보 접착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9)	(132)	(116)	(91)	(92)
온라인	77.8	80.4	75.2	79.7	87.9	80.2	70.3	66.3
방송	65.2	67.6	62.8	58.0	69.7	69.8	60.4	63.0
신문/잡지	58.0	59.2	56.8	43.5	55.3	56.9	63.7	68.5
관광안내서	39.4	39.6	39.2	15.9	39.4	49.1	48.4	35.9
지인들	36.6	29.6	43.6	34.8	34.8	37.9	40.7	34.8
관련기관	28.0	25.2	30.8	11.6	31.8	33.6	38.5	17.4
여행사	21.2	21.6	20.8	7.2	18.9	24.1	31.9	20.7
학교/강좌교육	19.6	20.8	18.4	20.3	25.0	16.4	19.8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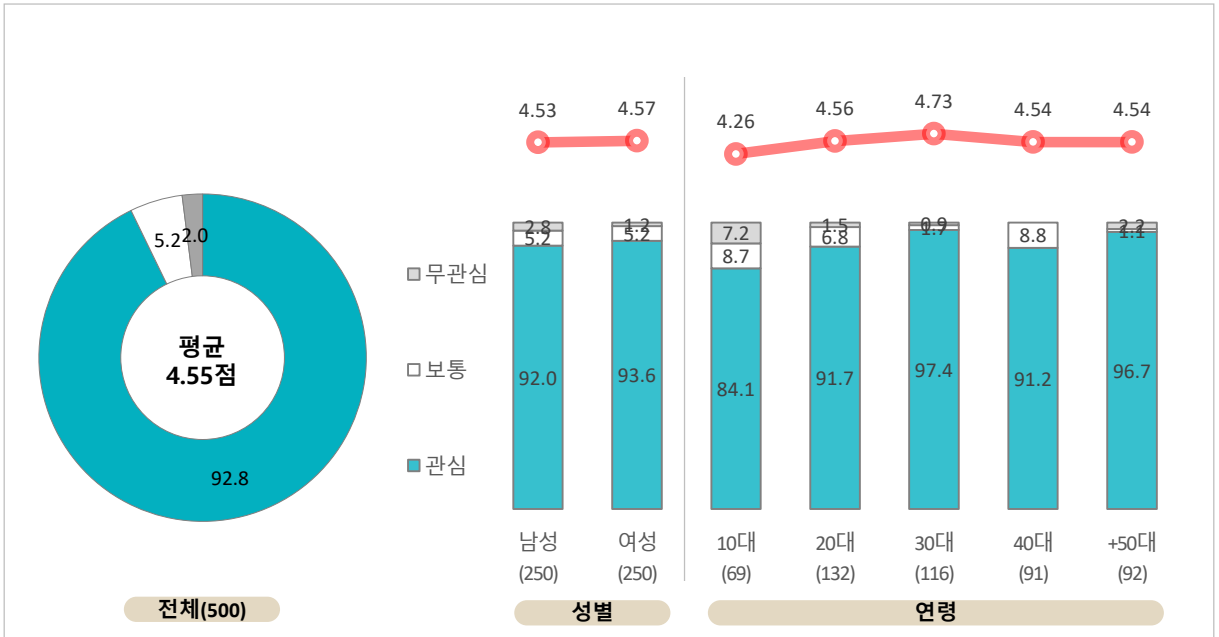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92.8%, '관심 없다'가 2.0%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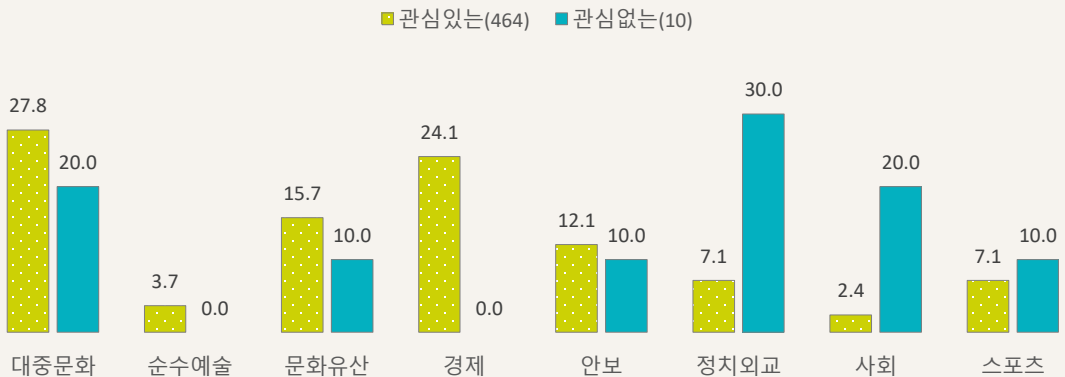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관심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이상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1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5-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인도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경제', '문화유산', '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인도인들은 '정치외교'와 '대중문화', '사회'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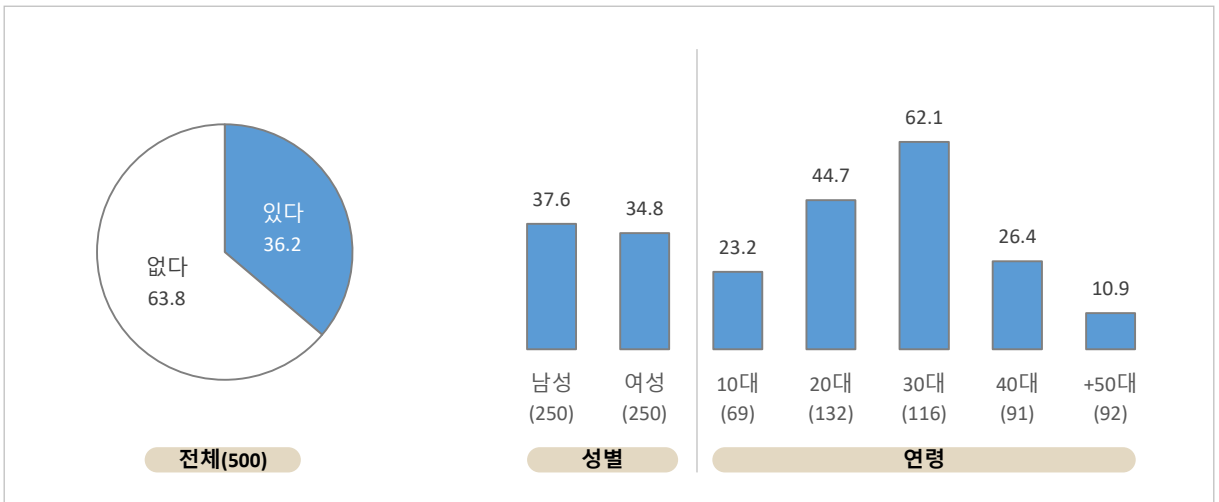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6.2%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93.9%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고, 연령별로는 30대의 방문 경험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의 방문 경험이 가장 낮음

그림3-5-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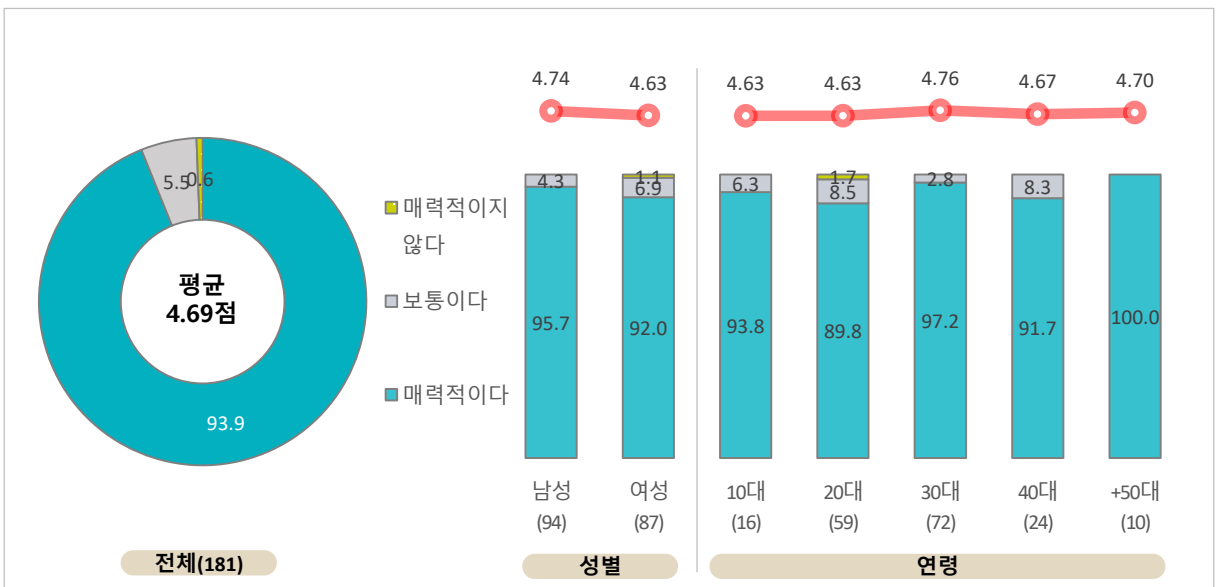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0대 이상은 모두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함

그림3-5-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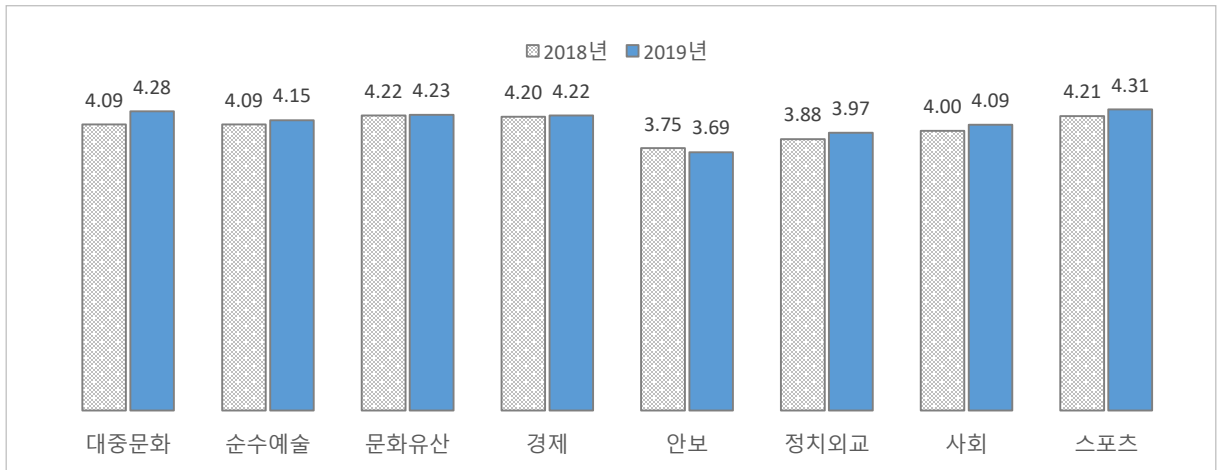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모든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전년 대비 대부분의 분야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안보'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3-5-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호감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3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3-5-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9)	(132)	(116)	(91)	(92)
대중문화	긍정률	85.8	85.8	85.9	73.4	87.2	91.4	87.2	84.9
	평균	4.28	4.26	4.30	4.11	4.30	4.40	4.27	4.23
순수예술	긍정률	84.5	85.9	83.0	73.3	85.6	88.5	85.9	83.6
	평균	4.15	4.17	4.13	3.91	4.15	4.28	4.21	4.07
문화유산	긍정률	86.8	86.6	87.0	74.6	84.6	89.8	90.5	92.2
	평균	4.23	4.24	4.22	3.95	4.24	4.30	4.30	4.27
경제	긍정률	88.1	89.7	86.5	77.8	82.8	91.9	92.1	93.0
	평균	4.22	4.26	4.18	3.93	4.14	4.39	4.22	4.30
안보	긍정률	63.5	64.2	62.7	51.6	58.3	70.8	66.2	68.4
	평균	3.69	3.73	3.66	3.39	3.62	3.80	3.79	3.82
정치외교	긍정률	79.9	79.9	79.8	64.3	76.6	85.7	78.6	89.7
	평균	3.97	3.98	3.97	3.61	3.92	4.13	3.96	4.14
사회	긍정률	85.3	85.2	85.3	75.4	79.5	93.9	86.4	89.6
	평균	4.09	4.10	4.07	3.84	4.08	4.19	4.09	4.16
스포츠	긍정률	89.3	88.8	89.9	78.7	85.3	94.6	92.3	93.8
	평균	4.31	4.29	4.32	4.03	4.18	4.44	4.41	4.43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89.2%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2.2%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 '문화/전통'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무례하다', '공격적임/무서움'이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문재인' > 'BTS' > '송혜교' > '싸이' 순으로 나타남

그림3-5-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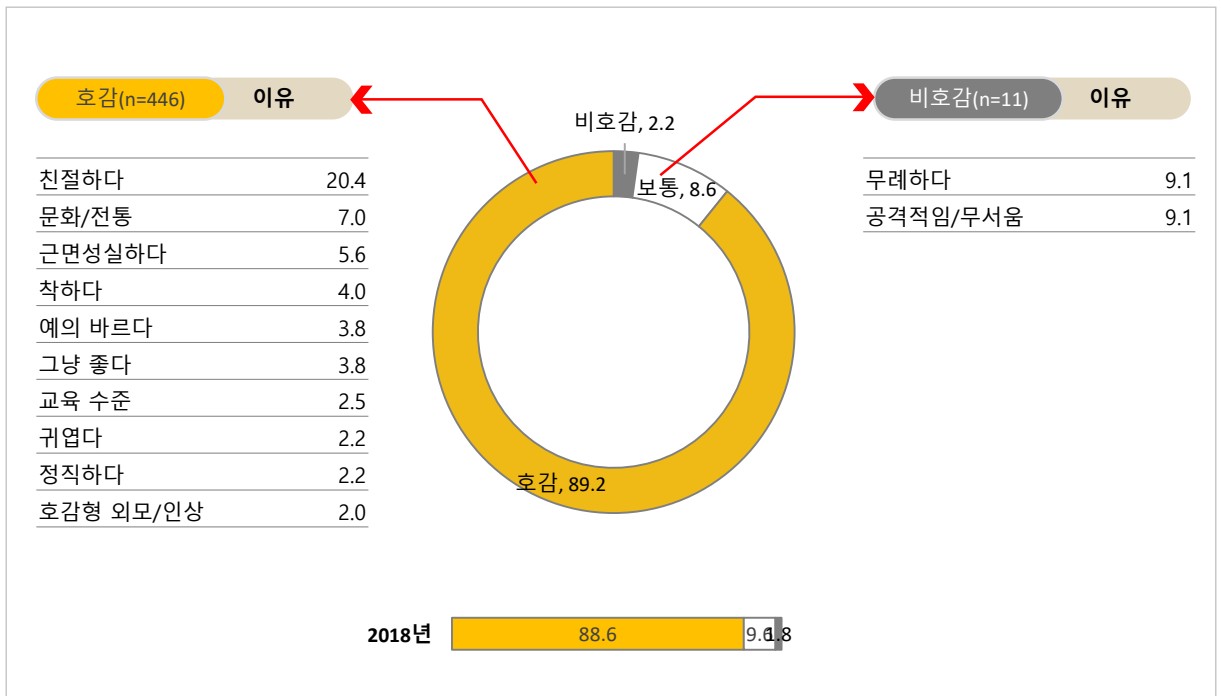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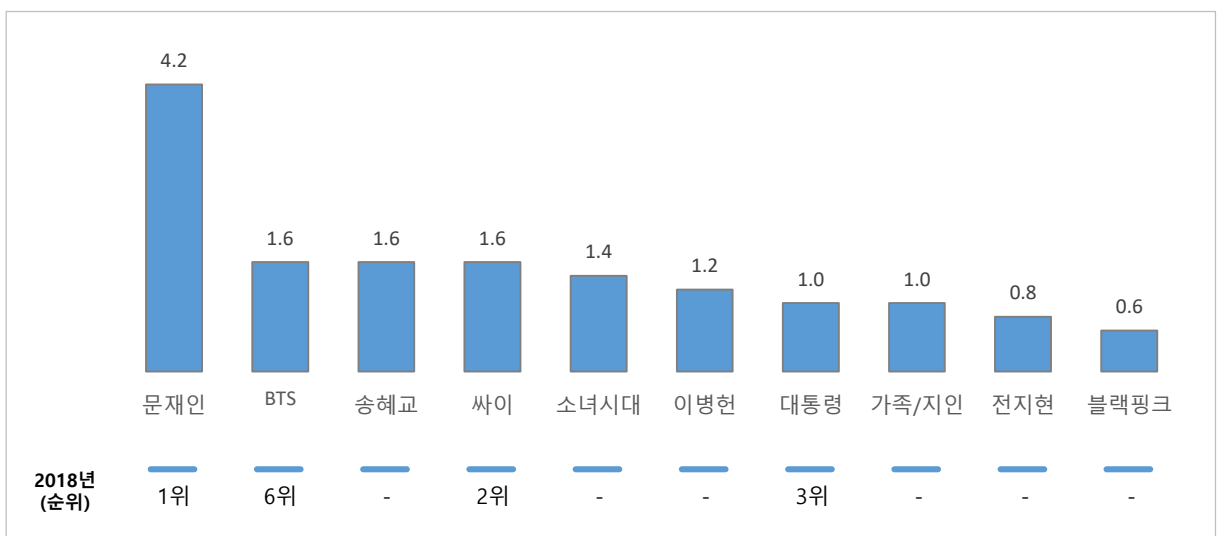


그림3-5-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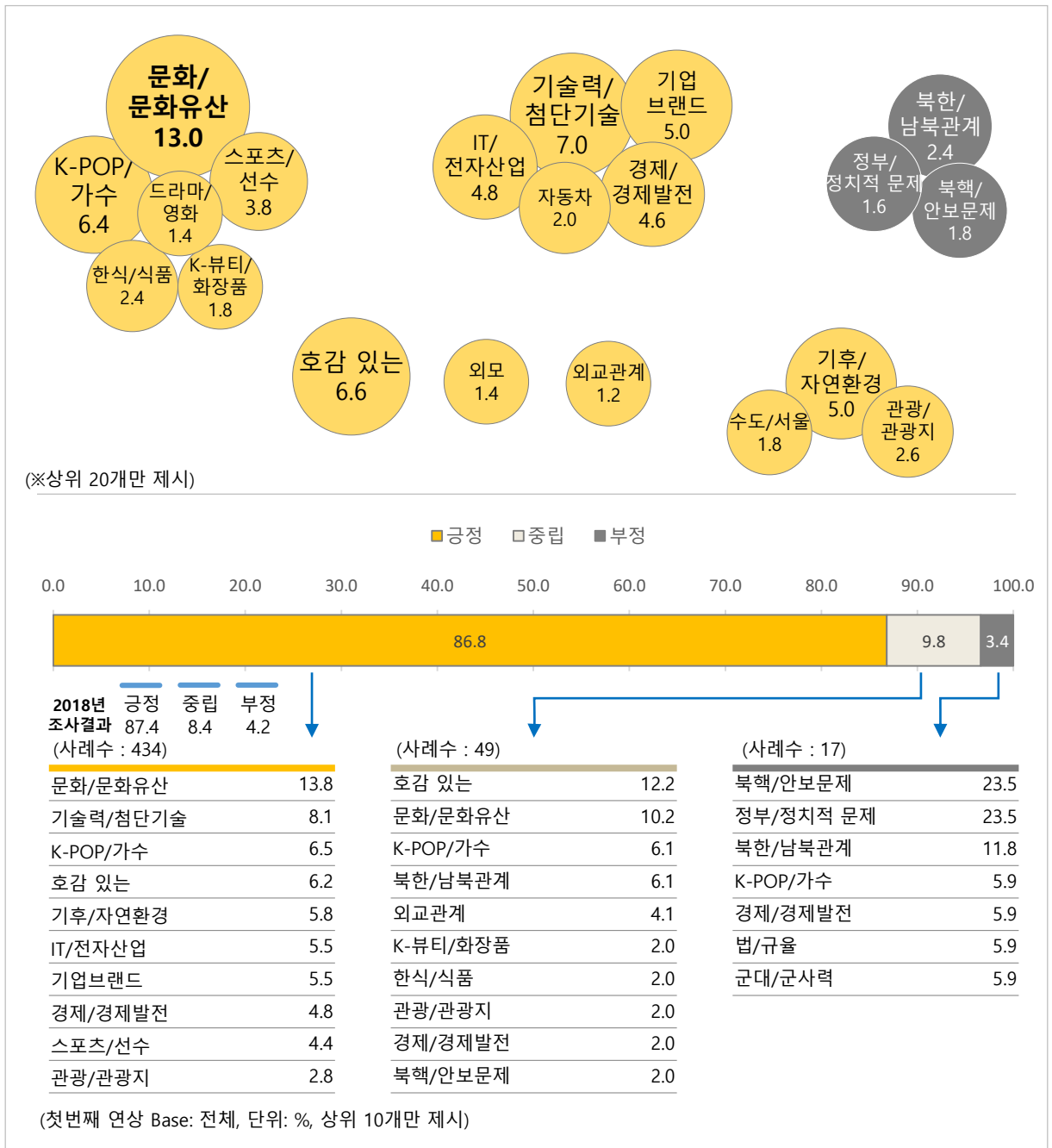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 인도인들은 '한국'하면 '문화/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86.8%, 부정 3.4%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문화/문화유산'이,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핵/안보문제'와 '정부/정치적 문제'가 가장 많았음

그림3-5-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91.8%, 5점 만점 4.49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문화유산', '북핵문제'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한국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0대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3-5-10.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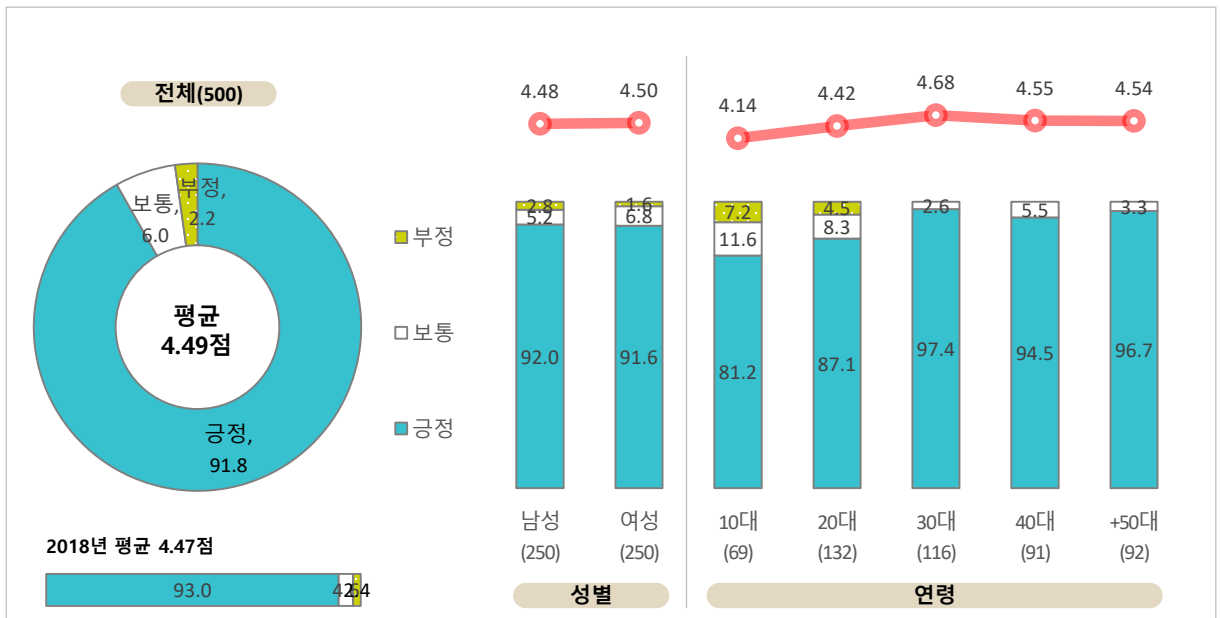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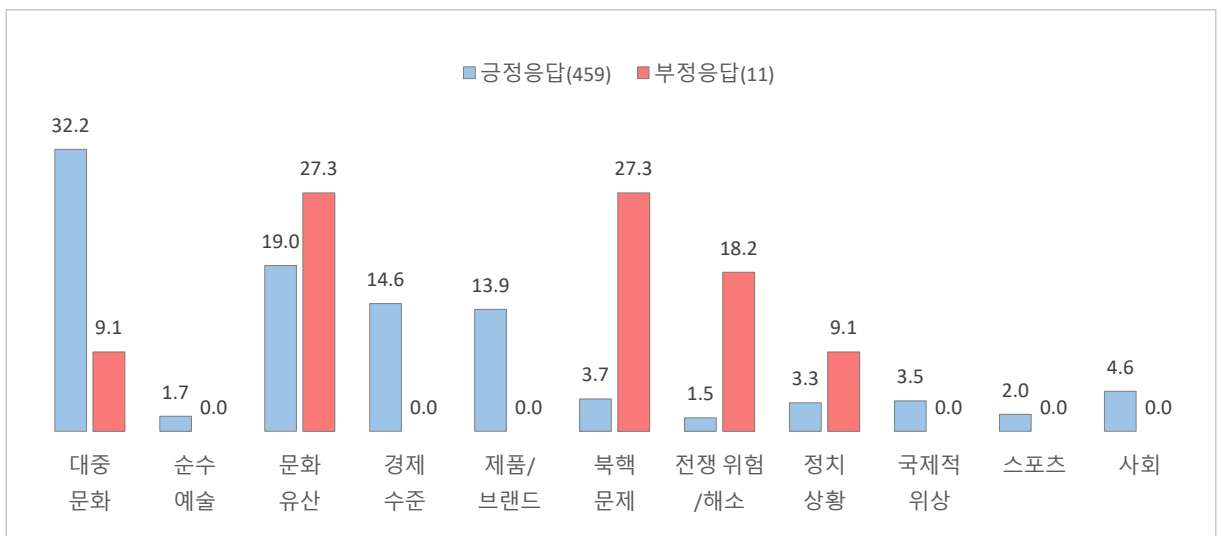


그림3-5-11. 이미지 영향요인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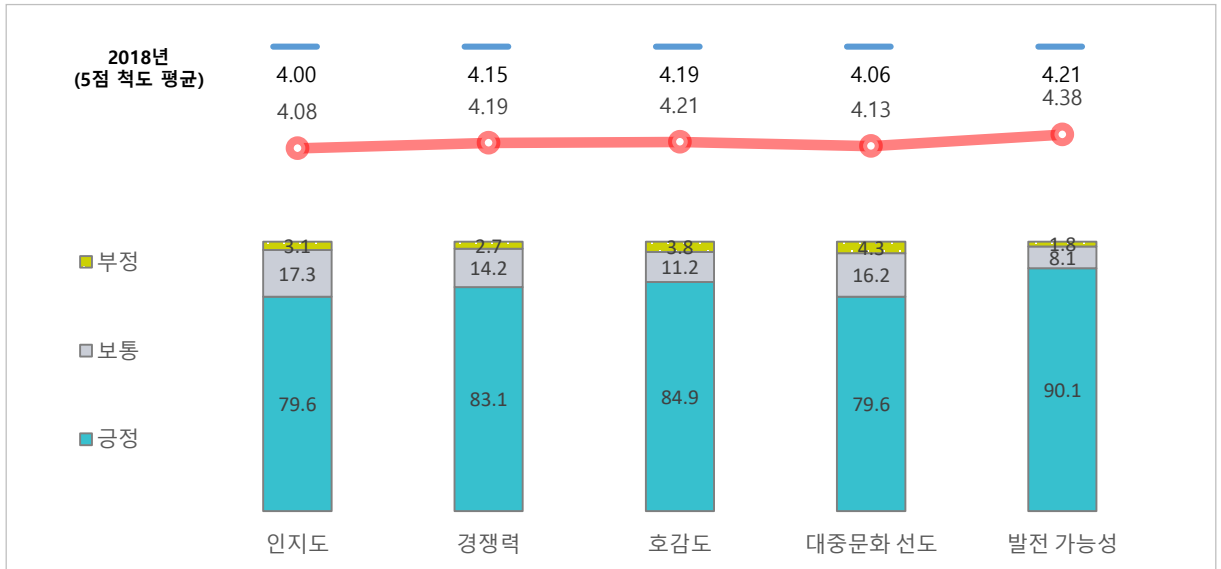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 80% 이상, 부정 평가 5% 미만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발전 가능성'의 긍정 평가는 90.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전년 대비 모든 항목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남

그림3-5-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은 '경쟁력', 남성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았음

표3-5-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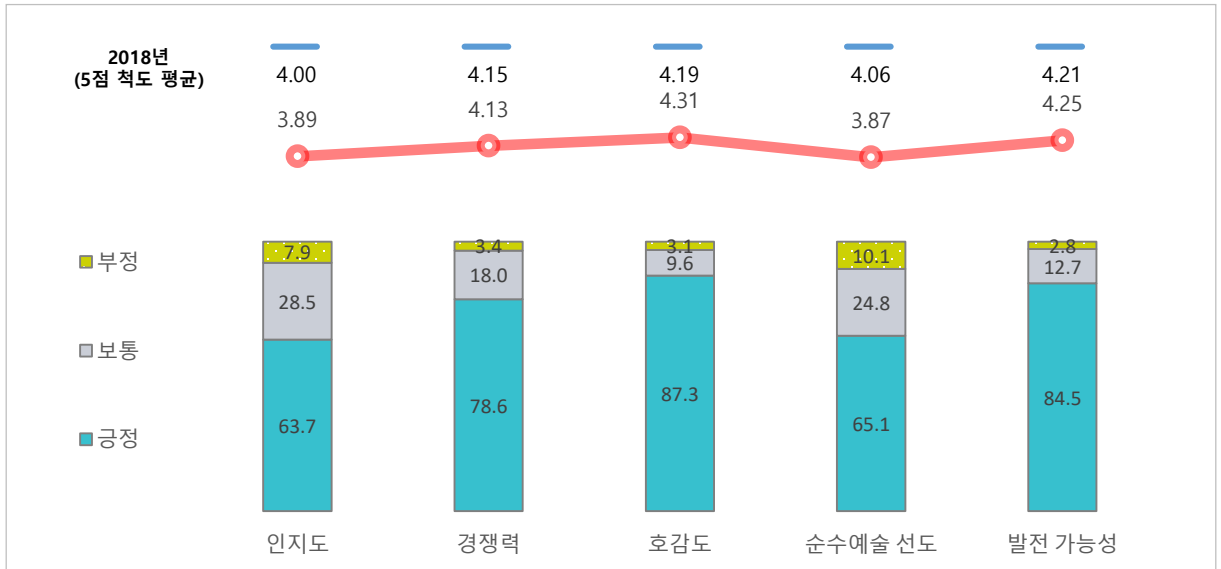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45)	(225)	(220)	(64)	(125)	(105)	(78)	(73)
인지도	긍정률	79.6	80.0	79.1	65.6	76.8	88.6	83.3	79.5
	평균	4.08	4.08	4.08	3.78	4.02	4.29	4.15	4.05
경쟁력	긍정률	83.1	81.3	85.0	76.6	76.8	90.5	85.9	86.3
	평균	4.19	4.18	4.21	4.03	4.10	4.34	4.26	4.22
호감도	긍정률	84.9	84.4	85.5	71.9	79.2	91.4	91.0	90.4
	평균	4.21	4.19	4.24	3.86	4.10	4.44	4.27	4.33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79.6	79.6	79.5	59.4	74.4	86.7	87.2	87.7
	평균	4.13	4.12	4.14	3.69	4.06	4.30	4.26	4.25
발전 가능성	긍정률	90.1	91.6	88.6	79.7	87.2	96.2	91.0	94.5
	평균	4.38	4.42	4.34	4.13	4.33	4.54	4.45	4.40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순수예술 선도' 항목은 긍정이 65.1%로 높았지만 부정 응답도 10.1%로 다른 속성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3-5-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은 '경쟁력', 여성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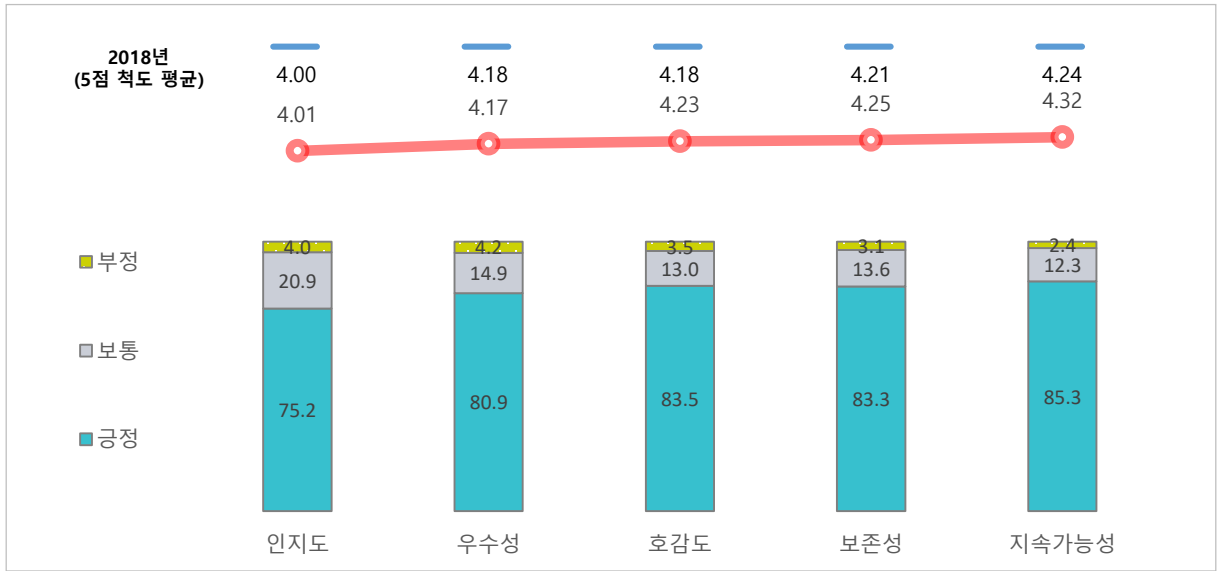
표3-5-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55)	(184)	(171)	(45)	(97)	(87)	(71)	(55)
인지도	긍정률	63.7	63.6	63.7	37.8	69.1	69.0	70.4	58.2
	평균	3.89	3.91	3.88	3.29	4.02	4.06	4.06	3.69
경쟁력	긍정률	78.6	80.4	76.6	71.1	79.4	79.3	78.9	81.8
	평균	4.13	4.17	4.09	3.91	4.12	4.17	4.21	4.16
호감도	긍정률	87.3	88.6	86.0	66.7	86.6	92.0	90.1	94.5
	평균	4.31	4.36	4.26	3.89	4.28	4.46	4.41	4.36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65.1	65.2	64.9	48.9	66.0	71.3	69.0	61.8
	평균	3.87	3.92	3.82	3.58	3.86	3.98	4.03	3.78
발전 가능성	긍정률	84.5	82.1	87.1	64.4	81.4	94.3	90.1	83.6
	평균	4.25	4.24	4.26	3.82	4.20	4.43	4.37	4.25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한국 문화유산 '인지도'는 긍정 응답이 75.2%로, 타 속성에 비해 긍정 응답이 다소 낮게 나타남

그림3-5-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인지도'와 '호감도'는 남성이, '우수성', '보존성', '지속가능성'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10대의 긍정 인식이 낮고, 30대의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3-5-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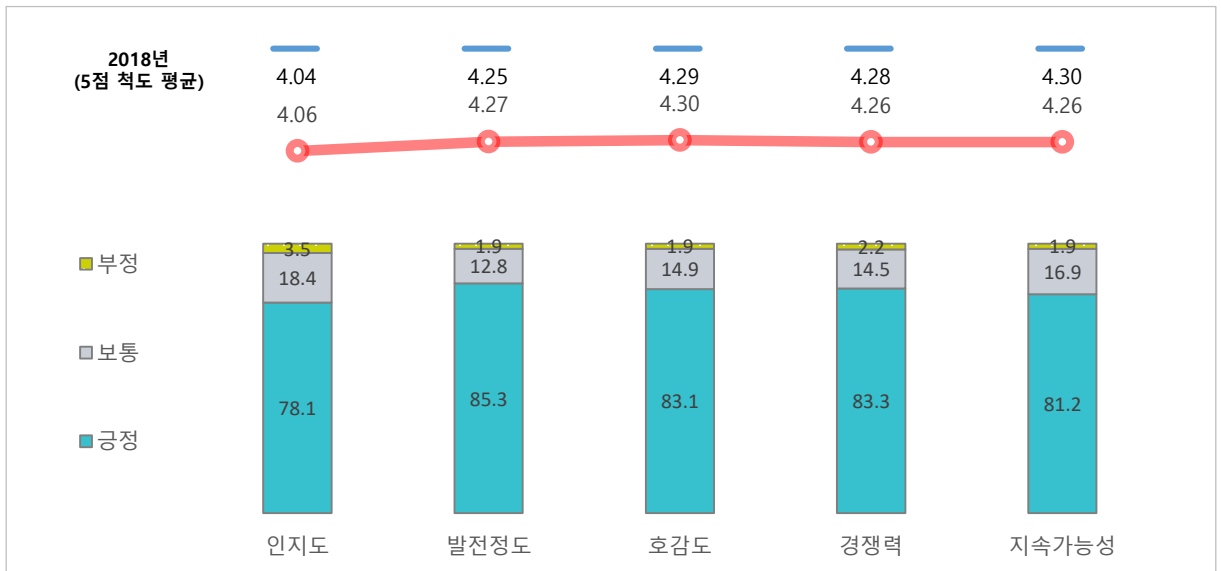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55)	(224)	(231)	(63)	(123)	(108)	(84)	(77)
인지도	긍정률	75.2	78.1	72.3	49.2	74.8	88.9	81.0	71.4
	평균	4.01	4.07	3.96	3.48	3.97	4.31	4.15	3.95
우수성	긍정률	80.9	80.4	81.4	71.4	77.2	88.9	79.8	84.4
	평균	4.17	4.17	4.18	3.81	4.15	4.39	4.18	4.19
호감도	긍정률	83.5	85.3	81.8	73.0	79.7	88.9	84.5	89.6
	평균	4.23	4.30	4.16	3.97	4.17	4.41	4.29	4.22
보존성	긍정률	83.3	81.7	84.8	58.7	81.3	93.5	86.9	88.3
	평균	4.25	4.23	4.28	3.73	4.24	4.46	4.36	4.31
지속가능성	긍정률	85.3	83.9	86.6	68.3	83.7	92.6	86.9	89.6
	평균	4.32	4.33	4.30	3.94	4.32	4.47	4.40	4.32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80% 내외, 부정 평가가 5% 미만으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발전정도'는 긍정 85.3%, 부정 1.9%로 가장 높았고, '경쟁력' 역시 긍정 83.3%, 부정 2.2%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5-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나,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이상이 가장 높고, 10대의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3-5-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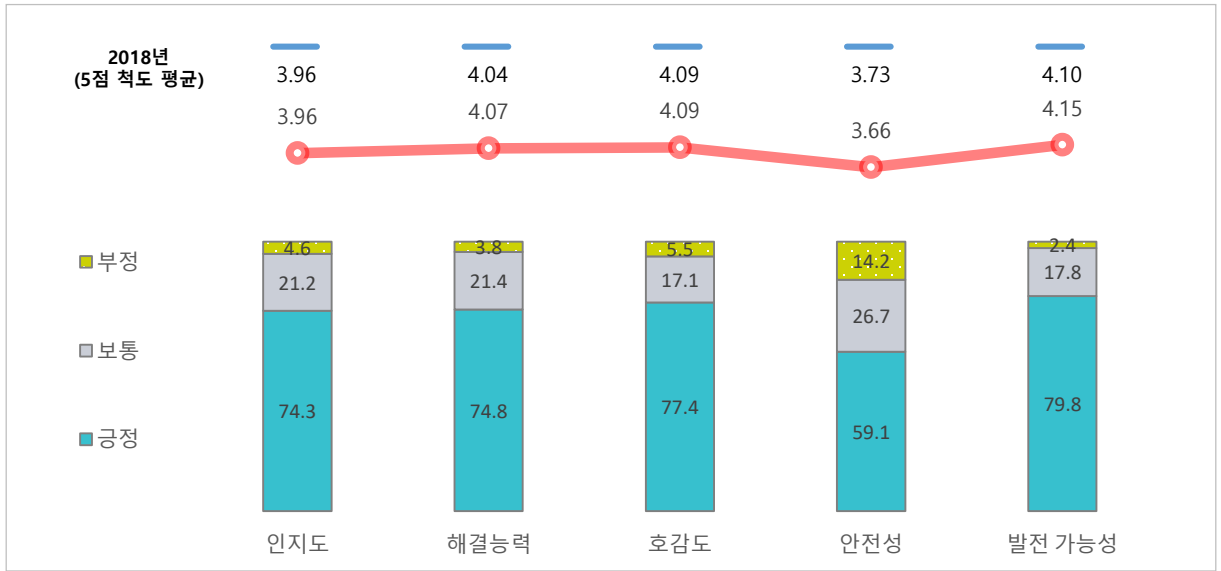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62)	(233)	(229)	(54)	(122)	(111)	(89)	(86)
인지도	긍정률	78.1	80.7	75.5	61.1	74.6	82.9	80.9	84.9
	평균	4.06	4.10	4.01	3.69	3.98	4.27	4.13	4.03
발전정도	긍정률	85.3	88.0	82.5	75.9	80.3	91.0	86.5	89.5
	평균	4.27	4.31	4.23	4.04	4.20	4.44	4.31	4.24
호감도	긍정률	83.1	84.5	81.7	74.1	76.2	89.2	87.6	86.0
	평균	4.30	4.30	4.30	4.02	4.26	4.43	4.35	4.31
경쟁력	긍정률	83.3	82.0	84.7	70.4	77.0	82.0	91.0	94.2
	평균	4.26	4.23	4.29	4.04	4.11	4.33	4.39	4.37
지속가능성	긍정률	81.2	81.1	81.2	74.1	70.5	82.9	87.6	91.9
	평균	4.26	4.27	4.24	4.00	4.09	4.43	4.35	4.34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대부분의 속성의 긍정평가가 7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9.1%로 낮게 나타났음
- 전년도와 비교해 '해결능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으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낮아져 여전히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5-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호감도'에 대한 평가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연령별로는 10대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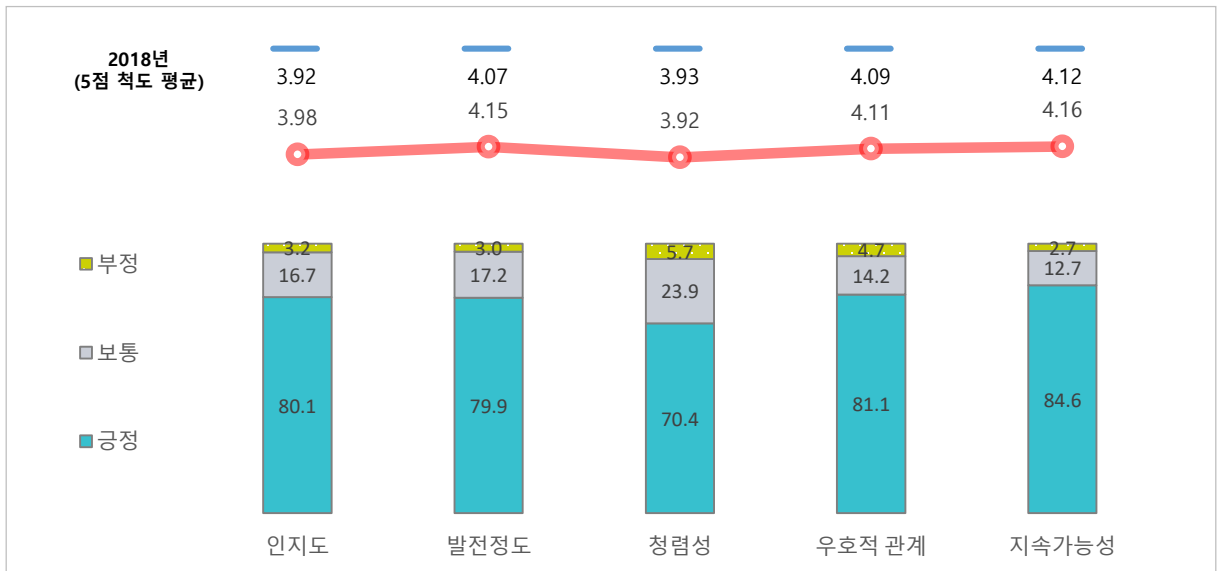
표3-5-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6)	(212)	(204)	(62)	(108)	(96)	(71)	(79)
인지도	긍정률	74.3	78.3	70.1	58.1	69.4	80.2	83.1	78.5
	평균	3.96	4.03	3.90	3.61	3.94	4.18	4.11	3.89
해결능력	긍정률	74.8	74.5	75.0	61.3	71.3	83.3	76.1	78.5
	평균	4.07	4.06	4.09	3.81	4.06	4.28	4.14	4.00
호감도	긍정률	77.4	80.7	74.0	58.1	74.1	86.5	77.5	86.1
	평균	4.09	4.14	4.04	3.73	4.03	4.33	4.17	4.10
안전성	긍정률	59.1	58.0	60.3	35.5	61.1	71.9	66.2	53.2
	평균	3.66	3.65	3.66	3.29	3.62	3.91	3.77	3.58
발전 가능성	긍정률	79.8	81.1	78.4	64.5	81.5	84.4	81.7	82.3
	평균	4.15	4.19	4.11	3.82	4.19	4.30	4.25	4.08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인지도', '우호적 관계', '지속가능성'은 8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았으나, '청렴성'에 대해서는 긍정 70.4%, 부정 5.7%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전년 대비 '정치외교'에 대한 대부분의 속성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으나, '청렴성'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3-5-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모든 항목에 대해 여성보다 긍정 인식이 더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대 이상의 평가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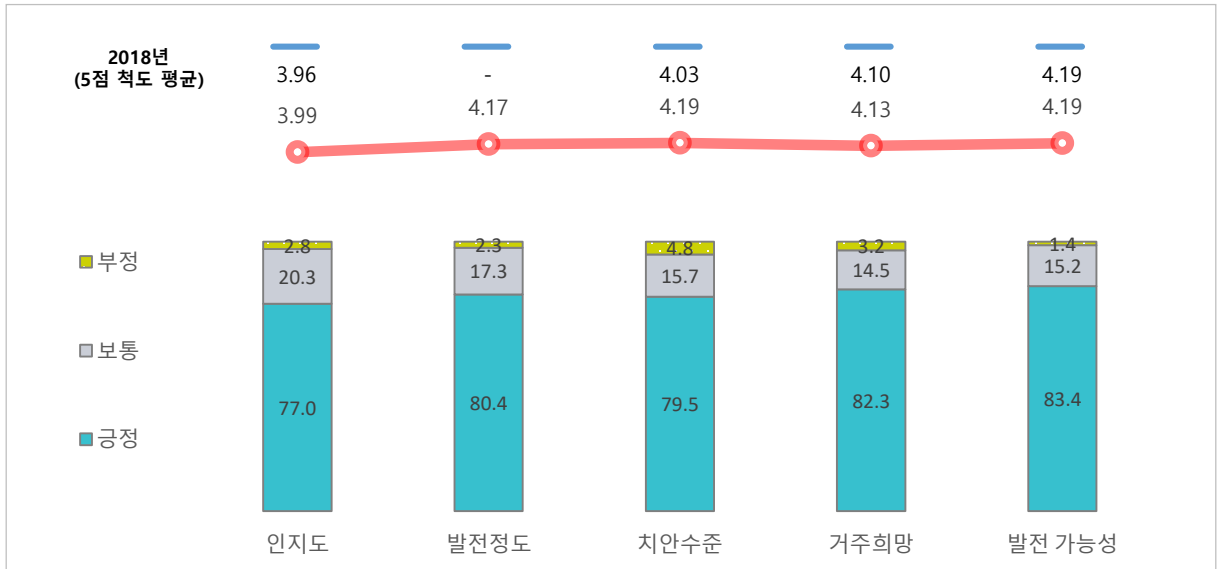
표3-5-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2)	(199)	(203)	(56)	(107)	(91)	(70)	(78)
인지도	긍정률	80.1	81.9	78.3	64.3	80.4	84.6	81.4	84.6
	평균	3.98	4.04	3.93	3.61	3.97	4.14	4.03	4.04
발전정도	긍정률	79.9	81.4	78.3	69.6	80.4	86.8	78.6	79.5
	평균	4.15	4.21	4.09	3.73	4.13	4.42	4.16	4.15
청렴성	긍정률	70.4	73.4	67.5	48.2	68.2	78.0	78.6	73.1
	평균	3.92	3.94	3.89	3.38	3.90	4.11	4.09	3.95
우호적 관계	긍정률	81.1	81.4	80.8	60.7	76.6	89.0	88.6	85.9
	평균	4.11	4.14	4.08	3.54	4.11	4.29	4.29	4.14
지속가능성	긍정률	84.6	86.4	82.8	73.2	82.2	91.2	87.1	85.9
	평균	4.16	4.24	4.09	3.79	4.16	4.35	4.26	4.13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80% 내외의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세부 속성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평가 83.4%, 부정 평가 1.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 '거주희망'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82.3%, 부정 평가 3.2%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3-5-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은 '발전정도', 여성은 '치안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음

표3-5-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34)	(216)	(218)	(61)	(117)	(98)	(81)	(77)
인지도	긍정률	77.0	77.8	76.1	67.2	76.1	84.7	82.7	70.1
	평균	3.99	4.01	3.97	3.77	3.97	4.19	4.12	3.79
발전정도	긍정률	80.4	82.4	78.4	68.9	76.1	90.8	80.2	83.1
	평균	4.17	4.19	4.14	3.79	4.16	4.44	4.15	4.16
치안수준	긍정률	79.5	77.8	81.2	68.9	74.4	87.8	81.5	83.1
	평균	4.19	4.14	4.24	3.80	4.16	4.40	4.25	4.22
거주희망	긍정률	82.3	81.0	83.5	75.4	78.6	91.8	84.0	79.2
	평균	4.13	4.09	4.17	3.92	4.05	4.31	4.19	4.12
발전 가능성	긍정률	83.4	84.7	82.1	73.8	78.6	93.9	90.1	77.9
	평균	4.19	4.21	4.17	3.89	4.14	4.41	4.31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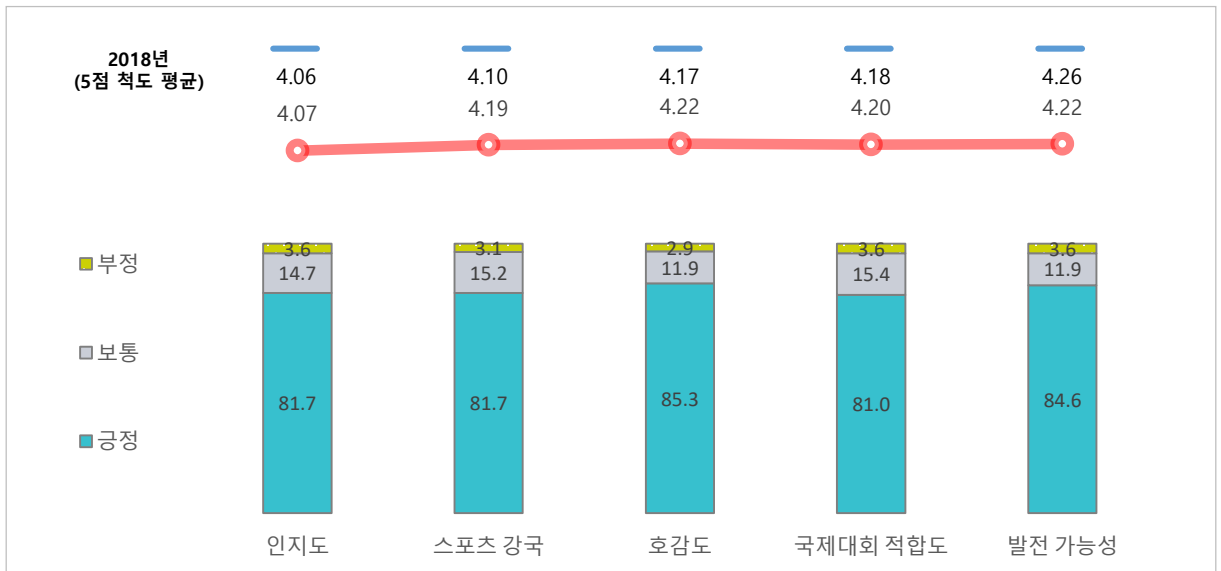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 긍정 80%이상으로 나타남
- 그 중 가장 높은 평가는 '호감도'로 긍정 85.3%, 부정 2.9%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이 긍정 84.6%, 부정 3.6%로 나타남

그림3-5-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발전 가능성'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평가가 높았으며, 1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3-5-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1)	(214)	(207)	(61)	(109)	(93)	(78)	(80)
인지도	긍정률	81.7	83.2	80.2	59.0	79.8	90.3	91.0	82.5
	평균	4.07	4.10	4.04	3.64	4.01	4.26	4.24	4.09
스포츠강국	긍정률	81.7	82.2	81.2	60.7	75.2	93.5	88.5	86.3
	평균	4.19	4.24	4.14	3.69	4.06	4.53	4.29	4.26
호감도	긍정률	85.3	86.0	84.5	70.5	79.8	92.5	92.3	88.8
	평균	4.22	4.26	4.18	3.84	4.15	4.48	4.36	4.19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81.0	80.4	81.6	68.9	78.9	81.7	84.6	88.8
	평균	4.20	4.25	4.16	3.90	4.09	4.35	4.29	4.33
발전 가능성	긍정률	84.6	83.2	86.0	68.9	82.6	87.1	89.7	91.3
	평균	4.22	4.24	4.19	3.85	4.16	4.32	4.33	4.35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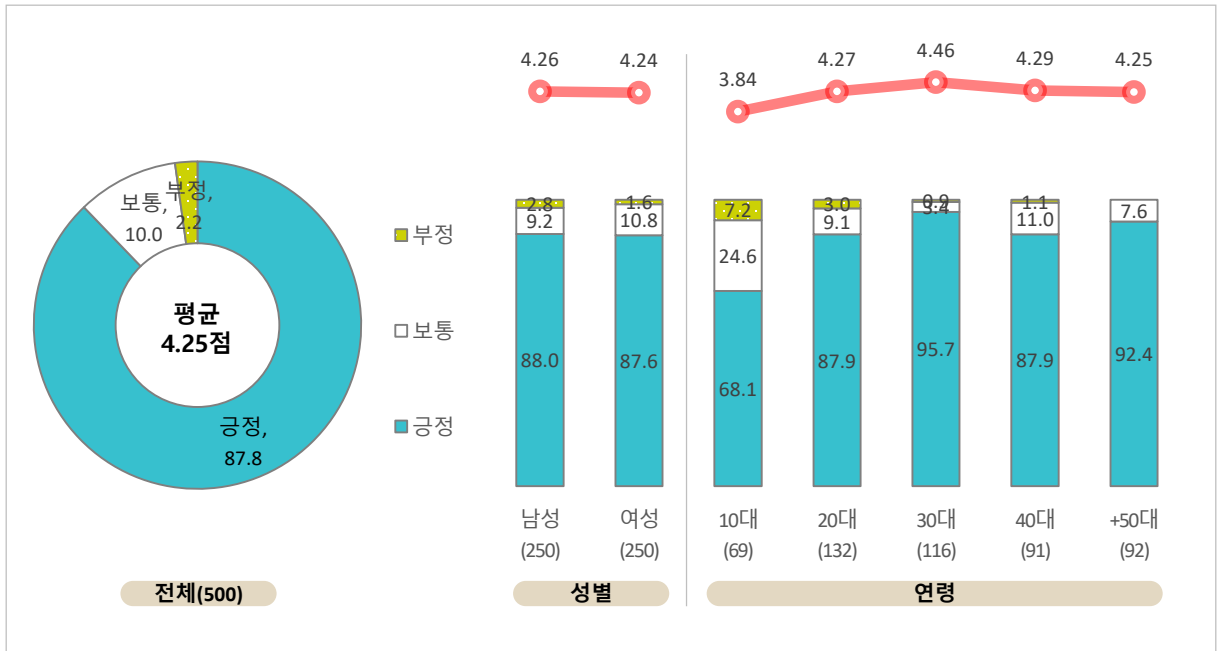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87.8%, 부정 2.2%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문화/전통',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 '전쟁/핵 위험'을 많이 응답함

**응답자 특성별** 남성과 여성의 긍정 인식은 비슷한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이상이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3-5-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긍정적 변화 이유(n=439)	
문화/전통	8.0
기술력/첨단기술	7.7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7.1
경제/경제발전	5.9
외교관계	4.1
정치/대통령	3.4
호감/호의적임	3.2
북한/남북관계	2.5
한국산 제품이 좋음	2.5
지속적인 성장/발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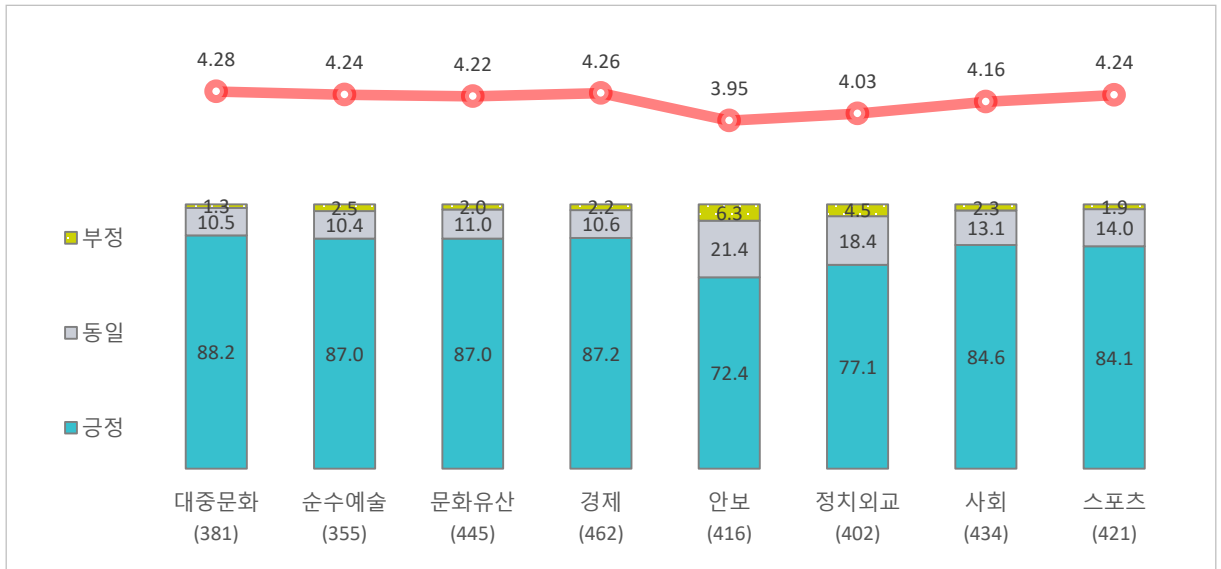
부정적 변화 이유(n=7)	
정부/정치적 문제	42.9
전쟁/핵 위험	42.9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대중문화', '순수예술', '문화유산', '경제'는 긍정 85%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보', '정치외교'는 긍정이 8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5-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순수예술'은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30대,40대는 '대중문화', 20대는 '순수예술', 50대 이상은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음

표3-5-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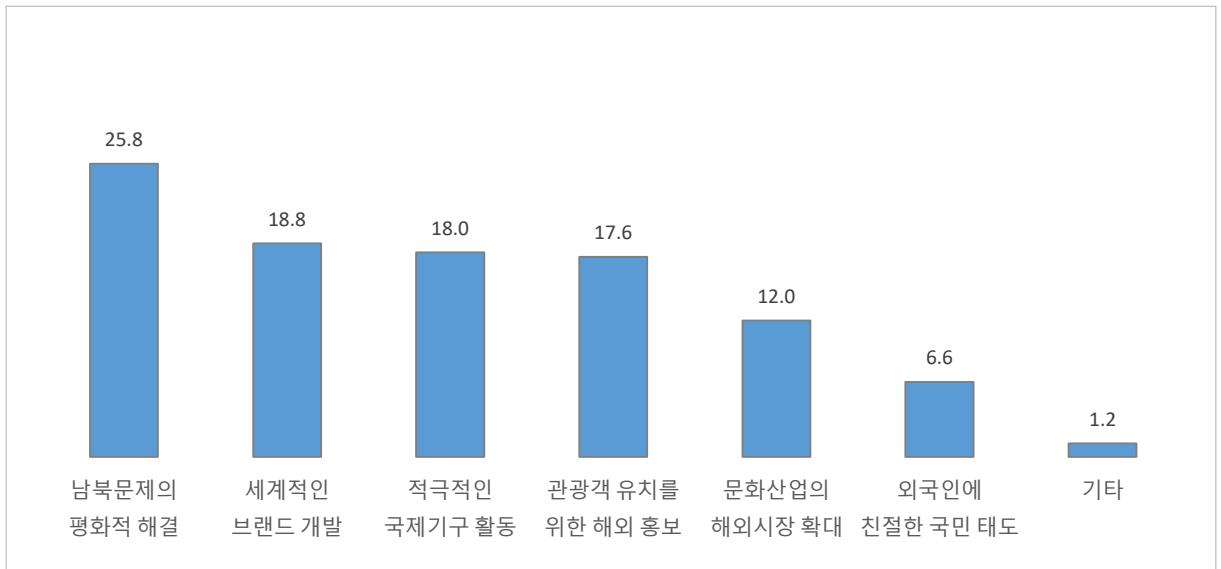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88.2	87.2	89.2	78.8	83.3	93.5	95.5	89.3
	평균	4.28	4.25	4.31	4.12	4.25	4.39	4.36	4.20
순수예술	긍정률	87.0	89.1	84.8	66.7	88.7	93.1	88.7	89.1
	평균	4.24	4.28	4.20	3.84	4.32	4.38	4.27	4.18
문화유산	긍정률	87.0	87.9	86.1	65.1	87.0	97.2	90.5	87.0
	평균	4.22	4.25	4.20	3.76	4.23	4.43	4.33	4.19
경제	긍정률	87.2	86.7	87.8	74.1	83.6	93.7	86.5	93.0
	평균	4.26	4.27	4.25	3.85	4.23	4.48	4.29	4.24
안보	긍정률	72.4	70.3	74.5	50.0	72.2	86.5	66.2	78.5
	평균	3.95	3.96	3.94	3.42	3.93	4.34	3.89	3.96
정치외교	긍정률	77.1	74.9	79.3	55.4	75.7	82.4	81.4	84.6
	평균	4.03	4.02	4.04	3.50	4.04	4.20	4.14	4.10
사회	긍정률	84.6	85.6	83.5	68.9	79.5	91.8	88.9	90.9
	평균	4.16	4.19	4.14	3.80	4.08	4.41	4.26	4.17
스포츠	긍정률	84.1	84.1	84.1	62.3	83.5	93.5	88.5	86.3
	평균	4.24	4.26	4.22	3.77	4.21	4.49	4.41	4.16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2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8.8%),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18.0%),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7.6%) 순으로 나타남

그림3-5-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은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응답 비중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을 우선과제로 많이 응답함

표3-5-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9)	(132)	(116)	(91)	(92)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25.8	28.0	23.6	33.3	24.2	18.1	20.9	37.0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8.8	20.4	17.2	15.9	19.7	23.3	24.2	8.7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18.0	17.6	18.4	14.5	25.0	21.6	13.2	10.9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7.6	17.6	17.6	13.0	11.4	14.7	20.9	30.4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12.0	10.0	14.0	11.6	12.1	13.8	16.5	5.4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6.6	5.2	8.0	7.2	6.1	8.6	4.4	6.5
기타	1.2	1.2	1.2	4.3	1.5	0.0	0.0	1.1

# 06 호주



## 1 일반개요

위치	오세아니아(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언어	영어
수도	캔버라	종교	천주교, 영국성공회, 불교
인구	2,541만 명	1인당 GDP	55,421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호주는 연방국가로 6개의 주(States)와 두 개의 자치 테리토리(Territories)로 구성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최저임금 보유
  - 지속적인 임금상승 및 실업률 하락 반면 풀타임 근로자는 50% 수준
- 호주 정부의 낮은 기준 금리와 통화 정책으로 2018년의 전반적 교역규모와 민간투자자 소폭 증가 및 정부 부채 역시 감소세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6차 공식협상 개최

- 2019년 6월 호주 멜버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개최
-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 협상 가속 및 지식재산권·원산지 등 규범 분야 주요 쟁점의 이견을 좁히는 데 중점

### 한국상품 인지도, 전자제품과 자동차,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

- 호주 내 중국계 인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 상승세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시드니영화제 최고상 수상 및 6만 호주달러의 상금 수여

### K-POP 관련 행사 개최

- 2019년 3월, 2019 K-POP 뮤직비디오 패러디 경연대회 개최
- 2019년 7월, K-pop world festival 시드니 지역예선을 진행 및 GOT7 콘서트 티켓 응모 등 부대행사를 통해 많은 관객이 몰려 1,000여명의 관객이 참석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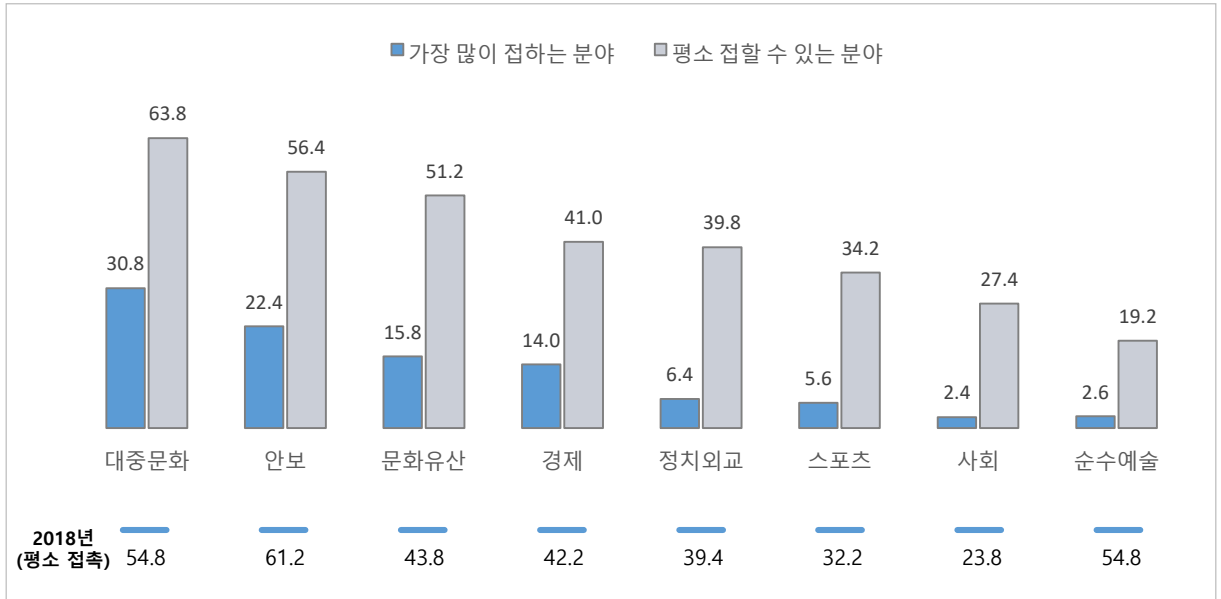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63.8%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대중문화'와 '문화유산' 관련 접촉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그림3-6-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경제'와 '스포츠'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접촉 비중이 높았고, '순수예술'은 여성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3-6-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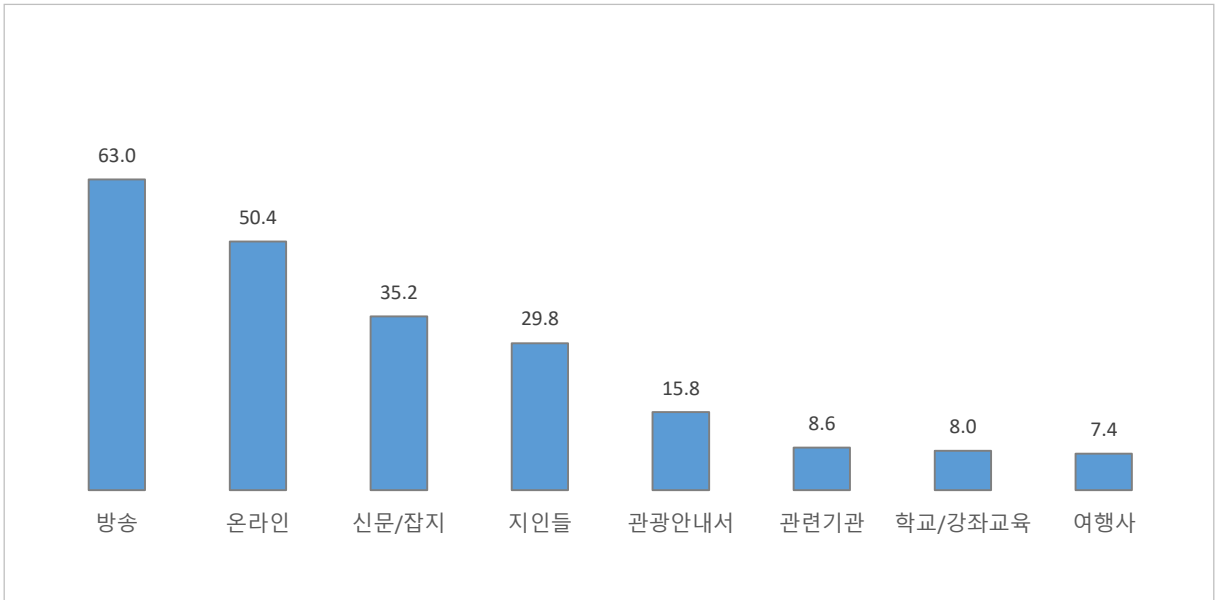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6)	(105)	(112)	(101)	(136)
대중문화	63.8	60.8	66.8	87.0	76.2	67.9	64.4	42.6
안보	56.4	59.6	53.2	43.5	45.7	54.5	65.3	64.0
문화유산	51.2	52.4	50.0	41.3	56.2	56.3	47.5	49.3
경제	41.0	50.4	31.6	32.6	28.6	43.8	41.6	50.7
정치외교	39.8	40.4	39.2	30.4	41.0	31.3	42.6	47.1
스포츠	34.2	42.0	26.4	26.1	26.7	32.1	39.6	40.4
사회	27.4	25.6	29.2	19.6	33.3	28.6	29.7	22.8
순수예술	19.2	16.8	21.6	21.7	25.7	25.9	17.8	8.8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방송' > '온라인'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6-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문/잡지'는 남성이 '지인들', '온라인'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방송'은 높은 연령, '온라인'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3-6-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6)	(105)	(112)	(101)	(136)
방송	63.0	63.6	62.4	50.0	55.2	56.3	68.3	75.0
온라인	50.4	48.0	52.8	71.7	66.7	62.5	40.6	27.9
신문/잡지	35.2	39.6	30.8	21.7	24.8	33.9	33.7	50.0
지인들	29.8	27.6	32.0	34.8	32.4	33.9	29.7	22.8
관광안내서	15.8	14.0	17.6	10.9	22.9	17.9	17.8	8.8
관련기관	8.6	7.2	10.0	15.2	9.5	12.5	5.0	5.1
학교/강좌교육	8.0	8.8	7.2	8.7	8.6	9.8	5.0	8.1
여행사	7.4	8.4	6.4	2.2	9.5	9.8	5.9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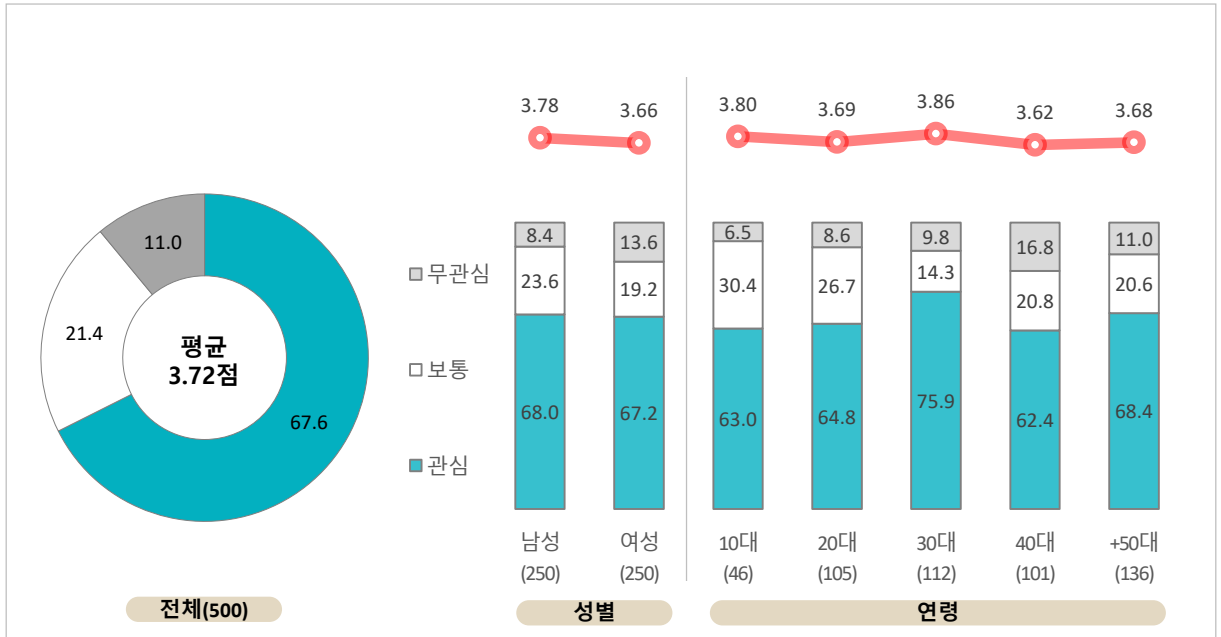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67.6%, '관심 없다'가 11.0%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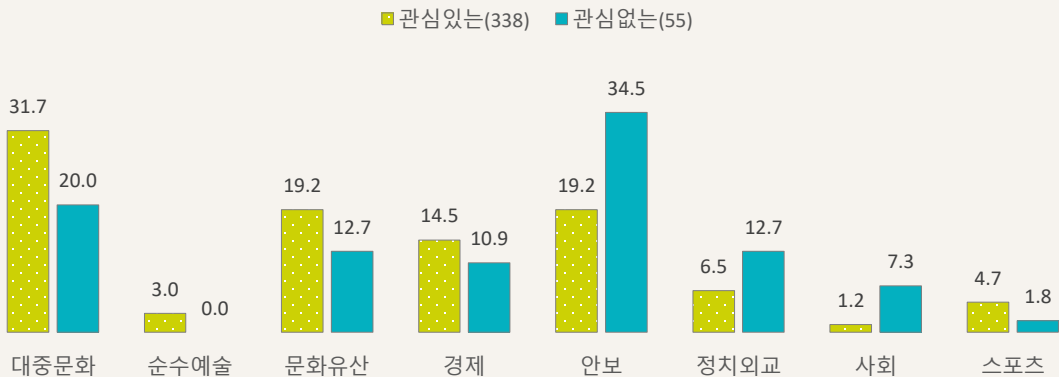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관심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50대 이상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음

그림3-6-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호주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문화유산', '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호주인들은 '안보'와 '대중문화', '정치외교'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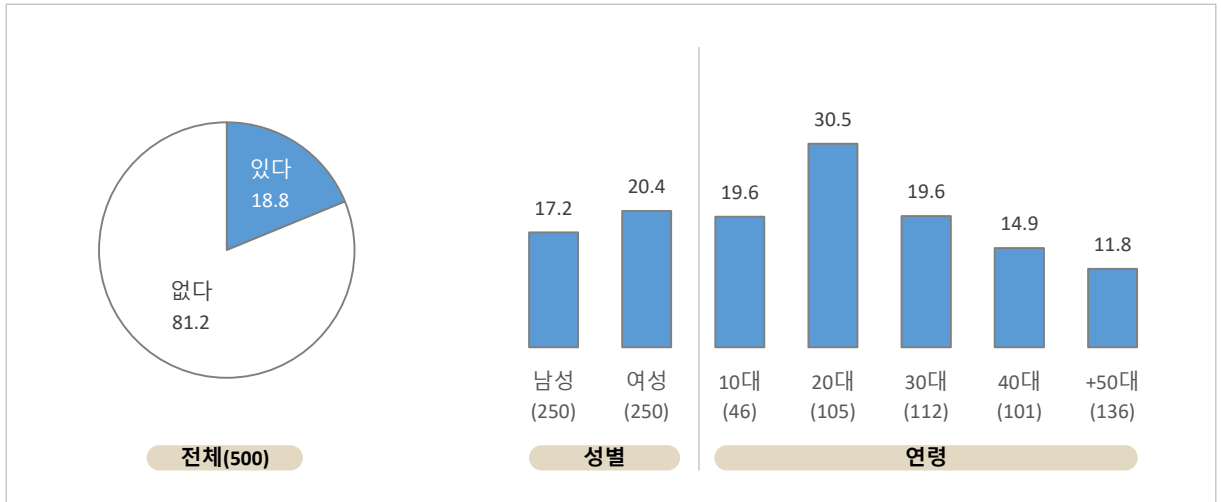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8.8%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83.0%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여성과 20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대와 30대가 높음

그림3-6-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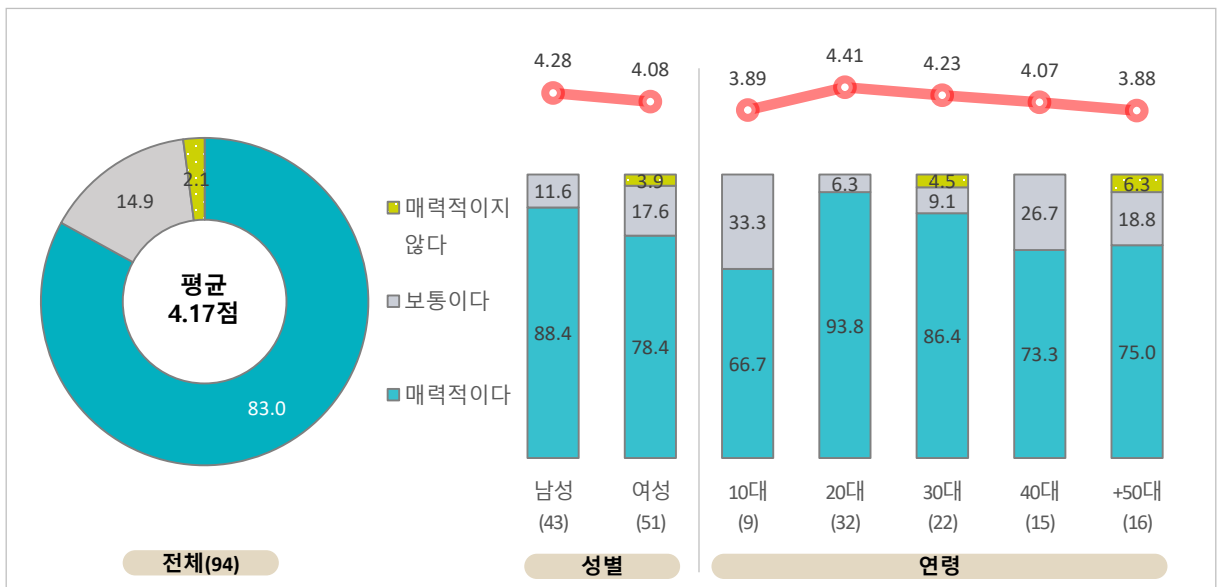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음

그림3-6-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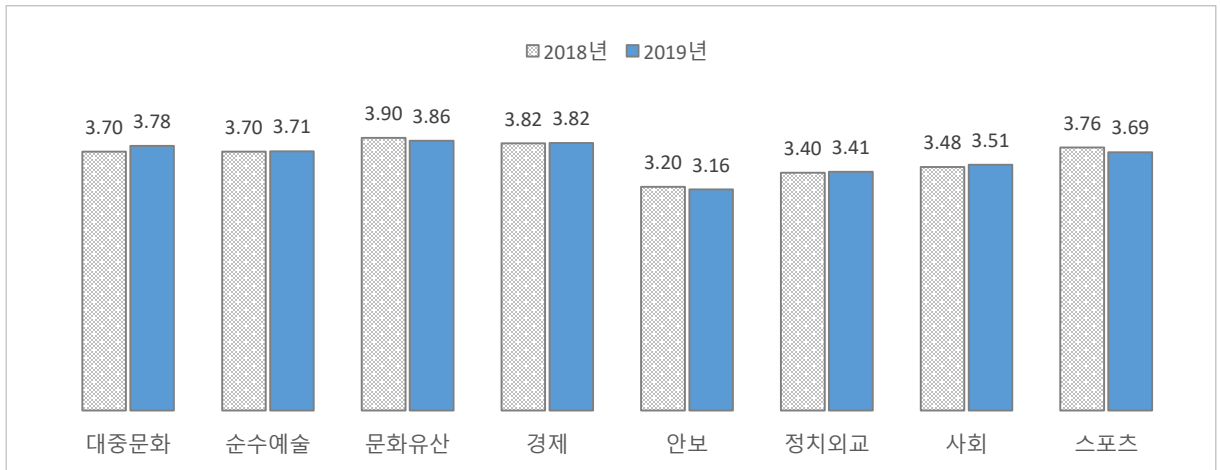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안보'와 '정치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문화유산', '경제' 분야는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대중문화'와 '사회'의 경우도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호감도가 조금 상승하였음

그림3-6-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안보', '정치외교'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으며, 10대가 낮은 호감도를 보임

표3-6-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6)	(105)	(112)	(101)	(136)
대중문화	긍정률	69.9	69.5	70.3	60.9	70.7	72.1	65.2	74.8
	평균	3.78	3.80	3.77	3.72	3.74	3.86	3.77	3.79
순수예술	긍정률	69.4	69.7	69.1	64.5	74.6	70.4	57.4	76.9
	평균	3.71	3.70	3.71	3.55	3.78	3.79	3.52	3.80
문화유산	긍정률	74.3	78.9	69.9	57.9	67.8	76.9	73.6	82.1
	평균	3.86	3.92	3.80	3.63	3.78	3.82	3.90	3.99
경제	긍정률	71.0	77.3	64.4	56.4	63.4	74.0	65.1	82.9
	평균	3.82	3.94	3.70	3.54	3.77	3.88	3.69	4.01
안보	긍정률	35.0	41.5	28.3	25.7	32.0	33.3	31.1	44.1
	평균	3.16	3.29	3.03	3.00	3.13	3.23	2.98	3.31
정치외교	긍정률	52.6	56.3	49.0	35.7	50.6	50.0	55.8	59.3
	평균	3.41	3.50	3.33	3.00	3.41	3.37	3.49	3.54
사회	긍정률	57.6	60.9	54.4	35.3	46.5	59.6	59.5	71.4
	평균	3.51	3.59	3.44	3.24	3.30	3.59	3.52	3.71
스포츠	긍정률	65.0	67.6	62.2	57.1	62.7	68.4	65.1	67.0
	평균	3.69	3.74	3.65	3.60	3.58	3.67	3.81	3.74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73.4%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5.0%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무례하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싸이' > '문재인' > '손흥민' > 'BTS' 순으로 나타남

그림3-6-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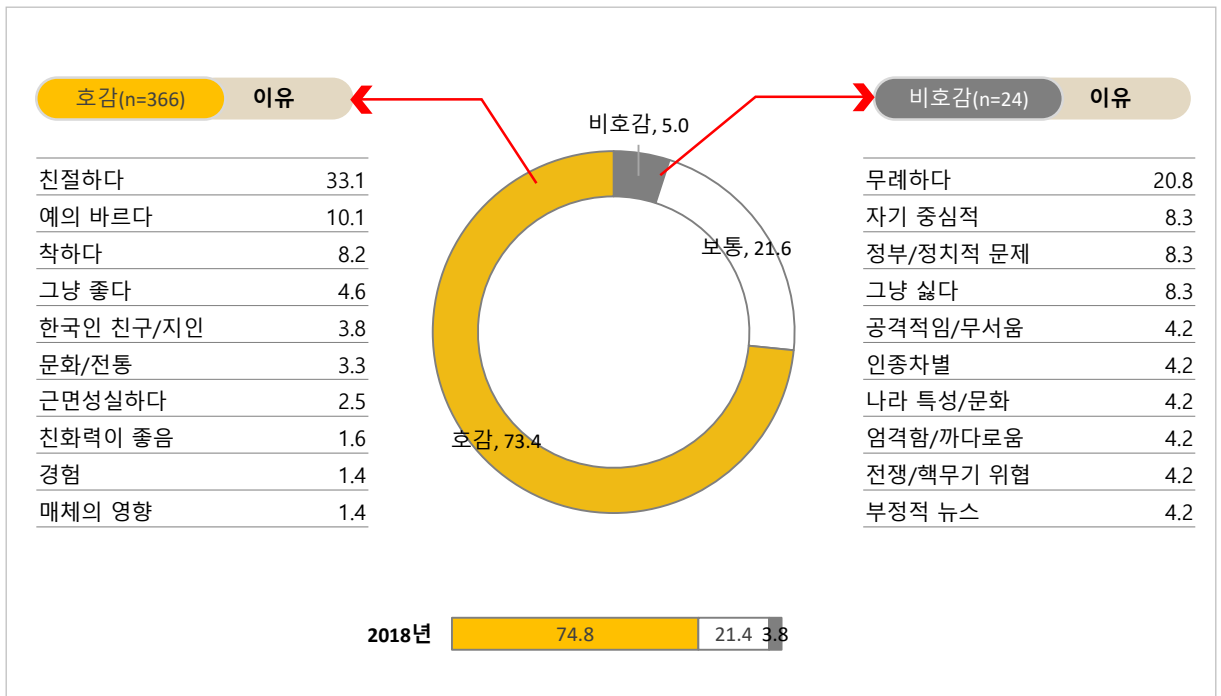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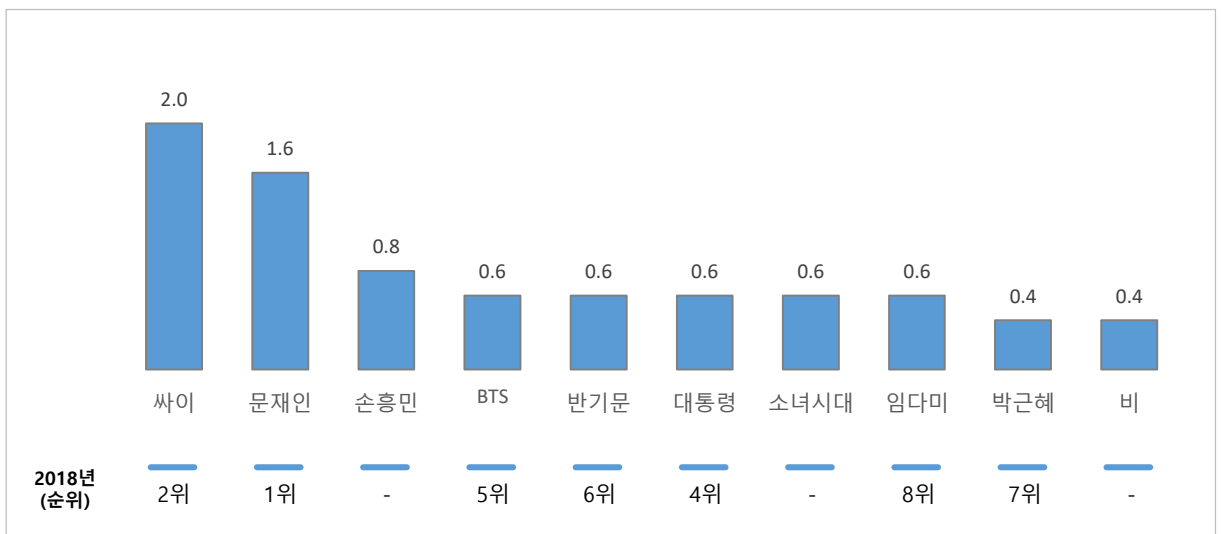


그림3-6-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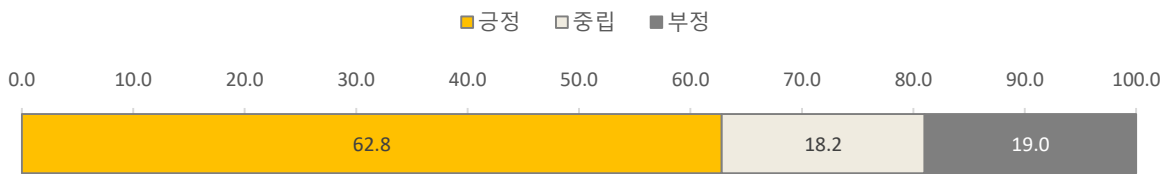
- 호주인들은 '한국'하면 'K-POP/가수'를 가장 많이 떠올림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62.8%, 부정 19.0%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K-POP/가수',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가 가장 많았음

그림3-6-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2018년 조사결과 (사례수 : 314)

연상 이미지	비율 (%)
K-POP/가수	16.9
한식/식품	12.7
문화/문화유산	8.9
기업브랜드	5.7
친절함	4.8
기술력/첨단기술	3.2
IT/전자산업	2.5
호감 있는	2.5
스포츠/선수	2.2
관광/관광지	2.2

(사례수 : 91)

연상 이미지	비율 (%)
K-POP/가수	13.2
한식/식품	5.5
기업브랜드	5.5
호감 있는	5.5
전쟁	5.5
북한/남북관계	4.4
드라마/영화	3.3
법/규율	3.3
K-뷰티/화장품	2.2
북핵/안보문제	2.2

(사례수 : 95)

연상 이미지	비율 (%)
북한/남북관계	35.8
전쟁	13.7
군대/군사력	4.2
북핵/안보문제	4.2
한식/식품	3.2
외모지상주의	3.2
개 식용	3.2
정부/정치적 문제	2.1
기업브랜드	2.1
분단국가	2.1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72.2%, 5점 만점 3.86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북핵문제', '전쟁위험/해소'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과 30대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3-6-10.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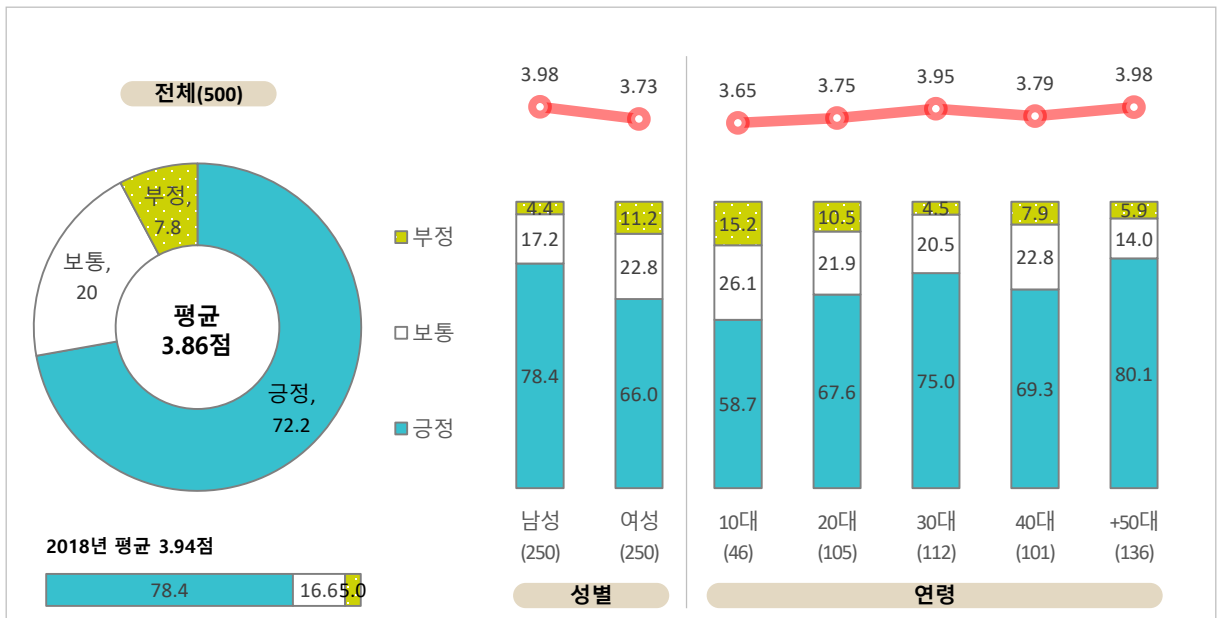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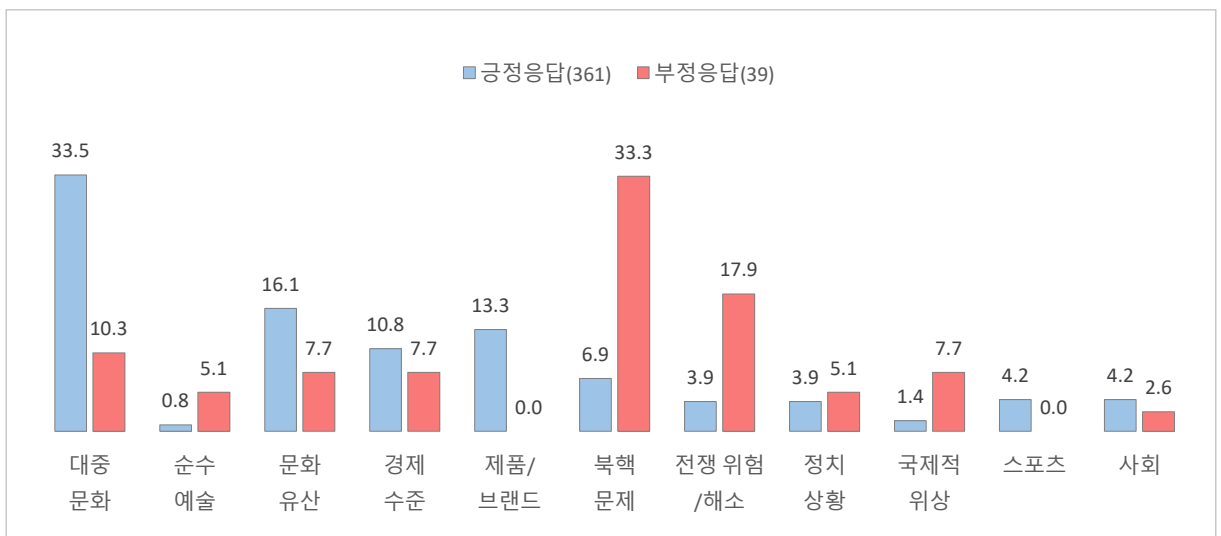


그림3-6-11.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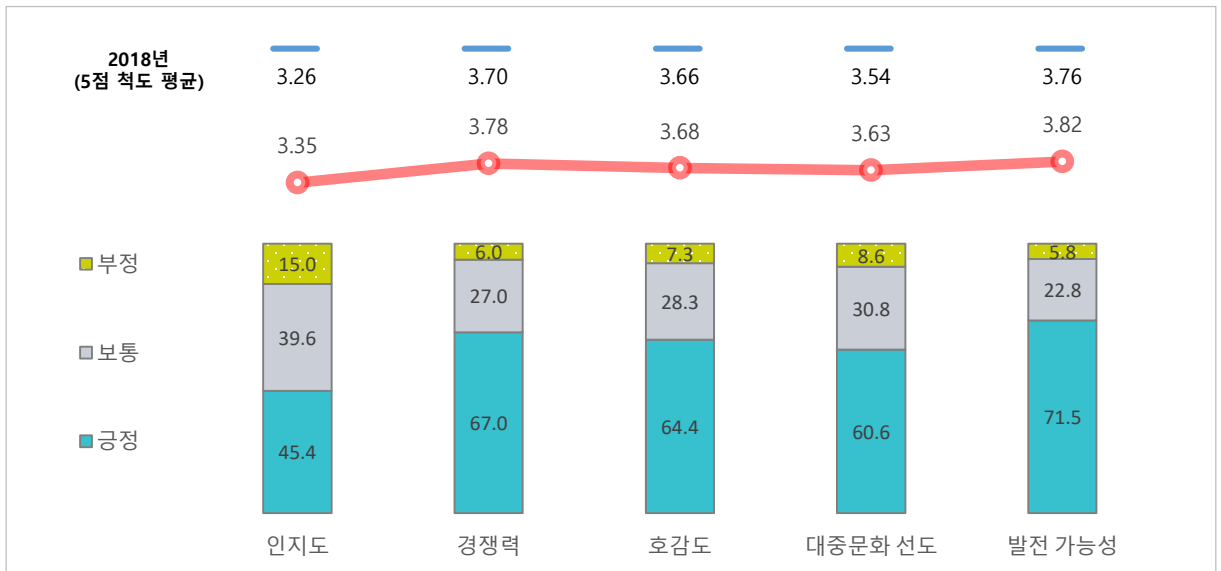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 60% 내외, 부정 평가 10% 내외로 긍정 평가가 우세하였음
- 특히, '발전 가능성'의 긍정 평가는 71.5%, 부정 평가 5.8%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인지도'와 관련된 긍정 평가는 45.4%, 부정 평가 15.0%로 다소 낮게 응답됨

그림3-6-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이미지 속성평가가 높았으나, '호감도'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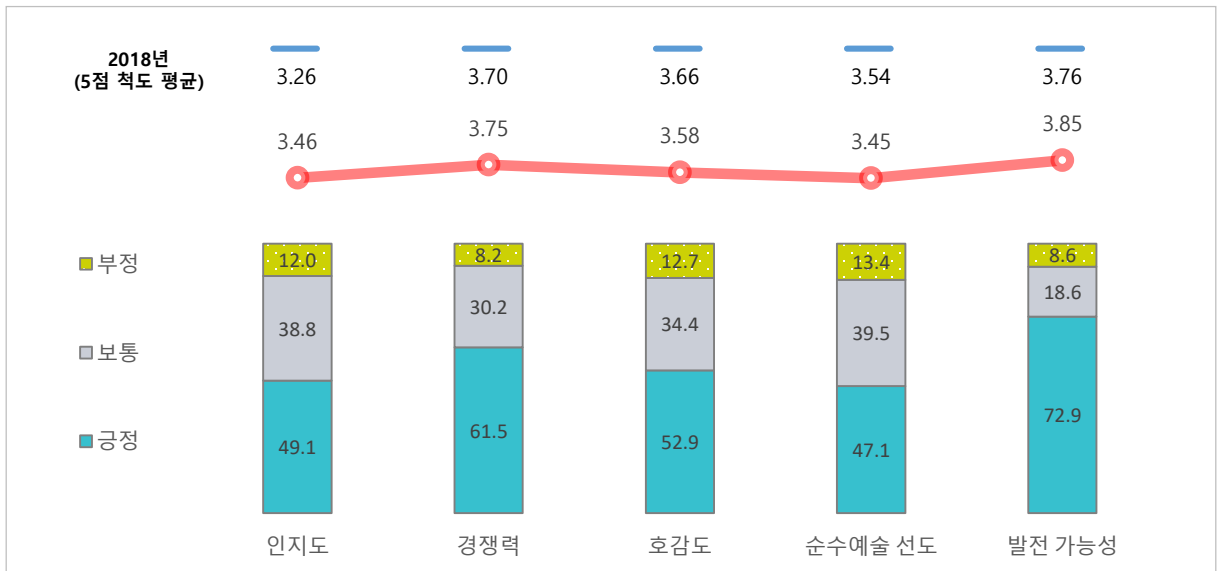
표3-6-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52)	(223)	(229)	(46)	(99)	(104)	(92)	(111)
인지도	긍정률	45.4	48.4	42.4	45.7	47.5	48.1	42.4	43.2
	평균	3.35	3.44	3.27	3.41	3.39	3.45	3.21	3.32
경쟁력	긍정률	67.0	72.2	62.0	58.7	64.6	74.0	62.0	70.3
	평균	3.78	3.90	3.66	3.74	3.76	3.90	3.67	3.78
호감도	긍정률	64.4	62.8	65.9	52.2	62.6	72.1	58.7	68.5
	평균	3.68	3.66	3.70	3.50	3.67	3.82	3.57	3.75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60.6	62.3	59.0	56.5	48.5	71.2	51.1	71.2
	평균	3.63	3.66	3.60	3.57	3.47	3.81	3.39	3.83
발전 가능성	긍정률	71.5	74.4	68.6	63.0	62.6	79.8	67.4	78.4
	평균	3.82	3.89	3.76	3.83	3.69	3.98	3.67	3.92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호감도'와 '순수예술 선도' 항목은 긍정이 50% 내외로 높았지만 부정 응답도 10% 이상으로 다른 속성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3-6-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의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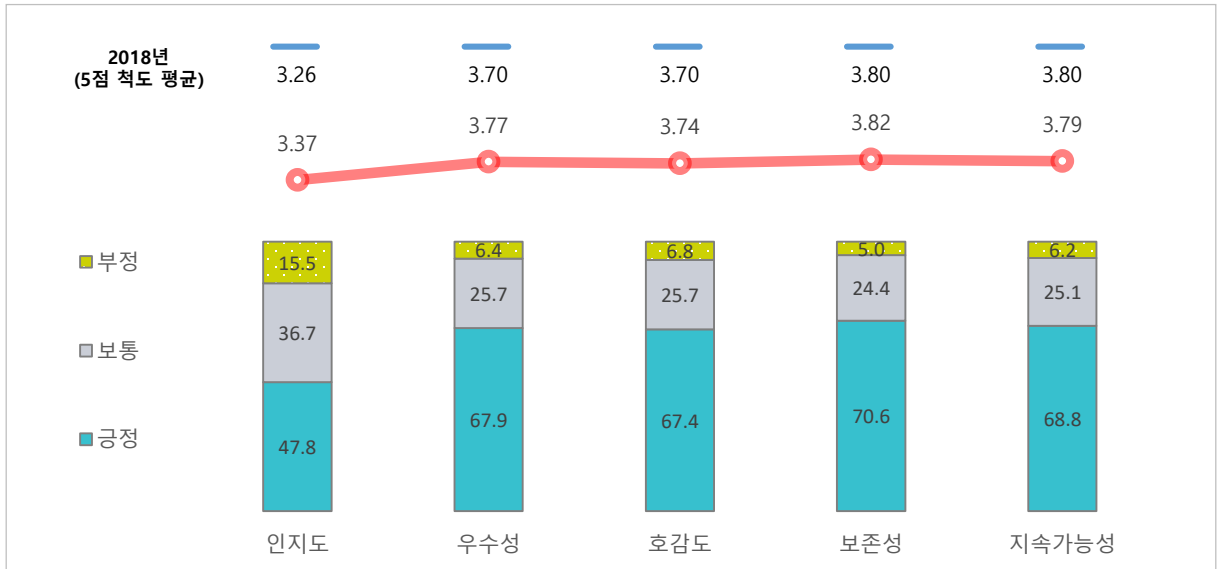
표3-6-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291)	(142)	(149)	(31)	(63)	(71)	(61)	(65)
인지도	긍정률	49.1	50.0	48.3	38.7	57.1	52.1	45.9	46.2
	평균	3.46	3.48	3.44	3.39	3.59	3.51	3.41	3.37
경쟁력	긍정률	61.5	69.0	54.4	48.4	63.5	63.4	65.6	60.0
	평균	3.75	3.86	3.64	3.45	3.81	3.80	3.72	3.80
호감도	긍정률	52.9	52.8	53.0	51.6	49.2	57.7	49.2	55.4
	평균	3.58	3.56	3.60	3.45	3.52	3.73	3.46	3.65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47.1	47.2	47.0	38.7	47.6	52.1	44.3	47.7
	평균	3.45	3.44	3.46	3.32	3.43	3.55	3.41	3.46
발전 가능성	긍정률	72.9	77.5	68.5	58.1	68.3	78.9	68.9	81.5
	평균	3.85	3.92	3.78	3.61	3.73	3.99	3.75	4.02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긍정률이 70% 내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전년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음
- 반면, '인지도'의 경우 긍정 응답이 47.8%, 부정 응답이 15.5%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6-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의 평가가 높았으며 '지속가능성'은 30대에서도 높게 나타남

표3-6-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39)	(213)	(226)	(38)	(87)	(104)	(87)	(123)
인지도	긍정률	47.8	55.4	40.7	42.1	50.6	47.1	48.3	48.0
	평균	3.37	3.48	3.26	3.34	3.46	3.33	3.31	3.38
우수성	긍정률	67.9	73.7	62.4	60.5	63.2	68.3	66.7	74.0
	평균	3.77	3.88	3.67	3.68	3.68	3.80	3.70	3.90
호감도	긍정률	67.4	72.3	62.8	52.6	58.6	73.1	67.8	73.2
	평균	3.74	3.82	3.66	3.53	3.63	3.80	3.69	3.85
보존성	긍정률	70.6	75.6	65.9	57.9	64.4	74.0	67.8	78.0
	평균	3.82	3.92	3.73	3.63	3.70	3.88	3.74	3.98
지속가능성	긍정률	68.8	72.8	65.0	55.3	62.1	75.0	67.8	73.2
	평균	3.79	3.86	3.72	3.58	3.66	3.84	3.76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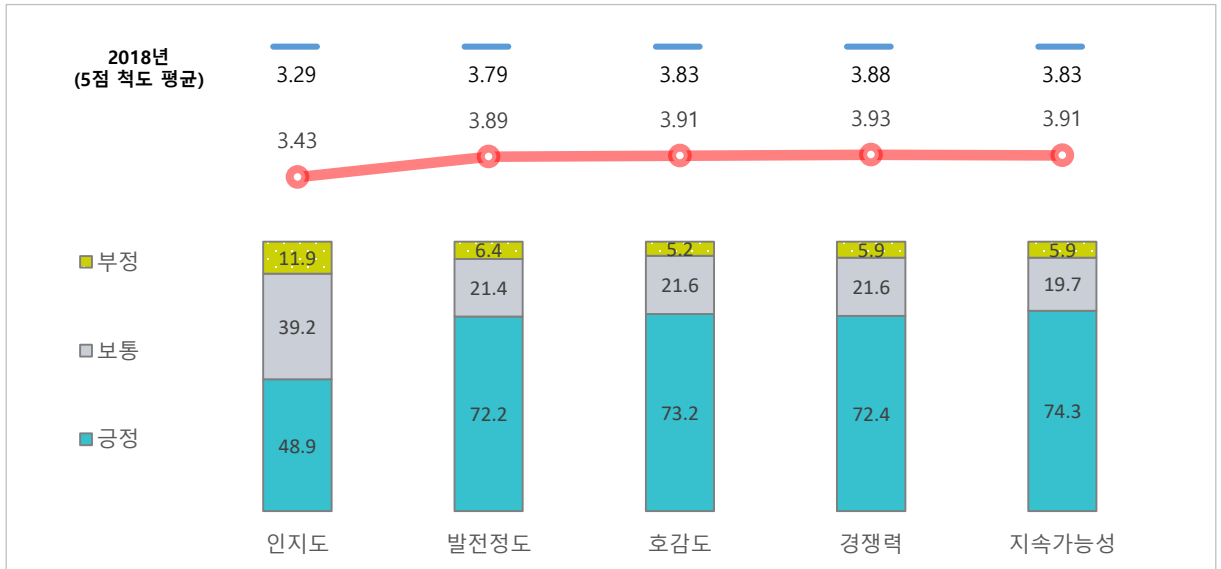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인지도'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70% 초반대로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지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9%, 부정 응답은 11.9%로 다소 낮게 나타남

그림3-6-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의 평가가 높음

표3-6-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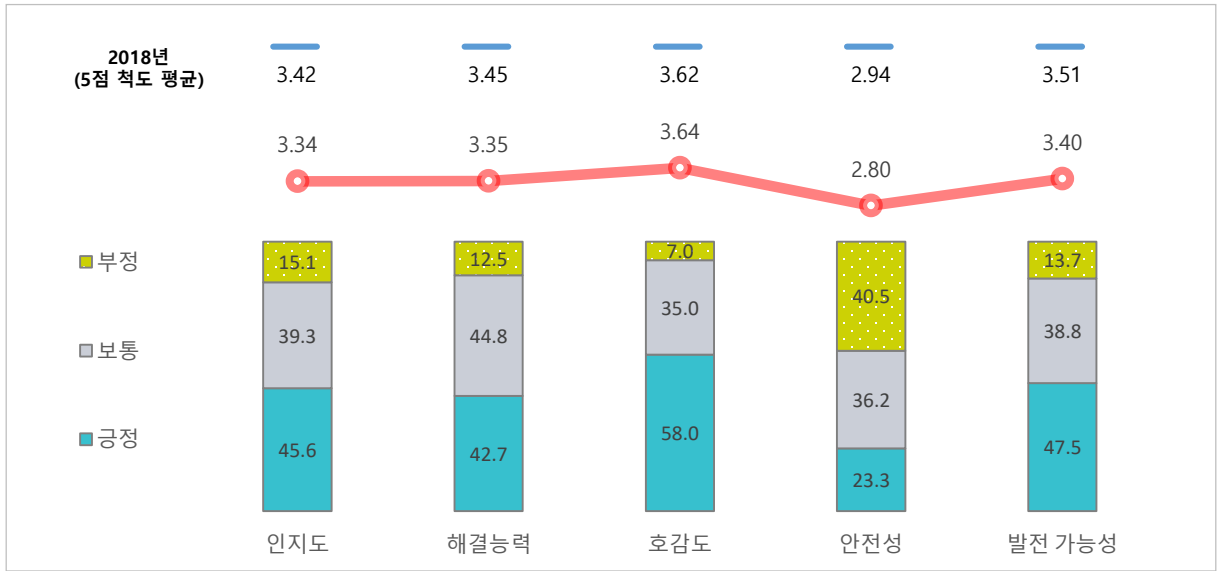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1)	(216)	(205)	(39)	(82)	(100)	(83)	(117)
인지도	긍정률	48.9	55.1	42.4	43.6	46.3	52.0	45.8	52.1
	평균	3.43	3.56	3.30	3.38	3.41	3.52	3.34	3.45
발전정도	긍정률	72.2	76.9	67.3	53.8	62.2	81.0	65.1	82.9
	평균	3.89	4.00	3.77	3.67	3.77	4.00	3.71	4.07
호감도	긍정률	73.2	75.5	70.7	53.8	72.0	78.0	69.9	78.6
	평균	3.91	4.00	3.81	3.62	3.87	3.99	3.83	4.02
경쟁력	긍정률	72.4	76.4	68.3	53.8	63.4	78.0	66.3	84.6
	평균	3.93	4.03	3.82	3.59	3.83	4.00	3.81	4.14
지속가능성	긍정률	74.3	77.8	70.7	56.4	67.1	81.0	67.5	84.6
	평균	3.91	4.00	3.83	3.67	3.88	3.99	3.78	4.05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호감도'의 긍정 응답이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안전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23.3%, 부정 응답은 40.5%로,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호주인들은 우리나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6-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평가가 높았고, 특히 '호감도'와 '발전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30대는 '해결능력', 50대 이상은 '호감도'에 대한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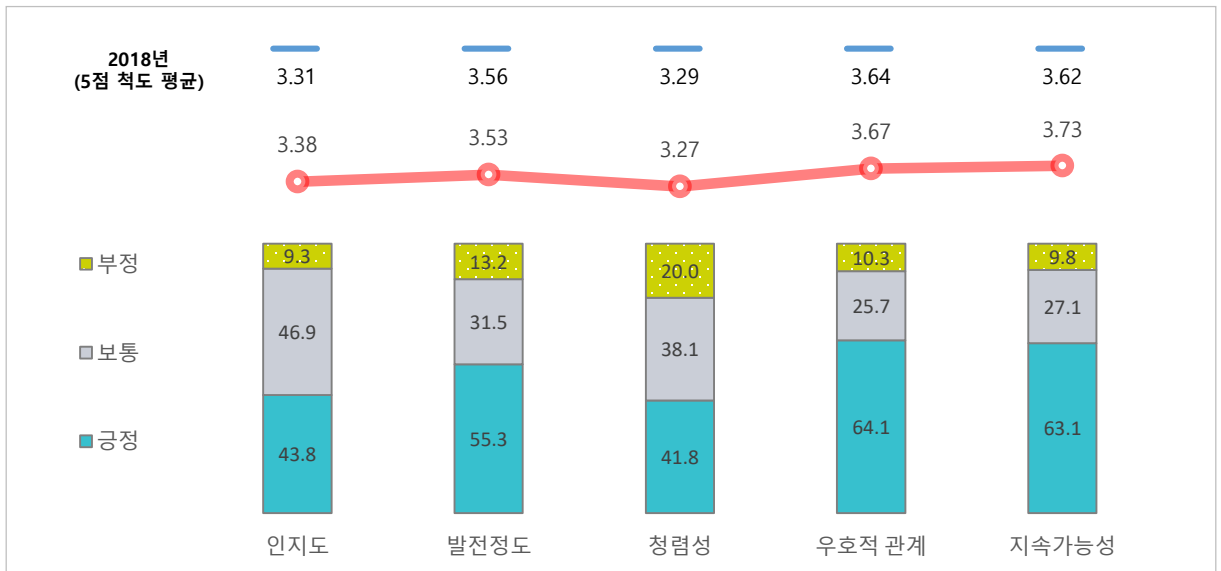
표3-6-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7)	(212)	(205)	(35)	(75)	(99)	(90)	(118)
인지도	긍정률	45.6	50.9	40.0	28.6	42.7	52.5	44.4	47.5
	평균	3.34	3.47	3.21	3.29	3.20	3.40	3.33	3.41
해결능력	긍정률	42.7	43.4	42.0	31.4	36.0	52.5	44.4	40.7
	평균	3.35	3.40	3.29	3.20	3.19	3.53	3.31	3.36
호감도	긍정률	58.0	64.6	51.2	60.0	50.7	54.5	58.9	64.4
	평균	3.64	3.73	3.54	3.71	3.48	3.66	3.63	3.70
안전성	긍정률	23.3	23.6	22.9	17.1	22.7	27.3	30.0	16.9
	평균	2.80	2.79	2.80	2.66	2.92	2.92	2.89	2.58
발전가능성	긍정률	47.5	54.2	40.5	37.1	50.7	53.5	51.1	40.7
	평균	3.40	3.49	3.30	3.29	3.40	3.47	3.47	3.31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우호적 관계'와 '지속가능성'은 6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았으나, '청렴성'에 대해서는 긍정 41.8%, 부정 20.0%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전년도에도 '청렴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여전히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6-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음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가가 높았으며, '우호적 관계', '지속가능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50대 이상에서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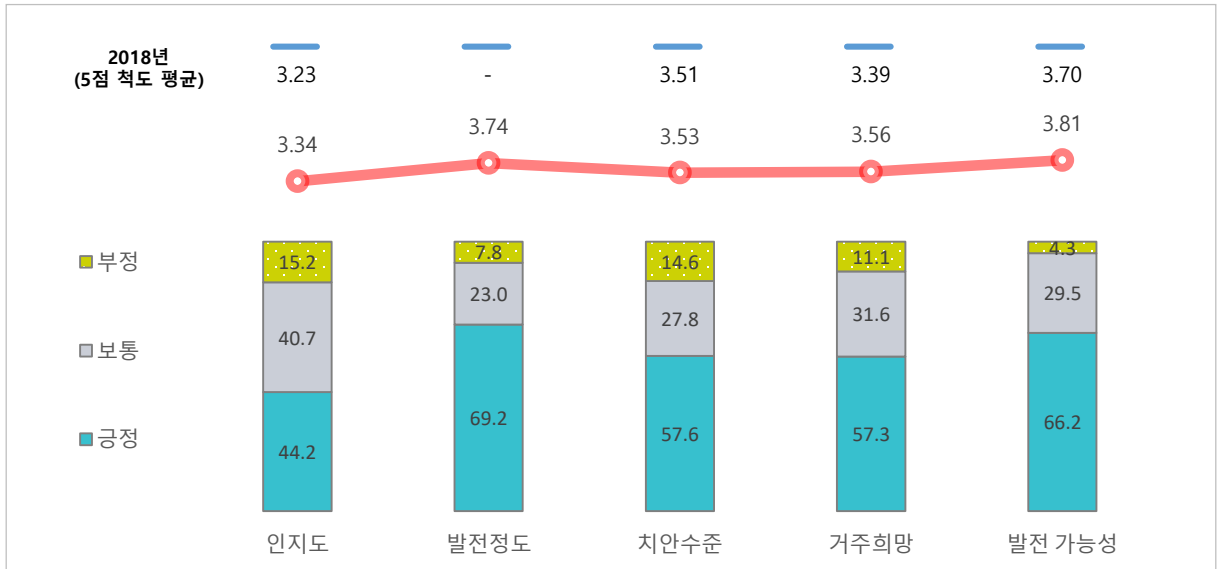
표3-6-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9)	(199)	(210)	(42)	(79)	(84)	(86)	(118)
인지도	긍정률	43.8	46.2	41.4	26.2	46.8	38.1	54.7	44.1
	평균	3.38	3.43	3.32	3.14	3.49	3.35	3.45	3.35
발전정도	긍정률	55.3	56.3	54.3	50.0	48.1	50.0	57.0	64.4
	평균	3.53	3.53	3.53	3.38	3.44	3.40	3.63	3.67
청렴성	긍정률	41.8	43.7	40.0	23.8	45.6	38.1	48.8	43.2
	평균	3.27	3.32	3.22	2.83	3.42	3.18	3.43	3.27
우호적 관계	긍정률	64.1	66.3	61.9	52.4	63.3	59.5	65.1	71.2
	평균	3.67	3.73	3.60	3.40	3.61	3.61	3.71	3.81
지속가능성	긍정률	63.1	64.8	61.4	50.0	58.2	54.8	70.9	71.2
	평균	3.73	3.76	3.70	3.55	3.70	3.61	3.84	3.83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발전정도'에 대한 긍정 평가가 69.2%, 부정 평가가 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이 긍정 66.2%, 부정 4.3%로 높게 나타났음
- 전년 대비 모든 속성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으며, 특히 '거주희망'에 대한 평가가 가장 많이 높아짐

그림3-6-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의 평가가 낮고, 40대와 50대 이상의 평가가 높음

표3-6-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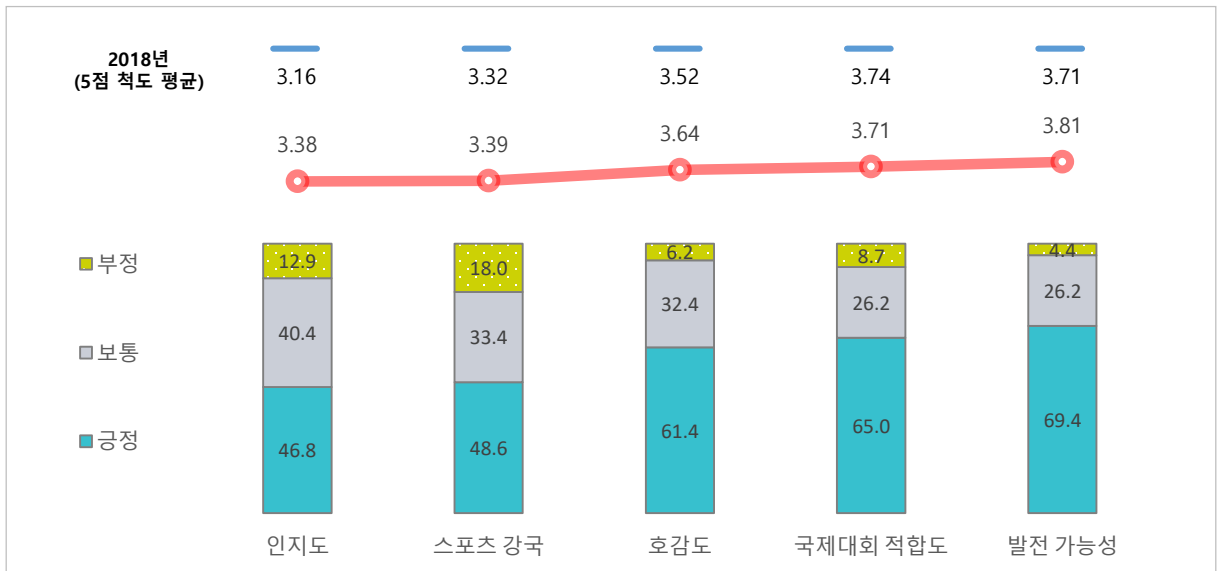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6)	(192)	(204)	(34)	(86)	(94)	(84)	(98)
인지도	긍정률	44.2	45.3	43.1	32.4	32.6	50.0	48.8	49.0
	평균	3.34	3.36	3.32	3.18	3.15	3.41	3.37	3.47
발전정도	긍정률	69.2	73.4	65.2	58.8	65.1	66.0	70.2	78.6
	평균	3.74	3.81	3.69	3.50	3.56	3.73	3.80	3.96
치안수준	긍정률	57.6	62.5	52.9	41.2	50.0	62.8	58.3	64.3
	평균	3.53	3.66	3.41	3.18	3.36	3.61	3.58	3.68
거주희망	긍정률	57.3	59.4	55.4	41.2	50.0	59.6	57.1	67.3
	평균	3.56	3.58	3.53	3.26	3.45	3.59	3.51	3.76
발전 가능성	긍정률	66.2	71.9	60.8	44.1	55.8	73.4	67.9	74.5
	평균	3.81	3.88	3.75	3.47	3.62	3.93	3.83	3.97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 속성 중 '발전 가능성'이 긍정 69.4%, 부정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대회 적합도'는 긍정 65.0%, 부정 8.7%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스포츠 강국'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6%, 부정 응답은 18.0%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림3-6-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발전 가능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높았고, '호감도'에 대해서는 50대 이상도 높게 평가함

표3-6-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89)	(204)	(185)	(35)	(83)	(79)	(83)	(109)
인지도	긍정률	46.8	47.5	45.9	31.4	42.2	60.8	47.0	45.0
	평균	3.38	3.41	3.35	3.23	3.24	3.54	3.43	3.38
스포츠강국	긍정률	48.6	47.5	49.7	40.0	51.8	51.9	49.4	45.9
	평균	3.39	3.39	3.40	3.26	3.36	3.41	3.46	3.40
호감도	긍정률	61.4	61.3	61.6	42.9	57.8	62.0	63.9	67.9
	평균	3.64	3.65	3.63	3.31	3.60	3.65	3.71	3.72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65.0	66.2	63.8	45.7	63.9	73.4	61.4	68.8
	평균	3.71	3.75	3.66	3.40	3.64	3.81	3.65	3.83
발전 가능성	긍정률	69.4	72.1	66.5	45.7	62.7	81.0	69.9	73.4
	평균	3.81	3.84	3.78	3.51	3.70	3.90	3.89	3.88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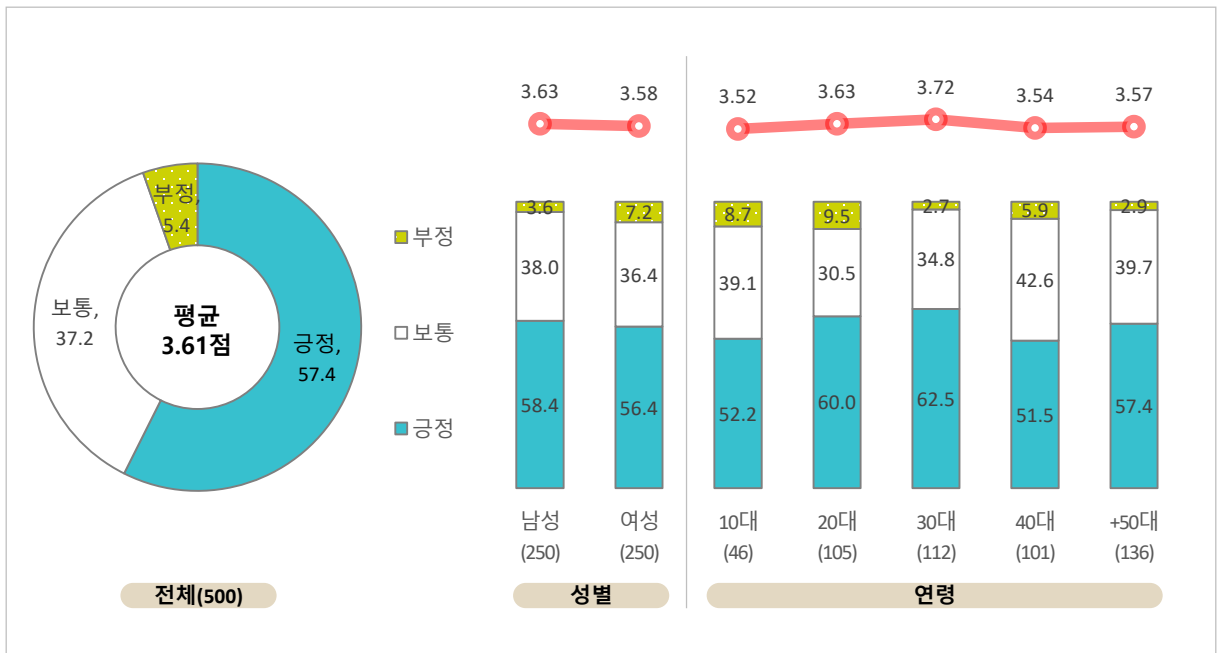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57.4%, 부정 5.4%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K-POP/가수',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를 가장 많이 꼽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3-6-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K-POP/가수	6.0
북한/남북관계	5.3
더 많은 정보를 접함	5.3
호감/호의적임	4.9
사회/경제/경제발전	4.2
한국 방문 경험	4.2
뉴스/기사	3.9
개방적이다	3.5
한국인 친구/지인	3.5
한국산 제품이 좋음	3.2

정부/정치적 문제	18.5
북한 문제	11.1
개고기	11.1
전쟁/핵 위험	7.4
외교문제	7.4
부정적 매체의 영향	7.4
연예 산업의 부정적 이면	3.7
군대/군사 문제	3.7
무례하다	3.7
위험한 나라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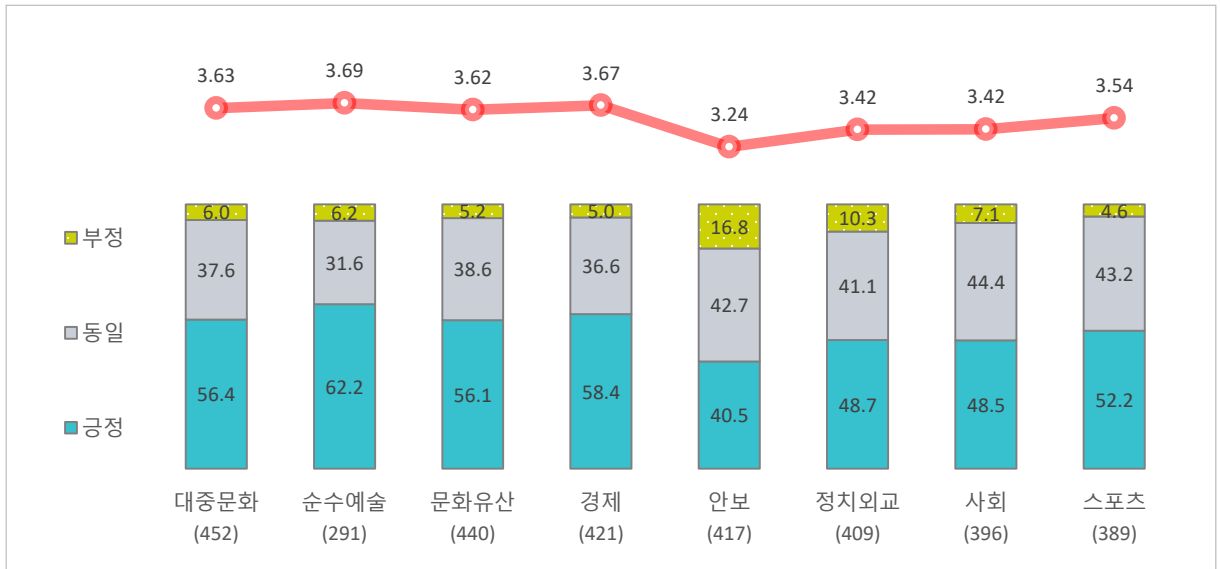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순수예술'은 긍정 6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보'는 긍정이 40%대 초반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6-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30대의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3-6-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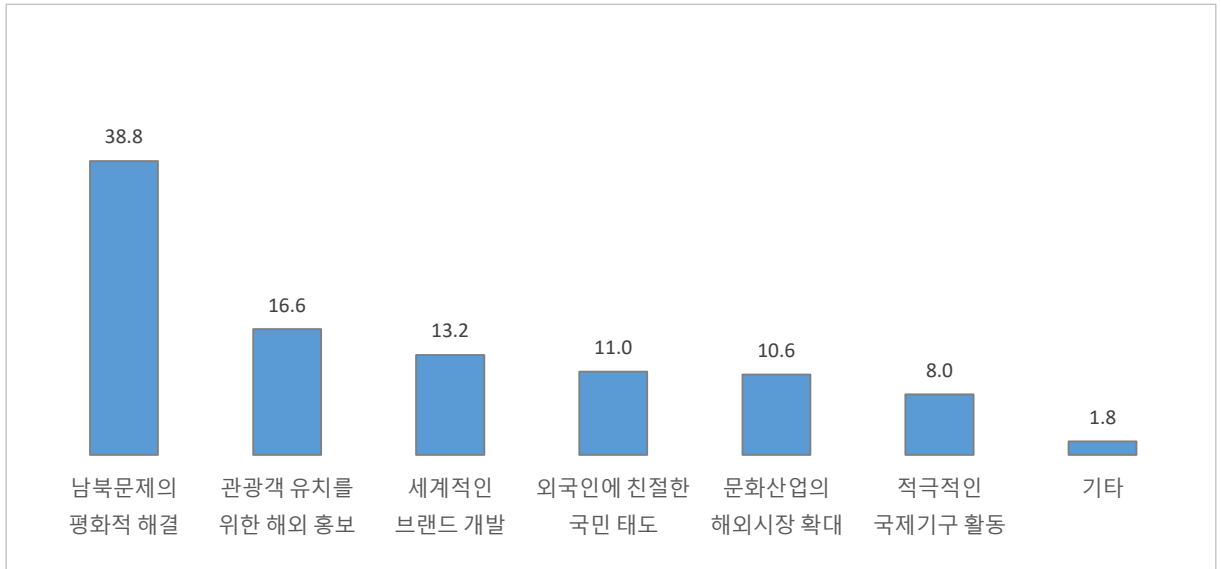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56.4	56.1	56.8	50.0	59.6	61.5	53.3	54.1
	평균	3.63	3.66	3.61	3.57	3.66	3.75	3.60	3.57
순수예술	긍정률	62.2	63.4	61.1	58.1	57.1	70.4	52.5	69.2
	평균	3.69	3.69	3.68	3.55	3.62	3.85	3.57	3.75
문화유산	긍정률	56.1	58.7	53.7	53.8	59.8	58.7	54.0	53.7
	평균	3.62	3.66	3.59	3.62	3.61	3.71	3.61	3.56
경제	긍정률	58.4	60.2	56.6	43.6	58.5	63.0	54.2	62.4
	평균	3.67	3.73	3.60	3.49	3.66	3.76	3.63	3.68
안보	긍정률	40.5	41.0	40.0	31.4	44.0	51.5	36.7	34.7
	평균	3.24	3.28	3.21	3.00	3.27	3.42	3.16	3.22
정치외교	긍정률	48.7	49.7	47.6	40.5	48.1	57.1	45.3	48.3
	평균	3.42	3.47	3.38	3.17	3.43	3.51	3.45	3.42
사회	긍정률	48.5	50.0	47.1	58.8	43.0	60.6	41.7	43.9
	평균	3.42	3.45	3.40	3.38	3.29	3.62	3.38	3.41
스포츠	긍정률	52.2	52.9	51.4	37.1	53.0	58.2	53.0	51.4
	평균	3.54	3.55	3.52	3.37	3.48	3.59	3.57	3.57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3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6.6%),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3.2%),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11.0%) 순으로 나타남

그림3-6-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응답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음  
연령별로는 10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를 우선과제로 많이 응답함

표3-6-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6)	(105)	(112)	(101)	(136)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38.8	38.0	39.6	39.1	29.5	33.0	40.6	49.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6.6	16.0	17.2	23.9	15.2	16.1	13.9	17.6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3.2	16.4	10.0	15.2	14.3	17.0	13.9	8.1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1.0	10.4	11.6	8.7	12.4	8.0	13.9	11.0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10.6	9.6	11.6	8.7	15.2	14.3	8.9	5.9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8.0	8.4	7.6	4.3	13.3	8.9	5.9	5.9
기타	1.8	1.2	2.4	0.0	0.0	2.7	3.0	2.2



## 07

## 미국



## 1 일반개요

위치	미주대륙 북부	언어	영어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종교	기독교,가톨릭,유대교
인구	3억 2,938만 2,627명	1인당 GDP	64,767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제 2위 수출 대상국
  - 미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3.1%로 집계됐으며, 2009년 6월 부터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제 확장세
- 2019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 미-중 통상갈등 심화로 인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 간접적인 피해 예상

##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

- 미국 현직 대통령의 최초 북한 방문은 새로운 시대로의 역사적 첫 걸음
- 비핵화 협상에 관련한 북미 협상 재개
- 북미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세계에 전파

##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9 한글/한국문화 영상 콘테스트' 개최

-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된 한글날을 기념
- 청소년부와 성인부로 나눠서 진행되었으며, 15개주에서 총 259개 작품 접수
- 해외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정된 한글날을 기념하고 SNS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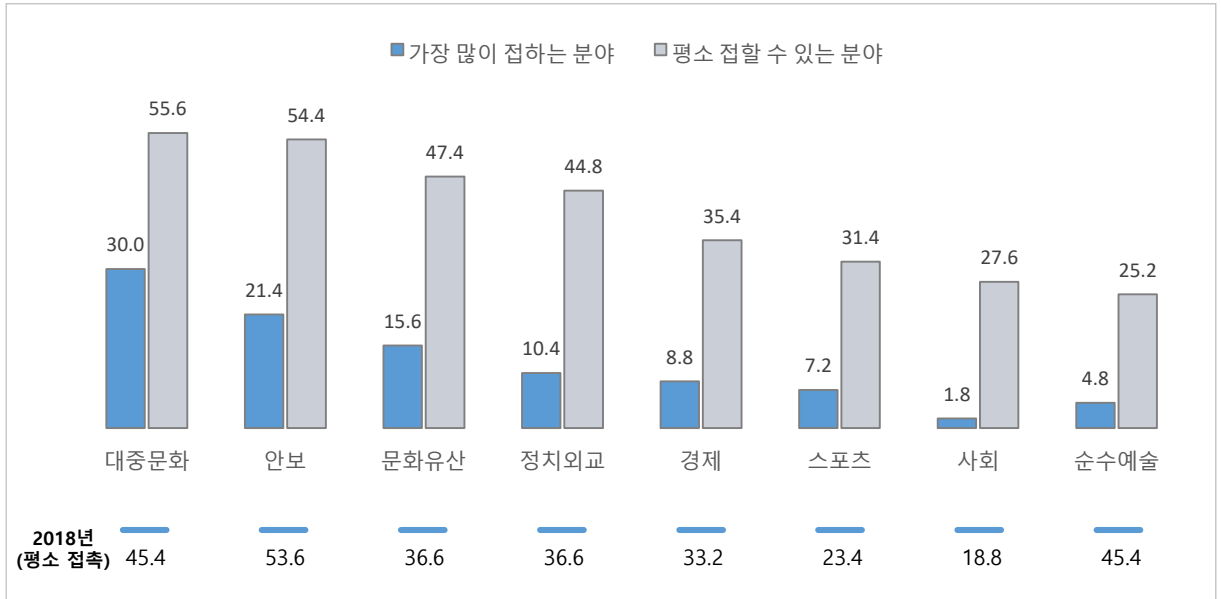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55.6%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으며, '안보'도 54.4%로 접촉 비중이 높았음
- 전년도와 비교해 대부분의 분야에 접촉이 증가하였음

그림3-7-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안보', '경제'는 남성이 여성대비 접촉 비중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대중문화' 접촉 비중이 증가한 반면 '경제'는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접촉 비중이 증가함

표3-7-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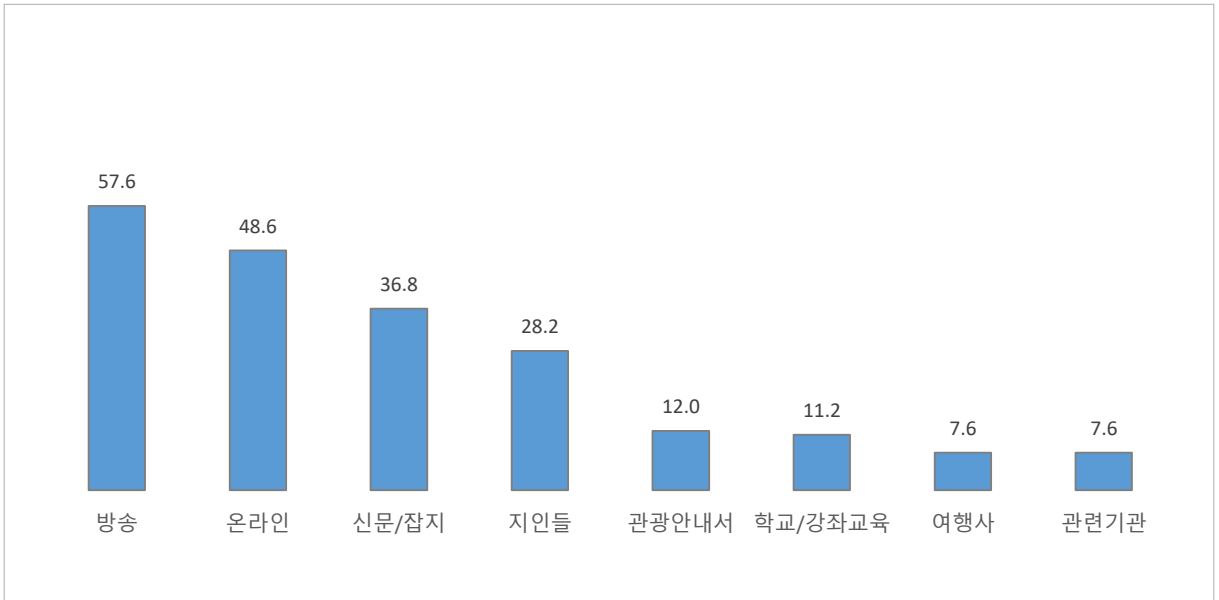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50)	(106)	(103)	(95)	(146)
대중문화	55.6	53.6	57.6	74.0	73.6	67.0	49.5	32.2
안보	54.4	58.4	50.4	42.0	46.2	50.5	63.2	61.6
문화유산	47.4	45.2	49.6	52.0	54.7	48.5	47.4	39.7
정치외교	44.8	45.6	44.0	22.0	42.5	50.5	41.1	52.7
경제	35.4	44.0	26.8	28.0	33.0	34.0	36.8	39.7
스포츠	31.4	32.4	30.4	26.0	24.5	33.0	32.6	36.3
사회	27.6	26.8	28.4	24.0	34.9	38.8	20.0	20.5
순수예술	25.2	25.2	25.2	32.0	40.6	26.2	21.1	13.7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방송' > '온라인'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7-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 응답 비중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젊은 층은 '온라인', 고연령층은 '방송'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3-7-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50)	(106)	(103)	(95)	(146)
방송	57.6	58.8	56.4	38.0	49.1	58.3	62.1	67.1
온라인	48.6	42.4	54.8	64.0	66.0	54.4	41.1	31.5
신문/잡지	36.8	39.2	34.4	26.0	40.6	32.0	41.1	38.4
지인들	28.2	28.8	27.6	36.0	32.1	33.0	33.7	15.8
관광안내서	12.0	12.4	11.6	4.0	17.0	11.7	7.4	14.4
학교/강좌교육	11.2	11.6	10.8	18.0	14.2	13.6	7.4	7.5
여행사	7.6	10.0	5.2	8.0	14.2	4.9	8.4	4.1
관련기관	7.6	8.8	6.4	6.0	13.2	9.7	7.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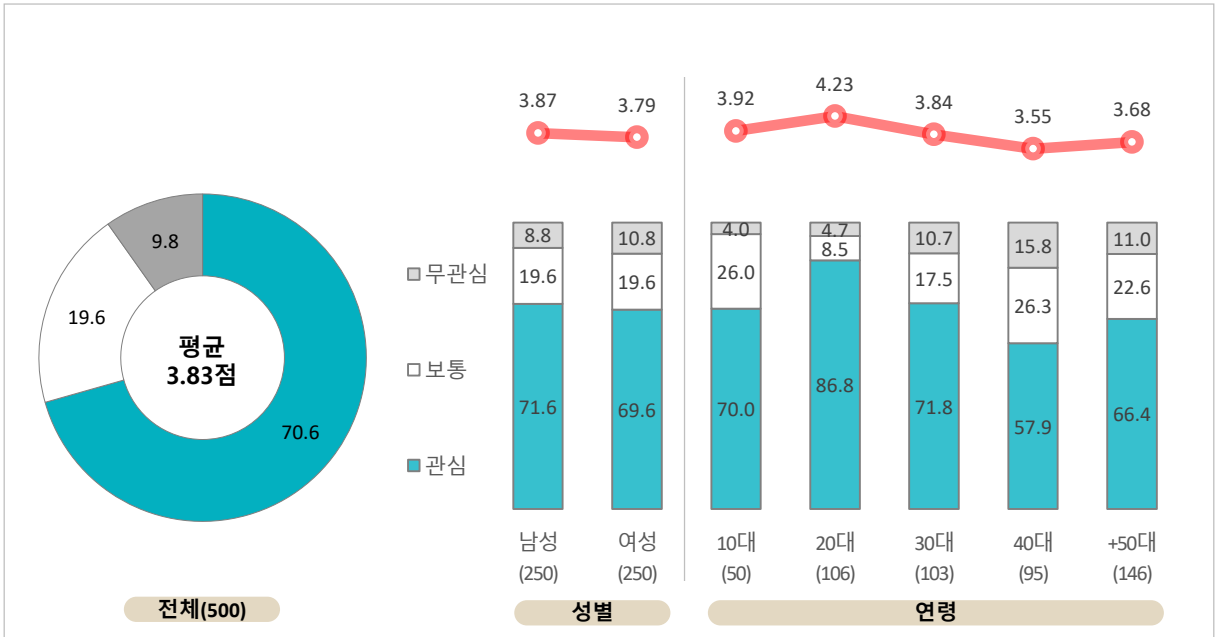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70.6%, '관심 없다'가 9.8%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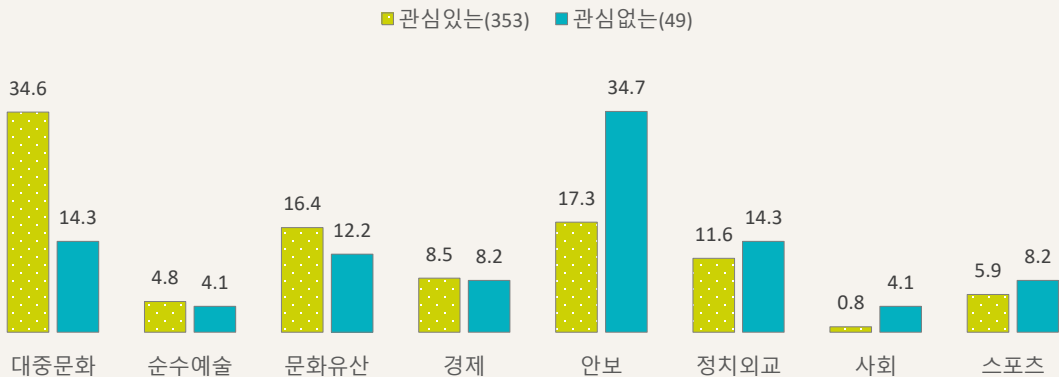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의 관심도가 가장 낮음

그림3-7-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안보', '문화유산',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은 '안보'와 '대중문화', '정치외교'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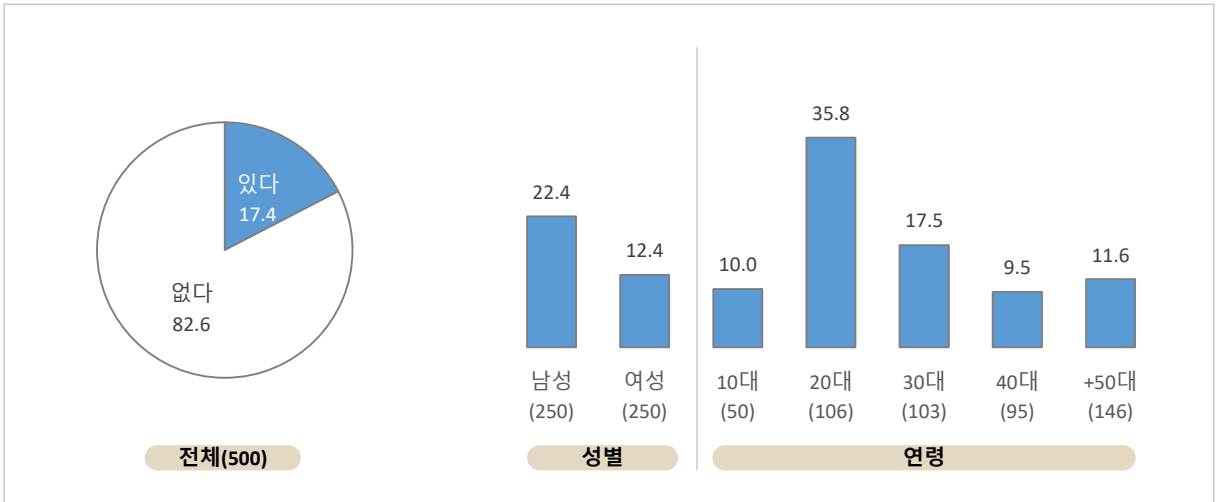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7.4%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87.4%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높음

그림3-7-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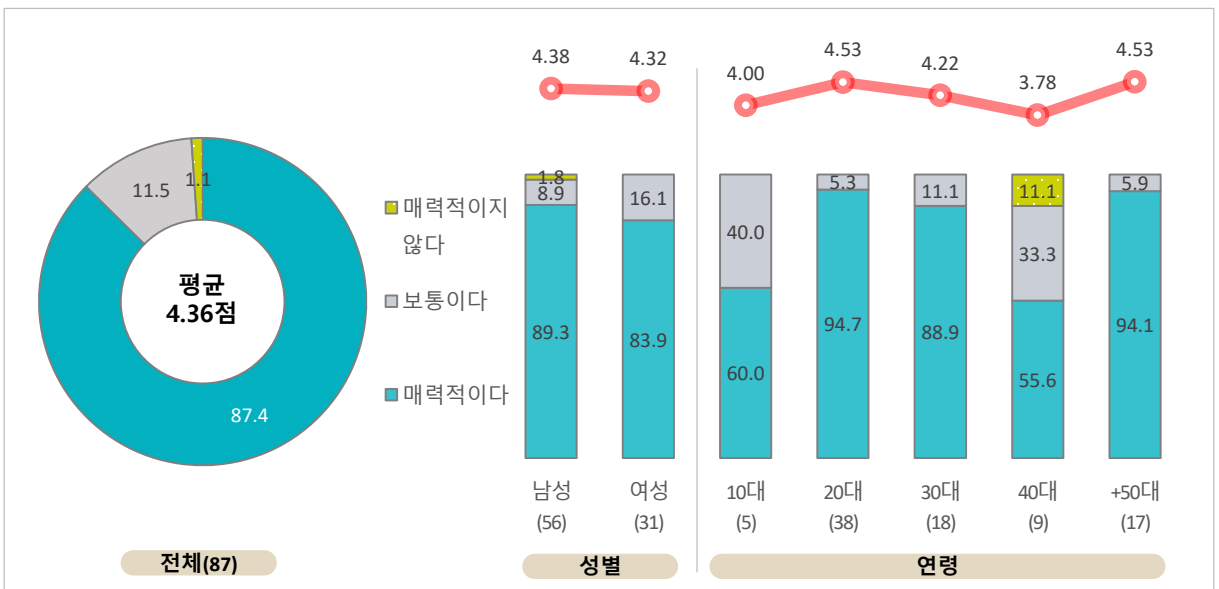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남성이 약간 더 높고, 20대와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3-7-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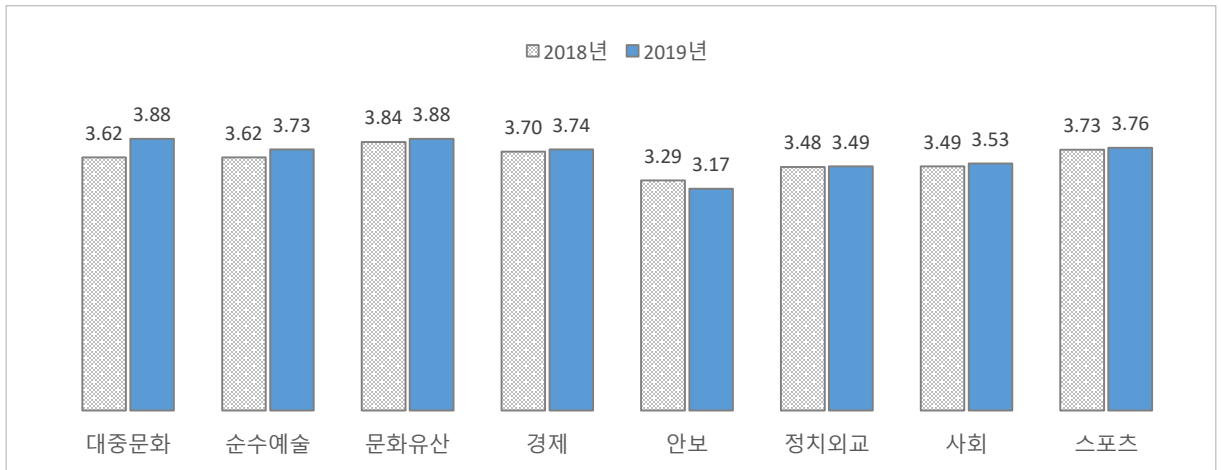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안보'와 '정치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대중문화', '문화유산' 분야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분야에서 호감도가 전년 대비 상승한 가운데 '안보'의 호감도는 다소 하락함

그림3-7-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부분의 분야에서 남성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20대의 호감도가 높고 10대의 호감도 낮음

표3-7-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50)	(106)	(103)	(95)	(146)
대중문화	긍정률	70.3	70.0	70.5	68.9	72.9	67.3	70.9	70.7
	평균	3.88	3.85	3.92	3.93	4.00	3.86	3.87	3.80
순수예술	긍정률	65.4	68.5	62.3	66.7	70.7	63.4	55.7	69.0
	평균	3.73	3.79	3.67	3.78	3.93	3.69	3.52	3.73
문화유산	긍정률	72.0	72.0	71.9	59.0	80.5	74.7	62.2	74.8
	평균	3.88	3.91	3.86	3.87	4.02	3.92	3.73	3.85
경제	긍정률	64.2	66.3	61.7	40.0	71.2	63.4	51.9	75.4
	평균	3.74	3.79	3.67	3.46	3.90	3.71	3.55	3.86
안보	긍정률	39.5	41.9	36.9	34.1	39.8	36.0	23.5	55.3
	평균	3.17	3.24	3.10	2.85	3.24	3.10	2.88	3.50
정치외교	긍정률	55.3	58.8	51.9	39.4	63.9	47.6	50.0	63.4
	평균	3.49	3.59	3.39	3.33	3.66	3.40	3.23	3.64
사회	긍정률	55.5	58.7	52.4	40.5	64.6	55.6	46.2	59.6
	평균	3.53	3.62	3.45	3.38	3.71	3.52	3.37	3.57
스포츠	긍정률	62.1	64.8	59.5	55.6	58.1	61.1	60.6	68.5
	평균	3.76	3.82	3.70	3.50	3.80	3.81	3.75	3.79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6.4%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 '그냥 좋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전쟁/핵무기 위협', '무례하다'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BTS' > '문재인' > '싸이' > '블랙핑크' 순으로 나타남

그림3-7-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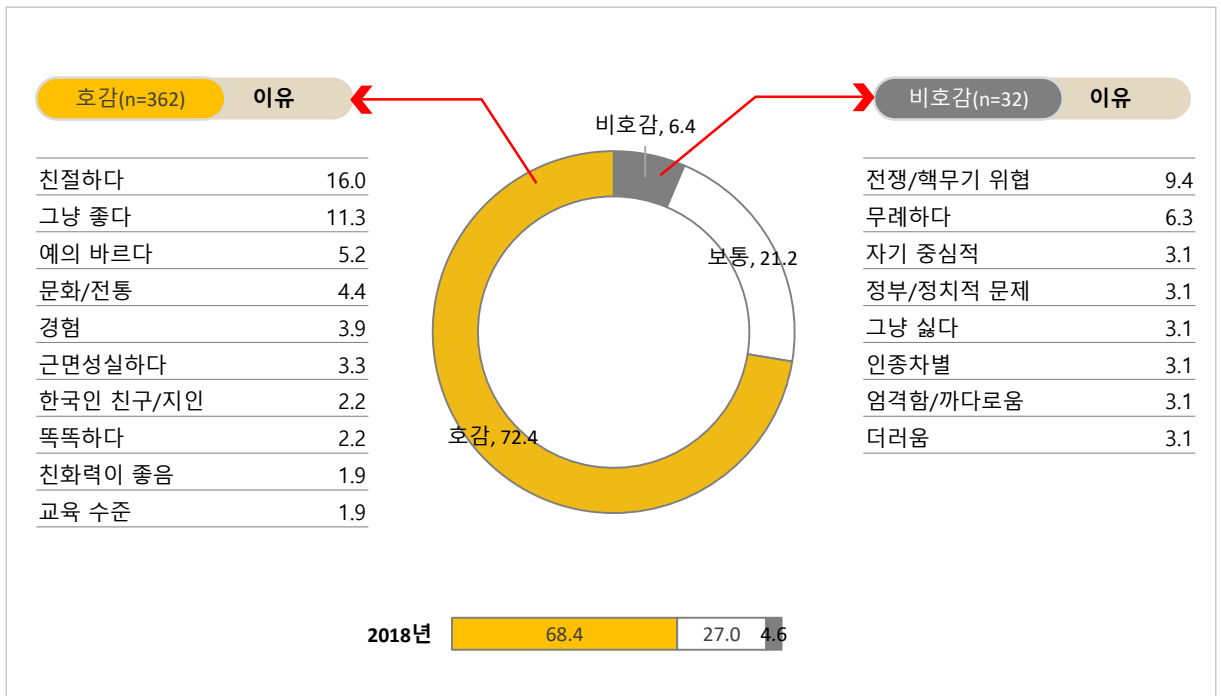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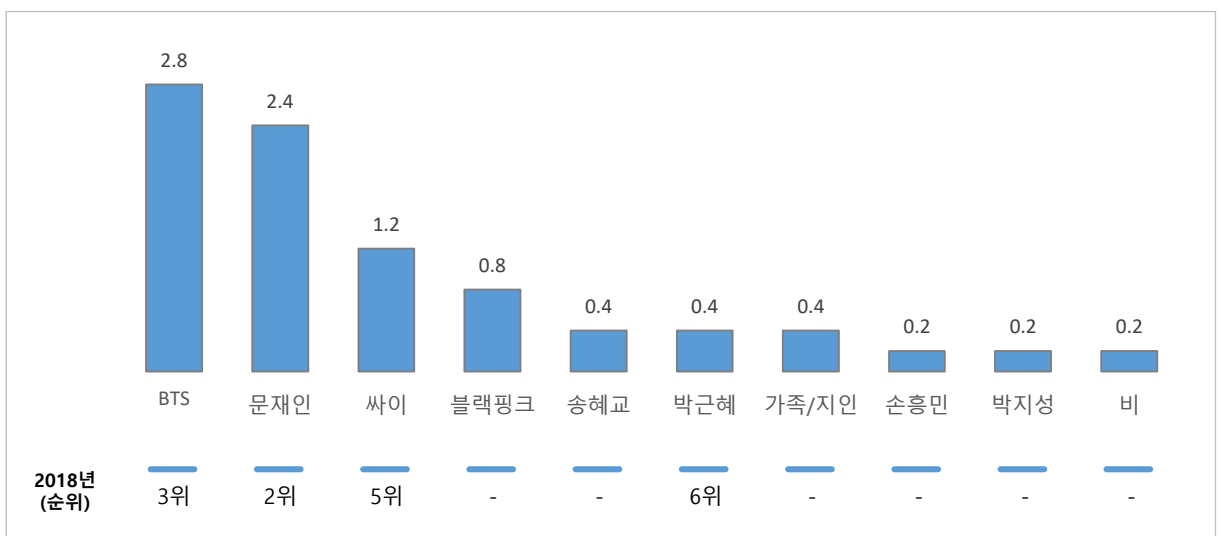


그림3-7-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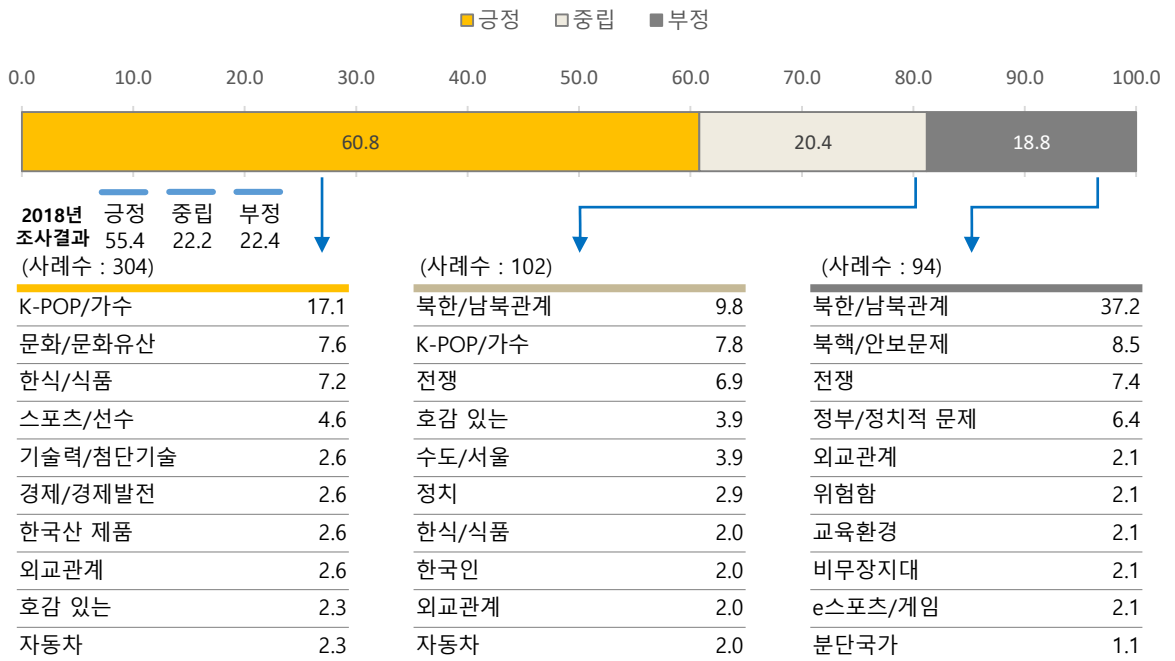
- 미국인들은 '한국'하면 'K-POP/가수'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60.8%, 부정 18.8%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K-POP/가수',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가 가장 많았음

그림3-7-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69.2%, 5점 만점 3.87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북핵문제'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3-7-10.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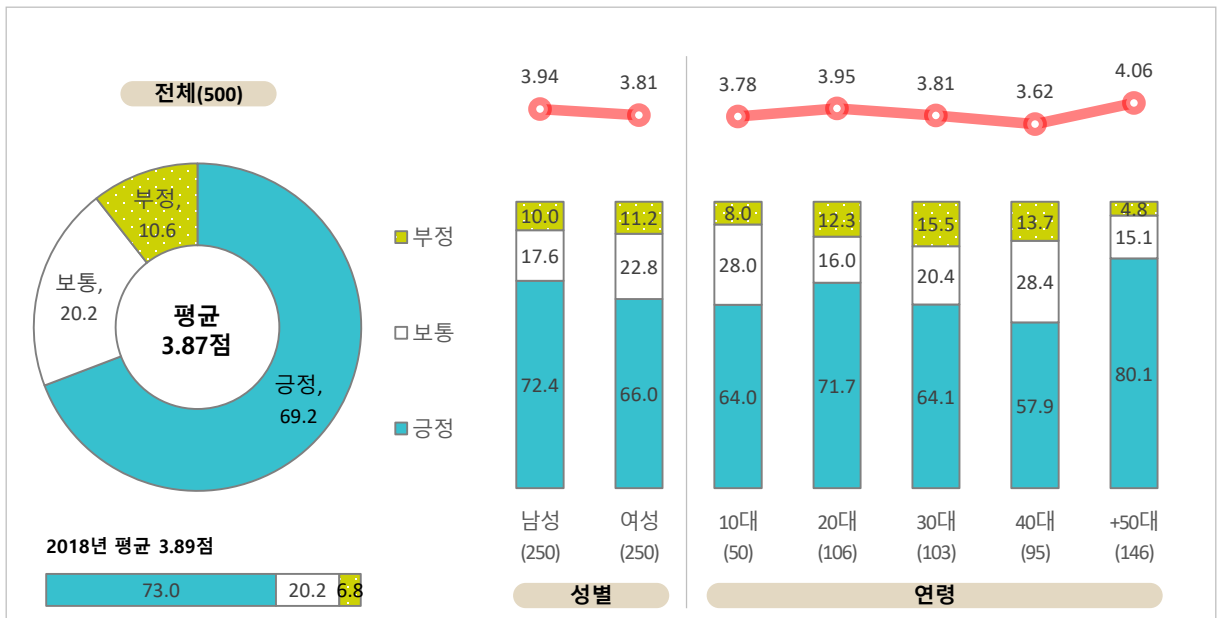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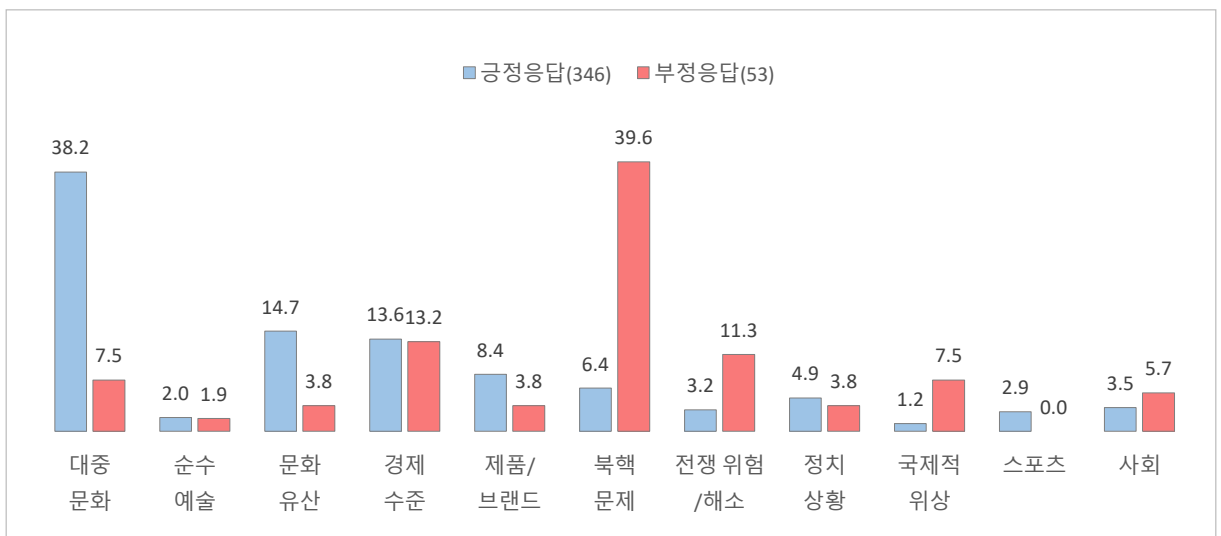


그림3-7-11.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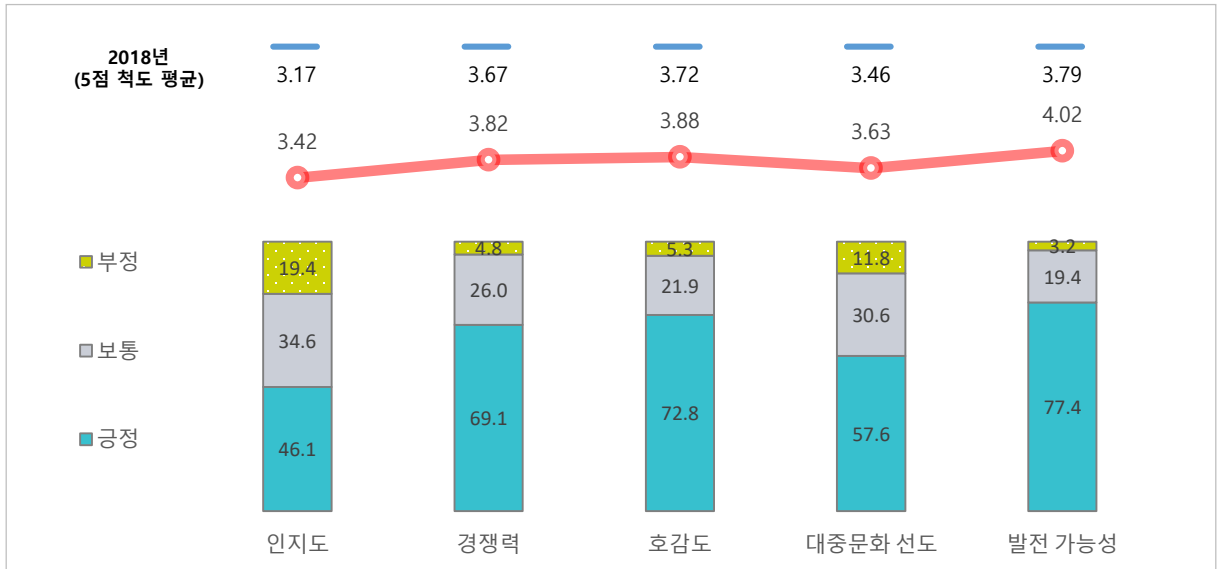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70% 내외로 나타난 가운데, '대중문화 선도'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6%로 상대적으로 낮음
- 인지도를 포함해 전년대비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짐

그림3-7-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경쟁력'에 대한 긍정 평가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10대와 4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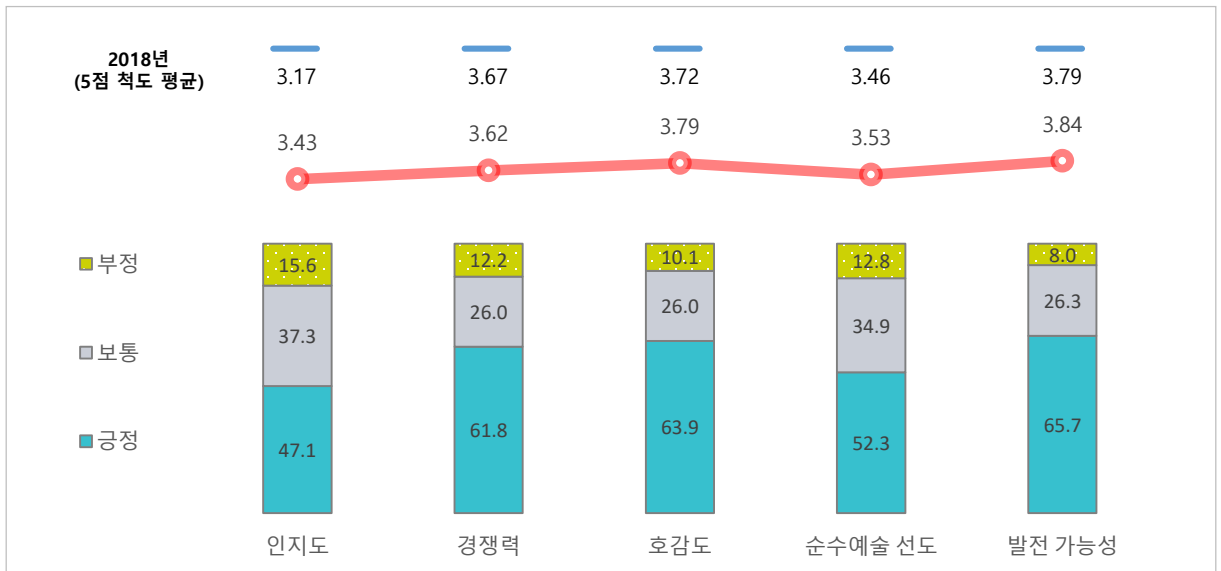
표3-7-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34)	(217)	(217)	(45)	(96)	(98)	(79)	(116)
인지도	긍정률	46.1	49.8	42.4	42.2	58.3	43.9	32.9	48.3
	평균	3.42	3.48	3.35	3.38	3.68	3.39	3.20	3.39
경쟁력	긍정률	69.1	71.9	66.4	62.2	79.2	66.3	59.5	72.4
	평균	3.82	3.84	3.79	3.69	3.99	3.84	3.72	3.78
호감도	긍정률	72.8	72.4	73.3	60.0	74.0	76.5	65.8	78.4
	평균	3.88	3.87	3.89	3.67	4.01	3.90	3.82	3.88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57.6	56.7	58.5	46.7	65.6	53.1	62.0	56.0
	평균	3.63	3.58	3.68	3.42	3.84	3.61	3.73	3.48
발전 가능성	긍정률	77.4	77.0	77.9	68.9	88.5	71.4	68.4	82.8
	평균	4.02	3.96	4.07	3.93	4.23	3.91	3.91	4.04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순수예술 선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52.3%로 타 속성 대비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낮게 나타남

그림3-7-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발전 가능성'의 경우 50대 이상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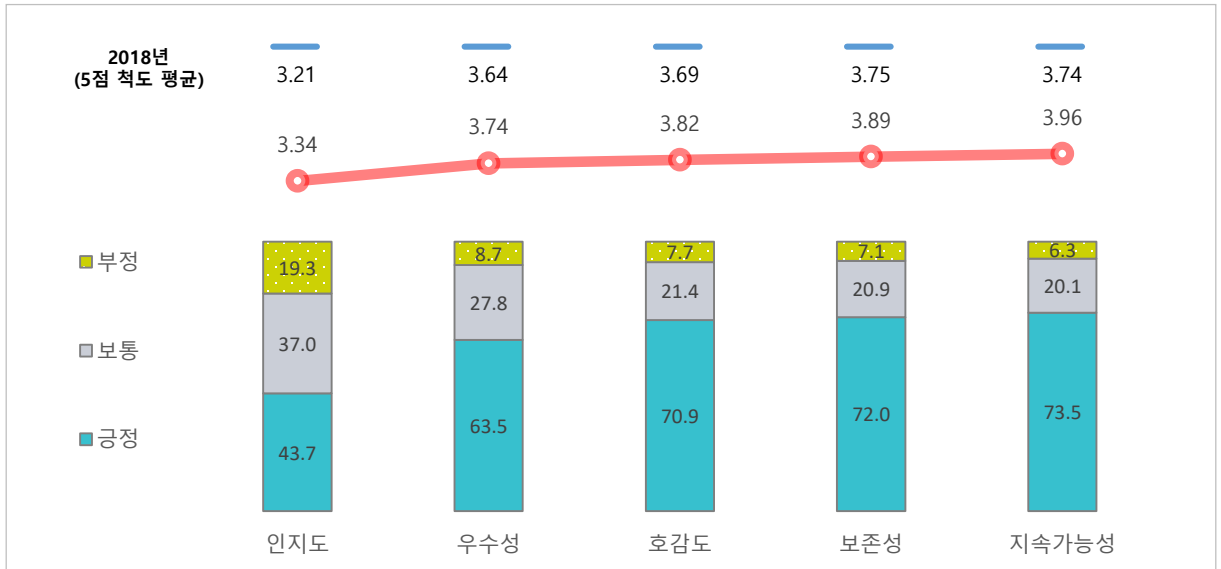
표3-7-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27)	(165)	(162)	(36)	(75)	(71)	(61)	(84)
인지도	긍정률	47.1	52.1	42.0	27.8	56.0	47.9	44.3	48.8
	평균	3.43	3.53	3.33	3.08	3.64	3.49	3.33	3.42
경쟁력	긍정률	61.8	66.7	56.8	55.6	69.3	62.0	52.5	64.3
	평균	3.62	3.71	3.53	3.47	3.81	3.65	3.41	3.64
호감도	긍정률	63.9	66.7	61.1	47.2	72.0	64.8	55.7	69.0
	평균	3.79	3.84	3.73	3.53	3.96	3.87	3.57	3.82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52.3	55.8	48.8	38.9	61.3	47.9	54.1	52.4
	평균	3.53	3.61	3.46	3.28	3.73	3.54	3.46	3.51
발전 가능성	긍정률	65.7	69.1	62.3	58.3	70.7	63.4	57.4	72.6
	평균	3.84	3.86	3.81	3.72	3.99	3.86	3.70	3.83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이 긍정 평가 73.5%, 부정 평가 6.3%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보존성'도 긍정 평가 72.0%, 부정 평가 7.1%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문화유산'의 모든 속성 평가는 전년 대비 상승함

그림3-7-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10대와 4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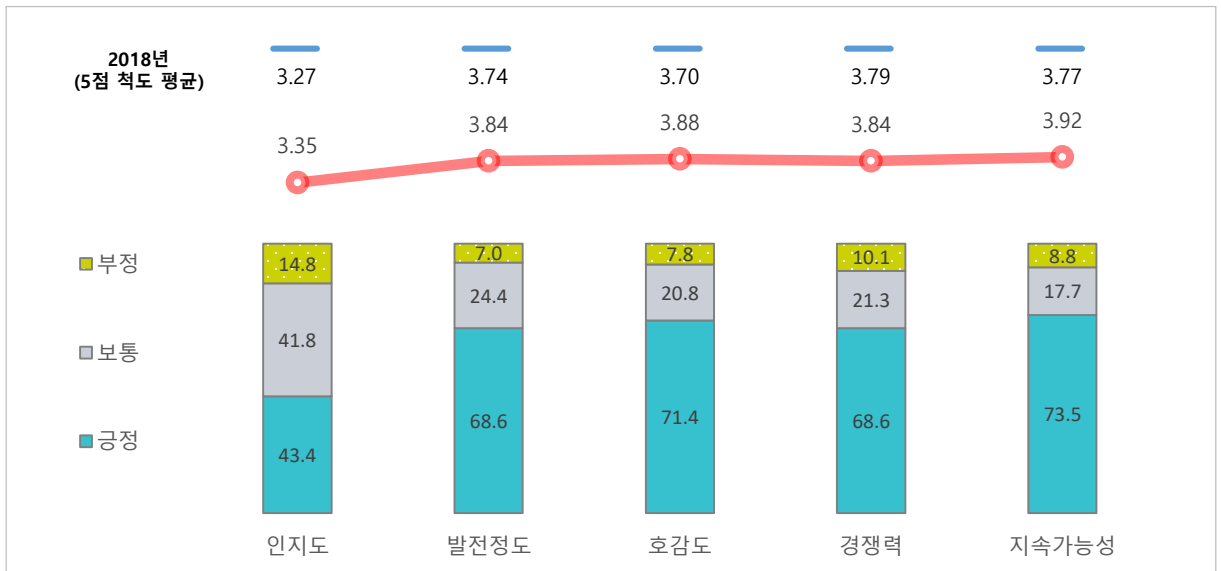
표3-7-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평가항목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78)	(182)	(196)	(39)	(87)	(75)	(74)	(103)
인지도	긍정률	43.7	51.6	36.2	33.3	52.9	45.3	44.6	37.9
	평균	3.34	3.48	3.22	3.15	3.53	3.45	3.31	3.20
우수성	긍정률	63.5	65.4	61.7	53.8	72.4	72.0	51.4	62.1
	평균	3.74	3.77	3.70	3.69	3.91	3.80	3.59	3.67
호감도	긍정률	70.9	72.5	69.4	53.8	75.9	74.7	66.2	73.8
	평균	3.82	3.87	3.77	3.62	3.97	3.87	3.72	3.81
보존성	긍정률	72.0	73.1	70.9	61.5	74.7	74.7	64.9	76.7
	평균	3.89	3.93	3.85	3.67	4.05	3.92	3.78	3.88
지속가능성	긍정률	73.5	76.9	70.4	69.2	82.8	74.7	64.9	72.8
	평균	3.96	4.02	3.89	4.03	4.18	3.93	3.76	3.89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70% 내외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속가능성'은 긍정 73.5%, 부정 8.8%로 가장 높았고, '호감도' 역시 긍정 71.4%, 부정 7.8%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7-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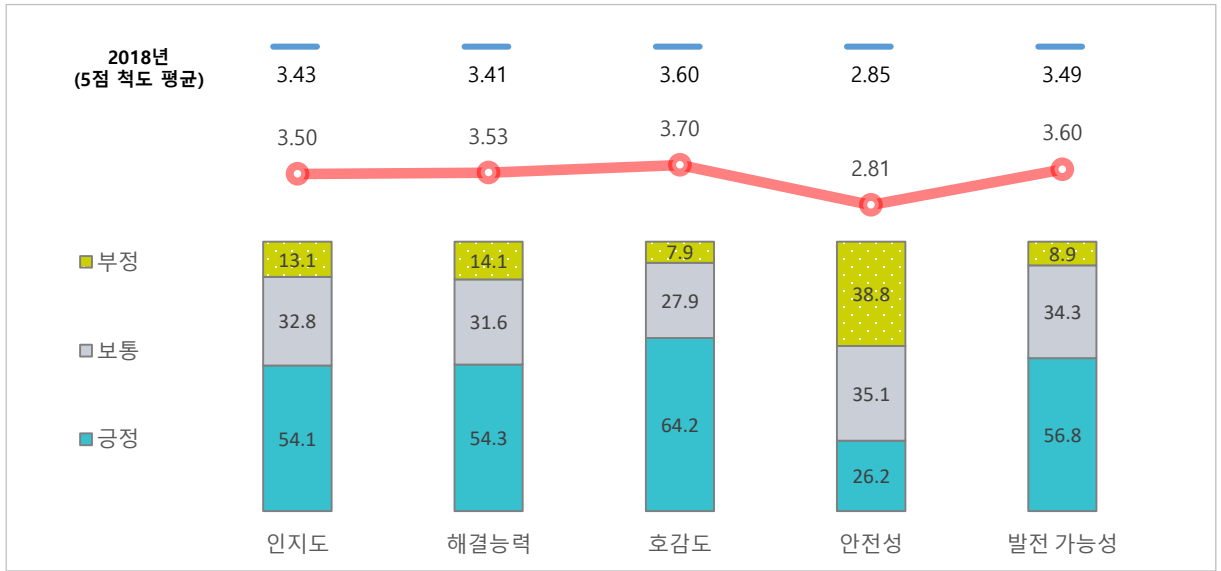
표3-7-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85)	(202)	(183)	(35)	(73)	(82)	(77)	(118)
인지도	긍정률	43.4	54.5	31.1	28.6	50.7	40.2	40.3	47.5
	평균	3.35	3.53	3.15	3.11	3.55	3.37	3.22	3.38
발전정도	긍정률	68.6	71.8	65.0	45.7	75.3	62.2	68.8	75.4
	평균	3.84	3.89	3.78	3.57	3.96	3.70	3.83	3.95
호감도	긍정률	71.4	71.8	71.0	48.6	75.3	70.7	67.5	78.8
	평균	3.88	3.93	3.83	3.51	4.04	3.88	3.73	3.99
경쟁력	긍정률	68.6	72.8	63.9	65.7	72.6	62.2	61.0	76.3
	평균	3.84	3.95	3.71	3.86	3.97	3.79	3.62	3.92
지속가능성	긍정률	73.5	77.2	69.4	74.3	74.0	69.5	61.0	83.9
	평균	3.92	4.02	3.81	4.03	4.00	3.89	3.62	4.06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의 이미지 속성 중 '호감도'에 대해 긍정 평가 64.2%, 부정 평가 7.9%로 가장 높게 평가함
- 반면, '안전성'에 대해 긍정 평가 26.2%, 부정 평가 38.8%로 평가해 미국인들은 한국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7-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평가가 높았으나 다른 분야보다 차이는 크지 않았음. 연령별로 '호감도'에 대해 50대 이상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40대가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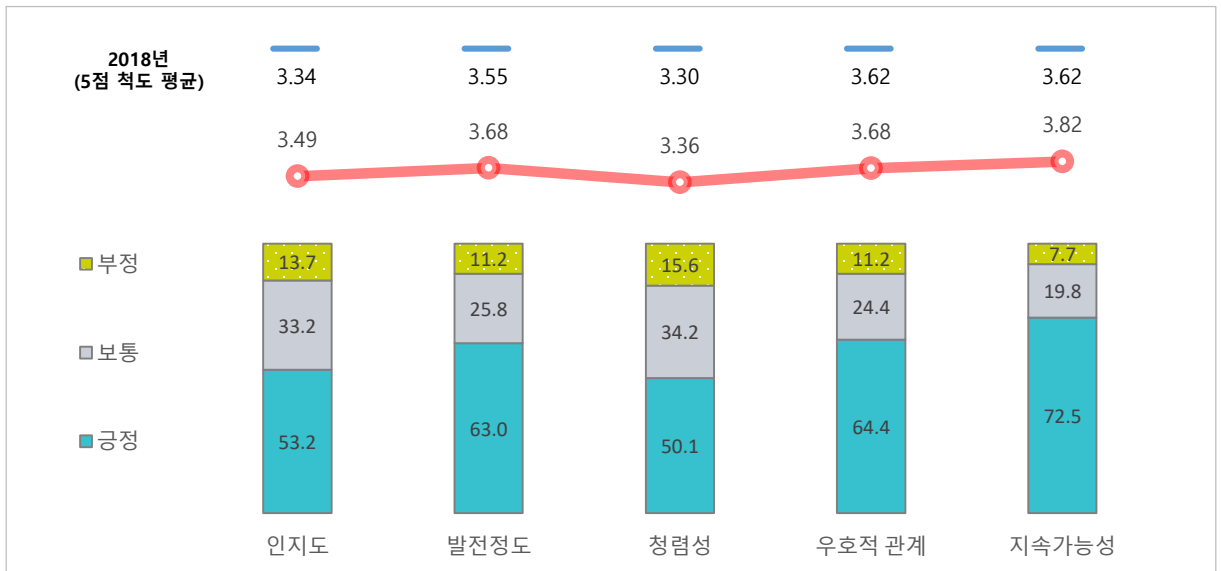
표3-7-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5)	(210)	(195)	(41)	(83)	(86)	(81)	(114)
인지도	긍정률	54.1	61.4	46.2	34.1	65.1	54.7	48.1	57.0
	평균	3.50	3.60	3.40	3.07	3.70	3.49	3.44	3.57
해결능력	긍정률	54.3	54.3	54.4	53.7	53.0	60.5	46.9	56.1
	평균	3.53	3.55	3.50	3.41	3.49	3.70	3.37	3.58
호감도	긍정률	64.2	67.1	61.0	56.1	56.6	65.1	53.1	79.8
	평균	3.70	3.79	3.61	3.59	3.59	3.72	3.51	3.95
안전성	긍정률	26.2	30.5	21.5	29.3	32.5	34.9	16.0	21.1
	평균	2.81	2.82	2.79	2.93	3.00	2.94	2.57	2.70
발전 가능성	긍정률	56.8	58.1	55.4	56.1	65.1	59.3	44.4	57.9
	평균	3.60	3.63	3.57	3.44	3.77	3.63	3.44	3.63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지속가능성'은 긍정 72.5%, 부정 7.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호적 관계'와 '발전정도'도 긍정 60%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청렴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 50.1%, 부정 15.6%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으나,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음

그림3-7-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평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대의 평가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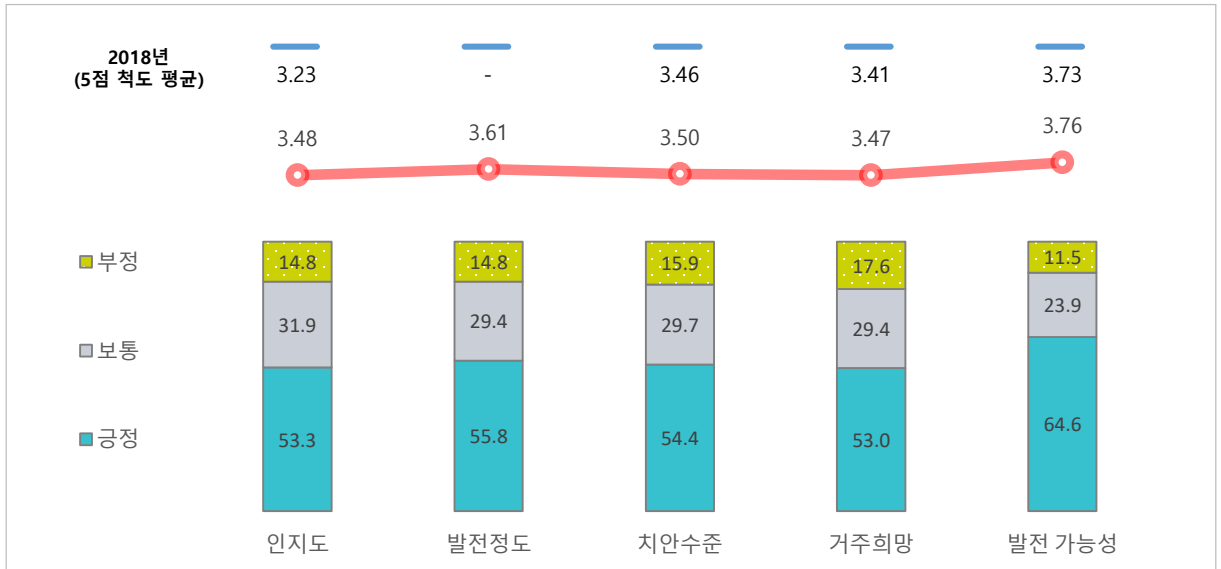
표3-7-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65)	(182)	(183)	(33)	(83)	(82)	(66)	(101)
인지도	긍정률	53.2	55.5	50.8	27.3	68.7	53.7	53.0	48.5
	평균	3.49	3.55	3.43	3.03	3.70	3.49	3.56	3.44
발전정도	긍정률	63.0	62.6	63.4	51.5	79.5	56.1	65.2	57.4
	평균	3.68	3.74	3.62	3.58	3.90	3.62	3.61	3.63
청렴성	긍정률	50.1	49.5	50.8	48.5	62.7	46.3	53.0	41.6
	평균	3.36	3.40	3.32	3.27	3.63	3.29	3.29	3.27
우호적 관계	긍정률	64.4	65.4	63.4	54.5	72.3	61.0	59.1	67.3
	평균	3.68	3.74	3.62	3.61	3.84	3.66	3.47	3.71
지속가능성	긍정률	72.5	70.9	74.2	54.5	83.1	64.6	68.2	79.0
	평균	3.82	3.81	3.84	3.58	3.98	3.74	3.74	3.90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50% 후반대의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세부 속성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평가 64.6%, 부정 평가 11.5%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 '발전정도'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55.8%, 부정 평가 14.8%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3-7-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한 가운데 '발전 가능성'은 여성이 더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발전정도'에 대해 2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표3-7-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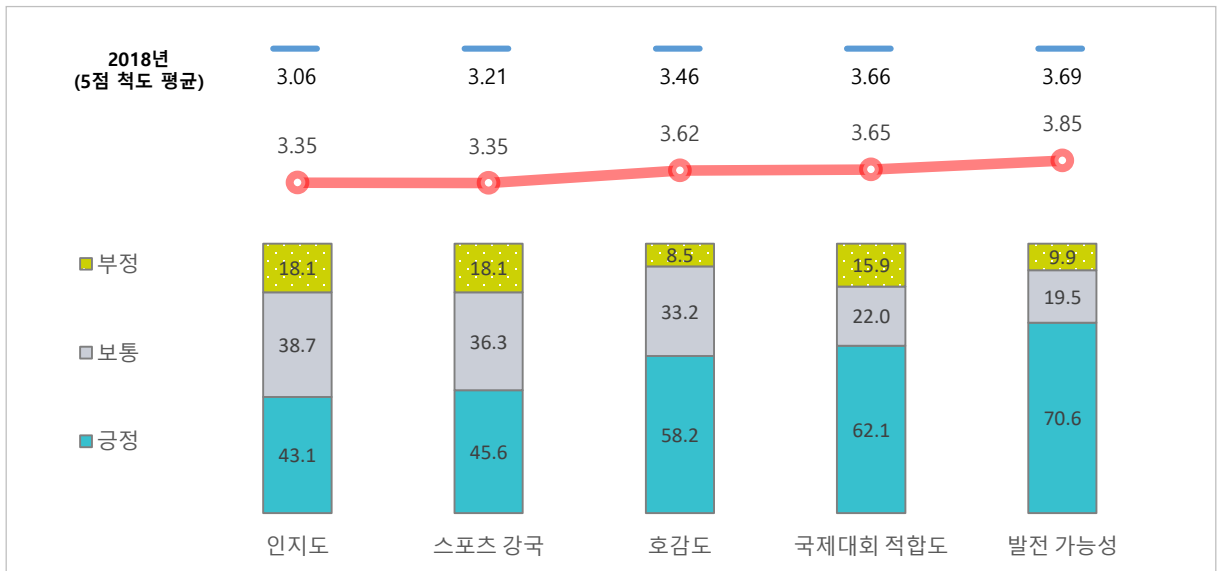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64)	(179)	(185)	(37)	(82)	(81)	(65)	(99)
인지도	긍정률	53.3	56.4	50.3	35.1	58.5	55.6	43.1	60.6
	평균	3.48	3.51	3.44	3.14	3.67	3.44	3.37	3.54
발전정도	긍정률	55.8	56.4	55.1	51.4	74.4	53.1	44.6	51.5
	평균	3.61	3.65	3.57	3.73	3.93	3.59	3.42	3.44
치안수준	긍정률	54.4	58.7	50.3	48.6	62.2	56.8	46.2	53.5
	평균	3.50	3.63	3.38	3.51	3.71	3.53	3.28	3.45
거주희망	긍정률	53.0	56.4	49.7	54.1	69.5	56.8	36.9	46.5
	평균	3.47	3.57	3.38	3.51	3.83	3.56	3.14	3.31
발전 가능성	긍정률	64.6	63.1	65.9	54.1	78.0	60.5	52.3	68.7
	평균	3.76	3.74	3.78	3.62	4.01	3.65	3.54	3.83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의 이미지 속성 중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70.6%, 부정 9.9%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대회 적합도'에 대해 긍정 62.1%, 부정 15.9%로 높게 평가함
- 반면, '스포츠 강국'에 대해 긍정 45.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

그림3-7-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 대해 남성의 평가가 높았으나, '스포츠 강국'에 대해 여성의 평가가 더 높았음.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게 평가했고, 다음으로 20대가 높음

표3-7-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64)	(179)	(185)	(36)	(74)	(72)	(71)	(111)
인지도	긍정률	43.1	49.2	37.3	38.9	47.3	41.7	46.5	40.5
	평균	3.35	3.48	3.23	3.31	3.35	3.44	3.39	3.29
스포츠강국	긍정률	45.6	44.7	46.5	38.9	45.9	43.1	42.3	51.4
	평균	3.35	3.34	3.36	3.11	3.38	3.39	3.30	3.41
호감도	긍정률	58.2	60.3	56.2	47.2	55.4	56.9	53.5	67.6
	평균	3.62	3.68	3.57	3.28	3.65	3.71	3.61	3.68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62.1	66.5	57.8	58.3	62.2	59.7	57.7	67.6
	평균	3.65	3.75	3.55	3.39	3.65	3.69	3.59	3.73
발전 가능성	긍정률	70.6	72.6	68.6	61.1	74.3	69.4	59.2	79.3
	평균	3.85	3.87	3.83	3.58	3.97	3.82	3.72	3.95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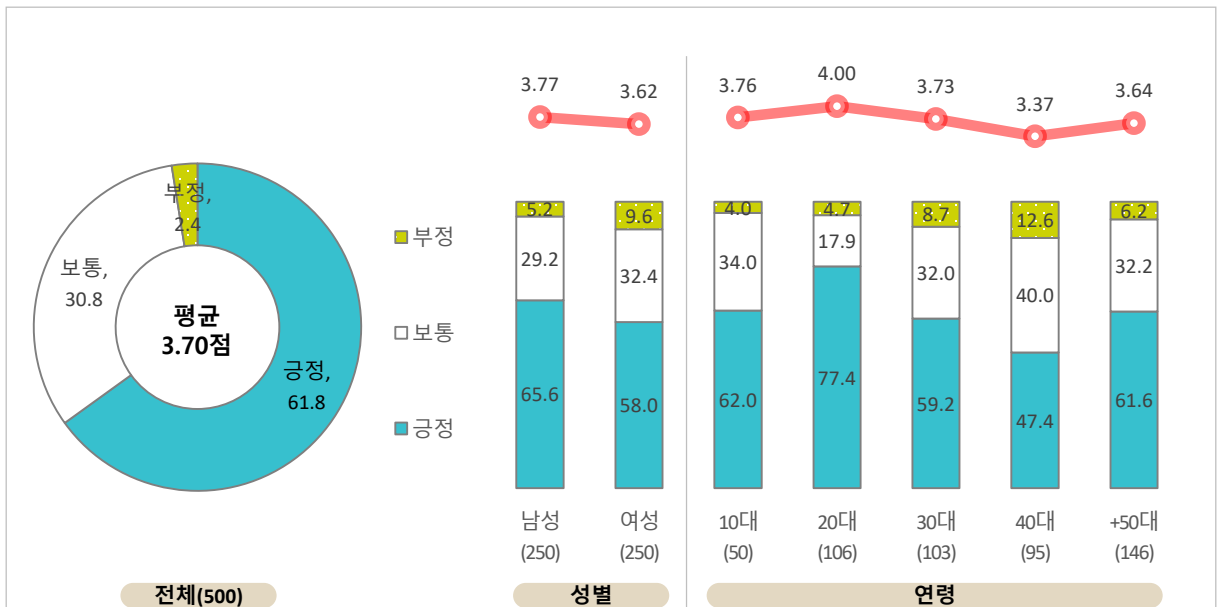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61.8%, 부정 2.4%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더 많은 정보를 접함',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전쟁/핵 위험'과 '정부/정치적 문제'가 가장 많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변화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의 긍정 변화가 가장 높았고, 40대가 가장 낮았음

그림3-7-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긍정적 변화 이유(n=309)

더 많은 정보를 접함	9.1
문화/전통	8.1
북한/남북관계	7.1
K-POP/가수	5.2
그냥 좋다	2.9
호감/호의적임	2.9
한국인	2.9
사회/경제/경제발전	2.6
한국산 제품이 좋음	2.6
한국인 친구/지인	2.6

(상위 10개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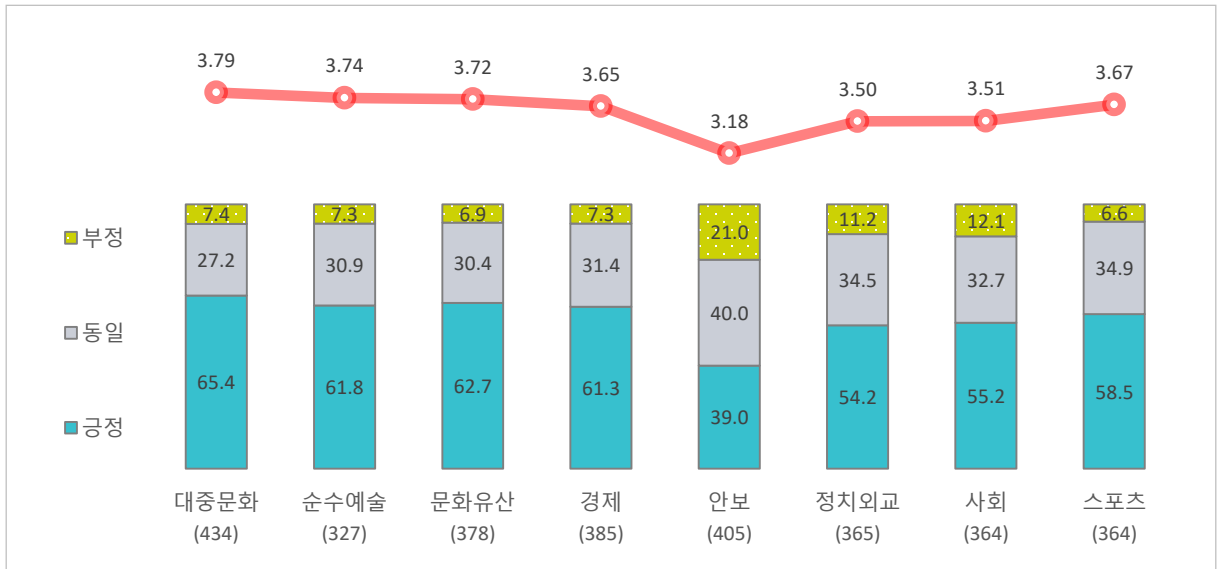
#### 부정적 변화 이유(n=37)

전쟁/핵 위험	16.2
정부/정치적 문제	10.8
북한 문제	8.1
외교문제	2.7
부정적 매체의 영향	2.7
일본과 외교문제	2.7
그냥 싫다	2.7
K-POP에 부정적	2.7
한미관계	2.7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대중문화', '순수예술', '문화유산', '경제'는 긍정 6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보'는 긍정이 39.0%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7-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대부분의 분야에서 남성의 긍정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긍정 변화가 가장 높았으며, 40대의 긍정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3-7-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65.4	65.4	65.4	62.2	77.1	66.3	51.9	65.5
	평균	3.79	3.85	3.73	3.91	4.14	3.84	3.43	3.67
순수예술	긍정률	61.8	64.8	58.6	69.4	77.3	64.8	47.5	52.4
	평균	3.74	3.82	3.66	3.92	4.05	3.80	3.49	3.51
문화유산	긍정률	62.7	67.6	58.2	56.4	78.2	66.7	45.9	61.2
	평균	3.72	3.84	3.62	3.77	3.99	3.80	3.46	3.62
경제	긍정률	61.3	62.9	59.6	60.0	76.7	59.8	48.1	61.9
	평균	3.65	3.70	3.61	3.66	3.96	3.66	3.43	3.61
안보	긍정률	39.0	45.2	32.3	41.5	47.0	36.0	22.2	46.5
	평균	3.18	3.32	3.03	3.17	3.36	3.24	2.83	3.25
정치외교	긍정률	54.2	59.9	48.6	45.5	68.7	52.4	39.4	56.4
	평균	3.50	3.62	3.39	3.33	3.78	3.48	3.23	3.53
사회	긍정률	55.2	58.7	51.9	48.6	70.7	56.8	35.4	56.6
	평균	3.51	3.56	3.45	3.38	3.79	3.53	3.26	3.45
스포츠	긍정률	58.5	63.1	54.1	55.6	73.0	58.3	40.8	61.3
	평균	3.67	3.74	3.61	3.69	3.95	3.74	3.37	3.63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13.2%),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3.0%),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2.8%) 순으로 나타남

그림3-7-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은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여성은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 연령별로는 40-50대가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선과제로 많이 응답함

표3-7-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50)	(106)	(103)	(95)	(146)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38.2	38.8	37.6	20.0	31.1	29.1	49.5	48.6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3.2	10.8	15.6	14.0	15.1	16.5	11.6	10.3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3.0	16.8	9.2	16.0	14.2	10.7	13.7	12.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2.8	10.0	15.6	18.0	18.9	11.7	8.4	10.3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9.8	10.0	9.6	20.0	10.4	11.7	6.3	6.8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9.8	11.2	8.4	10.0	8.5	16.5	8.4	6.8
기타	3.2	2.4	4.0	2.0	1.9	3.9	2.1	4.8

## 08

## 멕시코



## 1 일반개요

위치	북으로는 미국과 접경(3,152 km), 남으로는 과테말라 및 벨리즈 등과 접경	언어	스페인어
수도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 CDMX), 면적 1,495km <sup>2</sup> , 해발 2,240m	종교	가톨릭, 개신교, 여호와의 증인
인구	1억 2,596만명	1인당 GDP	9,858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1%p 씩 하향 조정(IMF, 2019년 7월 기준)
  - 무역 및 기술 갈등 고조, 금융 취약성으로 인한 위험 증가,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디스인플레이션 증가 이유
- USMCA 체결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 상승으로 직접 진출 및 생산이 유리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2018년 10월,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서울에서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 수출, 투자, 신산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 투자 성과발표회 개최

- 멕시코 진출 지상사협의회와 함께 한-멕시코 경제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

## K-뷰티 &amp; 한국문화체험 행사 성료

- 2019년 9월 중남미 소비재수출대전 행사에서 한국문화 홍보
- K-뷰티 상품을 테마로 한 이번 행사를 찾은 한류 팬들은 1만 명으로 성료
- 2019년 2월부터 문화원 강의실에서 2주마다 개최하고 있는 K-뷰티 특집 컨퍼런스 또한 인기가 날로 높아져 매회 만원 관객 달성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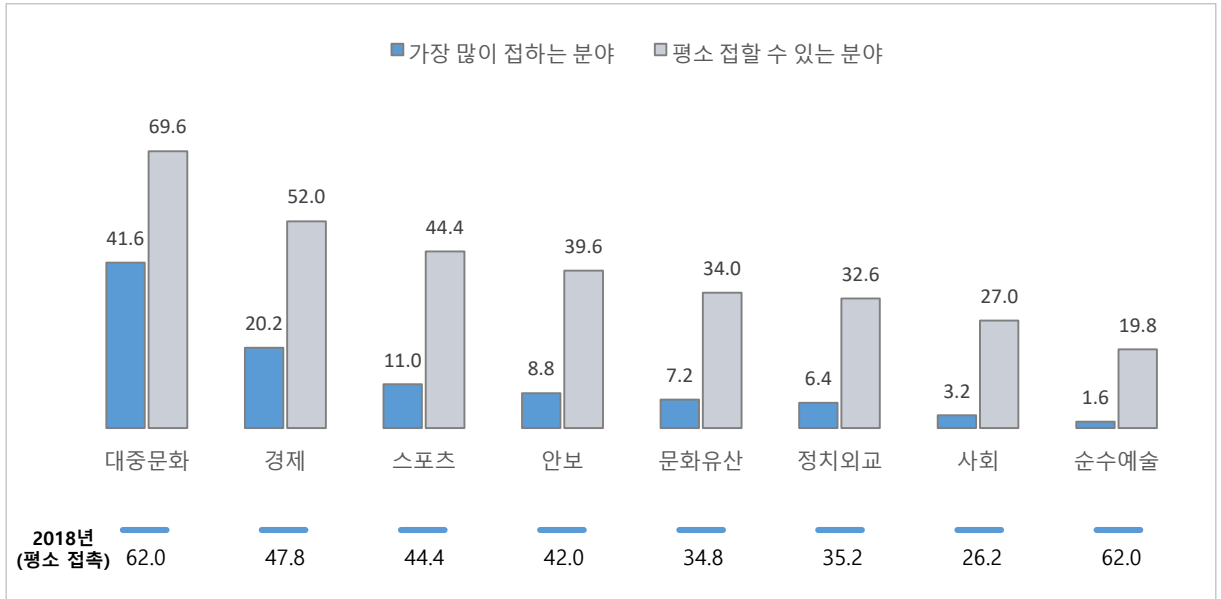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69.6%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분야의 접촉 비중이 전년 대비 높아졌으나 큰 차이는 없음

그림3-8-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경제', '스포츠', '안보'는 남성이 여성 대비 접촉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3-8-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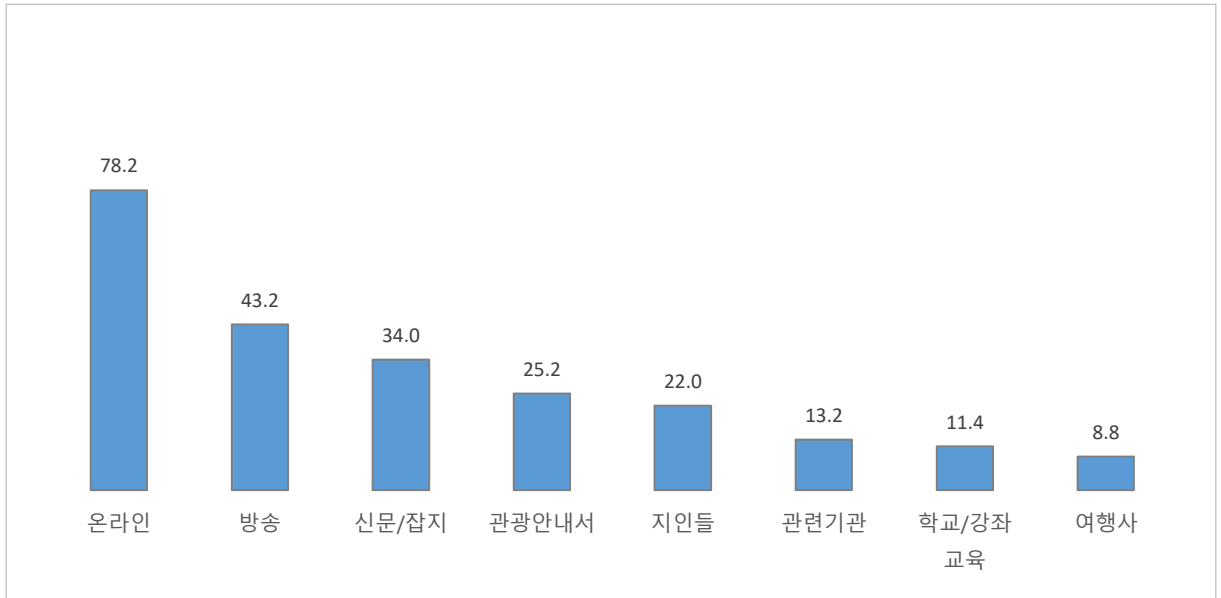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7)	(129)	(113)	(98)	(93)
대중문화	69.6	68.8	70.4	74.6	83.7	73.5	62.2	49.5
경제	52.0	59.6	44.4	34.3	49.6	50.4	61.2	60.2
스포츠	44.4	50.0	38.8	32.8	36.4	45.1	58.2	48.4
안보	39.6	44.0	35.2	29.9	39.5	35.4	48.0	43.0
문화유산	34.0	33.2	34.8	32.8	34.1	39.8	30.6	31.2
정치외교	32.6	37.2	28.0	29.9	29.5	38.1	32.7	32.3
사회	27.0	31.2	22.8	26.9	34.1	25.7	26.5	19.4
순수예술	19.8	15.6	24.0	25.4	20.2	20.4	24.5	9.7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 > '방송'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8-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과 '온라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지인들'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온라인'은 10~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3-8-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7)	(129)	(113)	(98)	(93)
온라인	78.2	76.8	79.6	88.1	82.9	77.0	77.6	66.7
방송	43.2	43.2	43.2	47.8	34.9	40.7	42.9	54.8
신문/잡지	34.0	34.0	34.0	32.8	31.8	35.4	27.6	43.0
관광안내서	25.2	24.0	26.4	17.9	23.3	27.4	30.6	24.7
지인들	22.0	19.6	24.4	22.4	26.4	21.2	20.4	18.3
관련기관	13.2	14.4	12.0	9.0	9.3	17.7	16.3	12.9
학교/강좌 교육	11.4	12.4	10.4	16.4	10.9	11.5	13.3	6.5
여행사	8.8	10.0	7.6	6.0	10.1	10.6	10.2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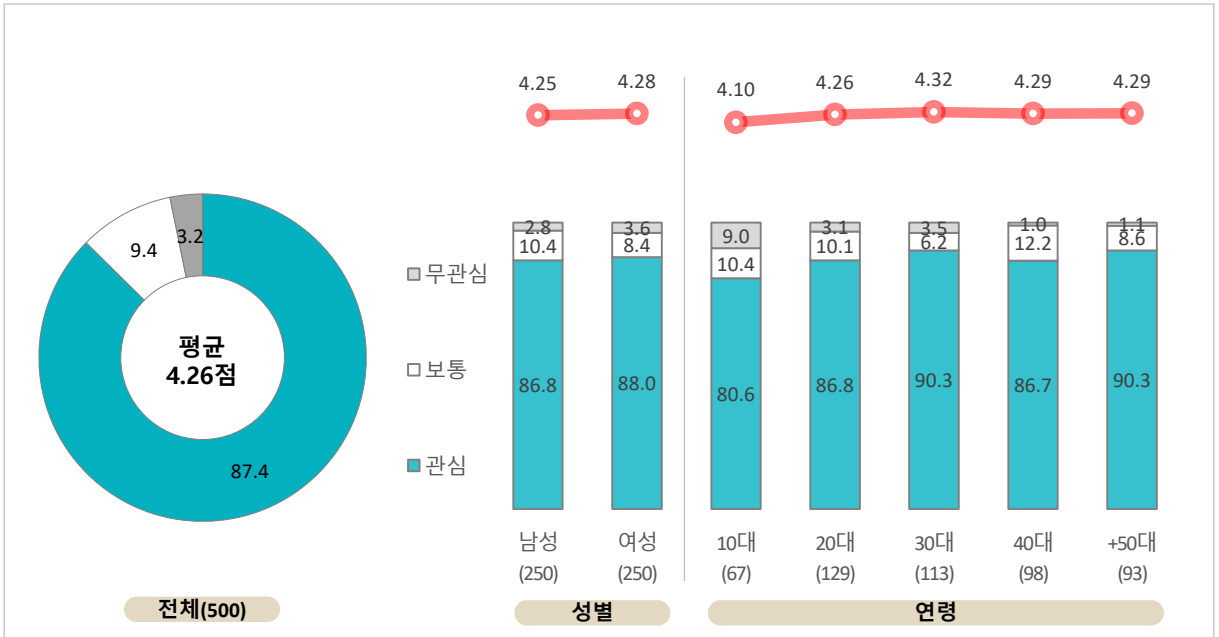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87.4%, '관심 없다'가 3.2%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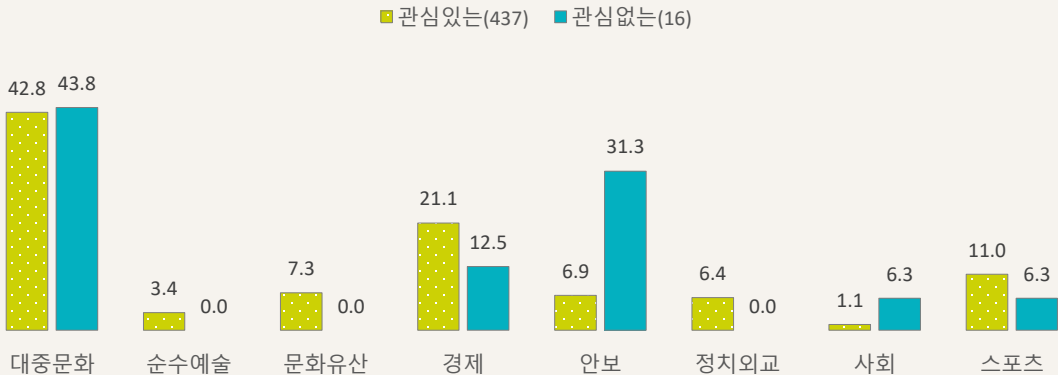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관심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성이 관심도가 약간 더 높았음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이상의 관심도가 가장 높음

그림3-8-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멕시코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경제', '스포츠'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멕시코인들은 '대중문화'와 '안보', '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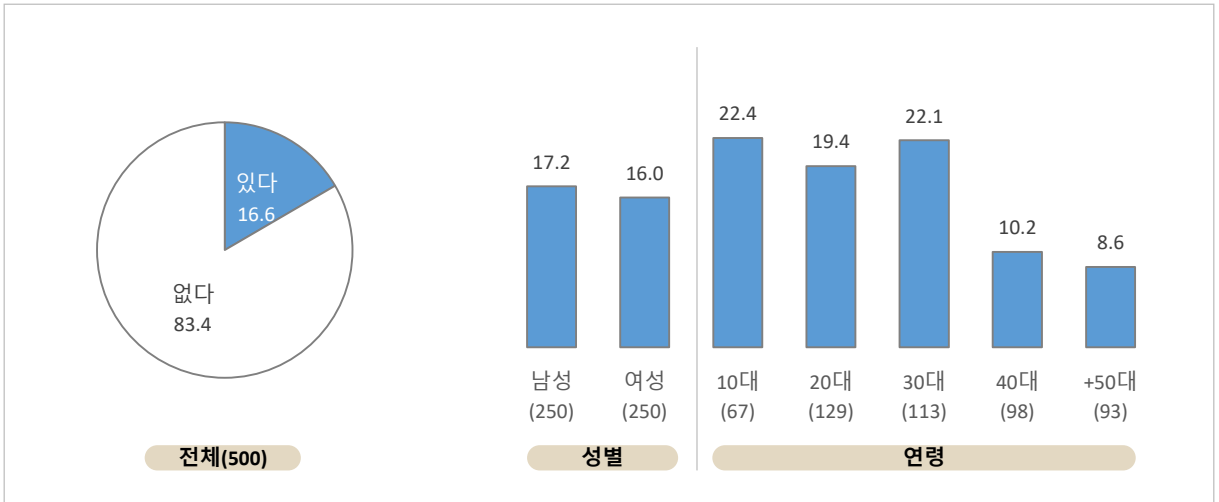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6.6%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84.3%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연령별로는 10대와 30대가 많았음

그림3-8-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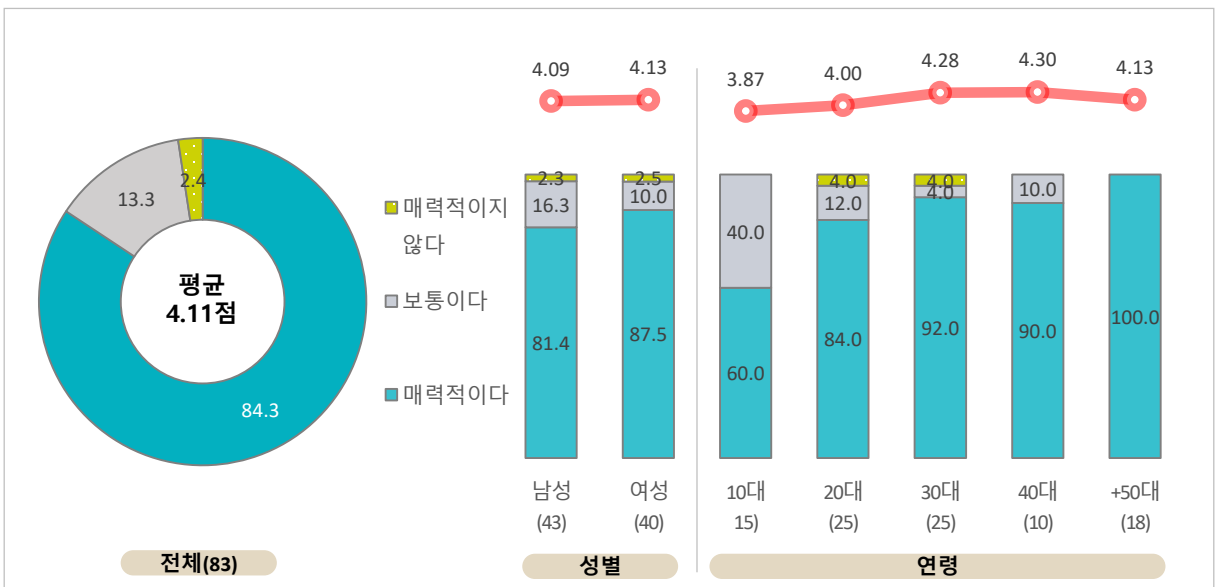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의 긍정 인식이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음

그림3-8-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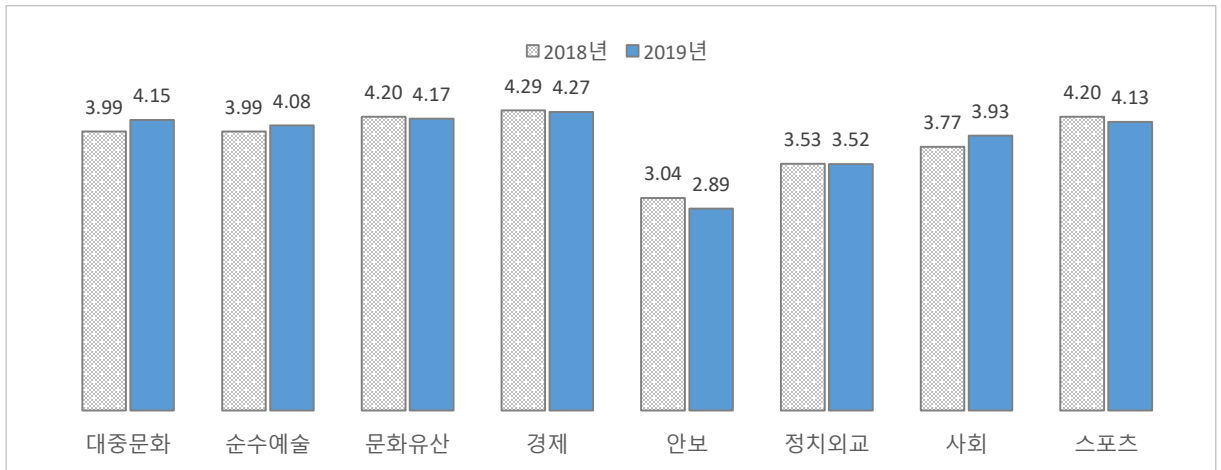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 '문화유산', '대중문화' 분야는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안보'의 호감도는 2.89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함

그림3-8-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임

표3-8-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7)	(129)	(113)	(98)	(93)
대중문화	긍정률	80.6	82.9	78.3	74.1	78.5	82.5	76.8	91.3
	평균	4.15	4.14	4.17	4.05	4.12	4.19	4.11	4.30
순수예술	긍정률	81.1	82.5	79.9	71.1	72.2	84.7	82.3	96.0
	평균	4.08	4.08	4.07	3.95	3.94	4.07	4.15	4.32
문화유산	긍정률	83.1	84.1	82.2	76.9	78.9	86.4	84.0	88.7
	평균	4.17	4.20	4.15	3.94	4.18	4.16	4.25	4.29
경제	긍정률	86.6	88.4	84.6	76.6	82.1	84.8	93.0	94.7
	평균	4.27	4.31	4.22	4.06	4.21	4.07	4.43	4.56
안보	긍정률	30.0	30.9	29.1	24.1	25.3	31.1	34.1	34.6
	평균	2.89	2.89	2.88	2.78	2.76	2.82	3.08	2.99
정치외교	긍정률	66.8	68.2	65.4	55.9	62.6	61.5	76.0	80.6
	평균	3.52	3.58	3.47	3.36	3.39	3.51	3.55	3.89
사회	긍정률	78.1	81.4	74.7	64.4	72.5	75.0	85.0	93.8
	평균	3.93	3.99	3.87	3.73	3.81	3.86	4.05	4.22
스포츠	긍정률	85.0	86.9	83.0	82.6	84.4	83.7	90.4	82.9
	평균	4.13	4.14	4.12	4.00	4.08	4.10	4.28	4.13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82.2%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2.8%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인종차별', '불친절하다', '나라 특성/문화'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문재인' > 'BTS' > '싸이' > '대통령' 순으로 나타남

그림3-8-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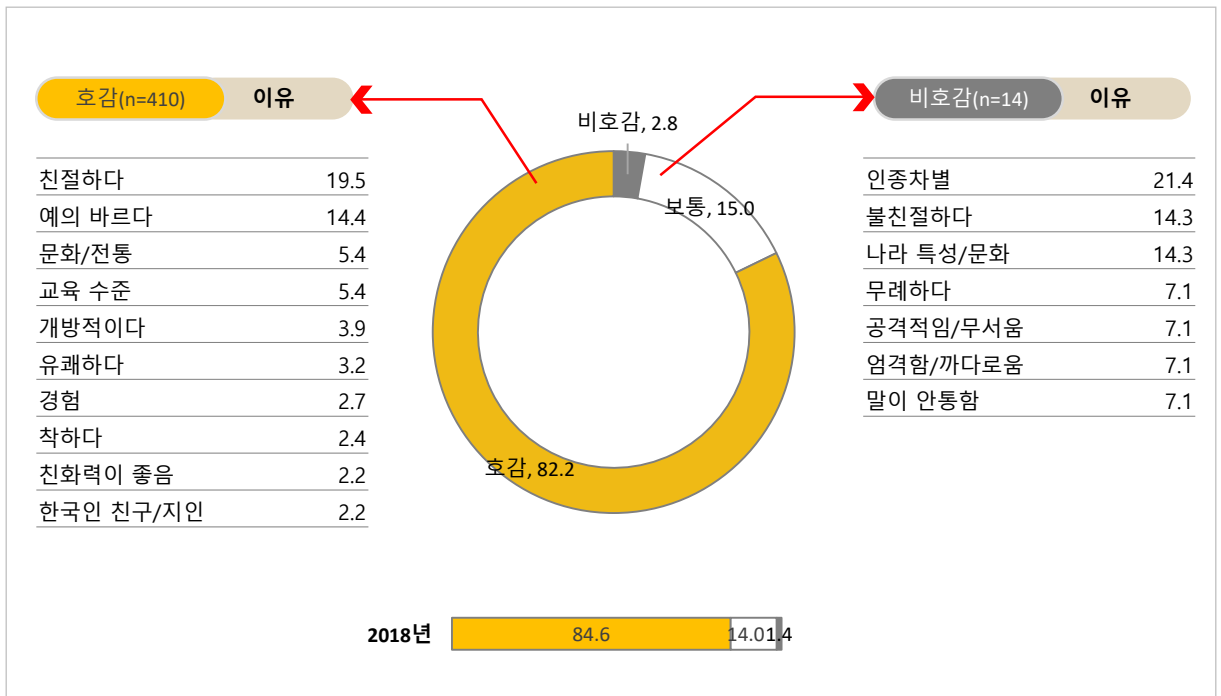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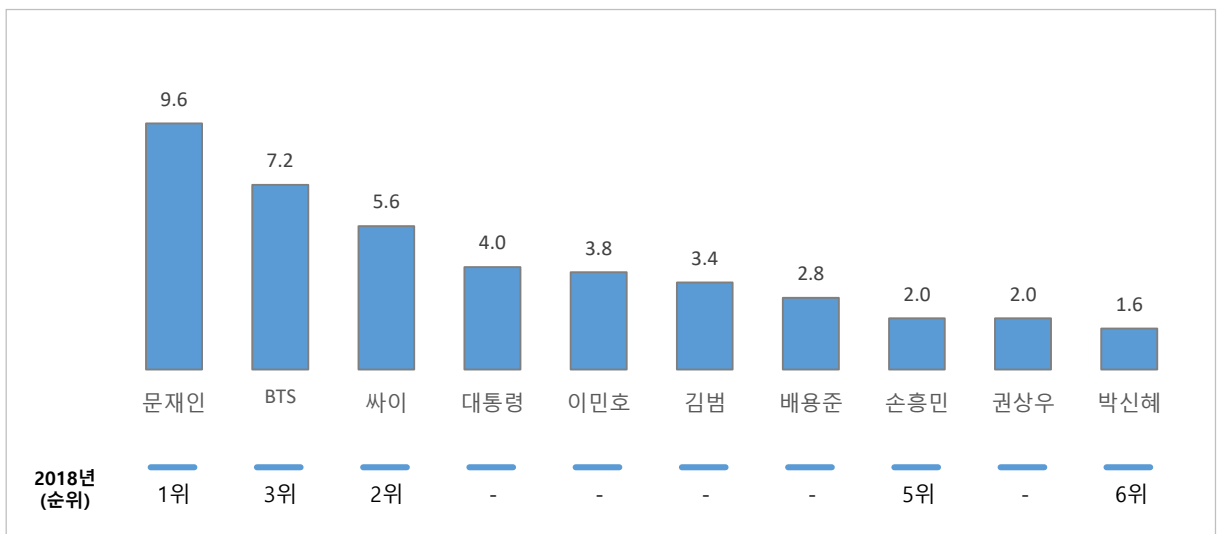


그림3-8-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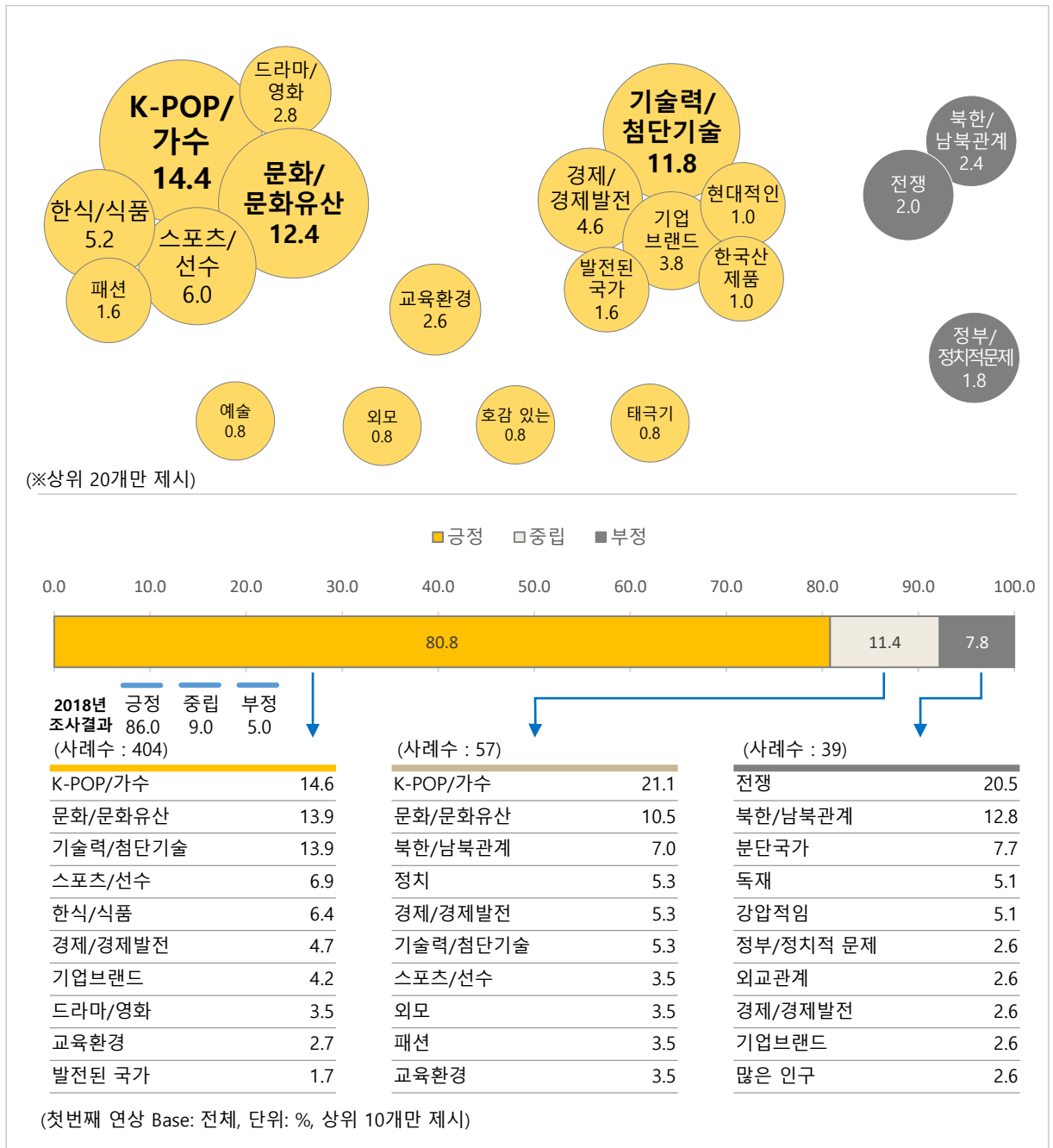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 멕시코인들은 '한국'하면 'K-POP/가수'를 가장 많이 떠올림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80.8%, 부정 7.8%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K-POP/가수', 부정이미지 연상은 '전쟁'이 가장 많았음

그림3-8-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91.6%, 5점 만점 4.30점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북핵문제', '전쟁'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이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3-8-10.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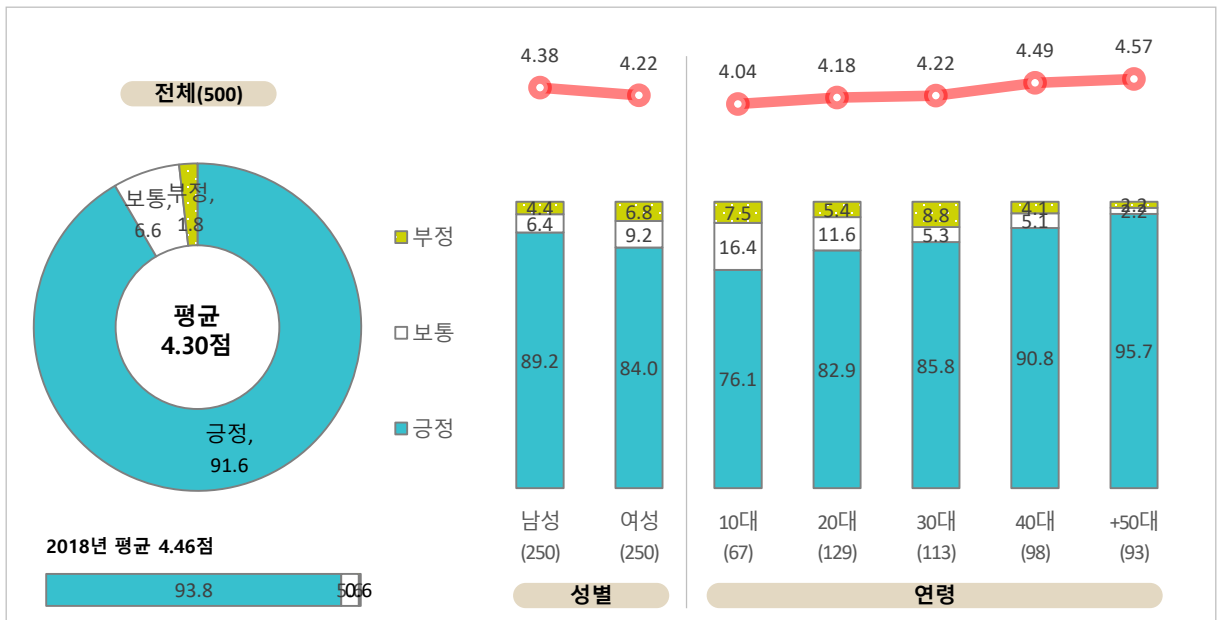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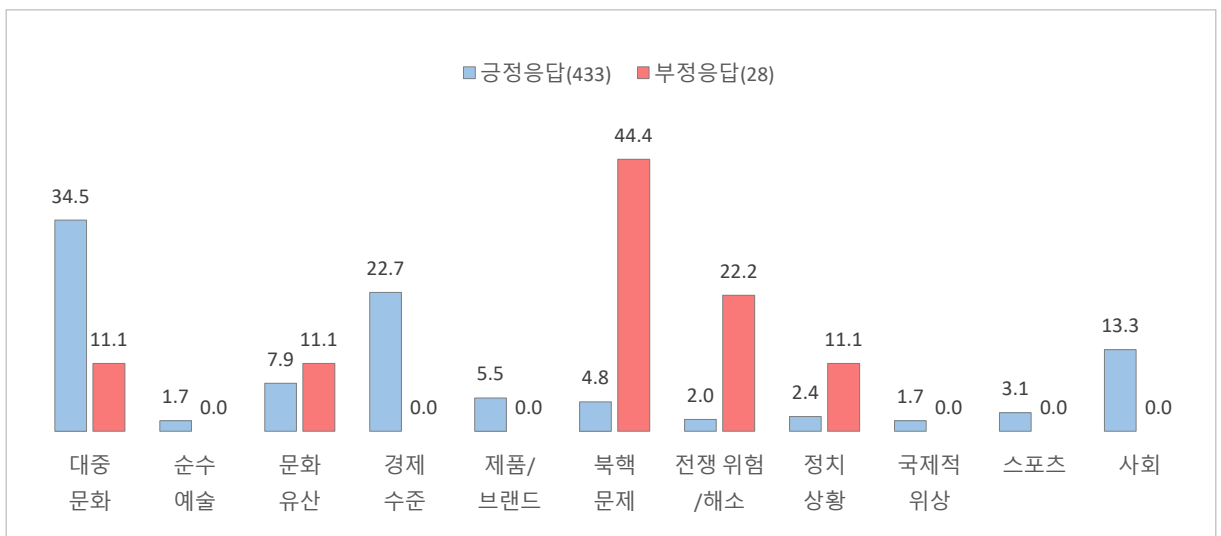


그림3-8-11.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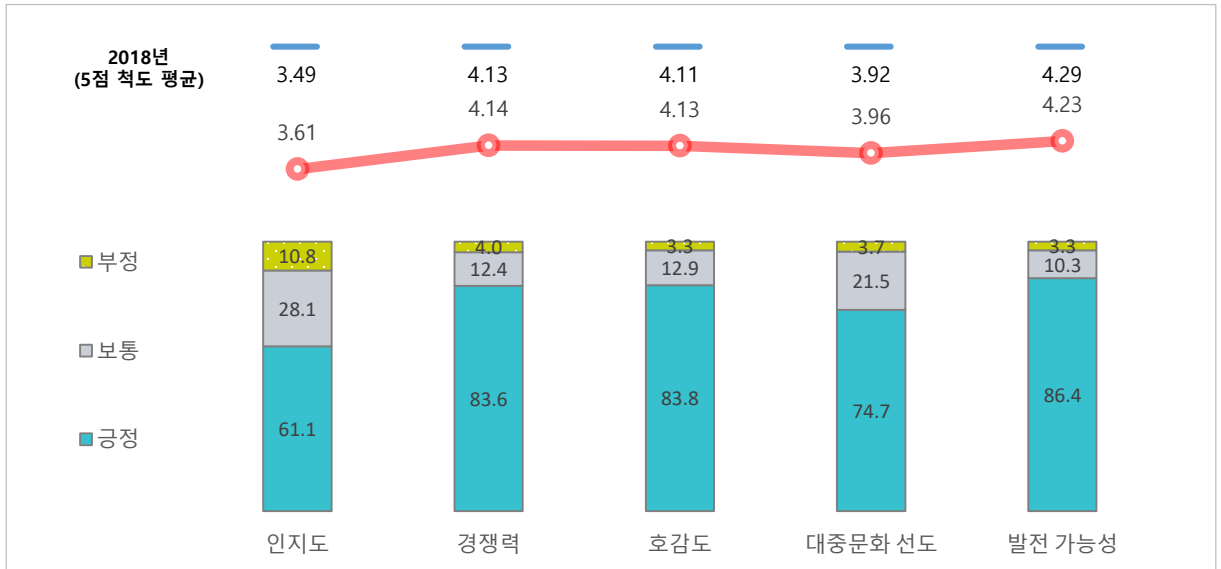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 80% 내외, 부정 평가 5% 내외로 긍정 평가가 우세하였음
- 세부속성별로 '대중문화 선도'의 긍정 평가는 74.7%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3-8-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 대해 남성들이 여성보다 이미지 속성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평가가 높고, 10대의 평가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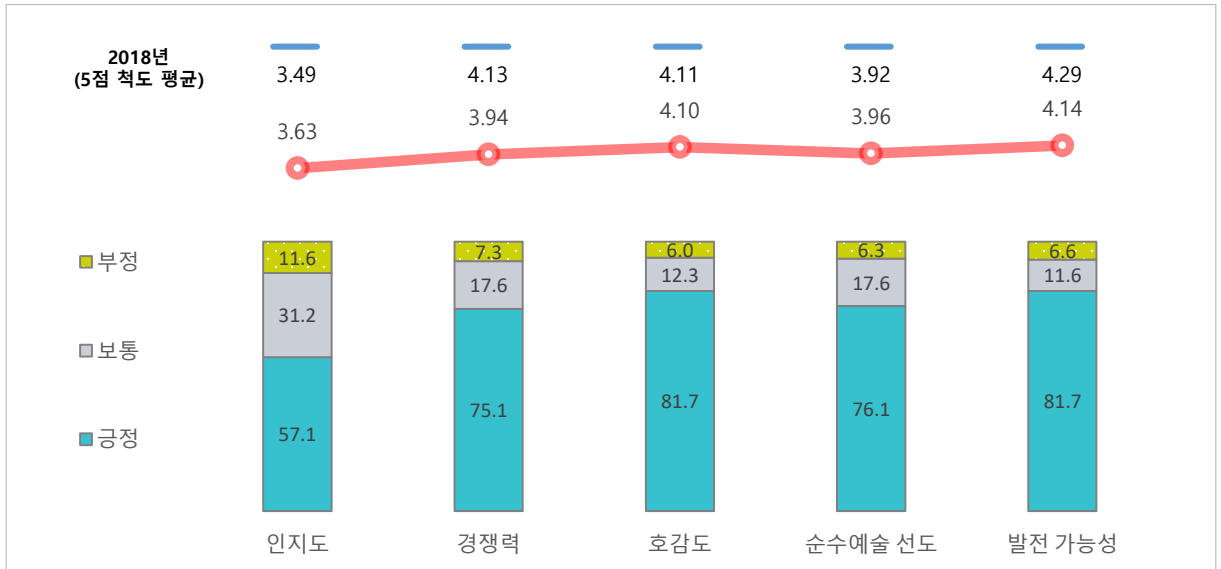
표3-8-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7)	(210)	(217)	(58)	(121)	(97)	(82)	(69)
인지도	긍정률	61.1	64.3	58.1	53.4	55.4	67.0	64.6	65.2
	평균	3.61	3.66	3.55	3.57	3.51	3.76	3.60	3.59
경쟁력	긍정률	83.6	86.7	80.6	67.2	80.2	88.7	86.6	92.8
	평균	4.14	4.18	4.10	3.86	4.07	4.24	4.21	4.28
호감도	긍정률	83.8	86.2	81.6	77.6	77.7	86.6	86.6	92.8
	평균	4.13	4.16	4.10	3.98	4.00	4.21	4.18	4.30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74.7	75.2	74.2	65.5	66.9	81.4	78.0	82.6
	평균	3.96	3.95	3.98	3.83	3.79	4.07	4.09	4.09
발전 가능성	긍정률	86.4	86.2	86.6	79.3	81.0	91.8	86.6	94.2
	평균	4.23	4.22	4.24	4.10	4.14	4.30	4.27	4.38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의 긍정 평가가 81.7%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그림3-8-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고, 특히 '경쟁력'에 대한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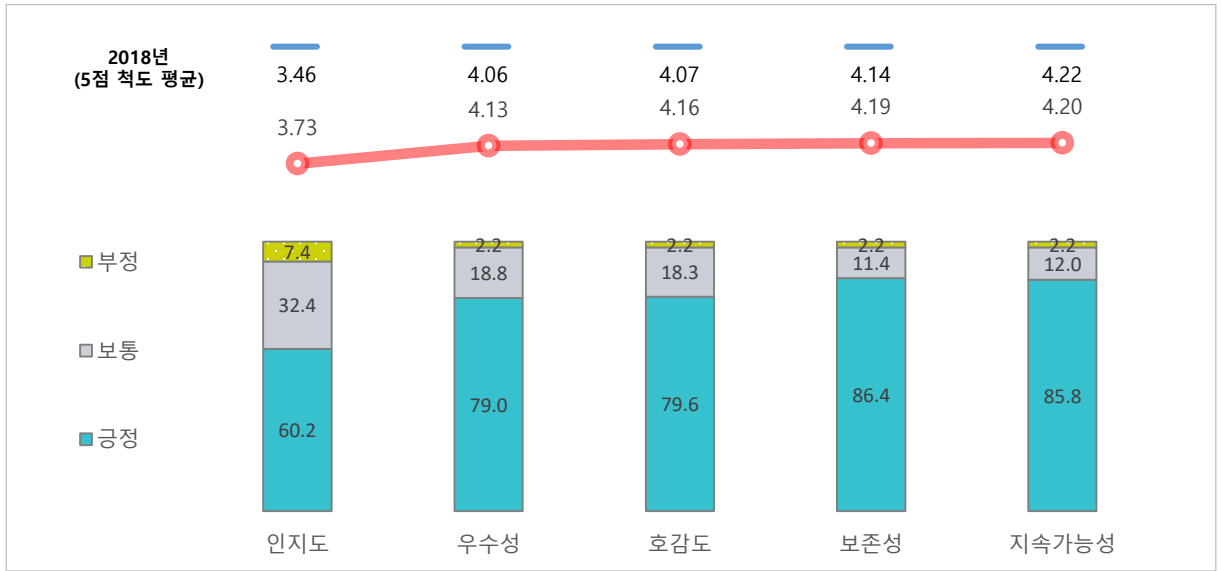
표3-8-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01)	(137)	(164)	(38)	(79)	(72)	(62)	(50)
인지도	긍정률	57.1	59.1	55.5	36.8	51.9	68.1	54.8	68.0
	평균	3.63	3.69	3.58	3.29	3.47	3.89	3.55	3.88
경쟁력	긍정률	75.1	80.3	70.7	52.6	73.4	77.8	74.2	92.0
	평균	3.94	4.05	3.84	3.42	3.82	4.03	4.02	4.28
호감도	긍정률	81.7	82.5	81.1	71.1	74.7	84.7	85.5	92.0
	평균	4.10	4.12	4.09	3.76	3.94	4.14	4.27	4.36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76.1	78.8	73.8	60.5	73.4	81.9	74.2	86.0
	평균	3.96	4.02	3.90	3.66	3.86	4.08	3.98	4.12
발전 가능성	긍정률	81.7	81.8	81.7	68.4	74.7	88.9	80.6	94.0
	평균	4.14	4.15	4.12	3.87	3.96	4.22	4.18	4.44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존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음
- '문화유산'의 대부분의 속성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으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3-8-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1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3-8-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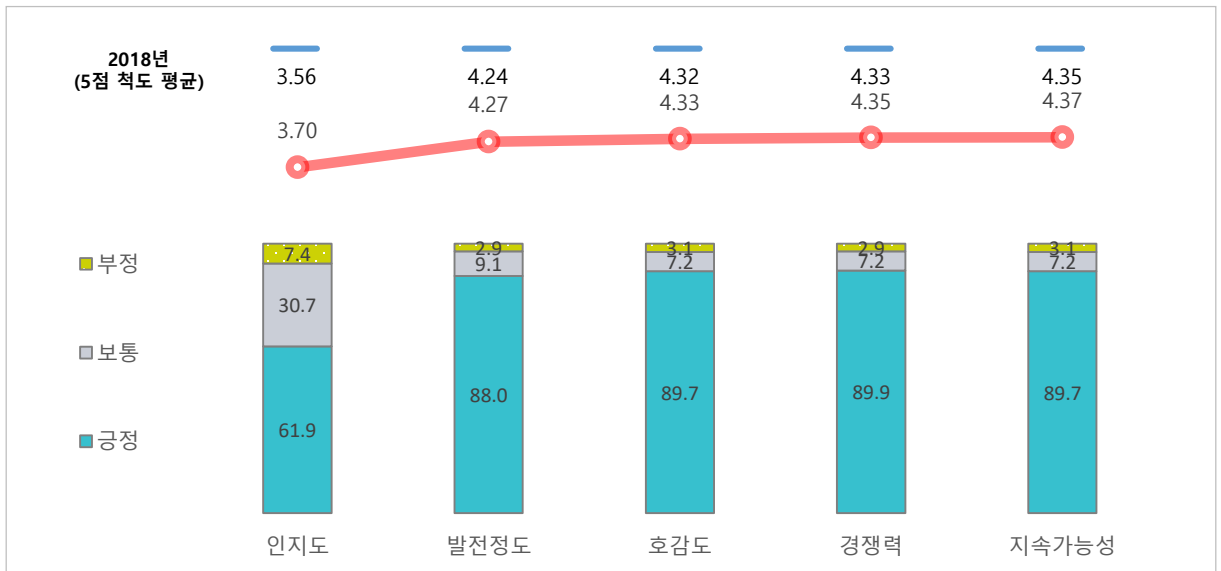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67)	(182)	(185)	(52)	(90)	(88)	(75)	(62)
인지도	긍정률	60.2	62.6	57.8	46.2	57.8	65.9	72.0	53.2
	평균	3.73	3.79	3.68	3.46	3.73	3.86	3.91	3.55
우수성	긍정률	79.0	79.7	78.4	67.3	78.9	87.5	74.7	82.3
	평균	4.13	4.16	4.09	3.92	4.13	4.28	4.09	4.11
호감도	긍정률	79.6	79.7	79.5	65.4	76.7	88.6	82.7	79.0
	평균	4.16	4.23	4.10	3.85	4.13	4.32	4.24	4.16
보존성	긍정률	86.4	87.4	85.4	80.8	85.6	88.6	88.0	87.1
	평균	4.19	4.23	4.15	4.00	4.18	4.25	4.28	4.16
지속가능성	긍정률	85.8	87.9	83.8	78.8	83.3	90.9	85.3	88.7
	평균	4.20	4.24	4.15	3.98	4.18	4.25	4.24	4.27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80% 후반대로, 부정 평가가 5%대 미만으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쟁력'은 긍정 89.9%, 부정 2.9%로 가장 높았고, '발전정도' 역시 긍정 88.0%, 부정 2.9%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8-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과 3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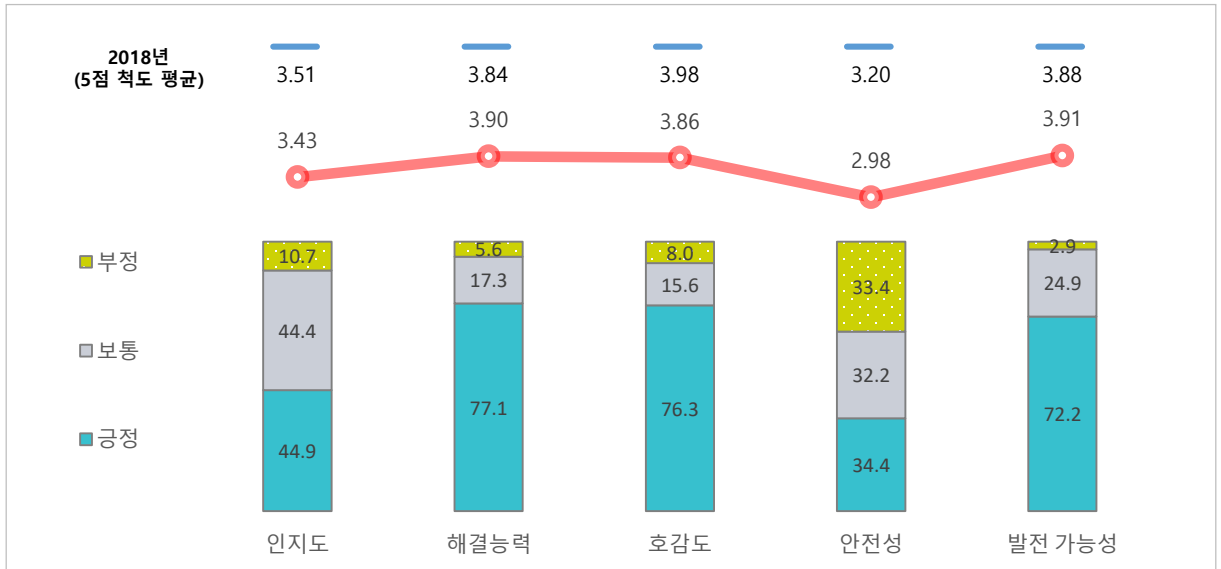
표3-8-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7)	(216)	(201)	(47)	(117)	(92)	(86)	(75)
인지도	긍정률	61.9	63.0	60.7	66.0	57.3	62.0	64.0	64.0
	평균	3.70	3.69	3.70	3.83	3.66	3.72	3.60	3.75
발전정도	긍정률	88.0	88.0	88.1	85.1	85.5	88.0	87.2	94.7
	평균	4.27	4.27	4.26	4.17	4.23	4.15	4.41	4.37
호감도	긍정률	89.7	90.7	88.6	87.2	84.6	90.2	91.9	96.0
	평균	4.33	4.31	4.35	4.28	4.22	4.30	4.40	4.47
경쟁력	긍정률	89.9	91.2	88.6	83.0	86.3	90.2	93.0	96.0
	평균	4.35	4.40	4.30	4.17	4.27	4.25	4.48	4.59
지속가능성	긍정률	89.7	90.7	88.6	87.2	82.9	91.3	93.0	96.0
	평균	4.37	4.38	4.35	4.36	4.23	4.33	4.45	4.53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해결능력',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은 긍정평가가 5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0% 이하로 나타났음
- 전년도와 비교해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하락했으며, 응답자의 33.4%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8-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의 평가가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호감도'에 대해 남성이 더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호감도'에 대해 50대 이상이 가장 높고, 10대가 가장 낮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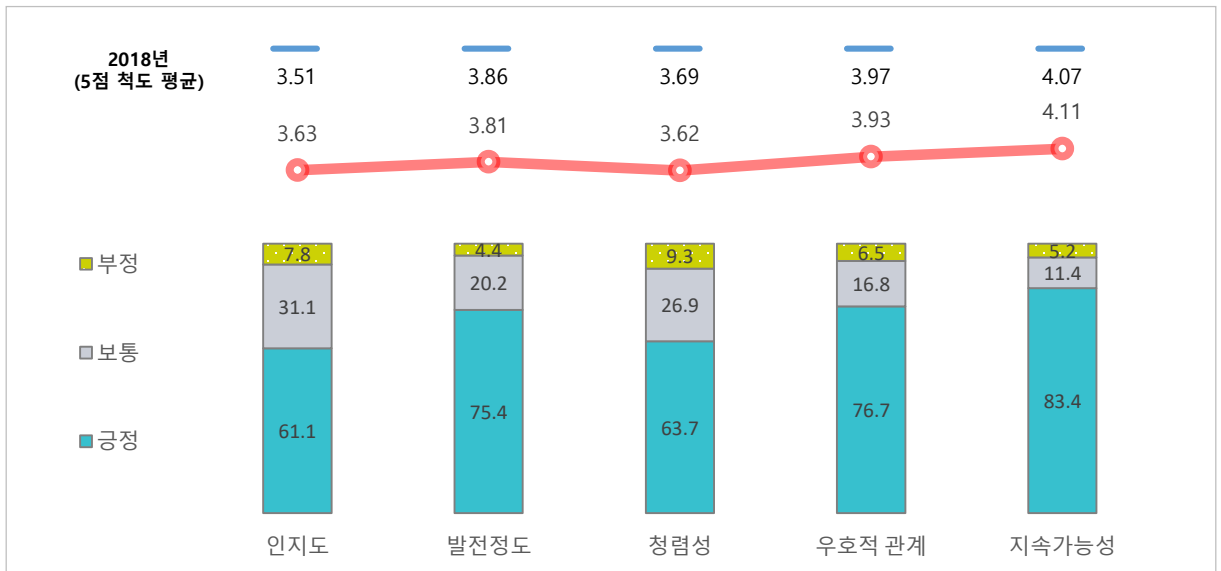
표3-8-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속성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0)	(207)	(203)	(58)	(99)	(90)	(85)	(78)
인지도	긍정률	44.9	50.7	38.9	51.7	43.4	44.4	38.8	48.7
	평균	3.43	3.52	3.34	3.48	3.35	3.47	3.34	3.55
해결능력	긍정률	77.1	79.2	74.9	75.9	75.8	81.1	77.6	74.4
	평균	3.90	3.94	3.85	3.93	3.81	4.01	3.91	3.85
호감도	긍정률	76.3	81.6	70.9	69.0	72.7	78.9	77.6	82.1
	평균	3.86	3.97	3.75	3.79	3.76	3.88	3.88	4.01
안전성	긍정률	34.4	36.7	32.0	36.2	32.3	40.0	38.8	24.4
	평균	2.98	2.95	3.01	3.07	2.92	3.03	3.12	2.79
발전 가능성	긍정률	72.2	74.9	69.5	69.0	62.6	77.8	81.2	70.5
	평균	3.91	3.97	3.85	3.86	3.74	4.04	4.06	3.85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의 이미지 속성 중 '지속가능성' 대해 긍정 83.4%, 부정 5.2%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반면 '청렴성'에 대해 긍정 63.7%, 부정 9.3%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3-8-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우호적 관계'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의 평가가 높음

표3-8-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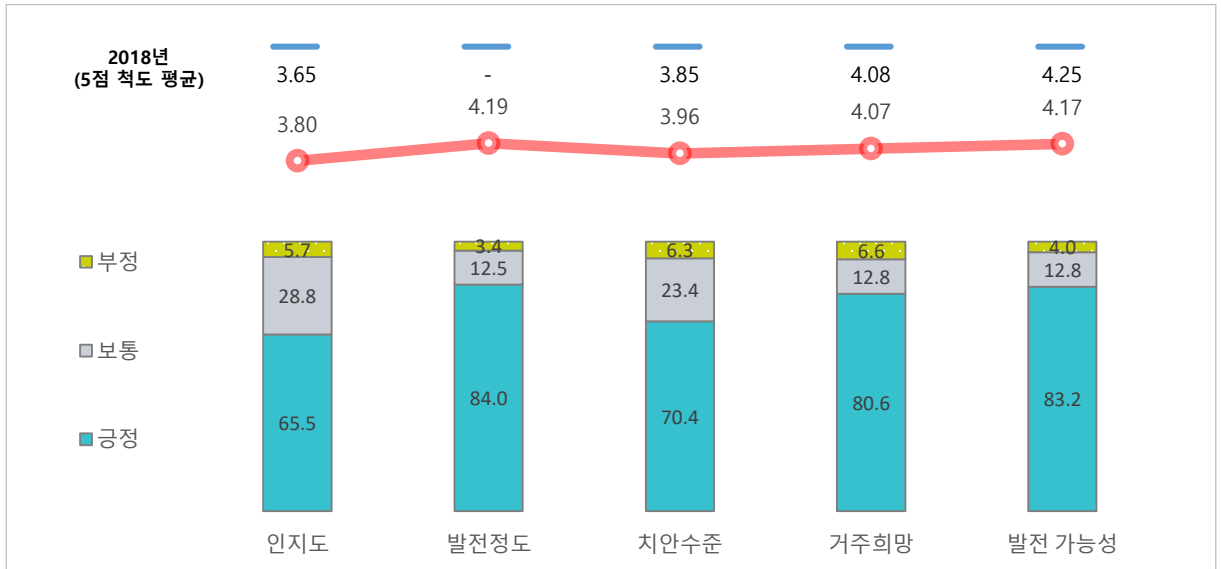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86)	(195)	(191)	(59)	(99)	(91)	(75)	(62)
인지도	긍정률	61.1	66.2	56.0	57.6	59.6	63.7	61.3	62.9
	평균	3.63	3.68	3.59	3.54	3.61	3.69	3.67	3.65
발전정도	긍정률	75.4	76.4	74.3	62.7	74.7	78.0	80.0	79.0
	평균	3.81	3.85	3.78	3.66	3.78	3.85	3.79	4.00
청렴성	긍정률	63.7	64.6	62.8	66.1	55.6	67.0	66.7	66.1
	평균	3.62	3.64	3.61	3.69	3.51	3.70	3.52	3.76
우호적 관계	긍정률	76.7	81.0	72.3	76.3	69.7	76.9	76.0	88.7
	평균	3.93	3.98	3.88	3.83	3.80	4.03	3.88	4.16
지속가능성	긍정률	83.4	83.6	83.2	86.4	77.8	84.6	80.0	91.9
	평균	4.11	4.10	4.13	4.25	3.93	4.18	3.97	4.34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80% 초반대의 평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치안수준'에 대한 긍정 평가는 70.4%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
- 전년대비 '치안수준'에 대한 평가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타 속성들에 대한 평가는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3-8-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평가가 가장 높고, 20대의 평가가 가장 낮음

표3-8-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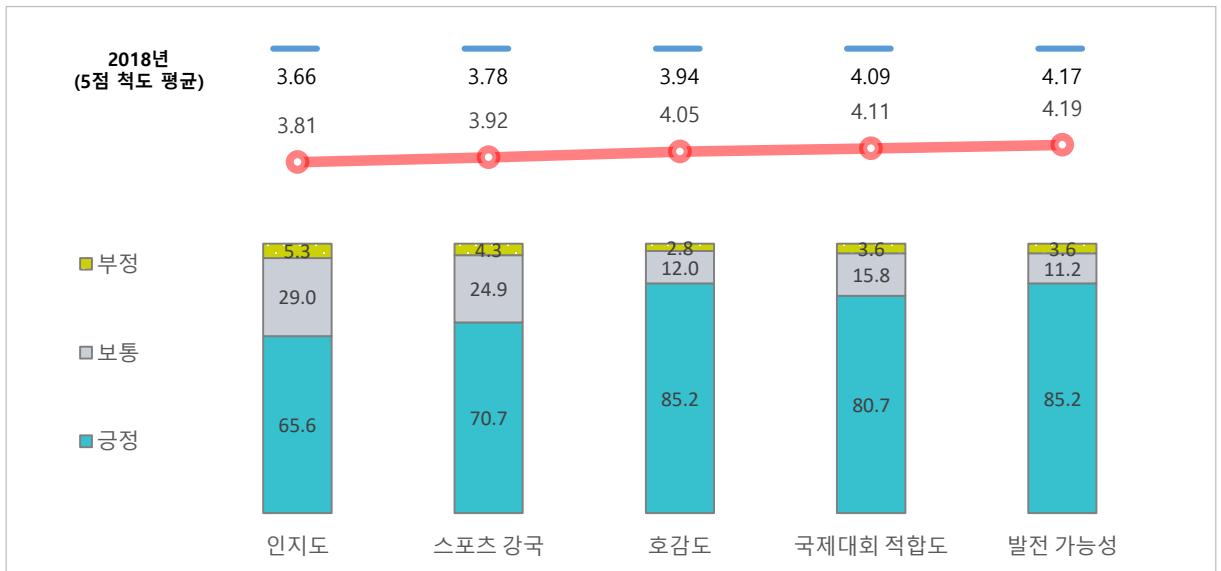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51)	(177)	(174)	(45)	(102)	(80)	(60)	(64)
인지도	긍정률	65.5	68.9	62.1	55.6	65.7	62.5	73.3	68.8
	평균	3.80	3.87	3.72	3.67	3.78	3.84	3.83	3.83
발전정도	긍정률	84.0	84.2	83.9	82.2	78.4	80.0	88.3	95.3
	평균	4.19	4.23	4.14	4.07	4.11	4.10	4.30	4.41
치안수준	긍정률	70.4	75.7	64.9	64.4	67.6	62.5	78.3	81.3
	평균	3.96	4.06	3.85	3.98	3.90	3.80	4.10	4.09
거주희망	긍정률	80.6	84.2	77.0	77.8	76.5	81.3	80.0	89.1
	평균	4.07	4.15	3.98	3.89	3.98	3.99	4.18	4.33
발전 가능성	긍정률	83.2	84.2	82.2	80.0	75.5	82.5	88.3	93.8
	평균	4.17	4.21	4.13	4.11	4.00	4.10	4.28	4.48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 긍정 80% 내외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높은 평가는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으로 긍정 85.2%로 나타남
- '스포츠 강국'에 대한 긍정 평가는 70.7%로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3-8-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고, 특히 '국제대회 적합도'에 대해 남성이 더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3-8-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3)	(199)	(194)	(46)	(96)	(92)	(83)	(76)
인지도	긍정률	65.6	70.4	60.8	63.0	55.2	75.0	69.9	64.5
	평균	3.81	3.86	3.75	3.80	3.69	3.95	3.84	3.76
스포츠강국	긍정률	70.7	71.4	70.1	65.2	69.8	69.6	74.7	72.4
	평균	3.92	3.90	3.93	3.87	3.83	3.93	4.06	3.87
호감도	긍정률	85.2	85.9	84.5	84.8	79.2	84.8	94.0	84.2
	평균	4.05	4.06	4.03	3.96	3.91	4.07	4.22	4.07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80.7	83.9	77.3	63.0	80.2	83.7	83.1	85.5
	평균	4.11	4.13	4.10	3.78	4.09	4.10	4.27	4.20
발전 가능성	긍정률	85.2	88.4	82.0	80.4	79.2	82.6	92.8	90.8
	평균	4.19	4.26	4.13	4.13	4.09	4.07	4.37	4.32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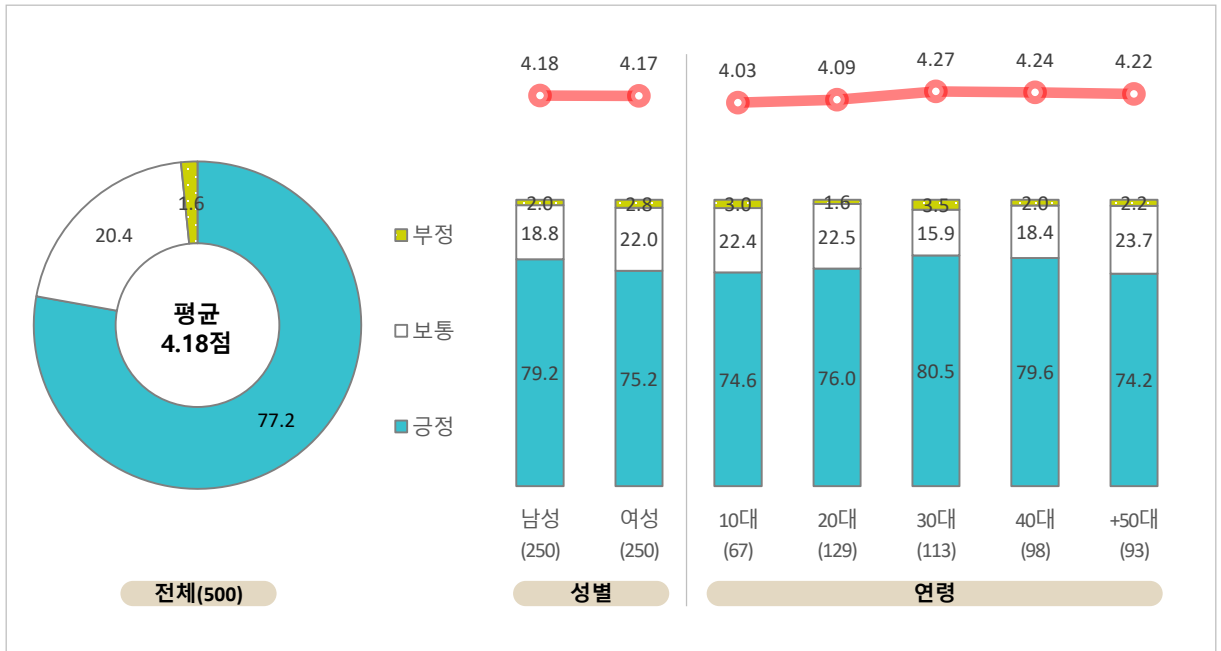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77.2%, 부정 1.6%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문화/전통',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가 가장 많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변화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이 가장 낮음

그림3-8-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긍정적 변화 이유(n=386)	
문화/전통	13.0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7.5
더 많은 정보를 접함	5.7
기술력/첨단기술	4.7
호감/호의적임	4.4
지속적인 성장/발전	4.1
사회/경제/경제발전	3.6
그냥 좋다	3.1
K-POP/가수	2.1
교육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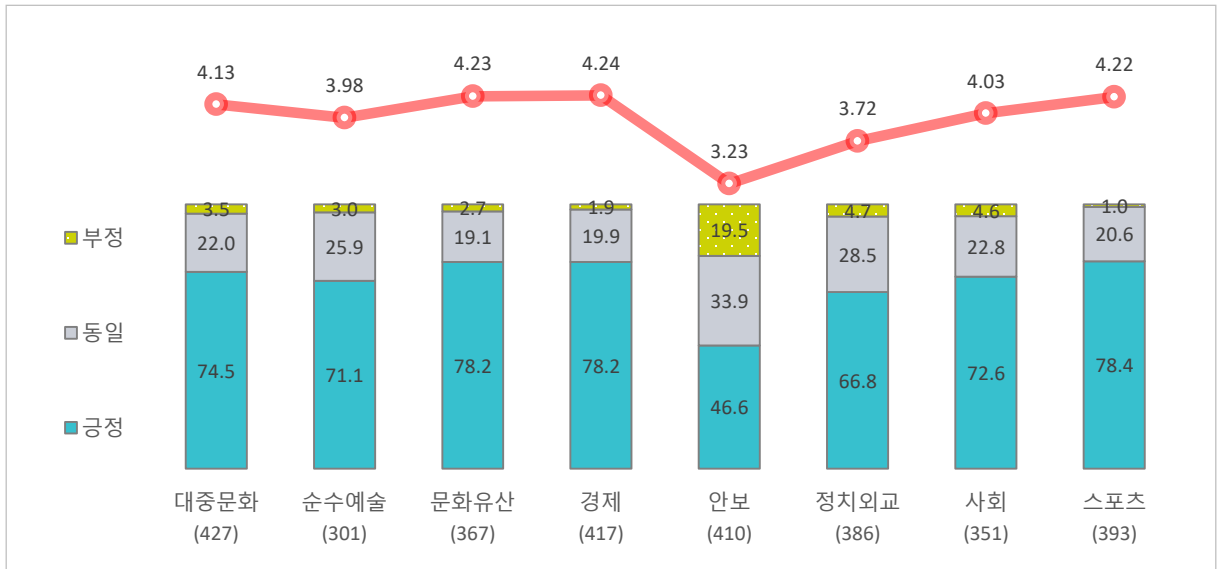
부정적 변화 이유(n=12)	
정부/정치적 문제	25.0
전쟁/핵 위험	16.7
사회적 문제	8.3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스포츠', '문화유산', '경제'는 긍정 70% 후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보'는 긍정이 5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8-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순수예술'에 대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다른 분야는 큰 차이는 없었음. 연령별로는 '대중문화'에 대해 3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8-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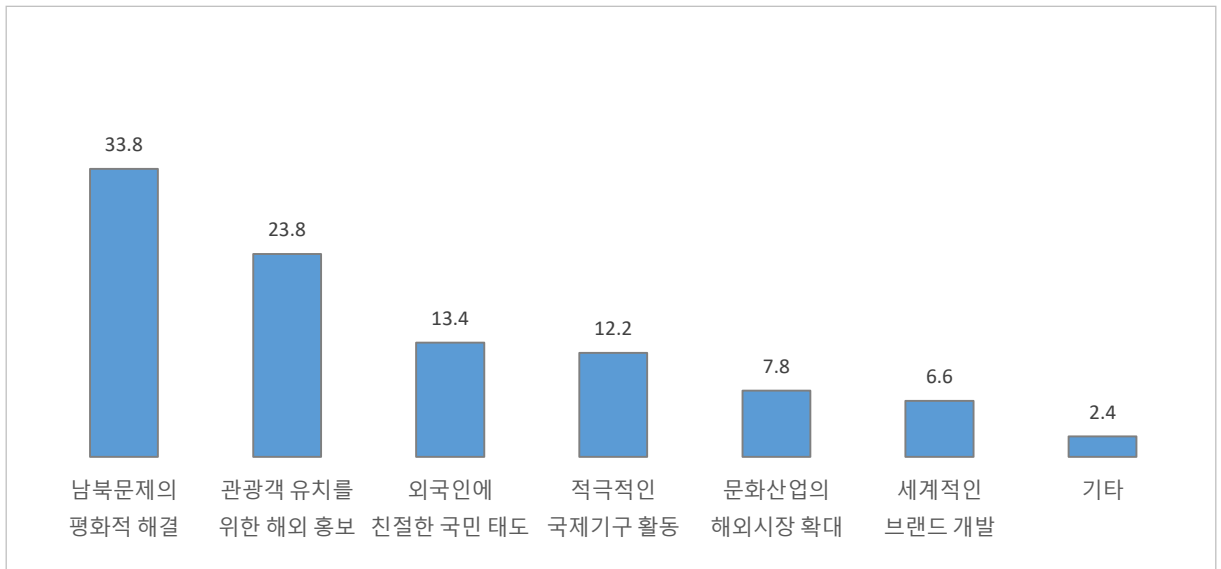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74.5	73.3	75.6	70.7	71.1	84.5	72.0	72.5
	평균	4.13	4.07	4.20	4.05	4.05	4.34	4.15	4.04
순수예술	긍정률	71.1	74.5	68.3	71.1	72.2	72.2	74.2	64.0
	평균	3.98	4.01	3.96	3.95	3.97	4.01	4.06	3.86
문화유산	긍정률	78.2	80.2	76.2	69.2	76.7	83.0	82.7	75.8
	평균	4.23	4.22	4.23	3.96	4.18	4.34	4.25	4.32
경제	긍정률	78.2	78.2	78.1	72.3	76.9	79.3	81.4	78.7
	평균	4.24	4.23	4.24	4.06	4.19	4.24	4.30	4.33
안보	긍정률	46.6	46.9	46.3	48.3	41.4	47.8	55.3	41.0
	평균	3.23	3.22	3.24	3.10	3.19	3.34	3.33	3.14
정치외교	긍정률	66.8	66.2	67.5	59.3	63.6	68.1	70.7	72.6
	평균	3.72	3.71	3.73	3.61	3.65	3.70	3.76	3.90
사회	긍정률	72.6	74.6	70.7	73.3	68.6	75.0	75.0	73.4
	평균	4.03	4.06	4.01	3.91	3.91	4.09	4.15	4.13
스포츠	긍정률	78.4	80.4	76.3	76.1	74.0	81.5	80.7	78.9
	평균	4.22	4.24	4.19	4.09	4.05	4.27	4.36	4.28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23.8%),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13.4%),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12.2%) 순으로 나타남

그림3-8-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남성은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를 가장 많이 응답. 연령별로는 10대가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를 우선과제로 많이 응답함

표3-8-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7)	(129)	(113)	(98)	(93)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33.8	42.0	25.6	19.4	29.5	32.7	39.8	45.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23.8	18.8	28.8	17.9	22.5	26.5	20.4	30.1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3.4	12.0	14.8	23.9	15.5	14.2	6.1	9.7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12.2	10.0	14.4	11.9	14.0	9.7	14.3	10.8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7.8	8.0	7.6	9.0	7.0	12.4	8.2	2.2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6.6	6.8	6.4	10.4	10.9	2.7	7.1	2.2
기타	2.4	2.4	2.4	7.5	0.8	1.8	4.1	0.0



## 09

## 브라질



## 1 일반개요

위치	남미 대륙 동부	언어	포르투갈어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 인구 260만 명)	종교	가톨릭, 개신교
인구	2억 102만 명	1인당 GDP	9,343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브라질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저가, 대용량을 선호하던 기존 소비패턴에서 점차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Trade up 성향으로 변화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중심국가로서 역내 국가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미대륙 12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남미국가연합(우나수르)을 중심으로 남미 통합도 동시에 추진
- 브라질은 식민 통치를 했던 포르투갈을 비롯해 유럽계, 아랍계, 아시아계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임. 국민성과 문화가 서로 다른 이민자가 모여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나, 브라질 정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정책을 구사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2019년 7월, 한국-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TA) 제3차 협상 개최

- 20년간 끌어온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이 2019년 6월 말 타결로 한국-메르코수르 간의 무역협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

## 한국산 제품, 식품, K-POP 등의 인기 확산

- 현대 자동차 제품의 경우, 견고함과 모던함을 겸비한 모델로 인식되어 높은 인기
- K-pop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 및 활발한 활동
- 한국산 식품을 구매하려는 브라질 소비자들이 한인 슈퍼마켓 방문 증가

## 웹툰 등 한류거점지역 선정 및 웹툰의 글로벌화 추진

- 한국 웹툰을 브라질 등 남미에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웹툰의 세계로' 행사를 개최
- 브라질 만화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서 향후 성장 잠재력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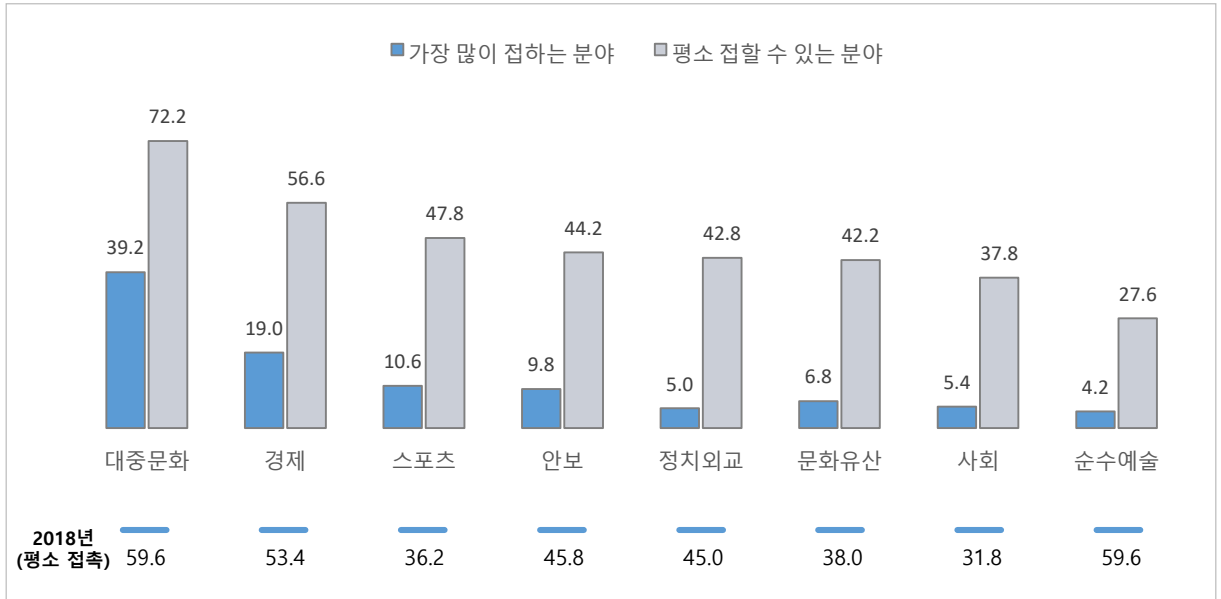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72.2%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대중문화'와 '스포츠'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음

그림3-9-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남성의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대중문화'는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9-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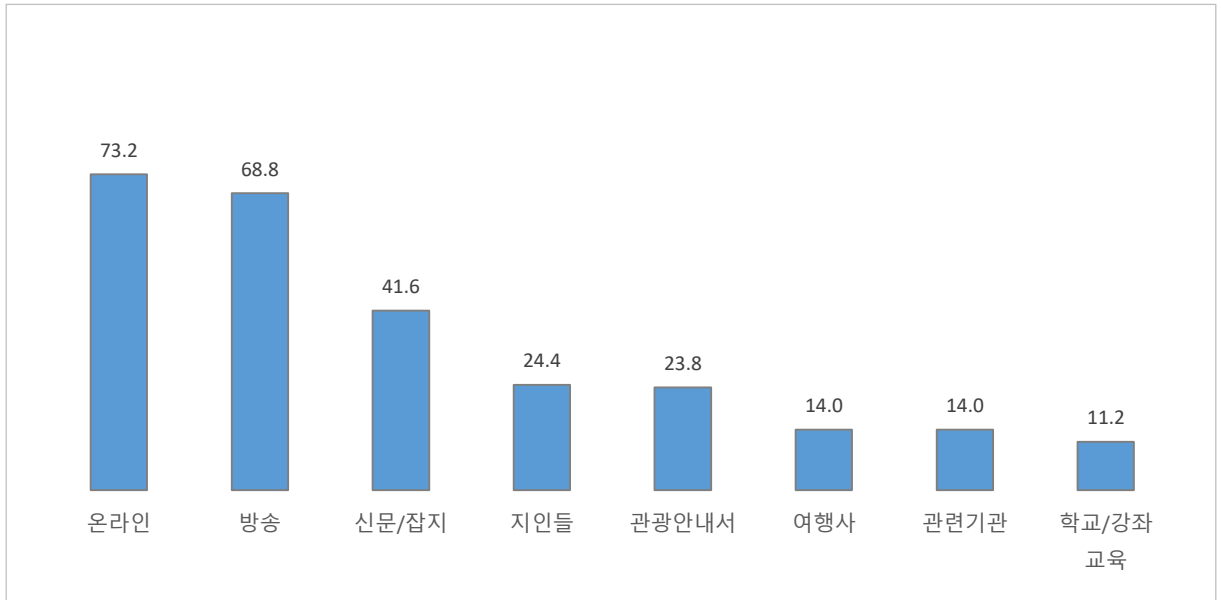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0)	(114)	(117)	(99)	(110)
대중문화	72.2	71.2	73.2	83.3	86.0	80.3	60.6	53.6
경제	56.6	67.2	46.0	35.0	57.9	55.6	59.6	65.5
스포츠	47.8	52.4	43.2	25.0	52.6	49.6	57.6	44.5
안보	44.2	48.8	39.6	21.7	42.1	41.0	57.6	50.0
정치외교	42.8	48.8	36.8	28.3	44.7	43.6	49.5	41.8
문화유산	42.2	39.2	45.2	31.7	54.4	42.7	42.4	34.5
사회	37.8	39.6	36.0	28.3	43.9	41.0	42.4	29.1
순수예술	27.6	24.4	30.8	13.3	42.1	28.2	25.3	21.8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 > '방송'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9-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과 '신문/잡지'는 남성이 '지인들', '관광안내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방송'은 높은 연령, '온라인'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3-9-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0)	(114)	(117)	(99)	(110)
온라인	73.2	73.6	72.8	71.7	80.7	76.9	66.7	68.2
방송	68.8	71.2	66.4	51.7	67.5	66.7	75.8	75.5
신문/잡지	41.6	49.2	34.0	46.7	43.0	38.5	46.5	36.4
지인들	24.4	22.8	26.0	28.3	25.4	23.1	24.2	22.7
관광안내서	23.8	18.4	29.2	15.0	32.5	29.1	22.2	15.5
여행사	14.0	13.6	14.4	1.7	21.1	17.9	9.1	13.6
관련기관	14.0	11.2	16.8	5.0	20.2	17.9	12.1	10.0
학교/강좌 교육	11.2	10.8	11.6	10.0	9.6	15.4	15.2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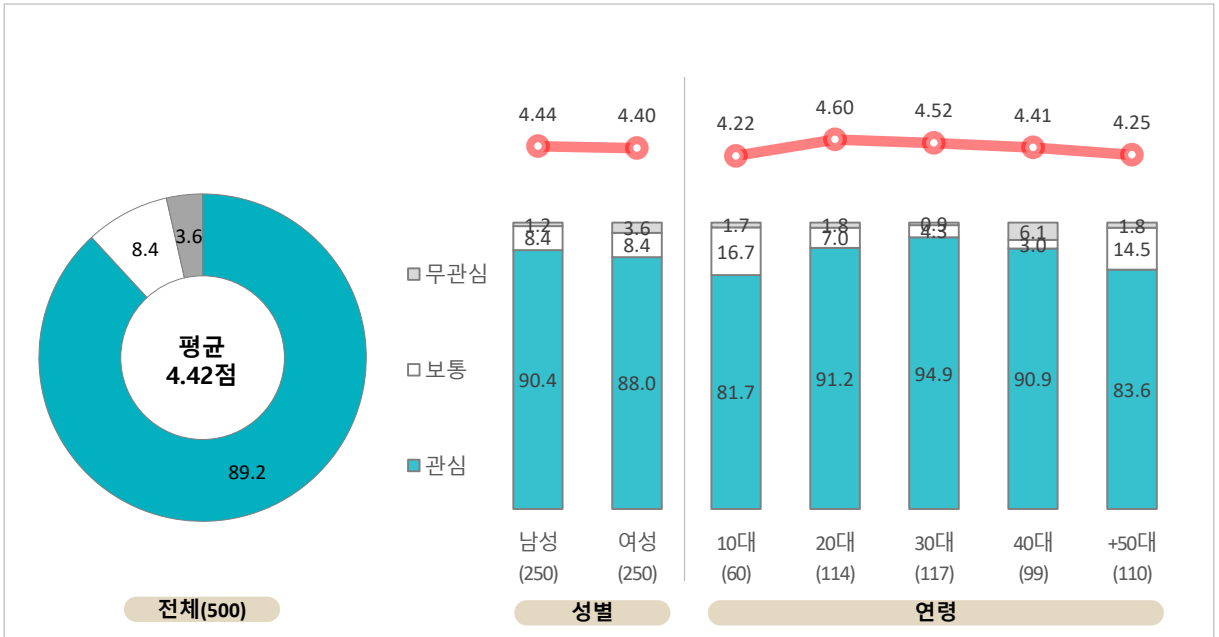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89.2%, '관심 없다'가 3.6%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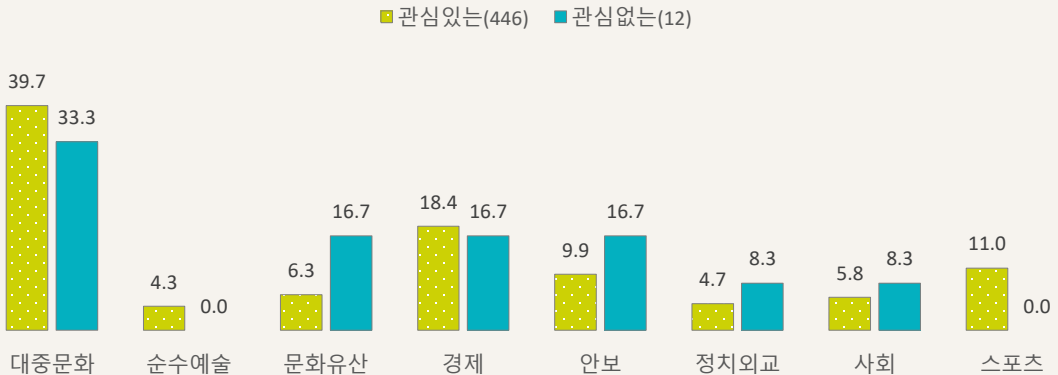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9-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브라질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경제', '스포츠', '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브라질인들은 '대중문화'와 '경제', '스포츠'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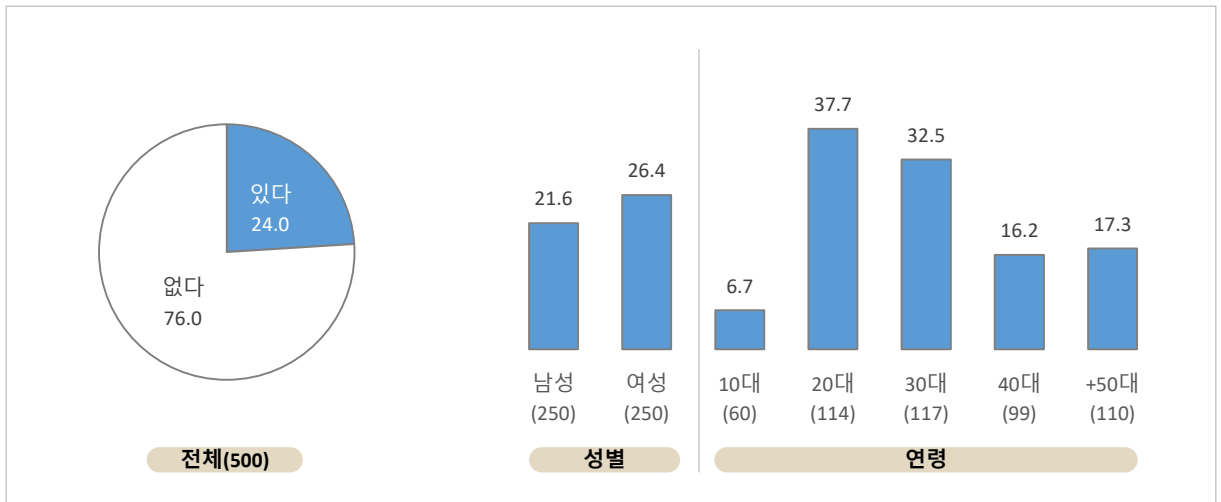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24.0%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95.0%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여성,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가 가장 낮았음

그림3-9-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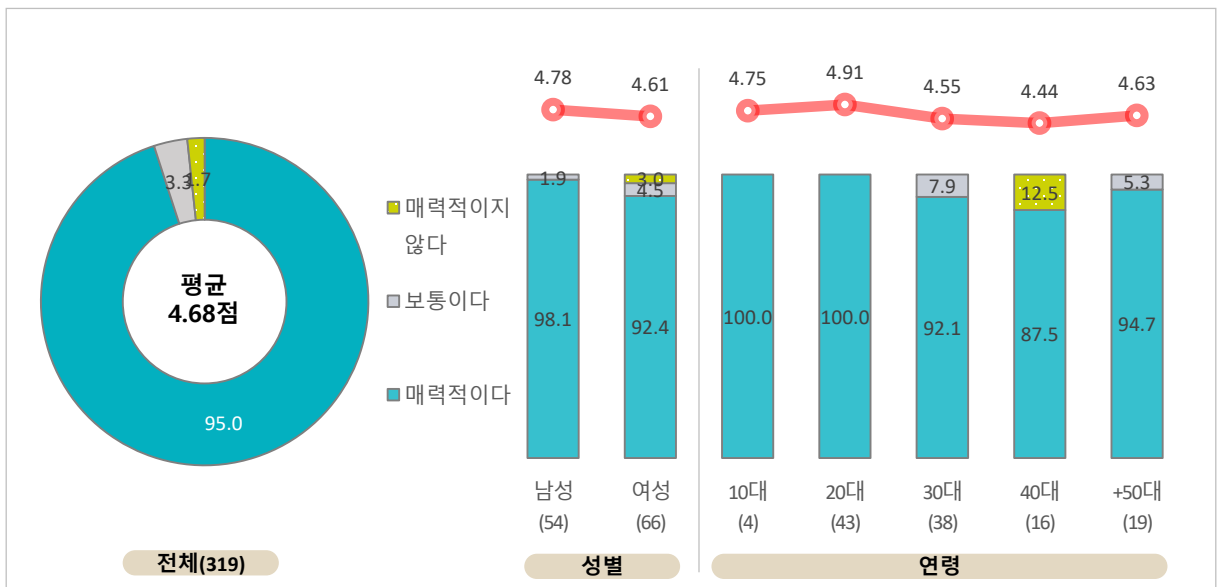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남성이 약간 더 높았고, 10대와 20대의 긍정인식이 100%로 나타남

그림3-9-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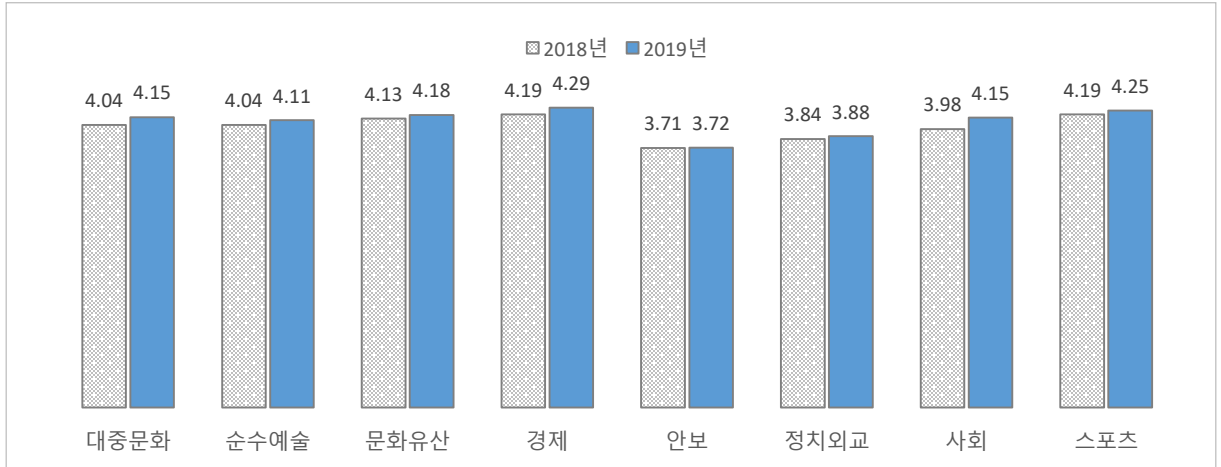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안보'와 '정치외교'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 '스포츠' 분야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안보'와 '정치외교'도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호감도가 조금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분야 대비 낮은 수준임

그림3-9-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순수예술'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임

표3-9-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대중문화	긍정률	83.9	83.9	84.0	79.6	85.2	85.0	82.4	85.2
	평균	4.15	4.10	4.20	4.07	4.24	4.22	4.14	4.01
순수예술	긍정률	80.3	85.3	76.3	69.0	89.6	86.4	78.2	72.2
	평균	4.11	4.22	4.01	3.86	4.31	4.23	4.07	3.93
문화유산	긍정률	89.2	91.1	87.5	82.0	92.8	92.3	87.0	88.0
	평균	4.18	4.25	4.12	3.94	4.28	4.30	4.14	4.12
경제	긍정률	91.3	95.4	87.0	77.5	92.1	90.8	90.1	97.1
	평균	4.29	4.42	4.15	4.00	4.28	4.30	4.24	4.44
안보	긍정률	68.1	70.7	65.6	65.3	73.4	68.8	58.5	71.7
	평균	3.72	3.79	3.64	3.67	3.90	3.73	3.55	3.69
정치외교	긍정률	76.2	79.9	71.9	69.8	73.2	78.5	79.3	77.9
	평균	3.88	3.95	3.79	3.70	3.92	3.91	3.89	3.90
사회	긍정률	87.3	90.0	85.0	76.2	90.8	89.8	86.8	87.1
	평균	4.15	4.20	4.10	3.83	4.25	4.20	4.12	4.16
스포츠	긍정률	90.3	91.8	88.7	76.1	88.9	95.7	92.7	91.0
	평균	4.25	4.25	4.24	3.91	4.20	4.33	4.39	4.24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85.8%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2.6%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예의 바르다', '호의적이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나라 특성/문화'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BTS' > '싸이' > '문재인' > '대통령' 순으로 나타남

그림3-9-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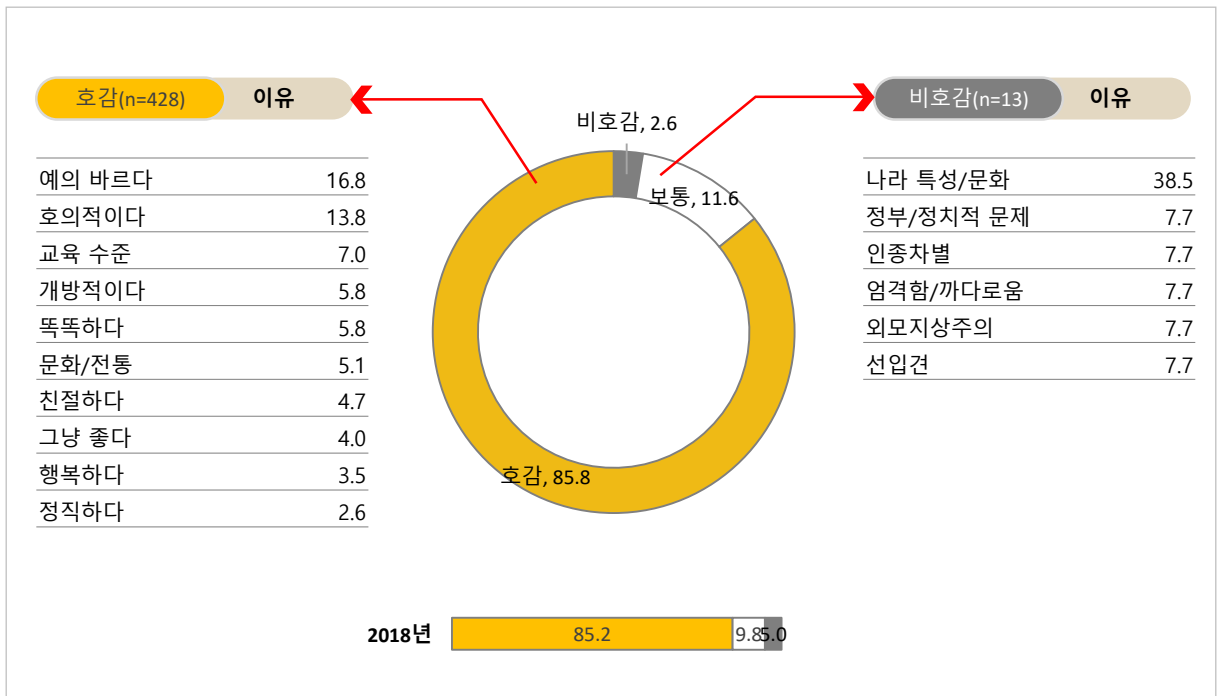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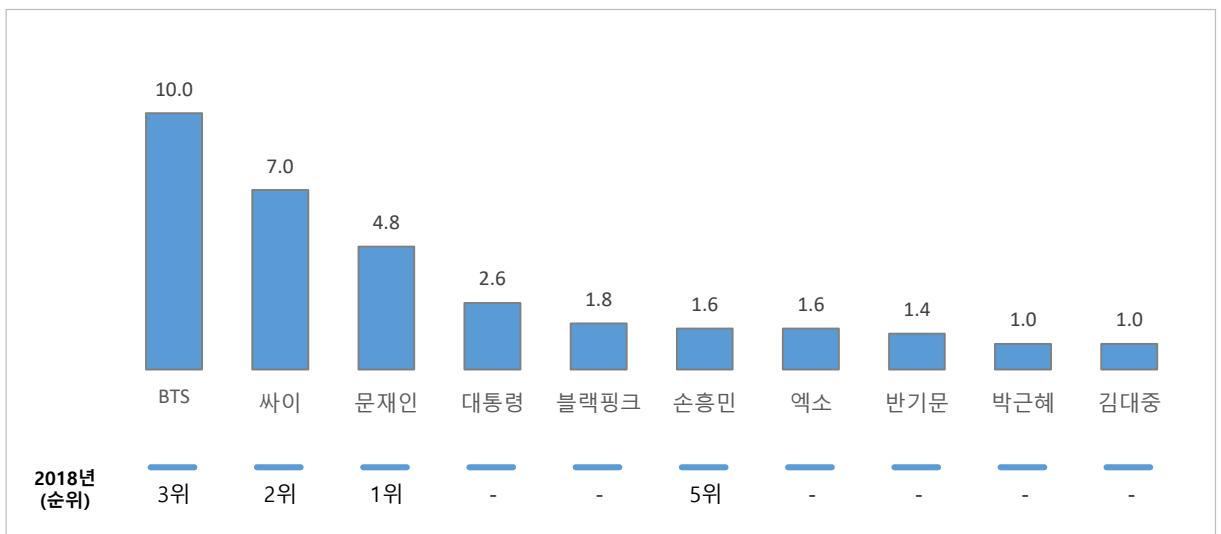


그림3-9-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 브라질인들은 '한국'하면 'K-POP/가수'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85.4%, 부정 4.0%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K-POP/가수',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가 가장 많았음

그림3-9-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91.6%, 5점 만점 4.53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 '경제수준'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북핵문제', '전쟁위험/해소'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10대가 가장 낮게 평가함

그림3-9-10.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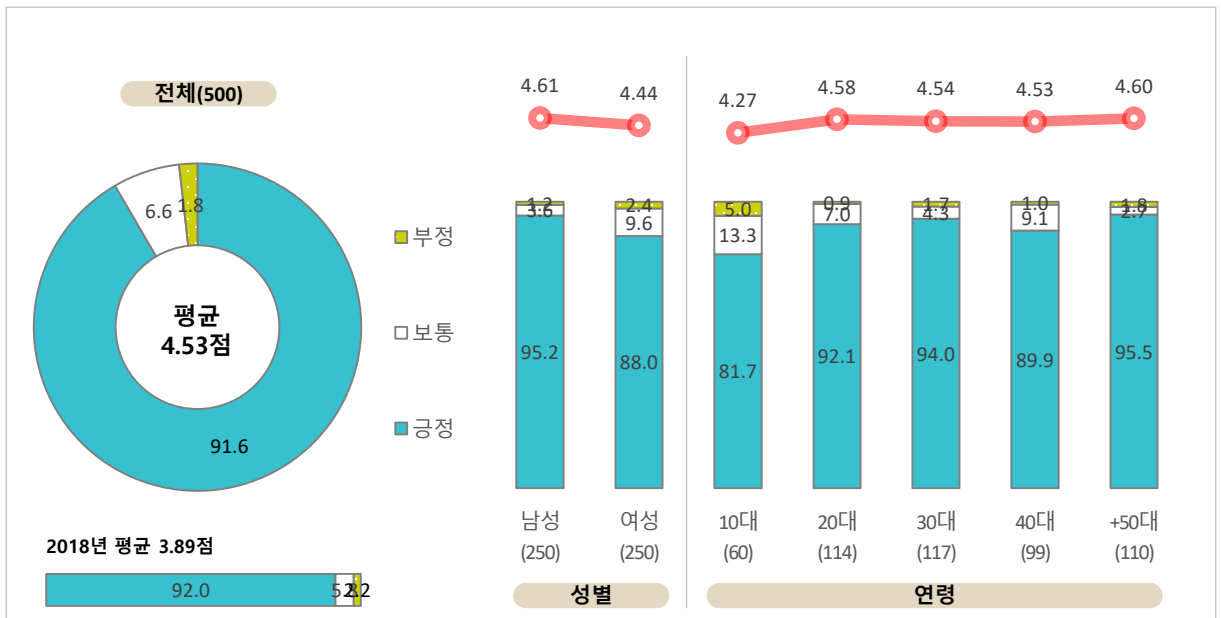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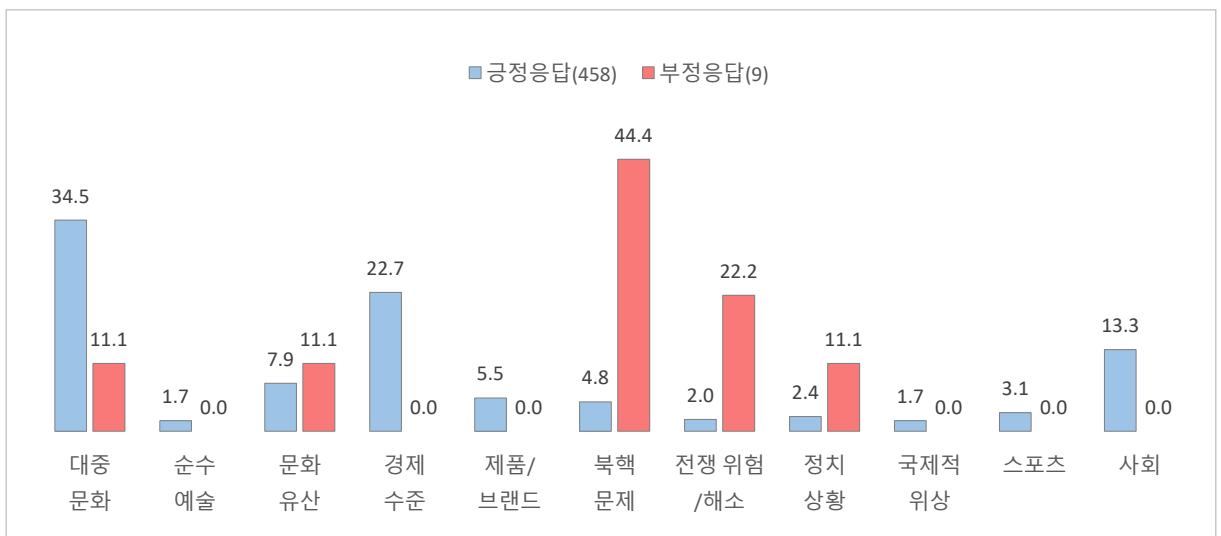


그림3-9-11. 이미지 영향요인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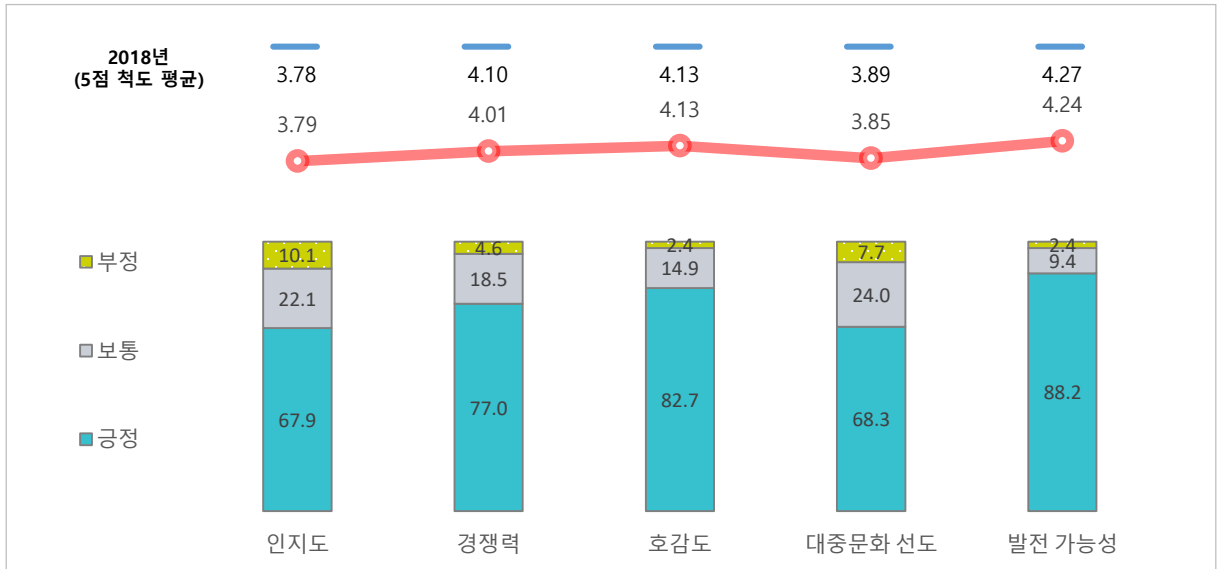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의 이미지 속성 중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88.2%, 부정 2.4%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호감도' 역시 긍정 82.7%, 부정 2.4%로 높게 평가함
- 반면 '대중문화 선도'에 대해 긍정 68.3%, 부정 7.7%로 평가해 타 속성 대비 낮게 평가함

그림3-9-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으나, '대중문화 선도'에 대해 여성이 더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20-3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표3-9-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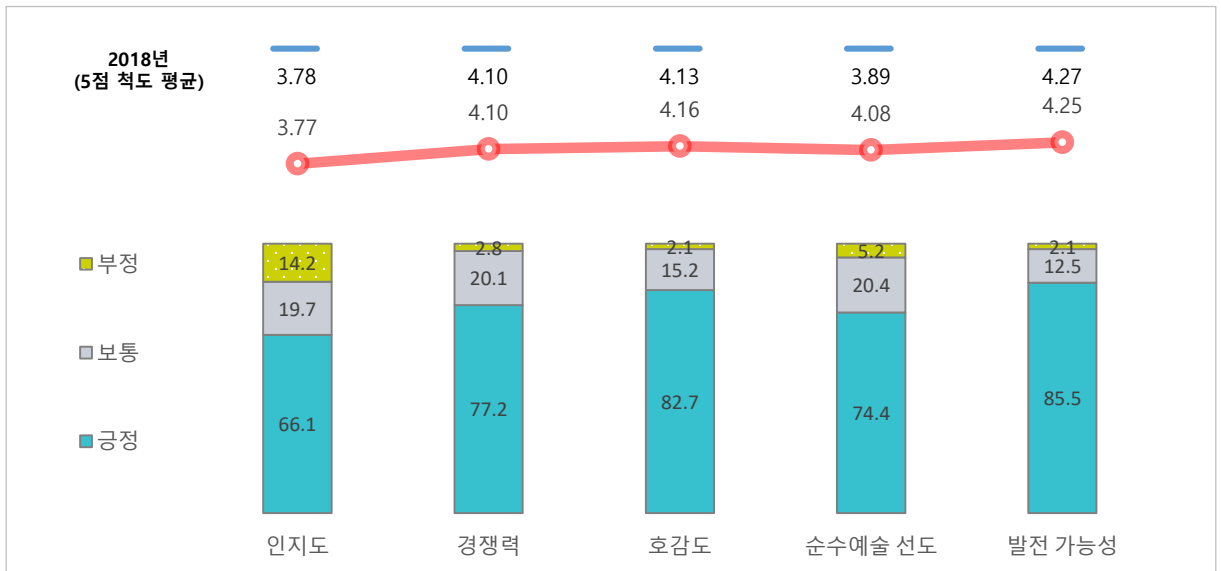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속성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7)	(211)	(206)	(54)	(108)	(100)	(74)	(81)
인지도	긍정률	67.9	70.1	65.5	46.3	79.6	75.0	67.6	58.0
	평균	3.79	3.78	3.80	3.50	4.08	3.84	3.70	3.60
경쟁력	긍정률	77.0	78.2	75.7	59.3	81.5	82.0	74.3	79.0
	평균	4.01	4.02	4.00	3.63	4.17	4.06	4.03	3.99
호감도	긍정률	82.7	85.3	80.1	64.8	86.1	90.0	83.8	80.2
	평균	4.13	4.15	4.11	3.72	4.31	4.23	4.16	4.00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68.3	65.9	70.9	48.1	74.1	73.0	70.3	66.7
	평균	3.85	3.80	3.90	3.52	3.97	3.95	3.88	3.75
발전 가능성	긍정률	88.2	90.5	85.9	87.0	85.2	93.0	87.8	87.7
	평균	4.24	4.22	4.25	4.13	4.28	4.33	4.22	4.16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전 가능성'과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순수예술 선도' 항목은 긍정이 74.4%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음

그림3-9-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고, 특히 '순수예술 선도'에 대해 남성이 더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 '경쟁력'에 대해 4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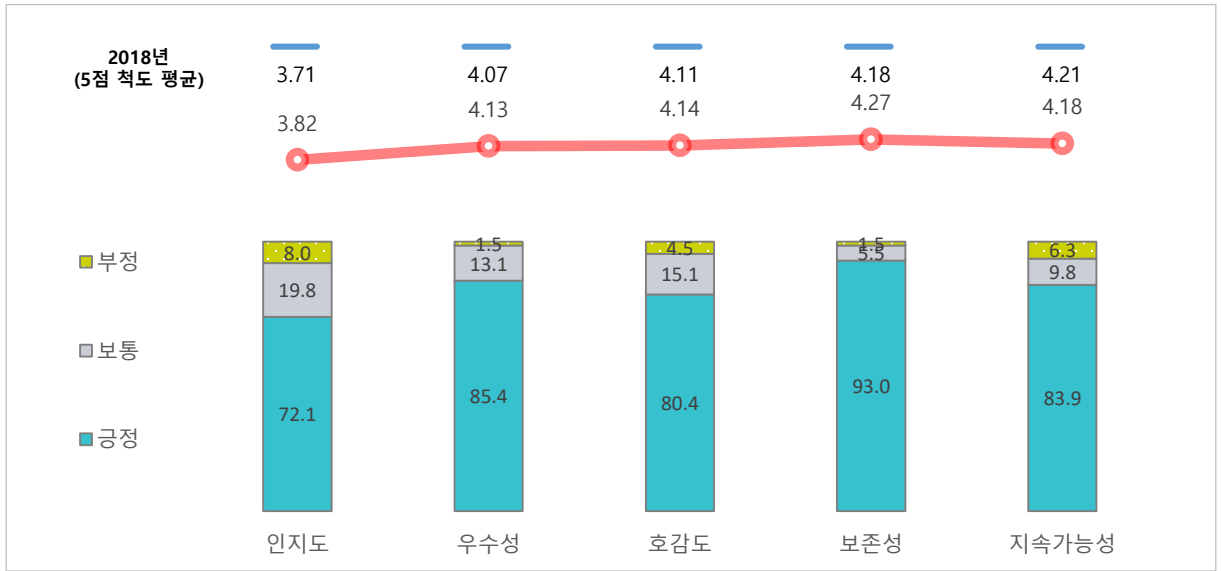
표3-9-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289)	(129)	(160)	(29)	(67)	(66)	(55)	(72)
인지도	긍정률	66.1	66.7	65.6	51.7	82.1	75.8	65.5	48.6
	평균	3.77	3.82	3.73	3.38	4.24	4.00	3.67	3.36
경쟁력	긍정률	77.2	79.8	75.0	65.5	79.1	78.8	85.5	72.2
	평균	4.10	4.16	4.05	3.83	4.21	4.21	4.16	3.96
호감도	긍정률	82.7	88.4	78.1	69.0	86.6	89.4	89.1	73.6
	평균	4.16	4.26	4.09	3.72	4.28	4.26	4.33	4.01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74.4	82.9	67.5	65.5	77.6	81.8	78.2	65.3
	평균	4.08	4.26	3.94	3.76	4.22	4.33	4.00	3.92
발전 가능성	긍정률	85.5	86.0	85.0	72.4	83.6	89.4	87.3	87.5
	평균	4.25	4.27	4.23	3.93	4.25	4.35	4.31	4.24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존성'이 긍정 93.0%, 부정 1.5%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전년 대비 대부분의 속성에 대한 평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소폭 하락함

그림3-9-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은 20대가 높게 평가함

표3-9-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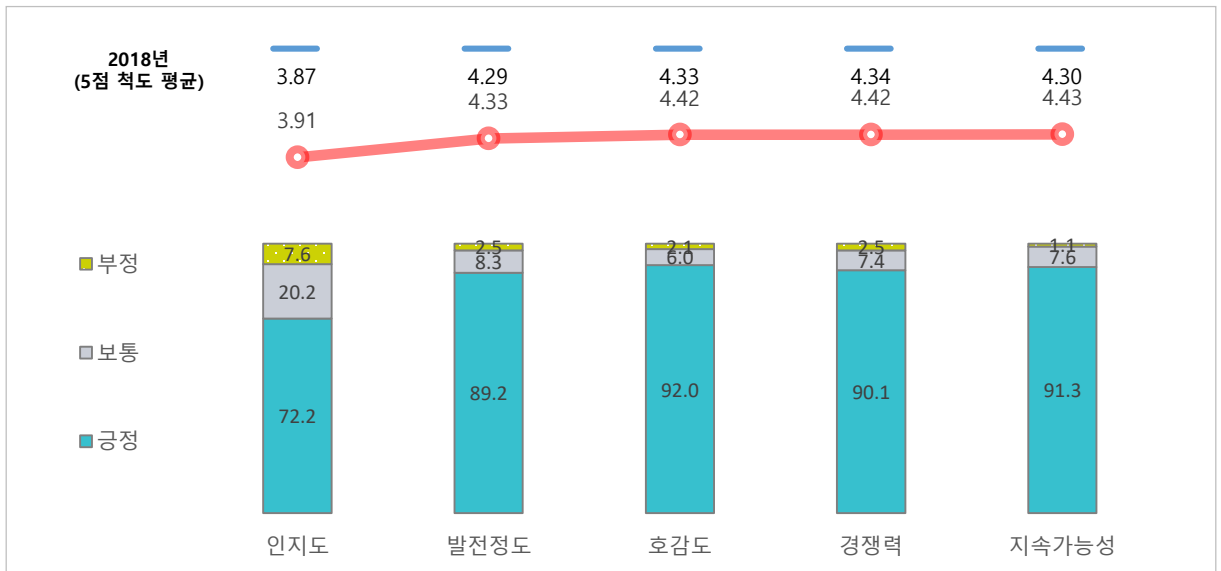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8)	(190)	(208)	(50)	(97)	(91)	(77)	(83)
인지도	긍정률	72.1	74.7	69.7	70.0	82.5	73.6	66.2	65.1
	평균	3.82	3.86	3.78	3.68	4.13	3.85	3.75	3.57
우수성	긍정률	85.4	88.4	82.7	74.0	89.7	91.2	80.5	85.5
	평균	4.13	4.16	4.10	3.94	4.32	4.14	4.09	4.02
호감도	긍정률	80.4	81.1	79.8	72.0	79.4	84.6	84.4	78.3
	평균	4.14	4.13	4.15	3.88	4.24	4.23	4.13	4.08
보존성	긍정률	93.0	94.2	91.8	84.0	94.8	94.5	96.1	91.6
	평균	4.27	4.28	4.25	3.94	4.36	4.24	4.40	4.27
지속가능성	긍정률	83.9	87.4	80.8	62.0	88.7	89.0	83.1	86.7
	평균	4.18	4.21	4.15	3.76	4.36	4.18	4.22	4.18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90% 내외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호감도'는 긍정 92.0%, 부정 2.1%로 가장 높았고, '지속가능성' 역시 긍정 91.3%, 부정 1.1%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9-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평가가 가장 높고, 30대, 40대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3-9-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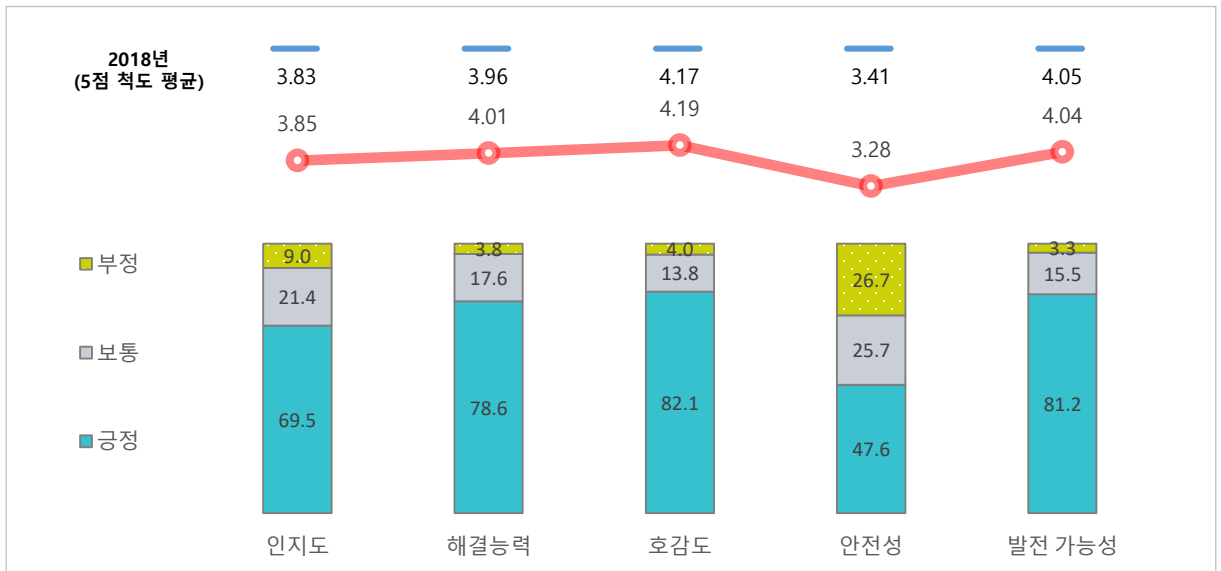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35)	(219)	(216)	(40)	(101)	(98)	(91)	(105)
인지도	긍정률	72.2	74.4	69.9	52.5	78.2	76.5	72.5	69.5
	평균	3.91	3.91	3.92	3.65	4.05	3.95	3.90	3.87
발전정도	긍정률	89.2	92.2	86.1	75.0	89.1	92.9	86.8	93.3
	평균	4.33	4.41	4.26	3.98	4.39	4.35	4.32	4.42
호감도	긍정률	92.0	95.0	88.9	80.0	90.1	92.9	92.3	97.1
	평균	4.42	4.50	4.34	4.08	4.45	4.50	4.37	4.50
경쟁력	긍정률	90.1	93.6	86.6	75.0	89.1	92.9	90.1	94.3
	평균	4.42	4.53	4.32	4.00	4.43	4.45	4.43	4.55
지속가능성	긍정률	91.3	95.4	87.0	77.5	93.1	94.9	89.0	93.3
	평균	4.43	4.50	4.36	4.03	4.53	4.44	4.42	4.48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은 긍정평가가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해결능력' 역시 긍정 78.6%, 부정 3.8%로 높게 평가하였음
- 반면, '안전성'에 대해 긍정 47.6%, 부정 26.7%로 평가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함

그림3-9-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안전성'에 대해 20대, 30대, 40대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10대와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률을 보임

표3-9-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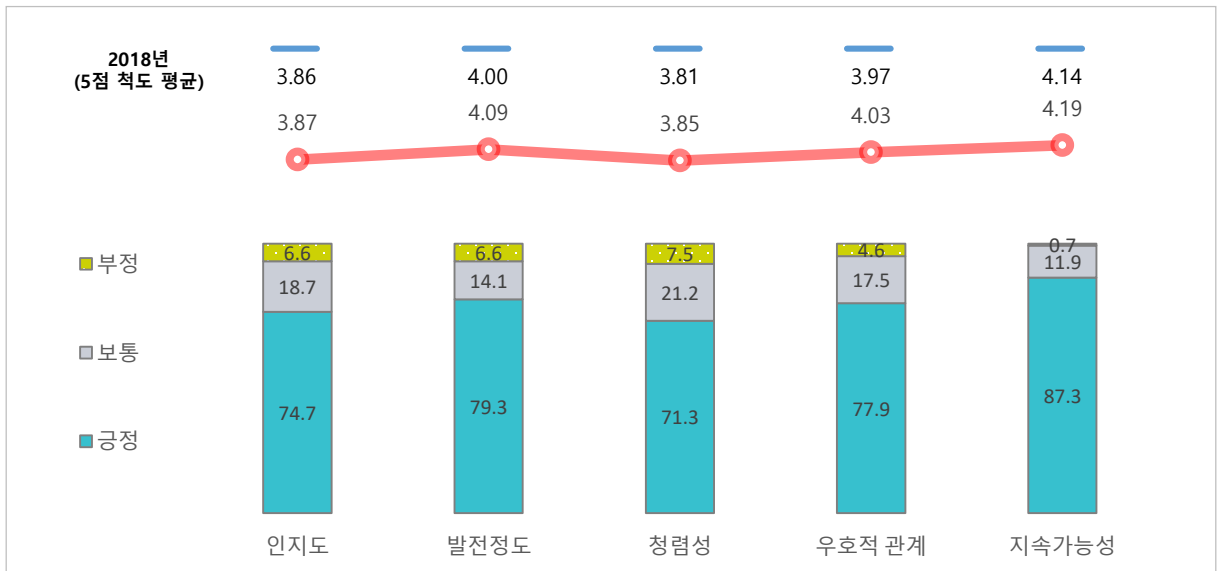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0)	(208)	(212)	(49)	(94)	(96)	(82)	(99)
인지도	긍정률	69.5	73.1	66.0	65.3	76.6	75.0	68.3	60.6
	평균	3.85	3.90	3.79	3.63	4.03	3.98	3.74	3.73
해결능력	긍정률	78.6	81.3	75.9	71.4	84.0	83.3	75.6	74.7
	평균	4.01	4.04	3.98	3.88	4.13	4.16	3.90	3.90
호감도	긍정률	82.1	84.6	79.7	73.5	81.9	83.3	85.4	82.8
	평균	4.19	4.26	4.12	4.04	4.26	4.24	4.18	4.15
안전성	긍정률	47.6	48.6	46.7	34.7	53.2	53.1	52.4	39.4
	평균	3.28	3.32	3.24	3.10	3.43	3.43	3.28	3.08
발전 가능성	긍정률	81.2	82.7	79.7	81.6	78.7	87.5	79.3	78.8
	평균	4.04	4.06	4.02	4.06	4.06	4.15	4.01	3.93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지속가능성'은 긍정 87.3%, 부정 0.7%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음
- 모든 항목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청렴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9-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한 반면, '청렴성'에 대해 여성이 더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으며 '우호적 관계'의 경우 40대도 높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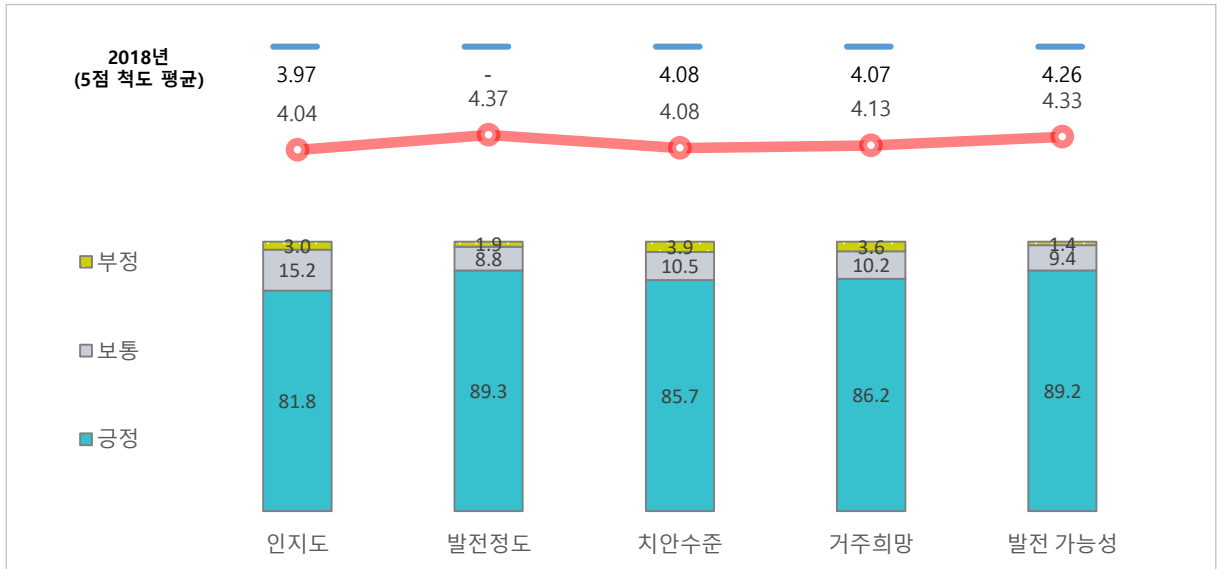
표3-9-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1)	(219)	(192)	(53)	(97)	(93)	(82)	(86)
인지도	긍정률	74.7	71.2	78.6	62.3	81.4	80.6	70.7	72.1
	평균	3.87	3.80	3.94	3.55	4.07	3.94	3.83	3.79
발전정도	긍정률	79.3	82.6	75.5	77.4	80.4	88.2	74.4	74.4
	평균	4.09	4.15	4.04	3.92	4.24	4.22	4.00	4.00
청렴성	긍정률	71.3	69.9	72.9	64.2	76.3	80.6	67.1	64.0
	평균	3.85	3.84	3.85	3.57	4.01	3.95	3.85	3.72
우호적 관계	긍정률	77.9	79.5	76.0	71.7	75.3	80.6	81.7	77.9
	평균	4.03	4.06	3.99	3.89	4.05	4.11	4.05	3.98
지속가능성	긍정률	87.3	88.1	86.5	77.4	86.6	90.3	90.2	88.4
	평균	4.19	4.16	4.22	3.96	4.25	4.28	4.23	4.12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50% 후반대의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세부 속성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평가 62.1%, 부정 평가 4.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 '발전정도'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59.7%, 부정 평가 8.1%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3-9-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발전정도'와 '치안수준'에 대해 여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표3-9-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63)	(170)	(193)	(42)	(87)	(88)	(76)	(70)
인지도	긍정률	81.8	78.8	84.5	76.2	86.2	79.5	81.6	82.9
	평균	4.04	3.98	4.09	3.95	4.17	3.98	4.04	4.00
발전정도	긍정률	89.3	89.4	89.1	83.3	88.5	94.3	86.8	90.0
	평균	4.37	4.36	4.38	4.17	4.45	4.48	4.30	4.36
치안수준	긍정률	85.7	87.6	83.9	88.1	88.5	87.5	86.8	77.1
	평균	4.08	4.12	4.04	3.93	4.24	4.15	4.13	3.83
거주희망	긍정률	86.2	86.5	86.0	85.7	85.1	90.9	85.5	82.9
	평균	4.13	4.14	4.13	3.95	4.21	4.19	4.12	4.10
발전 가능성	긍정률	89.2	91.1	87.6	85.7	89.7	92.0	86.8	90.0
	평균	4.33	4.37	4.29	4.21	4.37	4.37	4.29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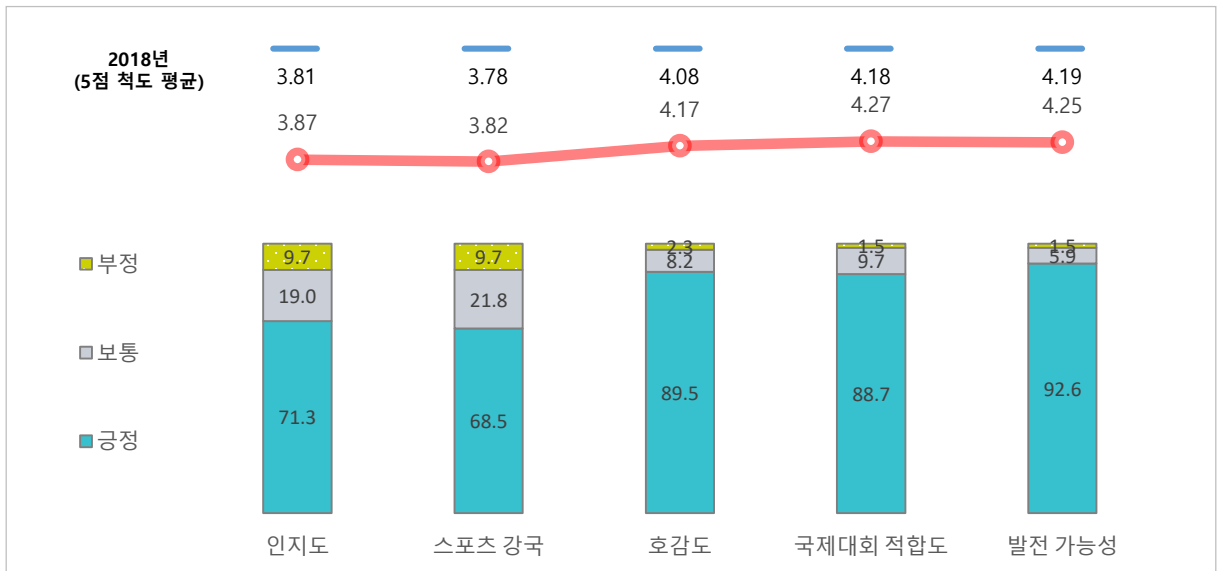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 긍정 90%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나, '스포츠 강국'에 대해 긍정 68.5%, 부정 9.7%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모든 항목에 대한 평가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스포츠 강국'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3-9-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은 '스포츠 강국', 남성은 '국제대회 적합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스포츠 강국'에 대해 2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9-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0)	(196)	(194)	(46)	(90)	(94)	(82)	(78)
인지도	긍정률	71.3	71.4	71.1	63.0	78.9	78.7	69.5	60.3
	평균	3.87	3.87	3.86	3.65	4.06	4.00	3.77	3.72
스포츠 강국	긍정률	68.5	62.2	74.7	50.0	70.0	78.7	69.5	64.1
	평균	3.82	3.64	4.01	3.43	3.94	4.01	3.79	3.71
호감도	긍정률	89.5	89.3	89.7	80.4	91.1	94.7	92.7	83.3
	평균	4.17	4.15	4.19	3.83	4.31	4.28	4.21	4.05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88.7	91.3	86.1	84.8	93.3	89.4	90.2	83.3
	평균	4.27	4.34	4.21	4.02	4.37	4.31	4.34	4.21
발전 가능성	긍정률	92.6	92.3	92.8	84.8	91.1	93.6	97.6	92.3
	평균	4.25	4.29	4.22	4.02	4.33	4.22	4.34	4.24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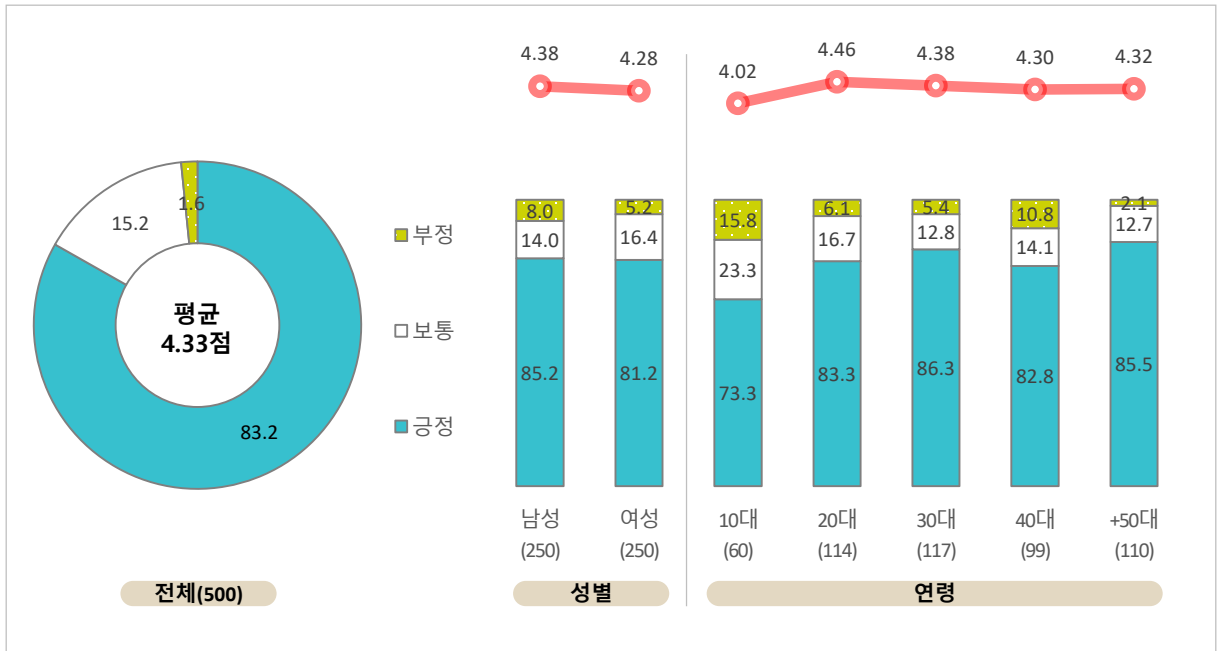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83.2%, 부정 1.6%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더 많은 정보를 접함',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부정적 매체의 영향', '국민성' 등의 의견이 많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변화가 약간 더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10대가 가장 낮음

그림3-9-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긍정적 변화 이유(n=417)	
더 많은 정보를 접함	14.4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11.0
문화/전통	8.6
그냥 좋다	6.2
교육	5.8
기술력/첨단기술	5.0
사회/경제/경제발전	3.8
선진국이다	3.1
정치/대통령	2.4
한국 방문 경험	2.4

부정적 변화 이유(n=8)	
부정적 매체의 영향	12.5
국민성	12.5
군대/군사 문제	12.5
인종차별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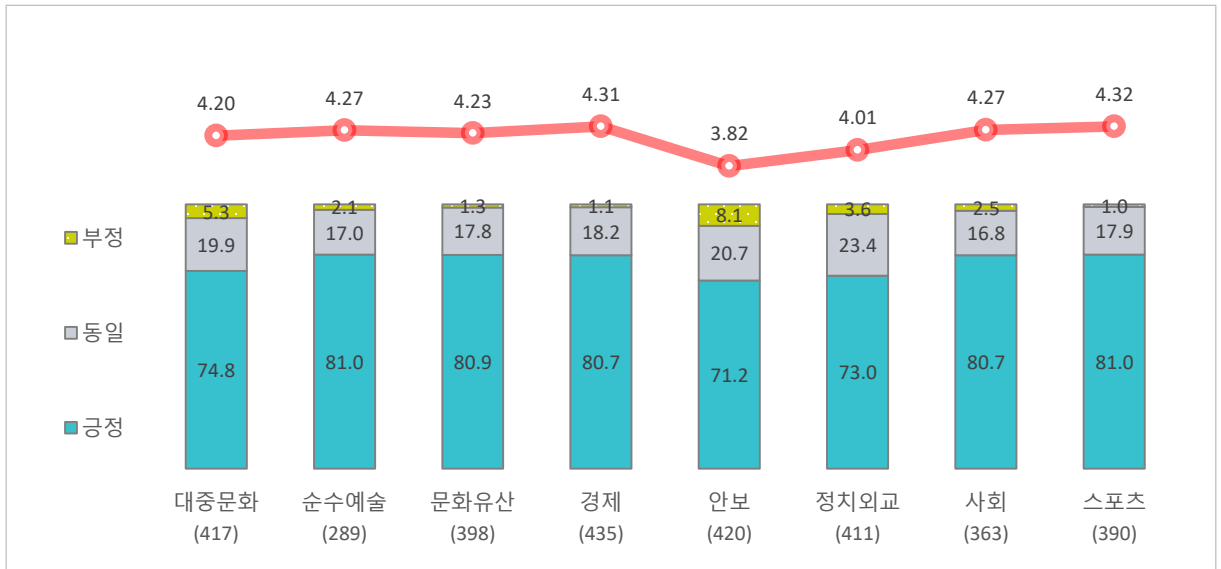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순수예술', '스포츠'가 긍정 81.0%로 가장 높았고, '안보'는 긍정이 71.2%로 가장 낮았음

그림3-9-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모든 속성에 대한 긍정 변화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 변화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분야에 대해 30대의 긍정 변화가 높게 나타남

표3-9-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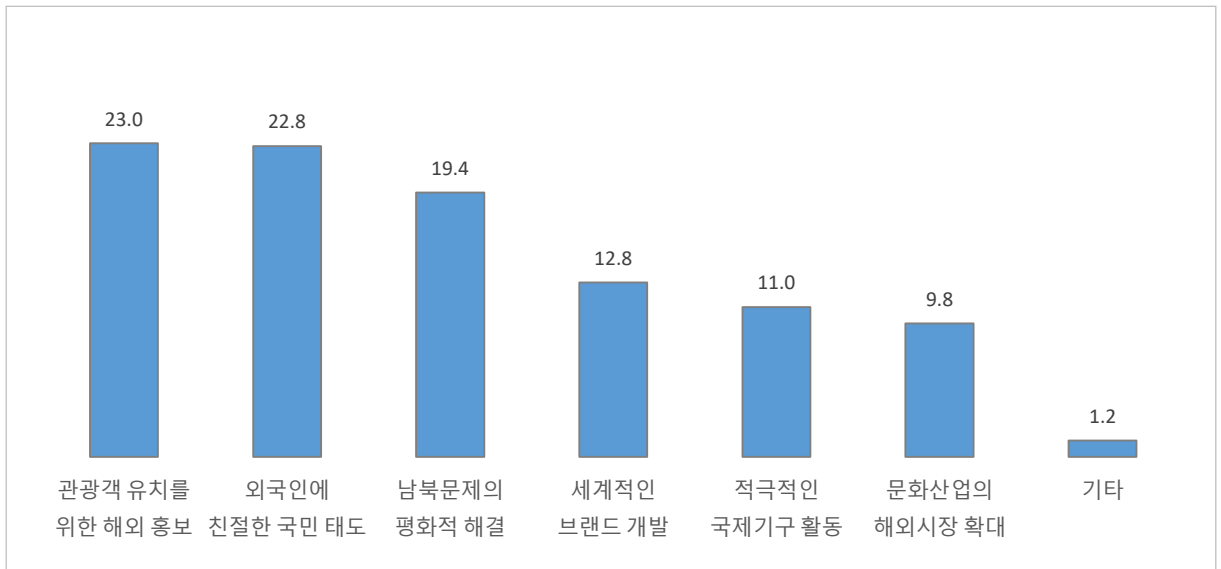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74.8	72.0	77.7	61.1	79.6	80.0	73.0	72.8
	평균	4.20	4.12	4.28	3.85	4.37	4.32	4.12	4.11
순수예술	긍정률	81.0	82.9	79.4	62.1	77.6	89.4	85.5	80.6
	평균	4.27	4.33	4.22	3.69	4.33	4.44	4.36	4.21
문화유산	긍정률	80.9	83.2	78.8	70.0	82.5	84.6	80.5	81.9
	평균	4.23	4.28	4.18	3.86	4.35	4.33	4.18	4.24
경제	긍정률	80.7	84.0	77.3	72.5	77.2	86.7	89.0	74.3
	평균	4.31	4.37	4.25	4.10	4.32	4.42	4.44	4.19
안보	긍정률	71.2	74.0	68.4	75.5	69.1	75.0	70.7	67.7
	평균	3.82	3.87	3.76	3.80	3.85	3.90	3.82	3.72
정치외교	긍정률	73.0	75.3	70.3	66.0	73.2	81.7	72.0	68.6
	평균	4.01	4.09	3.93	3.85	4.16	4.11	3.99	3.87
사회	긍정률	80.7	83.5	78.2	73.8	80.5	84.1	84.2	77.1
	평균	4.27	4.35	4.20	4.07	4.39	4.32	4.32	4.13
스포츠	긍정률	81.0	81.6	80.4	71.7	83.3	84.0	82.9	78.2
	평균	4.32	4.31	4.32	3.98	4.47	4.39	4.32	4.24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가 23.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22.8%),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1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9-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은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여성은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30대와 50대 이상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40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를 많이 응답함

표3-9-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60)	(114)	(117)	(99)	(110)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23.0	24.8	21.2	21.7	22.8	19.7	26.3	24.5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22.8	16.4	29.2	38.3	23.7	20.5	21.2	17.3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19.4	21.6	17.2	8.3	11.4	21.4	21.2	30.0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2.8	14.0	11.6	8.3	16.7	11.1	13.1	12.7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11.0	11.6	10.4	11.7	13.2	10.3	10.1	10.0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9.8	10.0	9.6	10.0	12.3	15.4	6.1	4.5
기타	1.2	1.6	0.8	1.7	0.0	1.7	2.0	0.9

## 10

## 영국



## 1 일반개요

위치	서부 유럽(북해와 대서양 사이의 섬)	언어	영어, 웨일스어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 인구 260만 명)	종교	기독교, 무슬림, 힌두교
인구	66,436천명	1인당 GDP	42,310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2018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직전년도 1.8% 대비 0.4%p 하락한 1.4%를 기록
- 영국의 전체인구는 약 6644만 명이며, 그 중 40세 이하의 잠재 소비 인구는 약 339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5%를 차지
- 금융위기 이후 영국인들도 무조건 가격만을 따지는 저가 선호 소비문화에 익숙해져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의류, 패션 시장이 이 같은 새로운 소비문화에 큰 영향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방문 중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 한-영 사이의 우호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협의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도 무역과 투자 관계를 포함한 양국의 우호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점차 상승세

- 전자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 극대화
- 방탄소년단(BTS)의 런던 공연 등 한류 인기의 상승으로 K-beauty 상품이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 인지도 상승

## 한국문화축제인 '한국의 날 (Korea Day in Wales)' 축제 개최

- 영국 내 각 지역에서 하루 동안 K-Pop과 국악, 한식, 한복 등 전통문화까지 한국문화 전반을 소개
- 한국문화 체험기회가 부족한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 전반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현지 한류 커뮤니티 간 연합활동 지원으로 영국 내 한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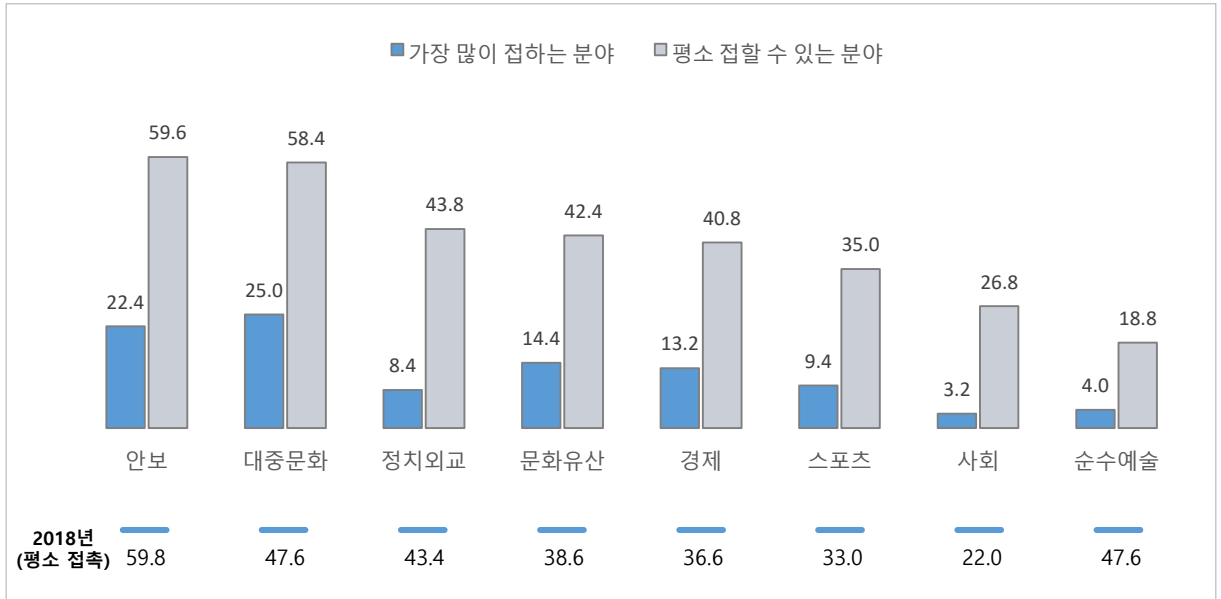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많이 접하는 분야는 '안보'와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평소 한국 관련 '안보'와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모든 분야의 접촉 비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대중문화'의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그림3-10-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접촉 비중이 높았고, '경제'는 남성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3-10-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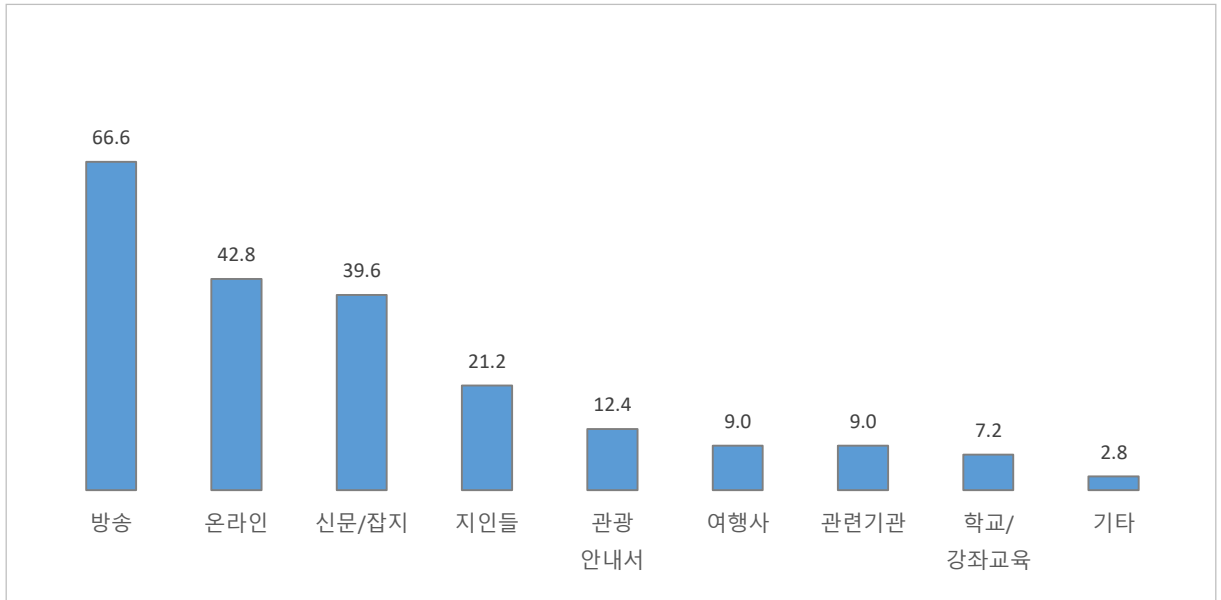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3)	(100)	(106)	(100)	(151)
안보	59.6	62.8	56.4	53.5	55.0	56.6	61.0	65.6
대중문화	58.4	56.8	60.0	72.1	79.0	65.1	51.0	41.1
정치외교	43.8	42.4	45.2	27.9	43.0	47.2	46.0	45.0
문화유산	42.4	45.6	39.2	46.5	46.0	48.1	41.0	35.8
경제	40.8	50.8	30.8	20.9	33.0	36.8	44.0	52.3
스포츠	35.0	38.0	32.0	20.9	30.0	30.2	44.0	39.7
사회	26.8	26.0	27.6	34.9	25.0	32.1	27.0	21.9
순수예술	18.8	21.2	16.4	27.9	21.0	17.9	22.0	13.2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방송' > '온라인'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10-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과 '온라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문/잡지', '관광안내서'는 남성이, '지인들'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방송'은 높은 연령, '온라인'은 10~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3-10-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3)	(100)	(106)	(100)	(151)
방송	66.6	67.6	65.6	48.8	55.0	69.8	68.0	76.2
온라인	42.8	44.4	41.2	74.4	65.0	46.2	36.0	21.2
신문/잡지	39.6	41.2	38.0	23.3	30.0	40.6	42.0	48.3
지인들	21.2	19.2	23.2	44.2	24.0	29.2	19.0	8.6
관광안내서	12.4	16.4	8.4	11.6	13.0	21.7	11.0	6.6
여행사	9.0	12.0	6.0	4.7	10.0	16.0	12.0	2.6
관련기관	9.0	10.4	7.6	4.7	6.0	16.0	10.0	6.6
학교/강좌 교육	7.2	7.6	6.8	7.0	5.0	7.5	8.0	7.9
기타	2.8	4.0	1.6	0.0	0.0	1.9	3.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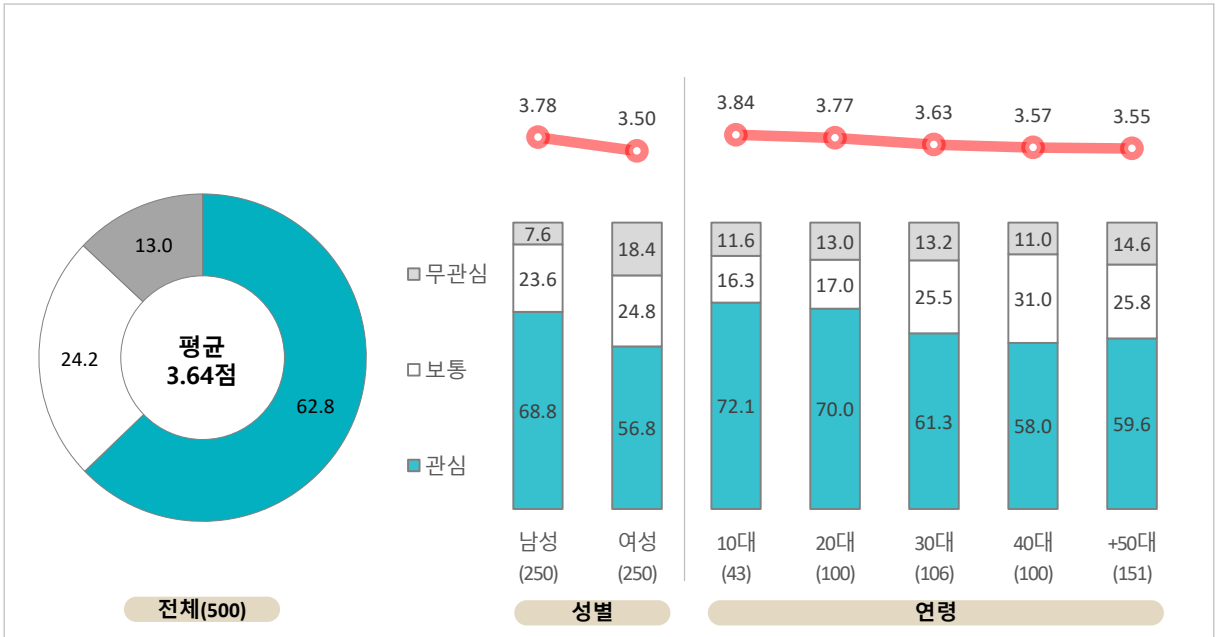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62.8%, '관심 없다'가 13.0%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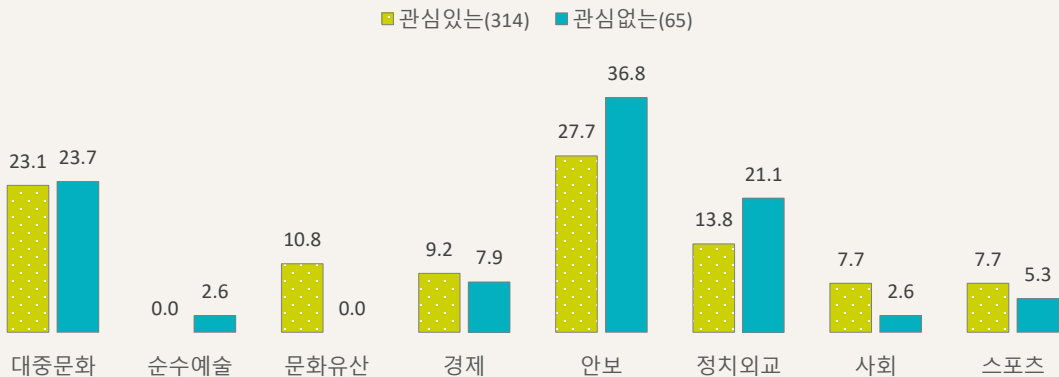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남성들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 20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10-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영국인들은 '안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대중문화',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영국인들은 '안보'와 '대중문화', '정치외교'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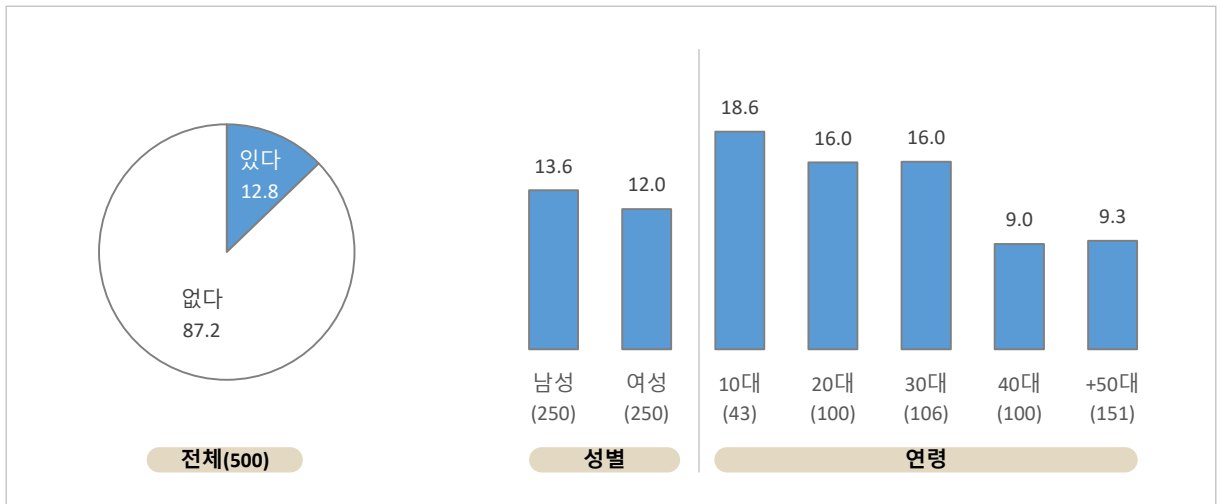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2.8%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84.4%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10~30대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40-50대 이상의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3-10-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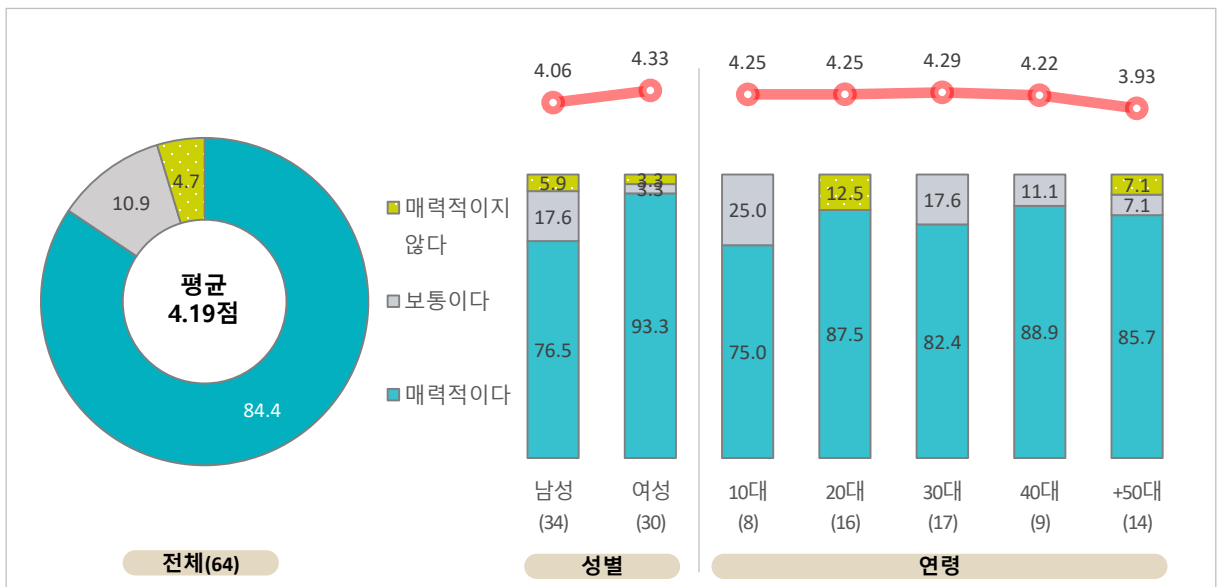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방문 후 긍정변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대의 긍정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3-10-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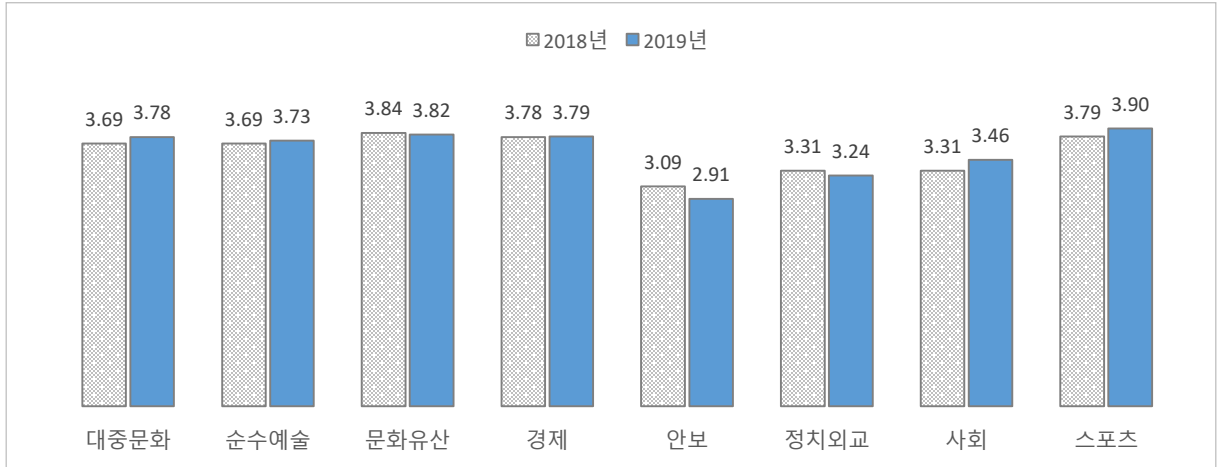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안보'와 '정치외교', '사회'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문화유산' 분야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반면, '안보'의 경우 호감도가 2.91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3-10-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중문화', '문화유산'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임

표3-10-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대중문화	긍정률	69.7	64.3	75.0	68.4	75.3	79.6	61.5	64.7
	평균	3.85	3.78	3.91	3.74	3.96	3.98	3.69	3.82
순수예술	긍정률	49.2	45.6	52.8	18.2	50.0	55.6	36.3	60.0
	평균	3.59	3.52	3.66	3.18	3.58	3.69	3.35	3.80
문화유산	긍정률	63.2	57.7	68.6	48.5	63.4	73.3	56.4	64.2
	평균	3.71	3.62	3.79	3.45	3.69	3.90	3.52	3.79
경제	긍정률	65.4	62.8	67.9	45.5	62.8	82.0	61.7	61.3
	평균	3.77	3.72	3.83	3.48	3.68	4.04	3.64	3.80
안보	긍정률	37.0	32.8	41.4	11.8	29.7	45.7	39.3	40.0
	평균	3.24	3.09	3.39	2.97	3.04	3.49	3.18	3.28
정치외교	긍정률	42.0	39.4	44.5	23.5	36.3	56.6	36.8	43.1
	평균	3.26	3.19	3.33	2.85	3.21	3.54	3.15	3.27
사회	긍정률	56.6	52.2	60.9	51.6	51.2	74.3	52.0	51.4
	평균	3.57	3.46	3.68	3.48	3.48	3.88	3.38	3.56
스포츠	긍정률	62.1	59.7	64.6	33.3	57.6	77.6	58.7	63.2
	평균	3.64	3.58	3.71	2.94	3.56	3.91	3.60	3.71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78.8%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4.0%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공격적임/무서움'이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싸이' > '손흥민' > 'BTS' > '문재인' 순으로 나타남

그림3-10-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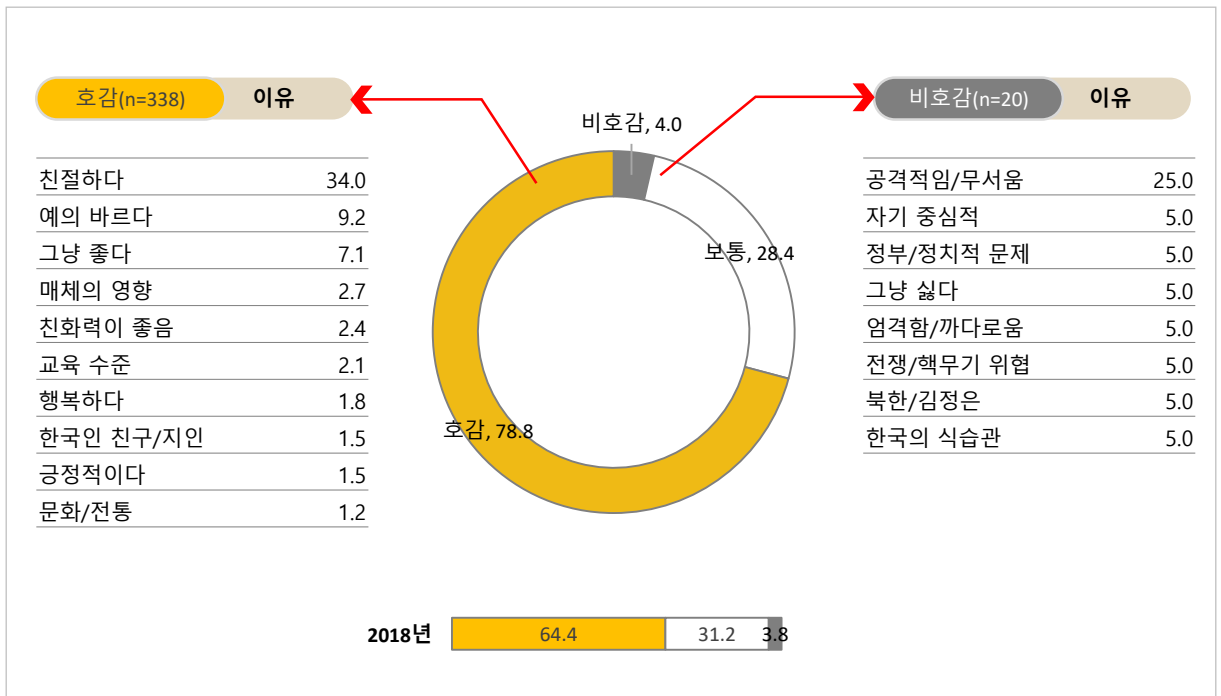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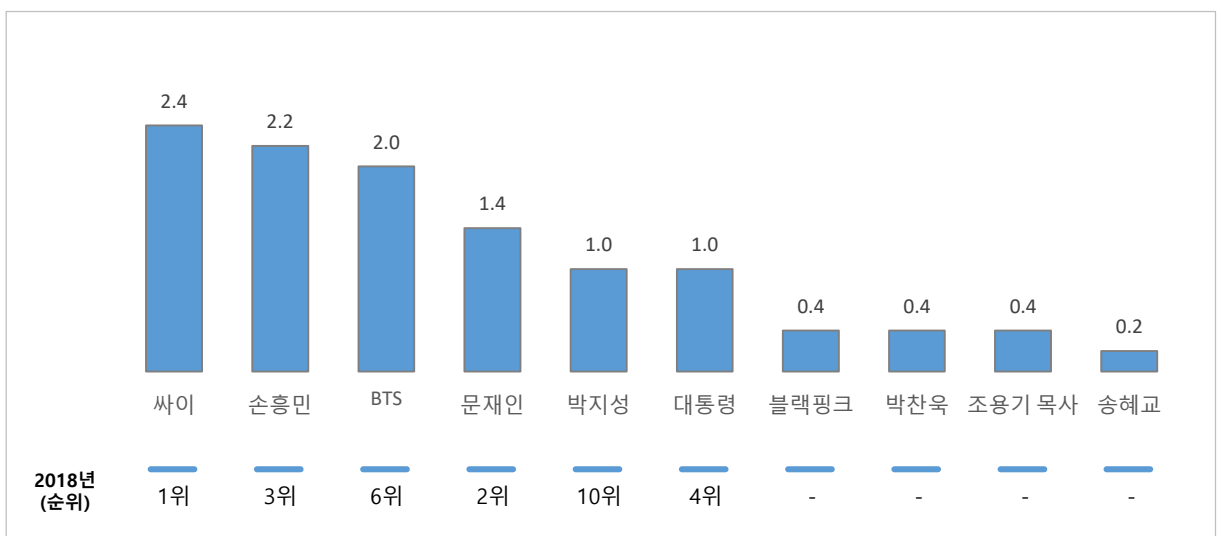


그림3-10-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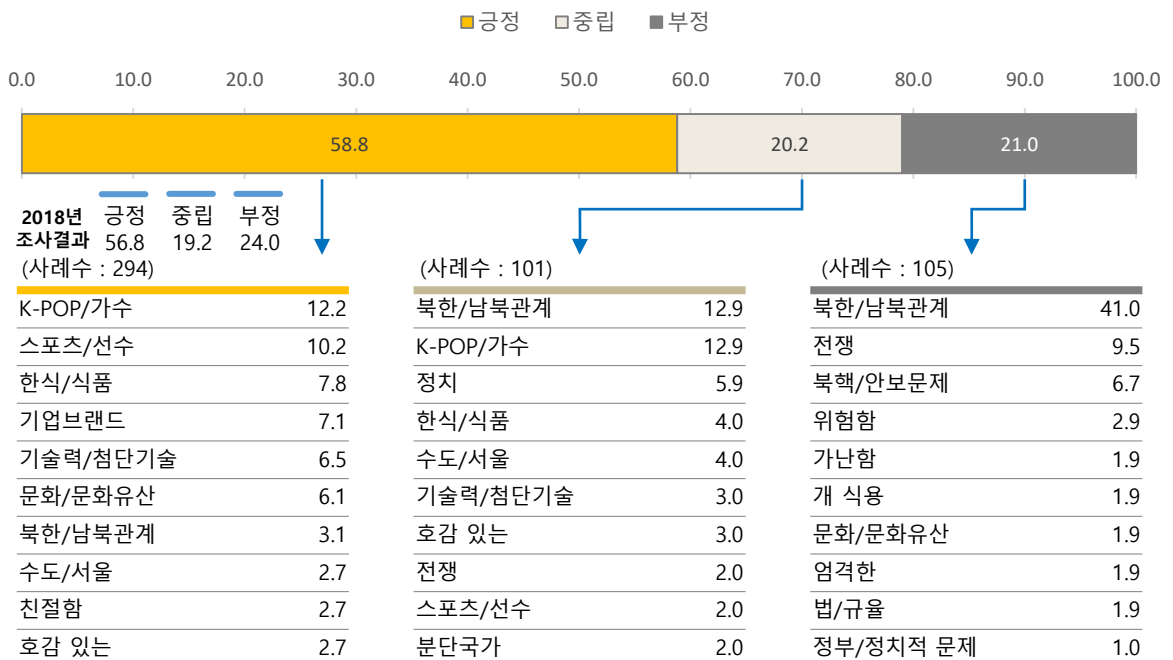
- 영국인들은 '한국'하면 '북한/남북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58.8%, 부정 21.0%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K-POP/가수',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가 가장 많았음

그림3-10-6.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69.0%, 5점 만점 3.76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북핵문제'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과 20대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3-10-9.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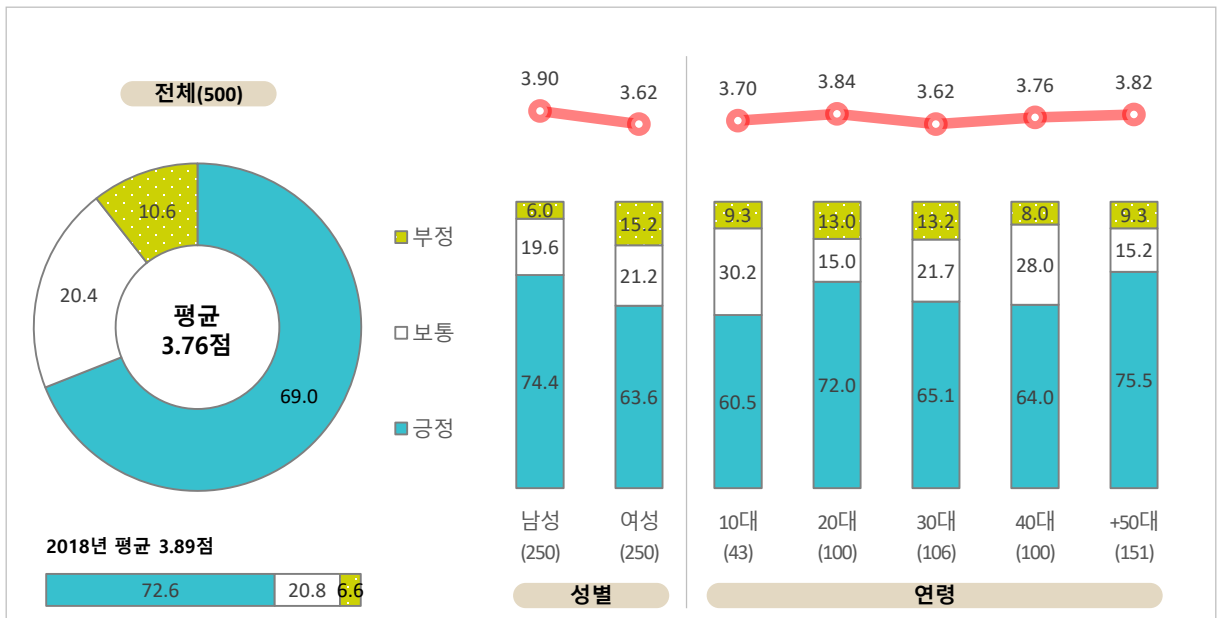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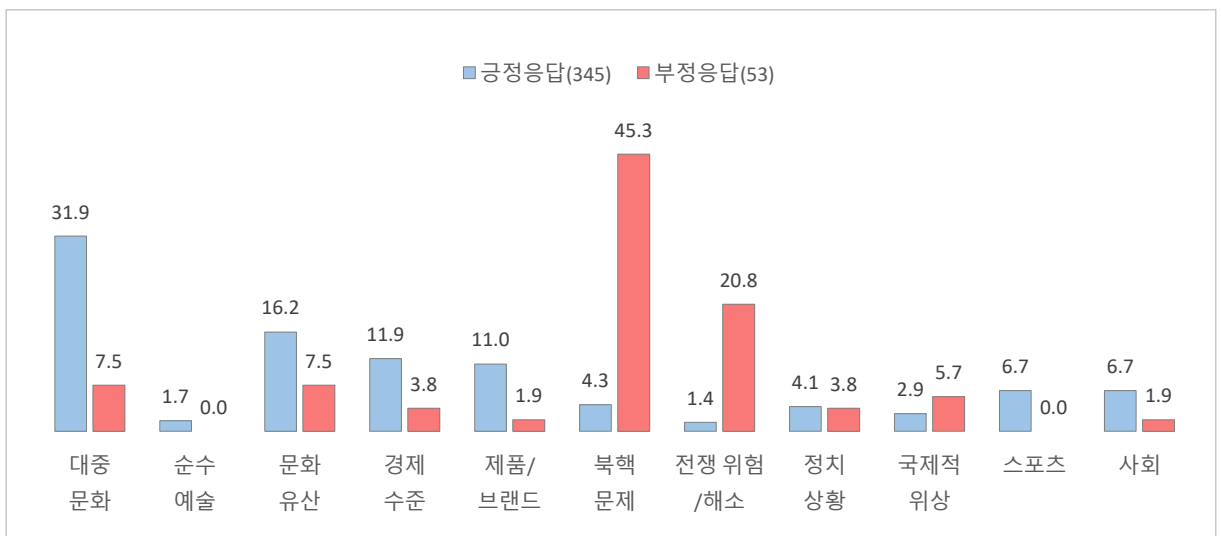


그림3-10-10.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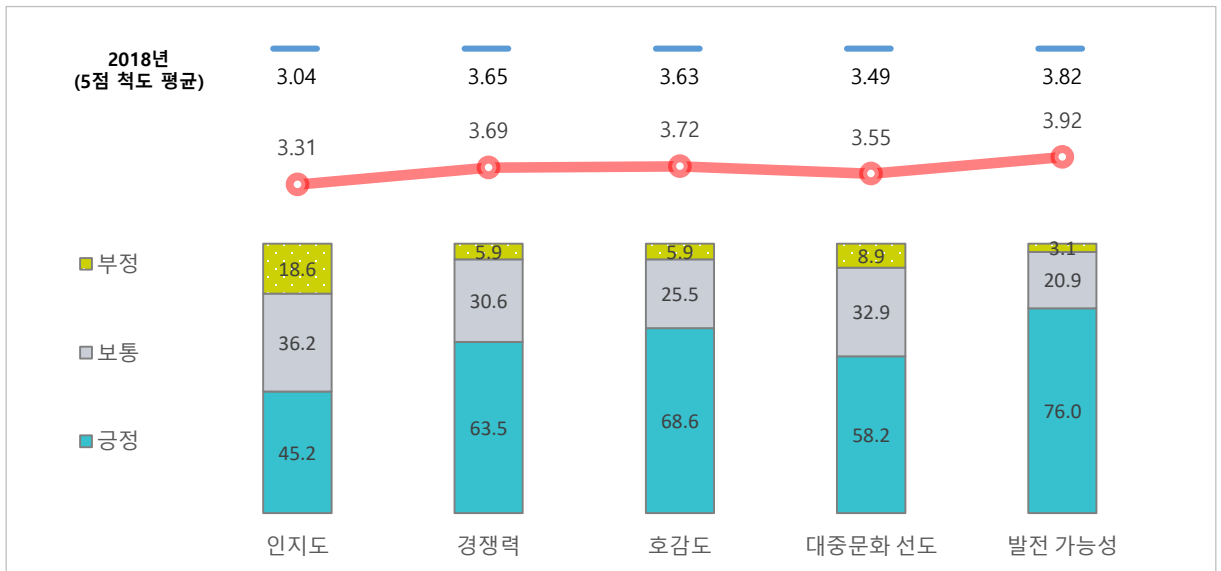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긍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0%, 부정 평가 3.1%로 가장 높게 평가함
- 반면, '대중문화 선도'에 대한 긍정 평가는 58.2%, 부정 평가 8.9%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림3-10-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경쟁력'에 대해 남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연령별로는 '호감도'는 40-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 1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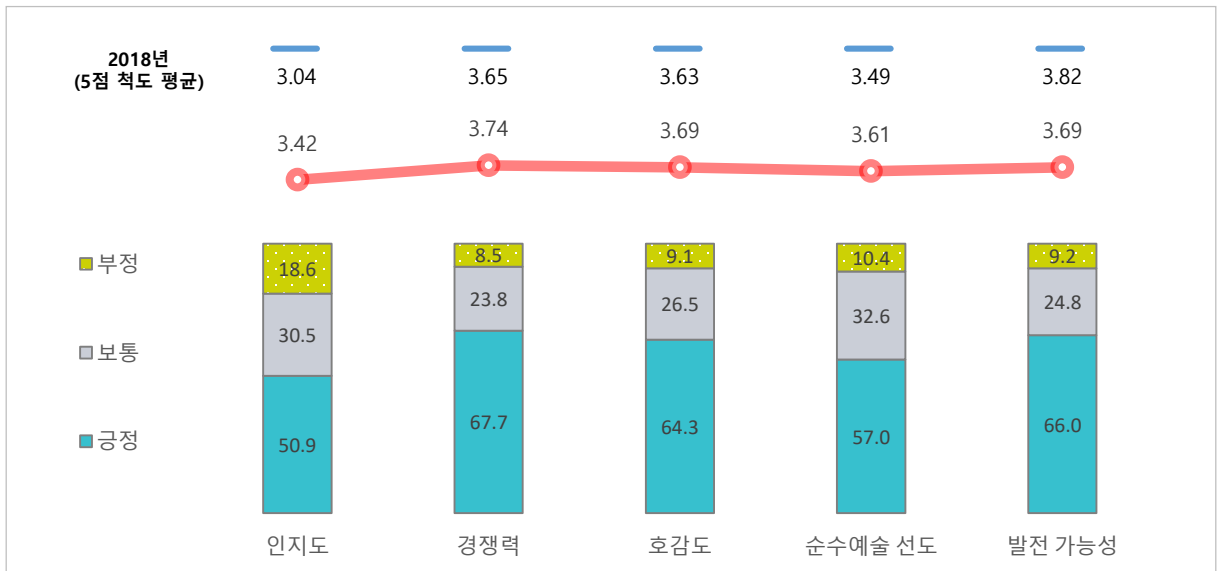
표3-10-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2)	(191)	(201)	(38)	(88)	(90)	(75)	(101)
인지도	긍정률	45.2	50.3	40.3	42.1	47.7	43.3	49.3	42.6
	평균	3.31	3.41	3.21	3.32	3.39	3.31	3.27	3.27
경쟁력	긍정률	63.5	68.1	59.2	65.8	70.5	63.3	61.3	58.4
	평균	3.69	3.80	3.60	3.79	3.74	3.73	3.67	3.60
호감도	긍정률	68.6	71.2	66.2	50.0	67.0	66.7	73.3	75.2
	평균	3.72	3.73	3.71	3.50	3.73	3.71	3.79	3.76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58.2	59.7	56.7	52.6	59.1	57.8	60.0	58.4
	평균	3.55	3.57	3.53	3.61	3.61	3.53	3.53	3.50
발전 가능성	긍정률	76.0	77.0	75.1	73.7	73.9	73.3	78.7	79.2
	평균	3.92	3.91	3.93	3.97	3.92	3.87	3.96	3.92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쟁력'에 대해 긍정 67.7%, 부정 8.5%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이 긍정 66.0%, 부정 9.2%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3-10-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순수예술 선도'에 대해 2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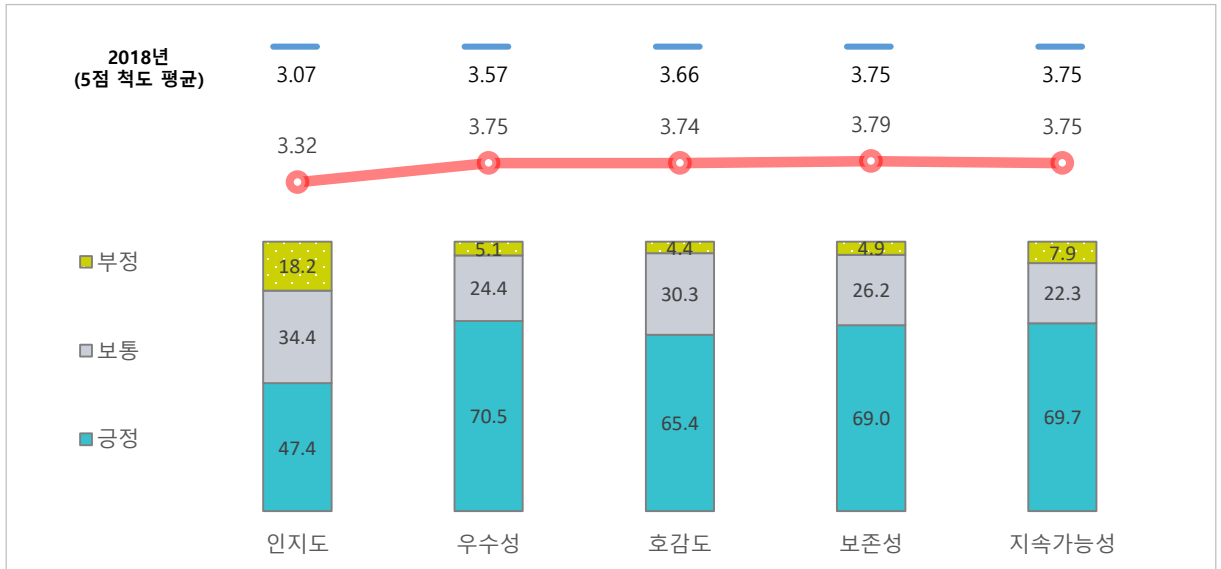
표3-10-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28)	(168)	(160)	(30)	(54)	(71)	(76)	(97)
인지도	긍정률	50.9	56.0	45.6	50.0	59.3	60.6	44.7	44.3
	평균	3.42	3.49	3.34	3.57	3.63	3.55	3.26	3.28
경쟁력	긍정률	67.7	70.2	65.0	76.7	75.9	67.6	71.1	57.7
	평균	3.74	3.83	3.64	3.90	3.94	3.73	3.78	3.55
호감도	긍정률	64.3	68.5	60.0	50.0	68.5	60.6	65.8	68.0
	평균	3.69	3.78	3.60	3.63	3.83	3.54	3.70	3.74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57.0	61.9	51.9	56.7	68.5	56.3	56.6	51.5
	평균	3.61	3.70	3.52	3.70	3.80	3.54	3.67	3.48
발전 가능성	긍정률	66.0	72.9	58.8	51.7	69.8	69.0	64.5	67.0
	평균	3.69	3.79	3.59	3.55	3.83	3.63	3.75	3.66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70% 내외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우세하였음
- 특히 '우수성'이 긍정 70.5%, 부정 4.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이 긍정 69.7%, 부정 7.9%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3-10-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연령 별로는 40대가 '보존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10-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0)	(193)	(197)	(34)	(78)	(81)	(76)	(121)
인지도	긍정률	47.4	50.8	44.2	44.1	48.7	46.9	55.3	43.0
	평균	3.32	3.40	3.23	3.29	3.36	3.35	3.39	3.22
우수성	긍정률	70.5	70.5	70.6	58.8	74.4	67.9	71.1	72.7
	평균	3.75	3.74	3.75	3.62	3.76	3.68	3.82	3.78
호감도	긍정률	65.4	65.8	65.0	52.9	62.8	63.0	68.4	70.2
	평균	3.74	3.74	3.75	3.65	3.64	3.80	3.78	3.78
보존성	긍정률	69.0	69.9	68.0	73.5	64.1	65.4	78.9	66.9
	평균	3.79	3.79	3.78	3.85	3.65	3.77	3.93	3.78
지속가능성	긍정률	69.7	74.1	65.5	70.6	71.8	63.0	69.7	72.7
	평균	3.75	3.82	3.67	3.85	3.72	3.58	3.78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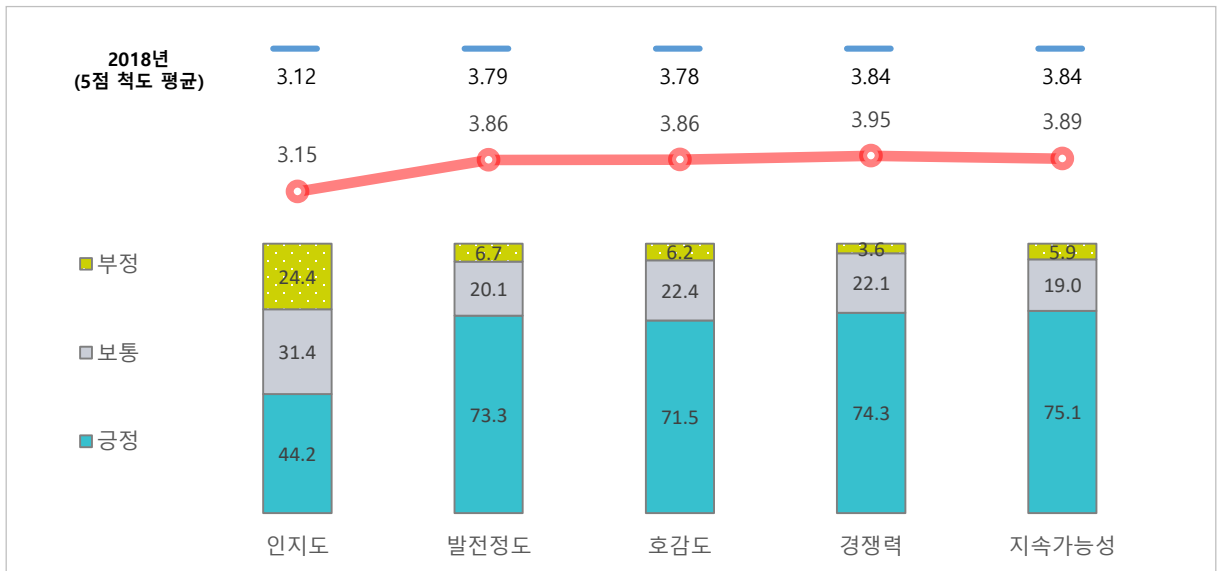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70%대로, 부정 평가가 6% 내외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속가능성'은 긍정 75.1%, 부정 5.9%로 가장 높았고, '경쟁력' 역시 긍정 74.3%, 부정 3.6%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10-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으나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더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표3-10-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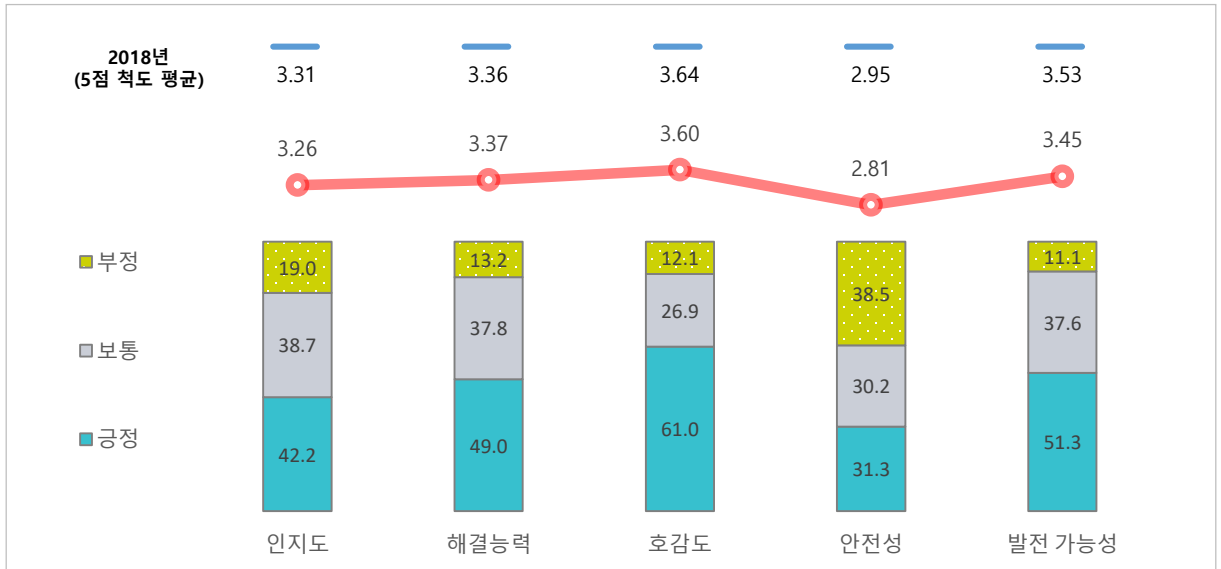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389)	(207)	(182)	(31)	(75)	(82)	(82)	(119)
인지도	긍정률	44.2	47.3	40.7	35.5	44.0	43.9	47.6	44.5
	평균	3.15	3.29	3.01	2.97	3.17	3.06	3.21	3.22
발전정도	긍정률	73.3	76.8	69.2	64.5	73.3	72.0	73.2	76.5
	평균	3.86	3.93	3.77	3.71	3.80	3.80	3.91	3.93
호감도	긍정률	71.5	72.9	69.8	67.7	64.0	69.5	75.6	75.6
	평균	3.86	3.91	3.81	3.81	3.67	3.84	3.99	3.93
경쟁력	긍정률	74.3	73.9	74.7	77.4	66.7	67.1	79.3	79.8
	평균	3.95	3.97	3.93	3.97	3.73	3.84	4.05	4.08
지속가능성	긍정률	75.1	77.8	72.0	83.9	76.0	67.1	69.5	81.5
	평균	3.89	3.96	3.80	4.13	3.85	3.80	3.78	3.97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은 긍정평가가 5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해결능력'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0% 이하로 나타났음
- 전년도와 비교해 '호감도', '안전성', '발전 가능성'의 평가가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3-10-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 연령별로는 대부분 40대가 가장 높게 평가했으나, '발전 가능성'은 30대가 가장 높게 평가함

표3-10-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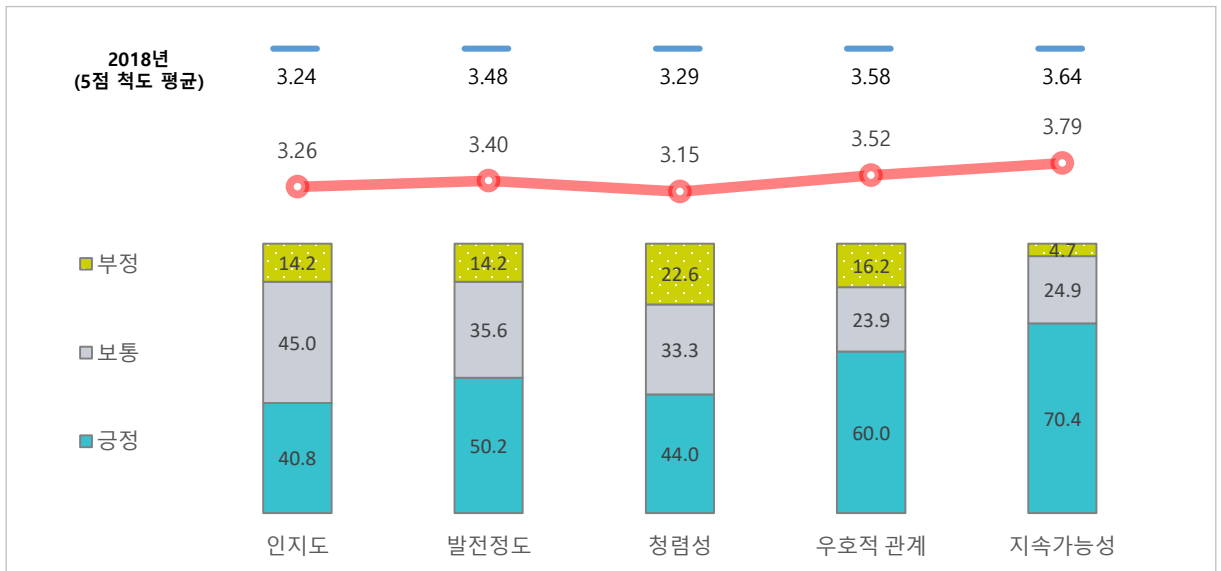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31)	(221)	(210)	(34)	(83)	(91)	(94)	(129)
인지도	긍정률	42.2	47.1	37.1	35.3	42.2	38.5	46.8	43.4
	평균	3.26	3.42	3.09	3.21	3.25	3.30	3.26	3.25
해결능력	긍정률	49.0	52.9	44.8	50.0	49.4	48.4	52.1	46.5
	평균	3.37	3.43	3.30	3.35	3.40	3.30	3.49	3.31
호감도	긍정률	61.0	63.8	58.1	52.9	55.4	49.5	68.1	69.8
	평균	3.60	3.62	3.58	3.50	3.48	3.40	3.70	3.76
안전성	긍정률	31.3	36.7	25.7	20.6	36.1	33.0	36.2	26.4
	평균	2.81	2.89	2.73	2.41	2.92	2.96	2.89	2.70
발전 가능성	긍정률	51.3	53.8	48.6	41.2	53.0	54.9	47.9	52.7
	평균	2.81	2.89	2.73	2.41	2.92	2.96	2.89	2.70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지속가능성'은 긍정 70.4%, 부정 4.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청렴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 44.0%, 부정 22.6%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3-10-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항목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우호적 관계'에 대해 4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10-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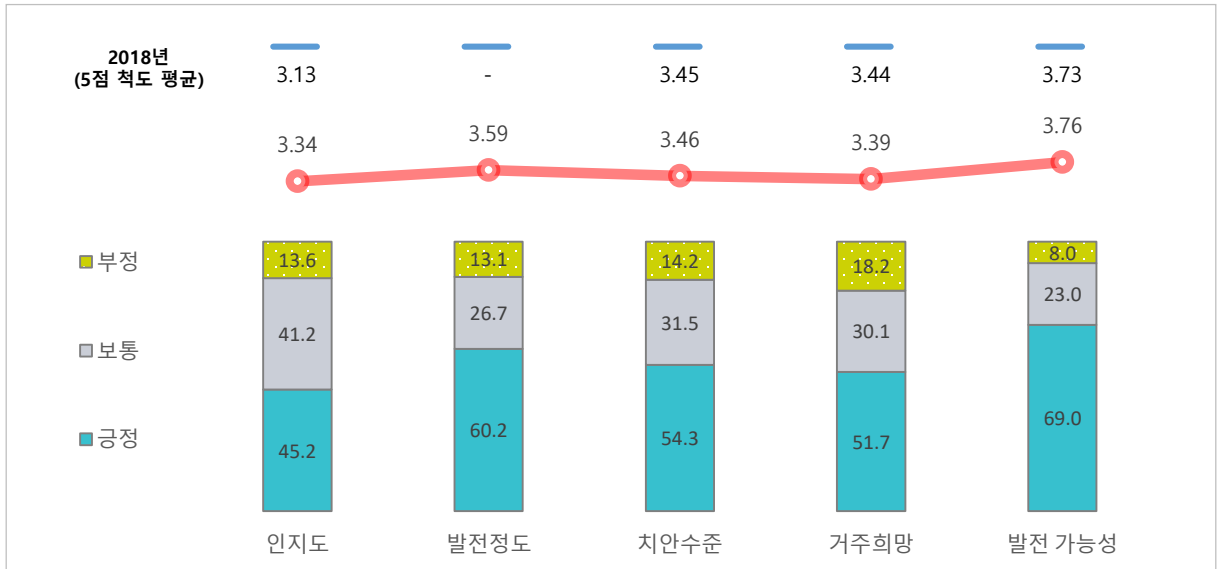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2)	(196)	(206)	(32)	(84)	(89)	(82)	(115)
인지도	긍정률	40.8	45.9	35.9	46.9	35.7	49.4	48.8	30.4
	평균	3.26	3.38	3.15	3.28	3.29	3.39	3.33	3.09
발전정도	긍정률	50.2	55.6	45.1	53.1	53.6	49.4	51.2	47.0
	평균	3.40	3.47	3.32	3.44	3.52	3.33	3.41	3.33
청렴성	긍정률	44.0	50.5	37.9	43.8	46.4	44.9	48.8	38.3
	평균	3.15	3.29	3.02	3.22	3.27	3.07	3.23	3.06
우호적 관계	긍정률	60.0	64.3	55.8	53.1	59.5	55.1	67.1	60.9
	평균	3.52	3.65	3.40	3.56	3.58	3.36	3.60	3.53
지속가능성	긍정률	70.4	72.4	68.4	59.4	67.9	71.9	75.6	70.4
	평균	3.79	3.86	3.72	3.69	3.86	3.79	3.80	3.75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50% 이상의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세부 속성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평가 69.0%, 부정 평가 8.0%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 '발전 정도'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60.2%, 부정 평가 13.2%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3-10-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치안수준'과 '거주희망'에 대해 남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표3-10-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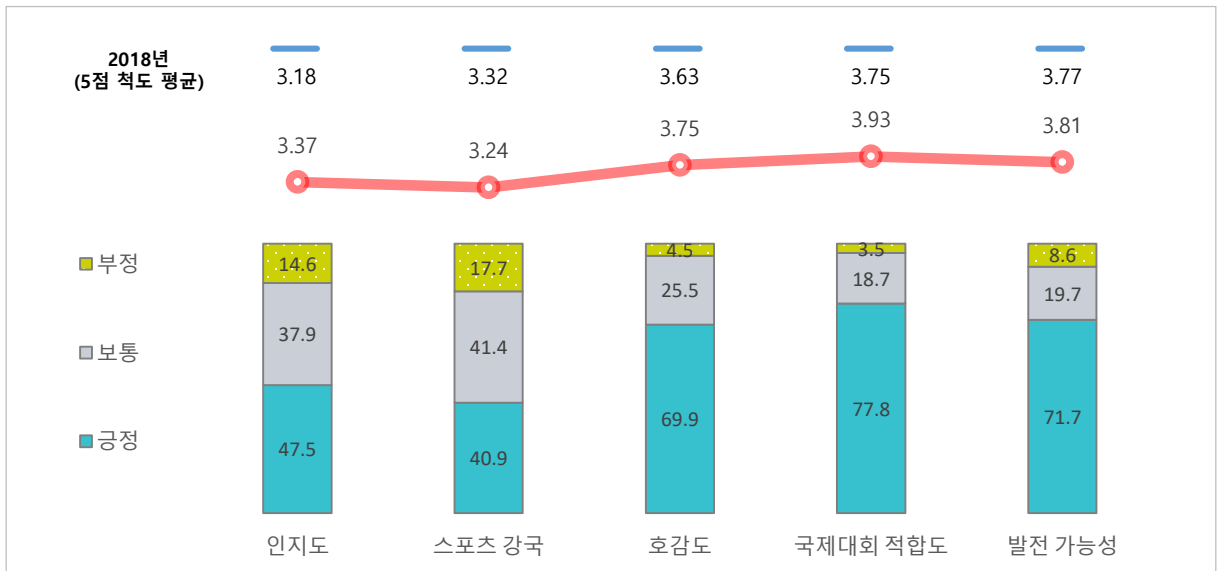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52)	(170)	(182)	(39)	(72)	(81)	(69)	(91)
인지도	긍정률	45.2	48.8	41.8	56.4	52.8	38.3	44.9	40.7
	평균	3.34	3.40	3.28	3.59	3.54	3.28	3.29	3.15
발전정도	긍정률	60.2	60.6	59.9	64.1	61.1	54.3	58.0	64.8
	평균	3.59	3.64	3.53	3.82	3.65	3.48	3.55	3.55
치안수준	긍정률	54.3	61.2	47.8	46.2	55.6	55.6	50.7	58.2
	평균	3.46	3.61	3.33	3.46	3.51	3.46	3.39	3.48
거주희망	긍정률	51.7	55.3	48.4	51.3	52.8	50.6	46.4	56.0
	평균	3.39	3.51	3.27	3.44	3.56	3.26	3.33	3.38
발전 가능성	긍정률	69.0	72.4	65.9	64.1	68.1	70.4	63.8	74.7
	평균	3.76	3.84	3.69	3.79	3.86	3.74	3.65	3.78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 긍정 70% 내외로 나타남
- 그 중 가장 높은 평가는 '국제대회 적합도'로 긍정 77.8%, 부정 3.5%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이 긍정 71.7%, 부정 8.6%로 나타남
- 반면, '스포츠 강국'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9%, 부정 평가는 17.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10-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스포츠 강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국제대회 적합도'에 대해 1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10-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6)	(198)	(198)	(36)	(77)	(80)	(76)	(127)
인지도	긍정률	47.5	51.5	43.4	38.9	46.8	48.8	55.3	44.9
	평균	3.37	3.37	3.36	3.14	3.40	3.43	3.53	3.28
스포츠강국	긍정률	40.9	36.4	45.5	30.6	36.4	40.0	44.7	44.9
	평균	3.24	3.22	3.27	3.06	3.16	3.24	3.30	3.32
호감도	긍정률	69.9	70.2	69.7	69.4	70.1	66.3	72.4	70.9
	평균	3.75	3.77	3.72	3.67	3.77	3.70	3.80	3.76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77.8	79.8	75.8	86.1	74.0	75.0	81.6	77.2
	평균	3.93	3.97	3.90	4.08	3.92	3.90	4.01	3.87
발전 가능성	긍정률	71.7	76.3	67.2	69.4	70.1	68.8	72.4	74.8
	평균	3.81	3.92	3.69	3.83	3.84	3.71	3.80	3.84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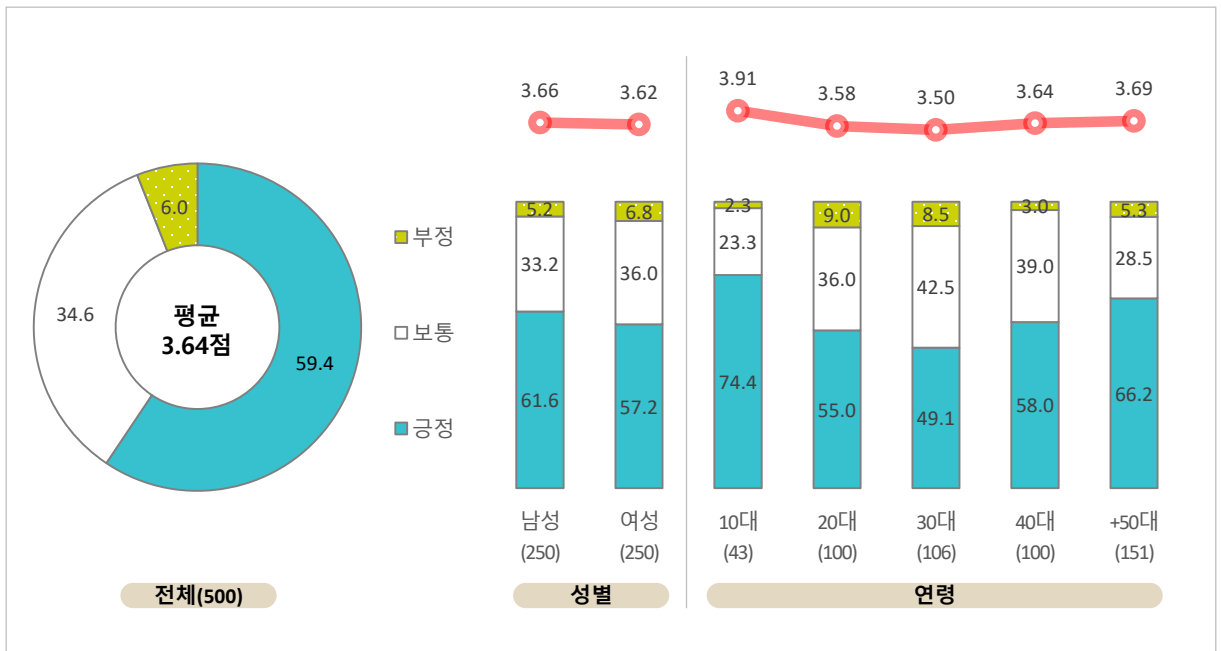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59.4%, 부정 6.0%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북한/남북관계',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부정적 매체의 영향'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변화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가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3-10-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긍정적 변화 이유(n=297)

북한/남북관계	9.1
더 많은 정보를 접함	8.1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6.1
스포츠/선수	4.0
호감/호의적임	3.4
문화/전통	3.0
사회/경제/경제발전	3.0
K-POP/가수	3.0
그냥 좋다	3.0
지속적인 성장/발전	2.7

(상위 10개만 제시)

#### 부정적 변화 이유(n=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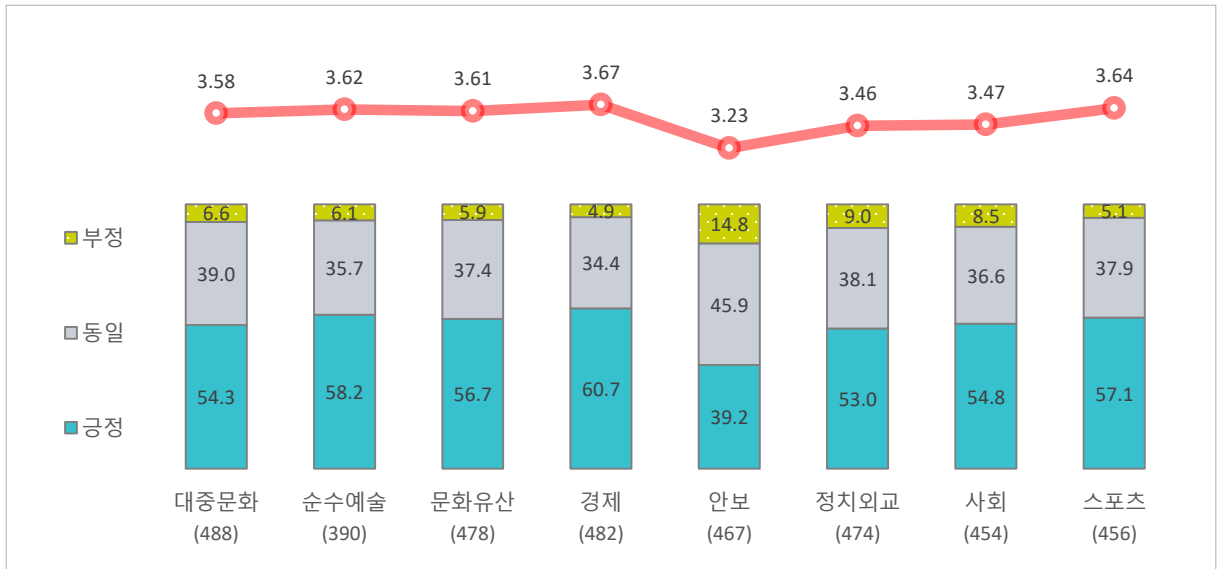
부정적 매체의 영향	16.7
전쟁/핵 위험	13.3
북한 문제	13.3
정부/정치적 문제	10.0
약속을 안지킴/신뢰할 수 없음	3.3
외교문제	3.3
위험한 나라	3.3
지나친 미의 기준	3.3
사회적 불평등	3.3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경제'는 긍정 6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보'는 긍정이 4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10-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대부분의 분야의 긍정 변화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 변화는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10대의 긍정 변화가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3-10-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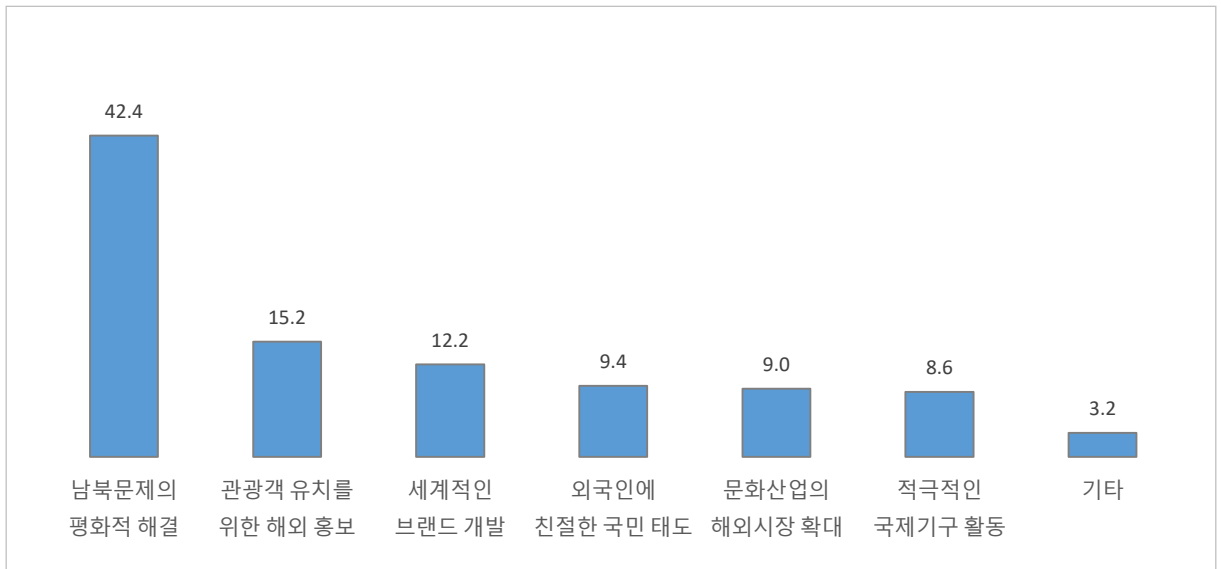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54.3	51.8	56.7	57.9	59.1	51.1	49.3	55.4
	평균	3.58	3.53	3.63	3.66	3.64	3.57	3.55	3.55
순수예술	긍정률	58.2	61.9	54.4	73.3	55.6	46.5	59.2	62.9
	평균	3.62	3.66	3.58	3.83	3.69	3.45	3.66	3.62
문화유산	긍정률	56.7	58.0	55.3	64.7	46.2	53.1	53.9	65.3
	평균	3.61	3.60	3.62	3.82	3.41	3.58	3.59	3.70
경제	긍정률	60.7	62.3	58.8	80.6	54.7	61.0	50.0	66.4
	평균	3.67	3.71	3.63	4.00	3.56	3.66	3.57	3.73
안보	긍정률	39.2	44.3	33.8	29.4	39.8	37.4	37.2	44.2
	평균	3.23	3.31	3.15	3.18	3.24	3.19	3.18	3.31
정치외교	긍정률	53.0	54.1	51.9	59.4	47.6	50.6	53.7	56.5
	평균	3.46	3.50	3.42	3.50	3.38	3.45	3.49	3.49
사회	긍정률	54.8	58.8	51.1	66.7	50.0	51.9	49.3	60.4
	평균	3.47	3.52	3.43	3.72	3.42	3.42	3.41	3.51
스포츠	긍정률	57.1	57.1	57.1	69.4	53.2	45.0	53.9	65.4
	평균	3.64	3.64	3.63	3.83	3.60	3.50	3.61	3.71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5.2%),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2.2%),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9.4%) 순으로 나타남

그림3-10-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응답 비중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0-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3)	(100)	(106)	(100)	(151)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42.4	41.6	43.2	30.2	35.0	34.9	41.0	57.0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5.2	13.2	17.2	18.6	12.0	15.1	15.0	16.6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2.2	13.2	11.2	7.0	20.0	17.0	14.0	4.0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9.4	7.2	11.6	16.3	8.0	8.5	9.0	9.3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9.0	12.4	5.6	16.3	12.0	10.4	8.0	4.6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8.6	9.2	8.0	11.6	10.0	9.4	10.0	5.3
기타	3.2	3.2	3.2	0.0	3.0	4.7	3.0	3.3



## 11

## 프랑스



## 1 일반개요

위치	유럽 중서부	언어	프랑스어
수도	파리(Paris)	종교	가톨릭, 이슬람교, 개신교
인구	6,710만 명	1인당 GDP	42,472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2019년 초에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농민을 지키기 위한 식품유통법을 통과시켰고, 2018년에는 안경테 및 렌즈를 상호 보험회사(Mutuelle)에서 100%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발표하며 가격인하를 유도
- 지속되는 미중무역분쟁과 브렉시트 불안감 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프랑스의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3세이고, 2020년 추정되는 20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24.1%로 고령화 단계에 있지만, 2018년 기준 출산율은 1.87명으로 유럽에서 높은 편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2018년 10월, 한국-프랑스 정상회담 개최

-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5개국 순방 프로그램의 첫 국가로 프랑스를 방문
- 북한의 비핵화 및 UN 제재조치 등 한반도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 2004년 수립된 '한국-프랑스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 및 양국이 모두 역점을 두고 있는 청년창업 확대, 신 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 협력

## K-POP 콘서트 개최

- 방탄소년단은 2018년 10월,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티켓 판매 2시간 만에 전석이 매진되어 큰 이슈
- 2019년 5~7월 사이에는 블랙핑크, 효린, 선미 등의 K-pop 가수들이 파리의 다양한 공연장에서 콘서트 개최

## 한국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인지도는 빠른 속도로 상승세

- 가전제품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각 분야의 최고 수준으로 인정
- 북한과의 외교적 이슈로 국가 인지도가 매우 상승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문화도 큰 역할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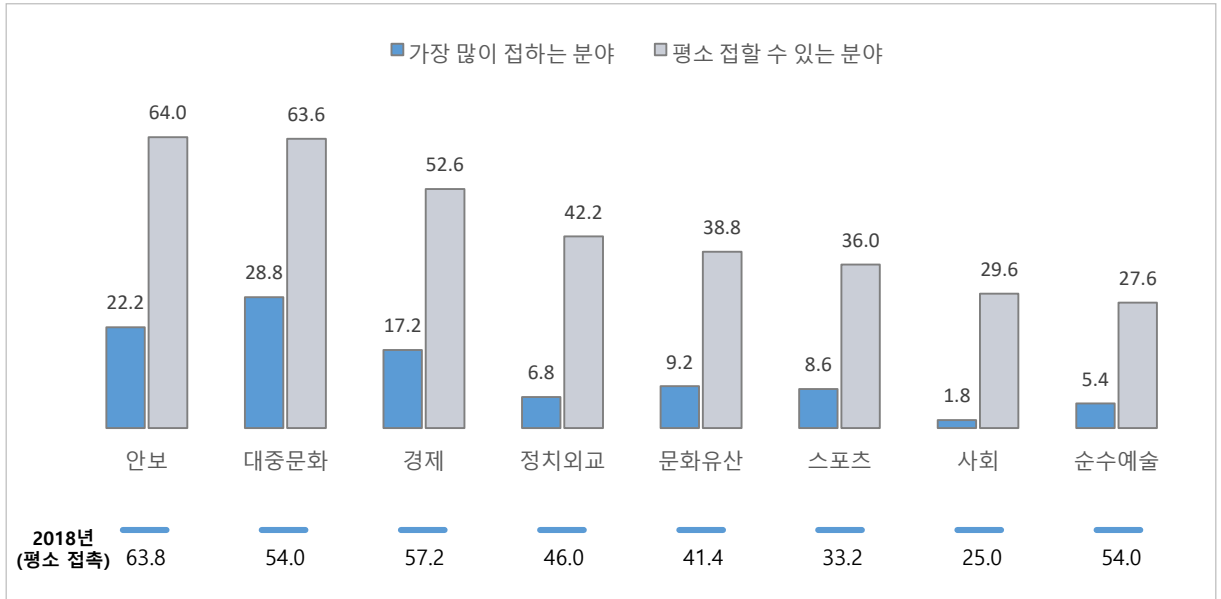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많이 접하는 분야는 '안보'와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약 64%가 평소 한국 관련 '안보'와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대중문화'의 접촉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음

그림3-11-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경제', '스포츠'는 남성이, '정치외교', '사회'는 여성의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안보'의 접촉 비중은 40-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3-11-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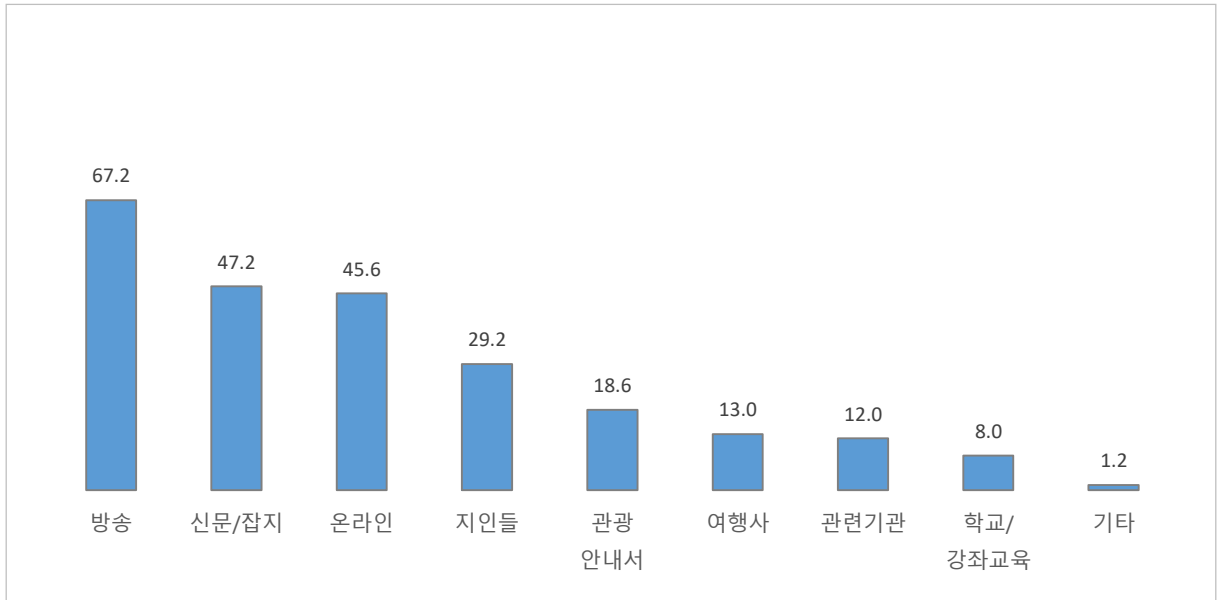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49)	(251)	(49)	(95)	(100)	(104)	(152)
안보	64.0	65.1	62.9	57.1	55.8	59.0	73.1	68.4
대중문화	63.6	64.3	62.9	69.4	80.0	66.0	76.9	40.8
경제	52.6	58.2	47.0	30.6	44.2	55.0	59.6	58.6
정치외교	42.2	37.8	46.6	34.7	45.3	43.0	39.4	44.1
문화유산	38.8	37.3	40.2	28.6	41.1	43.0	36.5	39.5
스포츠	36.0	42.2	29.9	24.5	27.4	38.0	44.2	38.2
사회	29.6	23.7	35.5	18.4	33.7	33.0	34.6	25.0
순수예술	27.6	26.9	28.3	20.4	34.7	27.0	27.9	25.7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방송' > '신문/잡지' > '온라인' 순으로 높았음

그림3-11-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 '신문/잡지', '온라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지인들'과 '관광안내서'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방송'은 높은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3-11-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49)	(251)	(49)	(95)	(100)	(104)	(152)
방송	67.2	65.9	68.5	61.2	62.1	62.0	71.2	73.0
신문/잡지	47.2	48.2	46.2	32.7	40.0	48.0	51.9	52.6
온라인	45.6	45.0	46.2	55.1	62.1	46.0	46.2	31.6
지인들	29.2	25.7	32.7	28.6	35.8	33.0	35.6	18.4
관광안내서	18.6	14.5	22.7	2.0	23.2	23.0	26.0	13.2
여행사	13.0	10.8	15.1	10.2	20.0	12.0	13.5	9.9
관련기관	12.0	9.2	14.7	2.0	15.8	15.0	16.3	7.9
학교/강좌 교육	8.0	8.0	8.0	8.2	11.6	7.0	6.7	7.2
기타	1.2	1.2	1.2	2.0	1.1	0.0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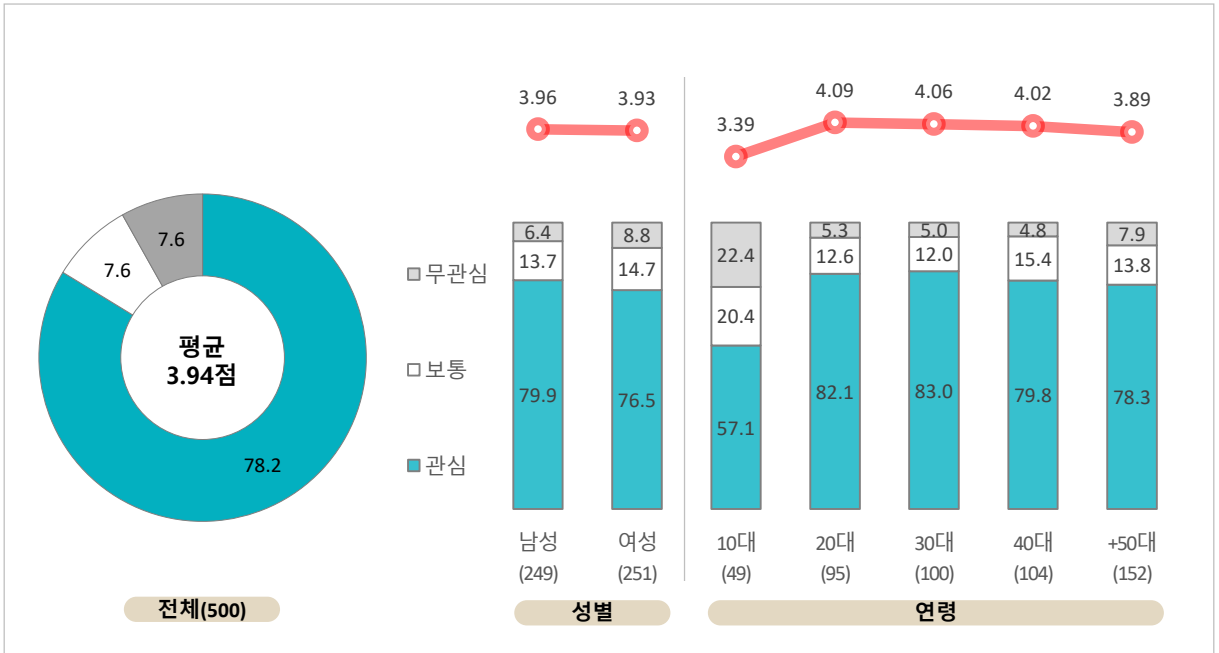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78.2%, '관심 없다'가 7.6%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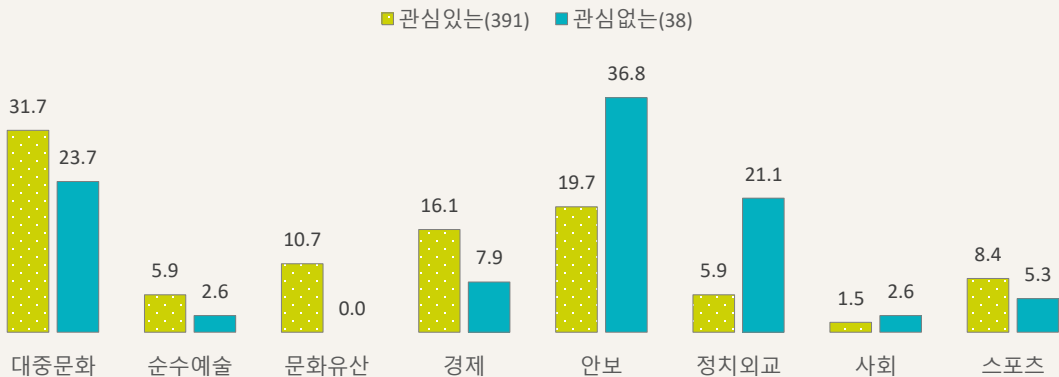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한국에 대한 관심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남성의 관심도가 약간 더 높음. 연령별로는 10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3-11-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안보', '경제',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프랑스인들은 '안보'와 '대중문화', '정치외교'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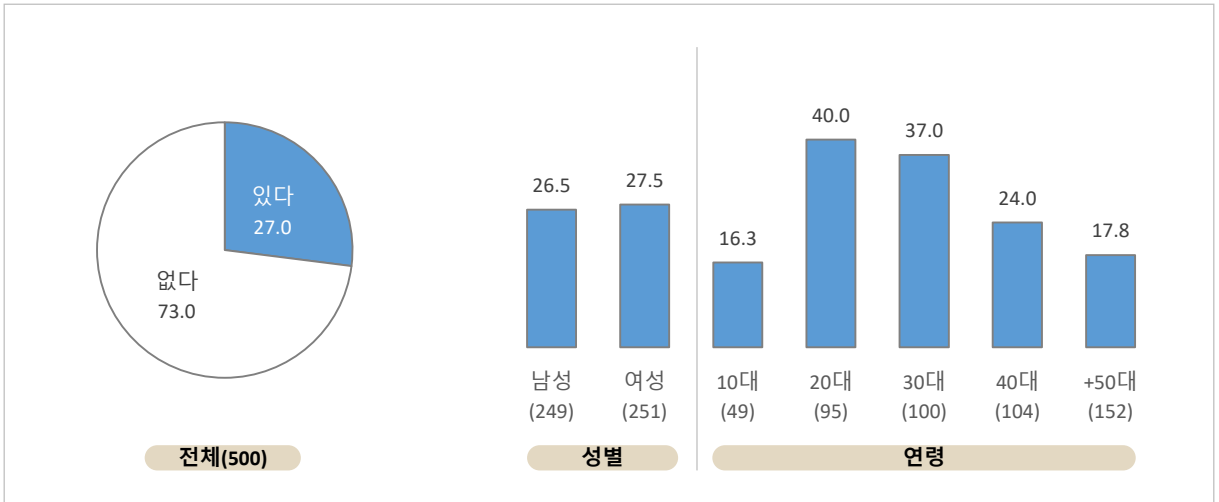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27.0%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85.2%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30대의 방문 경험이 높게 나타남

그림3-11-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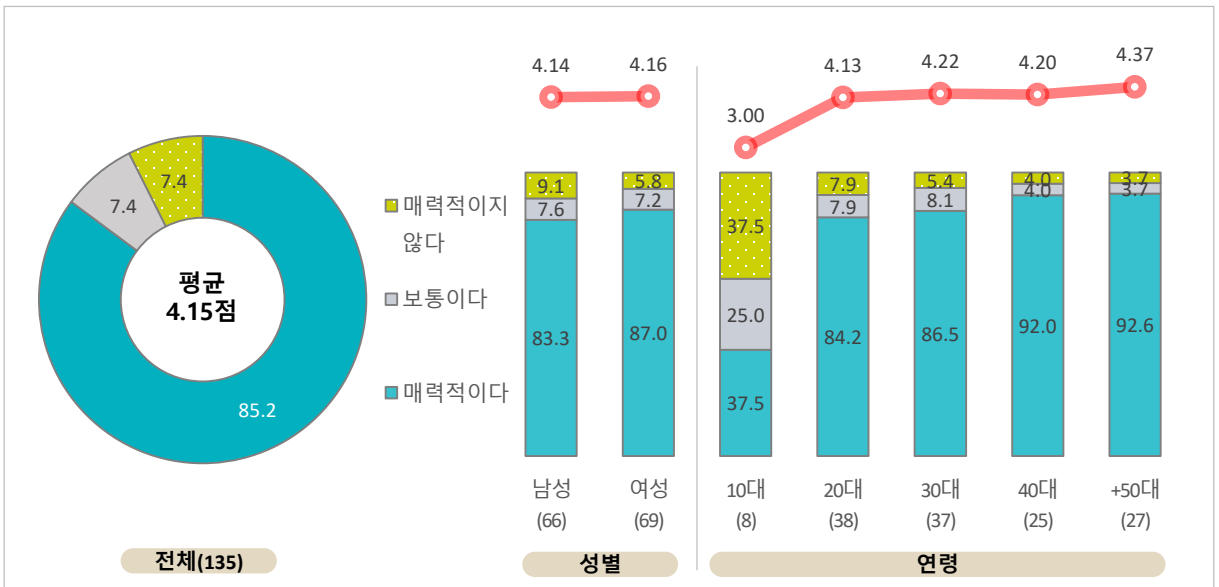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방문 후 긍정 변화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대의 긍정 변화가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3-11-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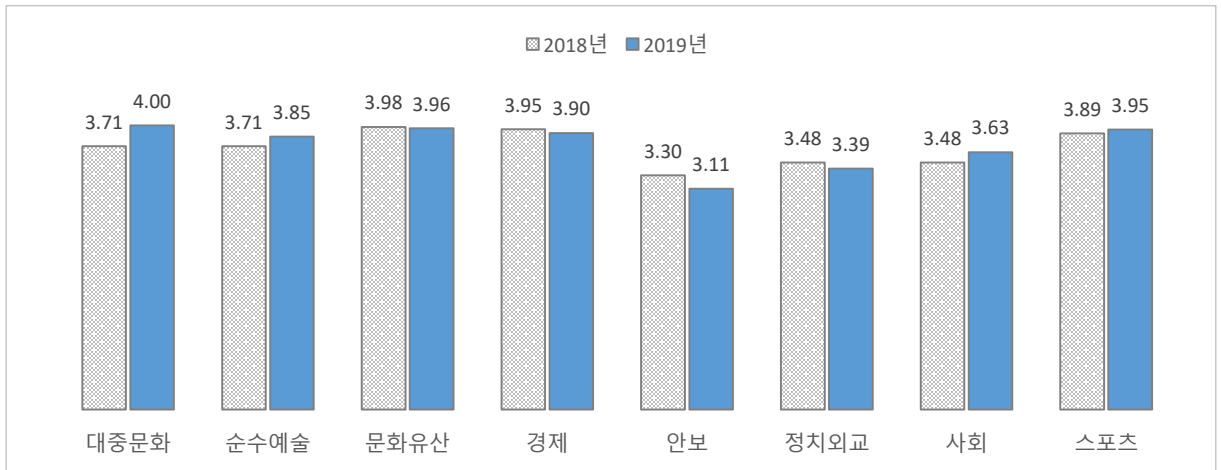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안보'와 '정치외교'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대중문화'의 호감도는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안보'는 3.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3-11-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부분의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중문화'에 대한 호감도는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스포츠'에 대해 40대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1-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49)	(251)	(49)	(95)	(100)	(104)	(152)
대중문화	긍정률	77.4	76.8	78.0	76.2	74.7	79.3	83.0	73.5
	평균	4.00	4.02	3.99	3.95	4.08	4.02	4.05	3.90
순수예술	긍정률	72.1	73.9	70.3	66.7	69.7	69.2	69.6	79.0
	평균	3.85	3.87	3.82	3.69	3.79	3.88	3.88	3.89
문화유산	긍정률	75.1	75.4	74.7	65.8	71.4	76.3	71.8	82.1
	평균	3.96	3.98	3.94	3.87	3.97	3.94	3.97	4.00
경제	긍정률	77.1	80.9	72.9	69.2	68.0	81.2	80.0	80.0
	평균	3.90	3.98	3.80	3.64	3.67	4.05	3.94	3.98
안보	긍정률	38.6	41.3	35.8	36.4	30.1	41.3	43.2	39.1
	평균	3.11	3.19	3.03	2.89	2.89	3.21	3.14	3.23
정치외교	긍정률	55.9	64.5	48.0	25.0	58.4	57.9	62.7	58.0
	평균	3.39	3.55	3.26	2.69	3.38	3.47	3.51	3.50
사회	긍정률	67.0	75.0	60.3	70.6	56.9	71.8	65.4	70.9
	평균	3.63	3.79	3.49	3.59	3.38	3.76	3.68	3.68
스포츠	긍정률	76.8	81.6	71.0	76.5	77.2	75.9	82.9	72.9
	평균	3.95	4.02	3.86	3.91	3.89	3.94	4.04	3.92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78.8%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4.2%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엄격함/까다로움'이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문재인' > 'BTS' > '싸이' > '대통령' 순으로 나타남

그림3-11-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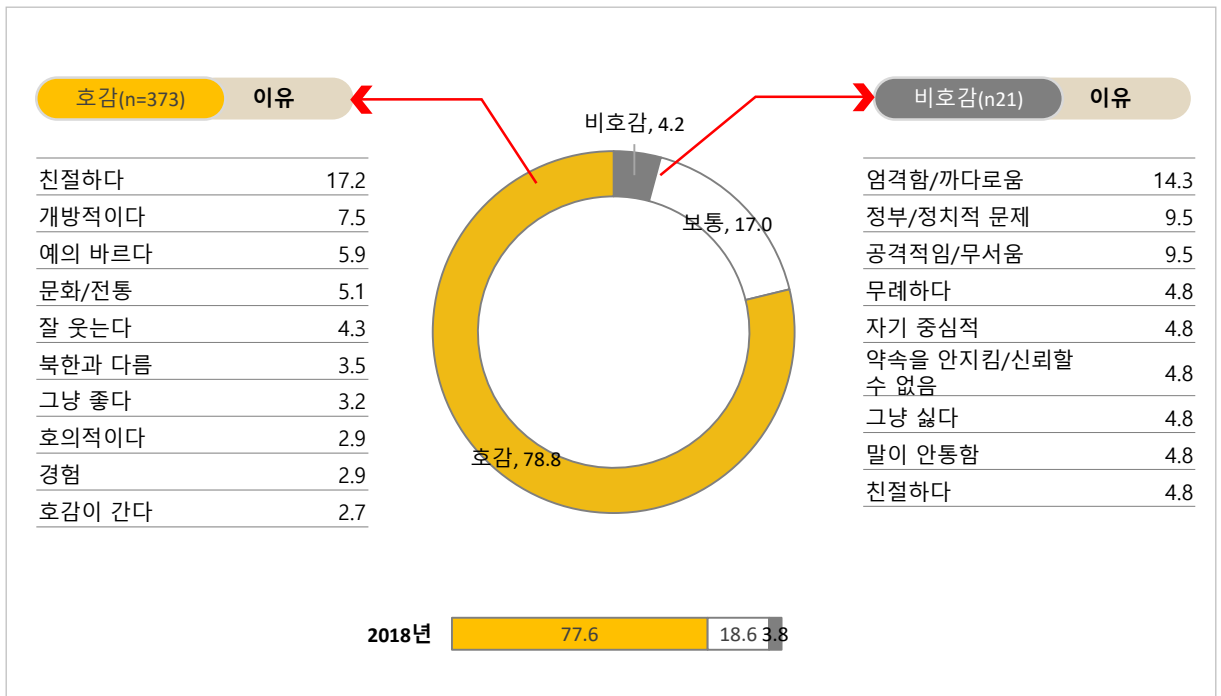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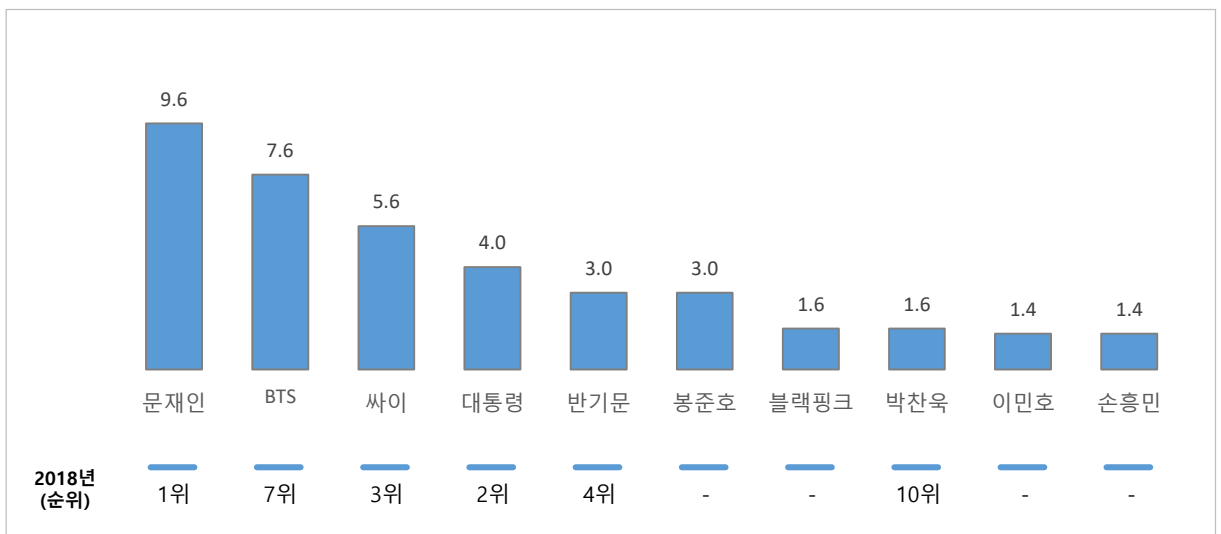


그림3-11-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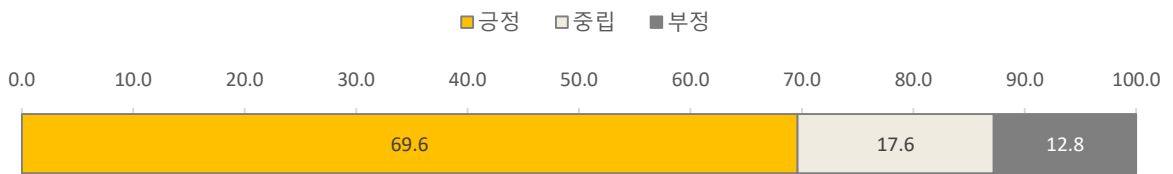
- 프랑스인들은 '한국'하면 'K-POP/가수'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69.6%, 부정 12.8%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K-POP/가수',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을 많이 떠올림

그림3-11-6.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2018년 조사결과  
(사례수 : 348)

긍정	72.4
중립	17.4
부정	10.2

(사례수 : 88)

(사례수 : 64)

연상 이미지	비율 (%)	연상 이미지	비율 (%)	연상 이미지	비율 (%)
K-POP/가수	10.9	북한/남북관계	21.6	북한/남북관계	21.9
문화/문화유산	8.9	K-POP/가수	6.8	독재	12.5
기업브랜드	7.5	정치	4.5	정부/정치적 문제	7.8
기술력/첨단기술	6.0	분단국가	3.4	전쟁	4.7
한식/식품	4.6	문화/문화유산	3.4	북핵/안보문제	4.7
경제/경제발전	4.6	수도/서울	2.3	분단국가	4.7
스포츠/선수	4.3	현대적인	2.3	K-POP/가수	3.1
기후/자연환경	4.3	기업브랜드	2.3	위험함	1.6
북한/남북관계	4.0	비무장지대	2.3	문화/문화유산	1.6
수도/서울	3.7	아시아	2.3	엄격한	1.6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79.8%, 5점 만점 3.96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북핵문제'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3-11-9.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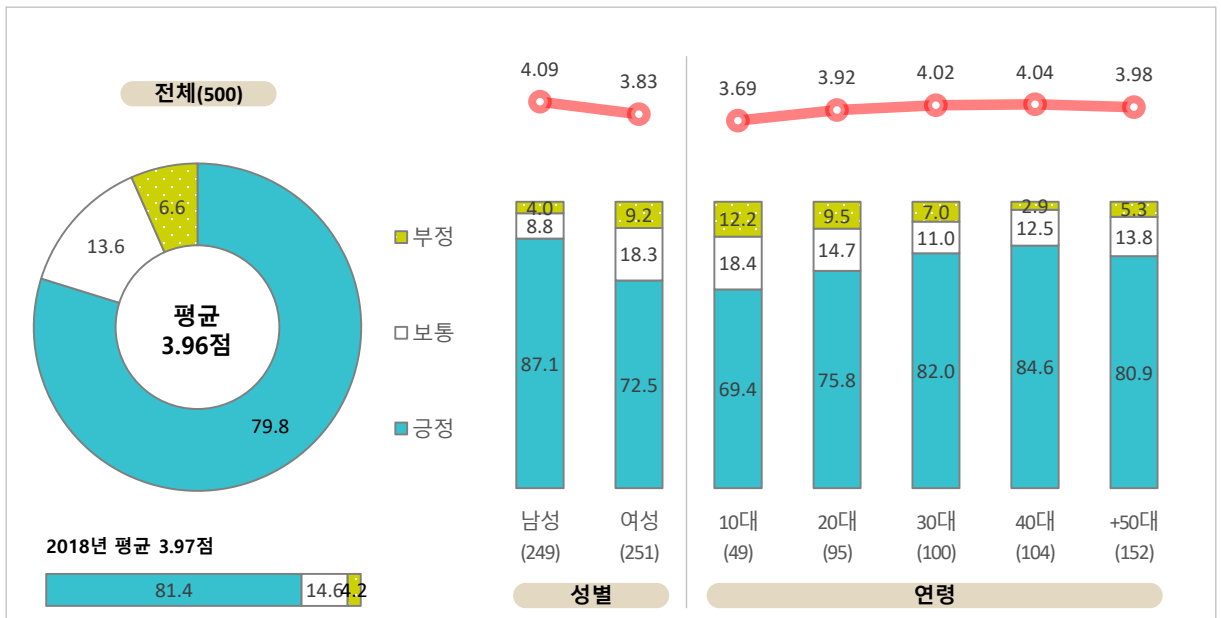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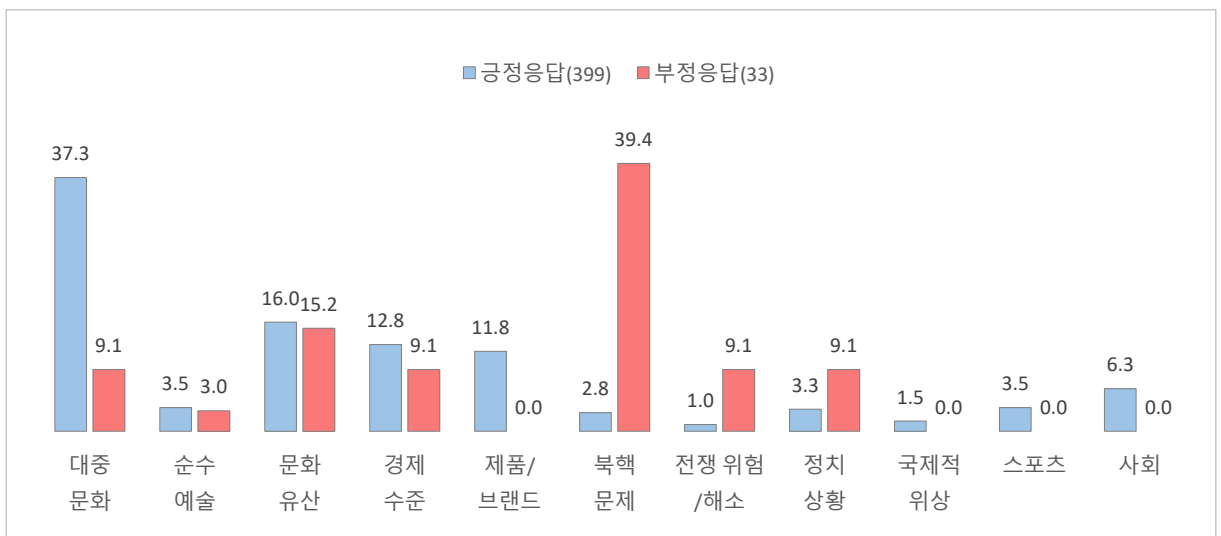


그림3-11-10.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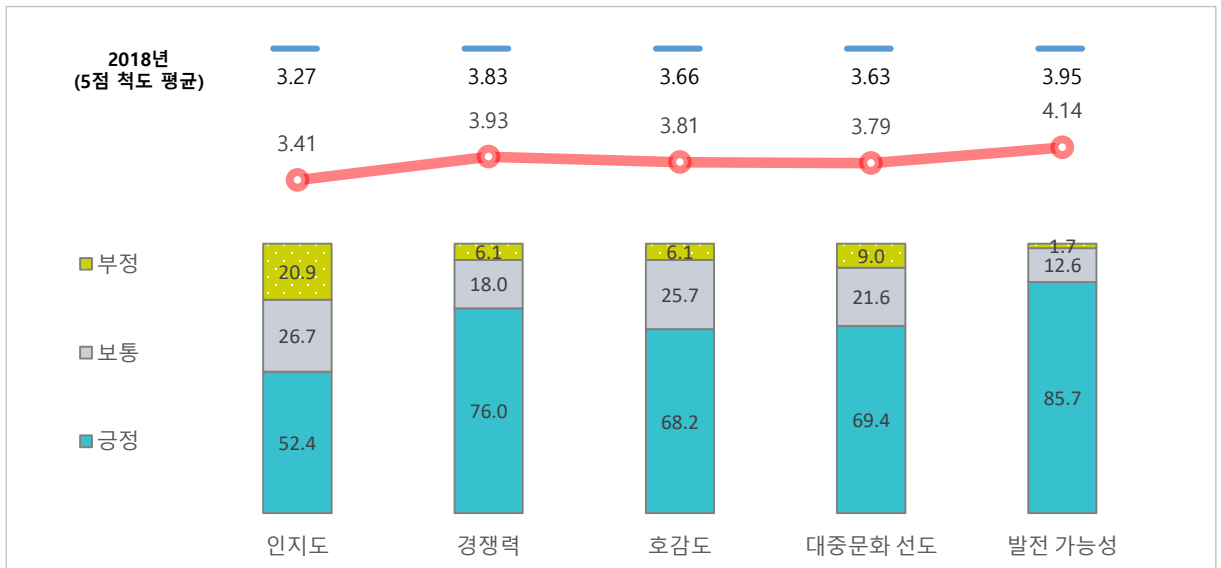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의 이미지 속성 중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85.7%, 부정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쟁력' 역시 긍정 76.0%, 부정 6.1%로 높게 평가함
- 전년대비 대중문화의 모든 속성에서 평가가 소폭 상승하였음

그림3-11-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이미지 속성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서 3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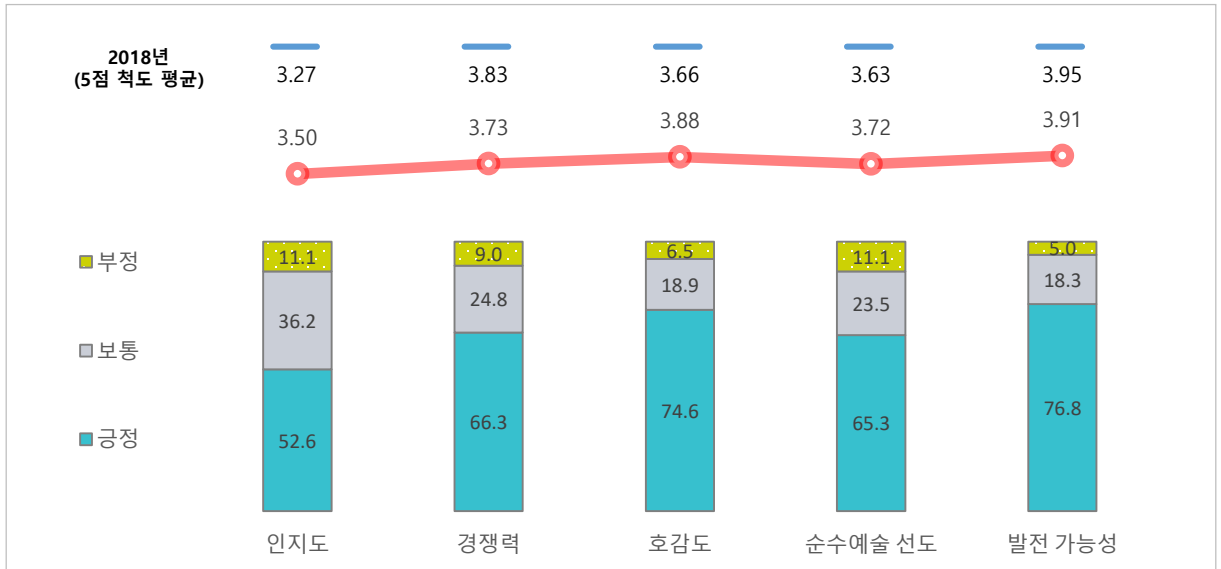
표3-1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2)	(207)	(205)	(42)	(87)	(87)	(94)	(102)
인지도	긍정률	52.4	50.7	54.1	35.7	62.1	51.7	53.2	51.0
	평균	3.41	3.38	3.44	3.02	3.63	3.48	3.38	3.34
경쟁력	긍정률	76.0	75.8	76.1	66.7	71.3	81.6	78.7	76.5
	평균	3.93	3.94	3.92	3.71	3.83	4.00	4.00	3.98
호감도	긍정률	68.2	67.1	69.3	64.3	71.3	72.4	71.3	60.8
	평균	3.81	3.81	3.81	3.69	3.87	3.87	3.87	3.70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69.4	67.1	71.7	59.5	70.1	72.4	66.0	73.5
	평균	3.79	3.79	3.79	3.57	3.83	3.87	3.78	3.78
발전 가능성	긍정률	85.7	85.0	86.3	76.2	87.4	86.2	83.0	90.2
	평균	4.14	4.09	4.19	3.98	4.28	4.06	4.16	4.14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순수예술 선도' 항목은 긍정이 47.9% 높았지만 부정 응답도 15.9%로 다른 속성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3-11-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한 가운데 '경쟁력'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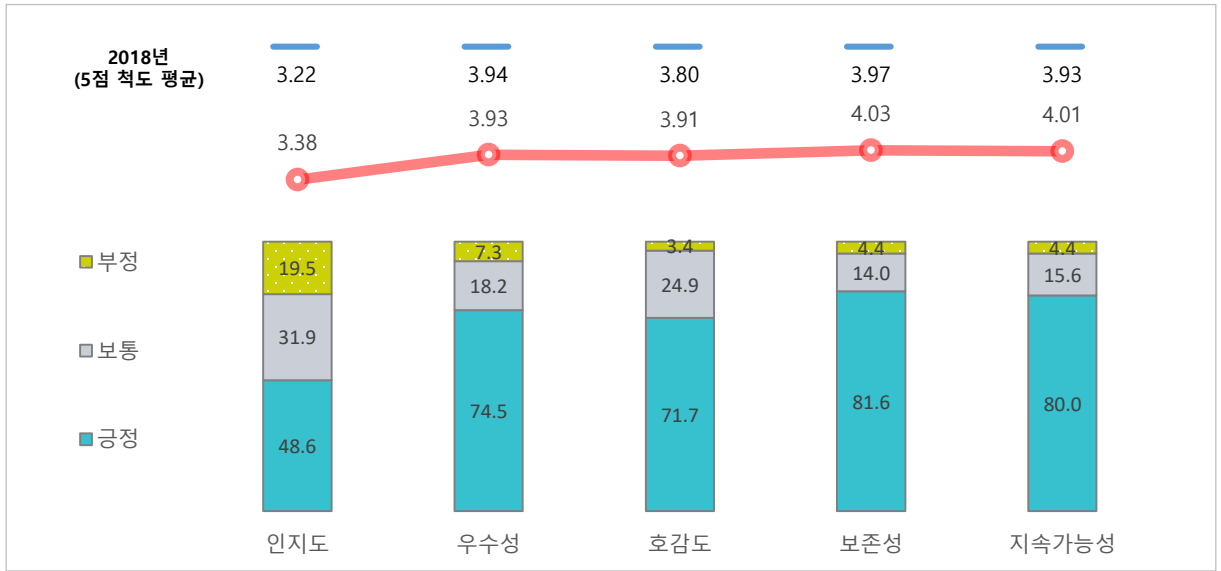
표3-1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23)	(165)	(158)	(36)	(66)	(52)	(69)	(100)
인지도	긍정률	52.6	57.0	48.1	38.9	56.1	57.7	50.7	54.0
	평균	3.50	3.57	3.43	3.19	3.53	3.71	3.48	3.50
경쟁력	긍정률	66.3	63.0	69.6	63.9	71.2	73.1	69.6	58.0
	평균	3.73	3.70	3.76	3.61	3.86	3.92	3.83	3.52
호감도	긍정률	74.6	75.8	73.4	69.4	72.7	80.8	72.5	76.0
	평균	3.88	3.90	3.85	3.75	3.82	4.08	3.91	3.84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65.3	67.9	62.7	55.6	65.2	71.2	68.1	64.0
	평균	3.72	3.76	3.69	3.39	3.77	3.85	3.75	3.73
발전 가능성	긍정률	76.8	78.2	75.3	77.8	72.7	80.8	76.8	77.0
	평균	3.91	3.90	3.91	3.83	3.83	3.98	3.93	3.93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존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함
- '호감도'에 대해 긍정 71.7%, 부정 3.4%로 타 속성에 비해 다소 낮은 긍정 인식을 보였으나,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그림3-11-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우수성'과 '지속가능성'은 남성이, '호감도'와 '보존성'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호감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20대의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3-1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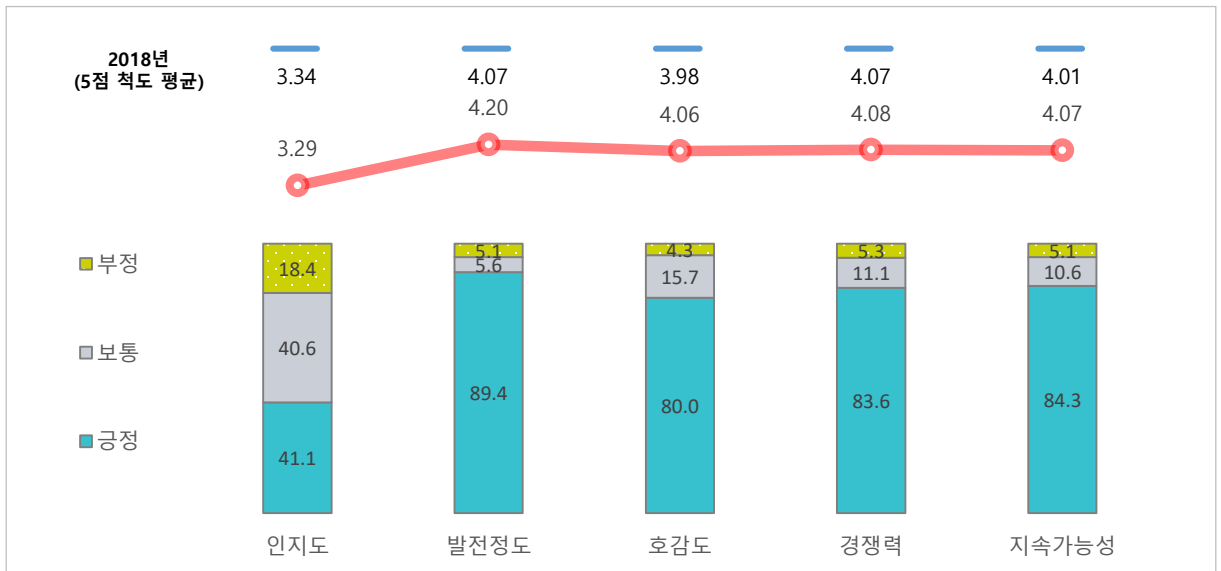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85)	(191)	(194)	(38)	(77)	(80)	(78)	(112)
인지도	긍정률	48.6	42.9	54.1	44.7	54.5	53.8	51.3	40.2
	평균	3.38	3.28	3.47	3.34	3.52	3.45	3.37	3.24
우수성	긍정률	74.5	74.9	74.2	68.4	74.0	73.8	69.2	81.3
	평균	3.93	3.93	3.93	3.79	3.96	3.94	3.86	4.00
호감도	긍정률	71.7	68.6	74.7	57.9	68.8	68.8	74.4	78.6
	평균	3.91	3.86	3.96	3.71	3.84	3.93	3.92	4.00
보존성	긍정률	81.6	78.5	84.5	84.2	72.7	80.0	79.5	89.3
	평균	4.03	3.99	4.07	4.08	3.88	4.03	4.00	4.14
지속가능성	긍정률	80.0	83.8	76.3	63.2	83.1	81.3	75.6	85.7
	평균	4.01	4.06	3.96	3.76	4.03	4.10	3.95	4.06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80% 이상으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발전정도'는 긍정 89.4%, 부정 5.1%로 가장 높았고, '지속가능성' 역시 긍정 84.3%, 부정 5.1%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11-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3-1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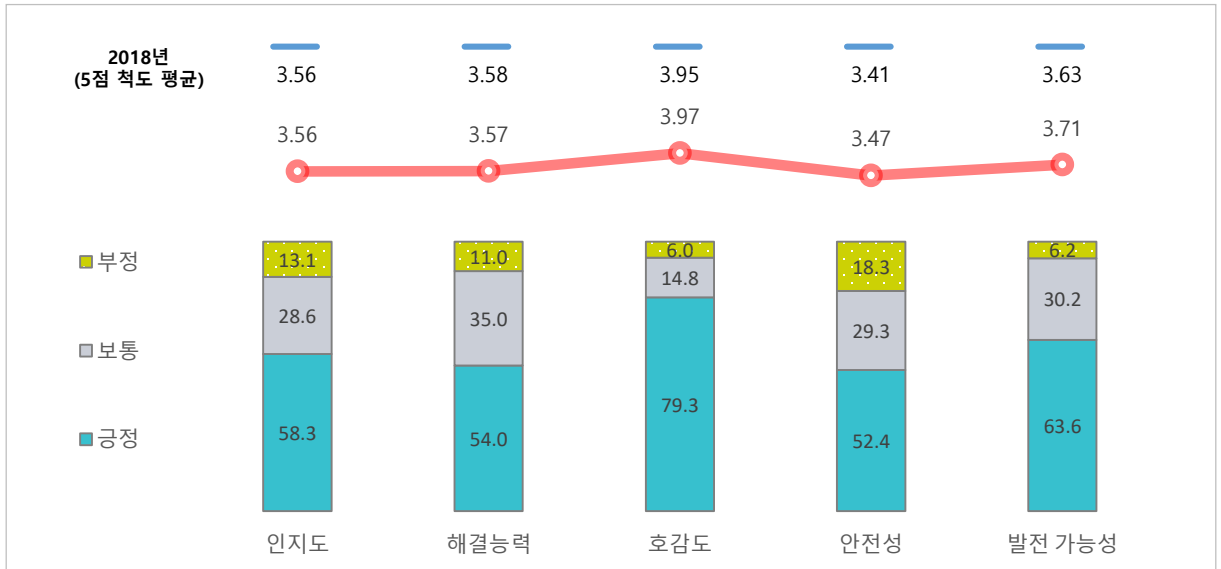
분야	속성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4)	(215)	(199)	(39)	(75)	(85)	(90)	(125)
인지도	긍정률	41.1	40.9	41.2	23.1	34.7	47.1	47.8	41.6
	평균	3.29	3.29	3.30	3.05	3.11	3.47	3.37	3.30
발전정도	긍정률	89.4	91.2	87.4	87.2	85.3	88.2	88.9	93.6
	평균	4.20	4.29	4.11	4.13	4.04	4.20	4.20	4.33
호감도	긍정률	80.0	82.8	76.9	79.5	69.3	83.5	82.2	82.4
	평균	4.06	4.13	3.98	4.05	3.85	4.15	4.07	4.10
경쟁력	긍정률	83.6	86.5	80.4	71.8	76.0	87.1	84.4	88.8
	평균	4.08	4.19	3.97	3.92	3.84	4.16	4.09	4.22
지속가능성	긍정률	84.3	87.0	81.4	71.8	81.3	81.2	88.9	88.8
	평균	4.07	4.14	3.99	3.87	3.99	4.04	4.11	4.18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의 이미지 속성 중 '호감도'에 대해 긍정 79.3%, 부정 6.0%로 다른 속성 대비 높게 나타남
- 반면, '안전성'의 경우 긍정 52.4%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 평가 역시 1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11-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고, 특히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발전 가능성'은 20대가 가장 높게 평가했고, 10대의 평가가 가장 낮게 평가함

표3-1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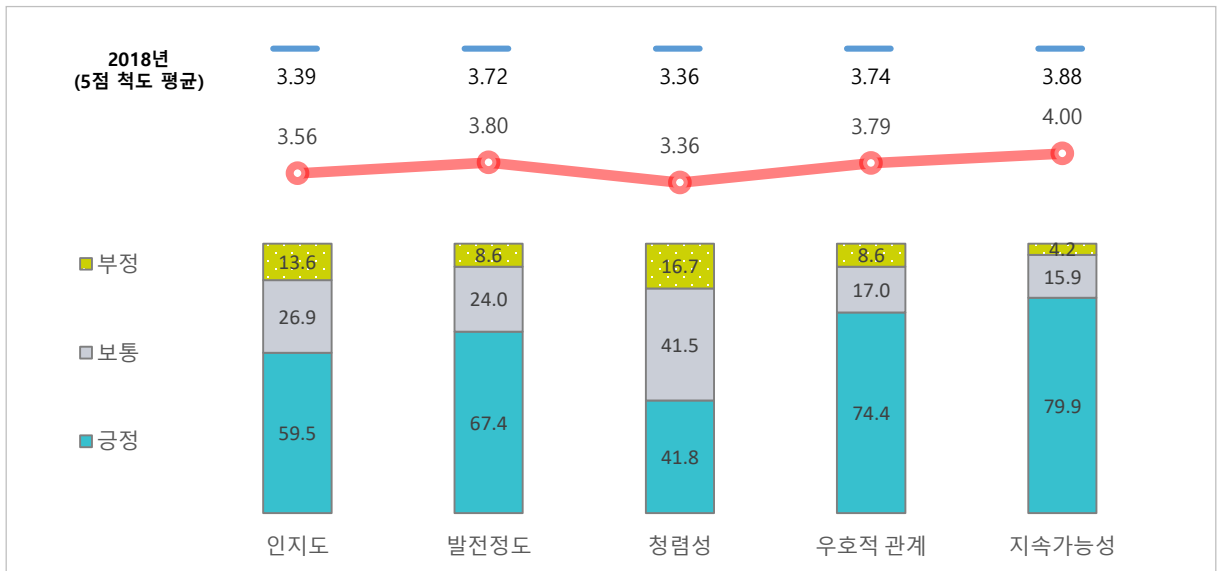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20)	(208)	(212)	(44)	(73)	(80)	(95)	(128)
인지도	긍정률	58.3	59.6	57.1	40.9	58.9	63.8	58.9	60.2
	평균	3.56	3.61	3.51	3.16	3.56	3.76	3.55	3.58
해결능력	긍정률	54.0	58.7	49.5	31.8	54.8	60.0	54.7	57.0
	평균	3.57	3.69	3.45	3.18	3.55	3.65	3.65	3.59
호감도	긍정률	79.3	82.2	76.4	63.6	72.6	80.0	80.0	87.5
	평균	3.97	4.03	3.91	3.57	3.78	4.06	3.99	4.13
안전성	긍정률	52.4	54.8	50.0	40.9	57.5	55.0	51.6	52.3
	평균	3.97	4.03	3.91	3.57	3.78	4.06	3.99	4.13
발전 가능성	긍정률	63.6	70.2	57.1	52.3	71.2	66.3	61.1	63.3
	평균	3.71	3.82	3.59	3.48	3.74	3.78	3.74	3.70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우호적 관계'와 '지속가능성'은 7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았으나, '청렴성'에 대해서는 긍정 41.8%, 부정 16.7%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전년도에도 '청렴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올해에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그림3-11-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우호적 관계'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청렴성'에 대해 3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3-1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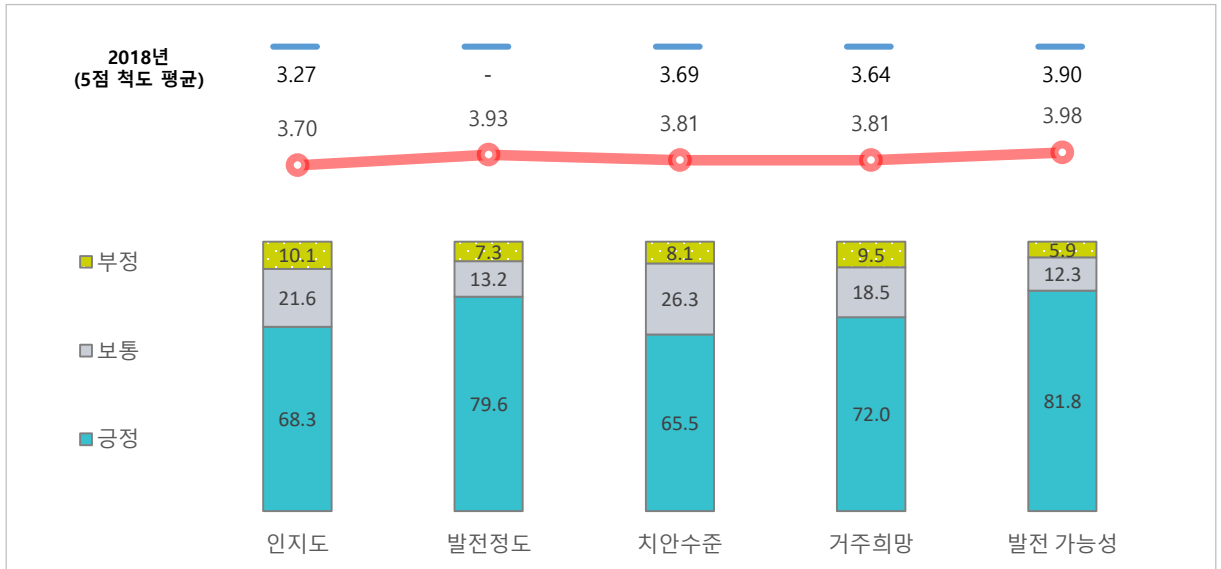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83)	(183)	(200)	(36)	(77)	(76)	(75)	(119)
인지도	긍정률	59.5	60.7	58.5	44.4	58.4	64.5	64.0	58.8
	평균	3.56	3.62	3.51	3.31	3.58	3.64	3.63	3.53
발전정도	긍정률	67.4	72.7	62.5	36.1	74.0	73.7	68.0	68.1
	평균	3.80	3.90	3.71	3.25	3.94	3.93	3.84	3.76
청렴성	긍정률	41.8	43.7	40.0	19.4	44.2	52.6	45.3	37.8
	평균	3.36	3.42	3.30	3.00	3.31	3.55	3.37	3.35
우호적 관계	긍정률	74.4	82.0	67.5	47.2	64.9	78.9	84.0	79.8
	평균	3.79	3.96	3.64	3.33	3.66	3.91	3.99	3.82
지속가능성	긍정률	79.9	84.7	75.5	61.1	74.0	82.9	82.7	85.7
	평균	4.00	4.09	3.93	3.58	3.96	4.12	4.09	4.03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의 이미지 속성 중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81.8%, 부정 5.9%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발전정도' 역시 긍정 79.6%, 부정 7.3%로 높게 평가함
- 반면, '치안수준'에 대해 긍정 65.5%, 부정 8.1%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그림3-11-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치안수준'에 대해 남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거주희망'에 대해 30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함

표3-11-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357)	(163)	(194)	(34)	(72)	(71)	(77)	(103)
인지도	긍정률	68.3	73.0	64.4	67.6	61.1	74.6	71.4	67.0
	평균	3.70	3.77	3.63	3.74	3.63	3.73	3.68	3.73
발전정도	긍정률	79.6	86.5	73.7	79.4	75.0	81.7	83.1	78.6
	평균	3.93	4.06	3.82	3.88	3.89	4.00	3.99	3.88
치안수준	긍정률	65.5	74.8	57.7	73.5	61.1	70.4	62.3	65.0
	평균	3.81	4.05	3.61	4.00	3.78	3.85	3.74	3.80
거주희망	긍정률	72.0	75.5	69.1	67.6	69.4	81.7	68.8	70.9
	평균	3.81	3.90	3.74	3.65	3.67	4.07	3.81	3.79
발전 가능성	긍정률	81.8	84.7	79.4	82.4	73.6	83.1	81.8	86.4
	평균	3.98	4.01	3.95	4.06	3.76	3.96	4.05	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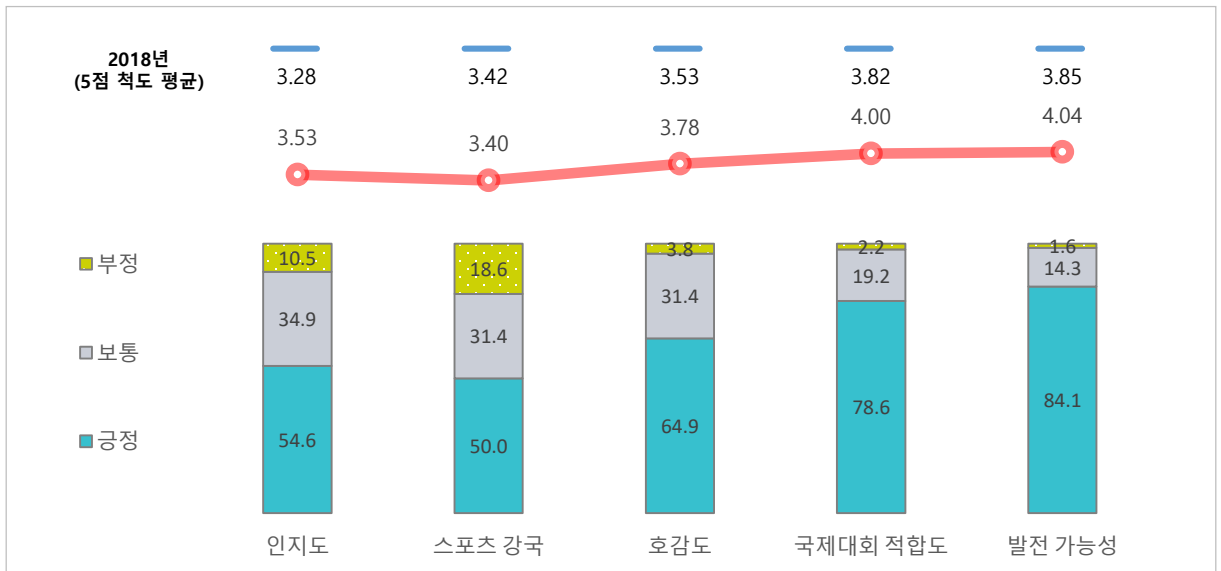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모든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 긍정 50%이상으로 나타남
- 그 중 가장 높은 평가는 '발전 가능성'으로 긍정 84.1%, 부정 1.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국제대회 적합도'가 긍정 78.6%, 부정 2.2%로 나타남

그림3-11-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가가 높았고, '국제대회 적합도'에 대해서는 30대와 50대 이상도 높게 평가함

표3-11-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70)	(201)	(169)	(34)	(57)	(79)	(82)	(118)
인지도	긍정률	54.6	59.2	49.1	32.4	57.9	53.2	63.4	54.2
	평균	3.53	3.62	3.43	3.21	3.65	3.62	3.56	3.49
스포츠강국	긍정률	50.0	51.7	47.9	44.1	43.9	50.6	53.7	51.7
	평균	3.40	3.40	3.40	3.38	3.28	3.46	3.46	3.39
호감도	긍정률	64.9	67.7	61.5	58.8	64.9	67.1	72.0	60.2
	평균	3.78	3.82	3.72	3.59	3.79	3.84	3.83	3.75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78.6	83.1	73.4	73.5	73.7	81.0	79.3	80.5
	평균	4.00	4.06	3.92	3.88	3.96	3.99	3.96	4.08
발전 가능성	긍정률	84.1	85.6	82.2	88.2	80.7	82.3	87.8	83.1
	평균	4.04	4.04	4.03	4.00	3.98	4.00	4.12	4.03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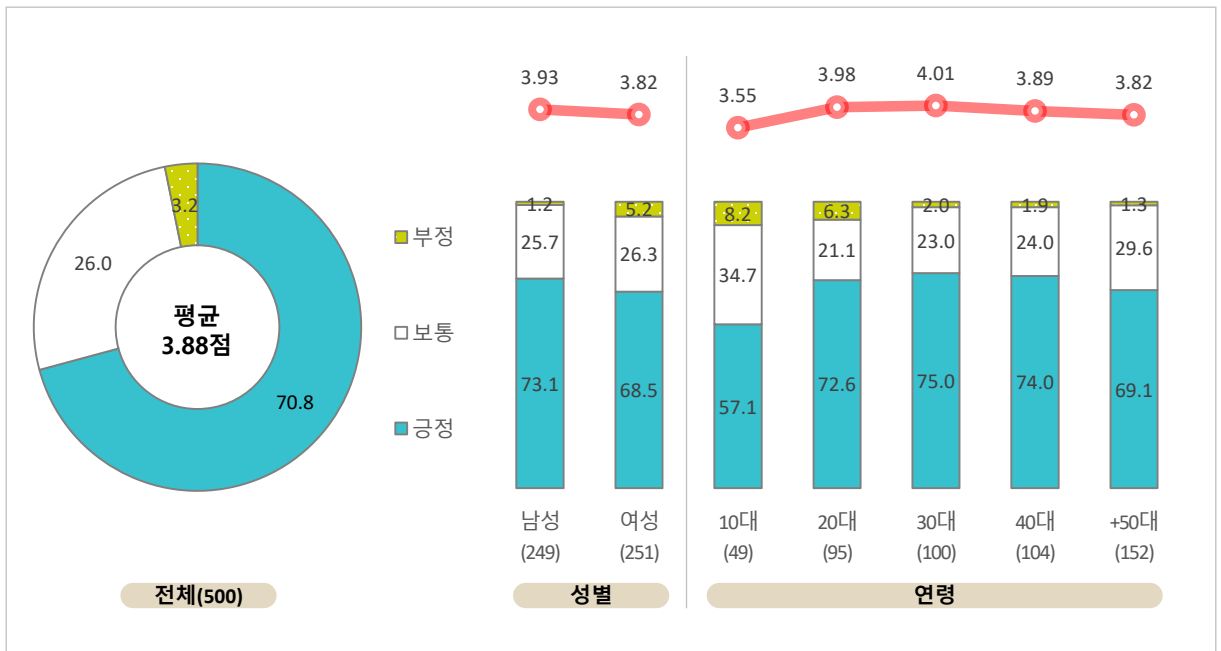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70.8%, 부정 3.2%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개방적이다',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 '전쟁/핵 위험' 등의 의견이 많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변화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대가 가장 낮았음

그림3-11-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긍정적 변화 이유(n=354)

개방적이다	8.2
북한/남북관계	7.3
문화/전통	4.8
기술력/첨단기술	4.0
기후/자연환경	3.7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3.1
더 많은 정보를 접함	3.1
사회/경제/경제발전	2.8
그냥 좋다	2.8
K-POP/가수	2.5

(상위 10개만 제시)

#### 부정적 변화 이유(n=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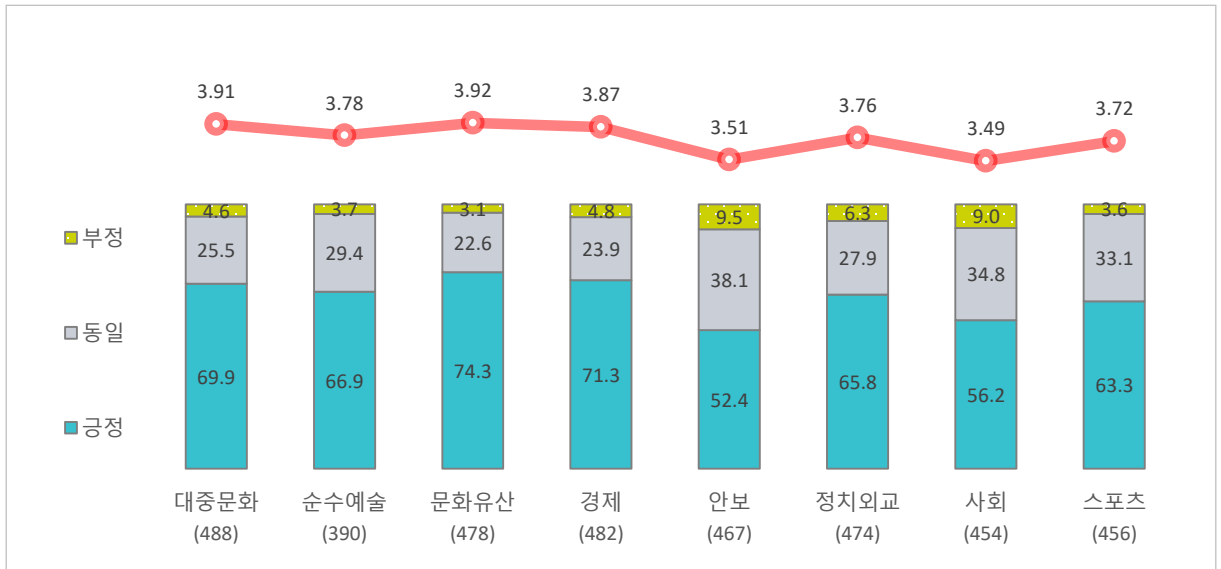
정부/정치적 문제	12.5
전쟁/핵 위험	12.5
민주적이지 않음	12.5
북한 문제	6.3
외교문제	6.3
부정적 매체의 영향	6.3
변하지 않음	6.3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문화유산', '경제'는 긍정 7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보'와 '사회'는 긍정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11-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남성의 긍정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정치외교'에 대해서는 40대의 긍정변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1-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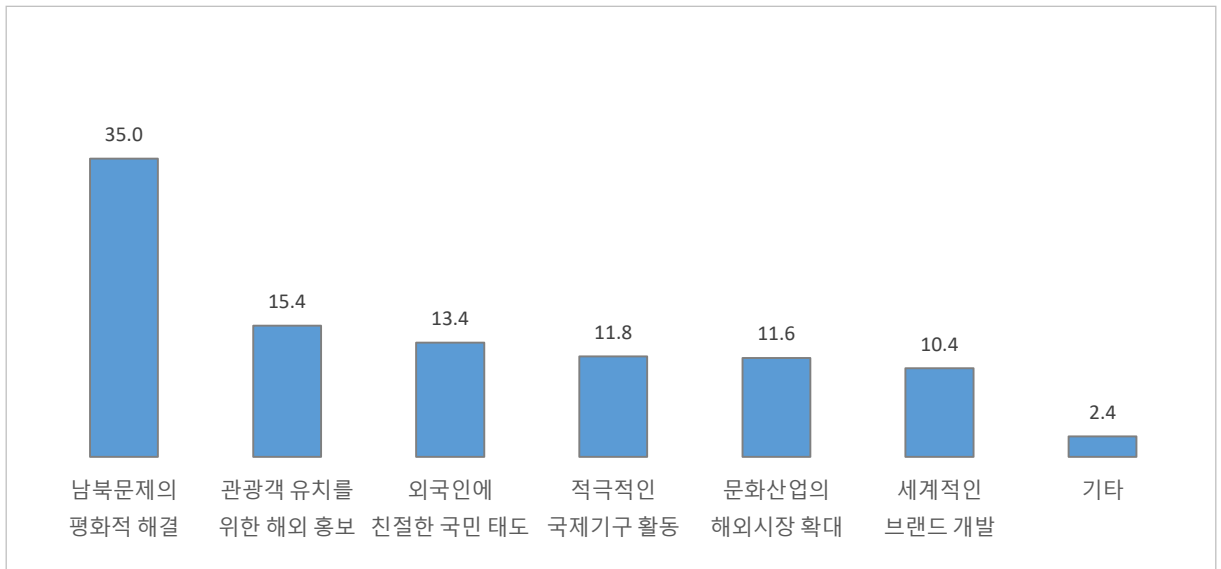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69.9	70.0	69.8	59.5	72.4	73.6	71.3	67.6
	평균	3.91	3.93	3.89	3.71	4.07	3.97	3.91	3.80
순수예술	긍정률	66.9	67.9	65.8	55.6	72.7	73.1	65.2	65.0
	평균	3.78	3.81	3.75	3.44	3.85	4.06	3.75	3.73
문화유산	긍정률	74.3	79.1	69.6	57.9	77.9	73.8	76.9	75.9
	평균	3.92	4.02	3.83	3.55	3.88	3.96	4.03	3.98
경제	긍정률	71.3	76.7	65.3	61.5	70.7	72.9	76.7	69.6
	평균	3.87	3.99	3.75	3.54	3.84	4.00	3.93	3.87
안보	긍정률	52.4	55.3	49.5	38.6	50.7	58.8	51.6	54.7
	평균	3.51	3.55	3.46	3.20	3.51	3.65	3.46	3.55
정치외교	긍정률	65.8	69.4	62.5	44.4	66.2	68.4	76.0	63.9
	평균	3.76	3.85	3.68	3.36	3.79	3.82	3.92	3.71
사회	긍정률	64.1	68.1	60.8	70.6	54.2	70.4	66.2	63.1
	평균	3.76	3.85	3.68	3.79	3.61	3.90	3.77	3.75
스포츠	긍정률	70.5	73.1	67.5	61.8	78.9	70.9	76.8	64.4
	평균	3.91	3.95	3.86	3.74	4.16	3.95	3.96	3.78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5.4%),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13.4%),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11.8%) 순으로 나타남

그림3-11-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응답 비중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장 많이 응답한 가운데 20대의 경우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를 가장 많이 응답함

표3-11-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49)	(251)	(49)	(95)	(100)	(104)	(152)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35.0	37.3	32.7	40.8	16.8	35.0	28.8	48.7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5.4	16.9	13.9	2.0	17.9	17.0	21.2	13.2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3.4	12.4	14.3	10.2	18.9	13.0	10.6	13.2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11.8	9.6	13.9	18.4	14.7	12.0	8.7	9.9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11.6	10.0	13.1	10.2	16.8	10.0	15.4	7.2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0.4	12.0	8.8	16.3	12.6	13.0	13.5	3.3
기타	2.4	1.6	3.2	2.0	2.1	0.0	1.9	4.6

## 12

## 독일



## 1 일반개요

위치	서유럽	언어	독일어
수도	베를린(Berlin)	종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인구	8,3012만 명	1인당 GDP	47,785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대외 정책상 제약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독일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
- 독일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로, 세계 4위의 경제 대국
- 독일 산업의 주된 분야는 자동차, 기계, 화학, 첨단 기술 분야
- 독일인들은 'Made in Germany'의 제품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내수시장이 활발함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한국 상품은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로 높은 인지도 형성

- 해외에 진출해 성공가도에 있는 삼성, LG, 현대 등 한국 대기업들의 경우, 주력 분야의 브랜드 가치 및 상품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제품 전반에 긍정적인 이미지 영향
  -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 브랜드와 1, 2위를 다툰 정도로 독일 시장 내 인지도가 높음

## K-POP 인기 확산으로 인한 콘서트 및 행사 개최 증가

- 2018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은 3만 명 이상의 한류팬이 관람하였으며, 독일 뉴스에서도 팬들의 반응을 '센세이션'으로 보도
- 2019년 5월 블랙핑크, 7월 몬스타X가 베를린에서 콘서트 개최 등 콘서트 빈도 증가
- 베를린에서 한국행을 향한 K-POP 팬들의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 2019 - 베를린 오디션> 개최 및 46개 팀, 약 150명 지원
- 2019년 9월, 직접 K-POP과 부딪쳐 배울 수 있는 2019 K-POP 아카데미 개최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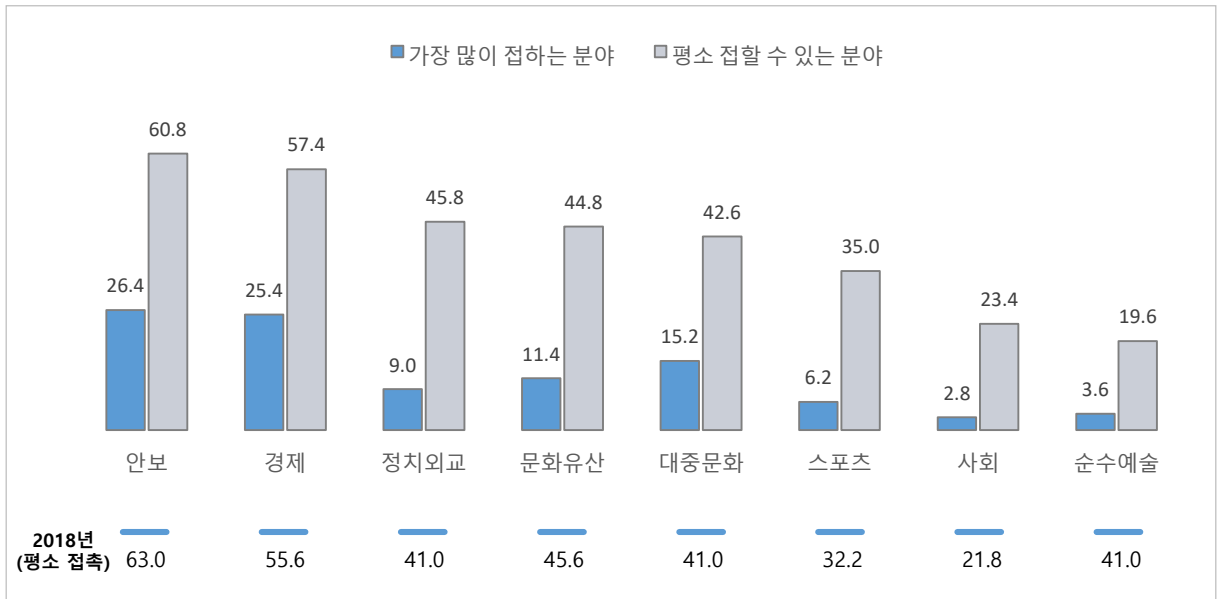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안보'로, 전체 응답자의 60.8%가 평소 한국 관련 '안보'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정치외교'와 '대중문화', '스포츠', '사회' 관련 접촉이 소폭 증가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3-12-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경제'의 접촉 비중은 남성이 여성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대중문화' 접촉 비중은 10-20대 젊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2-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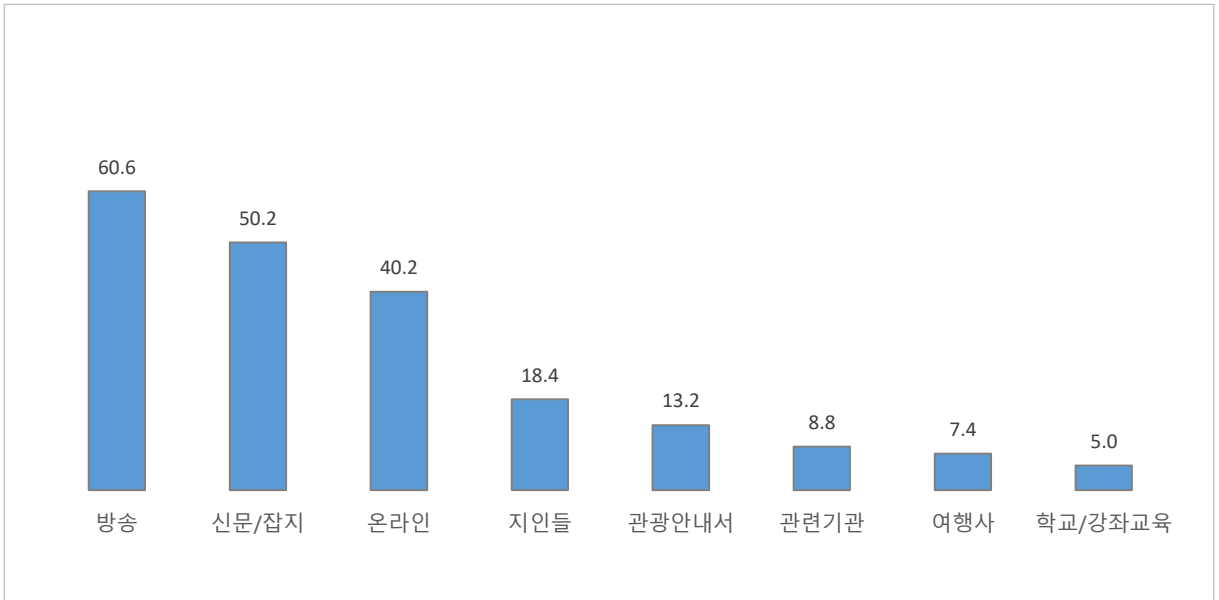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7)	(84)	(100)	(96)	(183)
안보	60.8	63.2	58.4	59.5	57.1	51.0	59.4	68.9
경제	57.4	71.6	43.2	40.5	46.4	59.0	58.3	64.5
정치외교	45.8	46.8	44.8	45.9	41.7	41.0	42.7	51.9
문화유산	44.8	39.6	50.0	43.2	42.9	41.0	43.8	48.6
대중문화	42.6	40.8	44.4	81.1	70.2	41.0	38.5	25.1
스포츠	35.0	39.6	30.4	32.4	26.2	32.0	38.5	39.3
사회	23.4	19.2	27.6	27.0	23.8	26.0	14.6	25.7
순수예술	19.6	18.4	20.8	18.9	29.8	25.0	15.6	14.2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방송' > '신문/잡지' > '온라인' 순으로 높았음

그림3-12-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과 '지인들'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온라인' 접촉 비중은 10-20대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남

표3-12-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7)	(84)	(100)	(96)	(183)
방송	60.6	58.0	63.2	56.8	56.0	58.0	58.3	66.1
신문/잡지	50.2	51.2	49.2	43.2	41.7	43.0	47.9	60.7
온라인	40.2	43.6	36.8	62.2	61.9	48.0	36.5	23.5
지인들	18.4	14.4	22.4	37.8	17.9	25.0	11.5	14.8
관광안내서	13.2	13.6	12.8	5.4	14.3	18.0	15.6	10.4
관련기관	8.8	7.2	10.4	13.5	9.5	13.0	9.4	4.9
여행사	7.4	5.2	9.6	5.4	10.7	11.0	6.3	4.9
학교/강좌 교육	5.0	4.4	5.6	13.5	7.1	6.0	3.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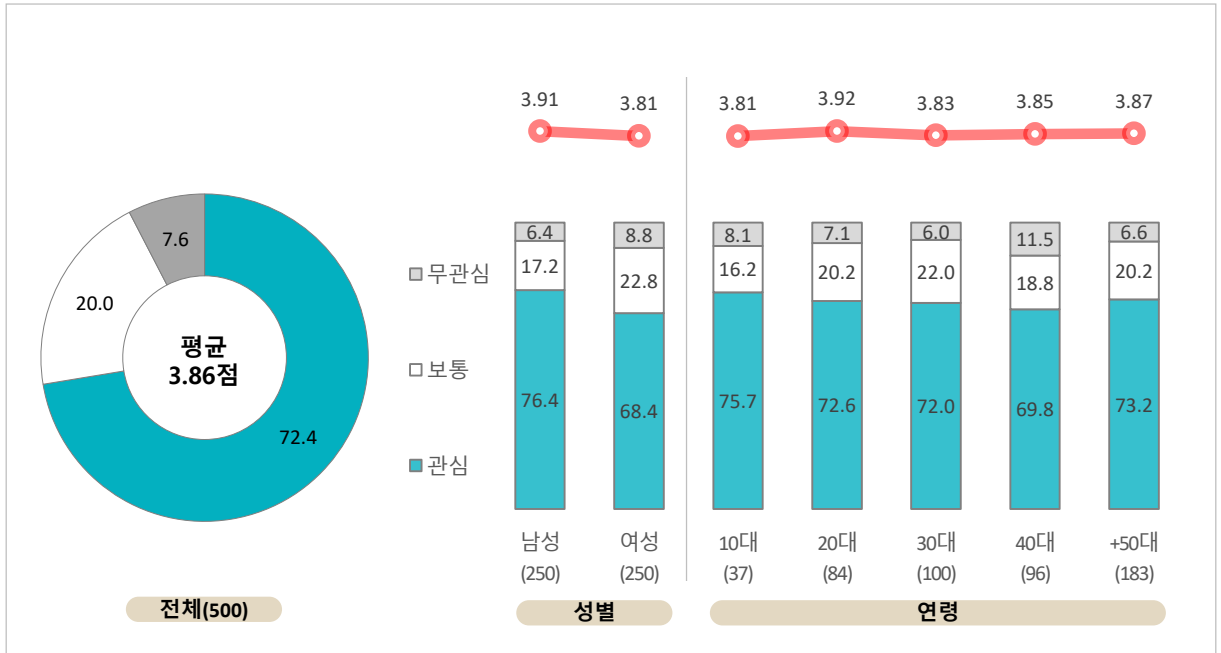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72.4%, '관심 없다'가 7.6%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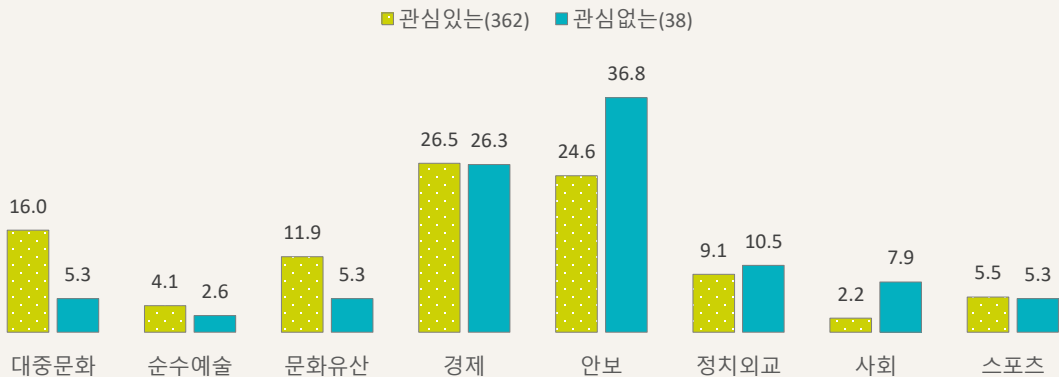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남성들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관심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10대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았음

그림3-12-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독일인들은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안보', '대중문화'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독일인들은 '안보'와 '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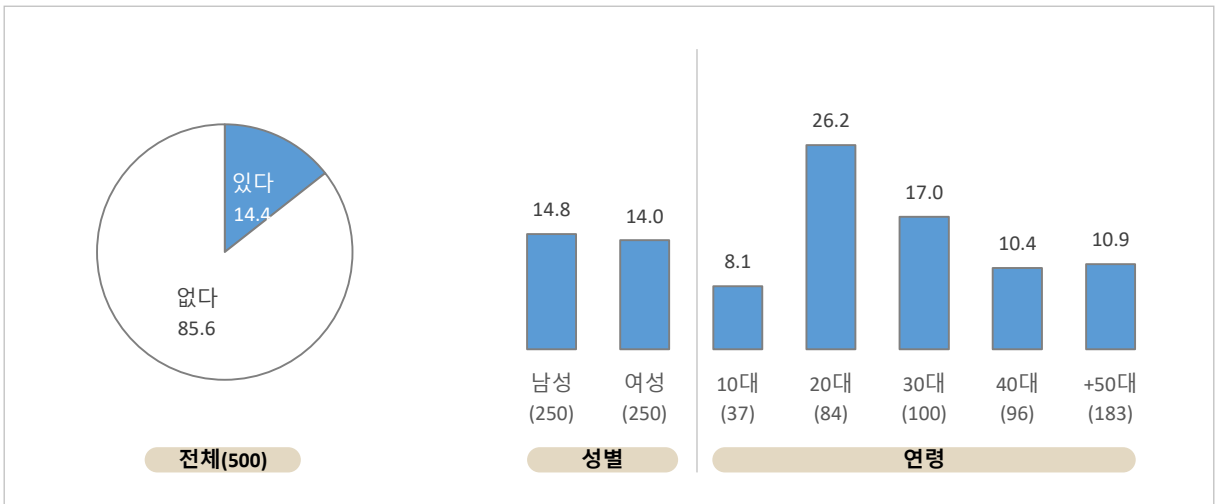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4.4%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91.7%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방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12-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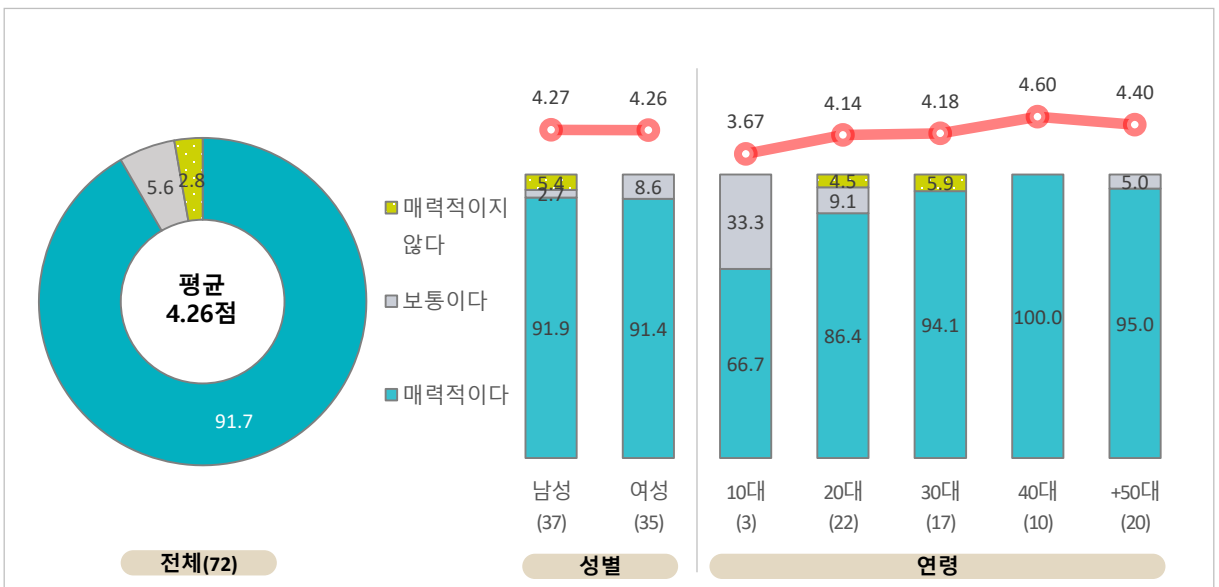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긍정 인식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3-12-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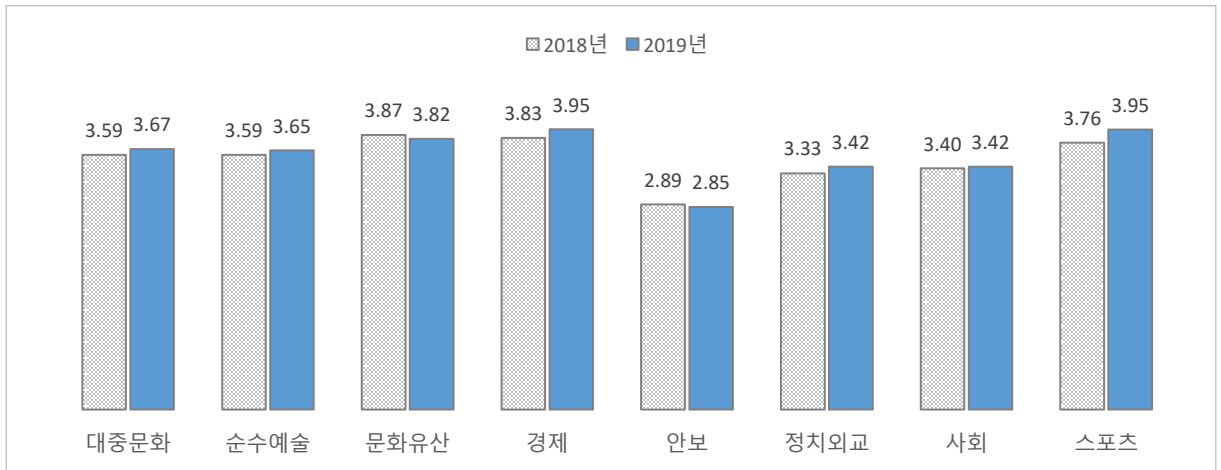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안보'와 '정치외교', '사회' 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 '스포츠' 분야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반면, '안보'의 경우 호감도가 2.8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림3-12-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경제'에 대해 40대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2-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대중문화	긍정률	58.2	62.7	53.8	55.9	59.5	66.7	64.9	49.3
	평균	3.67	3.73	3.61	3.62	3.68	3.76	3.82	3.54
순수예술	긍정률	60.7	67.1	54.3	41.2	57.4	56.3	66.7	64.1
	평균	3.65	3.75	3.55	3.12	3.62	3.58	3.84	3.68
문화유산	긍정률	68.7	73.4	64.4	70.6	65.2	63.4	62.2	75.9
	평균	3.82	3.88	3.76	3.65	3.80	3.80	3.72	3.91
경제	긍정률	71.9	82.0	60.7	76.7	61.4	66.3	81.4	73.5
	평균	3.95	4.05	3.84	4.00	3.80	3.90	4.13	3.94
안보	긍정률	24.2	27.0	21.7	12.5	13.0	35.4	22.4	26.9
	평균	2.85	2.95	2.76	2.56	2.64	3.04	2.85	2.92
정치외교	긍정률	49.7	55.8	43.7	29.4	43.4	52.8	61.3	50.4
	평균	3.42	3.57	3.27	3.15	3.29	3.43	3.61	3.46
사회	긍정률	47.5	54.0	41.2	41.2	48.5	45.8	42.7	52.1
	평균	3.42	3.54	3.30	3.35	3.37	3.40	3.41	3.48
스포츠	긍정률	78.6	80.7	76.2	82.1	77.0	76.1	80.0	78.9
	평균	3.95	4.00	3.89	4.00	3.92	3.90	4.01	3.93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71.8%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2.8%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불친절하다'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싸이' > '반기문' > '문재인' > '손흥민' 순으로 나타남

그림3-12-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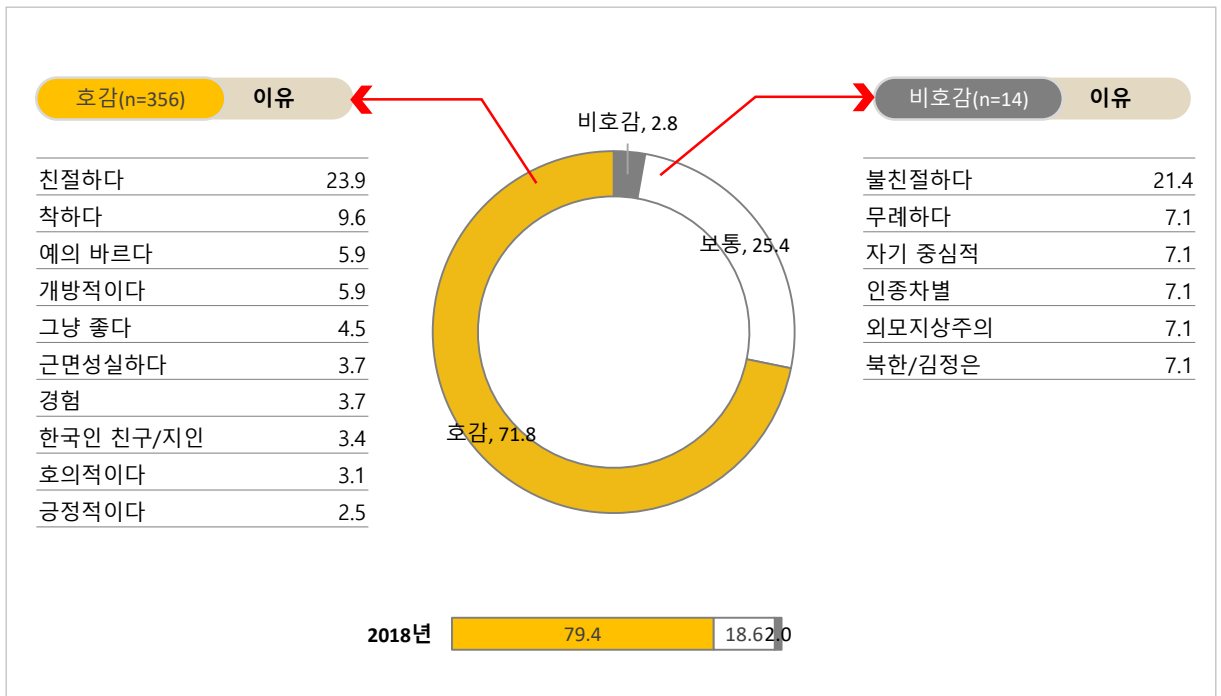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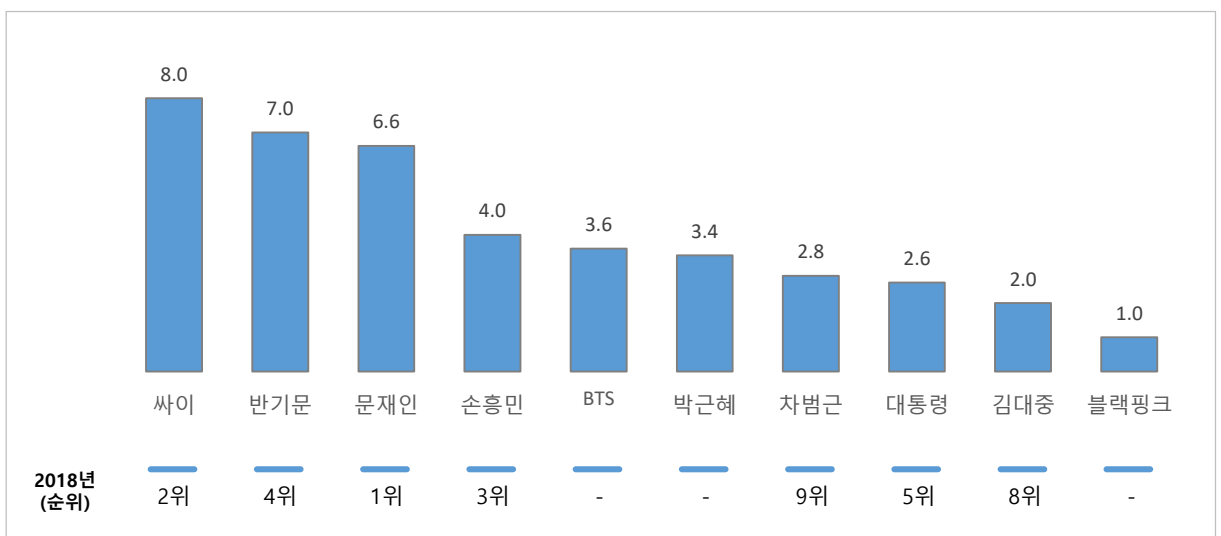


그림3-12-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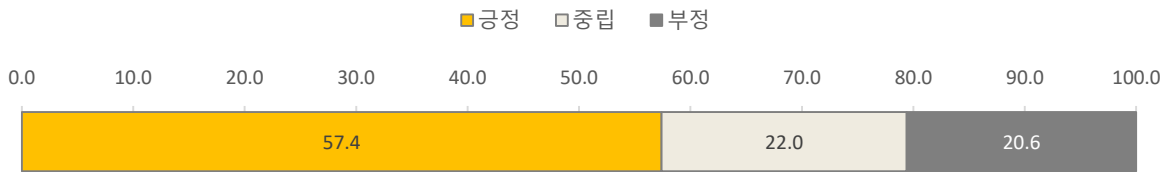
- 독일인들은 '한국'하면 '북한/남북관계'를 가장 많이 떠올림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57.4%, 부정 20.6%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기업브랜드',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가 가장 많았음

그림3-12-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2018년 조사결과  
(사례수 : 287)

긍정	66.2
중립	18.8
부정	15.0

(사례수 : 110)

(사례수 : 103)

기업브랜드	10.8
K-POP/가수	8.0
스포츠/선수	8.0
문화/문화유산	5.6
한식/식품	5.2
기술력/첨단기술	4.9
수도/서울	3.5
IT/전자산업	3.5
경제/경제발전	3.1
친절함	3.1

북한/남북관계	20.0
K-POP/가수	7.3
수도/서울	6.4
기업브랜드	4.5
분단국가	3.6
한식/식품	2.7
전쟁	2.7
기후/자연환경	1.8
기술력/첨단기술	1.8
멀다	1.8

북한/남북관계	35.0
분단국가	12.6
전쟁	5.8
정부/정치적 문제	4.9
북핵/안보문제	3.9
K-POP/가수	2.9
가난함	1.9
외교관계	1.9
비호감	1.9
경제/경제발전	1.9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67.6%, 5점 만점 3.80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북핵문제'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3-12-9.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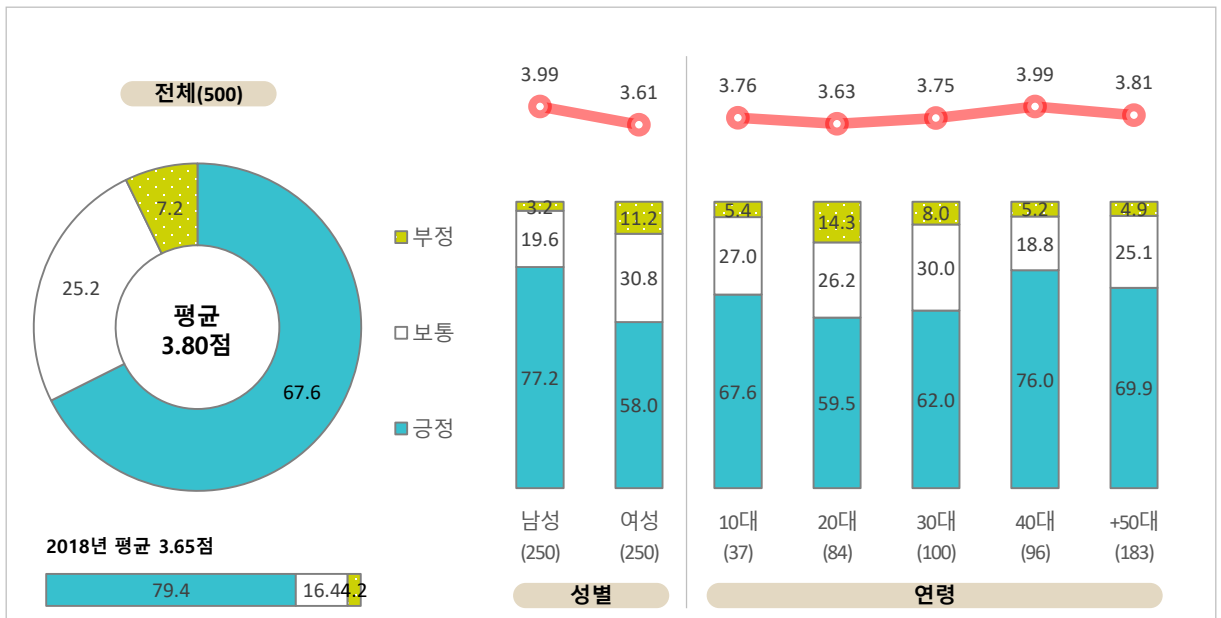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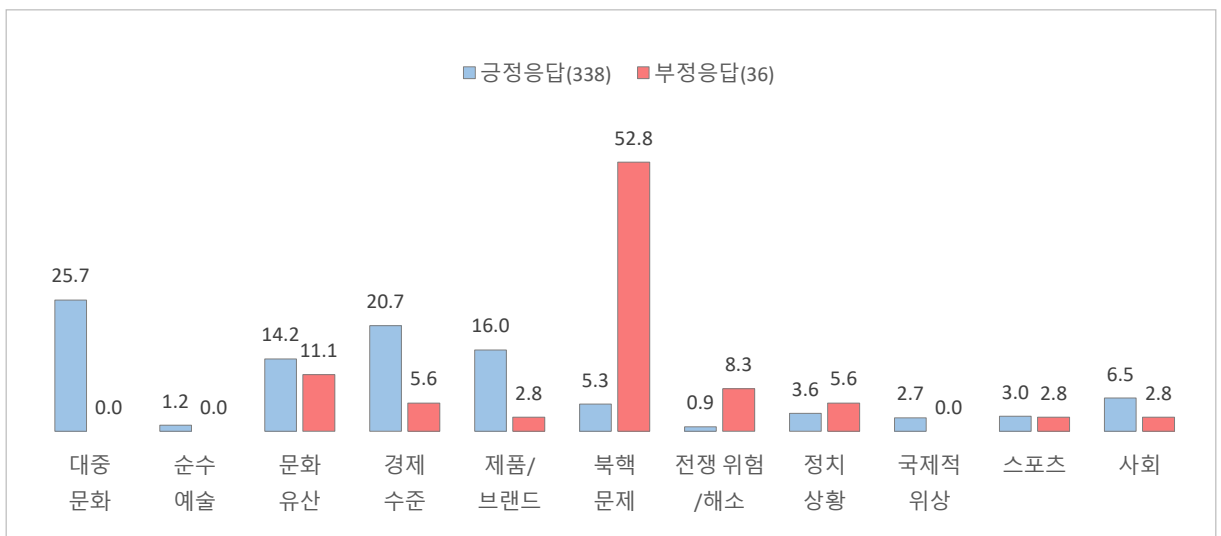


그림3-12-10.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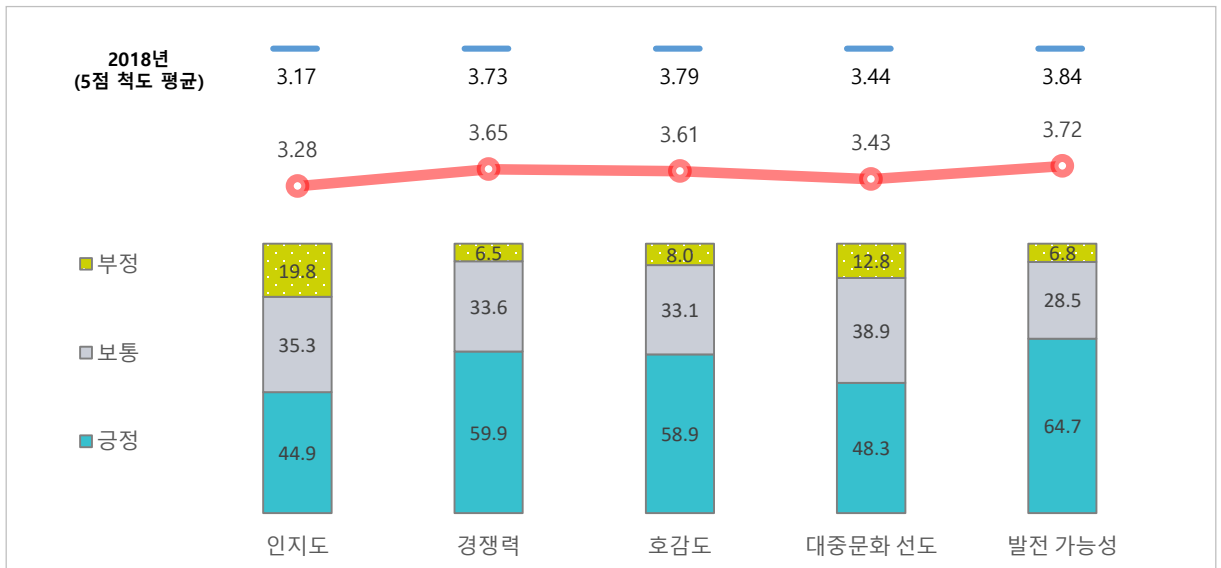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대중문화 선도'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긍정 50%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 가능성'의 긍정 평가는 64.7%로 나타났음
- 반면, '대중문화 선도'에 대해 긍정 48.3%, 부정 12.8%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그림3-12-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30대의 평가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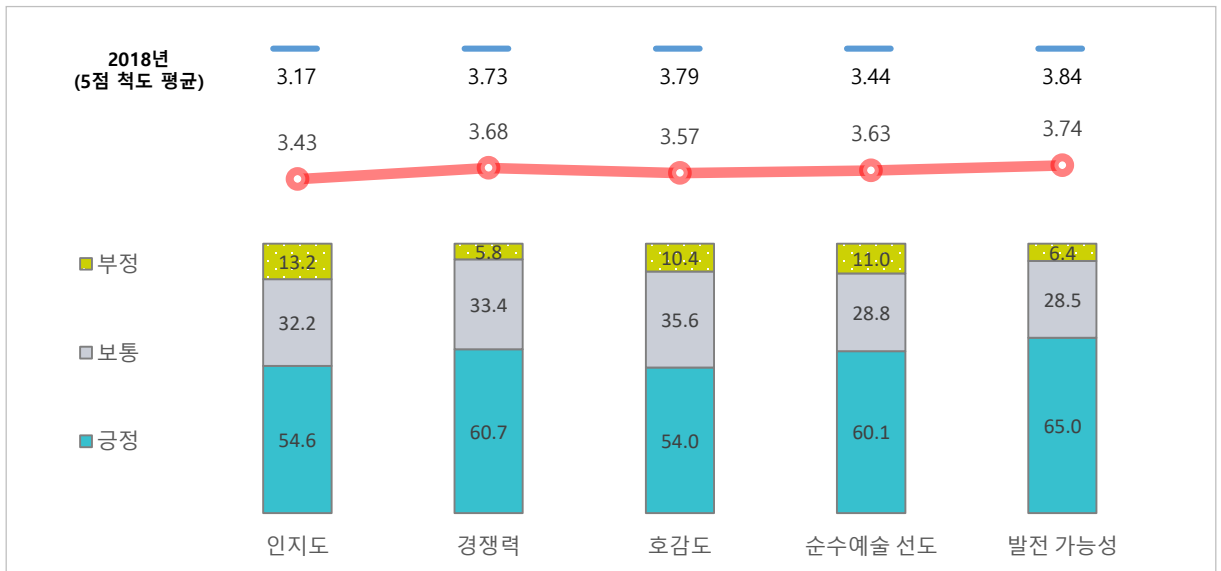
표3-12-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4)	(204)	(210)	(34)	(79)	(84)	(77)	(140)
인지도	긍정률	44.9	48.5	41.4	47.1	51.9	46.4	46.8	38.6
	평균	3.28	3.27	3.28	3.32	3.37	3.36	3.36	3.11
경쟁력	긍정률	59.9	64.2	55.7	61.8	57.0	64.3	66.2	55.0
	평균	3.65	3.72	3.60	3.76	3.56	3.74	3.78	3.56
호감도	긍정률	58.9	61.8	56.2	52.9	55.7	64.3	63.6	56.4
	평균	3.61	3.63	3.60	3.47	3.54	3.65	3.75	3.59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48.3	52.5	44.3	47.1	57.0	51.2	48.1	42.1
	평균	3.43	3.50	3.37	3.50	3.56	3.49	3.47	3.29
발전 가능성	긍정률	64.7	72.1	57.6	73.5	51.9	65.5	72.7	65.0
	평균	3.72	3.87	3.59	3.97	3.53	3.70	3.84	3.72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호감도' 항목은 긍정이 54.0% 높았지만, 다른 속성 대비 낮게 나타남

그림3-12-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고, 특히 '호감도', '순수 예술 선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가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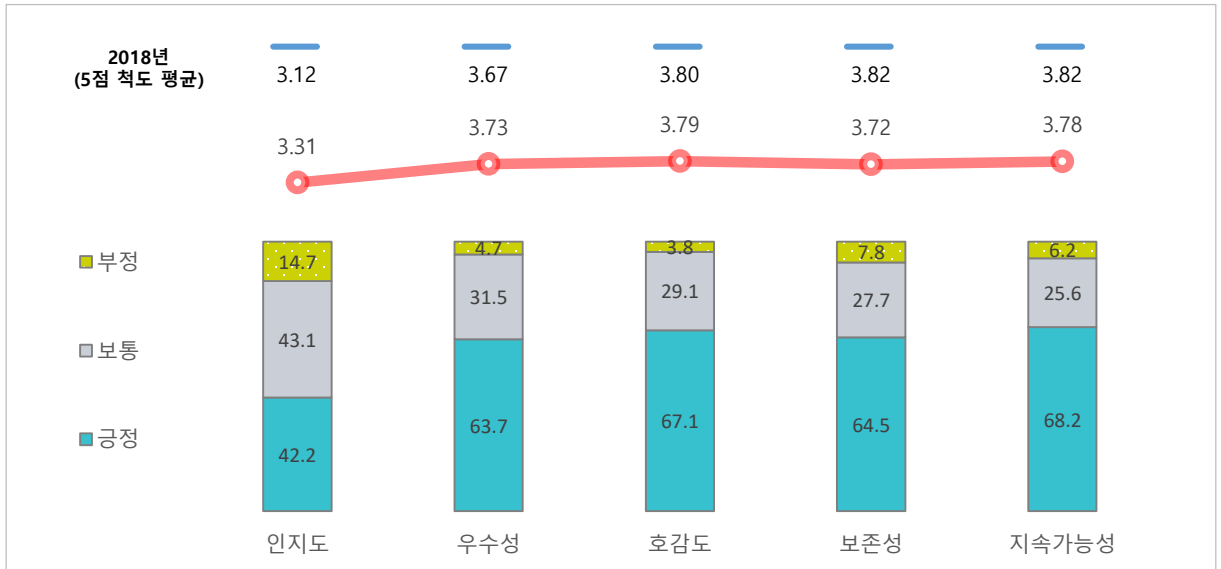
표3-12-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26)	(164)	(162)	(17)	(47)	(71)	(63)	(128)
인지도	긍정률	54.6	56.7	52.5	41.2	51.1	49.3	55.6	60.2
	평균	3.43	3.45	3.41	3.24	3.40	3.37	3.48	3.48
경쟁력	긍정률	60.7	61.6	59.9	52.9	51.1	63.4	68.3	60.2
	평균	3.68	3.69	3.68	3.53	3.62	3.68	3.86	3.65
호감도	긍정률	54.0	60.4	47.5	23.5	53.2	47.9	57.1	60.2
	평균	3.57	3.68	3.46	3.00	3.55	3.49	3.70	3.63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60.1	70.1	50.0	58.8	53.2	52.1	69.8	62.5
	평균	3.63	3.82	3.43	3.82	3.51	3.46	3.86	3.62
발전 가능성	긍정률	65.0	76.8	53.1	35.3	68.1	59.2	69.8	68.8
	평균	3.74	3.90	3.57	3.24	3.70	3.65	3.90	3.79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의 모든 속성에 대해 긍정 60% 이상으로 평가해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해 긍정 68.2%, 부정 6.2%로 가장 높게 평가함

그림3-12-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와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12-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2)	(203)	(219)	(34)	(66)	(82)	(82)	(158)
인지도	긍정률	42.2	49.8	35.2	35.3	45.5	41.5	41.5	43.0
	평균	3.31	3.42	3.21	3.21	3.41	3.27	3.29	3.32
우수성	긍정률	63.7	73.9	54.3	55.9	59.1	67.1	53.7	70.9
	평균	3.73	3.85	3.62	3.50	3.70	3.80	3.62	3.80
호감도	긍정률	67.1	70.9	63.5	58.8	63.6	68.3	64.6	70.9
	평균	3.79	3.85	3.73	3.68	3.83	3.74	3.78	3.82
보존성	긍정률	64.5	68.5	60.7	55.9	63.6	62.2	61.0	69.6
	평균	3.72	3.80	3.63	3.41	3.82	3.66	3.67	3.79
지속가능성	긍정률	68.2	77.8	59.4	61.8	53.0	73.2	72.0	71.5
	평균	3.78	3.94	3.64	3.50	3.56	3.84	3.94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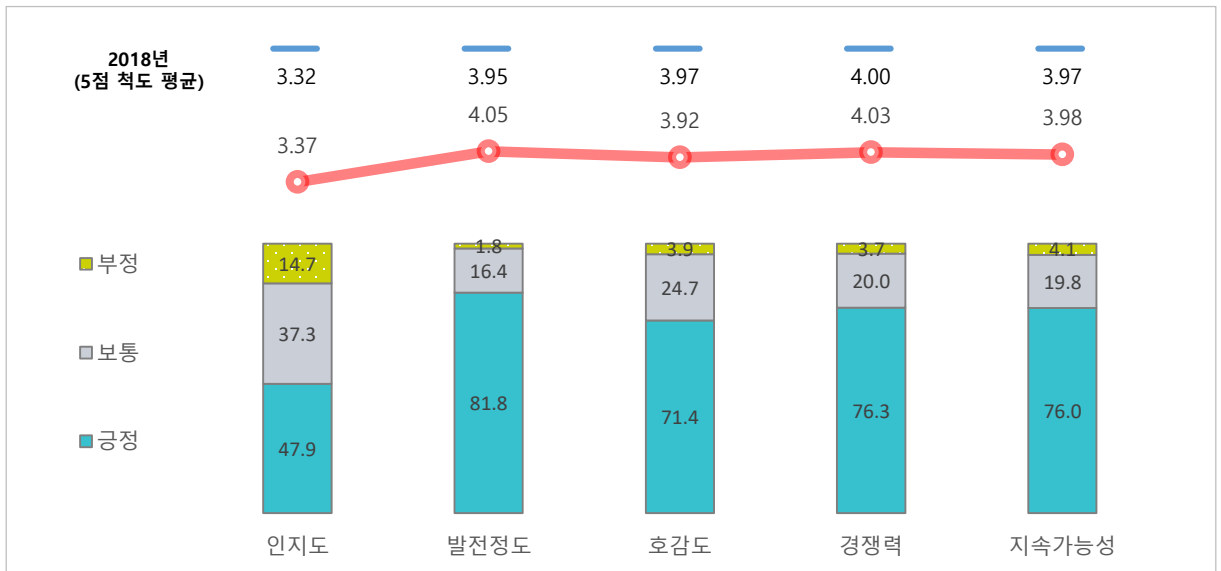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70% 후반대로, 부정 평가가 5%대 미만으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발전정도'에 대해 긍정 81.8%, 부정 1.8%로 가장 높게 평가함

그림3-12-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음

표3-12-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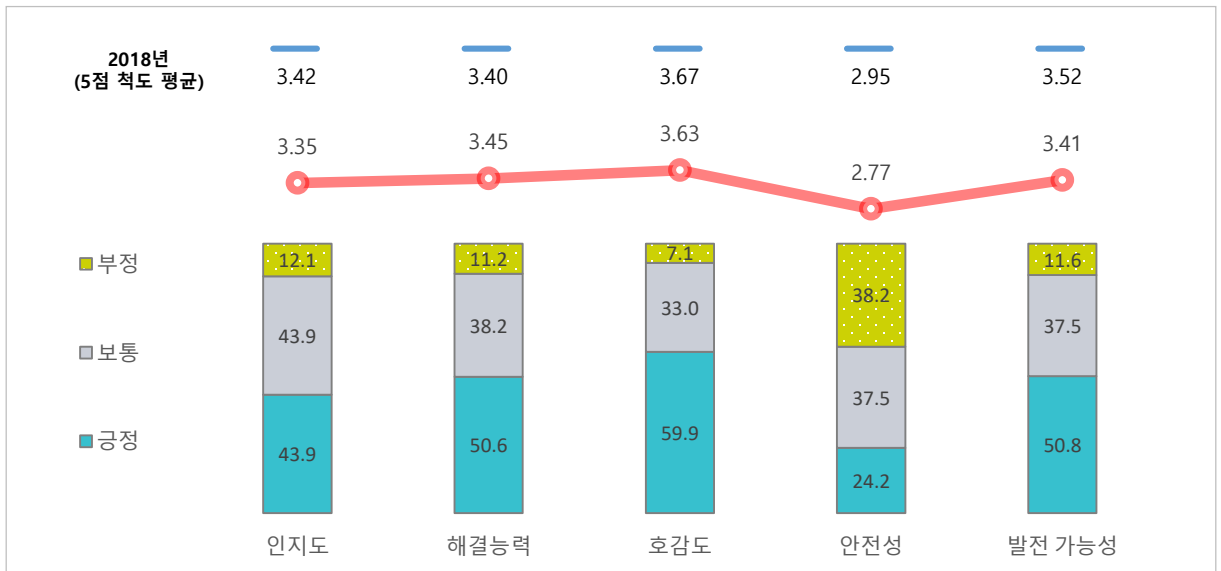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34)	(228)	(206)	(30)	(70)	(86)	(86)	(162)
인지도	긍정률	47.9	53.9	41.3	40.0	35.7	47.7	57.0	50.0
	평균	3.37	3.44	3.28	3.30	3.24	3.36	3.55	3.34
발전정도	긍정률	81.8	88.2	74.8	80.0	74.3	79.1	81.4	87.0
	평균	4.05	4.17	3.93	4.03	4.00	3.98	4.05	4.12
호감도	긍정률	71.4	79.4	62.6	73.3	57.1	67.4	75.6	77.2
	평균	3.92	4.04	3.79	3.97	3.70	3.86	3.99	3.99
경쟁력	긍정률	76.3	84.2	67.5	83.3	67.1	65.1	79.1	83.3
	평균	4.03	4.20	3.84	4.07	3.87	3.90	4.09	4.12
지속가능성	긍정률	76.0	84.6	66.5	73.3	65.7	67.4	80.2	83.3
	평균	3.98	4.13	3.81	3.83	3.80	3.87	4.08	4.09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호감도'가 긍정 59.9%, 부정 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 24.2%, 부정 38.2%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년대비 다소 하락하였음

그림3-12-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 2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표3-12-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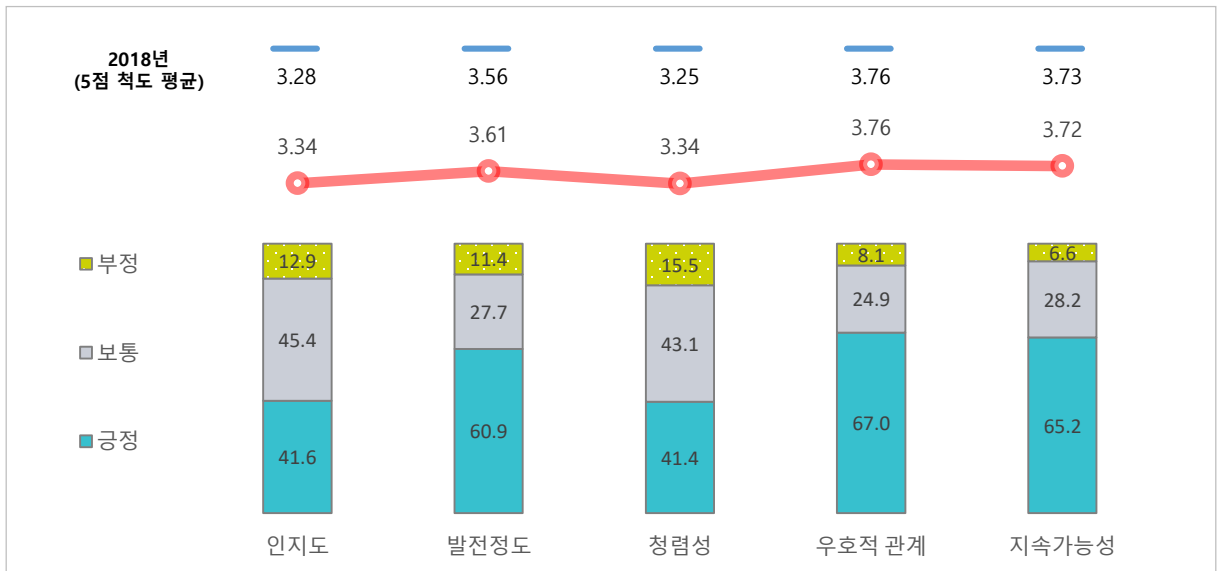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21)	(204)	(217)	(32)	(69)	(79)	(85)	(156)
인지도	긍정률	43.9	48.0	40.1	43.8	31.9	46.8	45.9	46.8
	평균	3.35	3.40	3.29	3.31	3.12	3.41	3.40	3.40
해결능력	긍정률	50.6	53.4	47.9	34.4	49.3	51.9	50.6	53.8
	평균	3.45	3.51	3.39	3.03	3.43	3.48	3.49	3.50
호감도	긍정률	59.9	69.1	51.2	46.9	44.9	59.5	64.7	66.7
	평균	3.63	3.75	3.52	3.47	3.41	3.58	3.71	3.76
안전성	긍정률	24.2	23.5	24.9	25.0	24.6	36.7	23.5	17.9
	평균	2.77	2.65	2.89	2.88	2.86	3.01	2.80	2.58
발전 가능성	긍정률	50.8	54.9	47.0	59.4	37.7	54.4	56.5	50.0
	평균	3.41	3.48	3.35	3.44	3.17	3.49	3.54	3.40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의 이미지 속성 중 '우호적 관계'는 긍정 67.0%, 부정 8.1%로 가장 높게 평가함
- 반면, '청렴성'은 전년도에 이어 긍정 41.4%, 부정 15.5%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조금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12-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발전정도'에 대해 3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3-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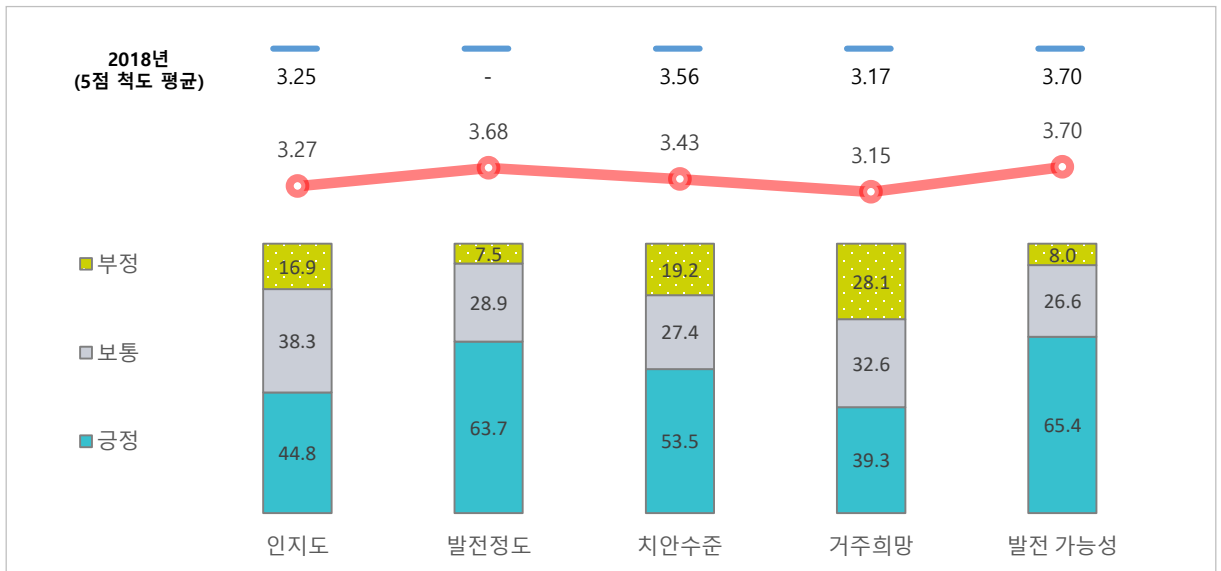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4)	(197)	(197)	(34)	(76)	(72)	(75)	(137)
인지도	긍정률	41.6	43.1	40.1	38.2	38.2	44.4	50.7	38.0
	평균	3.34	3.35	3.34	3.18	3.30	3.36	3.52	3.30
발전정도	긍정률	60.9	65.0	56.9	44.1	51.3	73.6	68.0	59.9
	평균	3.61	3.73	3.49	3.21	3.46	3.82	3.76	3.60
청렴성	긍정률	41.4	47.2	35.5	23.5	32.9	47.2	52.0	41.6
	평균	3.34	3.47	3.20	2.97	3.09	3.51	3.55	3.35
우호적 관계	긍정률	67.0	75.1	58.9	55.9	59.2	70.8	73.3	68.6
	평균	3.76	3.93	3.58	3.47	3.61	3.81	3.88	3.82
지속가능성	긍정률	65.2	76.6	53.8	55.9	57.9	66.7	70.7	67.9
	평균	3.72	3.89	3.55	3.41	3.58	3.75	3.87	3.78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의 이미지 속성 중 '발전 가능성'의 긍정 평가가 65.4%, 부정 평가 8.0%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발전정도' 역시 긍정 평가 63.7%, 부정 평가 7.5%로 높게 평가함
- 반면, '거주희망'에 대해 긍정 평가 39.3%, 부정 평가 28.1%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함

그림3-12-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발전가능성'에 대해 10대가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20대의 평가가 가장 낮음

표3-12-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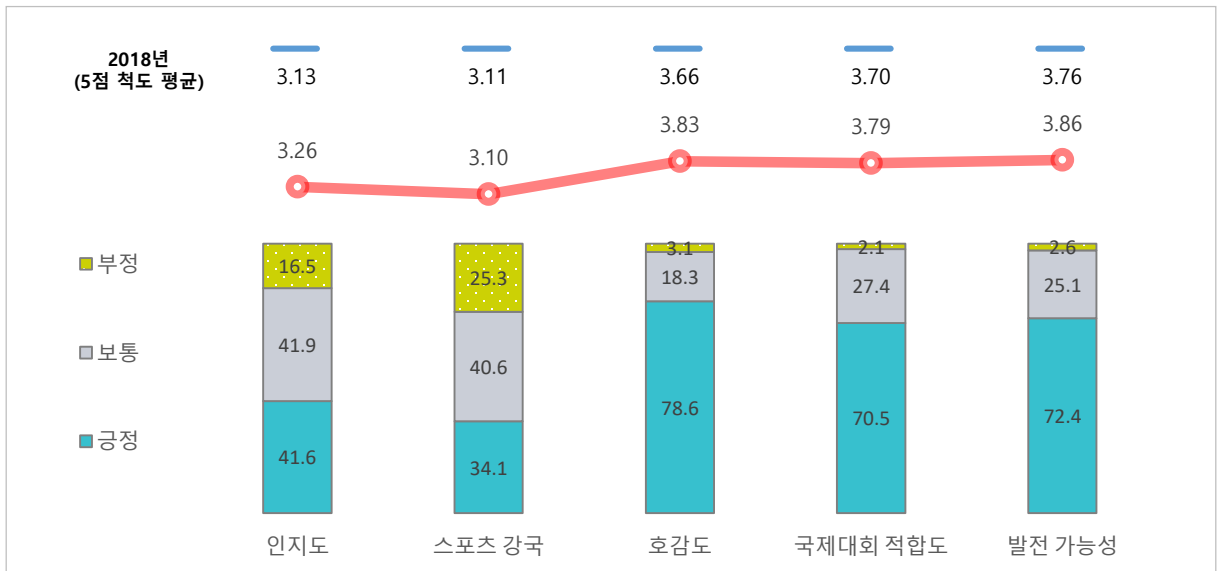
속성	평가항목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2)	(198)	(204)	(34)	(68)	(83)	(75)	(142)
인지도	긍정률	44.8	48.5	41.2	29.4	47.1	47.0	50.7	43.0
	평균	3.27	3.33	3.22	3.00	3.26	3.28	3.36	3.30
발전정도	긍정률	63.7	65.2	62.3	64.7	64.7	55.4	65.3	66.9
	평균	3.68	3.76	3.60	3.71	3.66	3.55	3.72	3.74
치안수준	긍정률	53.5	59.6	47.5	47.1	52.9	55.4	57.3	52.1
	평균	3.43	3.53	3.34	3.24	3.49	3.48	3.51	3.38
거주희망	긍정률	39.3	41.4	37.3	41.2	44.1	38.6	25.3	44.4
	평균	3.15	3.20	3.09	3.06	3.34	3.23	2.84	3.19
발전 가능성	긍정률	65.4	70.7	60.3	73.5	60.3	67.5	62.7	66.2
	평균	3.70	3.77	3.64	3.85	3.57	3.67	3.68	3.76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의 속성 중 '스포츠 강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긍정 평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감도'가 긍정 78.6%, 부정 3.1%로 가장 높음
- 반면 '스포츠 강국'에 대한 평가는 긍정 34.1%, 부정 25.3%로 다른 항목 대비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그림3-12-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국제대회 적합도'와 '발전 가능성'은 남성이, '스포츠 강국'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호감도'에 대해 30대가 가장 높게 평가함

표3-12-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87)	(202)	(185)	(28)	(61)	(71)	(75)	(152)
인지도	긍정률	41.6	43.1	40.0	46.4	45.9	31.0	38.7	45.4
	평균	3.26	3.29	3.22	3.32	3.34	3.04	3.21	3.34
스포츠강국	긍정률	34.1	32.2	36.2	39.3	29.5	33.8	30.7	36.8
	평균	3.10	3.00	3.20	3.14	3.05	3.07	3.00	3.17
호감도	긍정률	78.6	79.7	77.3	78.6	78.7	87.3	72.0	77.6
	평균	3.83	3.81	3.85	3.86	3.84	3.89	3.80	3.81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70.5	74.3	66.5	57.1	62.3	64.8	80.0	74.3
	평균	3.79	3.84	3.74	3.61	3.66	3.69	3.92	3.86
발전 가능성	긍정률	72.4	77.7	66.5	71.4	57.4	67.6	77.3	78.3
	평균	3.86	3.95	3.76	3.86	3.75	3.82	3.91	3.90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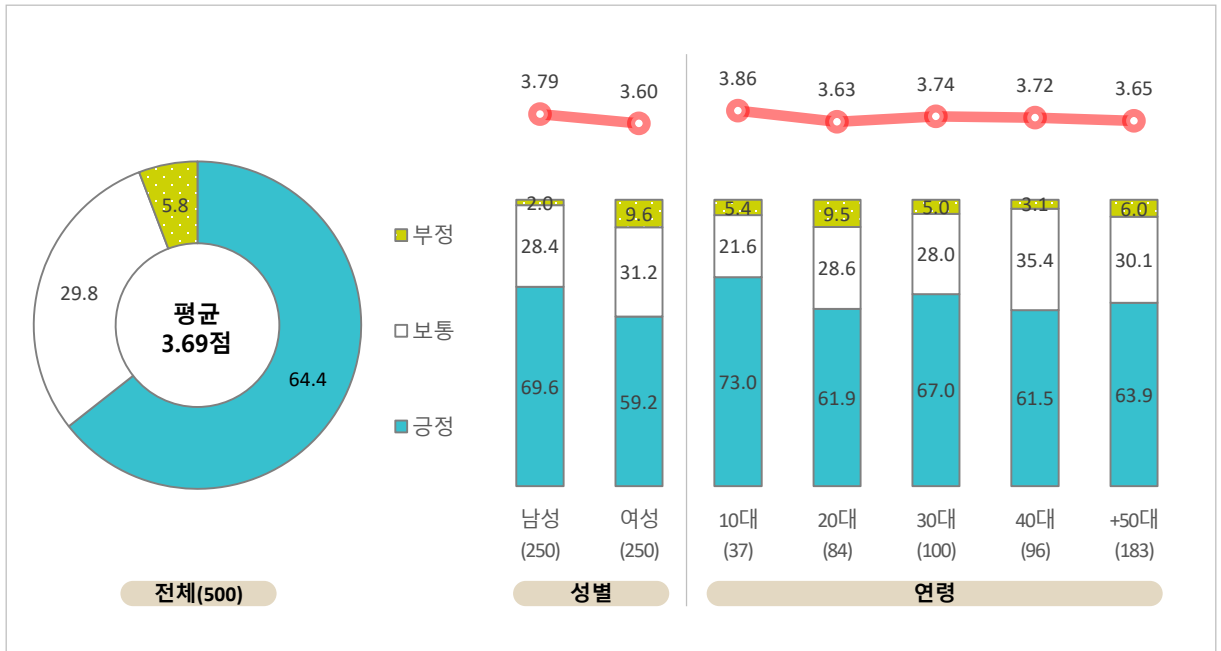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64.4%, 부정 5.8%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북한/남북관계',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전쟁/핵 위험'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변화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가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3-12-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긍정적 변화 이유(n=314)	
북한/남북관계	9.9
개방적이다	6.1
사회/경제/경제발전	5.4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3.8
문화/전통	3.5
정치/대통령	3.5
민주주의	3.5
그냥 좋다	3.2
현대적임	2.9
K-POP/가수	2.5

부정적 변화 이유(n=25)	
전쟁/핵 위험	24.0
북한 문제	16.0
정부/정치적 문제	12.0
부정적 매체의 영향	12.0
그냥 싫다	4.0
개고기	4.0
민주적이지 않음	4.0
한미관계	4.0
군대/군사 문제	4.0
부패 문제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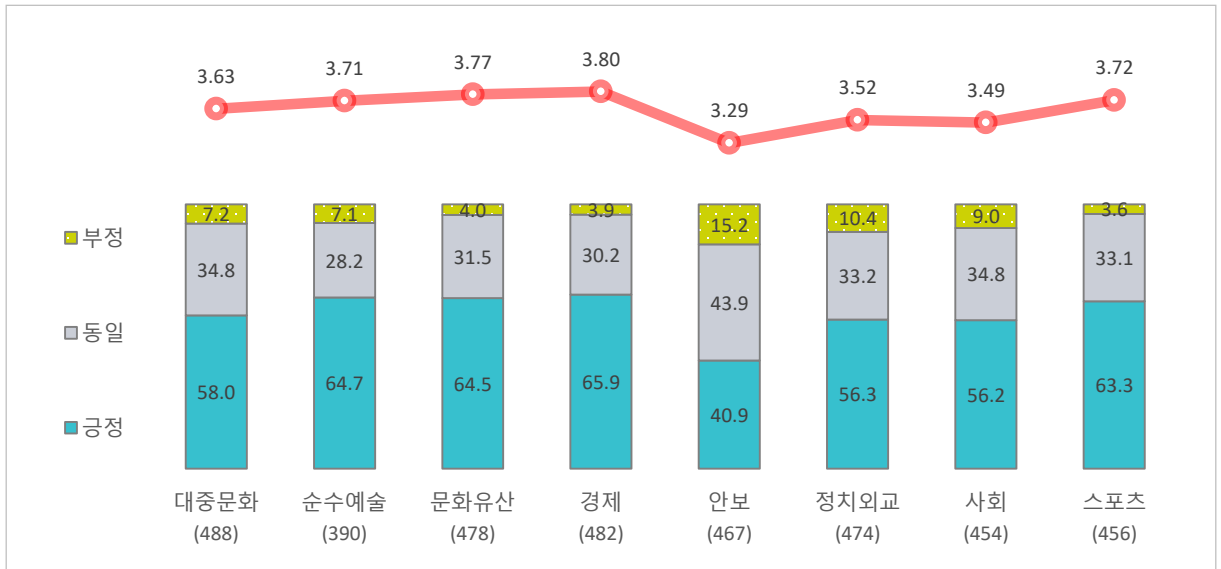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경제', '순수예술', '문화유산', '스포츠'는 긍정 6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보'는 긍정이 5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12-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사회'에 대해 1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12-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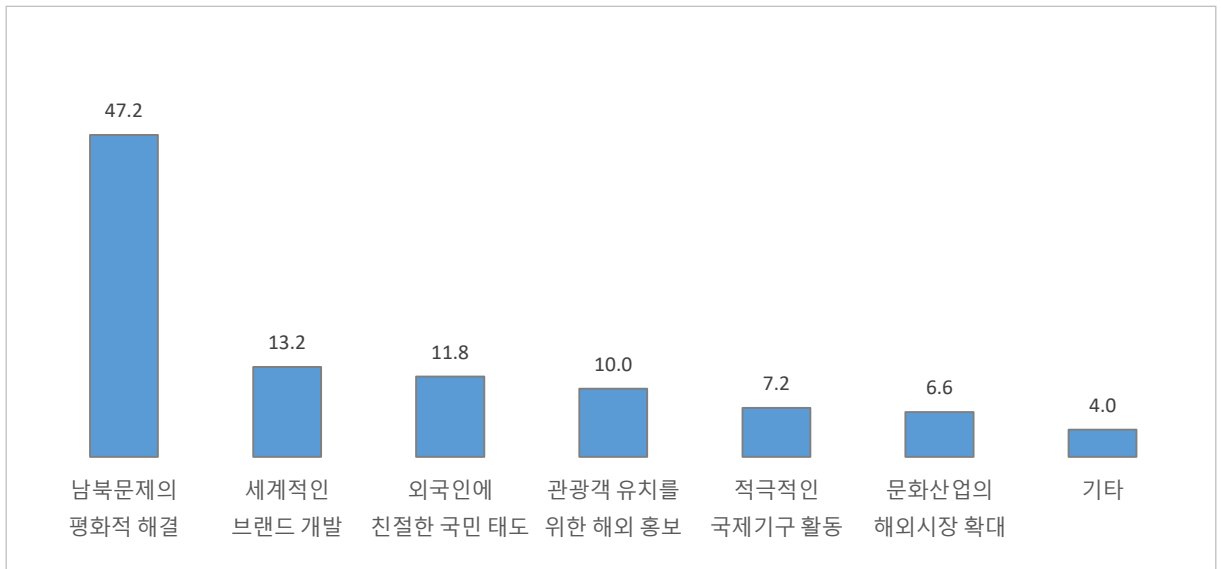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58.0	59.3	56.7	61.8	51.9	60.7	58.4	58.6
	평균	3.63	3.67	3.59	3.74	3.58	3.67	3.66	3.59
순수예술	긍정률	64.7	68.9	60.5	52.9	63.8	64.8	61.9	68.0
	평균	3.71	3.80	3.62	3.35	3.77	3.70	3.75	3.73
문화유산	긍정률	64.5	67.5	61.6	73.5	62.1	62.2	63.4	65.2
	평균	3.77	3.82	3.73	3.97	3.67	3.82	3.80	3.74
경제	긍정률	65.9	71.9	59.2	80.0	60.0	65.1	66.3	66.0
	평균	3.80	3.93	3.67	4.07	3.66	3.80	3.87	3.78
안보	긍정률	40.9	42.2	39.6	43.8	37.7	49.4	36.5	39.7
	평균	3.29	3.36	3.22	3.28	3.19	3.37	3.34	3.26
정치외교	긍정률	56.3	63.5	49.2	55.9	55.3	56.9	50.7	59.9
	평균	3.52	3.70	3.34	3.44	3.47	3.69	3.45	3.50
사회	긍정률	56.2	61.1	51.5	70.6	45.6	55.4	54.7	59.2
	평균	3.49	3.61	3.38	3.65	3.34	3.52	3.52	3.49
스포츠	긍정률	63.3	63.4	63.2	64.3	63.9	67.6	50.7	67.1
	평균	3.72	3.74	3.69	3.86	3.70	3.73	3.61	3.74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3.2%),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11.8%),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0.0%) 순으로 나타남

그림3-12-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여성이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함.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이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우선과제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3-12-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7)	(84)	(100)	(96)	(183)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47.2	54.0	40.4	40.5	21.4	34.0	50.0	66.1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3.2	12.0	14.4	10.8	16.7	18.0	17.7	7.1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1.8	8.4	15.2	10.8	17.9	15.0	10.4	8.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0.0	9.2	10.8	10.8	15.5	13.0	7.3	7.1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7.2	7.6	6.8	18.9	14.3	9.0	2.1	3.3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6.6	5.6	7.6	8.1	10.7	10.0	6.3	2.7
기타	4.0	3.2	4.8	0.0	3.6	1.0	6.3	5.5



## 13

## 러시아



## 1 일반개요

위치	유라시아 대륙	언어	러시아어
수도	모스크바	종교	러시아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인구	1억 4,678만 명	1인당 GDP	11,191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2018년 러시아 소비자 동향지수는 97.3으로 2017년보다 높게 기록되었다가 2019년 1분기는 88.7로 하락
  - 서방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2019년에도 러시아인의 소비력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
- 산업 생산성이 2019년에도 호전되고 있어 노동 급여가 인상되면서, 소비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러시아 정부는 2019년 재정 긴축정책 일환으로 공공부문 및 인프라 구축예산 지출을 줄이고 국가재정을 안정화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파악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신북방정책 플랫폼 구축

- 2019년 6월,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 한-러는 1991년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 중이나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 개선에 큰 기여

## 물류 협력(철도 TKR-TSR 연결 사업)

- 북한의 반대로 한국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남-북 관계 개선으로 2018년 6월 OSJD에 가입하며, 남북중단철도(TKR) 사업에 대한 기대 상승
- 2018년 3월, CJ 대한통운은 러시아 물류기업 FESCO사(블라디보스톡 상업항 소유)와 전략적 협업 및 공동 사업 개발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북방물류 사업 협력을 약속하였고, FESCO사는 자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CJ 대한통운이 TSR 운송 산업 진입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우리 기업의 TSR 진입 현실화

## 러시아 방문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한국에 대한 관심 급증

- 2018년동안 러시아를 방문한 관광객은 한국이 2위로 나타남
  - 한국인은 8.5만 명으로 전년대비 41% 증가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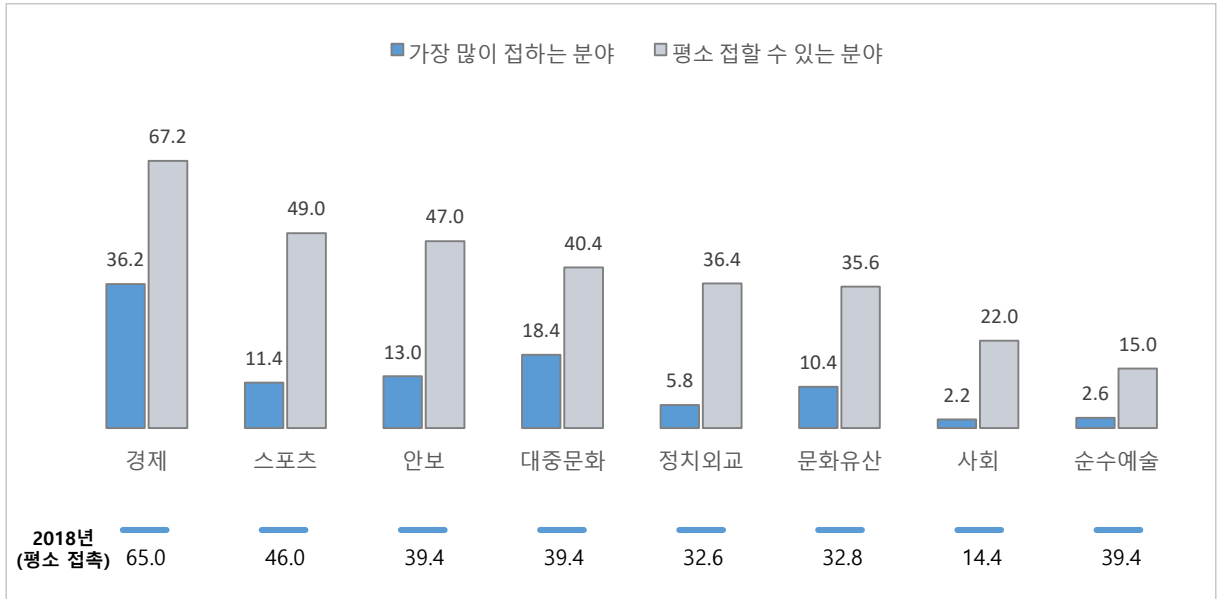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경제'로, 전체 응답자의 67.2%가 평소 한국 관련 '경제'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모든 분야에서 관련 접촉이 증가하였고, 특히 '안보'에 대한 접촉 비중이 증가하였음

그림3-13-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스포츠', '안보', '정치외교'는 남성이, '대중문화', '문화유산'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대중문화'의 접촉 비중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아짐

표3-1-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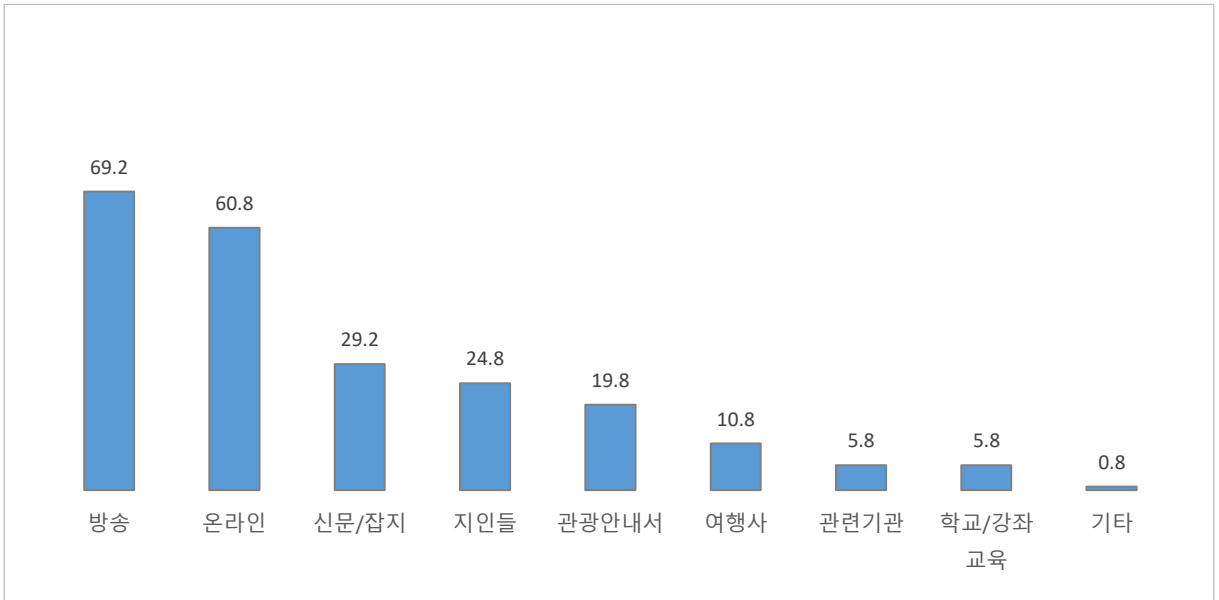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2)	(87)	(127)	(104)	(140)
경제	67.2	69.2	65.2	35.7	51.7	64.6	75.0	82.9
스포츠	49.0	52.4	45.6	40.5	41.4	53.5	52.9	49.3
안보	47.0	50.0	44.0	31.0	48.3	42.5	54.8	49.3
대중문화	40.4	36.4	44.4	71.4	65.5	45.7	31.7	17.1
정치외교	36.4	41.6	31.2	23.8	40.2	40.2	32.7	37.1
문화유산	35.6	28.0	43.2	38.1	41.4	31.5	37.5	33.6
사회	22.0	21.6	22.4	7.1	25.3	23.6	26.9	19.3
순수예술	15.0	12.8	17.2	16.7	19.5	17.3	11.5	12.1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방송' > '온라인'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13-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방송'은 남성이, '지인들'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경로는 큰 차이는 없었음. 연령별로는 '온라인'은 10-20대 젊은 층에서, '방송'은 40-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3-13-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2)	(87)	(127)	(104)	(140)
방송	69.2	74.8	63.6	54.8	58.6	66.9	79.8	74.3
온라인	60.8	61.2	60.4	81.0	66.7	60.6	56.7	54.3
신문/잡지	29.2	32.8	25.6	21.4	24.1	27.6	31.7	34.3
지인들	24.8	17.6	32.0	28.6	26.4	18.9	23.1	29.3
관광안내서	19.8	21.2	18.4	11.9	14.9	22.0	26.9	17.9
여행사	10.8	12.0	9.6	4.8	5.7	15.7	10.6	11.4
관련기관	5.8	6.0	5.6	11.9	6.9	3.1	2.9	7.9
학교/강좌 교육	5.8	4.8	6.8	9.5	4.6	3.1	7.7	6.4
기타	0.8	0.8	0.8	2.4	0.0	0.8	1.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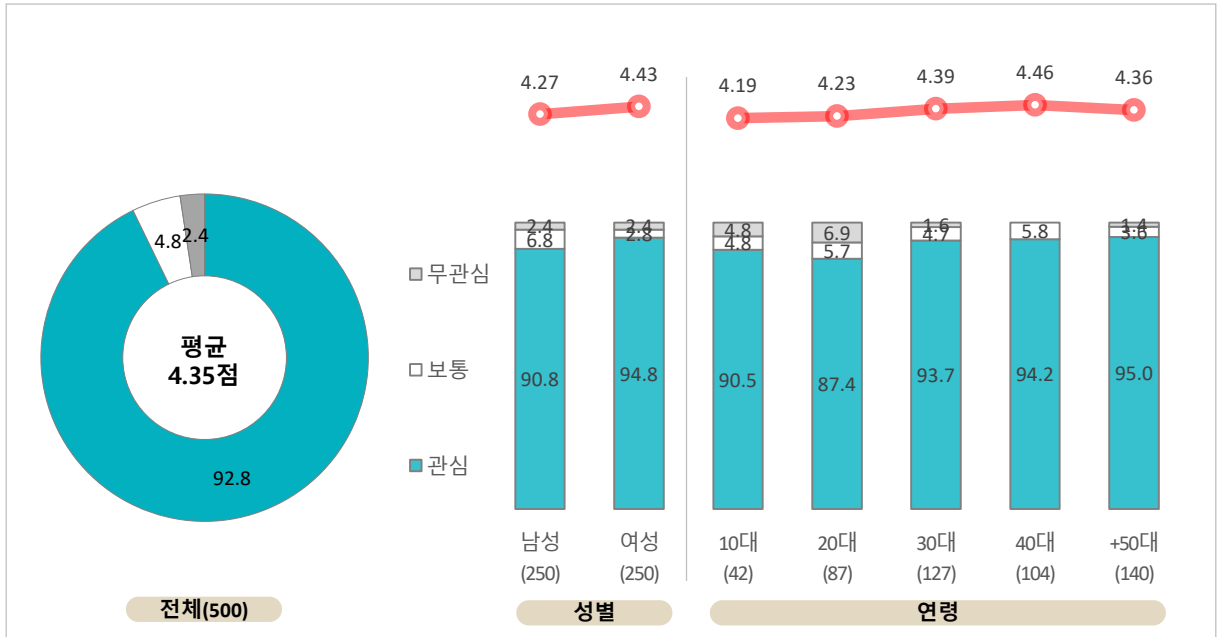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92.8%, '관심 없다'가 2.4%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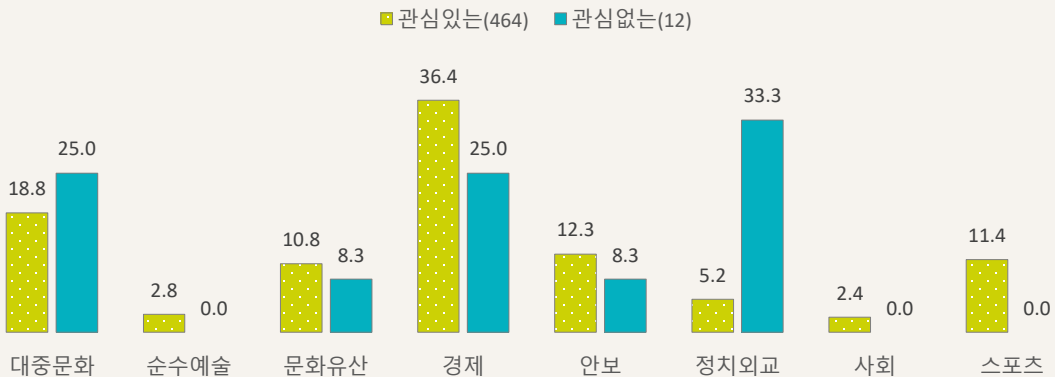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13-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인들은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대중문화', '스포츠',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러시아인들은 '정치외교'와 '대중문화', '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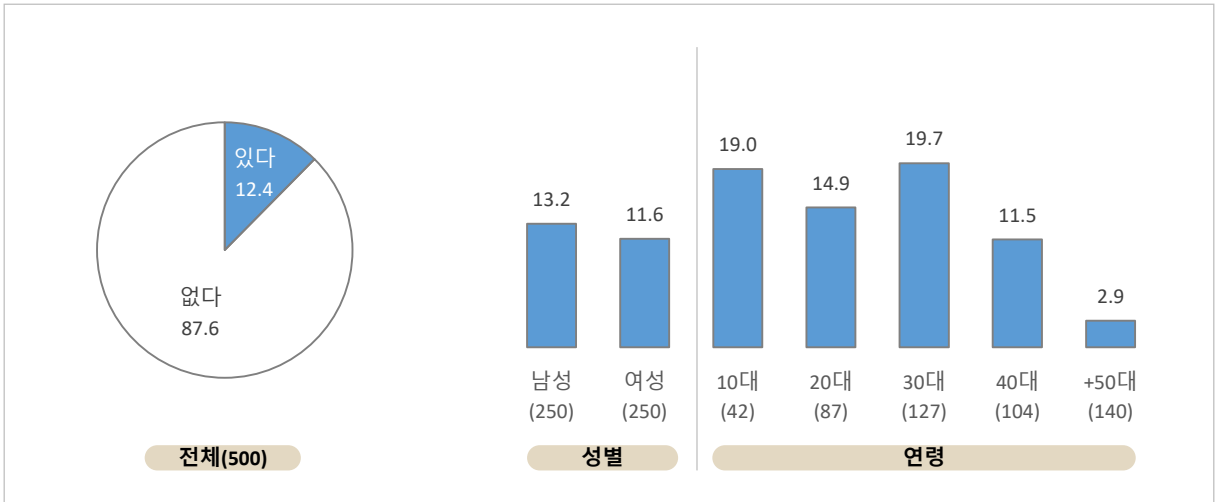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2.4%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93.5%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1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그림3-13-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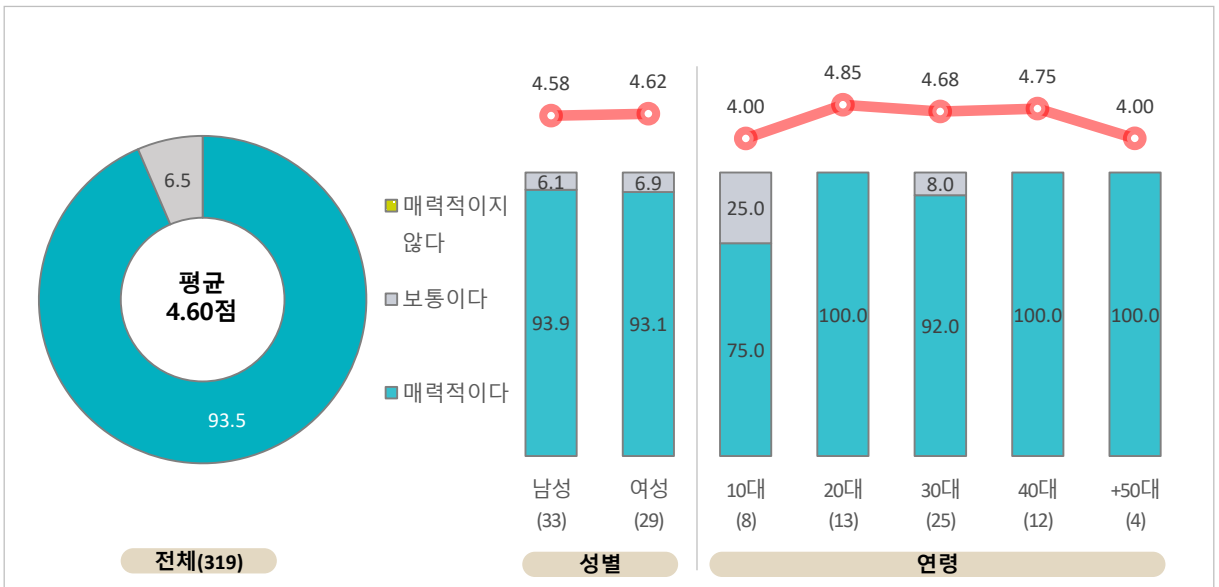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에 따른 긍정 인식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40대, 50대 이상 응답자 모두 한국 방문 후 인상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함

그림3-13-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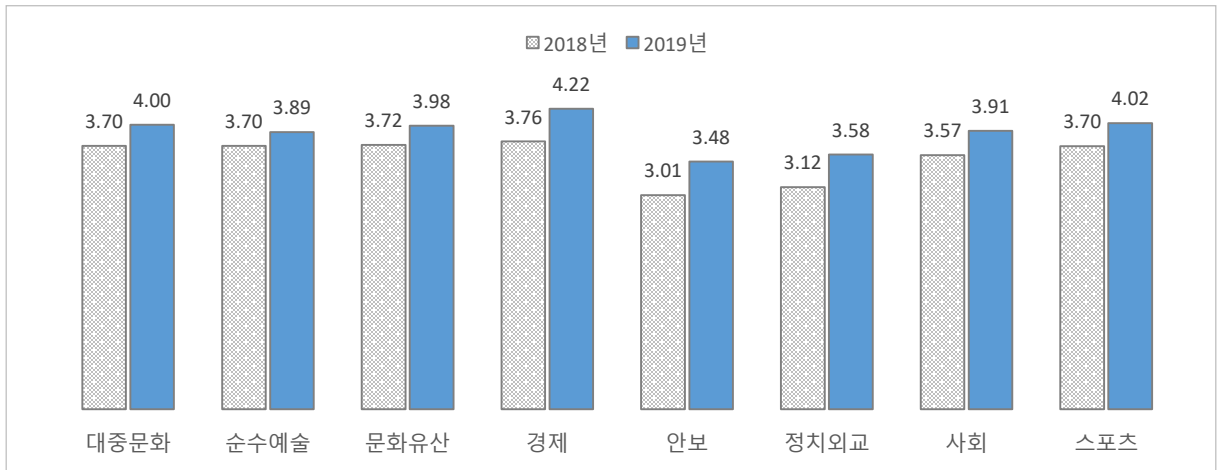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약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의 호감도가 4.2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안보'의 경우 3.48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으나, 전년 대비 다소 호감도가 상승하였음

그림3-13-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와 '사회'에 대한 호감도는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순수예술'에 대해 40대와 50대 이상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3-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대중문화	긍정률	83.1	82.5	83.7	84.6	86.4	74.8	81.7	89.9
	평균	4.00	3.97	4.03	4.10	4.12	3.87	3.90	4.07
순수예술	긍정률	73.3	66.4	79.6	66.7	69.0	68.8	78.7	76.5
	평균	3.89	3.81	3.97	3.81	3.93	3.91	3.90	3.88
문화유산	긍정률	78.8	72.6	85.0	87.8	79.2	82.3	72.3	76.6
	평균	3.98	3.89	4.08	4.10	4.01	4.04	3.89	3.93
경제	긍정률	90.3	91.3	89.3	87.1	84.6	90.5	94.7	91.0
	평균	4.22	4.26	4.18	4.16	4.08	4.20	4.25	4.31
안보	긍정률	48.5	53.0	43.9	47.6	46.3	49.1	51.6	47.3
	평균	3.48	3.55	3.42	3.48	3.46	3.47	3.51	3.49
정치외교	긍정률	53.9	52.2	55.5	52.8	51.8	59.8	52.6	50.8
	평균	3.58	3.57	3.60	3.58	3.64	3.64	3.53	3.53
사회	긍정률	71.4	75.1	67.8	62.5	76.9	68.1	66.3	77.0
	평균	3.91	3.99	3.84	3.91	3.99	3.89	3.81	3.95
스포츠	긍정률	78.8	79.9	77.6	70.7	75.6	79.3	77.3	83.7
	평균	4.02	4.06	3.97	3.90	3.97	4.07	3.97	4.06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72.0%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4.6%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근면성실하다', '문화/전통'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정부/정치적 문제', '공격적임/무서움'이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반기문' > '문재인' > '안현수' > '김연아' 순으로 나타남

그림3-13-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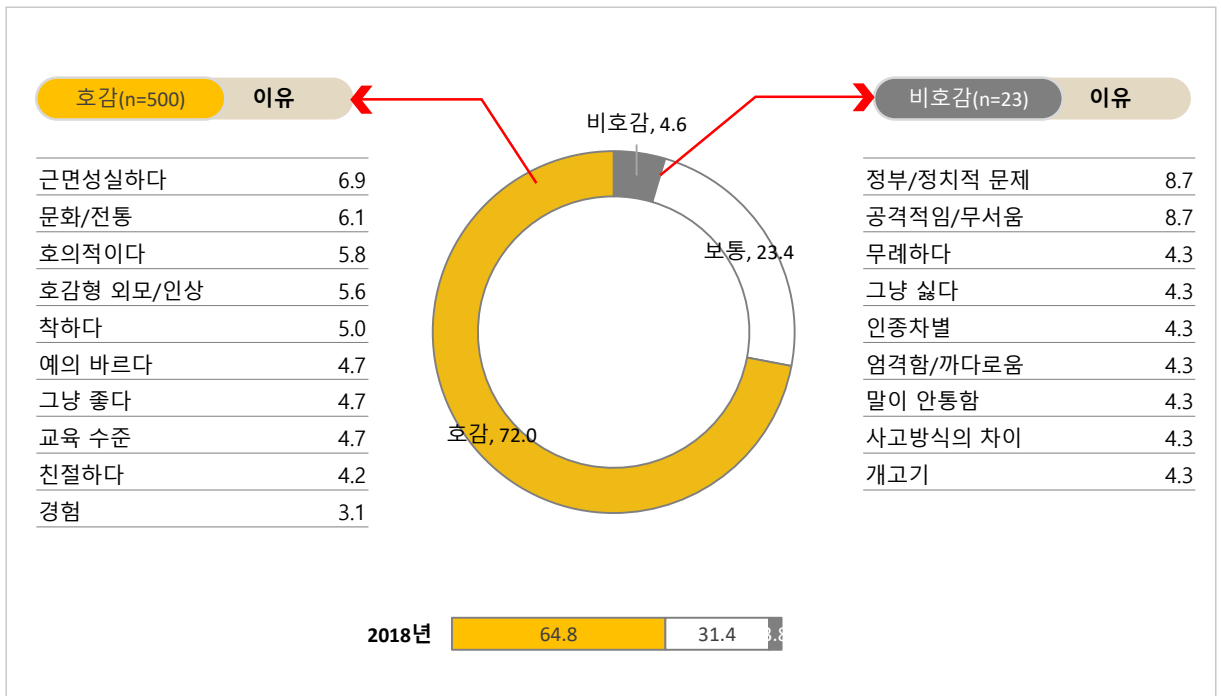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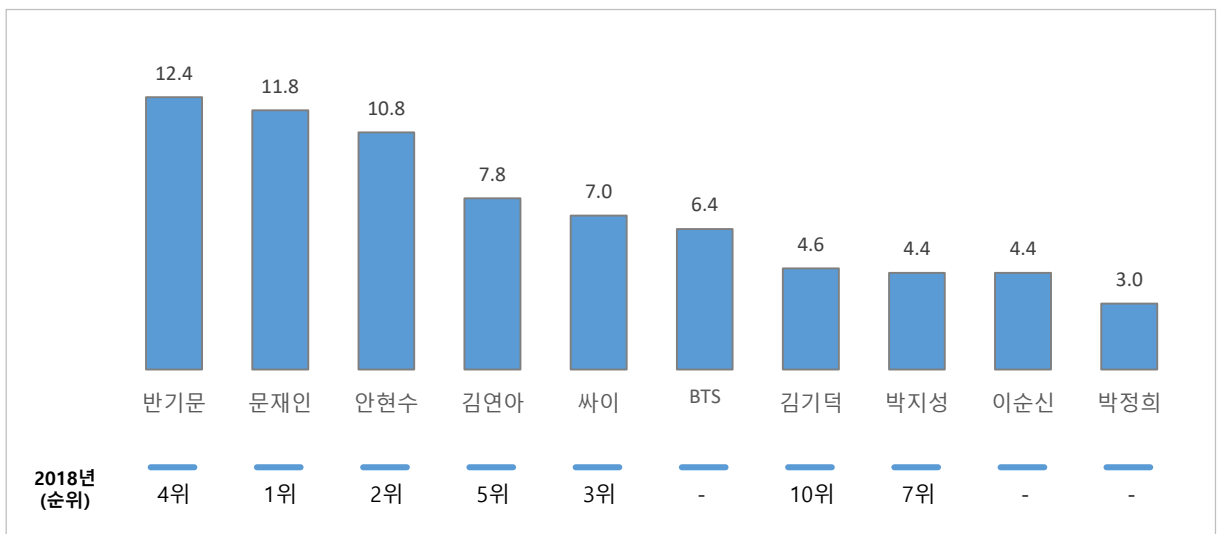


그림3-13-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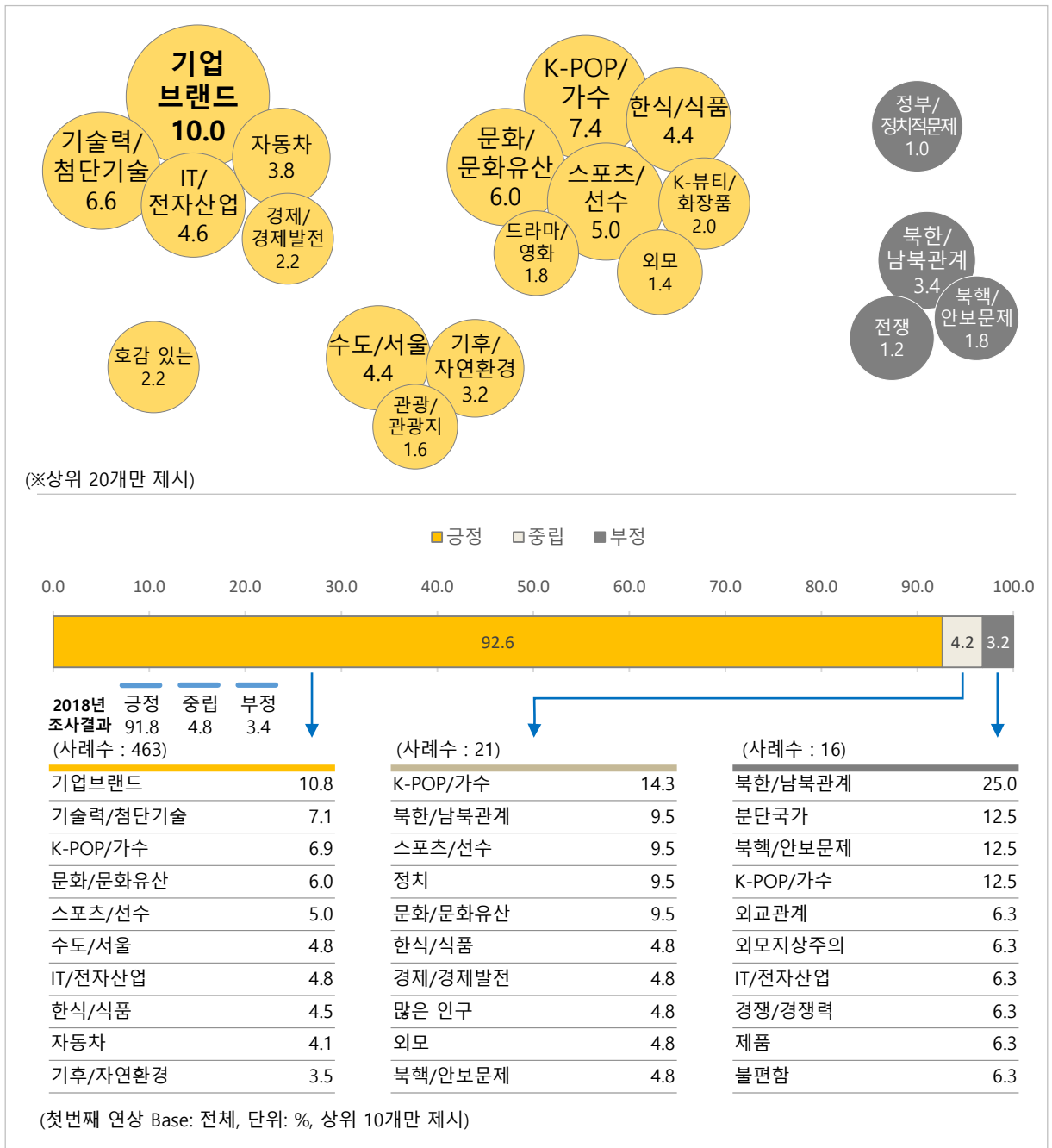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 러시아인들은 '한국'하면 '기업브랜드'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92.6%, 부정 3.2%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기업브랜드',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가 많았음

그림3-13-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94.8%, 5점 만점 4.37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경제수준',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부정응답은 '전쟁 위험/해소'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음

### 응답자 특성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대한 평가는 여성과 40대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3-13-9.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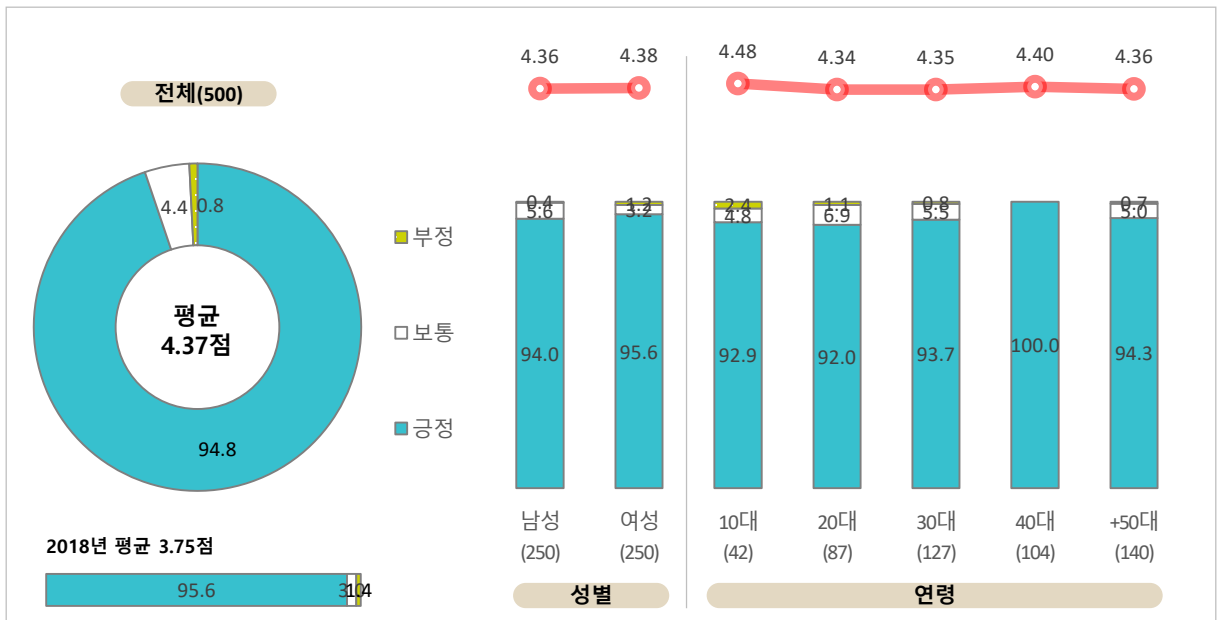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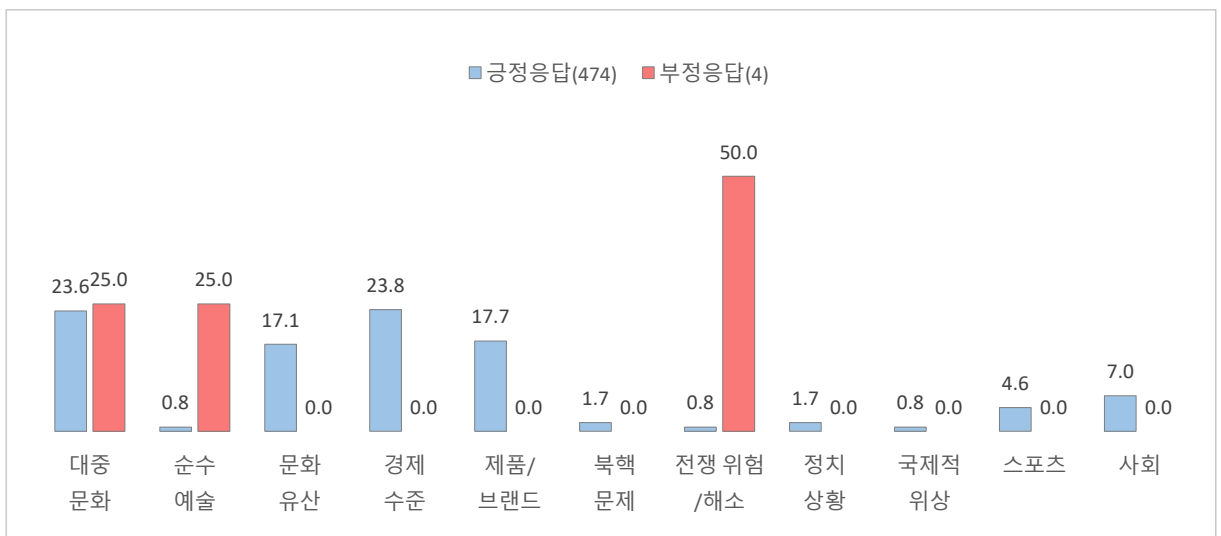


그림3-13-10.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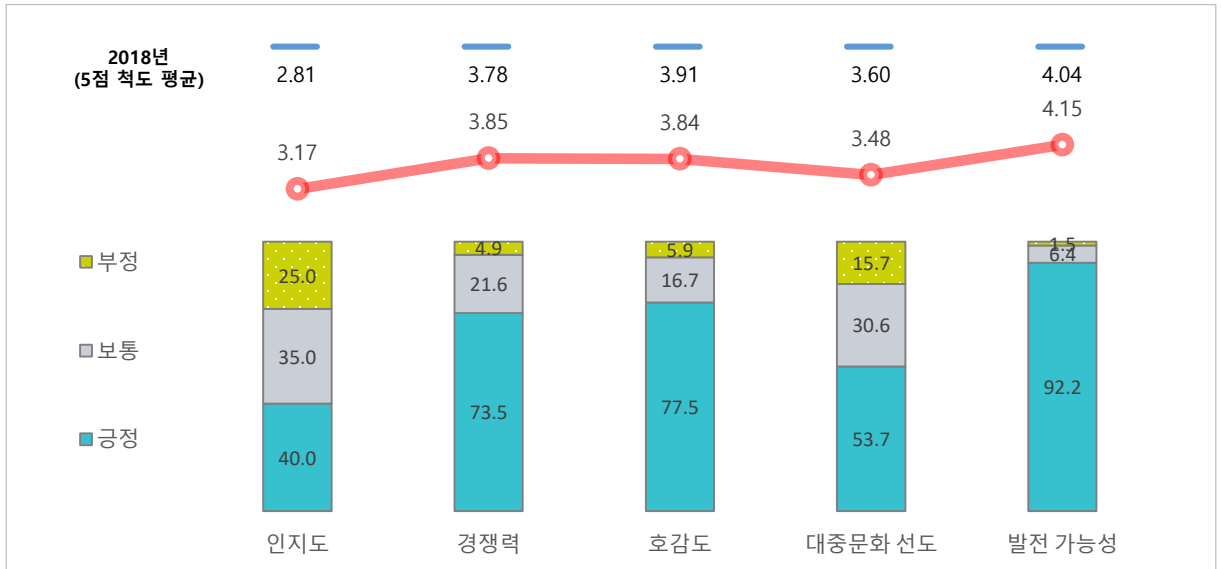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의 이미지 속성 중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92.2%, 부정 1.5%로 가장 높게 평가함
- 반면 '대중문화 선도'에 대해 긍정 53.7%로 높게 평가했으나, 부정 평가 또한 15.7%로 다른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3-13-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나, '호감도'에 대한 평가는 여성이 더 높음. 연령별로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 4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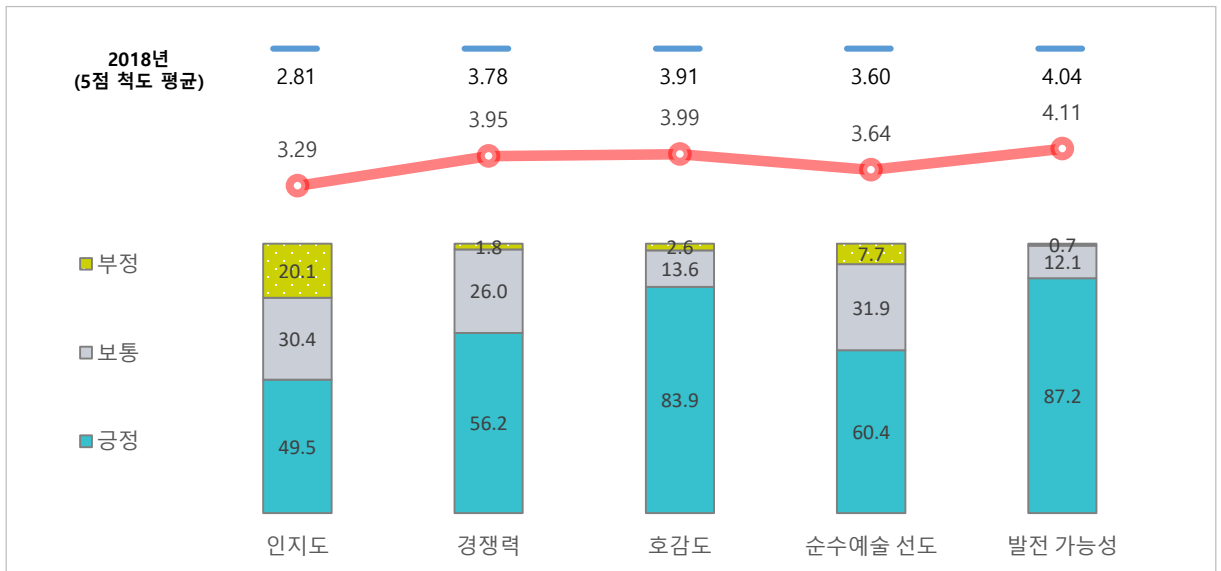
표3-1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8)	(200)	(208)	(39)	(81)	(107)	(82)	(99)
인지도	긍정률	40.0	41.5	38.5	48.7	51.9	38.3	37.8	30.3
	평균	3.17	3.18	3.17	3.44	3.35	3.11	3.07	3.07
경쟁력	긍정률	73.5	74.5	72.6	92.3	74.1	71.0	74.4	67.7
	평균	3.85	3.85	3.86	4.26	3.95	3.82	3.77	3.72
호감도	긍정률	77.5	74.5	80.3	79.5	77.8	77.6	73.2	79.8
	평균	3.84	3.78	3.90	3.82	3.83	3.91	3.70	3.91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53.7	55.0	52.4	66.7	58.0	52.3	47.6	51.5
	평균	3.48	3.46	3.50	3.87	3.52	3.46	3.30	3.47
발전 가능성	긍정률	92.2	94.0	90.4	92.3	90.1	89.7	97.6	91.9
	평균	4.15	4.17	4.13	4.33	4.14	4.14	4.05	4.19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은 긍정 85% 내외로 높게 평가함
- 반면, '순수예술 선도' 항목은 긍정이 60.4% 높았지만 부정 응답도 7.7%로 다른 속성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3-13-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경쟁력'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호감도'에 대해 40대가 가장 높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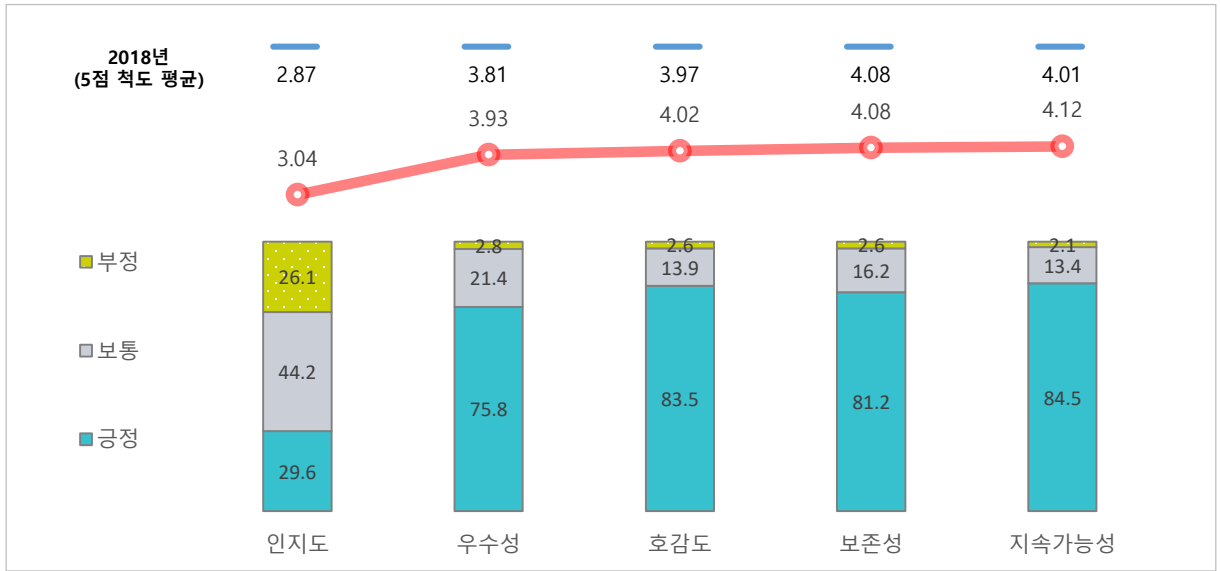
표3-1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273)	(131)	(142)	(21)	(42)	(64)	(61)	(85)
인지도	긍정률	49.5	50.4	48.6	19.0	50.0	50.0	54.1	52.9
	평균	3.29	3.25	3.32	2.38	3.26	3.33	3.39	3.41
경쟁력	긍정률	72.2	69.5	74.6	81.0	71.4	70.3	73.8	70.6
	평균	3.95	3.92	3.96	4.00	3.88	3.95	3.98	3.93
호감도	긍정률	83.9	84.0	83.8	81.0	83.3	79.7	91.8	82.4
	평균	3.99	3.97	4.00	3.71	3.95	3.98	4.07	4.01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60.4	61.8	59.2	61.9	69.0	57.8	63.9	55.3
	평균	3.64	3.63	3.65	3.71	3.76	3.58	3.70	3.55
발전 가능성	긍정률	87.2	87.8	86.6	85.7	81.0	85.9	88.5	90.6
	평균	4.11	4.14	4.08	4.00	4.00	4.06	4.07	4.26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70% 이상, 부정 평가가 3% 미만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해 긍정 84.5%, 부정 2.1%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호감도' 역시 긍정 83.5%, 부정 2.6%로 높은 평가를 받음

그림3-13-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보존성'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우수성'에 대해 3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40대의 평가가 가장 낮음

표3-1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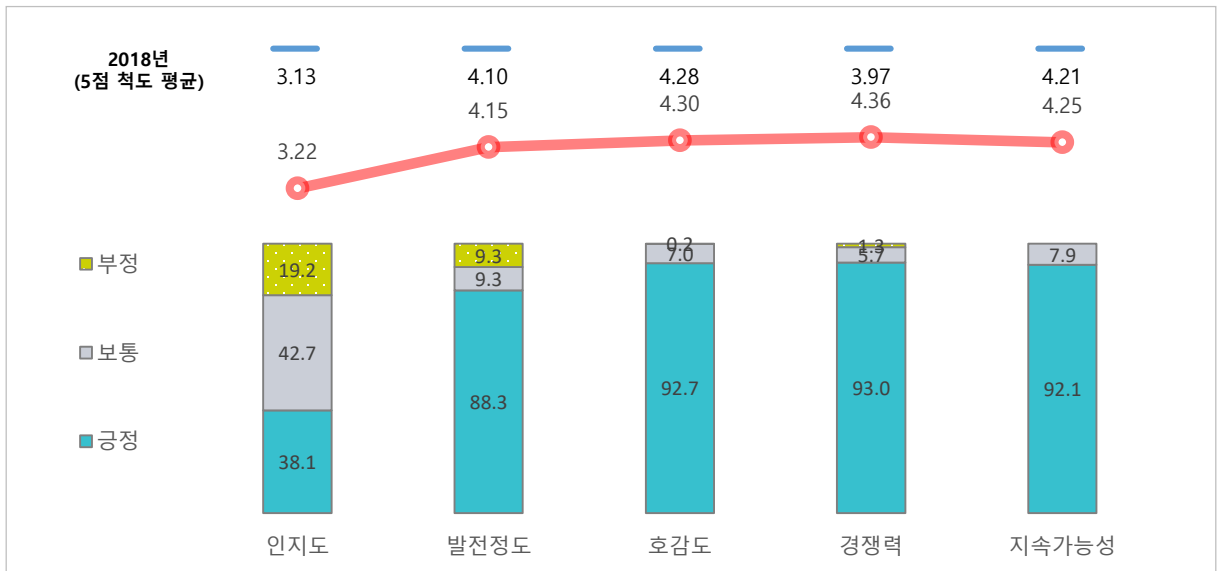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25)	(212)	(213)	(41)	(77)	(113)	(83)	(111)
인지도	긍정률	29.6	30.2	29.1	43.9	35.1	30.1	22.9	25.2
	평균	3.04	3.05	3.03	3.27	3.08	3.11	2.88	2.97
우수성	긍정률	75.8	75.9	75.6	85.4	76.6	85.0	63.9	71.2
	평균	3.93	3.93	3.93	4.15	3.99	4.06	3.77	3.79
호감도	긍정률	83.5	82.5	84.5	85.4	84.4	84.1	85.5	80.2
	평균	4.02	4.00	4.03	4.05	3.97	4.06	4.00	4.00
보존성	긍정률	81.2	77.8	84.5	87.8	77.9	85.8	79.5	77.5
	평균	4.08	4.03	4.14	4.22	4.00	4.14	4.04	4.07
지속가능성	긍정률	84.5	84.0	85.0	80.5	79.2	88.5	85.5	84.7
	평균	4.12	4.08	4.15	4.07	4.03	4.25	4.07	4.10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85% 이상으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전정도'는 긍정 88.3%로 높게 나타났으나, 부정 응답 또한 9.3%로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3-13-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게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 이상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3-1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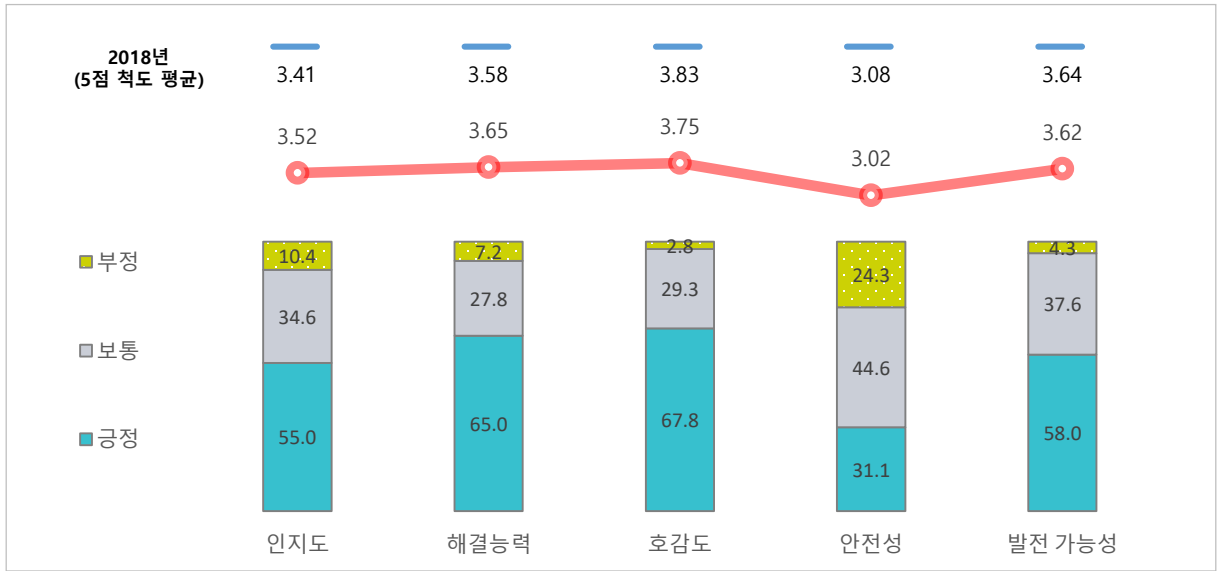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54)	(229)	(225)	(31)	(78)	(116)	(95)	(134)
인지도	긍정률	38.1	42.4	33.8	29.0	37.2	38.8	33.7	43.3
	평균	3.22	3.33	3.11	3.00	3.15	3.24	3.17	3.34
발전정도	긍정률	88.3	89.5	87.1	83.9	80.8	89.7	91.6	90.3
	평균	4.15	4.22	4.08	4.10	4.08	4.14	4.14	4.22
호감도	긍정률	92.7	92.1	93.3	93.5	84.6	94.8	94.7	94.0
	평균	4.30	4.33	4.26	4.23	4.18	4.29	4.36	4.34
경쟁력	긍정률	93.0	91.7	94.2	96.8	88.5	91.4	94.7	94.8
	평균	4.36	4.40	4.33	4.35	4.26	4.36	4.40	4.40
지속가능성	긍정률	92.1	92.1	92.0	100.0	85.9	91.4	93.7	93.3
	평균	4.25	4.28	4.22	4.29	4.23	4.18	4.34	4.25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해결능력'과 '호감도'는 긍정평가가 60% 후반대로 높게 나타났으나, '안전성'의 경우 긍정 31.1%, 부정 24.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전년도와 비교해 '해결능력'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으나 다른 항목의 평가는 소폭 하락 하였음

그림3-13-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 비슷하게 평가했으나, '호감도'는 남성이, '안전성'은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연령별로는 '안전성'에 대해 10대가 가장 높게 평가했고,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

표3-1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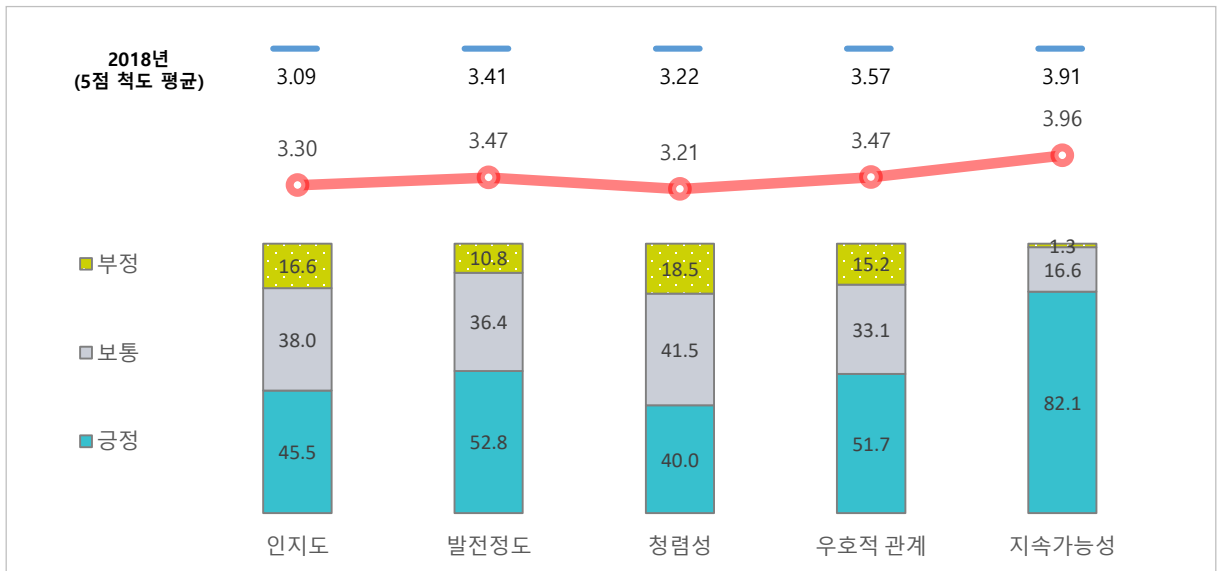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60)	(232)	(228)	(42)	(80)	(116)	(93)	(129)
인지도	긍정률	55.0	59.1	50.9	54.8	51.3	55.2	58.1	55.0
	평균	3.52	3.62	3.42	3.60	3.53	3.48	3.46	3.57
해결능력	긍정률	65.0	64.7	65.4	71.4	62.5	69.8	67.7	58.1
	평균	3.65	3.64	3.66	3.64	3.68	3.74	3.67	3.54
호감도	긍정률	67.8	71.1	64.5	66.7	67.5	69.8	72.0	63.6
	평균	3.75	3.78	3.71	3.74	3.76	3.78	3.76	3.69
안전성	긍정률	31.1	29.7	32.5	40.5	31.3	36.2	32.3	22.5
	평균	3.02	3.00	3.05	3.14	3.05	3.04	2.98	2.98
발전 가능성	긍정률	58.0	58.6	57.5	52.4	57.5	55.2	65.6	57.4
	평균	3.62	3.63	3.60	3.60	3.60	3.60	3.72	3.57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의 이미지 속성 중 '지속가능성'에 대해 긍정 82.1%, 부정 1.3%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함
- 반면, '청렴성'에 대해 긍정 40.0%, 부정 18.5%로 평가해 전년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

그림3-13-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 '우호적 관계'에 대해 3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13-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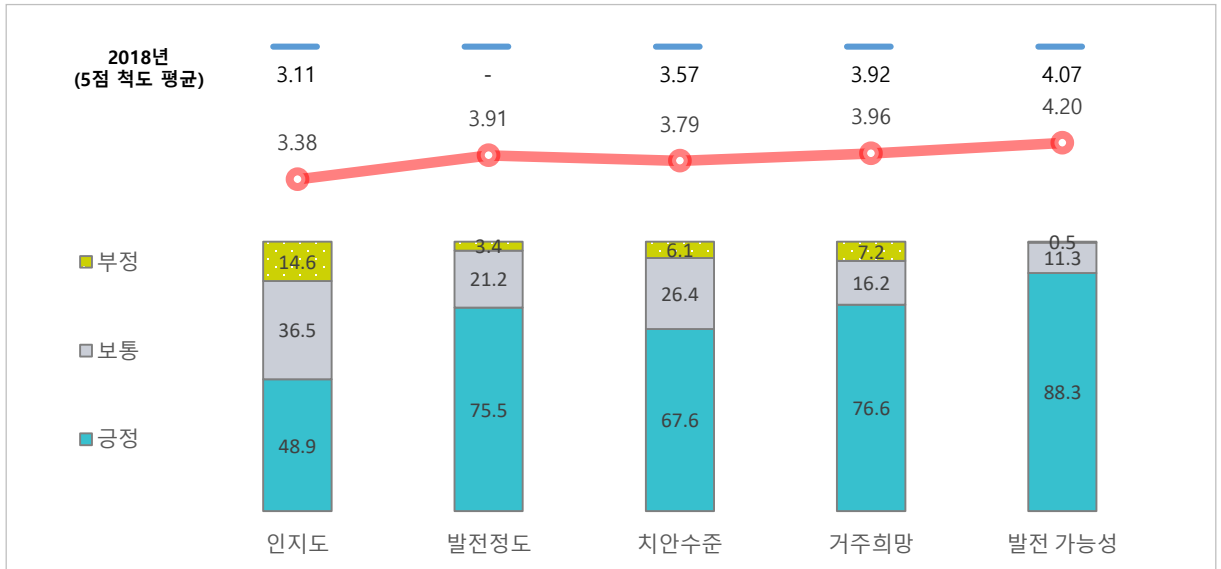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53)	(224)	(229)	(36)	(83)	(117)	(97)	(120)
인지도	긍정률	45.5	48.2	42.8	50.0	39.8	47.9	49.5	42.5
	평균	3.30	3.33	3.28	3.28	3.20	3.39	3.32	3.27
발전정도	긍정률	52.8	54.5	51.1	50.0	49.4	59.0	55.7	47.5
	평균	3.47	3.47	3.46	3.33	3.46	3.55	3.52	3.39
청렴성	긍정률	40.0	42.0	38.0	30.6	48.2	45.3	42.3	30.0
	평균	3.21	3.22	3.21	2.97	3.36	3.26	3.27	3.09
우호적 관계	긍정률	51.7	51.8	51.5	36.1	50.6	57.3	54.6	49.2
	평균	3.47	3.46	3.48	3.22	3.48	3.62	3.54	3.36
지속가능성	긍정률	82.1	82.6	81.7	86.1	84.3	80.3	79.4	83.3
	평균	3.96	3.96	3.95	4.17	4.07	3.91	3.91	3.90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88.3%, 부정 0.5%로 가장 높게 평가함
- 다음으로 '거주희망'에 대해 긍정 76.6%, 부정 7.2%로 높게 평가함

그림3-13-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항목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치안수준'에서 4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3-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44)	(217)	(227)	(32)	(78)	(119)	(89)	(126)
인지도	긍정률	48.9	50.7	47.1	46.9	53.8	49.6	50.6	44.4
	평균	3.38	3.38	3.39	3.38	3.47	3.39	3.36	3.33
발전정도	긍정률	75.5	77.9	73.1	84.4	69.2	73.1	75.3	79.4
	평균	3.91	3.94	3.89	4.06	3.82	3.86	3.90	4.00
치안수준	긍정률	67.6	69.1	66.1	62.5	65.4	68.1	73.0	65.9
	평균	3.79	3.83	3.76	3.84	3.81	3.79	3.82	3.75
거주희망	긍정률	76.6	77.9	75.3	78.1	75.6	80.7	73.0	75.4
	평균	3.96	3.97	3.96	4.09	4.00	3.97	3.87	3.97
발전 가능성	긍정률	88.3	92.2	84.6	93.8	92.3	89.9	83.1	86.5
	평균	4.20	4.25	4.14	4.44	4.33	4.16	4.09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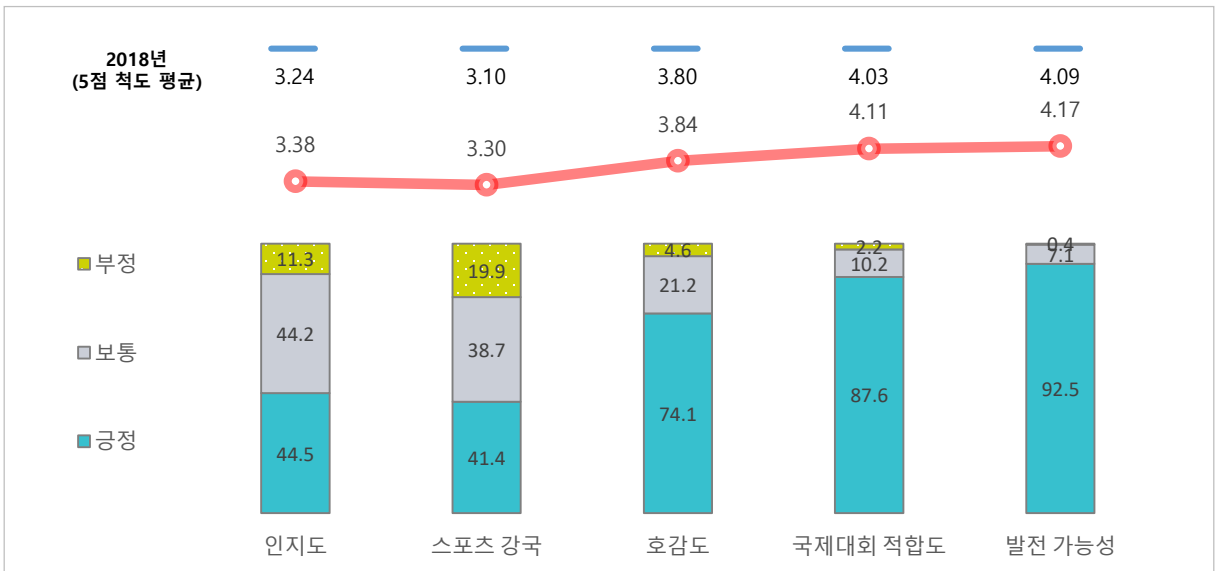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 '발전 가능성'이 긍정 92.5%, 부정 0.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대회 적합도'가 긍정 87.6%, 부정 2.2%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스포츠 강국'에 대한 평가는 긍정 41.4%, 부정 19.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으나, 전년 대비 인식이 소폭 개선되었음

그림3-13-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스포츠 강국'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평가했으며,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3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제대회 적합도'의 경우 40대도 높게 평가함

표3-13-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52)	(224)	(228)	(41)	(78)	(116)	(88)	(129)
인지도	긍정률	44.5	46.0	43.0	36.6	44.9	48.3	42.0	45.0
	평균	3.38	3.41	3.36	3.24	3.44	3.50	3.28	3.36
스포츠강국	긍정률	41.4	37.5	45.2	39.0	41.0	44.0	36.4	43.4
	평균	3.30	3.21	3.39	3.29	3.37	3.24	3.24	3.36
호감도	긍정률	74.1	72.3	75.9	78.0	70.5	76.7	76.1	71.3
	평균	3.84	3.83	3.85	3.88	3.78	3.93	3.84	3.78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87.6	87.5	87.7	82.9	82.1	87.1	94.3	88.4
	평균	4.11	4.13	4.10	4.17	4.04	4.09	4.14	4.14
발전 가능성	긍정률	92.5	93.8	91.2	92.7	87.2	94.8	92.0	93.8
	평균	4.17	4.21	4.12	4.27	4.09	4.23	4.17	4.12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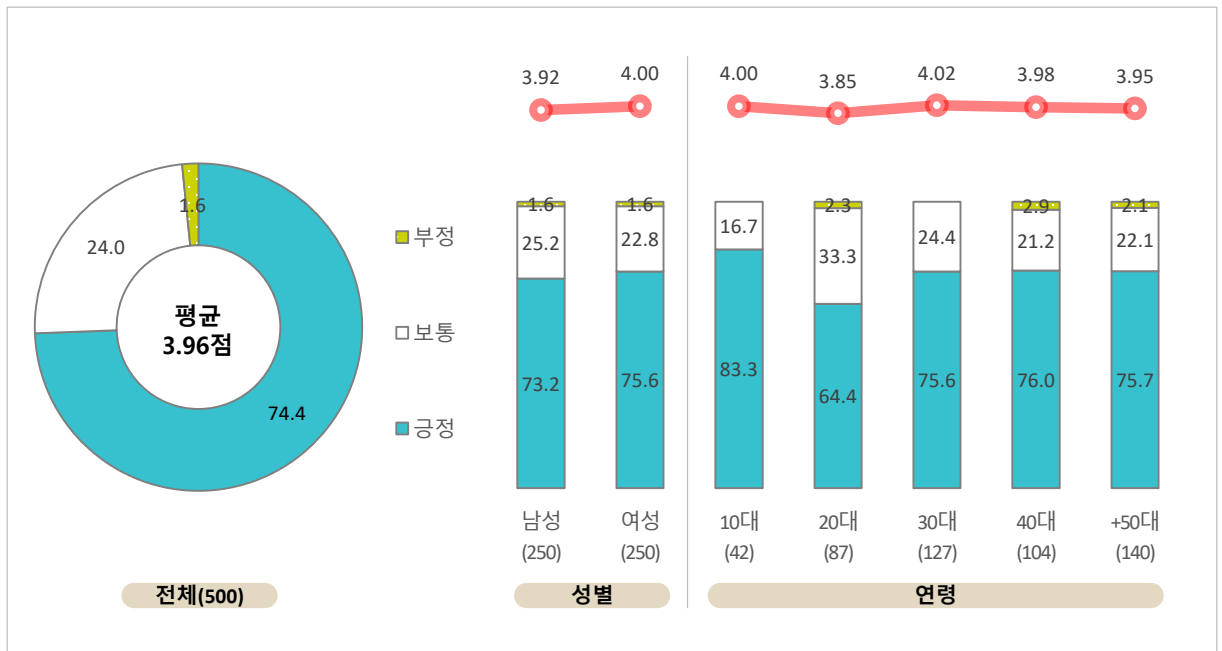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74.4%, 부정 1.6%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사회/경제/경제발전',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 '전쟁/핵 위험' 등의 의견이 많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20대의 평가가 가장 낮았음

그림3-13-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긍정적 변화 이유(n=372)

사회/경제/경제발전	10.2
더 많은 정보를 접함	8.9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7.3
북한/남북관계	5.4
문화/전통	5.1
정치/대통령	4.3
기술력/첨단기술	3.5
스포츠/선수	3.2
지속적인 성장/발전	3.0
외교관계	2.4

(상위 10개만 제시)

#### 부정적 변화 이유(n=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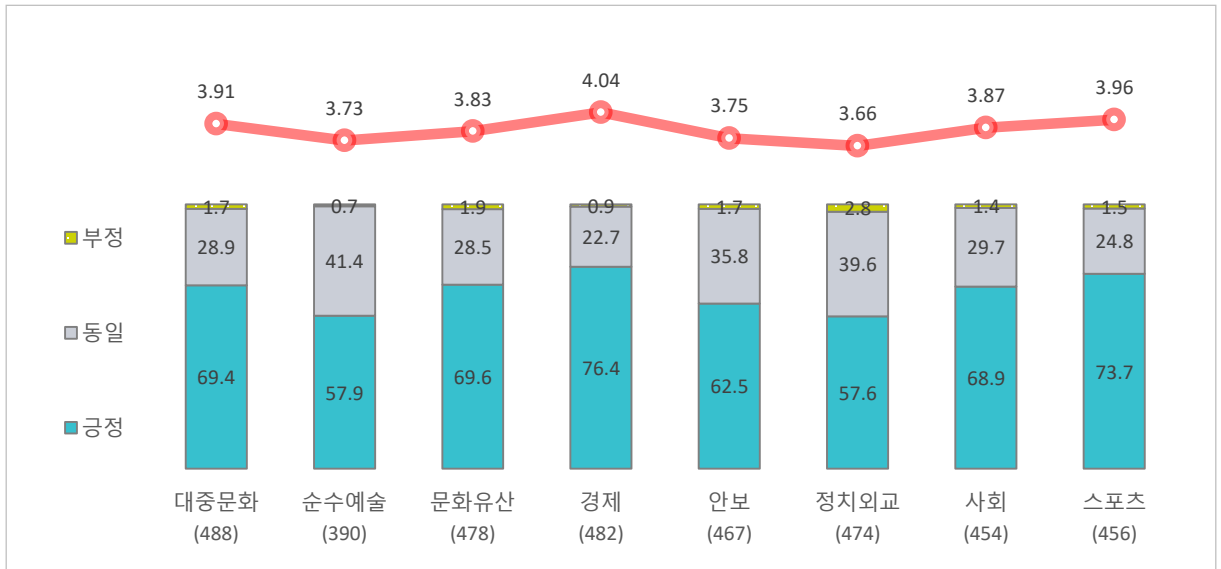
정부/정치적 문제	12.5
전쟁/핵 위험	12.5
북한 문제	12.5
부정적 매체의 영향	12.5
개고기	12.5
한미관계	12.5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경제', '스포츠'는 긍정 7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순수예술'과 '정치외교'는 긍정이 6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13-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여성은 '대중문화', '정치외교'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문화유산', '사회'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안보'에 대한 긍정 인식 변화는 10대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3-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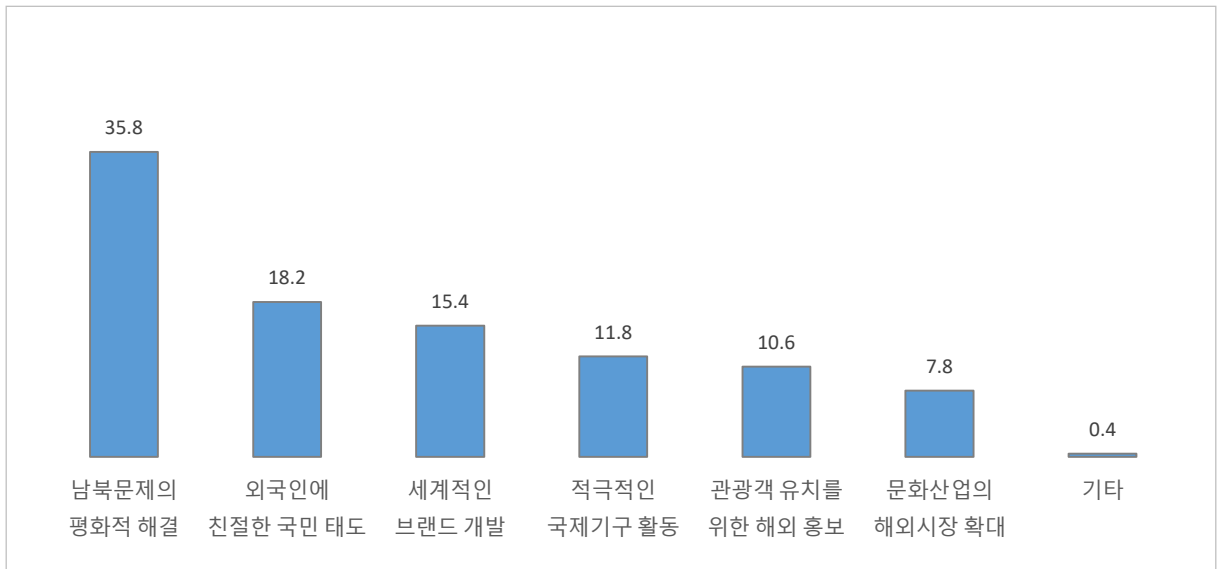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69.4	67.5	71.2	79.5	56.8	68.2	74.4	72.7
	평균	3.91	3.88	3.94	4.10	3.79	3.93	3.95	3.88
순수예술	긍정률	57.9	58.0	57.7	66.7	54.8	57.8	59.0	56.5
	평균	3.73	3.73	3.72	3.76	3.74	3.70	3.82	3.66
문화유산	긍정률	69.6	72.2	67.1	75.6	67.5	71.7	71.1	65.8
	평균	3.83	3.85	3.80	3.88	3.86	3.88	3.88	3.69
경제	긍정률	76.4	75.1	77.8	83.9	64.1	77.6	82.1	76.9
	평균	4.04	4.06	4.03	4.06	3.95	4.05	4.14	4.02
안보	긍정률	62.5	60.2	64.7	83.3	55.3	63.2	58.1	63.3
	평균	3.75	3.73	3.77	4.00	3.72	3.75	3.69	3.73
정치외교	긍정률	57.6	54.0	61.2	54.8	47.1	60.6	60.6	60.0
	평균	3.66	3.62	3.71	3.62	3.59	3.69	3.68	3.68
사회	긍정률	68.9	71.0	67.0	75.0	57.7	72.3	68.5	71.4
	평균	3.87	3.87	3.87	3.88	3.74	3.92	3.88	3.89
스포츠	긍정률	73.7	73.7	73.7	82.9	66.7	72.4	73.9	76.0
	평균	3.96	3.96	3.96	4.00	3.87	3.96	3.97	3.99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3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18.2%),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5.4%),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11.8%) 순으로 나타남

그림3-13-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0대는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을 가장 많이 응답함

표3-13-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2)	(87)	(127)	(104)	(140)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35.8	36.8	34.8	19.0	29.9	30.7	40.4	45.7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8.2	16.8	19.6	11.9	13.8	18.1	23.1	19.3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5.4	15.6	15.2	19.0	17.2	16.5	13.5	13.6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11.8	12.8	10.8	23.8	13.8	12.6	10.6	7.1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0.6	9.6	11.6	11.9	13.8	10.2	8.7	10.0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7.8	8.4	7.2	14.3	11.5	11.0	3.8	3.6
기타	0.4	0.0	0.8	0.0	0.0	0.8	0.0	0.7

## 14

## 아랍에미리트



## 1 일반개요

위치	중동 아라비아반도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수도	아부다비(Abu Dhabi)	종교	이슬람교(수니파,시아파)
인구	963만명(자국민 약 11.6%, 외국인 약 88.4%)	1인당 GDP	39,806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아랍에미리트는 일곱 개의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높은 국민소득과 무역수지를 바탕으로 개방 경제체제를 지향
- 주요 산유국으로서 UAE의 거시경제 지표들은 유가변동과 세계 석유수요에 영향을 받으나 정부 재정 지출 유지, 비석유부문의 성장세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시장경제를 보임
- 영기준예산제도를 채택 및 도입하여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및 인프라, 보건, 교육부분에 배정되었으며, 특히 인프라 개발 투자로 건설시장 성장세 유지 전망
- 스타트업 유치로 포스트오일 시대를 향한 산업다각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하며 IT 선진국으로 거듭나고자 함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한국 문화 공연, 문화 강좌 등 활발한 문화 교류

- 코리아페스티벌 '한국 음악의 밤', UAE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UAE 사진 전시회, 2019 아부다비 페스티벌 한국 국립발레단 초청 공연 등 한국 문화 홍보 및 문화 교류 활발

## 한-UAE 경제공동위원회 설치

- 총 6차 한-UAE 경제공동위를 개최했으며, 6차 경제공동위에서는 에너지/인프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의 협력을 합의함. 2020년 7차 공동위 개최 예정

## 2020 두바이 엑스포(EXPO 2020) 개최

- 두바이는 중동국가로는 처음으로 2020년 세계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
- 이에 맞춰 1,400억 달러 규모로 테마파크, 고층 건물, 호텔, 인프라 시설 등 각종 프로젝트가 발주 될 전망
-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관광, 서비스, 항공에 이르는 산업의 호황 전망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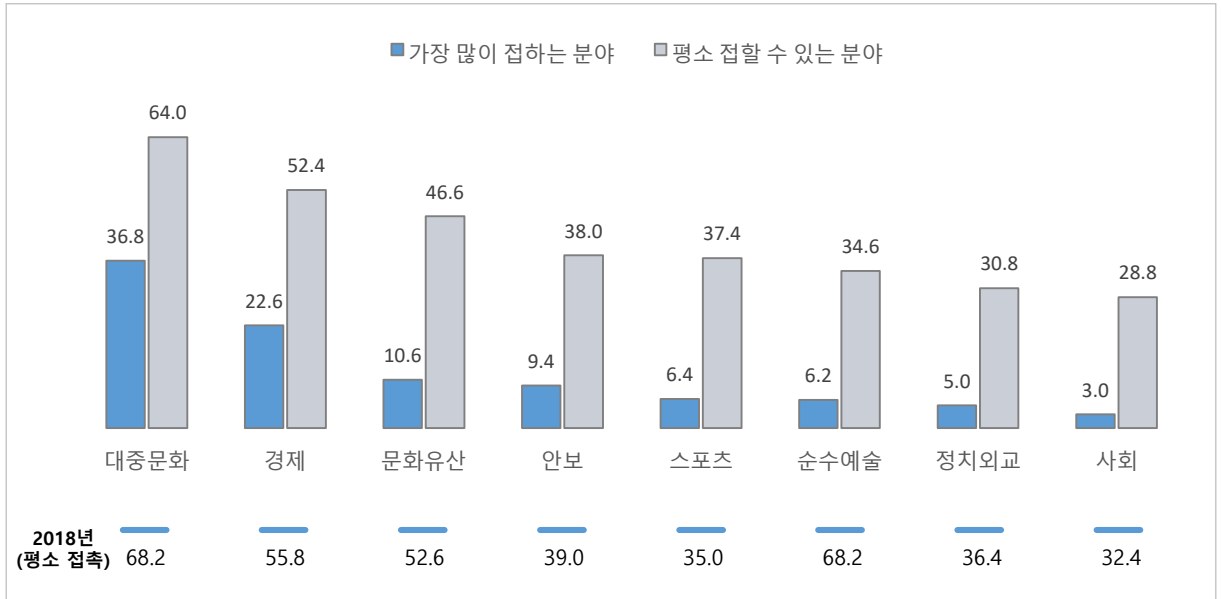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대중문화'로, 전체 응답자의 64.0%가 평소 한국 관련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스포츠' 관련 접촉이 소폭 증가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3-14-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대중문화'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접촉 비중이 높았고, '경제', '스포츠'는 남성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젊은 층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3-14-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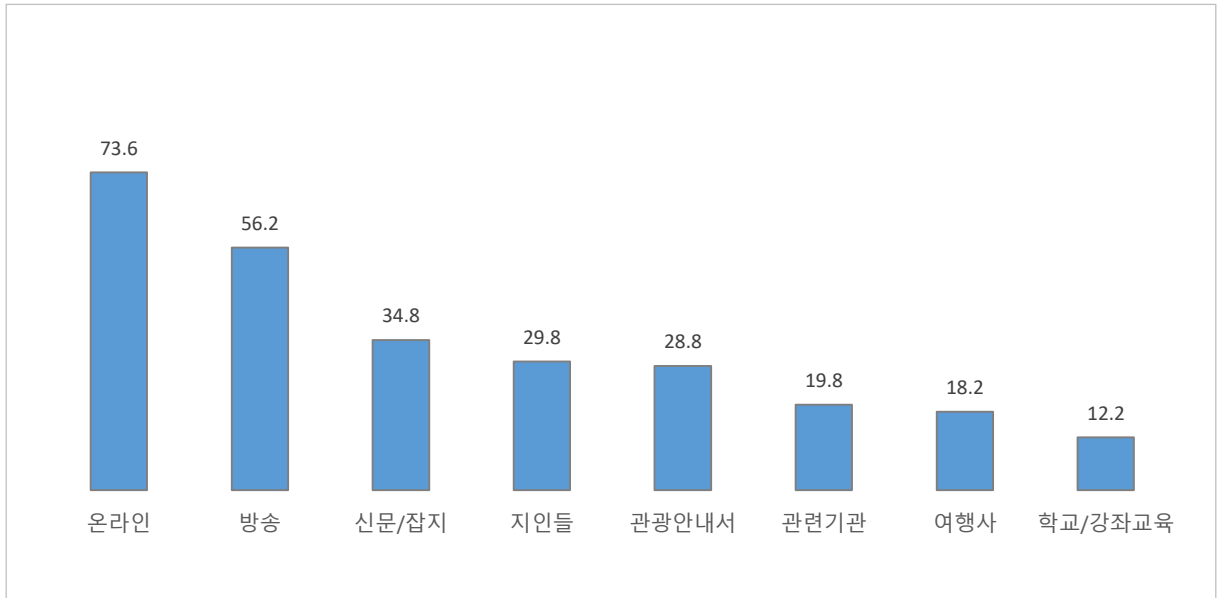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4)	(137)	(173)	(119)	(27)
대중문화	64.0	57.6	70.4	72.7	69.3	64.2	58.0	48.1
경제	52.4	61.2	43.6	34.1	39.4	60.1	64.7	44.4
문화유산	46.6	42.4	50.8	40.9	45.3	46.8	47.1	59.3
안보	38.0	40.8	35.2	22.7	29.9	43.9	44.5	37.0
스포츠	37.4	43.6	31.2	20.5	28.5	43.4	47.9	25.9
순수예술	34.6	32.8	36.4	38.6	35.8	36.4	29.4	33.3
정치외교	30.8	37.6	24.0	9.1	22.6	38.2	36.1	37.0
사회	28.8	32.4	25.2	11.4	23.4	31.2	38.7	25.9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온라인' > '방송' > '신문/잡지' 순으로 높았음

그림3-14-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온라인'은 여성이, '방송'은 남성의 접촉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방송'은 높은 연령, '온라인'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3-14-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4)	(137)	(173)	(119)	(27)
온라인	73.6	70.8	76.4	68.2	75.9	77.5	69.7	63.0
방송	56.2	59.2	53.2	47.7	49.6	59.0	61.3	63.0
신문/잡지	34.8	39.2	30.4	31.8	24.8	35.3	42.0	55.6
지인들	29.8	30.0	29.6	38.6	25.5	29.5	29.4	40.7
관광안내서	28.8	33.2	24.4	18.2	21.9	35.3	28.6	40.7
관련기관	19.8	24.0	15.6	6.8	16.1	22.5	22.7	29.6
여행사	18.2	22.4	14.0	6.8	13.1	23.7	19.3	22.2
학교/강좌 교육	12.2	14.8	9.6	11.4	7.3	14.5	10.9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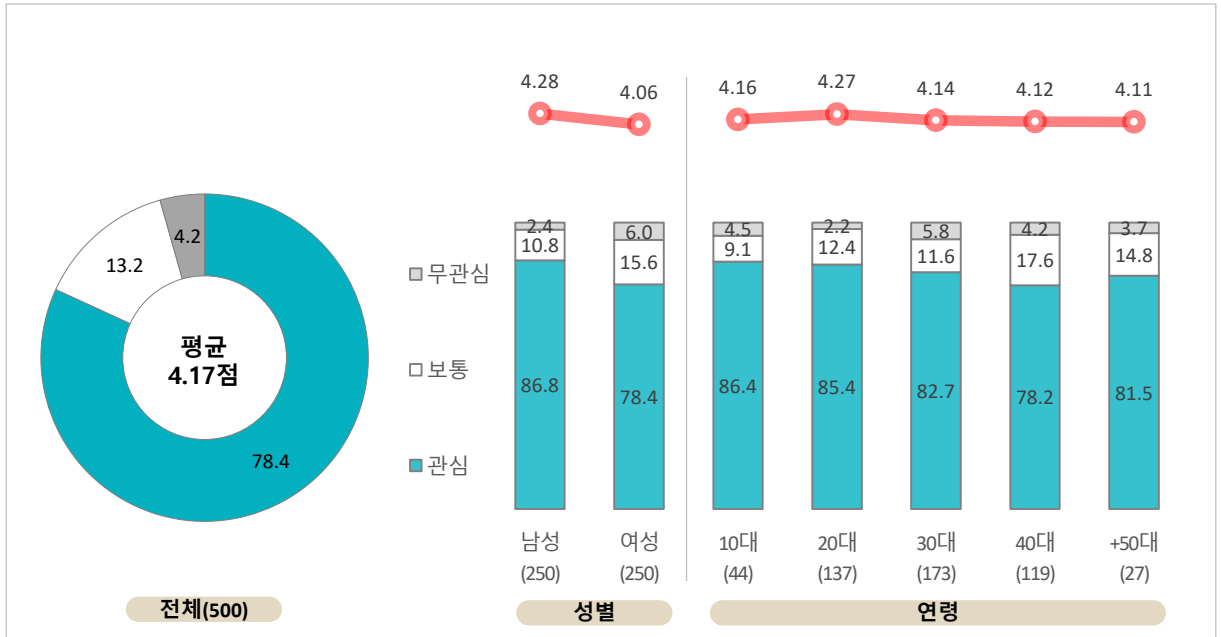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78.4%, '관심 없다'가 4.2%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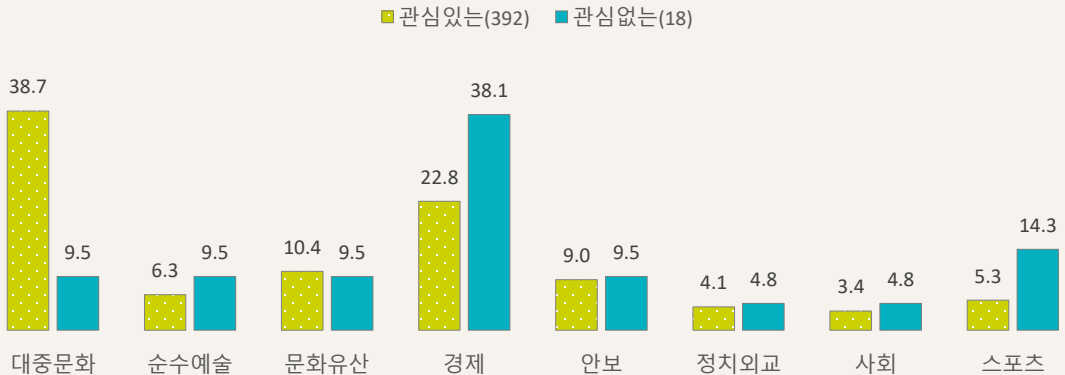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남성들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14-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아랍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경제',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아랍인들은 '경제'와 '스포츠'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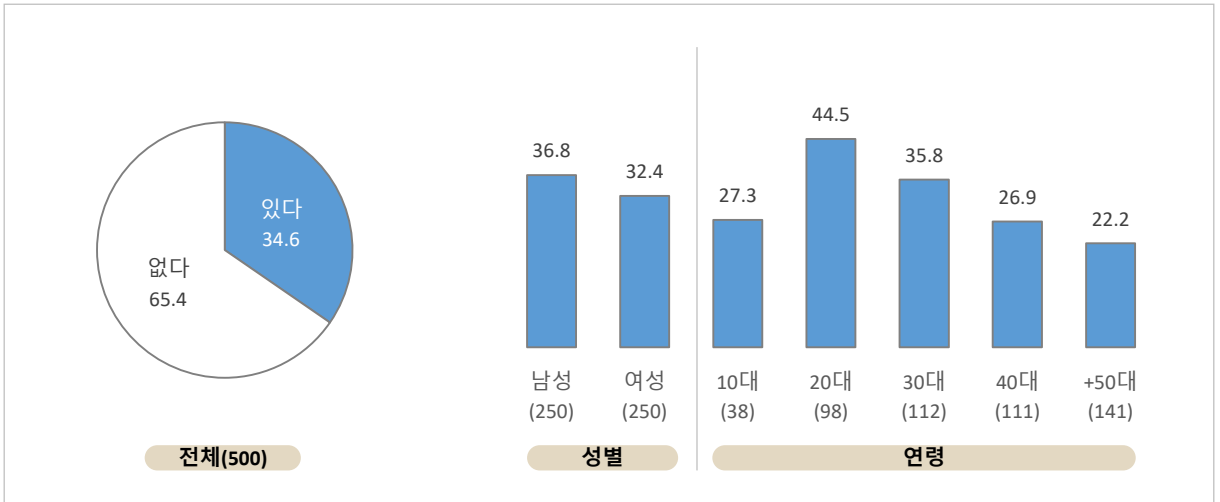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34.6%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87.9%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대부분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의 방문 경험이 가장 많았음

그림3-14-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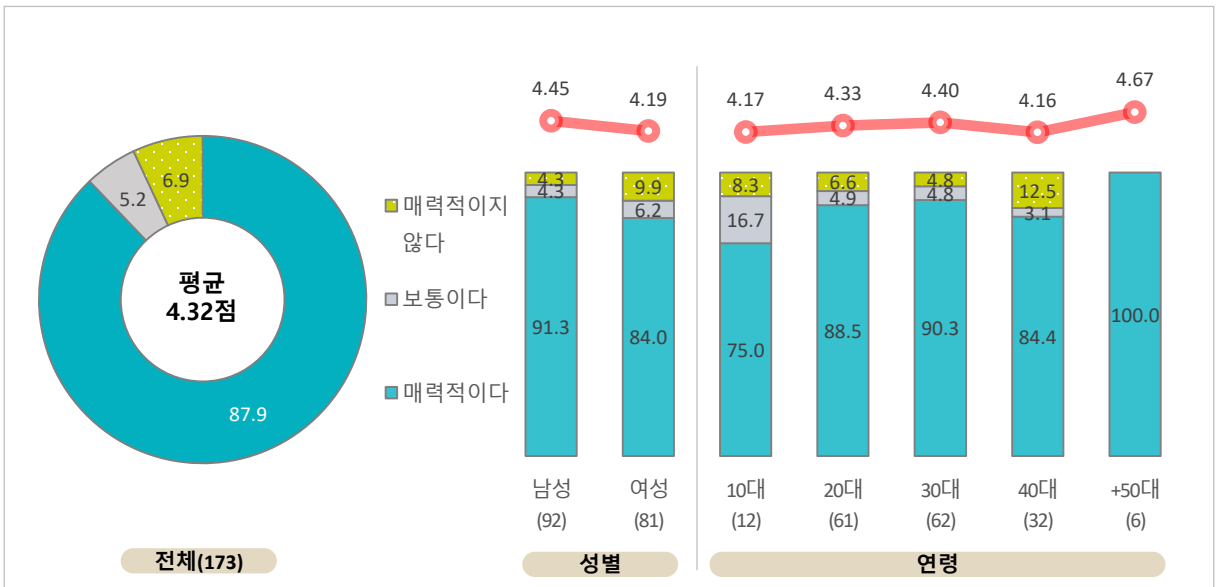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한국 방문 후 인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응답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3-14-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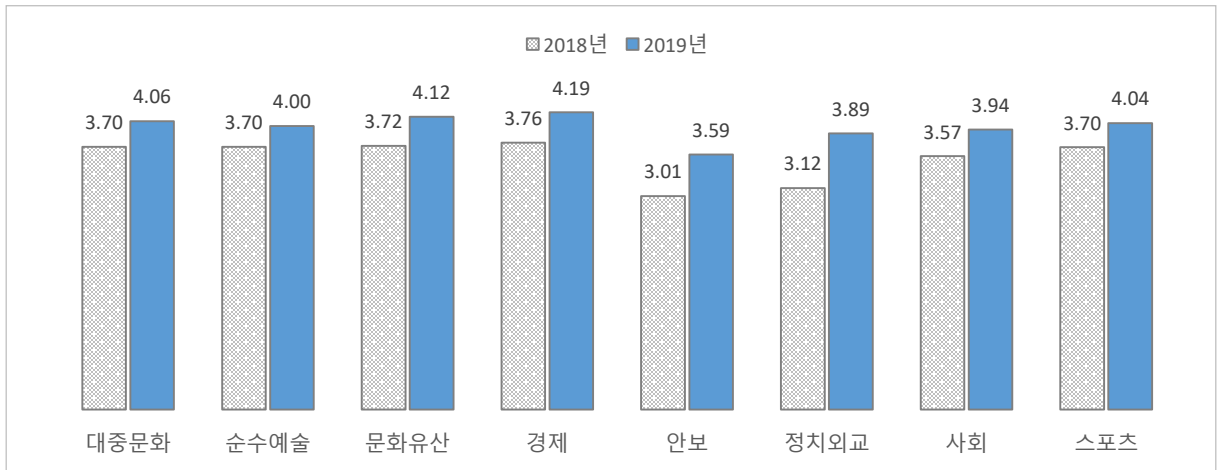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모든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경제', '문화유산' 분야는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 '안보'와 '정치외교'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호감도가 다소 상승하였음

그림3-14-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 '안보'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10대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4-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대중문화	긍정률	78.2	79.9	76.7	83.3	78.6	79.2	74.2	77.3
	평균	4.06	4.08	4.05	4.10	4.10	4.10	3.95	4.05
순수예술	긍정률	77.8	80.6	75.1	92.9	78.1	72.1	82.1	73.7
	평균	4.00	4.07	3.92	4.25	3.99	3.89	4.09	3.95
문화유산	긍정률	84.3	87.6	80.9	85.3	89.6	81.0	83.8	80.8
	평균	4.12	4.18	4.07	4.12	4.25	4.07	4.06	4.19
경제	긍정률	84.5	90.7	77.9	90.3	83.9	84.2	82.4	91.7
	평균	4.19	4.33	4.03	4.16	4.08	4.21	4.24	4.33
안보	긍정률	58.4	67.0	49.7	74.2	58.3	53.8	58.5	64.3
	평균	3.59	3.76	3.42	3.84	3.59	3.48	3.65	3.64
정치외교	긍정률	66.1	73.3	57.9	59.3	71.4	58.8	71.7	68.2
	평균	3.89	3.98	3.79	3.85	3.98	3.79	3.93	3.91
사회	긍정률	80.3	84.7	75.9	75.7	85.2	79.1	76.5	87.0
	평균	3.94	4.06	3.83	3.78	3.95	3.91	4.01	4.13
스포츠	긍정률	80.3	85.8	74.9	85.7	83.8	78.0	75.8	89.5
	평균	4.04	4.17	3.90	3.95	4.00	4.03	4.07	4.26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82.4%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3.6%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 '문화/전통'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공격적임/무서움', '그냥 싫다' 등이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BTS' > '문재인' > '이민호' > '싸이' 순으로 나타남

그림3-14-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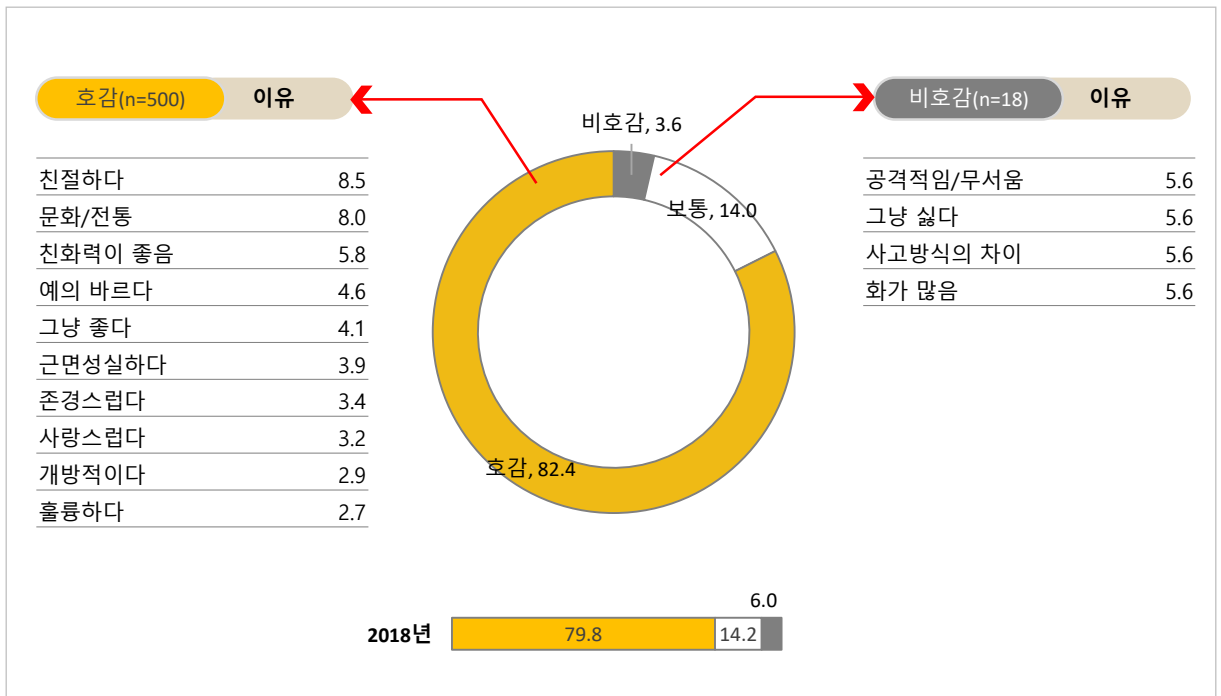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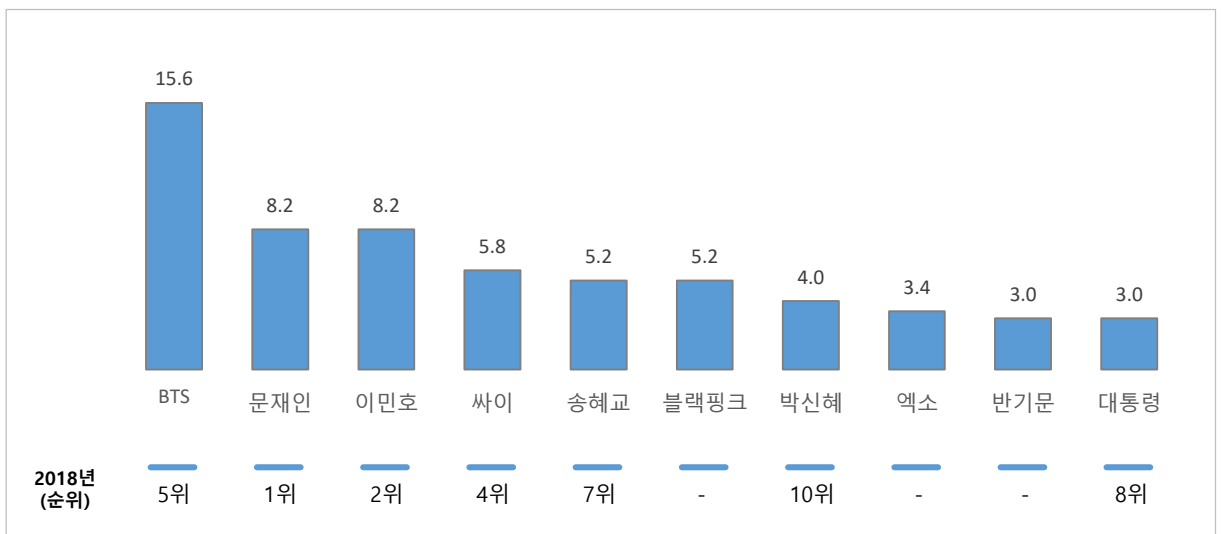


그림3-14-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에 대한 이미지

### 1) 자유 연상 이미지

- 아랍인들은 '한국'하면 'K-POP/가수'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81.4%, 부정 4.2%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K-POP/가수',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가 많았음

그림3-1-9.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87.4%, 5점 만점 4.33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북핵문제'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3-14-9.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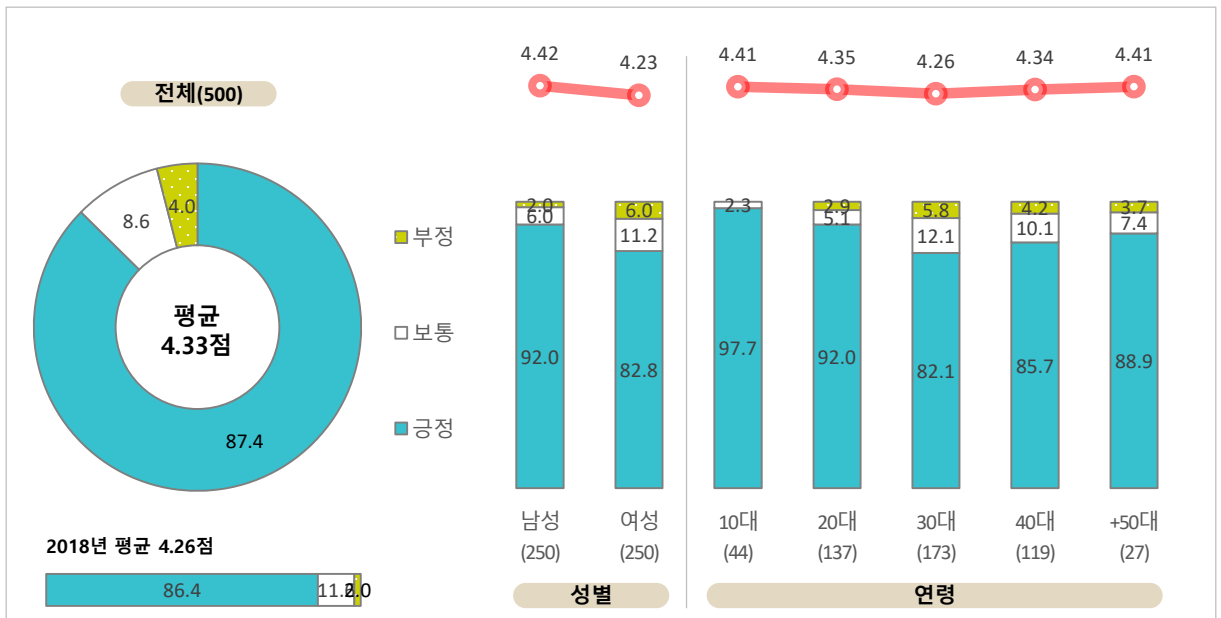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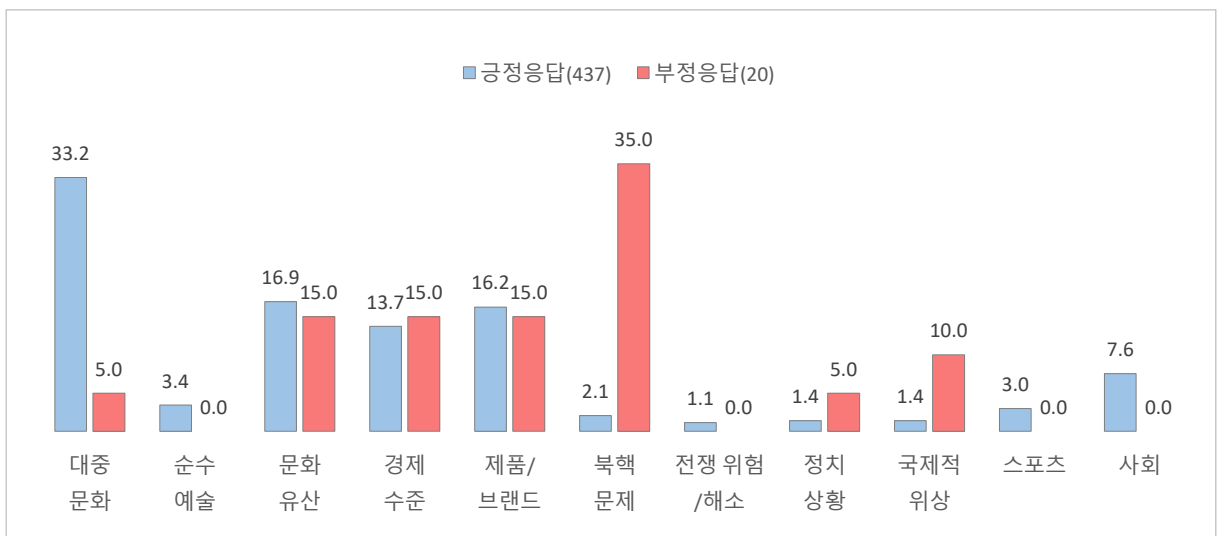


그림3-14-10.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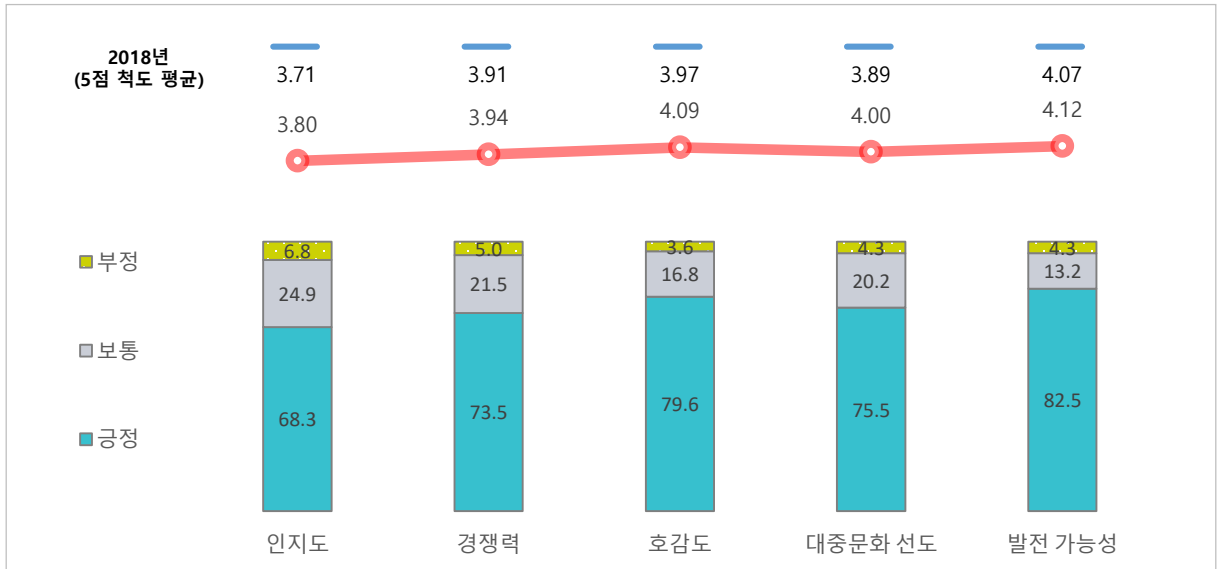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 70% 이상, 부정 평가 5% 내외로 긍정 평가가 우세하였음
- 특히,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림3-14-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대중문화 선도'에 대한 차이가 큼. 연령별로는 '경쟁력', '호감도'는 50대 이상이, '대중문화 선도', '발전 가능성'은 20대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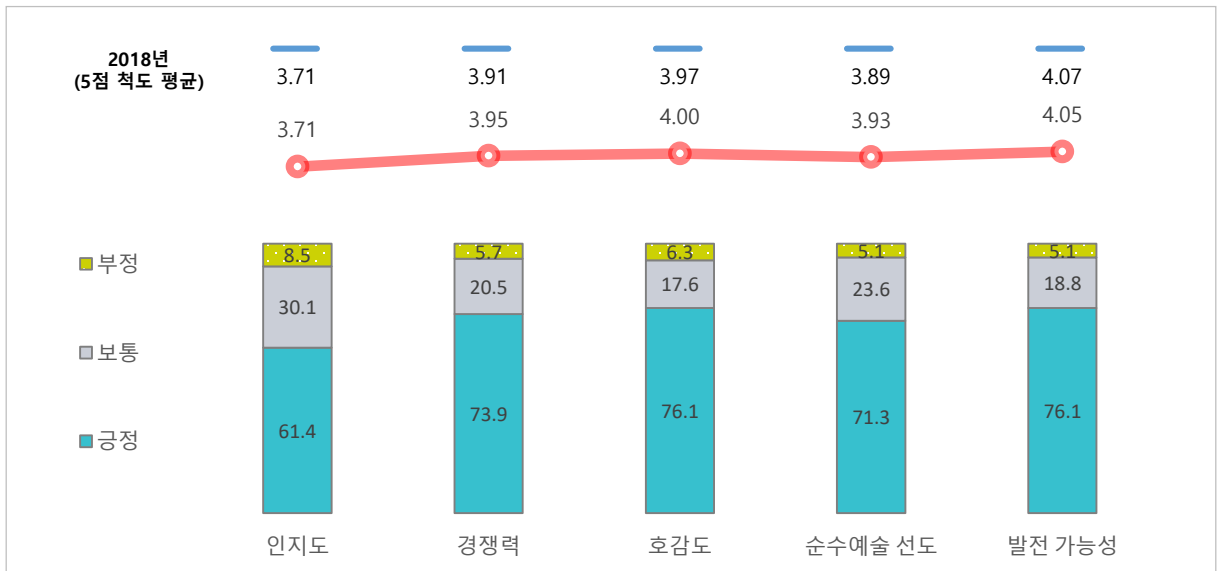
표3-14-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41)	(209)	(232)	(42)	(126)	(154)	(97)	(22)
인지도	긍정률	68.3	75.1	62.1	66.7	74.6	64.3	68.0	63.6
	평균	3.80	3.89	3.71	3.83	3.92	3.73	3.72	3.82
경쟁력	긍정률	73.5	74.6	72.4	73.8	73.0	69.5	77.3	86.4
	평균	3.94	3.99	3.89	3.83	3.94	3.90	3.96	4.32
호감도	긍정률	79.6	81.3	78.0	81.0	85.7	75.3	76.3	86.4
	평균	4.09	4.15	4.04	4.17	4.17	4.02	4.03	4.27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75.5	79.9	71.6	76.2	80.2	72.1	75.3	72.7
	평균	4.00	4.10	3.91	4.07	4.02	3.93	4.03	4.09
발전 가능성	긍정률	82.5	83.7	81.5	78.6	88.1	79.9	80.4	86.4
	평균	4.12	4.15	4.10	4.05	4.21	4.06	4.11	4.23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발전 가능성'으로 긍정 76.1%, 부정 5.1%로 평가했으며, '호감도' 역시 긍정 76.1%, 부정 6.3%로 높게 평가함

그림3-1-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순수예술 선도'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10대의 평가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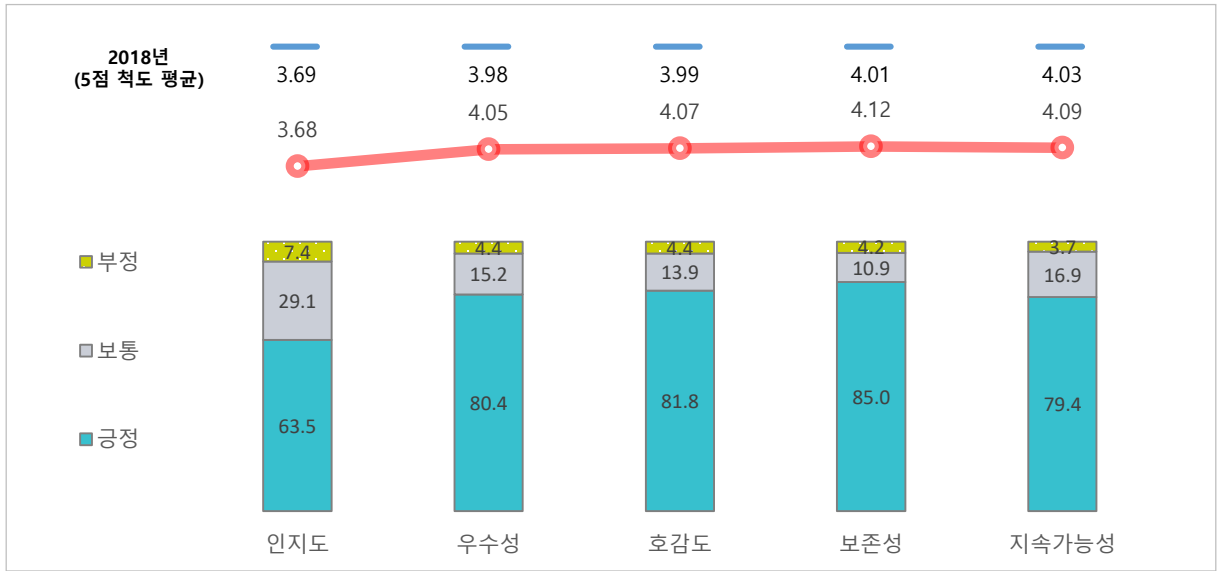
표3-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52)	(175)	(177)	(28)	(105)	(122)	(78)	(19)
인지도	긍정률	61.4	62.9	59.9	71.4	63.8	59.8	60.3	47.4
	평균	3.71	3.78	3.64	3.93	3.69	3.65	3.76	3.74
경쟁력	긍정률	73.9	76.0	71.8	82.1	75.2	68.9	78.2	68.4
	평균	3.95	4.03	3.88	4.07	3.96	3.85	4.05	3.95
호감도	긍정률	76.1	78.9	73.4	89.3	73.3	73.8	78.2	78.9
	평균	4.00	4.10	3.90	4.32	3.90	3.95	4.09	4.05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71.3	78.3	64.4	92.9	71.4	61.5	78.2	73.7
	평균	3.93	4.07	3.79	4.25	3.91	3.76	4.05	4.05
발전 가능성	긍정률	76.1	76.0	76.3	82.1	81.0	69.7	76.9	78.9
	평균	4.05	4.08	4.01	4.21	4.05	3.93	4.13	4.21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이 80% 내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모든 항목에서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존성'은 긍정 85.0%, 부정 4.2%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호감도'가 긍정 81.8%, 부정 4.4%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

그림3-14-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 남성이 더 높게 평가했으며, '인지도' 또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호감도'에 대해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표3-14-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33)	(218)	(215)	(34)	(115)	(153)	(105)	(26)
인지도	긍정률	63.5	72.9	54.0	64.7	66.1	62.7	63.8	53.8
	평균	3.68	3.83	3.52	3.68	3.70	3.68	3.66	3.65
우수성	긍정률	80.4	82.1	78.6	91.2	86.1	74.5	80.0	76.9
	평균	4.05	4.14	3.97	4.32	4.13	3.96	4.02	4.04
호감도	긍정률	81.8	85.8	77.7	85.3	84.3	76.5	83.8	88.5
	평균	4.07	4.17	3.98	4.06	4.10	3.98	4.15	4.19
보존성	긍정률	85.0	88.1	81.9	88.2	90.4	81.0	84.8	80.8
	평균	4.12	4.21	4.03	4.24	4.12	4.06	4.15	4.15
지속가능성	긍정률	79.4	81.7	77.2	82.4	80.0	77.8	78.1	88.5
	평균	4.09	4.16	4.01	4.15	4.12	4.07	4.01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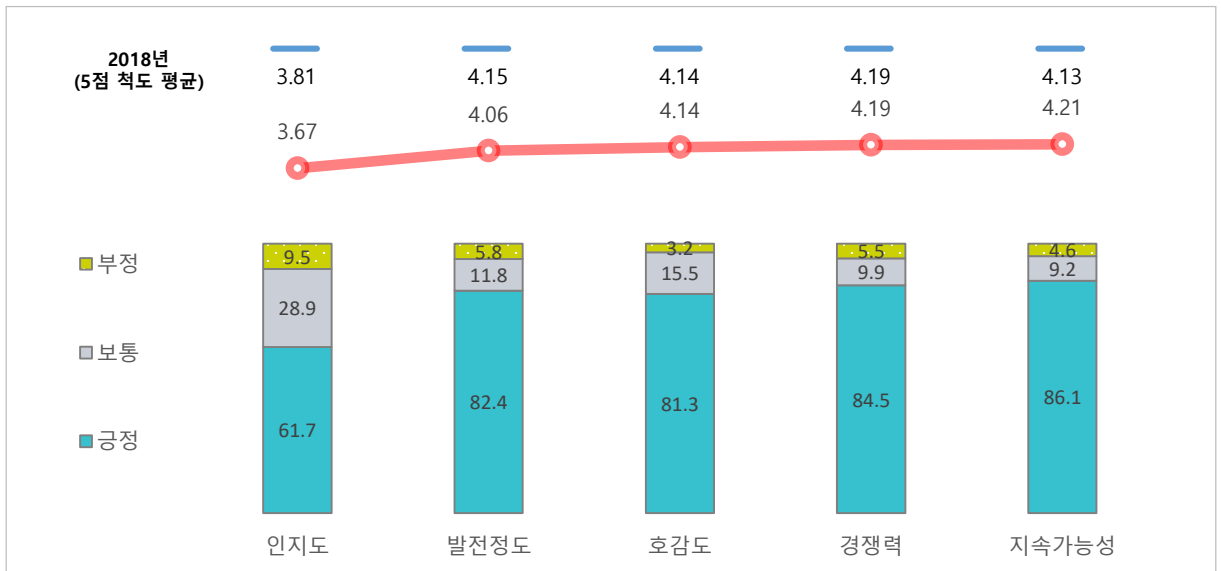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 평가가 80%대로, 부정 평가가 5% 내외로 응답해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속가능성'은 긍정 86.1%, 부정 4.6%로 가장 높았고, '경쟁력' 역시 긍정 84.5%, 부정 5.5%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14-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특히 '경쟁력'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속가능성'은 10대에서도 높게 평가함

표3-14-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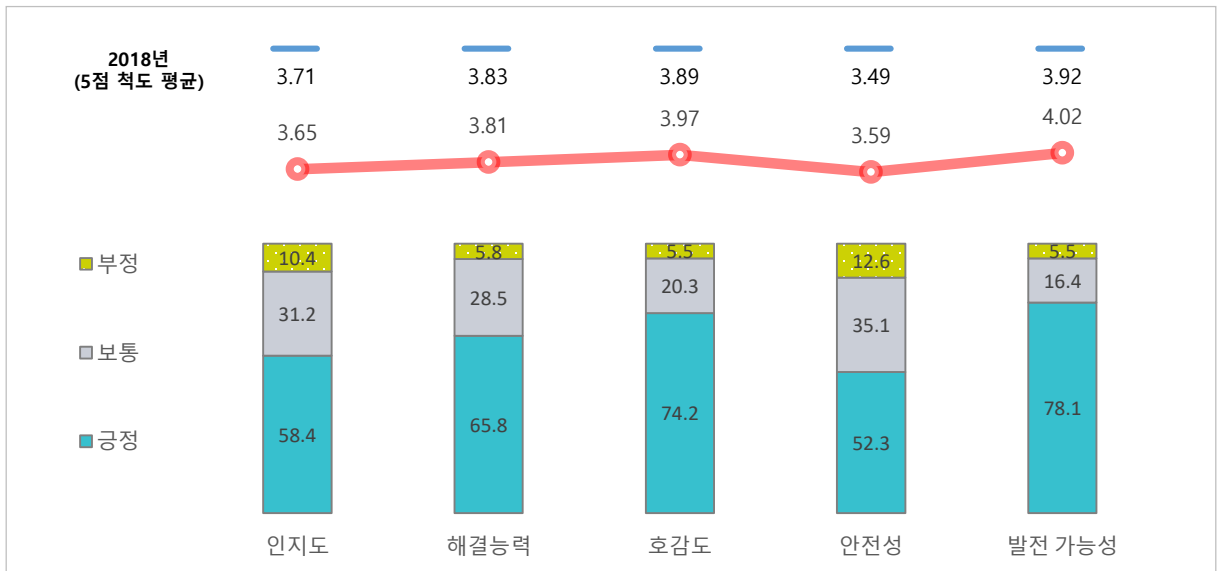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33)	(225)	(208)	(31)	(118)	(152)	(108)	(24)
인지도	긍정률	61.7	67.6	55.3	58.1	57.6	62.5	63.9	70.8
	평균	3.67	3.78	3.56	3.58	3.62	3.63	3.78	3.88
발전정도	긍정률	82.4	87.1	77.4	74.2	83.9	82.2	84.3	79.2
	평균	4.06	4.22	3.90	3.90	4.01	4.05	4.18	4.17
호감도	긍정률	81.3	85.8	76.4	80.6	82.2	78.9	82.4	87.5
	평균	4.14	4.22	4.06	4.16	4.08	4.12	4.22	4.25
경쟁력	긍정률	84.5	90.7	77.9	87.1	86.4	82.2	83.3	91.7
	평균	4.19	4.33	4.04	4.23	4.14	4.16	4.24	4.38
지속가능성	긍정률	86.1	90.2	81.7	96.8	85.6	85.5	84.3	87.5
	평균	4.21	4.32	4.09	4.32	4.09	4.23	4.28	4.17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호감도'와 '발전 가능성'은 긍정평가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52.3%로 낮게 나타났음
- 전년도와 비교해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그림3-14-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호감도'에 대해 10대와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14-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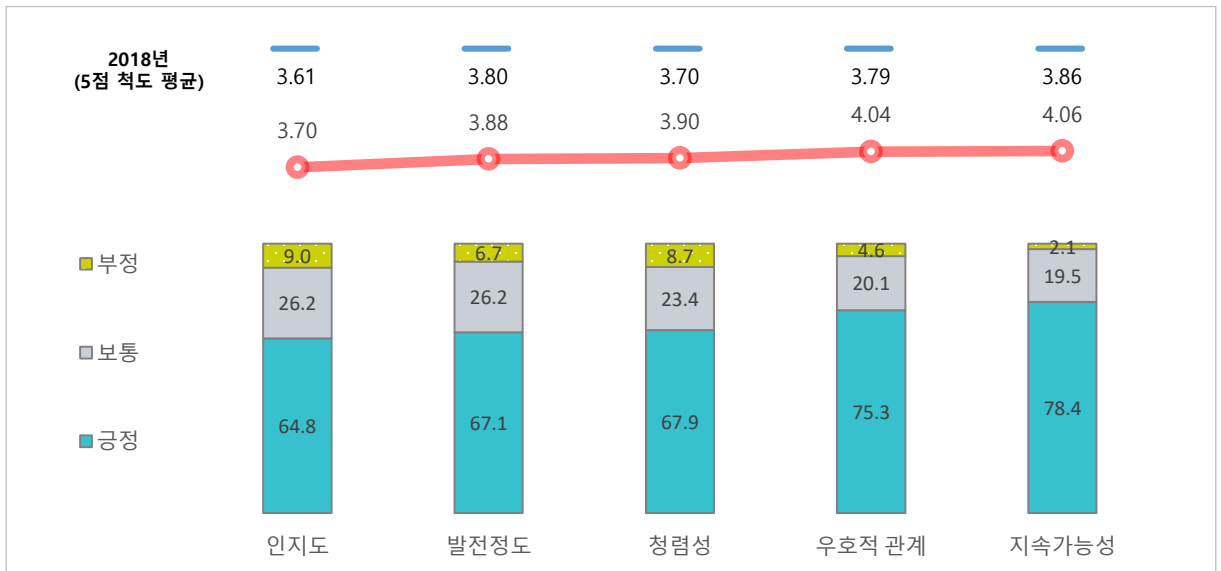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365)	(182)	(183)	(31)	(96)	(130)	(94)	(14)
인지도	긍정률	58.4	69.8	47.0	54.8	56.3	56.9	61.7	71.4
	평균	3.65	3.85	3.45	3.48	3.58	3.64	3.74	3.93
해결능력	긍정률	65.8	72.0	59.6	67.7	58.3	63.8	74.5	71.4
	평균	3.81	3.94	3.68	3.97	3.68	3.74	3.96	4.00
호감도	긍정률	74.2	81.3	67.2	83.9	74.0	70.0	75.5	85.7
	평균	3.97	4.07	3.87	4.19	3.93	3.88	4.03	4.21
안전성	긍정률	52.3	58.2	46.4	64.5	50.0	43.8	62.8	50.0
	평균	3.59	3.69	3.49	3.84	3.51	3.42	3.81	3.57
발전 가능성	긍정률	78.1	85.2	71.0	87.1	79.2	71.5	81.9	85.7
	평균	4.02	4.13	3.91	4.23	4.00	3.90	4.09	4.29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의 이미지 속성 중 '지속가능성'에 대해 긍정 78.4%, 부정 2.1%로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우호적 관계' 역시 긍정 75.3%, 부정 4.6%로 높게 평가하였음
- 전년대비 '정치외교'의 모든 항목에서 평가가 높아짐

그림3-14-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속가능성'은 10대도 높게 평가하였음

표3-14-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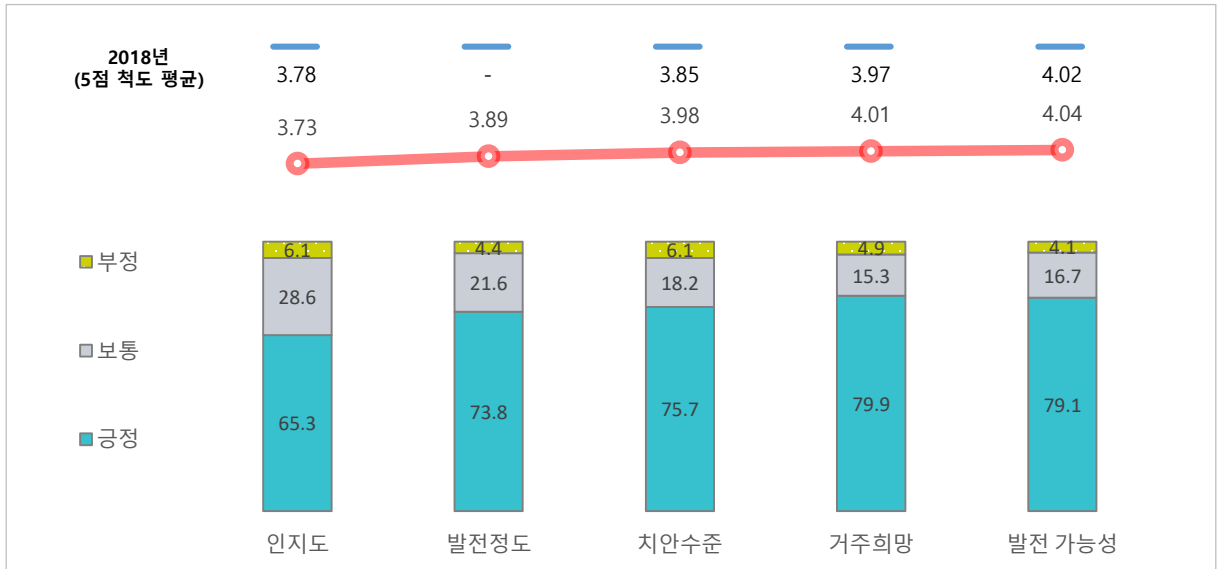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89)	(206)	(183)	(27)	(112)	(136)	(92)	(22)
인지도	긍정률	64.8	71.4	57.4	70.4	63.4	68.4	58.7	68.2
	평균	3.70	3.83	3.55	3.67	3.70	3.74	3.62	3.77
발전정도	긍정률	67.1	71.8	61.7	59.3	70.5	64.7	70.7	59.1
	평균	3.88	3.96	3.79	3.81	3.88	3.82	3.99	3.91
청렴성	긍정률	67.9	71.8	63.4	55.6	72.3	63.2	73.9	63.6
	평균	3.90	3.97	3.83	3.67	3.97	3.83	3.98	3.91
우호적 관계	긍정률	75.3	79.1	71.0	70.4	75.0	70.6	83.7	77.3
	평균	4.04	4.10	3.98	4.00	4.03	3.94	4.21	4.14
지속가능성	긍정률	78.4	81.1	75.4	85.2	78.6	75.0	81.5	77.3
	평균	4.06	4.10	4.02	4.30	4.04	3.99	4.14	4.00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에 대해 대부분 긍정 70% 후반대의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세부 속성별로는 '거주희망'에 대해 긍정 평가 79.9%, 부정 평가 4.9%로 가장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79.1%, 부정 평가 4.1%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그림3-14-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치안수준'과 '거주희망'에 대해 높게 평가함. 연령별로는 '치안수준'에 대해 50대 이상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함

표3-14-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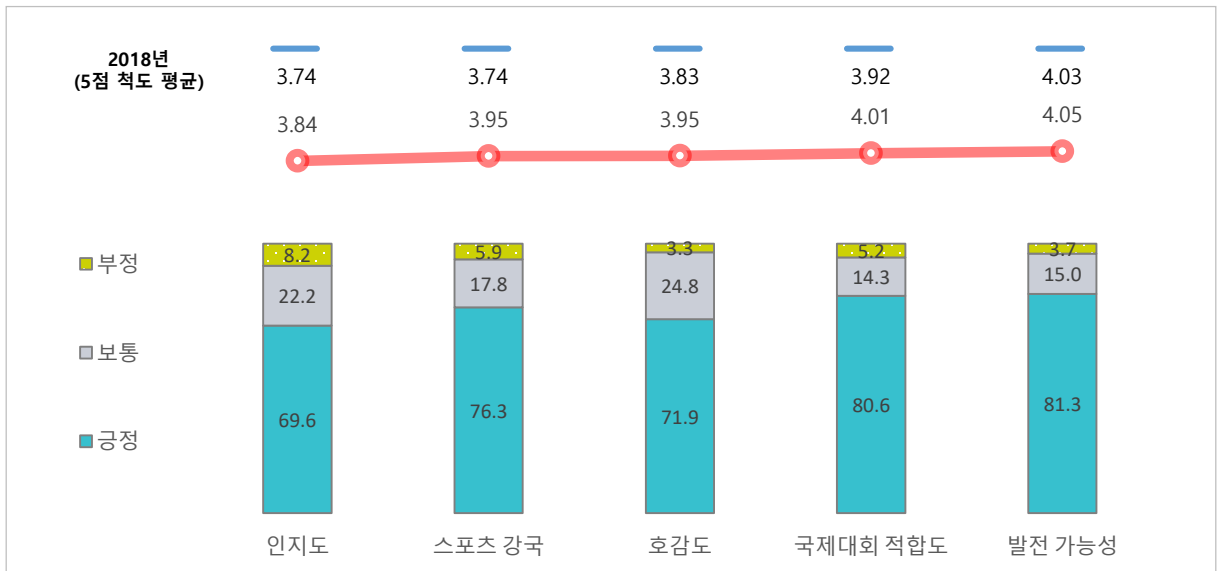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2)	(209)	(203)	(37)	(115)	(139)	(98)	(23)
인지도	긍정률	65.3	68.4	62.1	70.3	63.5	67.6	59.2	78.3
	평균	3.73	3.80	3.66	3.73	3.69	3.76	3.67	4.00
발전정도	긍정률	73.8	77.5	70.0	73.0	74.8	76.3	69.4	73.9
	평균	3.89	3.99	3.79	3.84	3.91	3.90	3.85	4.04
치안수준	긍정률	75.7	79.9	71.4	70.3	75.7	75.5	76.5	82.6
	평균	3.98	4.06	3.90	3.97	3.93	3.96	4.01	4.22
거주희망	긍정률	79.9	84.2	75.4	78.4	85.2	72.7	82.7	87.0
	평균	4.01	4.15	3.86	3.95	4.03	3.89	4.12	4.17
발전 가능성	긍정률	79.1	79.9	78.3	81.1	83.5	76.3	77.6	78.3
	평균	4.04	4.07	4.01	4.08	3.99	4.01	4.08	4.22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 속성 중 '발전 가능성'에 대해 긍정 81.3%, 부정 3.7%로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대회 적합도'에 대해 긍정 80.6%, 부정 5.2%로 높게 평가함
- '스포츠'에 대한 모든 이미지 속성 평가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그림3-14-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호감도'에 대해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표3-14-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27)	(212)	(215)	(42)	(117)	(150)	(99)	(19)
인지도	긍정률	69.6	77.4	61.9	69.0	74.4	68.7	65.7	68.4
	평균	3.84	4.00	3.69	3.81	3.93	3.81	3.76	4.00
스포츠강국	긍정률	76.3	80.2	72.6	81.0	82.9	72.7	70.7	84.2
	평균	3.95	4.02	3.87	4.00	3.95	3.93	3.88	4.32
호감도	긍정률	71.9	74.1	69.8	73.8	70.1	72.0	70.7	84.2
	평균	3.95	4.01	3.89	3.95	3.88	3.94	3.98	4.32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80.6	85.4	75.8	78.6	82.1	80.7	78.8	84.2
	평균	4.01	4.14	3.88	3.88	3.99	4.01	4.07	4.05
발전 가능성	긍정률	81.3	87.3	75.3	90.5	82.9	74.7	83.8	89.5
	평균	4.05	4.20	3.90	4.12	4.03	3.98	4.13	4.21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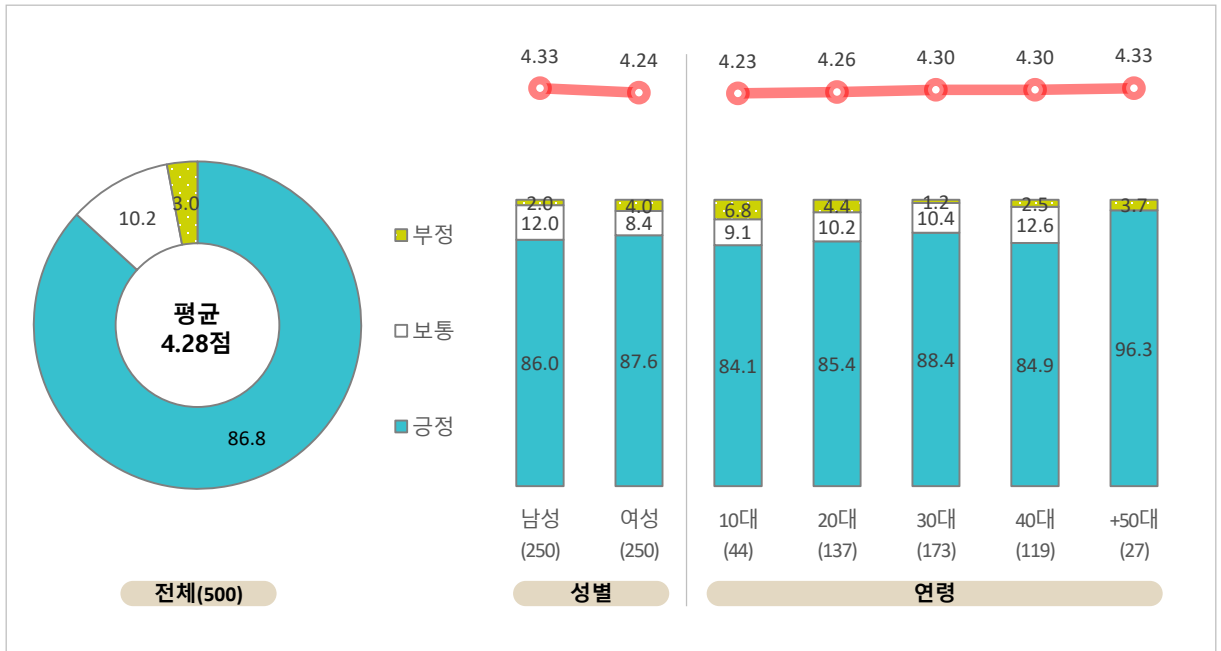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86.8%, 부정 3.0%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 '전쟁/핵 위험' 등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응답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긍정 변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14-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긍정적 변화 이유(n=434)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10.1
기술력/첨단기술	7.8
사회/경제/경제발전	7.1
문화/전통	6.0
K-POP/가수	5.1
한국인	3.2
정치/대통령	3.0
드라마/영화	3.0
북한/남북관계	2.8
외교관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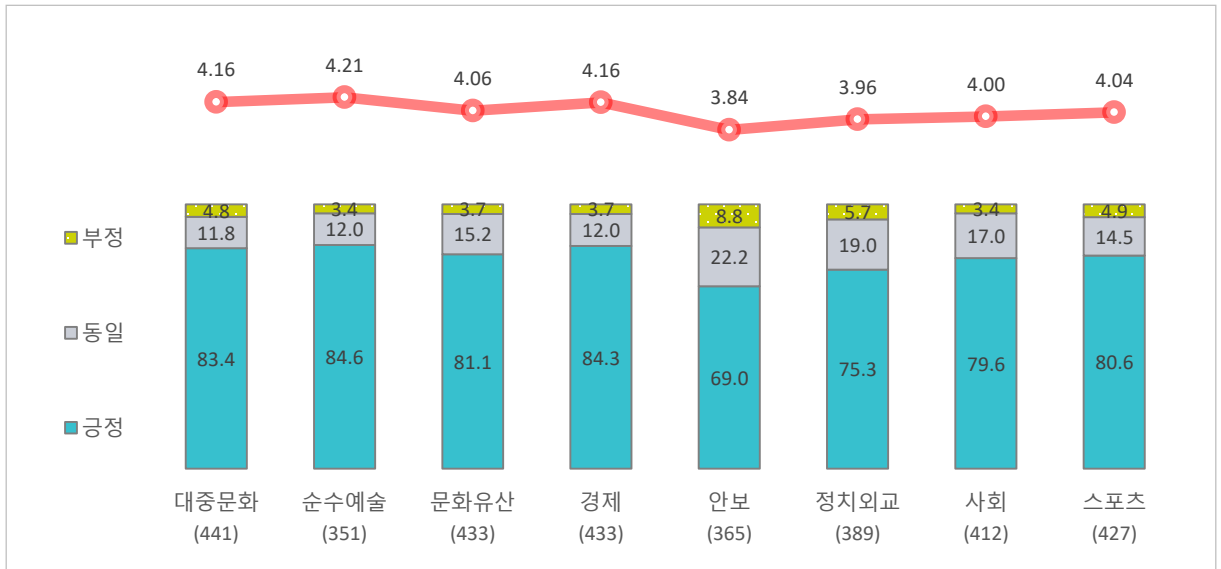
부정적 변화 이유(n=15)	
정부/정치적 문제	6.7
전쟁/핵 위험	6.7
한미관계	6.7
부패 문제	6.7
부정적 행동	6.7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순수예술', '경제', '대중문화', '문화유산', '스포츠'는 긍정 80%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보'는 긍정이 69.0%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3-14-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안보'는 남성이, '사회'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3-14-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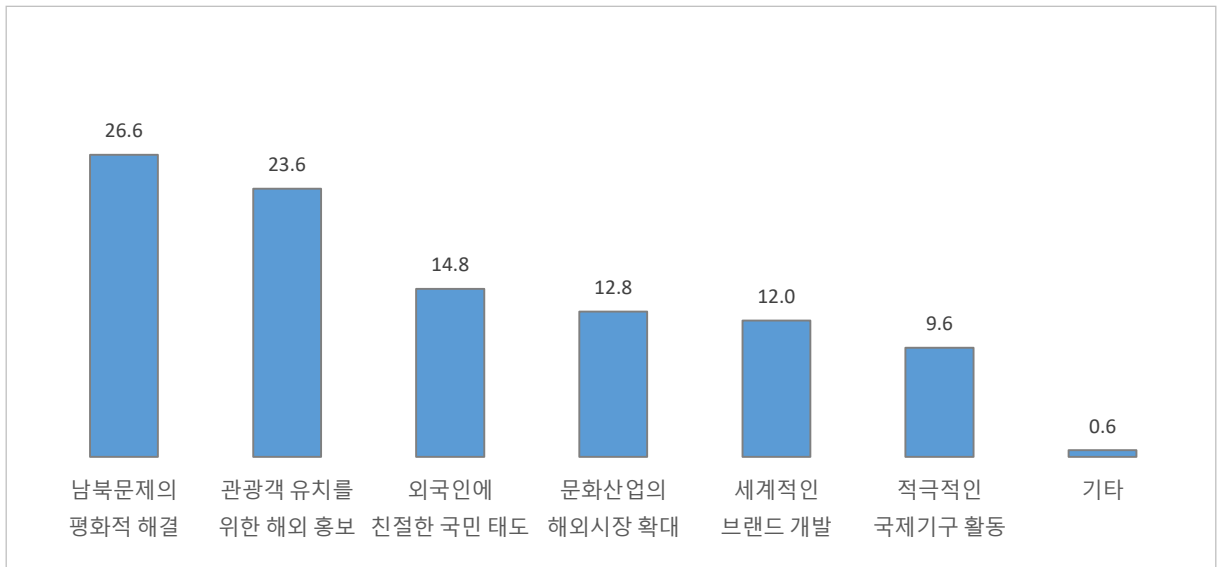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83.4	82.3	84.5	81.0	80.2	83.8	87.6	86.4
	평균	4.16	4.15	4.17	4.12	4.05	4.21	4.26	4.09
순수예술	긍정률	84.6	82.3	86.9	88.9	81.0	84.4	85.9	94.7
	평균	4.21	4.22	4.21	4.37	4.18	4.18	4.23	4.32
문화유산	긍정률	81.1	78.9	83.3	70.6	79.1	85.6	76.2	96.2
	평균	4.06	4.06	4.06	3.85	4.09	4.14	3.95	4.23
경제	긍정률	84.3	85.3	83.2	71.0	84.7	87.5	80.6	95.8
	평균	4.16	4.24	4.06	4.03	4.16	4.20	4.11	4.25
안보	긍정률	69.0	71.4	66.7	67.7	66.7	66.9	74.5	71.4
	평균	3.84	3.92	3.77	3.90	3.84	3.78	3.94	3.64
정치외교	긍정률	75.3	77.2	73.2	74.1	75.9	76.5	70.7	86.4
	평균	3.96	4.05	3.87	3.89	3.97	3.97	3.92	4.14
사회	긍정률	79.6	78.0	81.3	75.7	78.3	82.7	75.5	91.3
	평균	4.00	4.04	3.96	3.78	3.95	4.06	4.01	4.17
스포츠	긍정률	80.6	80.7	80.5	73.8	80.3	84.0	77.8	84.2
	평균	4.04	4.07	4.02	3.81	3.97	4.12	4.10	4.05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2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23.6%),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14.8%),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12.8%) 순으로 나타남

그림3-14-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여성은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장 많이 응답.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를 우선과제로 많이 응답함

표3-14-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44)	(137)	(173)	(119)	(27)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26.6	24.4	28.8	22.7	22.6	29.5	27.7	29.6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23.6	25.6	21.6	20.5	21.9	23.7	24.4	33.3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4.8	13.6	16.0	15.9	19.7	12.7	12.6	11.1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12.8	12.8	12.8	20.5	10.9	13.3	13.4	3.7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2.0	13.6	10.4	6.8	11.7	13.9	12.6	7.4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9.6	9.6	9.6	9.1	13.1	6.4	9.2	14.8
기타	0.6	0.4	0.8	4.5	0.0	0.6	0.0	0.0



## 15

## 남아프리카공화국



## 1 일반개요

위치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	언어	영어,아프리카스어 등 11개
수도	Pretoria(행정수도), Cape 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종교	기독교,가톨릭,이슬람교
인구	5,380만 명	1인당 GDP	6,331달러

## 2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동향

- 남아공은 아프리카 경제를 이끄는 선도국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소비시장이며 잘 발달된 인프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와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존국가로 에너지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이 보존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보유
-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어, 남아공 소비 시장이 세계적인 경기 부진 속 한국 소비재 기업의 대안시장으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한국과의 대외관계적 주요이슈

## 아프리카와 한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 확대

- 2019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에티오피아, 가나, 남아공 3개국을 방문하여 외교장관으로는 최초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동부, 서부, 남부를 동시에 방문하여 아프리카와 한국간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한국-아프리카 재단 주최로 개최된 2019년 '한국-아프리카 경제포럼'에서는 아프리카와 한국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호혜적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

## 한국의 對남아공 수출입 모두 증가 추세

- 지속적으로 남아공과의 교역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광물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차량 및 부품, 보일러 및 기계류, 광물성 연료/에너지, 전기기기가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함

##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 남아공에 진출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제품의 가격 대비 높은 품질 수준이 남아공 소비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한국 제품의 기술력 높이가 평가됨
- 신흥 흑인 중산층(블랙다이아몬드)의 등장으로 인해 중고가 한국 제품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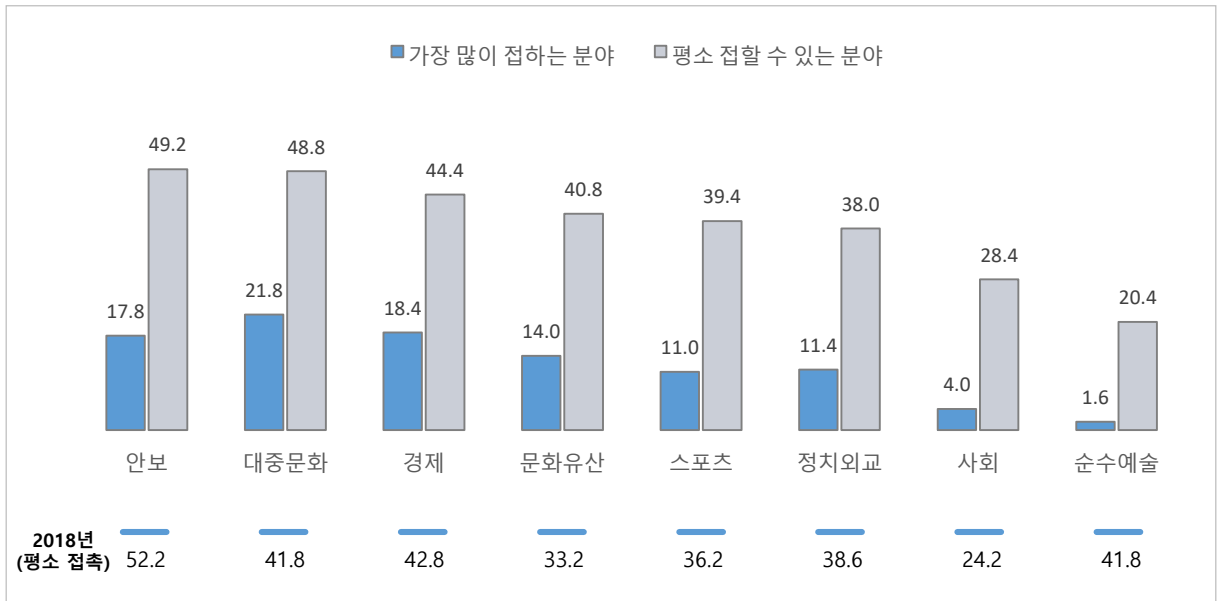
# 1 한국에 대한 정보 인지

## 1) 한국 관련 접촉 분야

- 평소 한국 관련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안보'로, 전체 응답자의 49.2%가 평소 한국 관련 '안보'를 접하고 있었음
- 전년도와 비교해 '안보', '정치외교', '순수예술'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평소 접촉이 증가함

그림3-15-1. 한국 관련 접촉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안보', '경제', '스포츠', '정치외교', '사회'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접촉 비중이 높았고, '대중문화', '문화유산', '순수예술'은 여성이 높았음.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대중문화'에 대한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3-15-1. 한국 관련 평소 접촉 분야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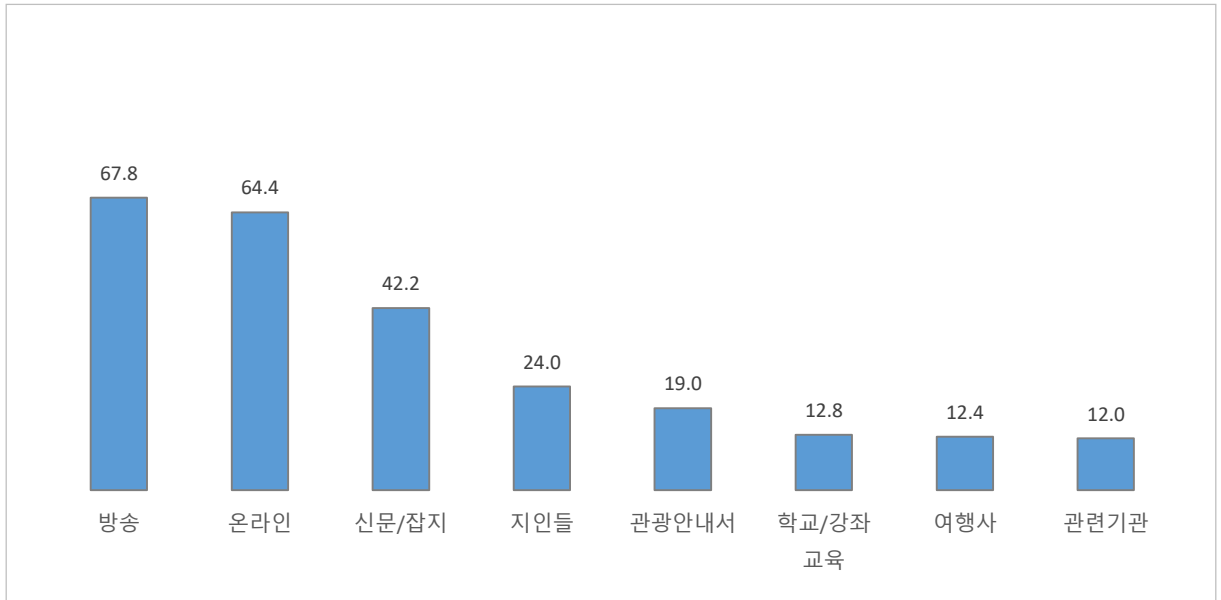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49)	(251)	(48)	(146)	(130)	(85)	(91)
안보	49.2	52.2	46.2	47.9	51.4	46.2	57.6	42.9
대중문화	48.8	46.2	51.4	56.3	61.6	56.9	35.3	25.3
경제	44.4	55.4	33.5	31.3	43.8	43.8	38.8	58.2
문화유산	40.8	35.3	46.2	27.1	50.0	38.5	37.6	39.6
스포츠	39.4	43.8	35.1	31.3	38.4	41.5	47.1	35.2
정치외교	38.0	42.6	33.5	27.1	38.4	46.2	37.6	31.9
사회	28.4	30.1	26.7	16.7	35.6	31.5	25.9	20.9
순수예술	20.4	20.1	20.7	18.8	27.4	23.8	12.9	12.1

## 2) 한국 관련 정보 접촉 경로

-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방송' > '온라인' > '신문/잡지' 순으로 접촉하고 있음

그림3-15-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응답자 특성별** 전반적으로 성별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신문/잡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차이를 보임. 연령별로는 10대는 '온라인'을 통한 접촉이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3-15-2. 한국 관련 정보 접촉경로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49)	(251)	(48)	(146)	(130)	(85)	(91)
방송	67.8	69.9	65.7	54.2	71.2	73.1	76.5	53.8
온라인	64.4	63.1	65.7	77.1	73.3	60.0	58.8	54.9
신문/잡지	42.2	49.8	34.7	43.8	38.4	35.4	52.9	47.3
지인들	24.0	22.5	25.5	14.6	30.8	20.8	22.4	24.2
관광안내서	19.0	20.1	17.9	8.3	25.3	15.4	22.4	16.5
학교/강좌 교육	12.8	12.0	13.5	20.8	19.9	7.7	9.4	7.7
여행사	12.4	12.0	12.7	4.2	13.7	17.7	10.6	8.8
관련기관	12.0	12.4	11.6	10.4	12.3	15.4	10.6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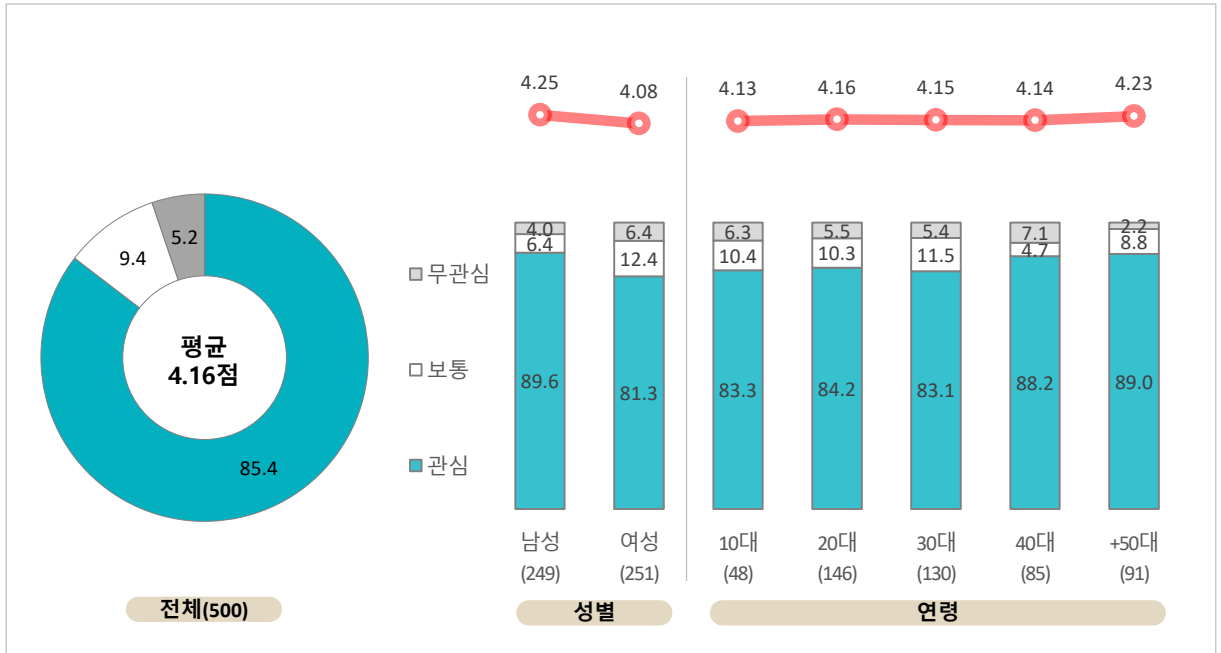
## 2 한국에 대한 관심도

- 한국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다'가 85.4%, '관심 없다'가 5.2%로 관심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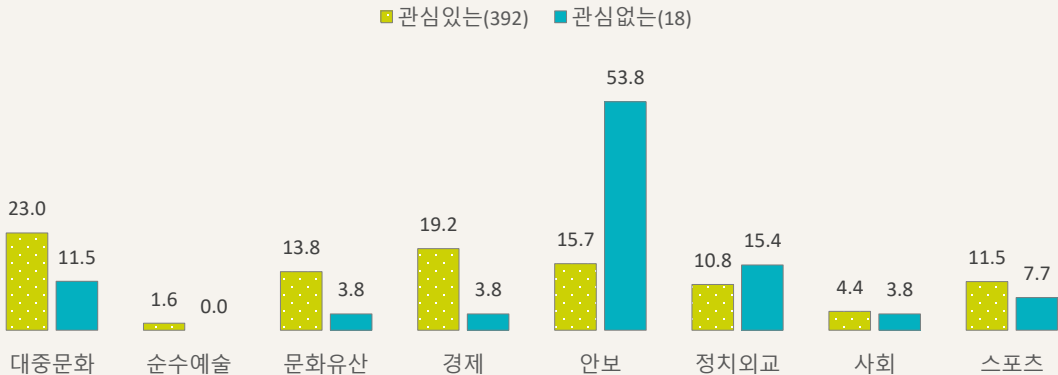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남성이 여성보다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 50대 이상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10대는 낮게 나타남

그림3-15-3. 한국에 대한 관심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 접촉 정보



한국에 관심이 있는 남아공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외 '경제', '안보',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반면, 관심이 없는 남아공인들은 '안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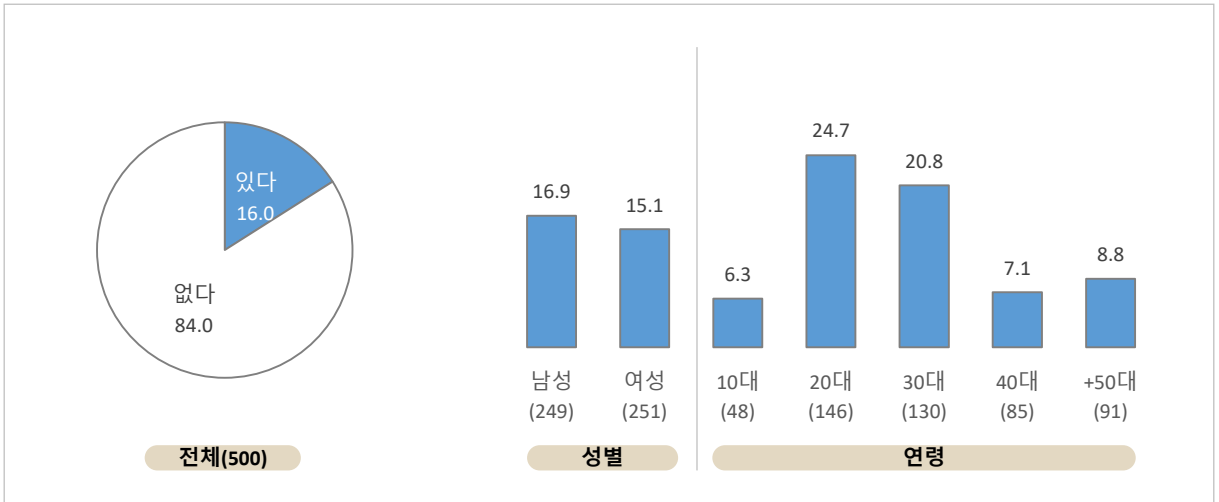
### 3 한국 방문 경험

- 한국 방문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84.0%로 조사되었음
- 한국 방문 후 인상에 대해서는 93.8%가 '매력적이다'라고 응답하여 10명 중 9명이 한국 방문 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방문 경험은 여성과 20~30대가 높았고, 10대, 40대, 50대 이상은 낮게 나타남

그림3-15-4. 한국 방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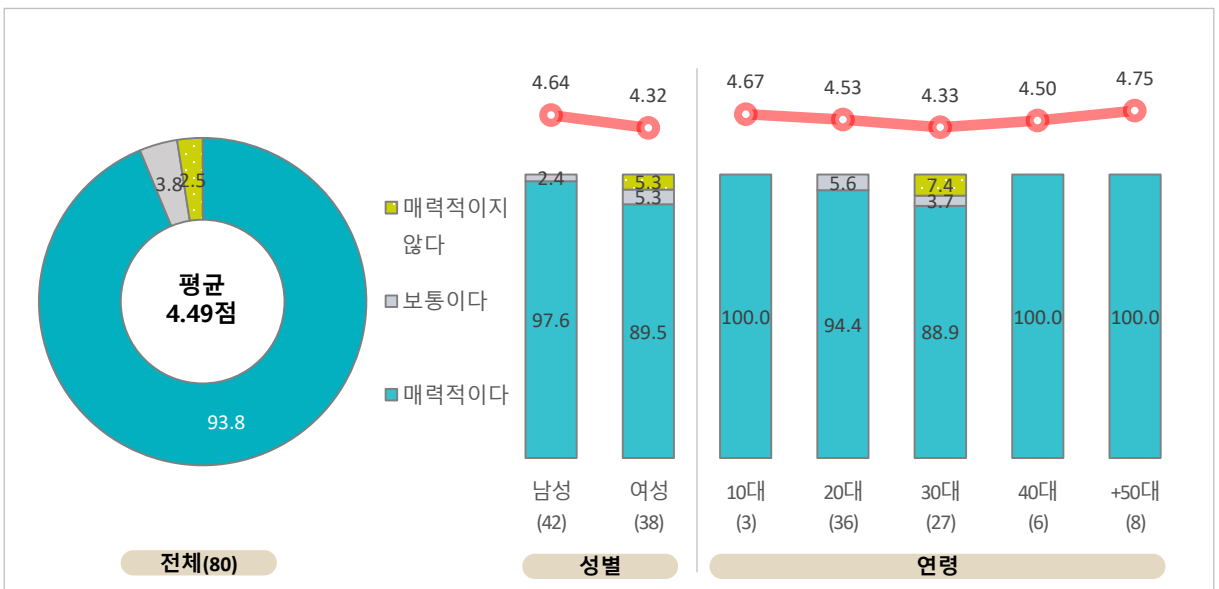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방문 후 인상은 남성이 여성 대비 긍정적이었으며, 10대, 40대, 50대 이상에서 긍정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3-15-5. 한국 방문 후 인상

(Base: 한국 방문 경험 있는 응답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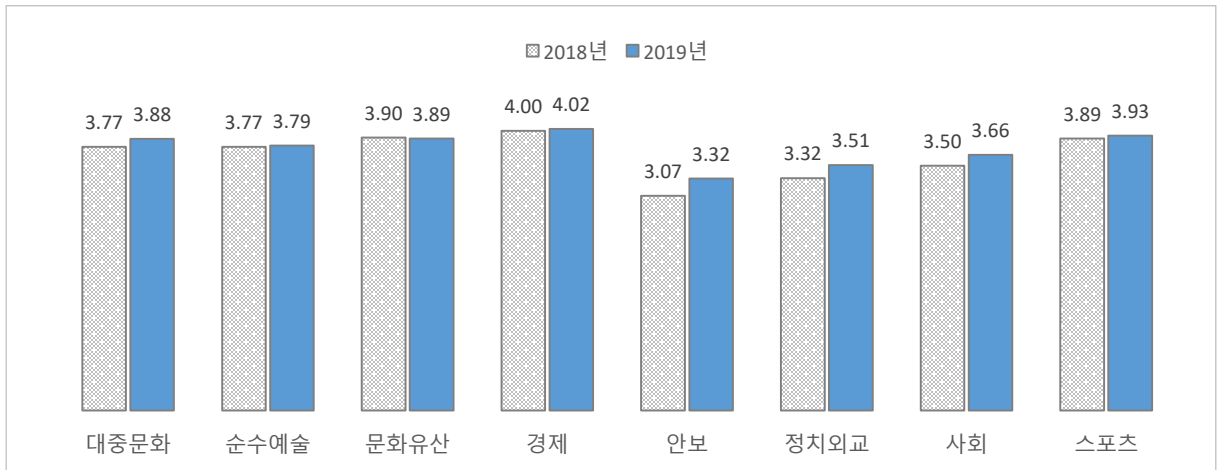
## 4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 분야별 호감도

- 한국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는 '경제' 분야에서 5점 만점 기준 4.0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됨
- 반면, '안보'는 3.32점으로 분야별 호감도가 가장 낮음
- '문화유산'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호감도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그림3-15-6.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모든 분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안보'와 '정치외교' 분야에서 타 분야 대비 높은 호감도를 보임

표3-15-3. 분야별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50)	(250)	(38)	(98)	(112)	(111)	(141)
대중문화	긍정률	73.9	78.0	70.1	72.5	76.8	67.9	77.4	75.8
	평균	3.88	3.95	3.82	4.05	3.97	3.81	3.79	3.82
순수예술	긍정률	65.9	66.9	65.1	80.6	70.5	66.3	60.0	47.6
	평균	3.79	3.82	3.76	3.94	3.88	3.81	3.62	3.55
문화유산	긍정률	71.4	75.0	67.9	64.3	73.3	63.9	68.1	84.0
	평균	3.89	3.96	3.82	3.79	3.97	3.79	3.74	4.06
경제	긍정률	78.0	82.1	73.7	77.1	76.8	70.0	81.1	88.6
	평균	4.02	4.15	3.89	3.89	4.02	3.89	4.03	4.28
안보	긍정률	49.3	55.1	43.5	42.5	53.6	44.3	42.3	61.1
	평균	3.32	3.42	3.21	3.25	3.37	3.22	3.19	3.56
정치외교	긍정률	56.0	58.3	53.8	42.1	54.9	58.5	51.4	67.7
	평균	3.51	3.56	3.46	3.26	3.46	3.62	3.39	3.69
사회	긍정률	68.1	72.5	64.1	69.4	70.4	58.2	67.7	79.4
	평균	3.66	3.77	3.55	3.61	3.70	3.59	3.57	3.79
스포츠	긍정률	80.9	85.3	76.8	77.5	84.3	75.5	77.0	89.4
	평균	3.93	4.02	3.84	3.88	4.00	3.88	3.78	4.06

## 2)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 한국인에 대해 응답자의 74.4%가 호감으로 응답하였고, 3.8%는 비호감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친절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비호감인 이유는 '인종차별', '불친절하다', '엄격함/까다로움' 이라는 이유가 많았음
-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문재인 > '싸이' > 'BTS' 순으로 나타남

그림3-15-7.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Base: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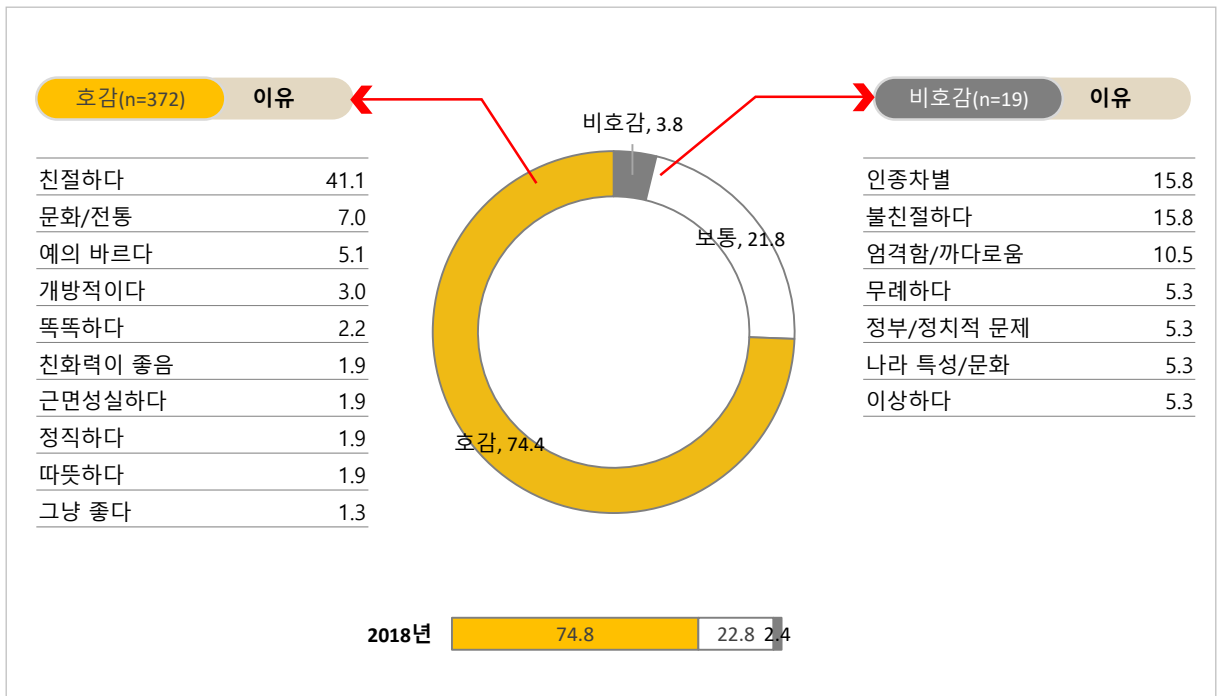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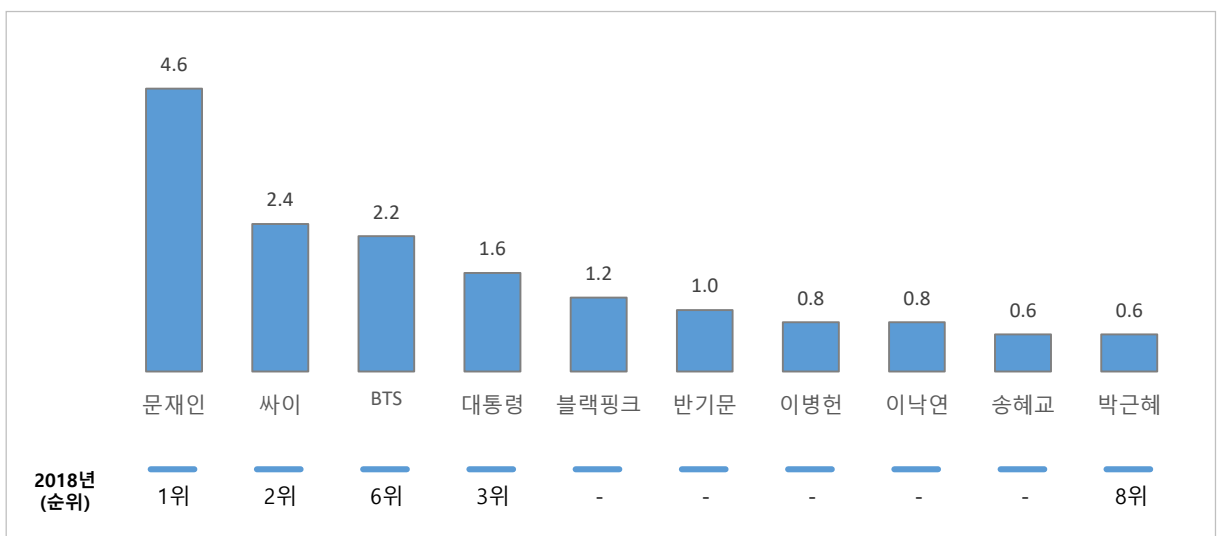


그림3-15-8. 한국하면 떠오르는 인물(Top 10)

(Base: 전체, 단위: %)



## 5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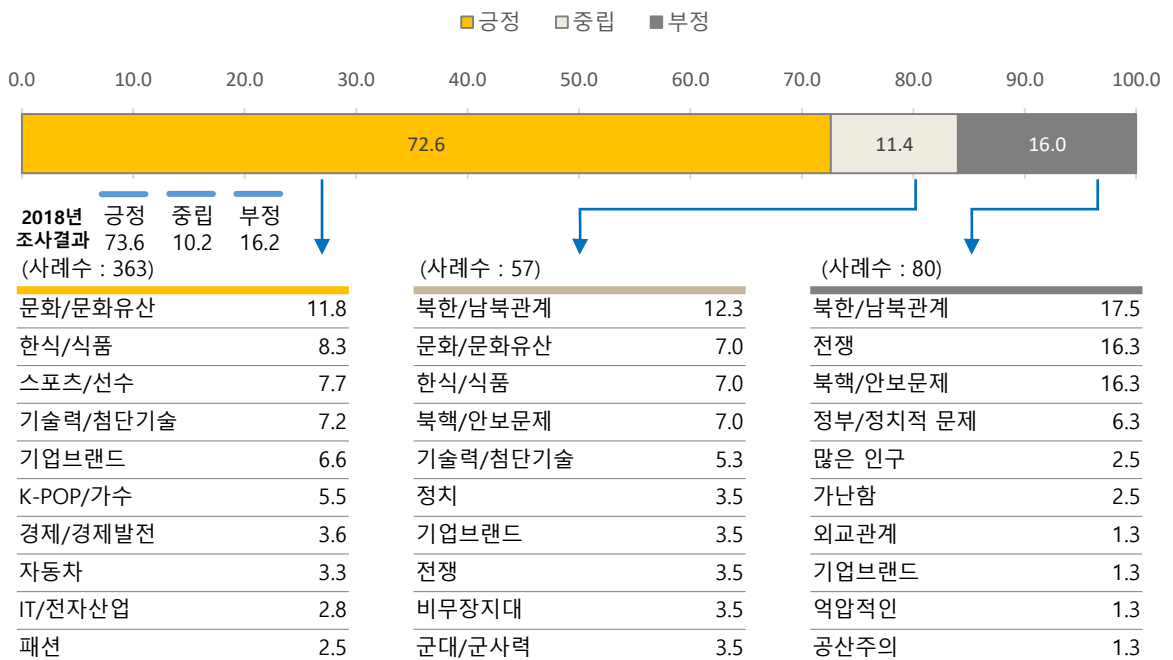
- 남아공에서는 '한국'하면 '문화/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연상이미지는 긍정 72.6%, 부정 16.0%로 긍정 연상이 우세함
- 긍정이미지 연상은 '문화/문화유산', 부정이미지 연상은 '북한/남북관계'가 가장 많았음

그림3-15-6. 한국 자유 연상 이미지

(Base: 전체, 단위: %, 복수응답)



(※상위 20개만 제시)



(첫번째 연상 Base: 전체, 단위: %,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반적 이미지 평가

-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긍정 80.4%, 5점 만점 4.06점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긍정응답의 경우 '대중문화'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았고, 부정응답은 '북핵문제' 관련 영향이라는 응답이 높았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 10대 > 20대 > 40대 > 30대 순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림3-15-9. 전반적 이미지 평가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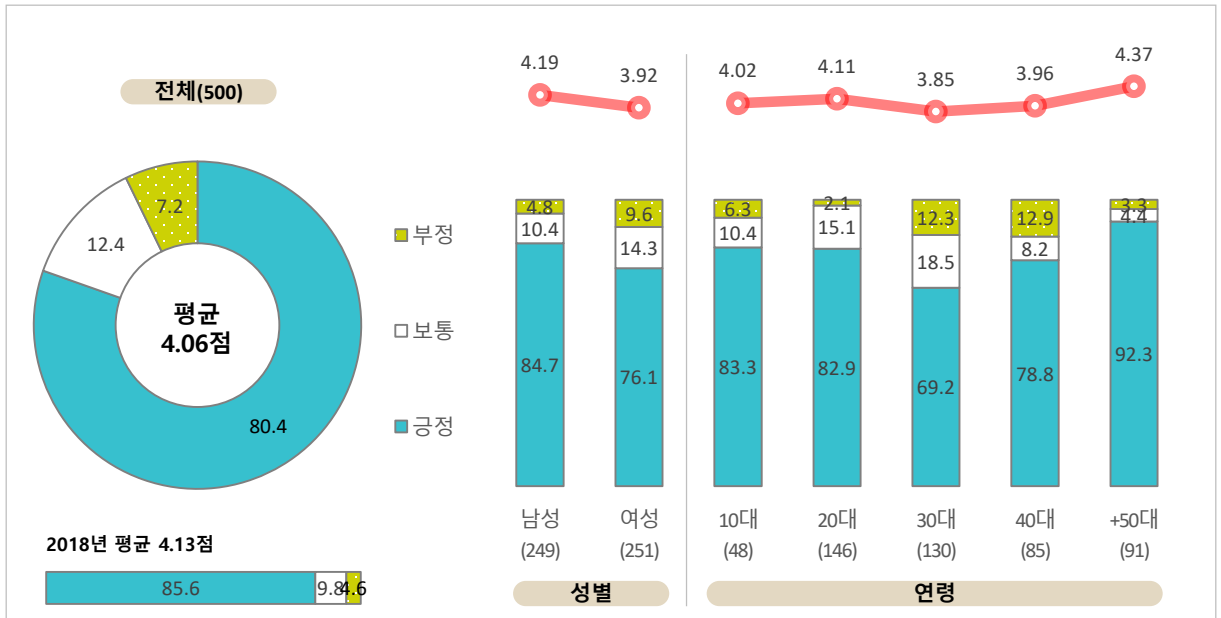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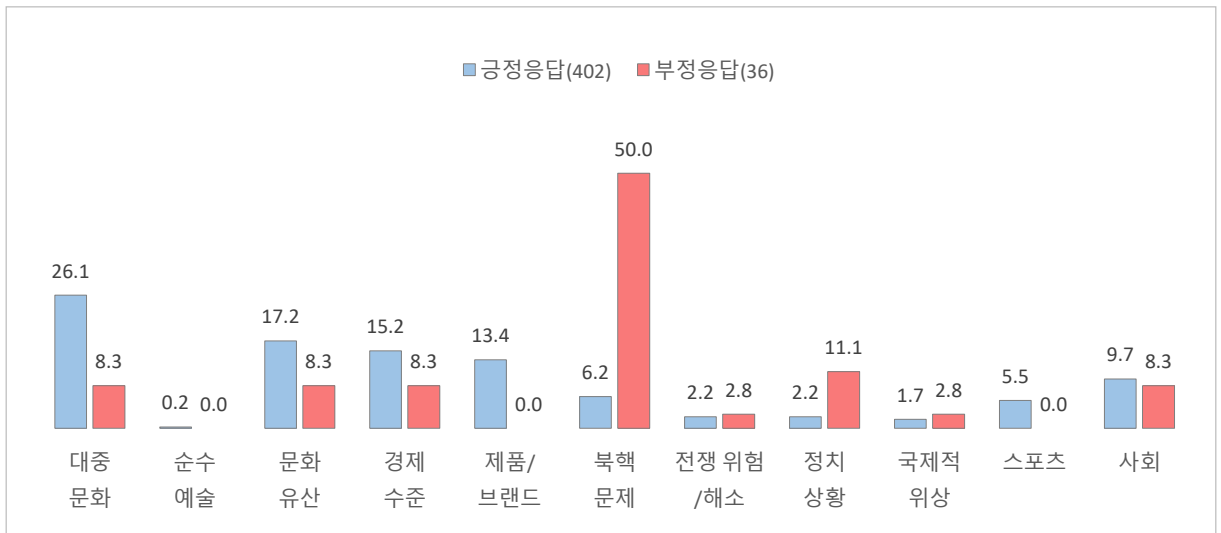


그림3-15-10. 이미지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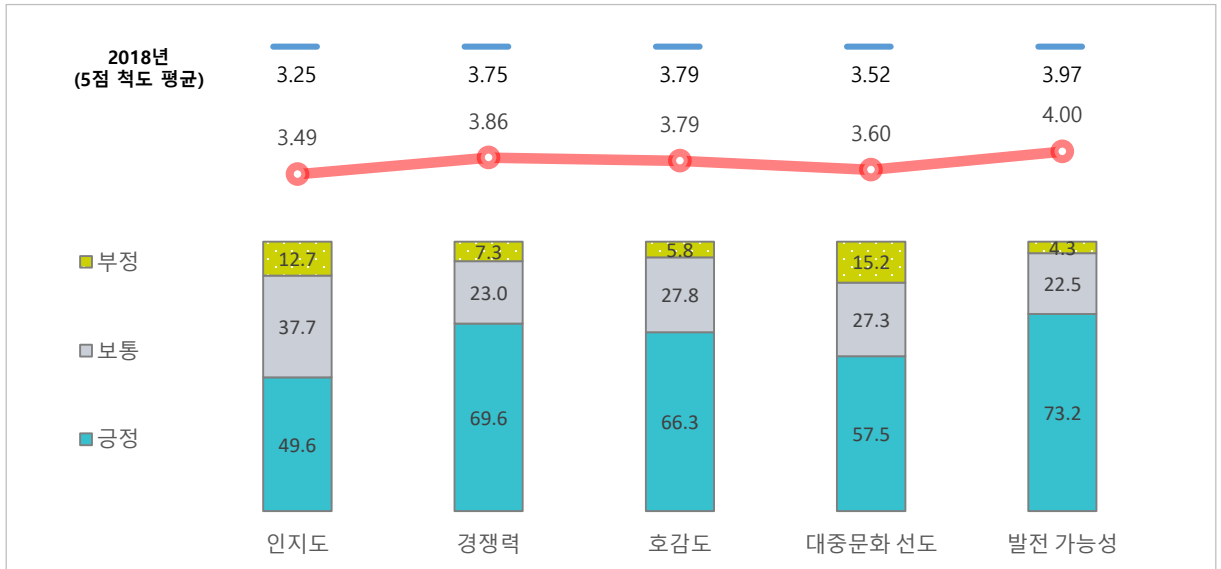
(Base: 긍정/부정 응답자, 단위: %, 1순위 기준)



### 3-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 한국 '대중문화' 이미지 속성에서 '발전 가능성', '경쟁력', '호감도'는 65%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인지도'는 50% 이하로 평가됨
- 5점 척도 평균으로는 '호감도'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 속성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점수를 보임

그림3-15-1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중문화 선도'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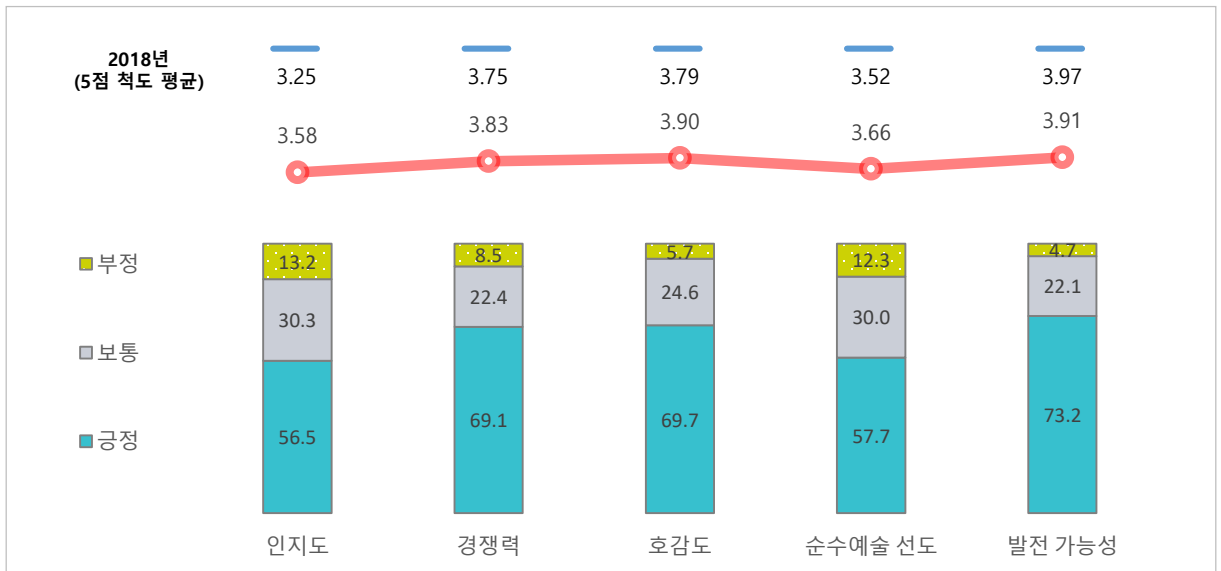
표3-15-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대중문화 (Base: 대중문화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5)	(191)	(204)	(40)	(125)	(106)	(62)	(62)
인지도	긍정률	49.6	52.9	46.6	47.5	54.4	52.8	45.2	40.3
	평균	3.49	3.58	3.41	3.50	3.55	3.56	3.31	3.45
경쟁력	긍정률	69.6	72.8	66.7	67.5	73.6	62.3	67.7	77.4
	평균	3.86	3.94	3.79	3.83	3.98	3.76	3.68	4.02
호감도	긍정률	66.3	67.0	65.7	72.5	72.8	62.3	54.8	67.7
	평균	3.79	3.82	3.77	3.80	3.86	3.77	3.60	3.87
대중문화 선도	긍정률	57.5	56.5	58.3	40.0	60.8	57.5	53.2	66.1
	평균	3.60	3.61	3.58	3.48	3.62	3.56	3.48	3.82
발전 가능성	긍정률	73.2	75.4	71.1	77.5	82.4	69.8	66.1	64.5
	평균	4.00	4.08	3.93	4.13	4.16	3.96	3.79	3.89

### 3-2)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 한국 '순수예술'에 대해 대부분의 이미지 속성에서 긍정이 50% 이상이며, 특히 '발전 가능성'은 7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반면, '인지도', '순수예술 선도' 항목은 부정이 13.2%, 12.3%로 다른 속성 대비 높음

그림3-15-1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에는 대중문화와 순수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현대문화'로 조사하였음)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호감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성의 평가가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 20대가 '인지도', '호감도', '순수예술 선도', '발전 가능성'에서 높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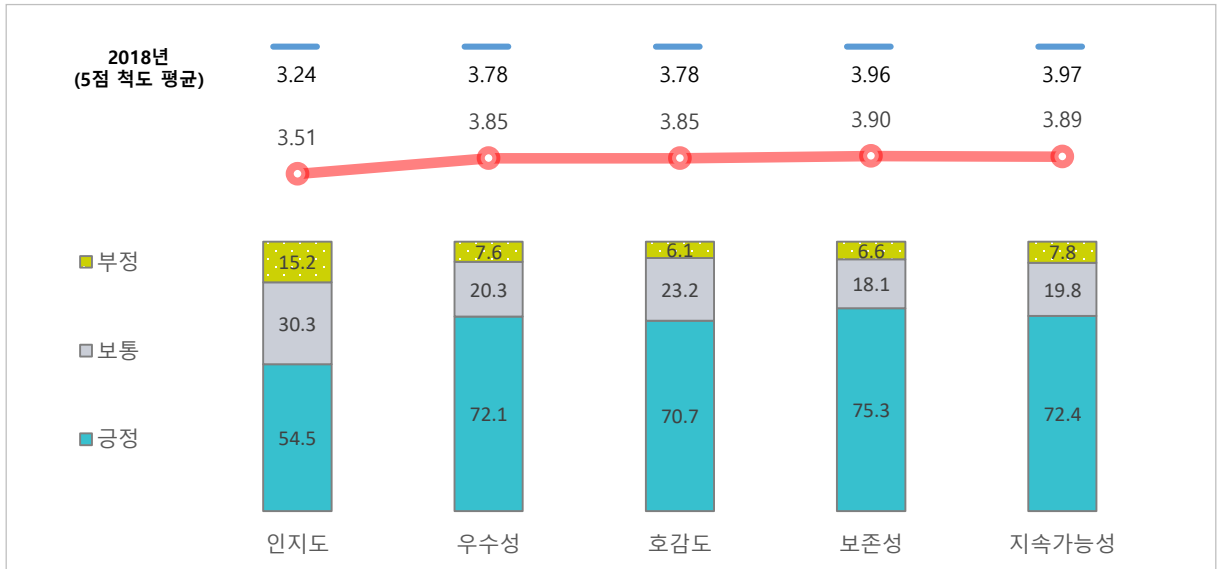
표3-15-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순수예술 (Base: 순수예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17)	(148)	(169)	(36)	(105)	(89)	(45)	(42)
인지도	긍정률	56.5	58.8	54.4	63.9	62.9	58.4	40.0	47.6
	평균	3.58	3.65	3.53	3.75	3.74	3.62	3.27	3.31
경쟁력	긍정률	69.1	74.3	64.5	63.9	77.1	66.3	66.7	61.9
	평균	3.83	3.95	3.73	3.72	4.02	3.81	3.73	3.62
호감도	긍정률	69.7	67.6	71.6	75.0	73.3	71.9	64.4	57.1
	평균	3.90	3.92	3.89	3.92	4.04	3.93	3.73	3.67
순수예술 선도	긍정률	57.7	61.5	54.4	61.1	65.7	60.7	42.2	45.2
	평균	3.66	3.72	3.61	3.75	3.79	3.79	3.36	3.33
발전 가능성	긍정률	73.2	75.0	71.6	83.3	77.1	71.9	62.2	69.0
	평균	3.91	3.97	3.86	3.92	4.06	3.90	3.67	3.86

### 3-3)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70% 이상의 긍정 평가를 보임
- 부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은 속성은 '인지도'로 15.2%가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우수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15-1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든 속성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평가됨

표3-15-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문화유산 (Base: 문화유산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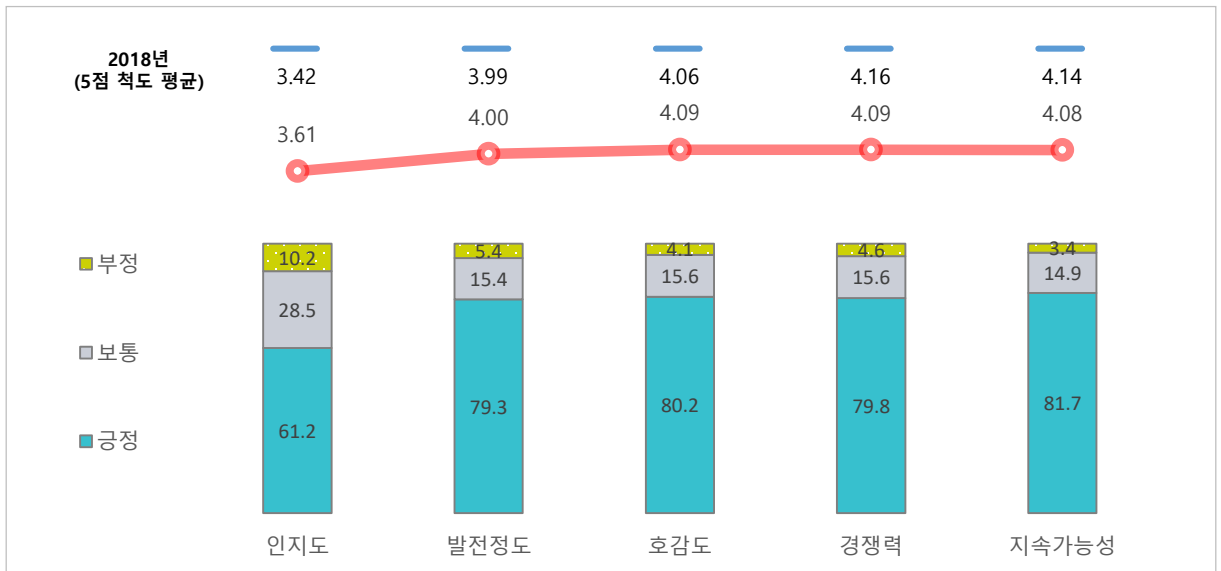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9)	(200)	(209)	(42)	(120)	(97)	(69)	(81)
인지도	긍정률	54.5	59.0	50.2	42.9	57.5	52.6	52.2	60.5
	평균	3.51	3.61	3.41	3.38	3.52	3.53	3.42	3.60
우수성	긍정률	72.1	75.0	69.4	73.8	74.2	68.0	62.3	81.5
	평균	3.85	3.90	3.80	3.90	3.84	3.80	3.70	4.02
호감도	긍정률	70.7	76.0	65.6	64.3	75.0	61.9	65.2	82.7
	평균	3.85	3.95	3.77	3.76	3.88	3.80	3.71	4.05
보존성	긍정률	75.3	77.0	73.7	76.2	74.2	72.2	66.7	87.7
	평균	3.90	3.93	3.88	3.83	3.93	3.87	3.75	4.07
지속가능성	긍정률	72.4	75.0	69.9	64.3	77.5	63.9	68.1	82.7
	평균	3.89	3.95	3.83	3.79	3.97	3.75	3.84	4.04

### 3-4)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 한국 '경제'에 대해 '인지도'를 제외한 모든 속성에서 80% 내외의 긍정 평가를 보임
- 특히, '지속 가능성'은 긍정 81.7%, 부정 3.4%로 가장 높았고, '호감도' 역시 긍정 80.2%, 부정 4.1%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3-15-1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모든 속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3-15-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경제

(Base: 경제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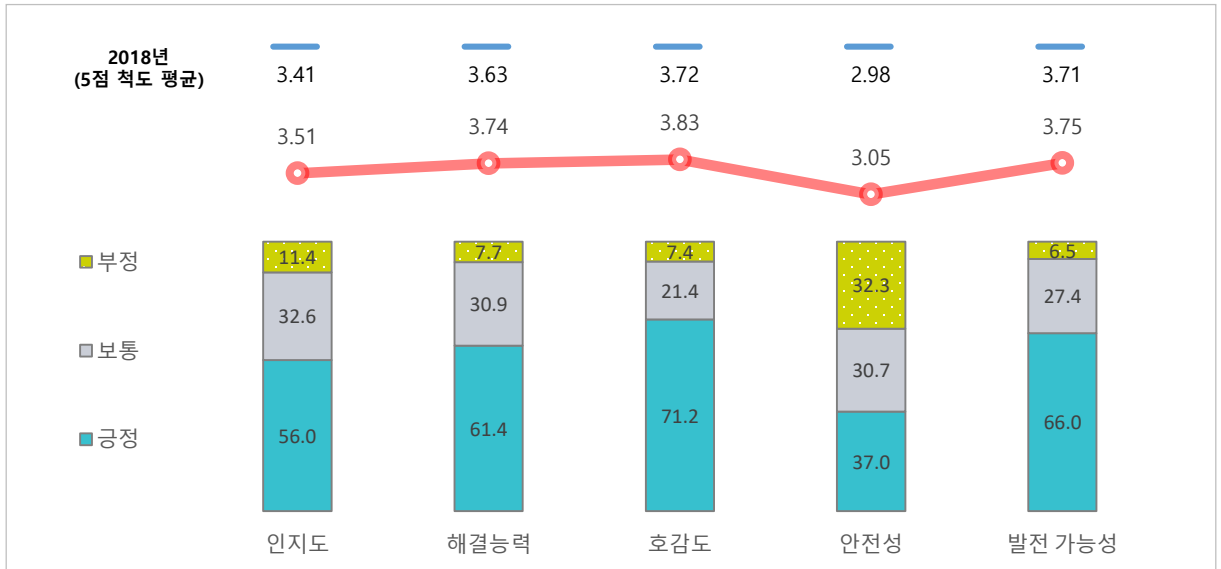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10)	(212)	(198)	(35)	(112)	(110)	(74)	(79)
인지도	긍정률	61.2	62.3	60.1	51.4	63.4	56.4	62.2	68.4
	평균	3.61	3.68	3.53	3.43	3.66	3.56	3.51	3.76
발전정도	긍정률	79.3	82.5	75.8	82.9	77.7	73.6	77.0	89.9
	평균	4.00	4.11	3.87	3.91	4.03	3.87	3.91	4.24
호감도	긍정률	80.2	82.5	77.8	80.0	77.7	73.6	79.7	93.7
	평균	4.09	4.20	3.97	3.89	4.11	4.01	4.04	4.32
경쟁력	긍정률	79.8	82.5	76.8	82.9	77.7	72.7	79.7	91.1
	평균	4.09	4.22	3.94	3.97	4.10	3.98	4.05	4.29
지속가능성	긍정률	81.7	84.9	78.3	85.7	81.3	74.5	81.1	91.1
	평균	4.08	4.20	3.95	4.03	4.09	3.99	3.99	4.30

### 3-5)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 한국 '안보'에 대해 '호감도'는 긍정 71.2%, 부정 7.4%로 매우 긍정적인 반면, '안전성'은 긍정 37.0%, 부정 32.3%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년도와 비교해 모든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3-15-1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대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평가가 높았음. 연령별로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평가가 높았으며, '안전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20대의 평가가 높게 나타남

표3-15-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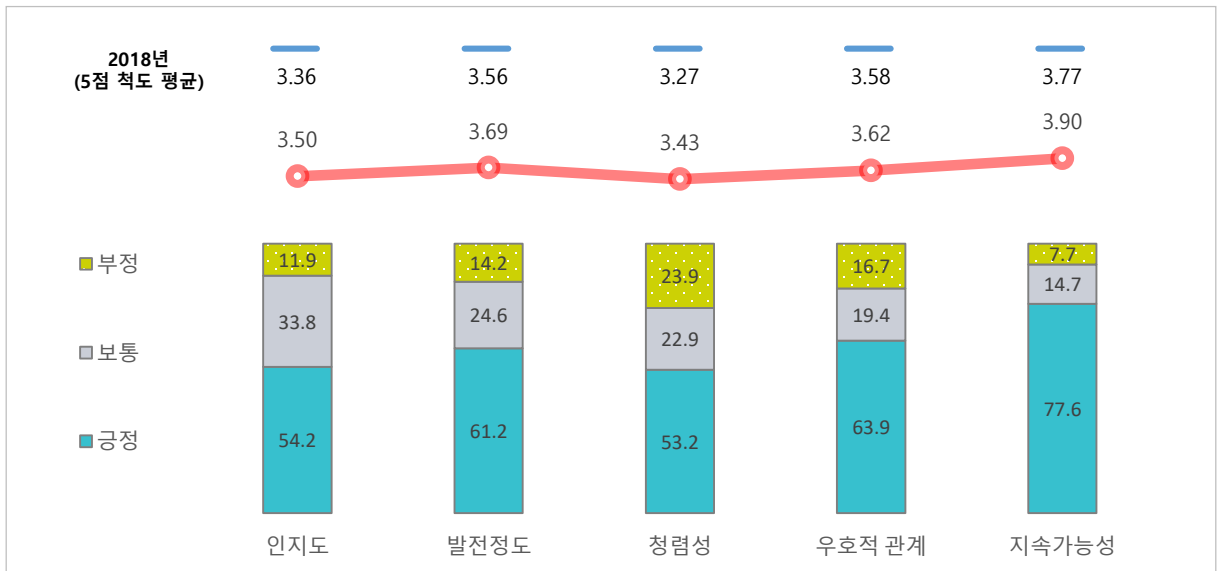
(Base: 안보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사례수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430)	(214)	(216)	(40)	(125)	(115)	(78)	(72)
인지도	긍정률	56.0	57.0	55.1	47.5	59.2	52.2	56.4	61.1
	평균	3.51	3.60	3.43	3.43	3.57	3.43	3.53	3.60
해결능력	긍정률	61.4	64.5	58.3	60.0	60.0	60.0	59.0	69.4
	평균	3.74	3.83	3.65	3.65	3.74	3.74	3.63	3.89
호감도	긍정률	71.2	75.2	67.1	70.0	69.6	63.5	73.1	84.7
	평균	3.83	3.94	3.71	3.65	3.82	3.75	3.81	4.08
안전성	긍정률	37.0	40.7	33.3	37.5	42.4	35.7	29.5	37.5
	평균	3.05	3.14	2.96	2.95	3.21	3.04	2.79	3.11
발전 가능성	긍정률	66.0	71.5	60.6	60.0	71.2	65.2	60.3	68.1
	평균	3.75	3.88	3.62	3.65	3.84	3.76	3.56	3.83

### 3-6)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 한국 '정치외교'에 대해 '지속가능성'은 77.6%의 긍정평가를 받았으며, 이어서 '우호적 관계' 긍정 63.9%, '발전정도' 긍정 61.2% 순으로 높게 평가를 받음
- 반면, '청렴도'는 부정 23.9%로 타 이미지 속성 대비 부정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3-15-1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인지도'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에서 50대 이상의 평가가 가장 높았음

표3-15-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정치외교 (Base: 정치외교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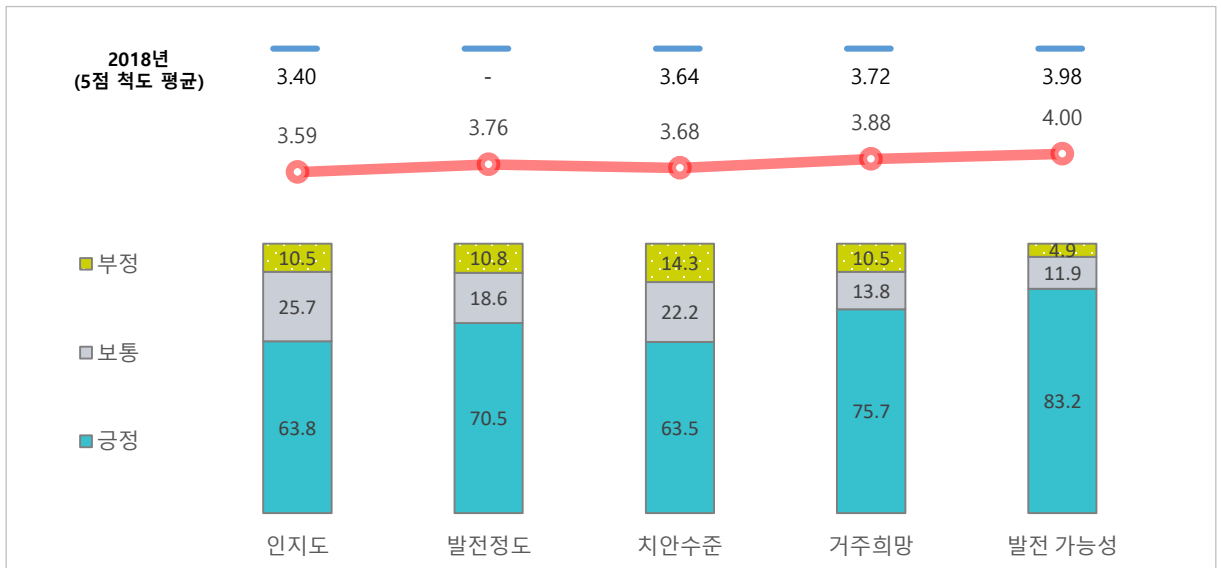
분야	속성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402)	(192)	(210)	(38)	(122)	(106)	(74)	(62)
인지도	긍정률	54.2	56.3	52.4	50.0	46.7	61.3	58.1	54.8
	평균	3.50	3.56	3.44	3.47	3.39	3.64	3.50	3.48
발전정도	긍정률	61.2	64.1	58.6	50.0	59.8	64.2	58.1	69.4
	평균	3.69	3.77	3.61	3.47	3.67	3.81	3.51	3.84
청렴성	긍정률	53.2	59.4	47.6	28.9	57.4	54.7	47.3	64.5
	평균	3.43	3.56	3.31	2.79	3.50	3.56	3.23	3.71
우호적 관계	긍정률	63.9	64.6	63.3	36.8	68.9	67.0	58.1	72.6
	평균	3.62	3.64	3.60	3.13	3.72	3.74	3.35	3.85
지속가능성	긍정률	77.6	80.2	75.2	65.8	78.7	82.1	66.2	88.7
	평균	3.90	3.94	3.86	3.55	3.91	4.06	3.62	4.15

### 3-7)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 한국 '사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83.2%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음
- 이어서 '거주 희망' 75.7%, '발전정도' 70.5%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나머지 이미지도 60% 이상의 긍정 의견을 보임

그림3-15-1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2018년과 평가 속성이 변경되어 동일 항목에 대해서만 2018년 결과 제시)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치안수준'을 제외한 모든 이미지에서 남성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표3-15-10.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사회

(Base: 사회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항목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70)	(178)	(192)	(36)	(108)	(98)	(65)	(63)
인지도	긍정률	63.8	64.6	63.0	61.1	65.7	61.2	55.4	74.6
	평균	3.59	3.62	3.57	3.56	3.65	3.60	3.34	3.76
발전정도	긍정률	70.5	73.6	67.7	66.7	70.4	61.2	67.7	90.5
	평균	3.76	3.83	3.69	3.69	3.78	3.64	3.60	4.10
치안수준	긍정률	63.5	61.8	65.1	63.9	66.7	59.2	55.4	73.0
	평균	3.68	3.74	3.64	3.64	3.75	3.69	3.38	3.89
거주희망	긍정률	75.7	78.7	72.9	72.2	75.0	71.4	72.3	88.9
	평균	3.88	3.99	3.77	3.75	3.92	3.83	3.68	4.17
발전가능성	긍정률	83.2	86.5	80.2	86.1	85.2	76.5	80.0	92.1
	평균	4.00	4.05	3.95	3.97	4.08	3.91	3.85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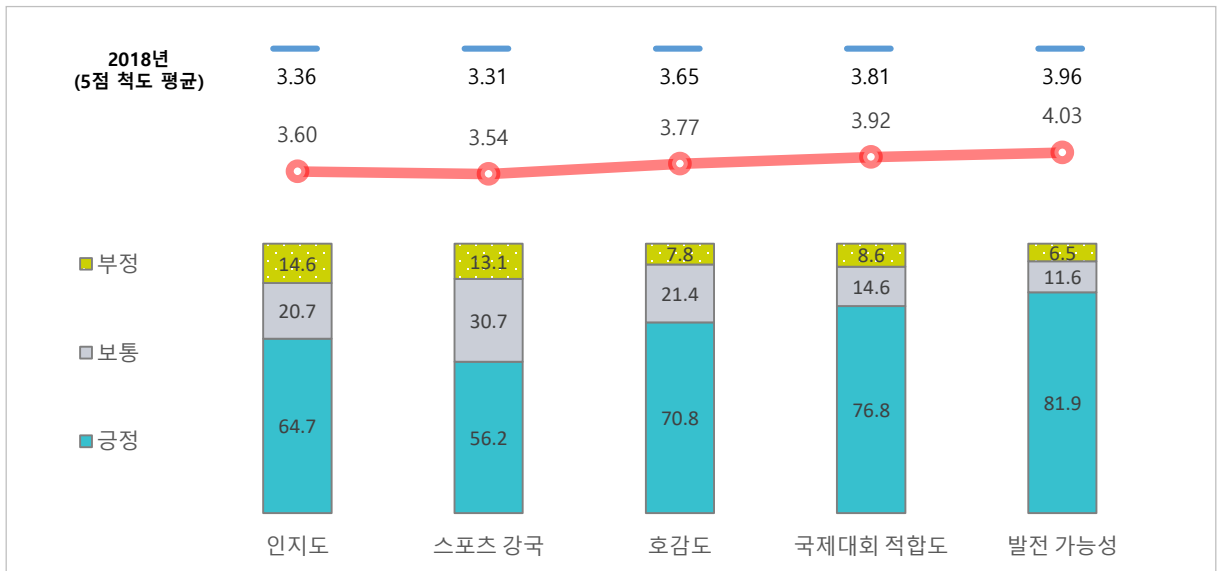


### 3-8)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 한국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 속성 평가에서 '발전 가능성'이 긍정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스포츠 강국' 이미지는 긍정 56.2%, 부정 13.1%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그림3-15-19.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스포츠 강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 평가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인지도', '스포츠 강국', '호감도'에 대해서는 20대가, '국제대회 적합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50대 이상이 높게 평가함

표3-15-11. 분야별 이미지 속성평가 - 스포츠

(Base: 스포츠 인지자,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속성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397)	(190)	(207)	(40)	(115)	(102)	(74)	(66)
인지도	긍정률	64.7	69.5	60.4	60.0	67.0	64.7	66.2	62.1
	평균	3.60	3.71	3.50	3.53	3.67	3.59	3.57	3.58
스포츠강국	긍정률	56.2	53.2	58.9	57.5	59.1	55.9	51.4	56.1
	평균	3.54	3.54	3.55	3.55	3.60	3.54	3.41	3.61
호감도	긍정률	70.8	75.3	66.7	55.0	76.5	64.7	74.3	75.8
	평균	3.77	3.87	3.68	3.70	3.82	3.70	3.76	3.86
국제대회 적합도	긍정률	76.8	78.4	75.4	75.0	78.3	71.6	75.7	84.8
	평균	3.92	4.02	3.84	3.85	3.93	3.86	3.88	4.09
발전 가능성	긍정률	81.9	84.7	79.2	77.5	85.2	73.5	82.4	90.9
	평균	4.03	4.13	3.93	3.93	4.07	3.90	4.03	4.20

## 6 전년 대비 이미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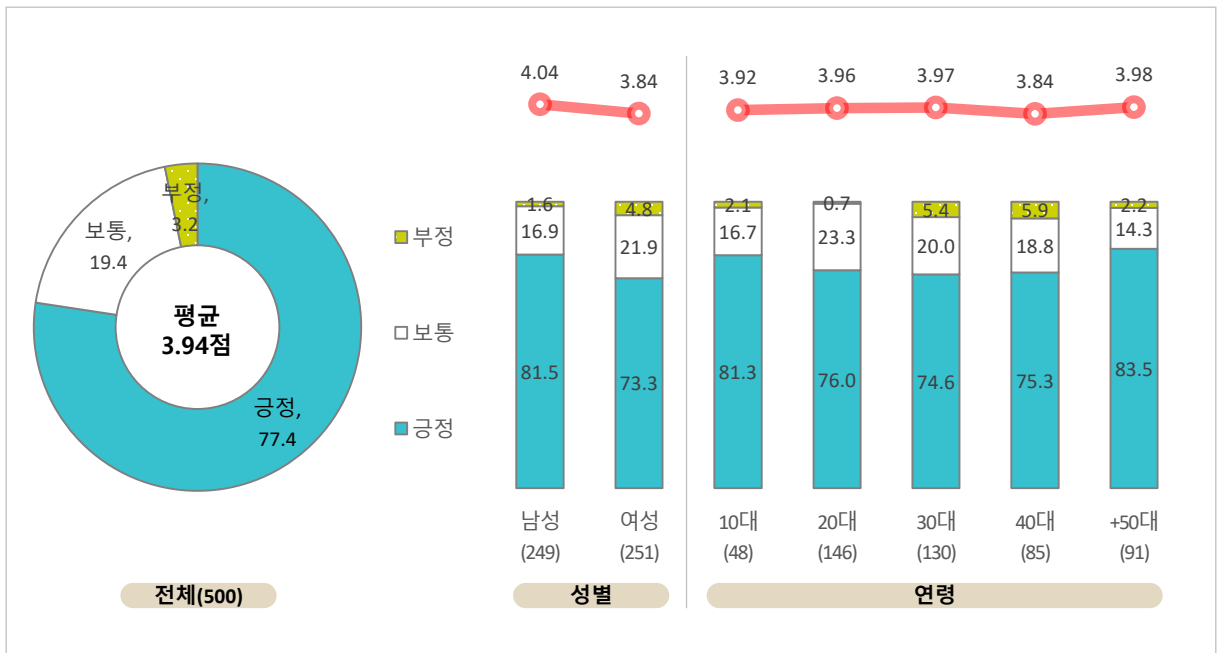
### 1)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한국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변화는 긍정 77.4%, 부정 3.2%로 긍정응답이 높음
- 긍정적 변화 이유로는 '북한/남북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변화 이유로는 '정부/정치적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변화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3-15-20. 전년 대비 전반적 이미지 변화

(Base: 전체,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긍정적 변화 이유(n=387)	
북한/남북관계	7.0
사회/경제/경제발전	5.7
더 많은 정보를 접함	5.2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발전	4.9
기술력/첨단기술	4.9
문화/전통	4.7
정치/대통령	4.4
한국산 제품이 좋음	3.4
스포츠/선수	3.1
K-POP/가수	2.3

부정적 변화 이유(n=16)	
정부/정치적 문제	12.5
북한 문제	12.5
전쟁/핵 위험	6.3
부정적 매체의 영향	6.3
개고기	6.3
민주적이지 않음	6.3
범죄 문제	6.3
사회적 문제	6.3
낮은 취업률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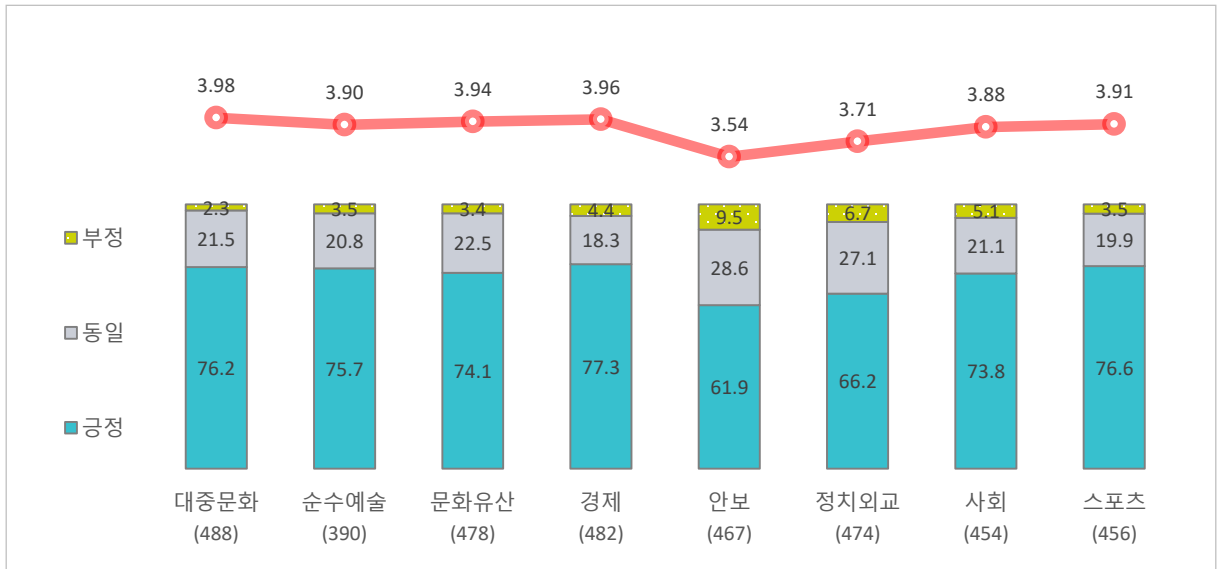
(상위 10개만 제시)

## 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긍정 변화가 부정 변화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안보', '정치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70% 이상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임

그림3-15-21.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응답자 특성별** 여성은 '안보'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남성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0대는 '대중문화', '순수예술', '문화유산', 50대 이상은 '경제', '정치외교', '사회', '스포츠'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5-12. 전년 대비 분야별 이미지 변화

(Base: 분야별 인지도, 단위: %, 점, 5점 척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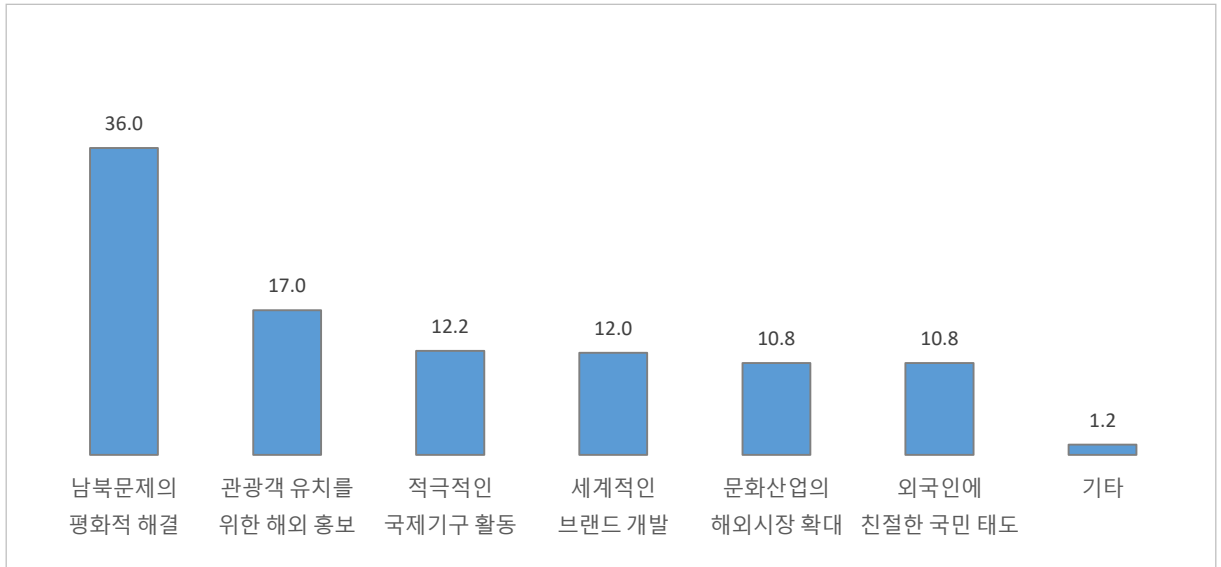
분야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대중문화	긍정률	76.2	80.1	72.5	80.0	76.0	75.5	72.6	79.0
	평균	3.98	4.06	3.90	4.10	4.02	4.02	3.82	3.92
순수예술	긍정률	75.7	78.4	73.4	86.1	79.0	71.9	66.7	76.2
	평균	3.90	3.99	3.83	4.06	3.96	3.92	3.62	3.88
문화유산	긍정률	74.1	78.0	70.3	78.6	71.7	73.2	73.9	76.5
	평균	3.94	3.99	3.89	3.98	3.98	3.95	3.84	3.91
경제	긍정률	77.3	81.6	72.7	82.9	70.5	79.1	73.0	86.1
	평균	3.96	4.07	3.85	3.94	3.91	3.99	3.84	4.13
안보	긍정률	61.9	61.7	62.0	62.5	54.4	63.5	67.9	65.3
	평균	3.54	3.54	3.54	3.63	3.41	3.57	3.62	3.60
정치외교	긍정률	66.2	68.8	63.8	76.3	63.1	62.3	62.2	77.4
	평균	3.71	3.78	3.66	3.79	3.66	3.67	3.65	3.92
사회	긍정률	73.8	75.3	72.4	75.0	71.3	68.4	76.9	82.5
	평균	3.88	3.92	3.84	3.81	3.92	3.87	3.80	3.94
스포츠	긍정률	76.6	78.9	74.4	72.5	76.5	75.5	77.0	80.3
	평균	3.91	3.94	3.88	3.93	3.93	3.88	3.85	3.97

## 7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 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36.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17.0%),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12.2%),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12.0%) 순으로 나타남

그림3-15-22.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응답자 특성별** 연령에서 40대, 50대 이상의 경우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50.6%, 41.8%로 타 연령대비 매우 높았음

표3-15-13.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

(Base: 전체,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사례수	(500)	(249)	(251)	(48)	(146)	(130)	(85)	(91)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36.0	39.8	32.3	33.3	32.2	27.7	50.6	41.8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17.0	11.2	22.7	14.6	13.7	17.7	18.8	20.9
적극적인 국제기구 활동	12.2	11.2	13.1	16.7	15.8	14.6	4.7	7.7
세계적인 브랜드 개발	12.0	14.5	9.6	8.3	11.0	16.2	8.2	13.2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확대	10.8	11.6	10.0	10.4	11.0	13.8	8.2	8.8
외국인에 친절한 국민 태도	10.8	10.0	11.6	14.6	15.1	8.5	9.4	6.6
기타	1.2	1.6	0.8	2.1	1.4	1.5	0.0	1.1

